

제2편 역사



제 1 장

선사시대

조현종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선사시대는 스웨덴의 닐슨(Nilsson, 1787~1883)이 처음으로 제창한 용어이며, 문자에 의한 기록을 통해 삶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역사시대에 앞서 펼쳐진 시대, 즉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를 의미한다.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기록문건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당시인들이 남겨놓은 유적과 유물을 대상으로 당시의 문화적 상황의 추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고고학은 매우 유용한 학문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고고학에서는 문자기록의 유무에 따라 문자이전의 선사시대(pre-historic age)와 기록을 갖는 역사시대(historic age)로 구분하며, 연구대상이 되는 자료의 시기구분에 따라 선사 고고학과 역사 고고학으로도 분류하고 있다.⁶⁷⁾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는 현재 고고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기구분에 의하면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철기가 유입되는 단계에서부터 고종 고분이 축조되고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이 정립되는 삼국시대 이전의 시기까지는 이른바 원삼국시대(proto tripod age)로

67) 鄭明謹, 「선사시대유적」, 『한국문화와 유물유적』, 한국방송통신대학 박교, 문화교양학과, 2007.

서 일부 중국기록을 원용할 수 있어 선사와 역사시대 사이의 과도기적인 시기로 개념적으로는 원사시대(原史時代, proto-historic age)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도된 편집안에 따라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 그리고 청동기시대에 한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사시대는 우리 민족사가 형성되는 기초부분이므로 더욱 체계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역사시대와 연결되어 전 역사의 종합적인 기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제1절 구석기시대

1. 시대개관

구석기시대는 인류문화의 가장 오랜단계로 지질시대의 제4기(Quaternary)의 홍적세(Pleistocene)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인류가 유인원에서 진화하여 나무나 돌을 이용하여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때부터 신석기시대 이전 까지의 문화단계이다.

이러한 구석기시대는 대체로 250만년전에 시작하여 1만년전에 이르기까지 사냥과 채집에 의존하는 자연경제 상태로서 인류의 선사문화단계 중 가장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비로소 도구가 등장하는데, 나무나 뿔을 이용하여 만든 것은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대부분 썩어 없어져 알 수가 없다. 다만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서 만든 소위 뗀석기(타제석기)를 통하여 당시의 문화상을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최초로 도구가 출현하는 구석기시대는 이러한 뗀석기의 종류와 만들새의 특징, 그리고 진화된 인류의 종에 따라 전기(250만년 전~10만년 전), 중기(10만년 전~3만5천년 전), 후기(3만5천년 전~1만년 전)로 나뉘어진다. 전기에는 날의 방향에 따라 외날찍개(chopper), 양날찍개(chopping-tool), 주먹 도끼(hand-axe) 등 대형의 찍개류와 도끼류가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와 직립원인(Homo-erectus, 자바와 북경원인)이 있었다.



중기에는 타격보다 돌의 날을 이용한 칼날석기가 나타나 짐승의 가죽이나 고기비늘, 열매의 껍질 등을 벗기는 데 용이한 굽개(scraper), 밀개(end-scraper), 톱니날석기(denticulate)가 유행하였으며 이때의 문화 담당자는 현생인류의 아종(亞種)인 네안데르탈인(Homo sapiens neanderthalensis)이다. 마지막으로 후기가 되면 우리와 같은 현생인류(Homo sapiens sapiens)가 등장하고, 석기는 중기에 비해 보다 세련되고 소형화되어 손칼과 같은 각종 돌날(blade)과 골각기가 제작되었다.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에 이루어진 북한의 웅기 굴포리와 남한의 공주 석장리 유적의 조사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적이 발견되어 시기적으로도 60만년전 경으로 추정되는 전기유적에서 1만년경의 후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인된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대동강 유역과 남한강 유역 등 주로 석회암 지역에 위치한 동굴유적이나 바위그늘, 그리고 한탄강변의 현무암지대와 제주도의 용암동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경기도 연천 전곡리와 파주 금파리, 충북 단양 수양개, 충남 공주 석장리유적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전남지방에서는 1986년 주암댐 수몰지역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남지방의 구석기문화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주암댐 지역의 유적조사의 결과 승주 신평리 금평·곡천, 보성 죽산, 화순 대전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그 뒤 곡성 옥과 주산리와 입면 송전리, 그리고 순천 월평과 죽내리 등에서 구석기 유적이 조사되었다. 이를 유적은 모두 섬진강의 지류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중기에서 후기로 편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산강 유역의 광주시 산월동 포산, 치평동 및 장덕동의 발굴조사에서도 찍개류와 굽개류 등 구석기 유물이 확인된 바 있으며, 나주 용호, 당가유적을 비롯한 영산강 유역의 단구지역에서도 점차 구석기 유적의 발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⁶⁸⁾

그리나 여수반도를 비롯한 여수지역에 속한 섬들에서 아직까지 구석기시대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된 예는 없다. 하지만, 1965년 순천지역으로 전하는 펜석기가 보고된 바 있고,⁶⁹⁾ 1992년에는 순천시 용당동 망복마을 주변에서 주먹도끼가 채집된 바 있어⁷⁰⁾ 여수반도에서도 구석기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높다.

68) 이기길, 「전남의 구석기 문화」, 『全羅南道誌』 II, 全羅南道誌編纂委員會, 1993.

69) Sample, L.L., Mohr,A., "Progress Report on Archaeological in the Republic of Korea, Arctic Anthropology 2-1, 1965, 101.

70) 李榮文·鄭基鎮, 「順天市의 考古遺蹟」, 『順天市의 文化遺蹟』, 順天大學校博物館, 1992.

제2절 신석기시대

1. 시대 개관

신석기시대는 수렵과 채집으로 대표되는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일정지역에 거주하면서 토기를 발명하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등 식량생산이 이루어졌으며,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마제석기〉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고아시아(고시베리아)족의 한 갈래가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시작되는데,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1만년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알려진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400개소가 넘는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큰 강이나 바닷가, 인근 도서지역에서 원형 또는 네모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들이 남긴 유적으로는 주거지와 패총·무덤 등이 있다.

패총은 먹고 버린 조개껍질이 쌓여 있는 곳으로, 당시의 토기를 비롯한 각종 생활도구들이 함께 출토되기 때문에 당시 생활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보면 이른 시기에는 아직도 사냥과 어로가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으며 후기가 되면 조와 기장 등이 확인되고 있어 원시적인 농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무덤은 시체를 펴놓고 그 위에 자갈을 덮은 형태가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 돌도끼나 장신구, 각종 토기 등이 부장품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이들은 실제로 짠 옷감이나 동물 가죽으로 간단한 형태의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옥, 동물뼈, 조가비 등으로 몸을 꾸몄다. 또한 이들은 일본 열도 중국 동북지역 연해주 등 주변의 여러 집단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문화는 출토된 토기의 형태와 무늬를 중심으로 서북해안 유형, 동북해안 유형, 남부해안 유형 등 3개 지역별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우선 서북해안유형은 토기의 밑이 뾰족한 포탄형이 대표적이며 몸통에 다양한 무늬를 새기고 있는데 무늬의 대부분은 벗살무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동북해안 유형은 거의 납작 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무늬는 번개무늬와 짧은 빛금이 조합된 것이 많다. 반면, 남해안 유형은 이른 시기의 용기문토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변화된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둉근 바닥이 전형적

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의 편년은 조기(10000~6000B.C.), 전기(6000~3500B.C.), 중기(3500~2000B.C.), 후기(2000~1000B.C.) 등 4기로 구분한다.

한편, 전남 지방은 지리적으로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석기시대의 문화적 양상은 남해안 유형에 속한다. 전남지방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신석기시대 유적은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인근의 섬지역에서 발견된 패총유적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보성강 유역의 충적대지에 위치한 후기의 토기 산포지, 그리고 영산강유역에서는 함평 및 광주 효천유적 등의 토기 산포지 및 나주 가흥리의 벼화분 검출지 등이 있다. 패총은 전남지방의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확인된 유적만도 40여 개소가 넘으며 여수시의 남해에 위치한 섬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는 흑산도 일대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남해안 중앙에 위치한 여수반도는 지형적으로 소백산맥의 지맥 일부가 뻗어 내려 형성된 침강해안 지형이다. 이로 인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섬들이 위치한다.

또한 수심이 얕고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여 어류, 해조류, 패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곳에 정착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여수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모두 섬지역의 패총유적이다. 이들 패총유적들은 다도해(多島海)라는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어로와 채집 중심의 생활을 영위하였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수지역의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이 알려진 것은 1966년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가 남해 섬들에 대한 문화재를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⁷¹⁾ 그러나 이후 20여 년간 별다른 조사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여수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이 주목받게 된 것은 1986년 필자에 의해 보고된 돌산지역의 지표조사를 통해 송도패총(松島貝塚)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부터이다.⁷²⁾ 그 뒤 송도패총은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1989년과 1990년 두 차례에 걸쳐 정식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응기문토기(隆起文土器), 압날문(押捺文) · 압인문토기(押印文土器) 등이 출토되어 서남해안지역의 패총유적의 토기자료가 동남해안 신석기문화권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⁷³⁾ 이후 여수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현재 모두 33개소의 패총유적이 알려져 있

71) 김원봉·임호재『남해도서 고고학』,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8.

72) 조현중『여천 흑산도 지표 조사 보고』, 『총국리 II』, 국립중앙박물관, 1986.

73) 지간길·조현중『흑산·송도 I』, 국립광주박물관, 1989.
지간길·조현중『흑산·송도 II』, 국립광주박물관, 1990.

다.⁷⁴⁾

이 중 송도패총(松島貝塚)과 안도패총(安島貝塚)에서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조사된 두 유적을 중심으로 여수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유적과 유물

1) 송도 패총

유적은 돌산읍 군내리 송도의 밭 823·824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국립광주박물관이 1989년과 1990년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하였다. 패총은 섬의 북쪽 해안에 자리한 언덕으로 표고 2~10m 내외이며, 북동쪽으로 경사가 급한 바위절벽이 바다에 면하고 있다.

패총의 규모는 남-북 약 35m, 동-서 약 30m 정도이나 유적의 중심부가 계단 경작에 의해 깎이면서 층위가 심하게 교란되었다. 비교적 층위가 양호한 패각층은 대략 흑갈색 부식토층(1층)-흑갈색 부식흔토패총(2층)-명갈색 흔토패총(3층)-흑갈색 점토층(4층) 등 4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1차 발굴에서는 3층의 패각층 위에 비교적 차진 점토를 깎아 바닥을 다진 주거지를 찾았는데, 지름 4.6m 정도의 평면 원형 또는 타원형 주거지로 밝혀졌다.

주거지 안에서는 지름 45~50cm 정도의 화덕자리와 토기, 석기, 모



▲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 송도패총

릇돌(臺石), 갈돌, 갈판 등 여러 가지 생활도구가 출토되었다. 2차 조사에서도 1차 주거지 아래에서 점토를 다진 바닥에 화덕자리[爐址]를 갖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그 크기는 지름 5.4m 정도이다. 이를 주거지는 남해안 패총유적에서 조사된 최초의 주거지이다.

74) 조현중,『금오도 신석기시대 조개더미유적』,『울산 송도』, 국립광주박물관, 1990.

조현중·박충환·문화수,『여천군 도서 치포조사 보고』,『돌산 세구지 유적』, 국립광주박물관, 1994. 이기길,『전남 여천군에서 새로 찾은 신석기시대유적』,『호남고고학보』, 호남 고고학회, 1994. 金建珠·朴忠煥·文化洙, 『金建珠·李顯業·羅水·기문도와 송호도의 신석기시대 패총』,『顯天大學博物館誌』,前刊卷, 순천대학교박물관, 1999.



송도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 석기, 골각기 등이 있다. 토기는 최하층인 4층에서 무문양토기(無文樣土器)와 함께 응기문토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위층인 3층에서는 새로이 태선문토기(太線文土器)와 주칠토기(朱漆土器)가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 조기(早期)



▲ 덧무늬 토기비리, 송도패총

에 해당되는 응기문토기부터 중기(中期)의 태선문토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송도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퇴적층위의 구성은 비교적 간단하여 경작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다른 원인으로도 여러 차례 교란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와 교란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기는 이음낚시[結合式釣針]와 어망추(漁網鉤) 등 어로도구와 함께 괭이나 보습 등 농경구로 분류할 수 있는 석기들이 출토되고 있어 농경과 어로가 함께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골각기와 조개팔찌[貝釧]도 출토되었다. 유적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4층과 3층에서 채집한 숯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이 5440 ± 170 BP와 5430 ± 170 BP라는 결과가 참고되며, 응기문토기 또한 이 연대와 비슷한 신석기시대 조기에 해당한다.



▲ 출토 석기류, 송도패총

한편, 이곳에서 원거리 교역관계를 보여주는 흑요석(黑曜石)이 출토되었다. 흑요석은 유리질의 화산암으로 강도가 높아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타격만으로 예리한 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석기시대부터 석기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었다. 그러나 흑요석은 화산지대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신

석기시대의 주요한 교역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원산지마다 구성성분이 상이하여 성분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간 문화교류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송도폐총 출토 흑요석은 분석결과 그 원산지가 일본 서북 규슈의 고시다케(腰岳)로 밝혀져 신석기시대에 한·일간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 안도 패총⁷⁵⁾

안도폐총은 1992년 국립광주박물관이 실시한 남해도서 지표조사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를 통해 모두 세 지점에서 패총을 확인하였는데, 응기문토기를 비롯하여 원거리 교역관계를 보여주는 흑요석 등 특징적인 유물이 채집되어 유적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⁷⁶⁾ 이 가운데 당시 '가' 패총으로 명명되었던 유적을 2007년 국립광주박물관이 발굴조사하였다.

유적은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로 이루어진 안도의 서도 북단 저평지(해발 8m)에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층위는 크게 패각층-패각자갈흔합층-자갈층 등 3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패각층은 순패각층과 혼토패각층이 반복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양상이며, 부분적으로 흑갈색 사질점토층을 기준으로 I 층(상층)과 II 층(하층)으로 구분된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무덤 4기, 주거지 2기 등 다수의 생활 흔적과 응기문토기를 비롯한 남해안 신석기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500여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류를 볼 때,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의 응기문토기를 비롯하여 전기 단계의 압인문토기, 중기 단계의 태선문토기, 후기 단계의 이중구연토기(二中口緣土器) 등 남해안

75) 趙現鍾·梁成赫·尹澤植, 2009, 「安島貝塚」, 國立九州博物館·福水市。

76) 조한중·박충완·은희수, 1994.



▲ 결상이식, 안도폐총



신석기시대 전시기에 걸친 토기가 층위를 이루면서 출토되고 있어 여수지역 신석기문화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다.

석기류는 도끼날, 대패날, 숫돌 등 공구류가 많고, 이밖에도 석창(石槍), 이음낚시의 축부(軸部), 결상이식(玦狀耳飾), 석시(石匙)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도끼류는 뗀석기류와 일부마연석기(刃部磨研石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골각기류는 조개팔찌, 뼈로 만든 자돌구(刺突具), 낚시바늘〈釣針〉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중 조개팔찌는 70여 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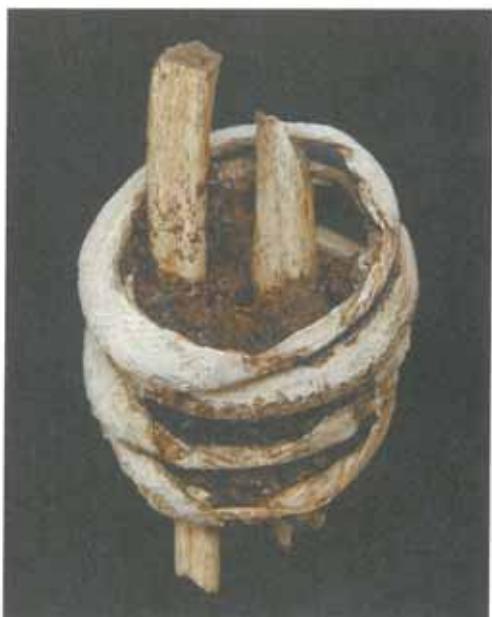
이 유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모두 5개체의 인골이 확인된 신석기시대 무덤과 신석기시대의 한·일 간 교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무덤은 얇은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은 뒤 패각이 섞인 흙을 덮은 토광묘(土廣墓)로 시신은 모두 하늘을 보고 바로 누운 앙와신전장(仰臥伸展葬) 형태이다.

무덤에서 확인된 인골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신석기인의 형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모두 4기의 무덤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1기는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운 합장묘(合葬墓)이다. 이러한 합장묘는 신석기시대 무덤으로는 처음 확인된 것으로, 인골분석 결과 두 사람은 각각 20대의 여성(1호)과 30대의 남성(2호)으로 밝혀져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

인골의 성별은 5개체 중 남성이 3개체(2호 3호 5호), 여성이 2개체(1호 4호)이고, 연령은 20대 1개체(1호), 30대 2개체(2호 3호), 50대 1개체(4호), 60

대 1개체(6호)로 다른 유적과는 달리 노년층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60대 남성의 하악골(下顎骨)에서 추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인 하악융기(下顎隆起)가 확인됨으로써 한반도 신석기인의 계통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한편 2호와 3호 인골은 오른쪽 팔목에 조개팔찌를 차고 있었다. 이는 경남 통영 상노대도의 산등폐총에서 조개팔찌를 찬 신석기시대 인골의 확인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3호



▲ 인골(팔)에 장착된 패천. 안도폐총

인골의 경우 모두 5개의 조개팔찌를 차고 있었다. 이 두 인골 모두 30대 남성이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이렇듯 안도패총에서 확인된 합장묘를 비롯한 무덤, 조개팔찌 착용 등은 신석기시대의 매장풍습을 비롯한 의례행위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출토된 용기
문토기 가운데에는
그간 우리나라 신석
기시대 유적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무늬와 기형이 발견
되는데 폐각으로 토
기의 안팎면을 손질
한 평저 발형의 토기
가 그것이다. 이 토

▲ 흑요석



기는 일본 조몽시대(繩文時代) 전기의 규슈지역(九州地域)에서 유행했던 도도로끼토기(轟式土器)와 유사하다. 남해안의 다른 패총유적에서도 일본 규슈지역의 조몽토기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모두 파편임에 비해 이 유적의 조몽토기는 기형의 복원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흑요석 220여점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단일유적에서 출토된 양으로는 최대이다. 인근의 송도패총에서 출토된 흑요석과 같이, 안도패총에서 출토된 흑요석 역시 일본 규슈지역이 원산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본 조몽시대의 특징적인 석기인 석시(石匙) 1점도 확인되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 남해안지역과 일본 규슈지역 간 교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앞으로 안도패총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면 남해안 지역과 규슈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적 고리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3) 그밖의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

이 밖에 여수시지역에서 확인된 패총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여수시지역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패총유적

연번	유적명	소재지	출토 유물
1	대횡간도패총	남면 대횡간도	융기문토기, 압날문토기 등
2	화태도(가)패총	남면 화태도	태선문토기, 돌도끼, 숫돌, 갈돌 등
3	화태도(나)패총	남면 화태도	압인문토기, 태선문토기, 보습, 끌 등
4	화태도(다)패총	남면 화태도	압인문토기, 태선문토기, 숫돌 등
5	안도(나)패총	남면 안도	융기문토기, 압인문토기, 태선문토기 등
6	안도(다)패총	남면 안도	압인문토기, 태선문토기 등
7	연도패총	남면 연도	압인문토기, 태선문토기 등
8	월호도(가)패총	남면 월호도 비자금	융기문토기, 압인문토기 등
9	월호도(나)패총	남면 월호도 비자금	무문양토기 등
10	월호도(다)패총	남면 월호도 밀징포	압인문토기, 태선문토기 등
11	개도(가)패총	화정면 개도 정목	무문양토기 등
12	개도(나)패총	화정면 개도 정목	융기무토기, 압인문토기, 돌칼, 숫돌 등
13	개도(다)패총	화정면 개도 신흥	무문양토기, 돌칼 등
14	개도(라)패총	화정면 개도 대동	융기문토기, 압인문토기, 돌도끼 등
15	개도(바)패총	화정면 개도 서삼	갈돌, 갈판 등
16	개도(사)패총	화정면 개도 모전	압인문토기, 무문양토기 등
17	백야도패총	화정면 백야도	융기문토기, 갈돌 등
18	낭도패총	화정면 백야도	빗살무늬토기 등
19	둔병도(가)패총	화정면 조발리	빗살무늬토기 등
20	둔병도(나)패총	화정면 조발리	빗살무늬토기 등
21	하고도패총	화정면 조바리	빗살무늬토기 등
22	거문도패총	삼산면 서도리	융기문토기, 골각기 등
23	손죽도(가)패총	삼산면 손죽리	빗살무늬토기 등
24	손죽도(나)패총	삼산면 손죽리	빗살무늬토기 등
25	금오도패총	남면 유송리 여천	빗살무늬토기, 이중구연토기, 숫돌 등
26	묘도패총	묘도동 묘도초교 뒤	
27	대경도(가)패총	경호동 내동	빗살무늬토기 등
28	대경도(나)패총	경호동 오복	융기문토기, 압인문토기, 돌도끼 등
29	대경도(다)패총	경호동 오복	빗살무늬토기 등
30	대경도(라)패총	경호동	압인문토기, 돌칼, 숫돌 등

여수시 도서 패총 분포도



이상에서 보면 여수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신석기시대 패총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당시 사회 및 문화의 복원에 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도와 안도패총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석기와 토기류, 그리고 인골 자료는 일본 및 남해안과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여수지역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 신자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해안 및 일본 규슈지역을 포함하는 문화적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청동기시대

1. 시대 개관

청동기시대는 석기를 사용하던 인류가 새로이 구리(Cu)와 주석(Sn)을 합금하여 만든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기술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한 시기이다. 이때에 이르면 농경과 목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생산력이 증가하고 교역의 증대를 가져와 계층이 분화되고 신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등 사회전반에 커다란 변혁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청동기문화는 기원전 10세기경 만주와 몽고지방 등 북방문화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초의 유입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단지 요녕식 동검 등 전기에 속하는 청동기의 출토상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방이 속한 한반도 남부지방은 이보다 시작연대가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대에는 무늬가 새겨진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달리 무문토기(無文土器)가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간석기〈磨製石器〉 등과 청동제 유물이 제작되었고 점차 벼농사가 확산되었다.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강이나 바닷가, 넓은 들 또는 야산에 땅을 파고 만든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 대체로 10여호 정도가 일반적이나 크게는 수십~백여호 이상의 대형취락도 발견되고 있다.

움집의 형태는 바닥이 네모나 긴네모꼴, 또는 원형이 일반적이며, 전남지방에서는 광주시 송암동과 영암 장천리, 승주 대곡리 등 여러 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청동기시대를 특징짓는 토기는 무문토기가 대표적이다. 무문토기는 대체로 지역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데,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바닥이 좁은 팽이형토기, 함경도와 두만강유역 등 동북한 지방의 공열토기, 그리고 한강 이남의 남부지방 무문토기가 그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의 무문토기는 서남부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송국리형토기와 함께 서북계 또는 동북계 토기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변형팽이형토기·공열토기·구순각목문토기 등이 있다. 이러한 무문토기

외에도 청동기시대에는 홍도·채문토기·점토대토기 등 여러 종류가 출토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도구는 청동기에 비해 석기류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농경과 관계된 간석기가 대부분이다. 당시의 석기류는 경지의 확대를 위한 나무의 벌채 및 목제품의 가공을 위한 크고 작은 도끼류와 자귀, 끌 등의 공구류, 곡식의 수확을 위한 각종 돌칼과 돌낫, 땅을 일구는 데 쓰이는 팽이나 돌삽, 그리고 조리를 위한 식생활용의 갈판 및 갈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사냥이나 전투용의 석검·석촉, 의생활의 일면을 알 수 있는 방추자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시대의 무덤에는 지석묘·석관묘·적석목관묘·옹관묘 등이 알려져 있지만 이 가운데 지석묘가 대표적이다. 지석묘는 크게 탁자식(卓子式), 기반식(棋盤式), 개석식(蓋石式)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만주일대와 북한지역에는 탁자식이 많고, 남한지역에서는 기반식과 개석식이 주를 이룬다.

지석묘에서는 민무늬토기, 붉은간토기, 반달돌칼, 석검, 석촉 등이 부장품으로 발견되며, 요령식 동검 문화와 관련된 청동기 및 장신구가 발견되기도 한다.

지석묘는 프랑스 브레타뉴반도 및 지중해 해안과 인도를 거쳐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지방에는 2만여기 이상이 밀집되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지석묘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여수반도의 지석묘에서 출토된 요녕식 동검 등 청동유물도 이러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세형동검이나 거울, 방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청동기류가 출토되는 석관묘와 적석목관묘는 시기적으로 요녕식 동검 단계에 이어지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물이며 전남지방에서는 화순 대곡리유적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청동기의 제작에 사용된 용범(鎔範)이 영암 구림지역에서 출토된 바 있어 이 지역이 청동기 제작기술이 상당한 단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 시대 유적에서 탄화미가 공반되거나 볍씨 자국이 찍힌 토기 등이 출토된 바 있어 벼농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유적과 유물

77) 이명관·조근우, 「천남의 고대묘제」, 전라남도·목포 대학교박물관, 1996.
박준범, 「여수시의 고고유적」, 「여수시의 문화유적」, 여수시·조선대학교박물관, 2000.

78) 최인선, 「여수의 문화유적」,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심미안, 2009.

79) 이영문, 「麗川市 一番의 先史文化」, 「麗川文化」, 麗川市文化院, 1990.

80) 평면 원형의 수형주거지의 중앙부에 타원형의 작업공이 배치된 것으로, 충남 부여군 조촌면 송국리유적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명명된 유형이다.

여수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지석묘와 주거지가 있다. 지석묘는 1,700여기 이상이 확인되고 있는데,⁷⁷⁾ 대체로 구 삼일면(39개군 365기), 울촌면(30개군 340기), 화양면(31개군 334기) 지역이 분포 밀도가 높다.⁷⁸⁾

지석묘는 1988년 봉계동과 월양 지석묘(14기) 발굴 이래 적량동 상적(25기), 평여동 산본(29기), 오림동(17기), 월내동(35기) 지석묘가 1990년을 전후하여 발굴이 이루어져 한국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어서 미평동 양지와 죽림(13기), 돌산 세구지(3기), 화장동 대통·약물고개·화산(62기), 화양면 화동리 안골(63기) 등지의 지석묘가 발굴됨으로써 여수반도 일대의 지석묘 문화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독특한 내용을 보이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여수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 옥, 석검 등의 부장이 유행하였으며,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지석묘 하부구조가 발견되는 등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⁷⁹⁾

주거지는 지석묘에 비해 조사된 유적은 이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송도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확인된 주거지에 이어서 청동기시대의 이른바 송국리형 주거지⁸⁰⁾가 조사되고 있어 여수지역에서는 시대적 공백 없이 주거문화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사람들의 무덤인 지석묘의 분포 상황에 미루어 보면 앞으로 주거지의 조사 또한 증가되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발굴 조사된 유적들을 중심으로 여수지역의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지석묘 유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거지

① 화장동주거지⁸¹⁾

화장동 유적에서는 80여기의 타날문토기를 내는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나' 지구와 '라' 지구에서 각 2기씩 4기의 청동기시대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바닥의 중심부에 타원형의 작업공이 위치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와 원형계가 각각 2기씩이나 방형계는 모서리를 다듬은 말

81) 崔仁善·外, 「麗水 朱長洞遺蹟」 II, 丽天大學校博物館·麗水市, 2002.

각(抹角)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원형계에 가깝다. 대체로 주거지는 구릉의 사면부에 조성되어 하단부가 유실되었다.

주거지의 장축은 대개 등고선과 나란한 북동—남서방향이며 규모는 원형계 : 지름 294cm, 방형계 : 길이 610cm 정도이다. 유물은 석촉, 숫돌, 무문토기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 화장동 발굴 조사후 근경

② 화양면 화동리 안골주거지

화양면 화동리 지석묘 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기의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주거지가 폐기된 뒤에 지석묘가 조영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거지의 형태는 내부에 작업공이 배치된 이른바 송국리형이다. 비교적 형태가 완전한 1호의 평면이 원형계(직경 430~416cm)인 점을 감안하면, 형태를 알 수 없는 나머지도 동일한 평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 주거지에서는 무문토기와 홍도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그밖에 1·4호에서 출토된 숫돌이 있다. 이 가운데 3호는 특히 토기편의 출토량도 많을 뿐 아니라 토제 어망추·석촉·대팻날, 그리고 다량의 숫돌 등 탁월한 유물의 부존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것은 당시 생업에서 어로(漁撈)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 주거지가 어떠한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송국리형 주거지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농경 가옥으로,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서 꽃넓게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심지는 충청도 일대의 중서부와 전남지역을 포함한 호남 지역이다. 따라서 여수반도의 청동기시대 주거 양상은 다른 전남 지역과 같이 송국리형으로 대표되는 주거 유형의 제일성(齊一性)을 보여준다.

한편, 청동기시대에 이어서 타날문토기 단계의 주거지가 소라면 덕양리 조산마을⁸²⁾과 미평동,⁸³⁾ 화장동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주거지는 시기적으로 원삼국시대의 것으로, 타날문이 시문된 장난형토기, 발(鉢), 그리고 숫돌이

82) 조현종·박충환, 「소리 조선주거지」, 『동신 세구자료』, 국립관주박물관,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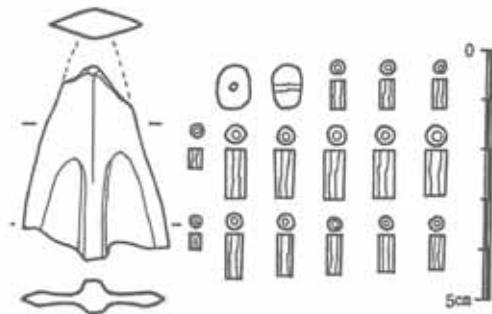
83) 裴承玲·趙鎮先·徐智珠, 『襄水 美坪洞 隋地遺跡』, 全南大學校博物館, 1998.

공반된다. 특히 이들 유적에서는 일반적으로 탄화된 보리〈炭火麥〉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기후 사정에 따른 식량 수급 방식이 이전 시대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2) 지석묘

84) 李榮文,『麗川市 鳳溪洞
支石墓』, 全南大學校博物
館·麗川市, 1990.

① 봉계동 지석묘 84)



▲ 봉계동 월양 10호 출토 유물

봉계동 지석묘는 1988년 조사되었으며 봉계동 월양 일대에 평지를 따라 동-서 방향으로 수개의 군집을 이루면서 15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지 정리지 구 내에 있는 10기가 조사되었으며 8기에서 묘실이 확인되었다.

상석은 대체로 두께가 100cm 이상 되는 괴석형(塊石形)이고 지석은 6기에서 보인다. 이 중 10호 지석묘에서 요령식동검 봉부(鋒部)와 관옥 14점, 소옥 1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출토 상태로 볼 때, 옥은 피장자의 머리 근처이며 동검은 피장자의 왼쪽 발치에 놓여 있었다.

이 밖에도 유병식 마제석검 4점, 석창 1점, 유경식 마제석촉 8점과 민무늬 토기편, 붉은 간토기편 등이 있으며 민무늬토기 중에는 공렬토기(孔列土器) 편도 있다.

85) 이영문,『여천 척량동 상
적 지석묘』, 전남대학교
박물관·여천시, 1993.

② 적량동 상적 지석묘 85)

적량동 상적 지석묘는 적량동 상적마을에 위치하며 광양만 남단의 계곡 끝 부분의 산기슭과 평지가 만나는 대지상에 배치된 14기로 1989년 조사되었다. 묘실은 4기에서만 확인되었으나 7호만 완전하고 나머지는 파괴된 상태였으며, 상석들은 대개 동-서방향으로 2열을 이루고 있었다.

지석묘 주변에서 새로이 21기의 묘실이 발견되어 모두 25기가 확인되었는데, 판석으로 짜 맞춘 석관형이 3기, 할석을 쌓거나 세운 석곽형이 22기였다. 지석묘의 묘실은 적석으로 서로 엇대어져 있는 것과 단독으로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적석의 상태를 보면 6개 구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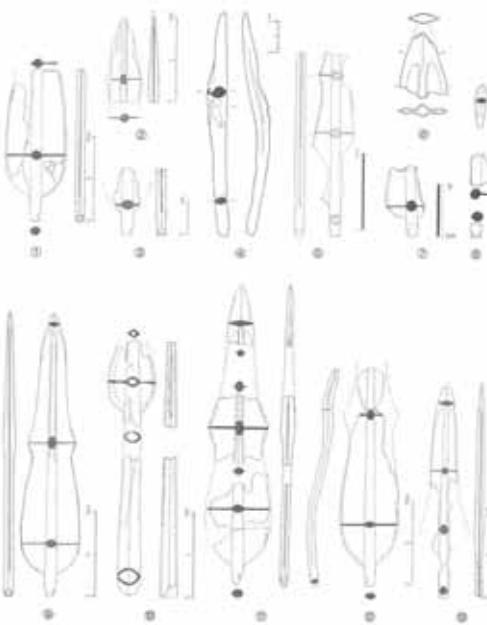
적량동 지석묘군에서는 요령식동검, 요령식동모, 마제석검, 관옥, 유구석부, 유단석부, 석착을 비롯하여 민무늬토기편과 붉은 간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요령식 동검과 동모 등 청동기이다. 모두 8점이 출토되었는데, 각각 7기의 묘실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 7호 지석묘 출토 요령식 동검은 완형(完形)으로 발견되었는데, 동검 밑에서 목질 흔적이 있어 목제칼집(木製劍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여타 지석묘에서 편이나 절단된 즉 이차전용품(二次轉用品)이 출토되는 것과는 달리 완형의 비파형 동검 1점이 발견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2호 석곽에서는 파편이지만 완형으로 추정되는 요령식 동검과 봉부가 절단된 요령식 동모 그리고 소형관옥 5점이 일괄로 출토되었는데, 특히 요령식 동모가 확실한 유구에서 확인된 것은 초기 청동유물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적량동 지석묘 출토 청동기(요령식 동검, 동모)



〈도면 여수반도 지석묘 출토 청동기류〉
비파형 동검 : 1호 지석묘 11호 지석묘 2호 지석묘 3호 지석묘 22호 할석 4호 석곽 5호 석곽 6호
유구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관옥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마제석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석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비파형 풀모 : 1호 지석묘 2호 지석묘 3호 지석묘 4호 지석묘 5호 지석묘 6호 지석묘 7호 지석묘 8호 지석묘 9호 지석묘 10호 지석묘 11호 지석묘 12호 지석묘 13호 지석묘 14호 지석묘 15호 지석묘 16호 지석묘 17호 지석묘 18호 지석묘 19호 지석묘 20호 지석묘 21호 지석묘 22호 지석묘 23호 지석묘 24호 지석묘 25호 지석묘

▲ 여수반도 출토 요령식 동검 문화단계의 청동기류

또한 요령식 동검 문화단계의 청동유물 8점이 한 지역에서 출토된 예는 한반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요령지방의 초기 청동유물 출토 유적과 비견되어야 할 것이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기원전 6~4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80) 李榮文·延仁善·鄭基訓
『麗川 平邑面 선본 灰石
墓』 全南大學校博物館
麗川市, 1993.

③ 평여동 산본 지석묘 86)

평여동 산본에 위치하는 지석묘군으로, 1989년에 발굴조사되었다. 이 지석묘군은 산기슭 아래 사면과 평지부 등에 가, 나, 다군 등 3개 지역에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가군은 산기슭 아래 사면에 위치하며 원래 1기의 기반식 지석묘와 8기의 상석이 있었다.

조사 결과 8기의 상석의 묘실은 발견되지 않아 이동된 것으로 보이며, 그 주변에서 상석 없는 묘실 11기가 확인되어 모두 12기의 묘실이 조사되었다. 1호 지석묘의 상석은 장축, 단축, 두께가 3.1, 2.5, 1.8m의 괴석형(塊石形)이며, 지석 8개가 상석 주위를 돌아가면서 고이고 있었다.

가군의 묘실은 먼저 만들어진 할석을 쌓은 석곽형의 묘실과 후에 만들어진 토광형(土壙型)에 가까운 석곽형으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목관과 토광 사이에 할석으로 간단히 메워 놓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묘실의 배치는 1호 지석묘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1호 적석을 파괴하고 축조된 것도 있다. 유물은 유구석부, 석축, 민무늬토기편, 붉은 간토기편, 소옥(小玉)등이 출토되었다.

가군 1호에서 북동쪽으로 약 60m 떨어진 나군의 지석묘는 산줄기 방향으로 9기의 상석이 2열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일부 파괴되어 묘실은 4기만 확인되었다. 동쪽에 치우쳐 거대한 기반식 지석묘가 있는데, 상석의 크기가 $3.6 \times 2.9 \times 2.4\text{m}$ 로 지석 2개가 고이고 있었지만 묘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2호 지석묘에서 퇴화된 요령식 동검 1점이 출토되었고, 4호 지석묘에서는 관옥 4점과 석축 2점이 출토되었다.

다군은 산기슭 아래 평지에 3기의 상석이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주변에서 상석 없는 5기의 묘실이 발견되어 모두 8기가 조사되었다. 이곳에도 한쪽에 거대한 상석을 지닌 지석묘를 배치하였는데, 상석의 크기는 $2.4 \times 2.0 \times 1.7\text{m}$ 로 고임돌 5개가 고이고 있어 웅장하게 보이지만 묘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군 묘실은 할석으로 잘 쌓은 석곽형이 대부분이지만 5호처럼 판석으로 간단히 세워 축조한 것도 있다. 구조상으로 주목되는 점은 타원형의 적석 주위를 판석을 세워 구획한 것인데, 3호와 6호 지석묘에서 보인다. 이 중 3호는 다량의 옥(玉)이 부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유적 중에서는 가장 많은 량인 350여점의 옥류가 일괄로 출토된 것이다. 2호에서는 곡옥 2점, 대롱옥 29점, 소옥 204점 등 옥류 235점, 3호에서는 환옥 2점, 관옥 106점 등 옥류 108점이 발견되었다.

이와같이 평여동 지석묘군은 부장품으로 볼 때 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단의 피장자 무덤으로 생각된다. 주로 마제석검이나 마제석촉 등은 전남 보성강 유역에서 출토되고, 여수반도 지역의 지석묘에서는 청동기와 옥이 빈번히 출토되지만, 이처럼 많은 양의 옥류만 부장된 예는 아직 한국에서 보고된 바 없는 유일한 유적이다. 기원전 6~4세기경으로 추정되는 평여동 지석묘군은 청동기가 다량으로 부장된 인근 적량동 지석묘군과 함께 한국 지석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④ 오림동 지석묘⁸⁷⁾

^{87) 이영문·정기진『여수 오림동 지석묘』, 전남대학교 박물관·여수시, 1992.}

오림동 오림정 마을의 조그마한 분지형 계곡 평지에 위치한 10여기의 지석묘로 1989년 조사되었다.

이 지석묘군은 상석이 대형의 괴석형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장축 방향은 하천의 방향과 일치한다. 묘실은 할석을 쌓은 석곽형이 17기, 판석을 세워 짜 맞춘 석관형이 1기이다. 개석은 5기에서 확인되었는데 모두 판석 4~5매로 묘실을 덮고 있다. 적석은 교란되어 뚜렷하지 않은 것이 많으며, 일부는 적석 외곽을 장대석으로 돌려 막아 묘역을 표시한 것도 있다.

오림동 지석묘군에서는 요령식 동검, 마제석검편, 석촉, 유구석부, 석착, 관옥, 구슬, 민무늬토기편, 붉은 간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요령식 동검은 8



▲ 지석묘 출토 장신구, 옥류, 평여동 산본 지석묘



▲ 오림동 지석묘 5호에 새겨진 자루식 간돌검

호 지석묘와 5호 석곽에서 출토되었는데, 5호 석곽에서는 관옥도 함께 출토되었다. 요령식동검과 관옥이 공반하는 예는 적량동과 봉계동 지석묘에서도 확인된다.

오림동 지석묘군에서 주목되는 것은 5호 지석묘 상석 측면의 암각화이다. 전남지방 최초로 확인된 이 암각화에는 그 중심에 유병식 마제석검과 인물상 2인이 묘사되어 있고 그 아래

와 옆에 여러 종류의 물상들이 음각되어 있다.

지석묘 상석에 석검이 암각된 예는 경북 영일 인비동 지석묘와 홍해 칠포리 지석묘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인물상의 암각은 이곳 오림동 유적이 유일하다. 지석묘 양식이나 출토 유물을 고려하면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7~6세기경으로 파악된다.

86) 지간길 - 조현준, 「이천·월내동 지석묘」, 국립광주박물관 - 어천사, 1992,

⑤ 월내동 지석묘 88)

월내동 지석묘는 적량동 상적 지석묘의 동쪽 구릉에 위치하며 1990년 총 32개의 묘실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원래 35기 이상의 지석묘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발굴 조사 당시에 상석 26기가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묘실 위에는 상석이 각각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적은 표고 60m 안팎의 비교적 낮은 구릉성 산록의 완사면에 위치하며 구릉의 말단부는 바다에 면하고 있다.

상석은 평면 형태 장방형과 타원형으로 가장 큰 것은 크기 $308 \times 223 \times 62$ cm, 무게 10.5톤 정도이고, 가장 작은 것은 $153 \times 44 \times 37$ cm, 무게 0.6톤이 조금 넘는다. 지석은 모두 6기에서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2기만 4매가 괴어 있고 나머지는 일부만 남아있다. 하부구조는 묘실의 주변에 할석이나 판석을 한 두 겹으로 얇게 덮은 평면형태 원형과 타원형, 일부 장방형으로 부석시설(敷石施設)을 하고 호석(護石)을 돌린 것과, 묘실 주위에 호석만 가진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묘역(墓域) 표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묘실은 할석으로 쌓은 석곽형으로 바닥에 작은 자갈을 깐 것이 대부분이지만 판석을 2~4매를 깐 것도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구순각목공렬토기, 바닥에 구멍 뚫린 민무늬토기,

붉은간토기, 유병식 마제석검, 유경식 마제석검, 유경식 마제석총, 석부, 유구석부, 어망추 등이 있다. 한편 8호 지석묘에서는 범씨자국이 있는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는 해안평야를 끼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벼농사가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월내동 지석묘는 지역적으로 동일한 문화 영역으로 생각되는 적량동·평여동·오림동 지석묘와 달리, 청동기와 옥류 등이 출토되지 않고 석기류 및 토기류의 출토가 비교적 많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동일한 지역이나 구역에 속하는 유적이라 할지라도 일부 문화적 성격을 달리하는 집단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당시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자료로 해석해 볼 수 있다.

⑥ 돌산 세구지 지석묘⁸⁹⁾

^{89) 조현중·장재근『돌산 세구지 유적』 국립민주박물관 1994.}

돌산읍 우두리 세구지에 위치한 유적으로 1991~1992년에 조사되었으며 청동기시대 지석묘 3기와 청동기에서 원삼국에 걸친 제사 유구 1기가 있다. 세구지 지석묘는 우두리 백초마을과 세구지마을사이로 표고 5~7m의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설상대지(舌狀台地)에 입지하고 있다.

1호 지석묘와 2호 지석묘는 깐돌에 의해 부분적으로 서로 연접되나 각각의 독립된 묘역을 가지며, 3호는 유적의 동남쪽인 구릉의 말단부에 독립적으로 입지한다.

1호 지석묘는 지하에 석곽형 묘실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개석과 상석을 얹는 형식으로 묘실 주변에 부석을 돌려 묘역을 표시한 부석부가지석묘(敷石附加支石墓)이다.

상석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320 \times 170 \times 72\text{cm}$ 이다. 상석 아래에 지석 1매를 놓아 상석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석은 1매의 판석을 얹어 묘실을 덮었다. 묘실의 크기는 $115 \times 48 \times 50\text{cm}$ 로 크고 작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2~3단 쌓아 만들었다.

유물은 묘실 내부에서 붉은간토기와 민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고 주변에서 유경식 마제석검이 출토되었다. 2호 지석묘의 상석은 평면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170 \times 100 \times 22\text{cm}$, 묘실은 크기 $140 \times 40 \times 40\text{cm}$ 로 벽석 구조는 1



▲ 돌산 세구지 고인돌(돌산읍 우두리)

호와 유사하다. 유물은 묘역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와 회갈색 연질의 타날문 토기편이 있다.

3호 지석묘의 상석은 평면 세장한 장방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300×95×78cm로, 지석 1매가 받치고 있다. 묘실 등 하부구조를 갖추지 않은 지석묘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민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제사유구는 조사된 지석묘군의 중앙에 위치하며, 동서 장축인 3개의 장대석을 중심으로 다시 1매의 장대석이 덮개돌처럼 얹혀 있는 형태로, 그 동쪽에는 윗면이 고른 편평석 1매가 남북방향으로 놓여 있다.

이 유구는 자연상태로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퇴적토에서 민무늬토기와 원삼국시대의 경질토기, 그리고 숫돌 등이 충위를 달리하여 출토됨으로써 이들 유물이 일정시기 동안 어떤 의식행위와 함께 투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물의 투기 예는 지석묘 축조와 함께 행해지는 매장의례의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파의식(破儀式)의 결과로 짐작된다.

90) 范仁善·李東熙·宋美珍,
『碳水 末長洞遺蹟』, 朝
天大學校博物館·碳水史
2001.

⑦ 화장동 대통 지석묘 90)

화장동 대통 지석묘군은 1996년 발굴 조사되었으며 대통마을 118번지 일대의 낮은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지석묘군은 일부 이동된 것도 있지만, 27기의 지석묘가 대체로 등고선과 나란한 북동-남서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었다.

지석묘의 대부분은 상석의 평면형태가 타원형·부정형·장방형인 개석식이다. 하부구조인 묘실이 확인된 것은 10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부구조에 돌이 한두 겹 깔려 있지만, 묘실이 없거나 덮개돌이 이동된 것으로 확인된 10기의 묘실은 모두 석곽형이다. 묘실의 개석은 모두 4기에서 확인되었는데 관석 1~3매를 이용하였다. 한편, 3호와 24~27호 지석묘 주변에는 묘실의 보호시설 내지 구획석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되어 다른 지석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석렬로 묘역을 구분한 24~27호 내에서는 요령식동검 1점과 관옥 15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 밖에도 이 지석묘군의 묘실 내에서는 소옥 1점, 마제석총 2점, 민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고, 묘실 주변에서는 석부 1점, 토제어망추 3점, 숫돌 1점, 갈돌 1점이 출토되었다.

⑧ 화동리 안골 지석묘⁹¹⁾

화동리 지석묘는 화양면 화동리 안골마을에 위치하며 2002~2003년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 전 상석 5기가 논둑에 옮겨진 상태였으며 원래 15~20기의 상석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조사 결과 상석 수보다 훨씬 많은 63기의 묘실이 확인되었다.

화동리 지석묘군은 열을 지어 분포하는 다른 지석묘군과는 달리 비교적 좁은 공간에 다수의 묘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묘실의 장축도 동일하지 않고 인접한 묘실끼리 상호 직교하여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화동리 지석묘의 또 다른 특징은 원형적석유구(圓形積石遺構)를 중심으로 다수의 묘실이 연접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형적석유구는 모두 3기(12호·20호·39호)가 확인되었는데, 이중 가장 상태가 양호한 12호의 경우 지름 6m의 적석유구 내에 3개의 묘실이 있고, 그 주변에 11기의 묘실이 에워싼 형상이다.

출토된 유물은 마제석검 8점, 마제석촉 9점, 석착 4점, 유구석부 1점, 반달돌칼 1점, 어망추 14점, 관옥 2점을 비롯하여 민무늬토기와 붉은간토기 등이다. 이 중 마제석검은 대체로 적석시설이 없이 부석으로 구획된 하부구조를 갖는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⑨ 을촌면 가장리 지석묘⁹²⁾

을촌면 가장리 평촌마을에 위치하는 가장리 지석묘로 1999년 발굴 조사되었다. 3기 가운데 1호에서만 묘실이 확인되었고 2기는 파괴되고 지석 일부만 남아 있다. 1호 지석묘의 상석은 그 크기가 $292 \times 196 \times 116\text{cm}$, 무게 12톤으로 3기 중 가장 대형이다. 묘실의 구조는 할석을 쌓아올린 석곽형이다.

출토 유물은 유병식마제석검(有柄式磨製石劍) 2점과 민무늬토기편들이다. 마제석검 1점은 1호 지석묘에서 출토되었고 다른 1점은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1호 지석묘 출토 마제석검은 벽석 밖에서 봉부(鋒部)가 땅을 향하여 45° 기운 상태로 출토되어 지석묘에서의 마제석검의 부장 풍습과 부장 위치를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91) 李東熙·李順量, 「여수 화동리·관기리유적 -여수 경자정리지구 발굴조사보고서-」, 順天大學校博物館·麗水市, 2006.

92) 최인선·이순엽, 「여수 가장리·평촌·자석묘」, 『순천대박물관지』 제2호, 순천대학교박물관, 2000.



93) 이명로·김진영, 「여수·화장동 약물고개·대방리 지석묘」, 『국립대학교박물관』, 여수시, 2001.

⑩ 화장동 약물고개 지석묘 93)

화장동 약물고개에 위치한 지석묘군으로 1996년 조사되었다. 지석묘 7기와 상석이 없는 묘실 12기가 확인되었는데, 이 지석묘군은 해발 41~42m의 구릉의 능선에 등고선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석묘의 상석은 대체로 장방형이나 원형으로 그 크기는 장축 199~358cm, 단축 142~328cm, 두께 86~130cm 내외이다. 묘실은 할석으로 3~4단 정도 쌓은 석곽형과 판석을 짜 맞춘 석관형으로 구분된다. 묘실의 바닥은 잔돌이나 판석을 전면에 깔거나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대체로 잔돌을 전면에 깐 것이 가장 많다. 개석은 할석을 이용해 전면을 덮었으며, 일부는 판석 1매로 덮기도 하였다. 4~2호 묘실은 바닥 전면에 목탄과 재가 깔려 있어 당시 매장풍습(埋葬風習)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석묘에서 묘역시설(墓域施設)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일부는 잔돌을 쌓아 묘역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 유적에서는 유병식 마제석검 3점, 숫돌 1점, 유경식 석촉 2점 등의 석기와 관옥 2점, 민무늬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방사성 탄소연대는 그 중심 연대가 기원전 10~9세기로 알려졌다.

⑪ 화장동 화산 지석묘

1998년 발굴 조사된 지석묘군으로, 화산마을 뒤편 해발 50~60m의 구릉상에 위치하며, 상석은 등고선 방향인 동~서 방향으로 6기가 2열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중 5기는 하부구조가 파괴되었거나 이동되었으며, 이외에도 상석이 없는 묘실 8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새로이 확인된 8기의 석곽은 2호와 5호 지석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서 11m, 남~북 12m의 비교적 좁은 공간에 상석이 있는 석곽과 같이 등고선 방향인 동~서 장축을 이루고 있다. 묘실은 지상에 할석을 돌린 위석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석곽형이다. 이중 4호와 5호 묘실은 그 규모가 각각 80×40cm, 70×34cm로 작은 편으로, 다른 무덤방과 비교해 볼 때 피장자가 어린이로 판단된다.

이 지석묘군에서는 마제석검 1점, 마제석촉 6점, 유구석부편 1점, 숫돌 1점, 공렬토기편을 포함한 민무늬토기편, 붉은간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은 대체로 묘실 내에서 출토되었는데, 마제석총은 3호 지석묘에서 2점이 출토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 묘실에서 1점씩 출토되었다.⁹⁴⁾

② 미평동 양지 지석묘⁹⁵⁾

미평동 양지 772번지에 위치하며 1993~1994년 발굴 조사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5기의 지석묘와 원삼국시대의 주거지와 토기가마, 삼국시대의 석실묘(石室墓)가 함께 확인되었다.

지석묘는 해발 75m 정도의 경사면에 5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2호와 4호만 제자리에 가까울 뿐 나머지는 모두 이동되었다. 상석은 무게 1~7톤 정도로 소형이며 대체로 평면 장방형이다. 가장 잘 남아있는 4호도 상석이 남서쪽으로 밀려있었는데 장방형이며 크기 210×137×89cm, 무게 4톤이다. 이 지석묘는 장축이 동-서 방향이며 지석은 없었으며, 적석시설도 없거나 묘실 주위를 보강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하부구조인 묘실은 편평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석곽형으로 바닥은 자연석을 전면적으로 깔았으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한 서북서-동남동이다. 석곽 중앙의 북벽 쪽에서 유병식 마제석검 1점이 칼끝을 서쪽으로 향한 채 출토되었다.



▲ 미평동 양지유적 전경

2호는 이미 심하게 파괴되었지만 민무늬토기와 함께 손칼(刀子), 타날문토기가 수습되어 삼국시대의 석실계 무덤으로 전용(轉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석묘는 곡성 연화리, 광주 매월동 동산 지석묘에서도 확인된다.

③ 복산리 마산 지석묘⁹⁶⁾

소라면 복산리 마산의 해발 215m와 183m 높이의 산 사이의 고갯마루 정상에 위치하며 2006~2007년 발굴 조사되었다. 7기의 상석이 조사되었는데, 이 중 1기만이 비석의 받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동되지 않았을 뿐, 나머

94) 崔仁善·李東熙, 「臨水 禾長洞 禾山·月下洞 史石墓」, 韓天大學校博物館·韓國水資源公社, 2000.

95) 林永珍·趙誠先·徐賢珠, 「臨水 美坪洞 陽地 遺蹟」, 全南大學校博物館·臨水市, 1998.

96) 김경미, 「여수 마산·화동 유적」, 제5회 호남고고학 회·유적발표회-06·07 호남지역의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2007.



지는 원래 자리에서 이동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3기의 묘실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1기는 바닥석만 남아 있는 것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부정형이며,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확인된 3기의 묘실은 모두 석곽형이며, 벽석은 판석과 할석을 함께 사용하였다. 바닥은 작은 할석과 판석을 전면에 깔거나 일부에 깐 것으로 구분된다. 유물은 4호 묘실 내에서 유병식 마제석검 1점이, 상석 주변에서 완형의 유병식 마제석 검 1점이 출토되었다.

97) 박미란,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제8회 호남고고학 회 유적발표회-07·08 호남지역의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2008

⑭ 소라면 죽림리 차동 지석묘 97)

소라면 죽림리에 위치하며 2008년 발굴조사되었다. 지석묘는 해발 50~70m의 곡간사면부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4개의 묘역에서 모두 9기의 묘실이 확인되었다. 묘역은 방형과 원형으로 구분되는데, 3기의 방형 묘역에서는 묘역 내에 각 1기의 묘실이, 1기의 원형 묘역 내에서는 5기의 묘실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할석을 이용한 석곽형 묘실을 가진 단독묘 1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1호 묘실에서 마제석총 9점과 석창 1점, 묘역 주변에서 삼각형의 반달돌 칼이 출토되었다.

98) 최인선·조근우, 「여수 미평동 죽림 지석묘」, 순천대학교박물관·여수시, 1998.d

⑮ 미평동 죽림 지석묘 98)

미평동에서 만성리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와 산기슭에 위치하며 1996년 발굴조사되었다. 원래 16기가 산재되어 있었으나, 이 중 8기는 발굴조사 당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발굴조사는 삭토된 단애부 끝에 위치한 나머지 8기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상석의 규모는 가장 작은 것이 3톤이고, 가장 큰 것이 22톤으로 차이가 많으나, 대체로 4~9톤 정도이다. 묘실은 4기에서 확인되었는데, 모두 할석을 2~3단 쌓아 올린 석곽형이다. 묘실의 바닥은 바닥 전면에 할석 또는 판석을 깔거나 일부에 할석을 깔았다. 묘실을 덮은 개석은 가-4호에서만 확인되었는데, 판석 4매를 이용하였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가-6호 지석묘에서 유병식 마제석검 1점이 봉부가 북쪽을 향한 채 파편으로 확인되었으며, 가-4호 지석묘에서는 민무

느토기편이 확인되었다. 한편 가-6호 지석묘에서 삼국시대의 고배편이 나왔는데, 이는 후대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3) 여수지역 지석묘문화의 특징과 성격

이상에서 여수지역의 지석묘 유적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유적은 봉계동, 평여동, 적량동, 오림동, 월래동, 상암동, 화장동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암각화의 발견 뿐 아니라 마제석검, 석창, 석축 등 석기류와 민무느토기, 붉은간토기 등 토기류를 비롯하여 요령식 동검, 요령식 동모 등 청동기와 관옥, 곡옥 등의 많은 옥제품이 출토되었다.

이 중 다량의 청동기와 옥제품의 부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예로 여수지역 지석묘 문화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특징은 지석묘 부장품 주인공의 성격을 밝히는 데나 청동기시대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수지역이 한반도 남해안 청동기 문화의 한 중심지역 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여수지역 지석묘 문화가 갖는 대표적인 특징인 암각화와 청동기·옥류, 그리고 토기에 찍힌 범씨 자국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고자 한다.

① 오림동 암각화

오림동 유적의 지석묘는 대형의 괴석형 상석이 웅장하게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출토된 유물도 비파형동검, 석검편, 석축, 유구석부, 석착, 관옥, 소옥, 무문토기편, 홍도편 등 비교적 많고 다양한 편이다.

이 오림동 지석묘의 5호 상석 측면에서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암각화(岩刻畫)가 확인되었다. 암각화가 새겨진 상석의 석질은 안산암이고 무게는 27톤 정도이다. 비교적 면이 고른 남쪽면에 음각으로 새긴 그림이 위치하는데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석검 1례와 인물상 2례이다.

석검은 암각면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칼집에 끗혀진 채 검끝이 아래를 향한 형식으로, 이른바 내부 투시기법, 즉 렌트겐법에 의한 조각 수법이 드러나 있다. 석검이 등장하는 암각화는 경북 영일 인비동⁹⁹⁾과 칠포리¹⁰⁰⁾에서도 발견된다. 그 중 인비동에서 발견된 석검에는 칼집이 묘사된 사례가 있다.

이들 유적의 주변지역에 70여기 정도의 지석묘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고

99) 李健英 외, 「済州군 영일군 지표조사보고」,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17호, 국립중앙박물관, 1985.

100) 한형철·이하우, 「七浦里 岩刻畫群 調査報告」, 古城, 浦項製鐵古文化研究會, 1990.



▲ 암각화, 여수 오림동5호 지석묘

려하면 석검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암각화와 지석묘의 상호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다음, 인물상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의 높이 13cm 정도인 ⑦과 14cm 정도로 서 있는 모습의 ⑨ 등 2례가 확인된다. ⑦는 석검의 바로 옆에 배치되고 있는데 마치 석검을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뜨들어 올린 형태로 기원이나 숭배와 같은 의례의 모습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⑨는 선자세로 양팔을 등글게 허리에 대고 있는 형태인데 등근 부분을 여성의 가슴으로 이해하여 여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선으로 된 이러한 인물상은 현재까지 발견 예가 없지만, 석검과 함께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석검을 매납하는 장송의례의 일면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② 지석묘에서 출토된 청동기

여수지역에서 알려진 청동기는 지석묘에서 출토된 이른바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¹⁰¹⁾과 동모(銅鉢)가 주종을 이룬다. 지금까지 출토된 청동기의 수자는 13점이며 출토 유적은 적량동 상적지석묘 ; 동검 7점, 동모 1점, 오림동 지석묘 ; 동검 2점, 평여동 산본 지석묘 ; 동검 1점, 봉계동 월양 지석묘 ; 동검 1점, 그리고 화장동 대통 지석묘 ; 동검 1점 등이다.

101) 비파형동검은 청동기시대의 전기를 대표하는 유물로, 중국의 동북지역인 요령성(遼寧省) 일대에서 주로 발견되어 요령식동검이라고도 한다. 이 동검은 그 형태가 현악기의 하나인 비파(琵琶)와 비슷하여 '비파형동검'이라 이름이 지어졌다. 동검은 호선의 기부와 물기부를 가진 모자형으로 휘어진 날, 물기부가 있는 둠대 등 형태적 특징이 있다.

〈표2〉 여수지역 지석묘 출토 청동기와 주요 공반유물

유적명	청동기		유적내 공반유물	비고
	비파형동검	동모		
적량동 상적 지석묘	7(7호지석묘, 2호 4호, 9호, 13호, 21호, 22호 석곽)	1 (2호 석곽)	석검 1, 유구석부 1, 유단석부 1, 석착 2, 방추차 1, 관옥 5, 마석 1, 어망주 1	무문토기, 홍도편
오림동 지석묘	2(8호 지석묘, 5호 석곽)		소옥 1, 관옥 2, 석검 2, 유구석부 1, 석축 1, 석착 1	암각화(석 검1, 인물2) 무문토기, 홍도편
평여동 산본 지석묘	1(2호 지석묘)		소옥 257, 환옥 2, 곡옥 2, 관옥 170	무문토기, 홍도편
봉계동 월양 지석묘	1(10호 지석묘)		소옥 1, 관옥 15, 석검 4, 석축 8, 석창 1	무문토기, 홍도편
화장동 대동 지석묘	1(26호 지석묘)		소옥 1, 관옥 15, 석축 6, 석부 2, 석착 1, 어망주 4	공렬토기, 홍도편

적량동 유적의 청동기는 비파형동검 7점, 동모 1점 등 전체 8점으로 단일 유적으로는 우리나라 최대의 비파형동검 관련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동검은 1 점(7호)만이 완형이고 나머지는 파편으로 존재한다.

동검은 경부에 흠이 파져 있는 송국리 석관묘¹⁰²⁾ 계통으로 우리나라 서남 해안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형식에 속한다. 이와 함께 7호 지석묘와 21 호 석곽에서 출토된 동검이 놓인 자리에는 동검의 검초(劍鞘)로 보이는 목질 혼적이 확인되었다.

한편, 동모는 이 유적의 2호 석곽에서 발견된 1점이 있다. 자루 상단이 부 러지고 봉부 끝이 결실되어 돌기부는 알 수 없지만, 타원형을 보이는 자루의 단면 등과 봉합선이 측면에 위치한 점, 날의 가장자리에 2단의 주조흔이 남아 있는 점 등은 전형적인 비파형동모의 특징이다.

이 유구에서는 비파형동검과 소형관옥 5점이 일괄로 공반되었으며 특히 비파형동모가 확실한 유구에서 확인된 것은 여수지역 청동기문화의 복원 뿐

102) 金永培·安承周, 「扶餘
松範里 遺葬式銅劍」出土
石棺墓, 「吉林省文化7·8
合集」, 1975.



아니라 한반도 초기 청동기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할 수 있다.

오림동 유적은 암각화가 발견된 기원전 6세기대를 중심연대로 하는 지석묘군으로, 2점의 비파형동검(8호 지석묘, 5호 석곽)이 출토되었다. 두 점 모두 작은 파편으로 원래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경부와 기부를 통해보면 양단에 흄을 가진 비파형동검이다.

다음 평여동 산본 유적에서는 나군 2호 지석묘에서 동검이 출토되었다. 등대와 날의 일부만 남아 있어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동질 및 등대의 단면형태에서 비파형동검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 화장동 대통유적 요령식 동검

함께 출토된 이 동검편은 피홈의 흔적과 등대의 단면에서 비파형동검의 특징이 관찰되고 있다.

화장동 대통유적의 동검은 봉부 상단 및 검신이 파손된 것이나 호선(弧線)의 기부, 검날 돌출부의 존재, 단면 원형의 등대, 경부의 홈 등 비파형동검의 특징이 뚜렷이 보인다.

이상과 같이 여수지역에서 확인된 청동유물은 시기적으로 빠른 단계인 비파형동검 단계로, 기원전 7~6세기를 중심으로 하여 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파형 동검문화는 요녕지방의 동검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한반도에 걸쳐 분포되는 비교적 넓은 문화권역을 갖는다.¹⁰³⁾

이 가운데 여수지역 출토 동검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는 경부의 홈은 요녕지방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형태이며, 한반도에서도 중서남부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특수한 형식이다. 문화적으로는 특별히 송국리 형 주거문화와 분포권이 중복되고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남방식 지석묘에서 출토되는 경향이 강하다.

초기 청동기문화를 구성하는 비파형동검은 만주와 북한지역에서는 미송리 형토기와 결합되며 석관묘 출토량이 많지만, 남한지역에서는 지석묘 출토가

103) 李批五, 『韓國의 遺跡文化』, 「特別展-韓國의 青銅器文化-」, 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 凱文社, 1992.

이밖에 봉계동 월양 지석묘와 화장동 대통지석묘에서도 각각 1점씩의 비파형동검편이 확인되었다. 봉계동 월양에서는 10호지석묘에서 비파형동검 칼끝 1점이 출토되었다. 소옥 및 관옥 등과

대부분이며 그 가운데서도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지방이 압도적이다. 고흥 운대리(雲垈里),¹⁰⁴⁾ 보성 덕치리(德峙里),¹⁰⁵⁾ 순천 우산리(牛山里)¹⁰⁶⁾ 등 전남 동부지방의 비파형동검 관련 유적도 섬진강 및 그 외연의 남해안지역으로 기본적으로는 여수지역과 동일한 권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어지는 세형동검 문화단계와 차별성을 갖는 내용이다. 대체로 적석묘관묘와 토광묘에서 출토되는 세형동검은 아직까지 여수지역 일대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모는 비교적 길다란 소켓이 달려 있는데, 이 형태는 대체로 중국 동북지방의 길립 장춘지구에서 보이는 초기 형식이다. 전남지역에서는 보성 봉릉리(鳳陵里) 유적에서 출토된 1점이 있는데, 비교적 소형의 파편으로 형태상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

③ 지석묘에서 출토된 옥

옥은 일부 신석기시대에도 확인되고 있으나 천하석제 식옥(天河石製 飾玉)을 포함한 장신구는 청동기시대에 본격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지역에서는 지석묘 출토품으로 요녕식 동검 등과 공반된다. 출토된 옥의 종류는 곡옥(曲玉), 관옥(管玉), 소옥(小玉), 환옥(丸玉)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관옥과 소옥이 압도적으로 많다.

관옥은 가운데 길게 구멍이 나 있는 둥근 막대모양의 옥으로 구멍에 실을 끼어 머리나 얼굴, 또는 목에 걸어 장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수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이 출토되는 대부분의 지석묘에서 관옥이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평여동 산본 지석묘에서는 170여점이 출토됨으로써 우리나라 최대의 관옥 출토 유적이다.

곡옥은 곱은 옥으로도 불리며 머리 부분에 위치한 구멍에 소옥이나 관옥 등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평여동에서 2점(다군 2호)이 출토되었으며 재질은 천하석제이다. 소옥은 천하석제로 만든 크기 0.5cm 이하가 대부분이지만, 1cm

104)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探査」第1卷, 藤井社, 1947.
趙理謹·外, 《高興雲岱·安峙支石墓》, 國立光州博物館, 2003.

105) 尹德香, 「德峙里 신기 치석묘」, 『住岩洞 水浸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Ⅲ-87支石墓, 全南大 學校博物館·全羅南道, 1989.

106) 宋正煥·李榮文, 「牛山里 내우 支石墓」, 『住岩洞 水浸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Ⅲ-86 支石墓, 全南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 1988.



▲ 평여동 다군 3호 지석묘 출토 옥

내외의 것도 발견된다.

후자는 특히 평여동 가군 2호 및 다군 5호에서와 같이 동일 석실내에서 2점이 쌍으로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 환옥은 직경 3cm 정도의 단면 타원형으로 가운데가 볼록한 주판알 형태이다. 평여동 다군 3호에서 2점이 발견되었다. 이 지석묘에서는 크고 작은 관옥 136점이 함께 공반되었다.

이러한 옥의 부장은 청동기와 함께 여수지역 지석묘 유물부장이 갖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평여동 지석묘에서 확인된 옥은 여수지역 지석묘의 피장자나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여수지역 가운데 적량동 상적은 청동기 부장을 특징으로 하며, 월내동이나 봉계동 유적은 석검부장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평여동 지석묘는 기본적으로 옥류와 관련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옥생산의 장인이거나 옥의 원석을 소유 또는 교역하는 집단 등 당시 사회적으로 옥과 관련된 독특한 위치를 점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④ 토기류와 벼농사

여수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 토기류는 무문토기와 흥도가 대부분이나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기형은 없다. 무문토기 가운데는 공렬토기가 월내동 및 화장동 유적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렬토기 문화의 파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렬토기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 전반의 대표적인 토기로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서 폭넓게 발견되고 있으나 중서부 일대에서는 확인된 예가 많지 않다. 특히 이 지역 묘제가 지석묘이며 관련 생활유적은 화동안골과 화장동유적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송국리형 주거지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송국리형 문화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에 출현하고 중기를 대표하는 문화유형으로서 특히 송국리형 토기는 점토대토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한다.¹⁰⁷⁾ 그런데 화동 안골 유적에서는 상호 중복관계를 보이는 지석묘가 폐기된 송국리형 주거지에 후행하여 조성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¹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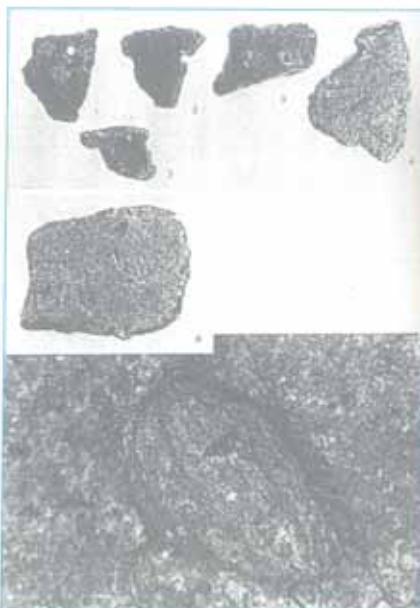
특히 지석묘에서는 공렬토기편이 공반되고 있다. 공렬토기는 시기적으로

107) 趙明謹, 「始創地方 松作農耕研究의 現段階」, 「제2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조남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1997.

108) 李秉熙·李顯奎, 「여수 화동리·관기리유적-여수 경자정리지구 발굴조사보고서-」, 頤天大學校博物館·藝術系, 2006.

송국리형 토기에 앞서 출현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송국리형 토기문화가 수용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공렬토기 문화가 유입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이것은 동일한 수계의 주암댐 지역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전남 동부지방, 즉 섬진강 수계의 중류지역과 외연지역이 송국리형 토기문화 와 공렬문 토기문화의 접변지역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월내동 8호 지석묘에서 출 토된 토기의 저부에 박힌 범씨 자국 은 이미 지석묘가 조영되는 시기에 여수반도에서도 유적 주변의 산간평 지와 해안평야를 대상으로 벼농사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 겠다.¹⁰⁹⁾



▲ 범씨 자국

109) 조현종,『침동기시대의
眞跡』全羅南道古跡全羅
南道訪緝墓委員會, 1993.

참고문헌

- 박준범,『여수시의 고고유적』『여수시의 문화유적』, 여수시·조선대학교박물관, 2000.
- 이영문·조근우,『전남의 고대묘제』, 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 1996.
- 李榮文,『麗川市鳳溪洞支石墓』, 全南大學校博物館·麗川市, 1990.
- 林永珍·趙鎮先·徐賢珠,『麗水美坪洞陽地遺蹟』, 全南大學校博物館, 1998.
- 趙現鐘,『선사시대유적』『한국문화와 유물유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2007.
- 지건길·조현종,『여천 월내동 지석묘』, 국립광주박물관·여천시, 1992.
- 崔仁善外,『麗水禾長洞遺蹟Ⅱ』, 順天大學校博物館·麗水市, 2002.
- Sample, L.L., Mohr,A.,『Progress Report on Archaeological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 Anthropology 2-1, 1965, 101.



제 2 장

삼 국 시 대



제1절 마한의 성립과 발전

송 완 범 (고려대학교 교수)

1. 시대 개관

마한(馬韓)시대의 ‘여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삼한시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단, 한국사에서 ‘삼한시대’라는 말은 문헌사적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고, 고고학적으로는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라고 불리왔다. 그런데 초기 한국 고고학의 개척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김원룡박사가 사용하기 시작한 ‘원삼국시대’라는 개념은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¹¹⁰⁾ 다만, 여기서는 고구려(高句麗) · 백제(百濟) · 신라(新羅)의 삼국시대와는 다른 그 이전의 시대개념이라는 의미에서 문헌학적으로는 삼한시대,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는 ‘원삼국시대’라는 말을 원용하기로 한다.

¹¹⁰⁾ 이현래, 『원삼국시대론집』, 『한국고대사는총』 5, 1993. 헝조

삼한 이전의 시대에는 농경에 관한 도구나 무기 등이 청동기(青銅器)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철기(鐵器)가 주된 도구로 등장하게 된다. 게다가 삼한시대 혹은 원삼국시대의 시기적 배경은 대략 기원전 1C부터 기원후 3C까지의 약 400년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한시대의 역사적 기록은 한반도의 기록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한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은 중국의 정사(正史) 중의 하나인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한조(韓條)에 나와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삼국지위지동이전』은 한(漢)나라의 멸망 후 각축했던 위(魏)·촉(蜀)·오(吳) 삼국 중의 하나인 위나라의 기록으로 최초로 중국의 동쪽에 있었던 여러 민족의 기록인 동이전을 수록한 사서이다.

또 시기적으로는 3세기의 한·중·일의 역사를 아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록물이기도 하다. 그 동이전에는 한조 이외에도 부여(夫餘)·고구려·동옥저(東沃沮)·읍루(挹婁)·예(越)·왜인(倭人) 등의 기록이 보인다. 그 중에서 한의 기록과 왜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다.

그럼 한조를 들여다보기로 하자. 한조는 한전·진한전·변진전·변진전이라 하여 변진전이 두 군데 나온다거나 진한에 관한 내용이 한전과 첫 번째 변진전에 나누어 보이는 등 이상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한반도 남부지방에 존재했던 한에 관한 기록임은 틀림없다 할 것이다. 삼한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자면, 주된 관심의 대상인 마한은 한반도의 서쪽에,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그리고 변한은 진한과 잡거하고 있다는 기사로부터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마한과 진한의 언어는 똑같지 않다든가, 진한과 변한의 언어는 매우 닮아 있다든가에서는 한반도 지역에서의 한어(漢語)가 수용된 정도의 차이를 알아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차이를 가진 삼한의 국내 상황은 각각 소국(小國)들로 나누어 져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먼저 마한은 54개국,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국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지방의 삼한은 모두 78개국이나 되는 많은 소국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당시의 일본열도에는 모두 약 100여 국이 존재했다는 사실로부터는 당시의 지역적 통합이라는 것을 중국의 그것과 비교하기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이야기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마한의 54개의 소국 중 지금의 여수 지역에 해당하는 국명은 어디인가? 그리고 마한시대의 여수 지역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또 어떠한 사람

들이 살고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문헌학적인 입장에서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지 모른다. 하지만 50여개 국명의 나열이 그냥 막무가내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면, 즉,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열된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 나중에 등장하는 국명들이 남부지방의 해안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소극적인 시야로부터 마한시대의 여수의 모습을 찾아내는 일은 본질적으로 요원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한시대의 여수의 모습은 바다를 안고 있는 여수의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로, 지금의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의 마한의 위상과 여수 지역의 위상에 대한 접근이다. 앞에서 삼한 시대는 보통 기원전 1C부터 기원후 3C까지의 약 400년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확히 3C를 기점으로 해서 삼한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말은 아니다.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를 살펴보자면, 먼저 중국 대륙은 진(秦)·한(漢)의 통일과 위·촉·오의 삼국시대의 분열이 위와 진(晉)을 거쳐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의 혼란기로 접어들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한반도는 북부 지방에는 중국 군·현(郡·縣)과 부여(夫餘) 등의 여러 부족국가들과 새로 등장한 고구려가 있었고,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에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새로 등장한 백제와 마한을 위시한 한의 여러 세력이 혼재하고 있었다. 백제와 마한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이는 바와 같이 때로는 협력관계를, 때로는 경쟁관계를 유지하다 결국 마한이 백제 세력에 압도당하는 시기가 대략 기원후 3세기 말쯤이라는 것이다.

3세기 말 이후 마한은 백제에 의해 서울과 충청지역으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즉, 백제가 중국대륙의 혼란을 틈타 강성하게 된 고구려의 세력 확장에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변화 속에서 여수를 생각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듯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한·중·일을 하나의 무대 위에 놓고 그 접점을 찾아가면 마한시대의 여수의 모습은 그리 난해한 것만은 아니다.

두 번째로, 바다와의 관련, 즉 해양사적 시점과 국제교류사적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더 나아가서 교통로라는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남해안 상의 다도해라는 바닷길과 섬진강 수계로서의 내륙 수로에 대한 접근이다. 여수에서 남해안과 섬진강 수계를 이용한 국제교류사적 접근이라면 바다 건너 일본 열도

밖에 없다. 마한시대의 일본열도란 앞의 『삼국지위지동이전』의 왜조가 이야 기해 주듯이 한반도 남부가 소국으로 분립한 것처럼 역시 일본열도도 100여 개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청동기와 철기를 혼용하는 금속기를 사용하는 시대였다. 게다가 한반도의 마한의 시기는 일본열도에는 청동기와 철기를 혼용 하는 금속기를 사용하는 시대였고, 이를 야요이(彌生)시대라고 한다. 일본역사에서 야요이시대는 기원전 3C부터 기원후 3C까지의 약 600여년의 시기를 일컫는다.

그런데 야요이시대를 살았던 야요이인들은 주로 한반도 남부 지방으로부터 건너간 사람들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야요이인들 중에는 여수 지역에서 건너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 반대로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는 일본열도로부터 건너온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수를 포함한 한반도 남해안 지역은 단절되고 고립되고 낙후된 후방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과 문물이 이동하고 교류하는 국제적 지역이었을 가능성 이 큰 곳이다.

2. 유적과 유물

마한시대의 주거지와 고분 유적지에서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이 시기 여수 지역을 포함한 섬진강 유역에서는 토광묘와 옹관묘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그 예는 희소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섬진강유역이 발굴조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 본래의 복잡한 지역적 성격도 일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순천과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토광묘가 발굴되는 등 많은 성과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 지역의 고분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분 분포도가 참조가 된다.

다음은 여수 지역에서 발견된 구체적 유적과 유물의 예이다. 먼저 미평동 고분군은 몇 기인지는 알 수 없고 충적대지에 분포하며 유물로는 유개장경호·단경호·대부호가 발견되고 있으며, 가야와 백제의 양식이 보인다.¹¹¹⁾ 그리고 돌산 죽포리 고분군도 몇 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릉사면에 위치하며, 발견 유물로는 수평구연호·광구호가 있으며 가야 계열이라는 평가를 얻

111) 이순열, 「여수 미평동 평지 출토 토기류」, 『순천대 박물관지』, 청간회, 1999 참조.



112) 이동희, 「여수'돌산·죽포리·수습토기 고찰」, 『한대박물관지』, 창간호, 199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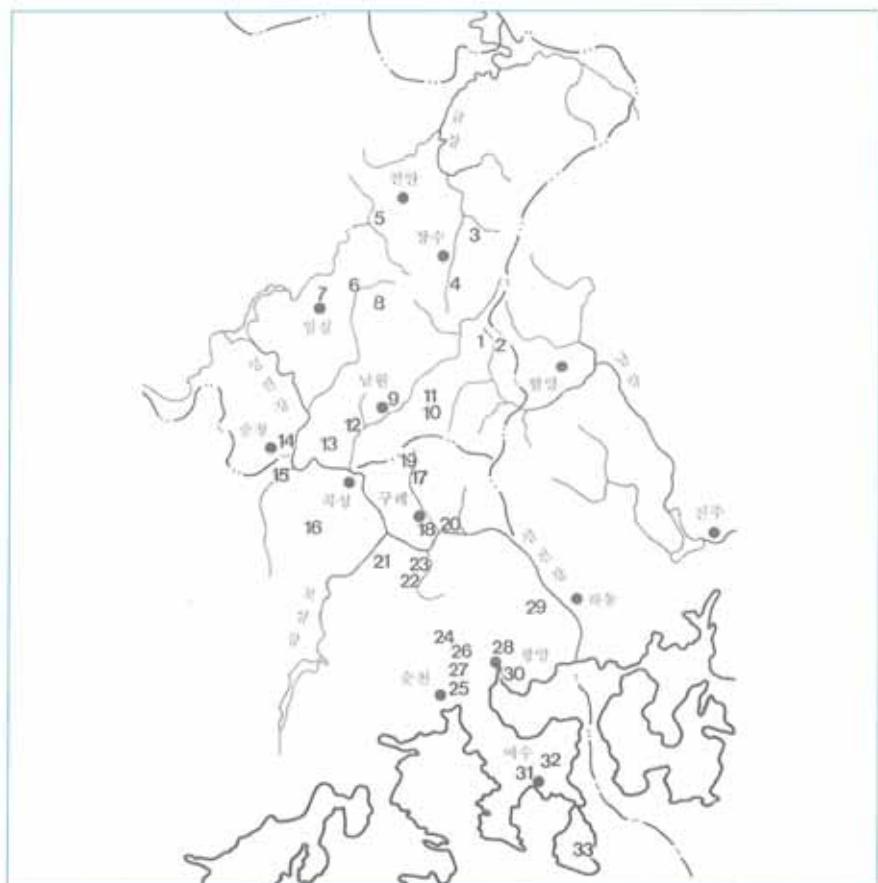
113) (재단법인) 마한문화연구원, 「여수 죽림 택지개발 지역 내 문화유적발굴조사」, 회의자료, 2008, 1
13쪽 참조; 이동희, 「섬진강유역과 고분」, 양기석 외,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77~129쪽 참조.

114) 이동희, 「섬진강유역과 고분」, 양기석 외,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79쪽 참조.

고 있다.¹¹²⁾

그 외 최근에 발견된 소라면 죽림리 고분군은 모두 55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위치는 구릉사면이고 토광묘·수혈식·횡구식의 고분 형태가 혼재한다. 발견 유물로는 고배·장경호·파배·대부호·병·이식·철도·철도자·철촉·판갑·철부·철검 등의 생활용품과 위세품이며, 시대적으로는 재지·가야·백제가 혼재하고 있다.¹¹³⁾

호남 동부지역 주요 고분 분포도¹¹⁴⁾



1. 남원 월산리 2. 남원 두락리 3. 장수 삼봉리 4. 장수 동촌리 5. 진안 평지리 6. 임실 금성리
7. 임실 신안리 8. 장수 봉서리 9. 남원 고죽동 10. 남원 척문리 11. 남원 초촌리 12. 남원 입암리
13. 남원 사석리 14. 순창 고원리 15. 곡성 주신리 16. 곡성 방송리 17. 구례 대신리 18. 구례 봉동리 19. 구례 이평리 20. 구례 용두리 21. 순천 요곡리 22. 순천 죽내리 23. 순천 성암리 24. 순천 운평리 25. 순천 덕암동 26. 순천 용당동 27. 순천 월지동 28. 광양 용강리 29. 광양 비평리 30. 광양 도월리 31. 여수 죽림리 32. 여수 미평동 33. 여수 죽포리

제2절 가야의 영향

이동희 (순천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지역에 대한 종래의 고대사 인식은 마한에서 바로 백제로 시대가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한동안 가야의 정치적 영향하에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 중심시기는 5세기 후반대에서 6세기 초엽에 걸친 범위이다.

1. 4~5세기 전남동부지역의 토착사회와 문화

1) 가야계 토기 등장배경

4~5세기는 전남 동부지역에 가야계 유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백제의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시기였다. 이 시기의 전남동부지역의 고고학적 특징과 가야계 토기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남 동부지역은 마한 고토(故土)의 가장 동남쪽 산악지대에 치우쳐 있어, 서해안의 마한 문화와 비교하면 지리·지형적으로 변방이다. 어떤 측면에서 는 섬진강을 사이에 둔 경남 서부지역과 문화적 통질성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자연지형은 복합사회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남 동부지역이 섬진강 유역¹¹⁵⁾과 남해안 지역으로 대별되면서, 산지가 많고 분지형으로 세분된 지형적인 영향이 커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전남 동부지역은 5세기까지도 지역 연맹체를 이루지 못하고 마한 소국 단위로 분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4~5세기에 독자적인 묘제(분구묘)나 토기문화를 지니지 못하였고, 가야 고토와 인접하다는 점에서 가야계 문화, 특히 토기문화가 쉽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자적인 토기문화가 생성될 만큼 정치·사회적으로 성

115) 섬진강은 좁고 희난한 세로(縱)형의 수심 리에 뻗쳐 있기에 삼류와 하류를 달리한 연맹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맨주세력의 형성이 어려웠다. 섬진강유역의 고대 사회는 다른 지역이 연맹왕국 단계에 도달할 무렵에도 통합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문안식·이대식,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혜만, 2004).



116) 가야 역사에서, 4세기 후반에는 정치권력에 의해 조직되고 통제되는 전업적 생산체계에 의해 사회 내의 모든 토기수요가 생산되고 분배된다(이성주, 「가야사회의 변동과 국가형성」, 「동아세아의 국가형성」, 제10회 백제연구 국제학술회의, 2000).

117) 이성주, 「고고학을 통해 본 아라가야」,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2000.

118) 토기면년식 활안지역은 가장 일찍 도질토기 생 산체계가 발전했던 지역이다(이성주, 「가야사회의 변동과 국가형성」, 「동아세아의 국가형성」, 제10회 백제연구 국제학술회의, 2000).

119) 전남동부지역에 5세기대 소가야토기의 출현은, 남 해안의 가야세력이 연합한 도상팔국단(浦上八國團)의 중심으로 소가야가 바뀜되고, 그 지리적 인 위치에 의하여 해상교 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던 세력이라는 점(박천수 1999)과도 꿰를 같이 하 는 것으로 보인다.

숙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¹¹⁶⁾ 요컨대 전남 동부지역은 5세기대까지 독자적으로 지역 연맹체를 형성할 만한 주체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점이 가야 계 문화가 쉽게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아라가야계 문화

현재까지 전남 동부지역에서 아라가야계 토기는 여수 장도·구례 용두리·광양 용강리 등 세 유적에서만 나오고 그 양도 적다. 편년상으로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반기까지로 한정적이다.

전남 동부지역이 함안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고 유물이 산발적으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아라가야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는 없고, 토기자체의 유통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¹¹⁷⁾ 전남 동부지역의 아라가야토기 출토 유적의 입지가 남해안(용강리·장도)이나 섬진강변(용두리)이라는 점에서도 교역이나 교류설을 뒷받침한다.

아라가야토기 출토 유적 가운데 유구가 밝혀진 것은 광양 용강리 유적으로서 수혈유구(혹은 주거지)이다. 수혈유구에서 화염형투창고배와 공반된 유물이 대부분 재지도기류임은 토착세력이 교역이나 교류를 통해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아라가야토기¹¹⁸⁾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5세기 전반~6세기 중엽 소가야계 문화

전남 동부지역에서 소가야계 토기는 5세기 전반기부터 6세기 중엽까지 지속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시기와 성격에 따라 전·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기는 소가야토기가 전남 동부지역에 등장하는 이른 단계, 즉 5세기 중엽경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출토토기가 재지의 유구와 유물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양이 적어 교류나 교역의 산물로 이해된다.¹¹⁹⁾ 대표적인 유적은 여수 화장동과 보성 조성리 유적이다.

이들 유적은 주거지와 수혈유구이며 해안가에 자리하여 교류나 교역의 거점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5세기 중엽경의 소가야계 토기와 공반되는 여수 화장동 출토 창녕계 토기(蓋) 1점을 보면 해로를 통해 장거리 교역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기에 비해 후기(5세기 후엽~6세기 전반기), 즉 여수 죽포리 유적 단계 이후에는 묘제의 비율이 급증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여수 죽포리·순천 운평리·죽내리·용당동 등인데 모두 무덤유적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죽포리와 운평리 유적은 지표조사되었지만 입지(立地)나 분구(墳丘)·석재(石材) 등을 통해 고분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6세기 이후에 대가야와 백제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더라도 전대(前代)의 소가야 고분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남 동부지역의 백제유적에서 다소 변형된 소가야계 토기가 6세기 중엽 까지 지속적으로 출토됨은 이러한 소가야계 토기의 제작이 백제의 영역화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6세기 이후가 되면 소가야계 토기의 토착화와 변형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소가야계 토기는 드물다. 소가야계 토기의 토착화와 변형이 발생한 시점은 대가야토기의 등장¹²⁰⁾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대가야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소가야계 문화의 파급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남 서부지역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¹²¹⁾

이상과 같이 섬진강하류 서안지역인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5세기 중엽~6세기 전반기의 소가야계 묘제와 소가야계 유물이 빈출되고 있다.

5세기 중엽 이래로 전남 동부지역에서의 소가야계 묘제와 토기의 변천은 경남 서부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가야세력의 확대와 더불어 소가야계 문화의 축소 양상도 동일하다.

지표조사를 토대로 한 유물의 분포로 유추해 보면, 5세기 중엽~6세기 전반의 소가야계 묘제와 토기가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가야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기 전에는 한시적이지만 전남 동부지역이 소가야 연맹체(서남부가야연맹체)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령의 대가야나 고성의 소가야는 지역집단들이 선형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형성된 지역연맹체이다.¹²²⁾ 전남 동부지역도 소가야연맹체와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교역과 상호 이해관계에 의해 완만한 결속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가야 연맹체와 관련짓는 대표적 유물인 수평구연호¹²³⁾가 전남 동부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도 방증자료이다. 하지만 소가야 연맹체에 소속된 시간적 범위는 그리 길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전남 동부지역의 출토토기나 고분에 근거해 보면 5세기 중 후엽을 중심연대로 상정할 수 있다.

120)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전남동부지역에 대가야토기의 등장 시기는 500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121) 5세기 3/4분기에는 황금 수개 천명과 남강상류역에서는 수정묘의 토기양식, 부장물, 묘제, 대장의 레까지 대가야와 일치하고 또 일반 삼원묘까지 대가야양식 토기가 부침 된다. 이는 종래 소가야와 연계되었던 황금상·충류역과 남강상류역의 관계망이 와해되고 대가야에 의한 새로운 관계망이 구축됨과 동시에 이를 지역이 대가야권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박천수, 「고고학으로 본 가야국사」, 「가야학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가야사·칠책연구원회』, 2000).

122) 박천수, 「대가야의 고대국 기행성」, 『석오윤용진 교수 정년 학업 기념 논총』, 1998; 이성주, 「가야사회와 변동과 국가형성」, 「동아세아의 국가형성」, 제10회 백제연구국제학술회, 2000.

123) 조영재, 「가야토기의 지역색과 정치체」, 「가야고현의 새로운 조명」,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 2003.

3. 5세기 말 이후 대가야계 문화

대가야계 토기는 순천 운평리·죽내리·죽내리 성암·검단산성·덕암동·선평리·왕지동, 여수 미평동·고락산성, 광양 비평리, 구례 용두리 등의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순천 검단산성과 여수 고락산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분[石櫛墓]에서 출토되었거나 고분 출토품으로 추정된다. 대가야계 토기는 전남 동부지역 중에서도 순천, 여수, 광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대가야계 토기는 유개장경호(有蓋長頸壺), 개(蓋), 무개장경호(無蓋長頸壺),廣口長頸壺, 기대(器臺), 고배(高杯), 대부파수부호(臺附把手附壺) 등이 출토되었다. 최근에 발굴조사된 순천 운평리 고분에 근거해 보면, 전남동부지역에서의 대가야토기의 상한은 5세기 말로 상정할 수 있다.¹²⁴⁾

[124] 이동희,『전남동부지역 복합사회 형성과정의 고고학적 연구』, 섬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1) 문헌자료의 검토

① 日本書紀 繼體紀 6년(512년)條에 '任那四縣(上多喇·下多喇·婆陀·牟婁)의 백제에 양도' 기사¹²⁵⁾ –

이는 결과적으로 백제가 임나국의 4현을 빼앗은 것이니, 원래는 그곳이 임나, 즉 가야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셈이 된다.¹²⁶⁾

임나4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최근에는 전남 동남부지역을 임나4현으로 비정하고 있는 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나4현은 기문과 대사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으므로 기문·대사와 가까운 지역이다. 기문이 백제와 대가야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던 남원지역이고 대사가 하동지역이라고 한다면, 임나4현도 기문·대사와 인접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섬진강 하구의 서안, 즉 전남 동부지역에 해당한다.¹²⁷⁾

특히 전영래는 임나4현의 구체적인 위치까지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상다리는 여수반도, 하다리는 여수 돌산도, 사타는 순천, 모루는 광양(마로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¹²⁸⁾ 이 견해는 점차 인정되는 추세이다.

② 日本書紀 繼體紀 8년(514년)條¹²⁹⁾에 반파, 즉 대가야는 자탄(진주)과 대사(하동)에 성을 쌓아 만해(광양)에 이어지게 하고 봉수대와 저택을 설치하여 백제 및 왜국에 대비했다.¹³⁰⁾

③ 日本書紀 繼體紀 23년(529년)條¹³¹⁾에 백제가 가라의 다사진을 왜에 요

[125] 「六年冬十二月 百濟遣使
貢謂 別表請任那國上
多喇 下多喇 婆陀 車婁四
縣 一依唐謂任那四縣」

[126] 김태식,『미완의 문명 7백
년 가야사』, 푸른역사,
2002.

[127] 김영선,『백제지방통치체
재연구』, 서울대학교대학
원박사학위논문, 1997.

[128] 전영래,『백제남방역의
변천』,『전한우선생한글기
념 한국사학논총』, 1986

[129] 「八年三月伴披莫域于
吞帶沙 而達漢溪 遷拔城
都闕 以據日本」

[130] 김태식,『미완의 문명 7
백년 가야사』, 푸른역사,
2002

구하였고 왜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때 백제가 다사진을 확보한 것은 이론이 없다.¹³²⁾

2) 여수지역과 대가야연맹체

대가야 연맹체의 성격은 좁은 의미의 대가야(고령의 반파국)가 맹주국이며 각 구성국은 독립성을 유지하되 어느 정도의 상하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상하관계의 강약은 고령으로부터의 지리적 원근과 각 세력의 강약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이다.

전남 동부지역은 고령에서 원거리에 해당하며 대부분 거점지역에서만 대가야 토기나 묘제가 확인되고 있기에 수장층을 중심으로 한 연맹관계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 동부지역에서의 대가야 토기의 분포 양상과 묘제를 보면 박승 규의 확산유형 가운데 Ⅲ형에 속한다. 즉 대가야 토기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만 재지의 묘제 또는 재지토기양식과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대가야 중심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집단으로서 대가야와 연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가야계 토기가 출토되는 고분군은 대가야 세력이 전남 동부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대가야와 관계를 맺은 제지세력이 조영한 것으로 판단된다.¹³³⁾

우록 12곡에 등장하는 가야제국 가운데 달이(達已)는 여수로 비정된다.¹³⁴⁾ '달이'는 상·하로 구분되어 상다리는 여수반도, 하다리는 여수 돌산도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¹³⁵⁾ 고고학적으로 보면 하다리는 (소)가야계 토기가 밀집 출토된 돌산 죽포리 부근으로 비정할 수 있고, 상다리는 대가야토기가 집중된 고락산성 아래의 여수시 미평동 일대라고 생각된다.

미평동 토기의 경우는 백제토기와 대가야계 토기의 융합현상을 보이기에 거점지역에서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 일대에는 백제 산성인 고락산성과 척산산성이 바로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어 백제시대까지 요충지였으며 해안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길목이다.

최근에는 미평동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죽립리 유적에서 소가야계 석곽묘·토기와 더불어 대가야계 토기가 출토된 바 있어¹³⁶⁾ 여수반도에도 가야 문화가 성하였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31) 二十三年春三月 — 是月 遣物部伊勢達父根 吉士 老等 以津瑞百濟王 ….

132) 이명식, 「백제의 기아진 출과정」, 『한국고대사는

133) 박천수, 「대가야권」, 『가야의 유적과 유물』, 학연문

회사, 2003.

134)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시」, 『푸른역사』, 2002.

135) 전명래, 「백제남방경역의 변천」, 『전관우선생한학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136) 마한문화연구원, 「여수 죽립지개발지구내 문화 유적발굴조사 회의자료」, 2008.

제3절 백제로의 편입

최인선(순천대학교 교수)

1. 시대 개관

백제가 어느 시기에 여수지역으로 진출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문헌 사학자들에 의하면 마한의 영역 아래에 있던 이 지역이 369년(근초 고왕 24)에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정벌함으로써 백제 영역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자료와 일본의 기록에 의해 여수 지역은 6세기 전반경에 가서야 비로소 백제의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하기 바로 직전은 마한의 영향 아래에 있던 선주민들과 가야와의 관계가 어떤 형식으로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수 죽포리, 화장동, 고락산성, 미평동, 죽내리 유적 등지에서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반기까지의 소가야와 대가야계 토기를 중심으로 주거지, 묘제 등의 유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 화장동 유적은 주거지 유적으로 5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된 소가야계 고배와 컵형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죽포리 유적은 목곽묘 유구로 추정되며 역시 5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된 소가야계 수평구연호와 광구호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고락산성의 건물지와 집수정에서는 6세기 전반경의 소가야계 고배가 출토되었고, 건물지, 구상유구, 집수정에서 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 대가야계 기대, 개, 유개장경호,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¹³⁷⁾

미평동 유적은 고분 유적으로 추정되며 6세기 전반경의 대가야계 장경호, 단경호, 대부호 등이 출토되었다. 2008년 최근에 조사된 소라면 죽림리 유적은 세장방형의 가야계의 무덤(토광묘 8기, 석곽묘 16기)과 주거지 유적이 처음으로 조사되었는데 많은 양의 토기들이 출토되었고, 소가야와 대가야계 유물들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538년 성왕은 수도를 사비성(부여)으로 옮기면서 전국에 5방(方)을 설치하여 통치하였다. 방에는 방성(方城)을 설치하여 여러 크고 작은 성을 군 혹은 현

¹³⁷⁾ 이동희, 「백제의 천남 동부지역 진출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고고학보』, 64집, 2007, 77쪽.

으로 통제 지배하였다. 이른바 방-군-현(方-郡-縣)제이었다. 남방에 속하였던 이 지역은 삽평군(畝平郡)이 설치되었으며, 삽평군은 원촌(猿村)·마로(馬老)·돌산(突山) 등 3현을 속현으로 거느렸다. 삽평군의 치소(治所)는 현재 순천시 홍내동에 있는 토성(해룡산토성 혹은 홍내동토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촌현은 여수반도 일원, 돌산현은 돌산도를 비롯한 인근의 섬을 그 영역으로 하였다. 이로서 여수 지방에 처음으로 백제 후기에 들어와서 원촌과 돌산이라는 이름의 군현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여수지역에 있는 백제시기의 유적은 산성과 무덤들이 알려져 있지만 주로 산성과 고분이 조사되었다. 여수 지역에 있는 23개의 성곽 가운데 백제시기의 산성은 고락산성, 척산산성, 선원동산성, 월암산성 등이 해당된다. 백제시대 여수지역의 고분은 미평동 양지유적과 소라면 죽림리 유적 등이 발굴조사되어 알려져 있다.

2. 유적과 유물

1) 백제산성

(1) 고락산성(鼓樂山城)

고락산성은 고락산의 중간(200.9m)에 본성이 있고, 산의 정상부(335m)에 보루를 갖추고 있는 백제산성이다. 본성의 둘레는 354m로 소형에 속하며, 보루는 둘레 100m이고, 체성의 내외벽 너비는 510~530cm 정도이다. 이 산성의 형식은 테뫼식이며, 테뫼식 가운데서 다시 산복식(山腹式) 산성으로 그 형식 분류가 가능하다.

축성법은 협축식이며 거의 수직으로 쌓았다. 본성의 문지는 3개이고, 보루의 문지는 2개이다. 집수정은 석축의 원형이 2개, 점토만을 이용한 장방형 집수정이 2개 등 모두 4개이다. 수원(水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 고락산성 항공사진



알 수 있다. 건물지는 초석이 있는 유구가 출토되지 않았으며, 모두 수혈식 건물지만 3동이 확인되었다.

축성법은 모든 구간이 협축식으로 되어 있다. 백제산성 가운데 석성의 경우 편축식이 많고 다만 문지 부분에 협축식이 이용되고 있는 점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다. 체성은 석비례층이나 암반층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이 위에서 바로 쌓거나 점토나 잔자갈을 섞어서 다진 후에 성석(城石)을 올려 놓고 있다.

외벽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며 고구려나 신라의 산성처럼 기단보축을 돌로 하지는 않았지만 전 구간에 걸쳐 점토나 석비례를 이용하여 보축을 하였다. 이 기능은 성벽의 최하단에 기단을 두지 않아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부분의 성돌은 거의 할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잡하게 보인다.

출토 유물 가운데 편년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구류와 토기류가 있는데 통일신라시대의 것은 전혀 없다. 마구류는 재갈과 행엽이 있는데, 대체로 6세기 중엽경부터 보인 양식을 취하고 있다.

토기류는 호(壺), 고배(高杯), 개배(蓋杯), 삼족토기(三足土器), 기대(器臺) 등 다양하다. 이 토기류의 속성은 백제와 가야계가 섞인 양상을 띠고 있으나 가야계토기는 아주 소량이다. 호는 단경호가 대부분이다. 저부는 평저이고 동체부는 구형과 유견형이 함께 나타나며, 구연부는 외반하고 침선이나 흄을 돌려 요면(凹面)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호는 백제토기 가운데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개는 꼭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면이 평평한 형식들이어서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유행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고배와 장경호 편들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고락산성 출토 유물은 대체로 6세기 중엽 이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물상의 편년은 이 산성의 주 사용시기를 뜻한다. 따라서 고락산성의 사용시기는 6세기 중엽경부터 백제 멸망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락산성(면적 11,405m²)은 1998년 8월 13일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04호로 지정되었다.¹³⁸⁾

(2) 척산산성(尺山山城)

이 산성은 오림동 척산(100m)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여수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으로 난 소로를 따라 철도를 건너 약 10분 정도 산을 오르면 척산산

138) 최인선·조근우·이순업, 「麗水 韶樂山城」, 『순천 대학교박물관』, 2003.

최인선, 「麗水 韶樂山城에 대한考察」, 『文化史學』 19-6, 2003.

최인선·백대홍·송미진, 「麗水 韶樂山城II」, 『순천 대학교박물관』, 2004.

성의 북동벽에 도착한다. 이 산성은 기존에 전라좌수영 본영의 9개 용성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어 왔다. 척산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산성은 전체적으로 북동-남서 방향의 긴 타원형을 이루며 산 정상부를 따라 축조된 테뫼식이다.



▲ 척산산성 외벽

성벽의 둘레는 264m로 작은 규모이며 대부분 무너져 있는데 북동벽 일부가 가장 잘 남아 있다. 이 부분에서 축성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 동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산성들처럼 내외벽을 쌓는 협축식의 석성으로 축성하였다. 내외벽 사이의 너비는 630cm이며, 남아 있는 외벽의 높이는 120cm이고, 내벽의 높이는 90cm 정도이다.

성벽의 축성법은 경사진면을 석비례층이나 암반 위까지 파서 기초를 자연적으로 튼튼하게 한 후에 기단을 두지 않고 곧바로 벽을 쌓아 올렸다. 북동벽의 성돌은 장방형으로 잘 치석하여 품자(品字)형으로 정연하게 쌓아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 아니며, 성벽의 아래쪽 성돌이나 위쪽의 성돌의 크기가 일정하여 백제시기의 축성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산성의 문지, 건물지, 우물 등의 유구는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알려진 바가 없다.



▲ 척산산성 출토 평기와 내면

이 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평기와편들이며, 토기편들도 가끔 보인다. 기와의 등문양은 격자문, 선문, 승문, 무문으로 분류되고, 기와의 내면은 승문과 포목흔으로 대별되는데 모골(模骨)의 흔적도 보인다. 이 모골의 흔적은 백제시기의 기와에

보인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기와 내면의 승문은 굽고 선명한 새끼줄모양 혹은 띠풀과 같은 것을 엮은



모양으로 이 지역의 백제산성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특이한 요소이다. 평기와는 대체로 와통에서 4분할하여 4매의 기와를 만들어 내는데 이 때 와도(瓦刀)를 이용하여 분할한다. 기와의 분할은 기와 측면의 전면을 자른 것, 전면을 자르고 다시 내 외면을 비스듬히 깎아 다듬은 것, 전면을 다듬고 내면만 다듬은 것, 전면을 자르고 외면만 다듬은 것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의 위치나 축성방법, 기와의 문양과 제작방법, 토기편 등을 통해 볼 때 최초의 성과 축성시기는 백제 후기로 추정된다.¹³⁹⁾

139) 최민선·조근우, 「麗水의
城址」, 頤天大學校博物館
·麗水市, 1998.

(3) 선원동산성(仙源洞山城)



▲ 선원동 산성 성벽 절개 모습

이 산성은 선원동 산 128-1번 지 일원으로 해발 135.4m의 협산(峽山) 정상부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협산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에 표기된 산 이름이며 현지 주민들은 퇴미산(토미산, 鬼尾山)이라 부르고 있다.

이곳은 여수의 서남부지역과 동부지역에서 내륙으로 가는 교통로상의 길목에 해당하는 곳이다. 성의 주변으로는 북쪽이 비교적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여수시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남쪽과 북쪽은 높은 산이 없고 주로 평지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변지역을 관망하기에 좋은 위치이다.

선원동산성은 해발 135.4m의 협산 정상에서 해발 110m를 전후한 높이까지 내려오는 테뫼식산성이다. 체성은 서쪽 정상에서 동쪽 사면까지 내려오는 서고동저의 형태이다. 체성은 토축과 석축이 혼용되었으며, 성의 평면형태는 북쪽이 좁고 남쪽이 넓은 제형을 이루고 있다. 체성의 총 둘레는 474m이고, 문지가 현재 1곳에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 건물지로 추정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이 산성에서 수습된 유물은 기와와 토기가 대부분이다. 기와는 아주 많이 수습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백제시기의 것들이다. 그 가운데 원형 안에 '북

(北)', '전(前)', '중(中)' 등의 명문이 새겨진 인장와(印章瓦)가 출토되었다. 모두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 특이하다. 평기와의 문양은 등문양이 승문, 격자문, 선문, 무문 등이며, 내면은 승석흔과 포흔, 그리고 모골 흔적이 있다. 분할방법은 전면을 자른 후 등면과 내면을 다시 다듬은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선원동산성에서 수습된 기와는 모두 고락산성과 같이 백제산성에서 출토되는 기와의 특징만을 찾아 볼 수 있다. 토기는 대부분이 경질토기편이며, 기형을 알 수 있는 토기는 개배와 고배가 각각 1점씩 수습되었다.

이 산성은 토축을 한 구간이 많은데 절개한 결과 판축기법으로 축성하였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석성 구간 역시 전남 동부지역의 다른 백제산성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축성법이다. 뿐만 아니라 기와나 토기도 백제시기의 유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 산성은 백제시기에 축성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 산성은 토축된 부분을 일부 절개한 결과 판축기법 위에 성토를 하였으며, 그 내측에 석열로 마감을 하고 성토를 하면서 백제기와들이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축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번째의 축성은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순천 홍내동토성에서 볼 수 있다.

여수 지역 4곳에서 백제산성이 확인되고 있는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산성이 여수의 백제시대 치소(원촌현, 猿村縣)로 추정할 수 있다. 다른 3곳의 산성은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며 그 내부 면적이 너무 협소한 반면에 이 산성은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하고 면적도 넓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보다 확실히 밝혀질 것이다.¹⁴⁰⁾

(4) 월암산성(月巖山城)

140) 최인선·박태경, 「麗水市의 山城」, 麗水市·麗天大學校南北文化研究所, 2003.

이 산성은 해발 347m의 대미산(大美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돌산읍 평사리 237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대미산은 월암산(月巖山), 달암산(達岩山), 아남산(阿南山), 대태산(大太山)이라고도 불리며, 돌산읍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잡아 정상에서의 조망은 가히 절경을 본 듯하다. 대미산의 북쪽에 해발 210m의 소미산이 있고, 대미산과 소미산 사이에는 무술목 전적지이며, 대미산의 동쪽 정상에는 봉화대가 있다.

월암산성은 한 때 임진왜란 때의 유적지라고 추정되기도 하였는데 지표조



▲ 월암산성 근경

14) 최인선·박태용, 「鰐水市의 山城」, 鰐水市·慶天大學校 南道文化研究所, 2003.

사 결과 백제시대에 처음으로 축성된 산성으로 밝혀졌다. 체성의 총 둘레는 249m이며, 너비 4m 내외로 석재를 쌓은 협축식의 테뫼식 산성이다. 문지는 동문지와 서문지 등 2개소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다른 산성과 달리 기와류가 없고 토기류만 수습되었으며, 모두 회청색 경질계통으로 항아리(壺)와 독(甌)류의 기종이 많다.

산성의 입지조건, 축성법, 형식,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월암산성은 백제 후기에 처음으로 축성되어 어느 시기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여수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산성은 전남 동부지역과 섬진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산성들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백제 산성들과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산성의 입지조건은 낮은 산이라도 사방을 훤히 살펴 볼 수 있는 입지에 산성을 축성(검단산성, 마로산성, 남양리산성)한 경우와 배후에 더 높은 봉우리가 있으나 중간의 낮은 봉우리에 산성을 축성(성암산성, 난봉산성, 불암산성, 고락산성, 척산산성, 독치성)한 경우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이 산성들은 모두 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이므로 자연히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계곡방향으로 성벽이 내려와 있다. 산정(山頂)의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이라 할지라도 한쪽은 산 정상부쪽에 성벽이 있고 그 반대편은 산의 중복(中腹)까지 성벽이 내려와 있는 입지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백제산성의 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검단산성, 고락산성, 척산산성, 성암산성, 난봉산성, 마로산성, 독치성 등 인근에 백제 후기에 속한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고분들은 6세기 중반 이후의 석곽묘와 횡구식석실분이어서 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지역의 산성들은 해발 69~347m 사이의 낮은 산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성의 규모도 265~735m 정도로 소규모인 점이 특징이다. 반면에 이

지역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축성된 산성은 해발 400m 이상의 비교적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

백제의 산성이 이와같이 규모가 작은 이유를 함인호는 “백제는 그 지리적 위치로 하여 대륙의 침략세력과 맞서 싸우는 큰 전쟁을 겪지 않고 장성한 나라였다. 다만 주변 소국(小國)들을 정복하거나 그 침입을 막는 것으면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백제의 성은 고구려에서처럼 큰 적과 맞서 장기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규모와 구조를 가진 성곽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여 대외적인 투쟁사에서 그 연유를 찾고 있다.

셋째, 산성의 축성재료가 모두 석재(石材)이며, 산성의 형식이 테뫼식 가운데서도 산복식(山腹式)을 이루고 있다. 백제 산성들은 토성도 많으나 섬진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산성들은 토성들보다 석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국경 지대의 방어시설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산성의 축성기법이 일반적으로 백제 석성들은 편축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지역의 산성들은 예외없이 협축식(夾築式)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다. 그리고 체성의 내외벽 너비가 거의 500cm 정도로 일정하다.

이와 같은 일정한 규칙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재지세력에 의한 축성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통제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체성은 별도의 기단을 두지 않고 거의 수직으로 쌓고 있으며, 위아래의 성돌 크기가 비슷하여 체성의 견고성이 문제가 되어 외벽의 하단에 점토나 석비례로 다짐하였다. 고구려나 신라에서처럼 별도의 기단보축시설을 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다섯째, 산성의 이용시기가 거의 백제 후기에 국한하고 있어 아주 짧다는 점이다. 검단산성과 고락산성의 발굴조사 결과 이 산성들에서 백제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들만 한정해서 출토될 뿐 다른 시기의 유물이 일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이 신라에 편입되자 곧 산성의 생명이 다하였다는 점을 응변해 주고 있으며, 비록 섬진강 유역이 백제의 최변방 지역이었지만 백제 중앙 정부에서 볼 때 아주 중요시되었던 국경지대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광양의 마로산성에서만 예외적으로 통일신라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아마도 이 산성은 마로현의 치소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일신라시대까



지 산성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삼국시대 산성에서 문지의 위치는 계곡 주변을 택하여 계곡의 방향과 약간 비켜선 방향에 성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능선 주변을 택하되 역시 능선의 정상부에서 약간 비켜선 경사면에 성문을 만드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산성들에서 문지가 확인된 산성은 겸단산성, 고락산성, 마로산성, 불암산성, 독치성, 대모산성, 고소성 등인데 역시 이러한 위치에 문지가 위치하고 있어 백제 중앙지역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문지를 이루고 있는 체성의 평면 형태가 문지의 외벽 선이 호를 그린 반면 내벽선은 칙각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로산성의 남문지에서만 내외벽의 모서리 부분이 호를 이루고 있다.

일곱째, 산성의 수원확보(水源確保) 문제이다. 백제 산성들은 산정(山頂)의 일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들이므로 수원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겸단산성, 고락산성, 마로산성 등을 발굴조사 결과 우물과 집수정 유구가 발견되었다.

우물과 집수정은 토광을 파고 그 내부에 우물벽을 돌이나 나무로 축조하였는데 토광과 우물벽 사이에 점질이 강한 점토를 1m 이상 꽈 채워 넣어 한번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빠지지 않게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에 만들었다. 수원확보에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지표조사에서는 이러한 유구들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여덟째, 이 지역의 산성 유적에서는 암기와의 내면에 승문(繩文)이 있는 기와들이 아주 많이 출토되고 있다. 다른 유적에서는 이 평기와가 아주 희귀하게 출토된 반면에 이 지역의 산성들에서는 예외 없이 많이 출토되어 지역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¹⁴²⁾

142) 최민선, 「全南 東部地域
의 百濟山城 研究」, 「文
化史學」 제18호, 2002,
24~25쪽

2) 백제고분

백제시대 여수지역의 고분은 미평동 양지유적과 소라면 죽림리 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미평동 양지에서는 석곽묘(石槨墓) 2기가 조사되었다. 1호 석곽묘(길이 200cm, 너비 80cm, 깊이 43cm)는 윗 부분이 유실되었지만 아래 부분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장벽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동쪽 단벽은 판석과 자연석을 혼용하였다. 출토유물은 곡옥 1점, 금 도금 유리옥 1점, 소옥

380점 등이다. 2호 석곽묘(길이 170cm, 너비 95cm, 깊이 42cm)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출토유물은 고배 2점, 소옥 1점이다.¹⁴³⁾

소라면 죽림리 유적은 택지개발 때문에 2008년에 조사된 유적으로 많은 백제시대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백제 석곽과 석실은 총 21기로 1지구에서 17기, 2지구에서 4기가 조사되었다.

석실은 대체로 횡구식이며, 6기는 도량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 등고선과 직교하여 축조되었는데, 장축방향은 주로 남-북이다. 가야계 석곽과는 장축방향과 분포범위에서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바닥은 작은 할석을 전체적으로 깔은 형식, 작은 할석으로 시상대를 마련한 형식, 백제 승문기와를 깔은 형식 등 다양하다. 유물의 부장위치는 북쪽 단벽에 치우쳐 있으며, 소병, 병, 발, 주조철부 등이 출토되고 있다.

한편 특이하게도 백제기와를 이용하여 만든 와관묘가 1기 조사되었다. 여기에 사용된 기와는 전남 동부지역의 산성에서 많이 조사되고 있는 승문기와를 사용하였다. 와관묘는 토광을 파고 승문기와를 이용하여 관을 만들었으며 뚜껑도 기와로 덮었다.

관의 구조는 양 측벽으로 암기와를 세우고 바닥에 2매의 암기와를 깐 후 양단벽을 세웠으며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었다. 와관묘에서 명문이 시문된 작은 병 1점이 출토되었다. 명문의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백제시대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¹⁴⁴⁾



▲ 소라면 죽림리 14호 석실(백제)

143) 일영진·초진선·서현주, 「여수 미령동 택지유적」, 선남대학교 박물관, 1998.

144) 이천문화연구원, 「여수 죽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1·2차 지도위원회의자료, 2006.

제4절 통일신라시대

송 완 범 (고려대학교 교수)

1. 시대 개관

통일신라의 지방행정구역으로는 9주5소경제도가 있다. 이는 지방을 주·군·현으로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옛 3국의 영토마다 3주씩을 두어 다스리게 한 것이 9주인데, 여수 지역은 무주(武州; 지금의 광주)의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무주 밑에 승평군(昇平郡; 순천)을 두었는데, 승평군 밑에는 해읍현(海邑縣), 여산현(廬山縣), 희양현(晞陽縣)이 있었고, 그 중 여수 지역은 해읍현과 여산현에 해당되고, 희양현이 지금의 광양에 비정되는 것을 볼 때, 백제 때와 비교하여 행정지역 상의 커다란 변화는 없었던 듯하다.

7세기말에 일본은 중국 당의 법률체제인 율(律; 지금의 형법)과 영(令; 지금의 행정법)을 국가통치의 기본으로 하여 ‘율령국가(律令國家)’를 건설하고, 당과의 직통거래를 통해 그 질서를 유지하였다. 그 증거가 8세기와 9세기 전반까지 왕성하였던 ‘견당사(遣唐使)’ 파견에 잘 나타나 있다.

‘견당사’는 많게는 4,5백 명의 인원으로 오갔는데 그 중에는 중국의 선진문물 공부를 위해 유학생과 유학승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유학승 중의 한 사람이었던 엔닌(圓仁)은 9년간의 중국 유학생활(838~847)을 마치고 귀국하여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라는 귀중한 여행기를 남겼다. 통일신라 때의 여수 지역에 관한 직접적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국제교류사적 시점’에서 눈여겨본다고 한다면 이 기사가 주목된다.

거기에 따르면 엔닌은 847년 7월 20일, 9년간의 당나라 유학생활을 정리하고 장보고와 인연이 많았던 신라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길을 정리하자면, 9월 2일에는 중국 산동반도의 적산포(赤山浦)로부터 큰 바다에 나아가 동쪽을 향해 갔다. 9월 4일 새벽에는 신라의 서쪽 지역인 충청남도의 웅주(熊州)에 도착하고, 밤 10시 조금 전에는 전라남도 진도의 고이도(高移島)에 정박했다. 9월 6일 오전 6시에는 무주의 남쪽지역인 황모도

(黃茅島 : 丘草島라고도 함)의 니포(泥浦)에 도착해 정박했다. 9월 9일에는 전라남도의 안도(雁島 : 安島라고도 함)에 도착해 잠시 쉬고 남동쪽으로 항해했다. 다음 날(9월10일) 새벽에 동쪽 방향으로 멀리 쓰시마(對馬)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당일 낮 12시 경 앞 쪽으로 일본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9월 9일의 안도가 문제이다. 지금까지 장보고의 본거지 청해진이 있었던 완도 근방의 섬이라는 의견이 강했으나, 여수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안도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 시기는 장보고의 세력이 약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바닷길은 반드시 완도에 고정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9일 여수를 출발해 10일에 쓰시마가 멀리 보인다는 위의 여행기의 해석도 거리상으로 보는 한 여수에서 쓰시마로 가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일본열도로부터 한반도를 거쳐 중국대륙에 가는 주요한 항로로서 [규슈(九州)-쓰시마-여수 안도-한반도의 서 · 남해안-중국 산동반도]라는 항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만약 이 지적이 바르다고 한다면, 이 항로는 9세기에 들어 개통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그 먼 옛날부터 존속했던 고대 인들의 뱃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고대의 여수는 중국대륙과 일본열도의 무역선이 교차하고 조우하는 국제무역항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여수 지역은 신라말기 견훤이 무주에서 900년에 후백제를 일으키고 전주에 도읍을 삼음에 따라 후백제에 속하였다가, 936년에 후백제가 망함에 따라 고려로 통합되었다.

2. 유적과 유물

여수 지역의 성들에 대한 조사 정보는 1942년에 간행된 조선총독부 「조선 보물고적조사자료」와 1978년에 발간된 문화공보부 문화청관리국의 「문화유적총람」전라남도편에 의하면 모두 16개의 성이 있었던 것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다가 1986년에 발간된 전라남도 「문화유적총람」에는 23개소라고 하였고, 1988년의 조선대학교 국사연구소에서 발간된 「여천군의 문화유적」에는 여천만을 대상으로 하면 6개소라고 하였다. 또 1998년에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4개의 성(고락산성 · 척산산성 · 호랑산성 · 방왜축제)의 흔적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고, 2000년 조선대학교 박물관 발간의 「여수시의 문화 유적」에는 모두 22개소가 조사된 것으로 정리되었다.¹⁴⁵⁾

145) 최인선 외, 「여수시의 산성」, 여수시 ·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03, 9-96쪽 참조.



이 성들의 소재지는 거의 여수시의 중앙과 돌산도로 이별된다. 먼저 전자는 여천동·문수동·여서동·둔덕동 주변으로 모두 8개의 성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후자는 7개소의 성의 흔적이 조사되었다. 그 외는 모두 섬이나 여수시의 중심부를 벗어나 여기저기에 산재한다.

그 중 백제시대부터의 산성으로는, 다음의 3개의 산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 산성들이 통일신라시대 때도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고락산성은 문수동에 소재하며 해발 200m, 테뫼식에 354m의 주위를 갖고 있으며 돌로 만들어져 있다. 척산산성은 오림동에 소재하고 해발 100m, 테뫼식이며 주위는 264m이고 돌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선원동산성은 선원동 소재이고 해발 135m, 테뫼식에 주위는 474m이며 돌과 흙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이 성들의 공통점으로서는 비교적 낮은 산에 분포하면서 소규모이지만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산성의 축성재로는 돌이 많으며 축성 기법은 협축식이 많았고 이용시기가 그리 길지 않았으며, 암키와의 내면에 새끼줄 무늬가 있는 기와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¹⁴⁶⁾

다음으로는 통일신라 때의 산성들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백제시대 때 만들어져 나중에도 사용된 월암산성은 돌산읍 평사리에 있으며 해발 347m, 테뫼식이며 249m의 주위를 돌로 둘러싼 산성이다. 다음은 호랑산성으로 둔덕동에 소재하고 해발 440m, 테뫼식에 454m의 주위에 돌로 만들어진 성이다.

그리고 봉계동토성은 봉계동에 소재하고 테뫼식에 흙으로 만들어진 성이다. 마지막으로 본산성은 돌산읍 죽포리에 있으며 해발 271m, 테뫼식에 주위가 506m인 돌로 된 산성이다. 이 산성들의 시대적 특징은 각 성들의 축성 기법이나 지표 조사 시 함께 발견된 기와와 토기들로부터 알 수 있다.

146) 최인선, 「설진감유역의 백제산성」, 양기석 외,『백제의 설진강』, 서경문학사, 2008, 131~151쪽 참조.

참고문헌

- 광양군지편찬위원회,『광양군지』, 1983.
- 권오영,「풍납토성 출토 외래유물에 대한 검토」,『백제연구』36, 2002.
- 김세기,『고분자료로 본 대가야연구』, 학연문화사, 2003.
- 김영심,『백제지방통치체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7.
- 김태식,『역사적으로 본 소가야의 연맹체』,『묘제와 출토유물로 본 소가야』,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개소10주년기념학술회의, 2000a.
- 김태식,『역사학에서 본 고령 가라국사』,『가야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b.
- 김태식,『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 김태식,『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푸른역사, 2002.
- 김형곤,『화염형투창토기의 재인식』,『가야문화』제15호, 2002.
- 노중국,『마한의 성립과 변천』,『마한백제문화』제10집, 1987.
- 류창환,『소가야편』,『가야의 유적과 유물』, 학연문화사, 2003.
- 마한문화연구원,『여수 죽립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 회의자료』, 2008.
- 문안식·이대석,『한국고대의 지방사회』, 혜안, 2004.
- 박순발,『4~6세기 영산강유역의 동향』,『백제사상의 전쟁』, 충남대백제연구소, 1998.
- 박승규,『고고학을 통해 본 소가야』,『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2000.
- 박승규,『대가야토기의 확산과 관계망』,『한국고고학보』49, 한국고고학회, 2003.
- 박천수,『대가야권 분묘의 편년』,『한국고고학보』39, 1998.
- 박천수,『고고학으로 본 가라국사』,『가야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야사 정책연구위원회, 2000.
- 박천수,『器臺를 통하여 본 加耶勢力의 動向』,『가야의 그릇받침(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1999.
- 박천수,『대가야권』,『가야의 유적과 유물』, 학연문화사, 2003.



- 박천수, 「대가야의 고대국가형성」,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1996.
- 송병수, 「순천지역의 지명연원과 읍호의 변천」, 『남도문화연구』 제6집, 순천대학교남도문화연구소, 1997.
- 순천대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여수시-』, 2003.
- 순천대박물관, 『여수 고락산성Ⅱ』, 2004.
- 윤정희, 「소가야토기의 성립과 전개」, 경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7.
- 이근우,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삼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4.
- 이동희, 「섬진강유역과 고분」,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 이동희, 「여수 돌산 죽포리 수습토기 고찰」, 『순천대박물관지』 창간호, 1999.
- 이동희, 「전남동부지역 가야계 토기와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6집, 2004.
- 이동희, 「전남동부지역 복합사회 형성과정의 고고학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성주, 「가야사회의 변동과 국가형성」, 『동아세아의 국가형성』, 제10회 백제연구국제학술회의, 2000b.
- 이성주, 「고고학을 통해 본 아라가야」,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2000a.
- 이순엽, 「여수 미평동 평지 출토 토기류」, 『순천대박물관지』 창간호, 1999.
- 이영식,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 1995.
- 이주현, 「아라가야에 관한 고고학적 검토」, 『가야각국사의 재검토』, 2000.
- 이현혜, 「원삼국시대론검토」, 『한국고대사논총』 5, 1993.
- 이희준, 「고령양식 토기 출토 고분의 편년」, 『영남고고학』 15, 1994.
- 이희준, 「토기로 본 대가야의 권역과 그 변천」,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1995.
- 전남문화재연구원, 「동순천-광양복선화구간 정자들유물산포지 발굴조사 회의자료」, 2008.
- 전영래, 「백제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 조영제, 「가야토기의 지역색과 정치체」,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부산 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2003.
- 조영제, 「수평구연호에 대한 일고찰」, 『경상사학』1, 1985.
- 최인선 외, 「여수시의 산성」, 여수시·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03.
- 최인선, 「섬진강유역의 백제산성」,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 최인선·이동희·조근우·이순엽, 「여수 화장동 유적Ⅱ」, 순천대박물관, 2002.
- 최인선·조근우·이순엽, 「여수 고락산성 I」, 순천대학교박물관, 2003.

제 3 장

고 려 시 대

나 종 우(원광대학교 교수)



제1절 후백제와 고려의 태동

통일신라 말기에 이르러 각처에 군웅이 할거하는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서남지방의 견훤(顛萱)과 북면의 궁예(弓裔)였다. 이들은 각기 지방의 옛 국명을 따서 후백제, 또는 후고구려라 칭하기도 하였으니, 형세는 다시 삼국시대와 같은 정립현상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후삼국시대'라고도 말한다.

후백제의 견훤은 상주(尙州) 또는 광주(光州)출신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농민 출신으로 체구가 건장하며 뛰어난 무사적 재능을 타고 났다고 한다. 신라 하대 841년의 장보고 암살과 851년 청해진 해체 이후 구심점을 상실한 채 개별 분산적으로 활동해 오던 서남해지방 해양세력이 9세기 후반 경에 뚜렷한 세력 결집의 움직임을 보이자 신라 조정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서남해 방수군을 파견하였으며, 견훤은 그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견훤이 서남해 방수군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경주를 출발한 것은 889년 경이었다. 이때는 신라 조정의 국고가 텅 비고 전국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던 진성여왕 3년과 일치되는 시점이다.¹⁴⁷⁾ 당시 서남해 지방에도 세력 결집의 조짐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고, 신라 조정에서는 서남해 방수군을 조직하여 파견하였다.

경주에서 출발한 서남해 방수군은 진군의 과정에서 호족들의 저항을 받아 한 때는 고전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빼어난 무용(武勇)으로 중앙군(서남해방수군)에 대항하는 호족들을 무찌르는 데 앞장섰으며, 그 공으로 비장(神將)의 직을 제수 받아 독립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휘하의 중앙군과 새로 편입시킨 호족군들을 조직하여 경주에서 출발한 지 1개월 여 만에 5,000여 무리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호족이 봉기하는 난세를 직접 경험하면서 점차 신라에 반심(叛心)을 품고 독립 세력화 하였다. 당시 서남해 지역은 옛 백제의 영역이었으므로 백성들이 신라 중앙정부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신라에 의해 멸망한 백제 의자왕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자립을 선언하였던 것이다.¹⁴⁸⁾

경주에서 출발한 견훤은 진주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계속 서쪽으로 진군하여 당시 박영규(朴英規)와 김총(金摠)과 같은 유력한 호족이 지배하고 있던 순천지역을 큰 저항 없이 무난히 접수하고 전라도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견훤의 순천지역 접수는 전남 동남부지역의 최고 중심지였던 순천지역의 호족들이 견훤에게 복속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견훤의 전라도 지역 진출의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었다. 그 뒤로 견훤은 전남 동부지역의 호족들을 차례로 복속시키며 892년에는 당시 무주(武州)의 치소가 있던 전남지역 최대 도시 광주지역으로 진출하여 이를 접수하였다.¹⁴⁹⁾

147)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진성왕 3년조.

148) 『삼국사기』 권50, 열전 견훤조.



▲ 김총의 묘(순천시 주암면)

149)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진성왕 6년조.

견훤이 박영규와 김총같은 호족들을 휘하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견훤이 해양세력을 확보 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남악부(江南樂府)」에 인용된 「평양구지(平陽舊志)」에 보면 박영규는 도리(道里) 홍안동(鴻雁洞)에 옹거하여 군장으로 행세하였으며, 죽어서는 해룡산신이 되었다고 하였다.¹⁵⁰⁾

해룡산성은 위치가 순천에서 남으로 뻗어 내려 여수반도를 형성하는 좁다란 길목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의 여수반도, 서쪽의 고흥반도 동편의 광양만이 있어서 박영규는 순천에서 여수로 통하는 길목의 동서 양편으로 광양만과 순천만으로 통 할 수 있는 해양의 최고 요충지를 장악한 해양세력 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⁵¹⁾

한편 김총에 대해서는 그가 견훤을 섬겨 인가별감(引駕別監)에 올랐으며 죽어서 성황신이 되었는데, 그 성황사가 진례산(進禮山)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례산은 승주의 동쪽 73리에 있고, 진례부곡은 여수현 동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¹⁵²⁾ 진례부곡은 오늘날 상암동의 진북·진남 마을로 비정되고 있으며, 진례산은 종래 영취산으로 불렸던 상암동 뒷산으로 여수의 최고봉(510m)이다.

견훤은 이와 같이 순천만과 광양만을 장악한 유력한 해양세력인 박영규와 김총을 얻음으로써 이곳을 거점으로 바다를 통해 서남해 지방으로 진군할 구상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견훤의 이러한 구상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견훤은 무주의 동남방 세력을 규합하면서 북상하여 무주(武州=광주)를 접수하여 세력 기반을 대륙 지역으로 확대·강화하였다.

광주를 접수한 견훤은 바로 전주로 옮겨서 건국을 선포하려 하였지만 이 또한 뜻대로 되지 못하고 무려 9년간이나 광주에서 지체하게 되었는데 이는 서남해지방 해양 세력에 대한 공략에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00년에 이르러 견훤은 전주로 옮겨 후백제의 건국을 선포하고 그 이듬해에 바로 신라의 대야성을 공략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남해 지방의 거점인 나주 남쪽의 연변 부락을 약탈하였다.¹⁵³⁾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서남해 지방 해양세력들의 견훤에 대한 반감과 위기 의식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반감과 위기의식은 나주 지역의 유력한 호족 다련군(多憐君)¹⁵⁴⁾이 왕건과 결탁하고 그의 휘하에 들어 가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150) 「강남악부」는 순천출신의 조한범(1716~1790)이 1784년에 저운 책이며, 여기에 인용된 「평양구지」는 순천의 몇 편자로 알려져 있다. 「강남악부」의 기사에 보면 「『평양구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박영규는 강남군(江南郡)의 후손이며 견훤의 사위였고, 이 땅의 군정이었다. 도리 해룡신 아래의 홍안동—옛 성터가 있다—에 둉거하고 있었다. 나중에 고려에 투항하여 좌승의 벼슬을 받았다. 죽어서 해룡산 산신이 되었고—『라는 기사가 보인다(김봉률 「후백제 견훤과 해양 세력」, 「후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 후백제문화사업회, 2004, 231쪽).

151) 김봉률, 「위의 논문」, 232쪽.

15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0, 순천도호부, 인물·사묘조, 산천·고적조.

153) 「삼국사기」 권 11, 신라본기, 흐공왕 5년 8월조.

154) 다련군의 성은 오씨인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고, 후일 그의 딸이 태조의 둘째비로 들어간 이후에 다련군으로 불해졌다.

한편 왕건은 903년에 다련군 등의 후원을 받아 서남해 지방에 대하여 성공적인 진출을 할 수 있었고, 계속하여 견훤의 반격을 극복하면서 914년경에는 서남해지방을 자신의 안정적 세력 기반으로 확보 할 수 있었다.

이후 고려와 후백제와의 쟁패는 신라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왕건은 930년 후백제군을 고창(古昌-현재의 안동)에서 크게 격파하고, 안동 부근의 30여성의 항복을 받았으니 주도권은 고려에게 넘어 갔다. 이어서 934년에는 후백제의 정면을 공격하여 용진(현재의 공주) 이북의 30여성을 점령하여 대세를 결정지었다.

대세가 이와 같이 기울게 되자 후백제에서는 자중지란이 일어나 935년 3월에 견훤의 장자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정권을 탈취하는 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 해 6월에 견훤은 금산사를 탈출하여 고려에 항복하게 되었다.

고려의 승리가 확실하게 되자 이 해 11월에 신라의 경순왕은 스스로 고려에 귀순하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936년에 왕건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후백제를 쳐서 신검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리하여 후삼국 시대의 혼란은 끝나고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제2절 고려의 지방 통치

1. 고려 초의 지방통치

고려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난 뒤, 이어서 신라를 병합하고 이듬해에는 후백제까지 합병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전국을 한 정권 아래 통합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때의 지방 형세는 중앙정부에서 바로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통치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후삼국 통일 후 초기의 고려정부는 호족들의 연립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아래서도 940년(태조 23)에 우선 전국의 모든 주(州), 부(府)군(郡), 현(縣)의 이름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신라시대에 해읍현(海邑縣, 여수), 여산현(廬山縣, 돌산)이라 불리던 여수·여천지방의 이름도 여수현, 돌산현으로 바뀌었다. 이때 처음으로 여수(麗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나 모두 승평군(昇平郡, 순천)의 속현이었다.

2. 성종대의 지방제도의 개편

고려의 조정이 상주하는 외관(外官=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해 본격적으로 통제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983년(성종 2)에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 우선 중요 지역인 양주(楊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진주(晉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州)·승주(昇州)·해주(海州)·황주(黃州)에 목(牧)을 설치하고 목사(牧使) 등을 파견함으로써 중앙집권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12목 가운데 전라도 지역에 설치된 목은 전주와 나주·승주였다. 이때의 승주(순천)는 그 이전의 삽평(승평)군이 '승주'로 명칭이 고쳐지고 승격되었다. 당시 여수는 승주의 관할아래 있었다.

이때는 고려가 건국된 지 60여년이 지난 시기에 해당 된다. 그동안 수도를

제외한 지방은 호족세력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였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국초에도 상주하는 지방관은 없었지만, 중앙의 명을 받아 지방에서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금유(今有) · 조장(租藏) · 전운사(轉運使) 등의 이름으로 불린 외관(外官)이 있었다.

금유와 조장은 주현의 호족 가운데서 임명하여 조세, 공부, 요역 등을 수취·징발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전운사는 징수 · 보관된 조세와 공부를 개경으로 운반하는 일을 주무로 한 관원이었다. 금유와 조장은 뒤에 12목의 설치와 함께 폐지되고 전운사는 현종 20년까지 존속하였다.

그러다가 성종대에 이르러 주 · 부 · 군 · 현 및 관(關) · 역(驛) · 강(江) · 포(浦)의 이름을 고쳤다. 그 내용은 757년에 신라에서 개정했던 것을 그대로 채용하거나 새로 정한 것으로서, 좀 더 중국식인 한자명으로 바꾼 것이었다.

이러한 정비작업을 토대로 하여 고려의 지방제도가 다시 크게 개편된 것은 995년(성종 14)의 일이다. 이때의 행정구역 개편은 전국을 3도호부(都護府), 10도(道)로 나누는 한편 12주목(州牧)은 12군(軍)으로 개편되면서 그 지방관도 절도사(節度使)로 바뀌었다.

이때의 개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을 10도로 나누었다는 것인데 10도의 명칭은 산형과 지세에 따랐는데 그 명칭을 살펴보면 관내(關內), 중원(中原), 하남(河南), 강남(江南), 해양(海陽), 영남(嶺南), 영동(嶺東), 산남(山南), 삭방(朔方), 패서(渙西) 등이었다. 그런데 이때의 도는 조선조나 현대의 도의 개념과는 달리 몇 개의 고을을 한데 묶어 나눈 단순한 구역일 뿐 도지사 같은 행정기구가 있는 상급 지방행정 구획은 아니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주현제(州縣制)의 실시였다. 군 단위의 행정구역을 없애고 전국을 주(州) – 현(縣) – 진(鎮) 체제로 바꾼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미 고려 초에 승격된 군 · 현 단위의 작은 주를 다시 강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읍 중 필요한 곳을 주로 승격시켜 줌으로써 군 단위를 없애 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주는 행정상 중앙정부와 직결되었다. 당시의 전남지역은 해양도(海陽道)에 해당되었으며 이 고장은 12주(州)절도사의 하나이던 승주절도사가 관할하는 여수현과 돌산현 이었다.

세 번째의 개혁은 많은 외관(지방관)의 파견이었다. 성종 2년의 12주목을 12군절도사(軍節度使)로 바꾸는 한편, 유수(留守) · 도호부사 · 도단련사(都團練使) · 단련사(團練使) · 방어사(防禦使) · 자사(刺使) 등의 외관을 파견하였다

이때 파견한 외관 수는 66인으로 이미 파견된 외관과 합하면 총 74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지방제도 개혁은 얼마가지 않아 실패하여 곧바로 부(府) · 군(郡)의 읍호가 부활되었으며, 1005년(목종 8)에 관찰사 · 도단련사 · 단련사 등의 외관이 폐지되었다. 또한 1012년(현종 3)에는 12절도사마저 폐지되고 대신 5도호(都護) · 75도안무사(道按撫使)가 설치되었다.

3. 현종대의 개편과 그 이후

1018년(현종 9) 다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을 때에는 전국에 4대 도호부 8 목(廣州, 충주, 청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황주), 56지주군사(知州軍事), 28진장(鎮將), 20현령(縣令)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고려의 지방관 제는 4개의 도호부(府使)와 8개의 목(牧使)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외관(外官)이 상주하는 56개의 주 · 군(知事)과 28개의 진(鎮將), 20개의 현(縣令)으로 편성되어 중앙의 행정력이 군 · 현 단위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정비된 고려의 군현제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상당수에 이르렀다. 전국 주현의 수는 129곳이었으며, 속현은 361곳이었다. 이때의 개편으로 전남지역은 나주가 8목(牧)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때 여수현 · 돌산현은 나주의 승평군에 속하였다. 여수현과 돌산현은 대체로 고려말까지 계속되었으나 한동안 돌산현이 폐현되기도 하였다.

여수현과 돌산현은 승평군의 속현으로 편입되어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관을 이곳에 파견하지 않았으나 1350년(충정왕 2)에 여수현에 처음으로 현령이 파견되어 주읍으로 승격하였다.

지방관이 파견되기 이전에는 향리들이 읍사(邑司)에 모여 지역의 행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향리가 사실상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또 신분적으로 그들은 고려 초의 호족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의 지위는 상당히 크고 높았다.

* 「고려사」 지리지 영속계통표 가운데 전라도(1018년 이후)



제 3 절 왜(倭)와의 관계

1. 왜구의 성격과 규모

왜구의 침입은 고려말 내우외환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고려의 큰 환난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고려는 북방의 외적과의 투쟁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력을 기울여 남방의 왜구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중의 부담을 지니고 있었다.

1223년(고종 10) 왜구가 김주(金州=김해)에 침입한 이래 1350년(충정왕 2)부터 고려가 멸망하는 1392년까지 40여 년 동안에는 왜구의 창궐기로 각 방면에 끼친 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왜구에 대하여 「고려사」에는 왜구·왜적(倭賊)·왜노(倭奴)·해적(海賊)·해도(海盜) 또는 단순하게 적(賊)·구(寇)·적선(賊船)·작구(作寇)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 각 명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왜구란 왜가 바다를 통하여 구적(寇賊) 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쓰여 지고 있으며, 적어도 1278년(충렬왕 4) 이전부터 왜구라는 말이 숙어로써 사용되고 있었다.¹⁵⁵⁾

왜구의 규모에 대하여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많을 때는 400여 척, 350여 척 등과 적을 때는 20여 척이 나타나고 있다. 선단의 규모를 보면 쌀 4만여 석을 약탈하여 갈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인 경우도 있었다.¹⁵⁶⁾

침입한 왜구의 숫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1387년(공민왕 13) 5월에 왜적 3,000을 진해현에서 대파한 기록이 보이며, 1379년(우왕 5) 5월에는 기(騎) 700·보(步) 2,000의 침구(侵寇)가 있었고, 도적이 많으면 천백(千百)으로 떼를 짓고, 적으면 십오(什伍)로 대를 지어 다닌다고 하였다.¹⁵⁷⁾ 이러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왜구는 단순한 해적의 오합지졸이 아니고 배후에는 유력한 토호가 있어 직접 조종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왜구의 침구 목적과 침입

왜구의 침구 목적에 대하여는 정치적 야심이나 문화적 욕구라는 견해도 있

¹⁵⁵⁾ 『高麗史』 권28, 세기28, 중렬왕 4년 7월.

¹⁵⁶⁾ 『高麗史』 권39, 세기39, 공민왕 9년 윤5월.

¹⁵⁷⁾ 『고려사』 권12, 열전, 遷附長編.

으나 경제적 목적이 가장 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일본 상황이 남북조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문물의 수입이라든지 정치적 야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생활필수품을 얻기 위해 침구했다고 볼 수 있다.

왜구는 고려 말에 해마다 여러 차례 침구해 왔으나, 어떤 한 지방을 오랫동안 점거하여 그곳에 정치적 조직을 만들거나 거점을 구축한 일이 없다.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남해안 여러 지역에 왜성(倭城)을 쌓은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구의 주된 침구 목적이 경제적 욕구 충족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탈 대상은 먼저 미곡(米穀)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미곡을 약탈하기 위해서는 조곡(租穀)을 운반하는 조선(漕船)과 양곡을 저장한 조창(漕倉)이 1차적인 목표였다. 조선 약탈에 대한 『고려사』 세가의 기록을 보면 공민왕 때에 만도 12회 이상의 기록이 보이며, 조선을 발견하지 못 할 때에는 조창을 습격하여 미곡을 약탈하고, 방화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왜구의 약탈 대상은 사람이었다. 이에 대하여도 『고려사』에 잘 나와 있는데, 왜구는 침입 초기부터 사람을 약탈한 기사가 보이며, 열전 나세(羅世) 전에는 왜구들이 강화도를 침입하여 부사(府使) 김인귀를 죽이고 1,000여 인을 데려간 사실도 보인다.¹⁵⁸⁾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구는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을 노략하는 비행을 감행했을까? 우선 포로는 노비로 삼아 값싼 노동력을 공급 받을 수 있었고, 노예로 팔기도 하며,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송환하도록 하려는 이유에서였다. 미곡과 사람의 약탈이외의 의식과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약탈해 갔는데 이와 같은 왜구의 약탈 행위는 사람을 상품의 가치로 판단한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였음이 분명하다.

왜구의 침입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침입회수에 관한 것이다. 기록상으로 왜구가 처음 침입한 1223년(고종 10)에서 고려가 멸망한 1392년(공양왕 4)까지 169년간 519회의 침입횟수를 볼 수 있다.¹⁵⁹⁾

이것을 다시 왜구가 창궐하기 시작한 1350년(충정왕 2)부터 보면 42년간에 506회로서 년 평균 12회의 침입횟수를 보이고 있다. 왜구의 가장 극성기인 우왕 년간에는 년 평균 27회의 놀라운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극심한 해는 1383년(우왕 9)의 50회로서 월 평균 4회를 넘고 있다.

다시 이것을 침입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침입지역 226곳 가운데, 경기27, 충남38, 전북22, 전남23, 경북32, 경남29곳으로 주로 삼남지역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¹⁶⁰⁾ 이 삼도 가운데 경상도 지방은 지리적으로 일본

158) 『고려사』 권114, 열전27,
羅世傳

159) 나중우, 「고려말의 왜구
와 그 대책」, 『한국중세대
일교십사연구』, 원광대출
판권, 1996, 126쪽.

160) 나중우, 위의 논문, 128
쪽.



과 가장 가깝다는 조건 때문이며, 서해안의 전라·충청지역은 곡창지대와 조운선의 통로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왜구는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조세가 모두 집결되는 개경 앞까지 출몰하는 등 경기도에도 많은 침입횟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황해도를 거쳐 평안남도의 삼화(三和), 평안북도의 용주(龍州)·의주(義州)까지 이르고, 동해안 쪽으로는 함경남도 북청(北青)·단주(端州)까지 이르고 있으며, 연해안 뿐만 아니라 내지 깊숙이까지 침입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전국적으로 3회 이상 침입을 받은 곳이 50군데이며, 이 가운데 경상남도가 12개 처이며, 경상북도가 8개 처이다. 가장 많은 침입을 받은 곳은 고성(固城)으로 10회이며 이 지역은 왜구가 창궐하기 시작한 1350년(충정왕 2)부터 침입을 받기 시작하였다.

3. 여수지역의 왜구(倭寇) 침입

『고려사』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전남지역의 지역별 침입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전남지방 왜구 침입 회수

순천 (여수)	광주	장흥	낙안	영광	道康 (강진)	담양	구례
7	6	4	3	2	2	1	1
해남	탐진 (耽津)	목포	영산 (榮山)	나주	장성	동복	곡성
1	1	1	1	1	1	1	1
兆陽 (보성)	보성	富有 (순천)	능성 (綾城)	화순	고흥	禮安 (고흥)	옥과
1	1	1	1	1	1	1	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수가 속한 순천이 7회의 왜구의 침입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 전남지방에서는 우리 고장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었던 것 같다. 순천(여수)지방에 침입한 왜구의 규모를 살펴보자.

'여름 4월 왜적이 배 100여척이 순천부에 침입하여 약탈하고, 남원·구례·영광·장흥부의 조운선을 노략질 하였다.'¹⁶¹⁾

'5월에 왜선 66척이 순천부에 침입하여 노략질하니 우리 군사가 추격하여 그 중 한척을 포획하고 적 13명을 참수하였다'¹⁶²⁾

161) 「고려사절요」권26, 총장 원2년 4월조.

162) 「고려사절요」권26, 총장 원2년 5월조.

위의 기사에서 살펴보면 왜구들이 적어도 침구할 때마다 100여척, 66척 등 규모가 상당히 커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고장에 침입한 왜구의 규모가 크고, 그 침입이 잦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명 살상, 재화 및 문화재의 피해가 더 많았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당시에 이 지역에 침입한 왜구의 규모가 상당했으며 그 피해가 커진 것은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의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병인일에 왜적이 전라도 모두량(茅頭梁)에 침입하였는데 지역주사(知盈州事) 김휘(金輝)가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적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옥구 감무 정자룡이 앉아 머뭇거리면서 나가지 않았으므로 곤장을 치고 돌산(突山)의 봉졸(烽卒)로 귀양 보냈다.'¹⁶³⁾

163) 「고려사」세가 권38, 공민왕 원년 6월 병인조.

'2월에 왜적이 순천·조양(兆陽) 등지에 침범하였는데 정지가 적과 싸우다가 패하였다. 경복홍(慶復鴻)·황상(黃裳)·우인열(禹仁烈)이 함께 죄영의 집에 가니, 영이 말하기를 "왜적의 침노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재상들은 어찌하여 격정을 하지 않소. 정지 한 사람이 아무리 용맹한 들판 많은 도적을 어찌 당할 수 있겠소." 하니 재상들이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3월에 왜적이 도강(道康)과 곡성을 침범하고, 또 남원과 순천부를 침범하였다.'¹⁶⁴⁾

164) 「고려사절요」권 31, 신무 2, 신무5년 2월조.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관군이 이기지 못한 때도 있었고, 당시의 맹장(猛將)이었던 정지까지도 순천(여수)에 침입한 적과 싸우다 패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왜구의 토벌에 명을 어기기까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여수 지역에 침입한 왜구의 포학성과 왜구의 피해가 얼마나 커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동사강목(東史綱目)」에는 왜적 등경광(藤經光)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므로 순천 등지에 나누어 살도록 하고, 적당



한 기회를 보아 그들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전라도 원수 김선치가 세운 모의가 누설되어 모두 달아나고 겨우 3명만 잡아 죽이니 이때부터 왜구들이 침입하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인명을 살상하였다고 하였다.¹⁶⁵⁾

165) 「동사감록」 제16장, 을묘년, 선째왕 우 5년 (1375).

4. 정지(鄭地)의 관음포대첩(觀音浦大捷)

우왕 초기 바다에서는 원수(元帥) 나세(羅世) · 최무선(崔茂宣) 등의 진포(鎮浦=금강입구)대첩, 그리고 내륙에서는 이성계의 황산(荒山=운봉)대첩으로 왜구의 기세가 일단 진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왜구가 모두 근절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 아래 수전에서 정지의 관음포대첩은 왜구근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지는 1382년(우왕 8)부터 해도원수(海道元帥)가 되어 수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지는 이보다 3년 전인 1379년에 순천에 침입한 왜적과 싸우다 패한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왜적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고 토벌의지도 강하였다.

그러한 정지가 해도원수가 된 이듬해인 1383년(우왕 9) 5월에 겨우 함선 47척으로써 나주 · 목포일대를 경비하고 있었다. 그때 합포(合浦; 지금의 마산) 원수(元帥)인 유만수(柳曼洙)로 부터 「왜대선(倭大船) 120척이 경상도에 침범하였으니 구원해 달라」하는 다급한 통보가 있었다. 이에 정지(鄭地)가 밤낮으로 독려하여 가는데 때로는 스스로 노를 저으니 노젓는 군사가 더욱 힘을 다하였다.

정지(鄭地)는 이 고장 여수반도에 이르러 전열을 가다듬고 섬진강구에 이르러 합포사졸(合浦士卒)을 징집하니, 적은 이미 관음포에 이르러 우리 군사를 엿보고 있었다. 정지는 이러한 사정을 알아채고 작전계획을 세우는 한편, 사람을 지리산(智異山)에 파견하여 지리산신(智異山神)께 「나라의 존망이 이싸움에 있으니 원컨대 저로 하여금 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國之存亡 在此一舉 翼相豫無作神差).」 라는 기도문을 올리자 지금까지 내리던 비가 개었다고 한다. 정지(鄭地)가 뱃머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자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정지(鄭地)함대에게 유리하게 불어 왔다는 것이다.

이때 왜적선단은 우리 정지(鄭地)함대를 맞아 싸우기 위하여 대선 20척을

앞세워 선봉대를 삼고, 배마다 군센 군사 140인씩 배치하고 있었다. 정지가 나아가 이를 치게 되니 적의 시체는 바다를 덮었고, 화포에 불태워진 적선이 17척에 달했다. 이 싸움에서 적은 17척의 대선과 2,000여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정지는 승전 후에 '내가 일찍이 말을 몰아 적을 많이 격파했으나 오늘과 같은 쾌(快)함이 없었다'고 했다.¹⁶⁶⁾ 이러한 정지의 외침은 3년 전 왜적에게 패한 전투에 대한 통쾌한 보복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관음포 싸움 후 우리 군사의 사기는 높아졌으며, 이듬해 10월에는 왜구 입구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축산도(丑山島)에 선졸(船卒)을 두는 데 성공했다.¹⁶⁷⁾

여수반도 동쪽에서 이뤄진 이 관음포 해전의 승전 요인은, 정지(鄭地)의 애국진심에서 우러난 진두지휘에 있다 하겠다. 또 그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함께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화포(火砲)의 활용으로 인해 그와 같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고장을 근거로 한 이와 같은 우리 수군의 전통은 약 200여년 뒤에 일어난 임진왜란(1592~1598)을 당하여 이순신에게 계승되어 국난 극복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¹⁶⁶⁾ 「고려사」, 열전 권26, 절지전

¹⁶⁷⁾ 「고려사」, 열전 권26, 윤가관전

제4절 여수의 노래 동동(動動)

김 준 옥 (전남대학교 교수)

1. 개관

고려가요 〈동동(動動)〉은 고려시대부터 여수에서 구전(口傳)된 노래로 조선시대에 속악으로 채택되어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실려 전한다.

이 노래는 월령체 노래로 서사와 1월령부터 12월령까지 모두 13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전체는 임과 이별한 여인의 진솔한 감정과 송축이 달마다의 풍속과 관련되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민요, 벽사진경의 제의가,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가 등이 궁중악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합성되고 부연되어 새롭게 태어난 노래로 짐작된다.

노래의 제목 〈동동〉은 “아으 동동 다리”에서 따온 것인데, 이를 ‘다리’ 혹은 ‘두리’ 등과 같이 ‘영(靈)’을 뜻하는 주술어로 보기도 하고, 노래를 하면서 발을 구를 때 나는 의성어로 보기도 하나 이익 (李漁 1681~1763 : 숙종 7~영조 39)이 성호사설(星湖僊說) 권4에 “動動者 今唱優口作鼓聲而爲舞節者也”라 기록해 둔 것을 보면 북소리의 구음(口音)으로 확인된다. 분절체와 후렴구를 갖추고 있는 것은 고려가요의 형태적 특징이다.

〈동동〉은 조선조에 들면서 궁중에서 연주되었으며, 나례(儻禮) 뒤에는 처용희(處容戲) 속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종(中宗) 대에 와서 남녀상열지사라하여 폐지되었다.

2. 창작 배경

〈동동〉의 원문은 악학궤범에 전하지만, 그 창작 배경은 양촌집(陽村集), 고려사(高麗史), 동국통감(東國通鑑),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승평지(昇平誌),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 강남악부(江南樂府), 증보문현비고(增補文獻備考), 임하필기(林下筆記) 등에 기록되어 있

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동동(動動)〉은 공민왕 원년에 유탁 장군이 순천부 장생포에 침범한 왜구를 물리치고 기뻐서 군사들과 함께 부른 것으로 되어 있다.

유탁(柳濯, 1311~1371)의 생애 및 위인에 대해서는 고려사 열전,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목은집(牧隱集), 양촌집(陽村集) 등에 자상하게 전한다. 자는 춘경(春卿)이고, 호는 성재(誠齋), 시호는 충정(忠正)이며 본관은 고흥(高興)으로 영밀공(英密公) 청신(淸臣)의 손이다. 1311년(충선왕 3)에 태어났다. 1337년(충숙왕 6), 음관으로 원나라에 들어가 숙위하고 돌아와서 감문위대호군(監門衛大護軍)에 제배되었다. 수년이 못되어 고흥군(高興君)에 봉군되고, 1341년(충정왕 1)에 도첨의참리(都僉議參理), 전라양광도도순문사(全羅楊廣道都巡問使), 이듬 해 찬성사(贊成事)로 승배된다.

1344년(충혜왕 5) 원으로부터 합포만호로 임명되었으며, 1352년(공민왕 원년)에는 전라만호가 되어 사졸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군기를 엄정히 해 왜구들이 다시는 범하지 못하게 한 전적을 세워 왕으로부터 특별히 교서, 의복, 술 등을 하사 받았다.

다시 찬성사를 거쳐 1354년(공민왕 3)에 좌승상이 되었으나 얼마 못가서 고흥부원군에 봉군되었다. 그 해, 원의 홍건적 징벌군으로 선발되어 태사(太事) 탈탈(脫脫)의 막하로 들어가 고우(高郵)의 홍건적 두목 장사성(張士誠)을 징벌한 공으로 1356년(공민왕 5)에 문화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가 경기병마도통사(京畿兵馬都統使), 경상도순문겸 병마사(慶尙道巡問兼兵馬使), 찬성사(贊成事)를 거쳐 1362년(공민왕 11) 다시 좌승상에 올랐다.

노국공주의 영전 신축을 반대하다가 하옥 후 석방되었으나 공민왕의 신임을 받던 신돈(辛燉, ?~1371)이 처형되자 그 무리들의 무고로 1371년(공민왕 20) 교수형을 당했다. 1397년(태조 6) 태조 이성계는 보국승록대고홍백(輔國崇祿大高興伯)을 증하고 시호를 내렸다.

이상의 열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탁은 고려말 5조(충숙, 충혜, 충목, 충정, 공민)에 걸쳐 역사한 인물이다. 장생포 전투는 공민왕 원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 때 유탁은 전라만호로 있었다.

순천부 '장생포'는 선소 앞 포구를 말한다. 선소에는 현재도 7기의 벽수 곧 장승이 있고, 건너편에는 장성마을이 있다. 장성마을 바로 옆 항호마을에는 백마대장군을 신체로 모신 신당도 있다.

또, 그곳과 가까운 고락산 아래에 동동골이 있다.

3. <동동>과 <장생포가>

그런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 106 樂考 17에는 <동동(動動)>과 <장생포가(長生浦歌)>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元興鎮東北面和寧府屬色濱于大海邑人	動動：合浦萬戶柳濯
船商而還其妻悅而歌之	有委惠 倭順天長生浦
金剛城	濯赴援 倭望風濱 軍士
契丹聖宗侵入開京焚燒宮闈顯宗收復開	悅之作此曲 以美之 李
京第羅城國人喜而歌之或曰避蒙兵入都	粹光云 頌禱之詞
江華復還開京作是歌也金剛城言其城堅	長生浦：柳濯破倭寇
如金之剛也	於萬德社 恕還宇獲 寇
長生浦	不復犯 濰自製 長生浦
侍中柳濯出鎮金羅有威恩軍士愛畏之及	曲傳于樂
倭寇順天府長生浦屢赴接賊望見而懼即	
仕爲平章奉使東還至江陵登此亭覽四仙之第	
之迹臨望大海作是歌也	
居士應行役者之數作是歌托鵠鳩以冀其歸也	
李	

▲ 「고려시」의 장생포에 관한 기록

<동동>과 <장생포가>가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는 증거인데, <장생포가>는 그 노랫말이 전하지 않은 부전가요이다.

다만, 후대에 창작된 노랫말이 임하필기에 한시로 전하는데, 그 내용은 기개 넘치는 병사들의 모습, 전승의 기쁨, 평안한 백성, 그리고 장군의 위혜와 송도를 담고 있다.

조선시대 속악은 왕이나 관료들의 덕화, 미행, 치적 등을 예찬하거나 백성을 교화하는 내용의 가사를 취택하여 이용했다. 또, 종래의 가사를 합성·부연·삽입 등의 과정을 통해 재구성도 했다. 속악이 분절 형식에다 반복 어구 및 후렴 등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용이 각 분절마다 분별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장생포가>는 바로 이 지역의 민요였는데, 마침 유탁 군사들이 전승의 기쁨에 겨워 태평 성대한 시절을 상기하면서 여수에서 유행했던 이 노래를 불렀는데, <동동>도 <장생포>와 같은 여러 대중적인 민요를 하나의 노래로 재구성한 것이다.

4. 내용

먼저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德(덕)으란 곰비에 받잖고 福(복)으란 림비에 받잖고

德(덕)이여 福(복)이라 호는 나수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正月(정월) 노 냄 뜸은 아으 어져 녹져 흐논더

누릿 가온더 나곤 몸하 흐울로 널서

아으 動動(동동)다리

二月(이월)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 블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아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호 아으 滿春(만춘) 둘잇고지여

누비 브를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四月(사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녹사)니꾼 넷나풀 낫고신더

아으 動動(동동)다리

五月(오월) 五日(오일)에 아으 수릿날 아츰 藥(약)은

즈믄 힐 長存(장존) 킷살 藥(약)이라 받잖노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六月(유월)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호라

도라 보실 니를 쟁곰 죽니노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七月(칠월) 보로매 아으 百種(백종) 排(배) 킷야 두고

니를 훈디 너가져 願(원)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八月(팔월) 보로묘 아으 嘉俳(가배)나리마론

니를 뵈셔 녀곤 오늘호 嘉俳(가배)삿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九月(구월) 九日(구일)에 아으 藥(약)이라 먹논 黃花(황화)

고지 안해 드니 새서 가만히 애라
아으 動動(동동)다리

十月(십월)애 아으 저미연 부롯 다호라
것거 부리신 後(후)에 디니실 혼부니 업스샀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十一月(십일월)ㅅ 봉당 자리예 아으 汗衫(한삼) 두페 누워
슬흘소라온며 고우닐 스쇠움 널서
아으 動動(동동)다리

十二月(십이월)ㅅ 분디남ㄱ로 갓곤 아으 나술 髮(반)잇 쟈다호라
니의 알파 드려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로습노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서사인 제1연은 '덕은 뒷배에 실어 바치옵고 복은 앞배에 실어 바치고자 하오니 덕이랑 복이랑 임금께 진상하려 가시지요.'의 뜻으로 이는 임에 대한 송도(送禱)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월령은 '정월 냇물은 아아, 열려 녹으려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은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의 뜻이다. 고독한 삶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월령은 '이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군요.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십니다.'의 뜻이다. 임을 만인이 우러러보는 등불로 비유하고 있다.

삼월령은 '삼월 지나며 편 아아, 늦봄 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군요.'의 뜻이다. 봄에 편 전달래꽃을 통해 아름다운 임의 모습을 발견한다.

사월령은 '사월을 잊지 아니하고 아아, 왔군요. 꾀꼬리여. 무슨 까닭으로 우리 님은 나를 잊고 계시는가요?'의 뜻이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함께 드러나 있다.

오월령은 '오월 오일에 아아, 단옷날 아침 약은 천 년을 오래 사실 약이기 에 바치옵니다.'의 뜻이다. 자신의 소중한 임에 대하여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유월령은 '유월 보름에 아아, 벼랑에 버려 버린 빗 같습니다. 돌아보실 임을 잠시 동안이라도 따르겠습니다.'의 뜻인데,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벼랑에 버린 빗에 비유하여 한탄하고 있다.

칠월령은 '칠월 보름에 아아, 여러 가지 제물을 벌여 놓고 임과 함께 살아

가고자 소원을 빕니다.'의 뜻이다. 백중 명절에 임과 함께 온갖 음식과 과일을 차려 놓고 기원을 올리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다.

팔월령은 '팔월 보름은 아아, 한가윗날이지마는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한가윗날이지 않습니까?'의 뜻이다. 일 년 중 가장 즐거운 명절이지만, 임 없이 홀로 지내야 하는 자신의 고독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구월령은 '구월 구일에 아아, 약이라고 먹는 노란 국화꽃, 꽃이 집안에 드니 초가집이 가득합니다.'의 뜻이다. 국화전을 해 먹는 중양절(重陽節), 임이 없는 적막한 초가집에서 고독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시월령은 '시월에 아아,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습니다. 깎여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십니다.'의 뜻이다.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십일월령은 '십일월 봉당 자리에 아아, 홀적삼을 덮고 누워 있으니 너무 슬픕니다. 사랑하는 임과 따로따로 살아가는 모습이.'의 뜻이다. 임이 없는 관계로 '봉당 자리'와 '홀적삼'으로 살아가는 처지를 슬프게 노래하고 있다.

십이월령은 '십이월 분지나무로 깎은 아아, 임에게 드릴 소반 위의 젓가락 인가요? 임의 상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입에 물어 버립니다.'의 뜻이다. 임과 자신이 맷어질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이 노래는 서사와 정월에서 12월까지 계절적인 변화와 세시풍속을 관련시켜 임에 대한 송도와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연마다 주제의 통일성이 없이 13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서사와 2, 3, 5월령은 송도(頌禱)의 뜻이 강하고 정월과 4월령은 임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을 표출했다. 또, 나머지는 임에게 버림받은 처량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다.

이는 여러 개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채택되면서 합성되고 부연되고 삽입되는 과정을 거쳐 〈동동〉으로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사강목』, 『신증동국여지승람』
 강봉룡, 「후백제 견훤과 해양 세력」, 「후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 후백제문화사업회, 2004.
 나종우, 「고려말의 왜구와 그 대책」, 『한국중세 대일교섭사연구』, 원광대, 1996.

제 4 장

조 선 시 대



제1절 조선의 건국과 여수현의 폐현(廢縣)

이 민 규 (순천대학교 사학과)

1.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여수의 폐현(廢縣)

조선왕조의 건국과 함께 중앙의 정치조직이 개편되면서 지방행정체제 역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핵심은 군현제로서 이를 채택한 목적은 중앙집권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전국을 중앙의 왕실을 핵으로 하는 유기체적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지방통치의 이상이었다.

조선시대의 전역에 걸쳐 지방 정치행정의 중심을 이루어온 군현제의 세부적인 제도로써 8도제를 꼽을 수 있다. 건국초기에는 고려의 5도 양계(五道兩

界)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난 이듬해인 1395년(태조4)에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어 관찰사를 파견하고 그 밑에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¹⁶⁸⁾ 340여 개의 읍으로 분할하여 지방수령을 파견하였다. 이때가 1413년(태종13)으로서 조선의 지방행정체제가 완료된 시기였다.

또한 조선왕조의 고유한 제도로서 암행어사제를 설치, 백성의 어려움을 묻고 지방 수령과 관리들을 염찰할 목적으로 파견되는 특별한 제도를 두었다. 관찰사의 파견과 어사제도로 지방행정기관의 통제를 가하며 지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감독과 규찰로 지방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중앙집권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여수가 1350년에 종5품의 현령을 두어 승주 속현에서 독립된 것은 고려의 지방지배가 강화된 것도 있었겠지만, 당시 승주 관내에 왜구의 침입이 매우 치성하였다 점에서 보다 큰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350년 4월에 왜선 100여척이 승주 경내에 침입하여 남원, 구례, 영광, 장흥 등지에 있는 조운선을 약탈했다거나,¹⁶⁹⁾ 그해 5월에 또한 왜선 66척이 승주에 다시 침입하였을 때 이를 격퇴하였다는 기록들이¹⁷⁰⁾ 위의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나 조선 초기 여수현은 1396년 폐현되어 순천부 관내에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그 요인은 당시의 관찰사료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해주오씨 한림공파 세보(海州吳氏翰林公派世譜)」에 의하면 “태조는 나라를 세운 후 신왕조 건국교지를 전국의 수령에게 보냈는데, 이때 여수현령 오흔인(吳欣仁)이 성문을 굳게 닫고 왕의 사신을 거절하니, 태조가 이를 듣고 즉각 여수현을 폐현시켰다.”¹⁷¹⁾라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았을 때 현령 오흔인이 고려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 했던 것이 폐현의 원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군현승강제를 적용하여 여말 이래 혼란해진 군현제에 대한 폐단과 폐습을 나름대로의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승격과 강등을 시켜왔다.¹⁷²⁾

이에 조선왕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군현의 집단형벌인 강등을 여수에 적용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여수는 독립된 행정구역의 지위를 상실하고 순천의 행정구역내에 소속되고 말았던 것이다.

168) 府는 수령이 파견된 지방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상위 관찰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조선초기에는 광성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의 4부가 대치되었고 관찰사와 동격인 총관의 府尹을 두었을 大縣副尹은 중국의 郡太守로서 군사상의 郡將이 주임 무별이니 조선의 경우는 다만 지방행정 구획상의 현 아울에 불과하여 33품의 大縣副尹使尹 두었을 省尹의 이름이 바로 원 지방행정구역의 構構으로서 전국에 20개의 목을 두었으며 그 수령을 省尹과 하연이며 청탁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청 2품과 중 2품이 임명되기도 한 順應府尹은 목의 다음가는 지방행정구역의 격상으로 조선초기에는 44도호부가 있으면서 종4품의 郡太守府尹가 파견되며 도호부시를 역임하여 府尹과 불렸음. 省尹은 제5급과 지방관이 파견되는 구역으로 조선초기에는 91처로 되어있고 군에 파견된 수령은 郡守로서 종4품 관찰가 임명되었다. 省尹은 大縣과 小縣으로 구분하여 대전에는 順應府尹(順應府尹), 소현에는 順應縣尹(順應縣尹)이 파견된 최봉수, 「新羅時代, 墓方(墓方)의 葬儀에 관한 研究 - 一州·府·郡·縣을 중심으로」, 「정책과학연구」 5, 1993, 9~10쪽).

169) 「고려사」 권37, 세가 중장왕 경민 2년 4월 무술.

170) 「고려사」 권37, 세가 중장왕 경민 2년 5월 경진.

171) 九世吳欣仁 - 文科 卷四
王朝 與國翰林院 既道經文 以翰林守龍水 太祖
爲命之 朝故文至 公勿威
不軌 事達上聞 啓爲西縣
放置其地(「海州吳氏翰林
公派世譜」, 호남문화사,
1982, 5쪽).



172 鄭氏異議制와 관련하여
김진봉 외, 「지방행정구역변천의 정치·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1, 1981; 최
행수, 「고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의 등급제
와 승강체를 통한 중앙
통제」, 『한국공공관리학
보』20, 2006 참조

2. 순천부와 좌수영의 교침구조(交侵構造)와 여수의 복현운동(復縣運動)

여수는 1396년 순천에 병합되어 그 관내에 속해 오던 중 1479년(성종 10)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전라좌수영)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조선의 해안방비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으로서 행정체제와는 다른 별개의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여수지역은 순천도호부체제하의 행정지배와 전라좌수영의 군사행정체제하에 놓임으로써 이중적인 지배구조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라좌수영은 해안방어의 전진기지로서 임진왜란 시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둬 왜군을 격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관오포 영민들의 현신과 희생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민들은 전라좌수영의 설치 이후 순천부와 좌수영 사이의 교침구조 아래 놓여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행정적으로는 순천도호부의 백성이면서 또한 좌수영의 군졸로 소속되는 터라 두 곳의 조세, 군역 등을 부담하는 처지가 되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17세기 이후 이 지역의 군사적인 실권이 약해지자 순천도호부와 좌수영의 관계는 더욱 갈등이 깊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순천부사는 비록 종3품의 당하관이기 때문에 직급이 좌수사보다 낮지만 속현인 여수의 행정 실권을 쥐고 있는 본관이고, 전라좌수사는 군사적으로는 순천까지 통할할 수 있는 정3품의 당상관이기 때문에 직급은 순천부사보다 높지만 전시가 아닌 평상시 행정의 장악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배 권력을 내세워 상호간의 마찰과 충돌이 존재하였으며, 부역과 세금 등을 지역민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였으나 정작 그들의 고충은 거의 들어주지 않았다. 순천부에서는 지리적으로 좌수영이 아래에 있다고 돌보지 않고 좌수영에서는 행정구역상 순천부에 속해 있다고 잘 살피지 아니하여 여수지역은 의지할 곳이 없는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 지방 사료의 예는 당시 여수민의 고충과 순천부와 좌수영의 갈등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을 동쪽 30리 되는 곳에 율촌면이 있다. 옛날에 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 그 면의 수사의 사환이 봉납하는 밤의 석수를 정하였는데 그 양이 차지 않으면 본부의 삼공형을 불러다 따져서 그 면의 백성들에게서 거

두어들이 한 일이 종종 있었다. 백성들은 이 폐단을 이겨낼 수 없었다. 1687년(숙종 13) 정묘년에 이봉장이 이 고을의 부사가 되어 왔다. 그 때도 수사가 밤을 거두면서 삼공형을 닥달하였다. 이부사가 그 까닭을 물어서 사정을 알아냈다. 곧 관내에 전령해서 해당 민호를 징발하여 백성들에게 도끼로 밤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게 하였다.¹⁷³⁾

173) 『江南樂府』, 『樂府』

이 사례는 당시 순천도호부 관내 율촌면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다. 율촌면은 여수가 순천도호부로 편입되기 전 용두면(현재 순천시 해룡면), 소라면, 삼일면, 여수면과 함께 여수현의 지역이었다.

기록의 전말에서는 좌수사의 횡포로 인해 여수민들의 고충이 극에 달했지만, 순천부사의 선치로 폐습이 혁파됨으로써 순천부사의 덕을 칭송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반대로 율촌민들은 밤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면 다른 방법으로 조세와 역을 담당했을 것이며 그에 따른 더한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위 내용을 순천부가 좌수영에 대한 조세근원을 차단시키는 극단의 처방으로 해석한다면 순천부와 전라좌수영 양관의 갈등이 그 만큼 심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여수지역민은 불합리한 이중의 지배와 수취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복현운동을 전개하였다. 1700년(숙종 26)에 순천의 유생 박시유(朴時裕)¹⁷⁴⁾ 등이 상소하여 여수의 옛 고을을 회복하고 이곳의 현령을 좌수사로 하여금 겸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여수현의 복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¹⁷⁵⁾

1722년(경종 2)에도 사헌부에서 여수지방의 백성들이 두 곳에 끼어 책응하여 잡역과 조세를 부과하니 그 폐단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 구현을 회복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 전라좌수영으로 하여금 겸찰(兼察)하게 하여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종은 순천과 여수의 문제를 의정부로 하여금 좋은 방편을 따라 변통하게 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못하였다.¹⁷⁶⁾

사헌부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무수히 많은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조선시대 유생들의 상소문 가운데 청원소가 숙종, 영·정조 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¹⁷⁷⁾

1725년(영조 1)에 지평 이근(李根)은 여수의 백성들이 부역을 거듭 원망하

174) 여수지역의 인물로 주족 되나 당시 여수현은 순전에 병합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순천유생이라 칭하여 상소를 올렸을 것으로 사료된다.

175) 『숙종실록』 권34, 26년 경진 9월 무술

176) 『경종실록』 권10, 2년 임민 12월 임신 같은 날의 승청원일기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승청원일기』 제548책, 경종 2년 12월 임산, 『경종실록』권11, 3년 개보 1월 읍유,

177) 협석규, 「조선시대 유생 상소의 유형과 주제」, 『경북사학』 17·18, 1995, 64~65쪽.



여 많은 폐단이 발생하여 백성이 살 곳을 정하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영조는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여수를 다시 현으로 삼고, 전라좌수사가 겸무하도록 허락했다.¹⁷⁸⁾

여수는 비로소 순천부에서 벗어나 독립된 행정구역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는 순천의 여수면에 현을 설치한 것은 간사한 백성들이 백방으로 속인 소치라 하여 다시금 종전대로 합속하자는 건의가 나타나게 된다.¹⁷⁹⁾

그리고 얼마 못가 여수가 분읍한 뒤 폐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되고 여러 대신들 역시 개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¹⁸⁰⁾ 이에 대하여 환속되어야 하는 연유를 당시의 좌의정인 흥치중(洪致中)이 다음과 같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여수를 분읍한 이후에 항교, 객사의 영건(營建)과 군정의 변통, 관아의 급료를 마련하는 일에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뿐만 아니라 순천은 옛날에 전선 1척의 선창(현재 여천 선소유적)과 또 노젓기, 활쏘기에 능한 군사가 있어 모두 여수에 있었는데 분읍된 이후에는 토지와 인민이 모두 수영에 속해 있으므로, 본부의 선적을 다시 간직할 장소가 없습니다. 수군도 또한 그 인원을 보충하여 정찰 방도가 없으므로 순천은 전선을 수영에 옮기고자 하고, 수영에서는 수영의 선함의 수가 많기 때문에 받아서 두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미루고 핑계하여 문서로만 보고하기를 어지럽게 하는데, 이것이 또 대단히 구애되어 꼼짝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이순신의 5세손인 어영대장 이봉상(李鳳祥)마저 역시 마땅히 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⁸¹⁾

이는 지방행정구역체제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조정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순천부 아전들의 농간과 기존 여수와의 갈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훗날 여수의 복현상소를 올렸던 정종선(丁鐘璣, 1811~1878)의 상소문을 보면 여수의 5면을 분리하면 기득권을 주는 본부(순천)는 그 입지가 좁아지고 권한과 봉록 등이 5분의 1이 감해질 것이라 하며 그 권한을 잃지 않으려는 순천부의 정치적 훠방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⁸²⁾

여수현 폐지에 여수민들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이듬해 다시 상소하여 임

178) 『영조실록』 권7, 1년, 을
사 8월 신안: 「승정원일기」 제698책, 영조 1년 8
월 신안.

179) 『영조실록』 권9, 2년, 봉
오 5월 기미.

180) 『영조실록』 권10, 2년 9
월 갑오, 「승정원일기」 제
623책, 영조 2년 9월
갑오, 「비변사동록」 권
80, 영조 2년 9월 청유
의 기사비용도 『영조실
록』의 내용과 같다.

181) 『증보문헌비고』 권16, 어
지고 4.

182) 『鹽稅遺稿』, 請自職天分
薪水為一縣財中古疏.

금의 청문을 무망(誣罔)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원하였다.¹⁸³⁾ 또한 숙종대부터 여러 차례 상언을 올리고 신문고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엄중하게 다스려서 화를 입고 죽임에 이른 인물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¹⁸⁴⁾

당시 여수현 복읍운동의 대표적 인물로는 「조선환여승람(朝鮮實輿勝覽)」 여수편 명망(名望) 조의 기사에 언급되었는데 연안 차씨 문중의 차국태(車國泰), 차동궤(車同軌), 창원 황씨 문중의 황성룡(黃成龍), 해주 오씨 문중의 오석조(吳錫祖), 네 사람¹⁸⁵⁾이 강희(1662~1722)년, 응정(1723~1728)년간에 복설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화를 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¹⁸⁶⁾

이 기록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인물을 찾아 본 결과 「연안차씨대동보」에 의하면 차국태(1670~1737)와 차동궤(1708~1744)는 부자지간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동궤 이후 자손을 잊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¹⁸⁷⁾ 이와 관련하여 「일성록」의 기록에서도 차국태 부자가 여수에서 사망하게 된 기록도 찾을 수 있다.¹⁸⁸⁾

황성룡과 오석조는 각각 「창원황씨세보」와 「해주오씨대동보」를 검토해 보았지만 개인의 세부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단순한 누락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사환(仕宦)이 불가능한 신분적 하자를 가진 서자나 노비, 또는 가계에 누가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족보의 기록에 강제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존재했던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볼 때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도 조심스럽게 의심해 볼 수 있다.¹⁸⁹⁾

위 두 인물은 각각의 가계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관찬사료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1760년(영조 36)부터 기록된 관찬사료인 「일성록」에서 인물들의 당시 행적과 기록된 시기 이전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데, 황성룡¹⁹⁰⁾은 여수 소속의 5개 면을 좌수영에 소속시켜 생업을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원정을 올린 일이 있으며,¹⁹¹⁾ 이후 기록에서는 이미 1782년(정조 6)에 정배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¹⁹²⁾

오석조(吳錫祖)¹⁹³⁾는 여수 복읍 관계로 본부(순천)의 폐단을 좋은 쪽으로 바로 잡아 순천부의 여수면 등 5개의 면을 수영으로 이속시켜 달라는 상언을 한 사실¹⁹⁴⁾과 오석조의 아들인 오주한의 상언을 조사한 형조에서 60년이 지난 일을 마치 근년에 있었던 일처럼 과장한다고 하며 1782년(정조 6)에 복설 운동으로 인해 정배(定配)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¹⁹⁵⁾

또한 1786년(정조 10)의 「일성록」 기록에서도 오석조의 손자인 오달손(吳達

183) 「영조실록」 권11, 3년 7월 2일 경상: 「승첨원일기」 제632책, 영조3년 2월 경신

184) 「조선환여승람」-여수- 조망 보문사 102.

185) 이 기록에 언급된 4인은 복읍운동 이후 여수현이 복읍된 1725년(영조 1) 이전만이 아닌 복읍 후 다시 학파가 된 1726년(영조 2) 이후에도 복읍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 인물들이었다.

186) 「朝鮮實輿勝覽」-여수-, 조망, 보문사 102.

187) 「연안차씨대동보」, 연안차씨증진회중앙본부, 2004, 86쪽.

188) 「日省錄」, 정조 9년 4월 23일.

189) 속보 편찬의 배경이나 과정 등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손병규, 「속보의 연구기제 범위-1926년경에 작성된 흥천이씨의 세 파보록 중심으로-」, 「고문서 연구」 28, 2006; 김난옥, 「여밀선조 속보의 사회상: 여밀선조 선조화식과 속보편찬의 신분적 배경」, 「한국증세사연구」 25, 2008; 차장선, 「조선시대 속보의 유형과 특징」, 「역사교육논집」 44, 2010.

190) 「日省錄」에서는 黃錫龍으로 기록되어 있고, 「朝鮮實輿勝覽」에는 黃成龍으로 기록된 바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191) 「日省錄」, 정조 8년 12월 10일 기사.

192) 「日省錄」, 정조 9년 4월 23일 기사.

193) 「日省錄」에서는 吳錫祖로 기록되어 있고, 「朝鮮實輿勝覽」에는 吳錫祖로 기록된 바 이 역시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194 「日省錄」 정조 8년 2월
21일, 6월 5일 기사
195 「日省錄」 정조 9년 4월
23일 기사
196 「日省錄」 정조 10년 9월
7일 기사

197 「정조실록」 권32, 15년
신해 1월 갑진

孫)의 상언에서 당시 나이 80세에 이르러서도 정배되어 있었으며 죽기 전에 빙고자하는 간곡한 부탁이 나타나 있는 것¹⁹⁶⁾으로 보아 황석룡과 오석조는 기록 편찬의 60년 전인 1720년대에도 여수현의 복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죽기 전까지의 생애를 여수현의 복설운동에 힘쓰다 정배까지 당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석조의 아들인 오주한(吳周翰)과 손자인 오달손까지 3대에 걸쳐 여수현의 복설운동을 끊임없이 주도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여수지역민들은 여수현을 다시 설치하려는 운동을 맹렬히 전개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엄한 벌로써 다스려지는 등¹⁹⁷⁾ 복현 운동의 결실은 나타나지 못하였다.

3. 정종선의 복읍상소

여수의 복읍과 혁파가 이루어진 18세기 초반 이후 다시금 여수 복읍의 무수한 상소와 조정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이뤄지지 않았다. 19세기에 이르러서도 그 노력을 계승된 바 복읍 운동의 전개는 멈추지 않았다.

정종선은 19세기 중반 이후 여수의 복읍에 대한 상소를 올린 인물이다. 자는 군서(君瑞)이고 호는 운초(雲樵)이며, 1811년(순조 10)에 태어났고 1878년(고종 15)의 68세의 일기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⁹⁸⁾ 1864년(고종 1)에 여수 분읍에 대한 상소를 올렸으며, 후대에 학식과 덕망이 높아 존경받는 인물로 칭송받았다고 알려져 있다.¹⁹⁹⁾

그는 「운초유고(雲樵遺稿)」라는 문집을 남겼는데 그 속엔 시(詩), 연(硯), 소(疏), 서(序), 발(跋), 문(文) 등의 여섯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소(疏)의 기록이 순천에서 여수를 분리하여 한 현을 만들어 달라는 상소가 기록되어 있다.²⁰⁰⁾ 상소문에서는 여수지역의 상황과 폐해를 열거하며 여수의 복읍을 간절히 바라는 장문의 글이 실려 있다.

당시 여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수는 순천부의 소속이며 순천의 전 구역은 18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용두(龍頭, 현 순천 해룡면), 율촌(栗村), 소라(召羅), 삼일(三日), 여수(呂水) 5면을 여수지역으로 소개하며, 신라와 고려를 지나 조선 초기까지 구역을 갈라서 다스려 온지가 오래되었다

198) 『押海丁氏大同道』 권11,
임해정씨대동보민전회,
2002, 821~822쪽.

199) 위의 책.

200) 『雲樵遺稿』 권2, 「請自稱
天分靈水爲一縣如中古
議。」

고 기록하고 있다.²⁰¹⁾ 그렇지만 좌수영의 설치 이후 순천부에서는 이곳이 좌수영 밑에 있다하여 잘 돌보지 아니하고 좌수영 또한 순천부에 속한 땅이라하여 잘 보살피지 않고 서로 미루고 있어 여수는 의지할 곳 없는 땅이 되었다고 하였다.²⁰²⁾

이러한 상태에서 갖가지 폐단이 발생하여 여수 지역민의 고충은 더해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종선의 상소에서 이 지역민의 폐단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순천과 좌수영의 선박, 인원배치 등의 비용과 양식 문제를 여수 지역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소에 의하면 전선(戰船), 병선(兵船), 각선(脚船) 등의 배가 좌수영과 돌산진에 총 36척이 있으며 그 밖에 그에 필요한 인력과 군사적 목적으로 둔 인원배치를 모두 여수인들이 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⁰³⁾ 주장으로 보아 순천부와 좌수영의 갈등으로 인해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행정권력이 좌수영보다 앞선 순천도호부가 수군편제를 좌수영 소속의 여수 지역민들로만 이뤄지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히 여수지역은 순천도호부 소속의 선창과 수군편제가 존재하였고, 또한 좌수영 역시 군사적인 목적으로 둔 설치 기구이기에 여수지역민은 도호부와 좌수영 두 곳의 지배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일신양역(一身兩役), 즉 1인이 좌수영과 본부의 부역을 동시에 지고 있는 것이다. 여수 지역민들은 거리가 가까운 좌수영의 부역 뿐만 아닌 본부의 부역에도 나가 하루 사이에 두 곳의 부역을 지는 폐단이 존재하고 있어 그 고통이 매우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가족이 각각 본부와 수영의 역에 따로 나가는가 하면, 오전에는 수영의 부역을 짊어지고, 저녁에는 본부의 부역을 나가야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⁰⁴⁾

셋째는 아전들의 농간이 지나쳐 세금의 이중 수취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고 했다. 여수에서는 본부인 순천은 거리가 가깝게는 60리에서 멀게는 150리 정도가 되는데 외진 섬이나 벽지에 사는 백성들은 아전들의 횡포로 본부인지 좌수영인지 소속도 모른 채 세금을 받아가는 것에 지탱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상품에 대한 것도 좌수영과 본부가 따로 받아가고 있어 백성의 부담이 배가 되어 견딜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⁰⁵⁾

이 자료는 당시 여수지역의 세부적인 상황과 지역민의 고충을 자세히 기록하여 문집의 상태로 보전된 바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201) 順天全構總十八面而有內
五面置曰龍頭萬村曰召霤
曰三日邑呂水是五面古號
水縣也 夫鹽水縣者 自
羅羅至于 韓的 像

202) 我朝分界設官 順推舊支
案及中世移設左水營於
錄水 仍罷縣官 其寧田
三案 全屬順天 順天仍固
都護府 自茲以後舊水五
面改於都府之時若種之
於齊楚也 順天則謂以水
營調下邑令使咸水營則謂
以順天屬邑全不置護所
相推托無所駐持 補引
位的 像

203) 大榮水營四戰船五兵船
各率...其數雖何而舟橫之
費積倉之用皆出於舊水
至 位的 像

204) 本府民雜以畿足或有一
身兩役於都府者... 중
략...其兩遇疊役爲一...理
臣之最所難堪者也 位的
像

205) 畿水之於本府或六七十
里或一百五十里吏胥之
弄奸多門民情之壅蔽莫
開至... 중략... 本府則情
貴數三日程而進上物則
進上價本來優厚然都
府每徵極難堪而擔當
之外都府責應不堪... 本
府亦可以支當乎 位的
像



▲ 전라좌수영성 고지도

200) 돌산도의 영토, 행정구역
와 설치 등과 관련하여
변동면, 「조선시대 돌산
도, 행정구역의 설치와 그
구조」, 『한국사학보』, 27,
2007; —, 「조선시대
의 돌산진과 고돌산진」
『역사학보』, 106, 2008,
참조

4. 돌산군과 여수군의 신설

현재 돌산읍 지역은 조선초 여수지역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현이 아닌 순천도 호부에 흡수통합이 되어 순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후 중종대에 새로운 해상방어기지인 방답진(防踏鎮)이 설치되어 1895년 갑오경장으로 군제가 개편되면서 폐진의 운명을 맞을 때까지 전라좌수영을 구성하는 수군첨사진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전라도 해상방위의 주요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였다.²⁰⁶⁾

1895년 갑오개혁기의 지방제도 개혁으로 인해 전국이 23부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부, 목, 군, 현 등을 군으로 통일하고 그 규모를 일정하게 하였다. 이 때 전라도는 전주, 나주, 남원, 제주의 4개 부로 개편되었고, 이에 여수와 돌산지역은 남원부 순천군에 소속하게 되었다. 23부제로의 개편은 보다 세분된 행정구역을 나눠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하기 위함이었으나, 이듬해에 13도제로의 변경으로 보아 예상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3부제가 실시된 해에 여수의 전라좌수영과 돌산의 방답진은 폐지되었다. 이로써 여수지역은 마침내 순천부와 전라좌수영의 이중적 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지는 않고 순천군의 소속은 유지되었다. 이듬해인 1896년 2월 도서지역을 효과적으로 관할하기 위해 도서지역에 군을 설치하는 칙령이 반포되었다.

돌산군은 나주부 소속으로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서 홍양(지금의 고흥지역), 낙안, 순천, 광양군 소속의 많은 섬들이 돌산군 관할지역으로서 순천군에서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13도제의 실시에 따라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돌산군은 전라남도에 속하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개편되기에 이른다.

돌산지역을 포함한 현재 여수의 도서지역은 돌산군이 설치되었지만, 여수의 육지지역은 여전히 순천군에 소속되었다. 돌산군의 설치 이후 여수지역은 조선 후기의 복현운동과 마찬가지로 설군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어찌면 조선후기 복현운동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수지역민들은 맹렬히 추진하였다.

여수 유지 18인이 동맹서약해서 이 고장의 비원을 풀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서울로 올라가고, 일부는 지방에 남아 진정서를 작성하여 각계에 보내고 지방여론을 활기시켰다. 이에 초대 돌산군수와 관찰사 등이 여수복군을 조정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²⁰⁷⁾ 그리하여 1897년 6월 기존의 순천군에 속해있던 울촌, 소라, 삼일, 여수의 4개면을 관할하는 여수군을 신설하게 되었다.

207) 『箇水錄』, 卷上, 25쪽.

제2절 전라좌수영과 여수

1. 전라좌수영의 설치 배경

김 만 호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연구원)

전라좌수영은 전라좌도 수군의 주진(主鎮)으로서 약 400년 동안 남해안 방어를 담당해 왔다. 특히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전라좌수사 이순신(李舜臣)은 제해권을 장악하며 왜구의 침입을 저지하였다. 당시 활약했던 조선수군의 주축은 다름 아닌 전라좌수영군이었으며, 그들의 모항이 바로 전라좌수영이었다.

전라좌수영은 1479년(성종 10)에 설치되었다. 당시 전라도 순찰사 이극배(李克培)가 “우리나라에 만약 왜변(倭變)이 있으면 전라좌도(全羅左道)가 반드시 먼저 적(敵)의 침략을 받을 것이니, 청컨대 내례포(內禮浦)에 주진(主鎮)을 두어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1원(員)을 설치하여 변경의 방비를 견고히 하소서.”라고 건의하였는데,²⁰⁸⁾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를 보면 전라좌수영이 설치된 직접적 원인이 왜변 즉, 왜구(倭寇)의 침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라좌수영이 기존의 내례포 즉, 내례만호(內禮萬戶)를 폐지하고 설립되었음도 확인된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전라좌수영의 설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왜구의 침입에 대한 방비에 대한 것은 조선 초기 수군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내례만호와 그것을 대신한 전라좌수영의 설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전라좌수영이 설치되었던 여수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순천도호부에 속해 있었다. 순천 지역은 고려말 왜구의 침탈이 매우 심한 지역이었는데,²⁰⁹⁾ 여수는 순천에 이르는 해상통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구의 피해를 가장 먼저 받았을 것이다.²¹⁰⁾ 여수에 전라좌수영이 설치된 것 역시 왜구의 침입과 무관하지 않았다.

조선 초기에 수군의 정비와 강화 역시 고려 말에 출몰하던 왜구에 대비하

208) 『成宗實錄』, 卷 100, 成宗 10년 1월 6일.

209) 『高麗史』, 「고려말 왜구의 침략」, 『慶大市史』(정치·사회편), 순천시 사편찬위원회, 1997, 259~266쪽.

210) 『通鑑』, 「조선시대의 海山匪과 古寧山匪」, 『歷史學報』, 第128輯, 2008, 9쪽.

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려 말에는 북쪽에서 홍건적 등의 침입이 계속되었으며, 1350년(충정왕 2) 이후에는 남쪽에도 왜구가 본격적으로 침입하였다. 특히 공민왕과 우왕대에 걸쳐 왜구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공민왕 말엽부터는 왜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어책을 마련했다. 이후 선군을 확보하며 전함을 건조하기도 하였으며, 해당 수군들은 수군도만호·만호·천호 등의 체계에 의하여 통솔되었다.

고려말 우왕대에 가장 심하게 침입하였던 왜구는 점차 그 기세가 누그러지긴 했지만 조선 초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약탈을 계속하였다.²¹¹⁾ 조선 초 수군의 조직은 고려의 것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 점차 수군과 병선 및 진포(鎮浦)가 증가하고 있었다. 진례만호(태조 5)도 이 무렵 설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대의 군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정리되어 있는데, 수군의 경우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처치사(處置使) 또는 도만호(都萬戶)의 지휘 아래 각 포에 만호(萬戶)가 배치되어 있었다. 전라좌도수군의 경우 여도량을 도만호가 담당하였고, 내례·돌산·축두·녹도·회령포·마도·달량·어란포에는 만호가 배치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군제는 세조 대에 변화를 보였다. 세조 원년에는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조 3년에는 다시 군익도체제에서 진관체제(鎮管體制)로 바뀌어 정비되었다.²¹²⁾ 이렇게 확정된 진관체제에 따라 지방군제를 정착시키고 전국 각 지역을 진관단위로 묶어 사실상 군일한 체제하에 국방병력을 일원화하였다. 수군 역시 육군의 진관체제를 좇아 지역별로 진관조직을 갖추었다.²¹³⁾ 전라좌수영은 이처럼 수군체제가 진관체제로 변하는 도중에 설치된 것이다.

다음은 내례만호진과 전라좌수영의 설치에 대해 살펴보자. 내례만호는 1423년(세종 5)에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해 정월에 전라감사가 “도내(道內) 진례량(進禮梁)의 병선(兵船)을 내례량(內禮梁)으로 옮겨 정박(停泊)시켜, 거제(巨濟) 서면(西面) 평산포(平山浦)의 병선과 서로 대하게 하여, 연화(烟火:봉화)로 써 서로 바라보고, 고각(鼓角)으로 써 서로 들리게 하면, 적군을 막는 데 편리할 것입니다.”라고 전의하여 윤허를 받게 된다. 이를 보면 세종 5년에 진례만호(進禮萬戶)가 폐지되고 대신 내례만호(內禮萬戶)가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설치된 내례만호는 순천도호부 관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다. 다음의 표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정리한 것인데, 이를 보면 내례만호에 소속된 전선, 선군, 초공의 수가 도만호가 담당하던 여도량 다음으로 많다.

211) 陸軍士官學校 朝國軍事研究室, 『朝國軍制史』(近世朝鮮初期) 陸軍本部, 1968, 18~23쪽.

212) 李載惠, 「朝鮮初期의 水軍」, 『朝鮮初期社會構造研究』, 一潮閣, 1984, 116~120쪽.

213) 조원래, 「임진왜란 때 전의 승천과 순천수군의 활약」, 『順天市史』(정지·사회면, 順天市史編纂委員會, 1997, 286쪽).

전라좌수군의 전선배치(세종실록지리지)

		中船	猛船	別船	計	船軍	梢工	
全羅左道	都萬戶	呂島梁	6	12	-	18	1,012	19
	萬戶	內禮	6	-	6	12	766	6
		突山	8	-	-	8	518	4
		築頭	6	-	2	8	483	4
		鹿島	6	-	2	8	483	4
		會寧浦	4	-	4	8	472	4
		馬島	8	-	-	8	510	4
		達梁	7	2	-	9	519	4
		於蘭	4	-	-	4	480	4
計		55	14	14	83	5,243	53	

다음은 내례만호진의 위치를 살펴보자.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내례가 순천부의 남쪽 며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²¹⁴⁾ 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며포가 부의 동쪽 61리에 있다고 하고, 대경도(大京島)·소경도(小京島)가 모두 며포의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²¹⁵⁾ 대경도와 소경도의 북쪽은 현재 여수시 국동(菊洞)이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내례만호는 며포 즉 현재 국동 일대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²¹⁶⁾

하지만 성종 9년 3월, 내례포만호진에 왜구가 침입하여 군기와 화약을 빼앗아 간 일이 발생하게 된다.²¹⁷⁾ 내례포는 전라도 만호진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왜구의 침탈을 받아 버린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정에서는 전라좌도 수군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 같다. 1479년(성종 10) 전라도순찰사 이극배의 건의로 내례만호를 대신하여 좌도수군절도사가 담당하는 전라좌수영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전라좌수영이 설치된 직후 전라좌수사 박양신(朴良信)은 전라좌수영의 운영에 관한 사목을 올려 허락을 받게 된다. 그 내용에는 우도의 수군 25인을 전라좌도로 이속시킬 것과, 전라좌수영의 성보(城堡)를 건축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²¹⁸⁾ 이때 축성하기 시작한 전라좌수영성은 1490년(성종 21) 10월에 완성되는데, 그 둘레가 3천 6백 34척이었다.²¹⁹⁾

현재 남아있는 전라좌수영성 터는 군자동(君子洞)·동산동(東山洞)·관문

214)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215) 「新增東國輿地勝覽」卷 40, 順天都護府, 山川

216) 韓漢社, 「全羅左水營의 역사」, 「全羅左水營의 역사와 문화」, 順天大學校博物館·藝水市, 1993, 15쪽. 하지만 며포를 국포(國砲)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文榮龜는 여수시 국동 구 어수보건소 터가 만호진 이었다는 고증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며포를 국포로 주장하였다 「全羅左水營研究」, 『社』大韓建設振興會, 1992, 26쪽. 하지만 文榮龜가 며포로 본다면 며포가 부의 동쪽 61리에 있다는 기록을 부정하게 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 40, 順天都護府, 山川, 장성모(長省甫)에 대한 기록을 보면 유택(柳若)이 왜구를 물리친 곳으로 부의 동쪽 60리에 있다고 되어 있

는데, 그걸다면 여포는 국도 보다는 장성포와 떨번 가깝다는 일이 된다. 즉 '대경도와 소경도가 모두 여포 남쪽에 있다'는 기록에만 의지하여 여포가 국포이미 그곳이 바로 대례만호가 있었던 것이라고 확정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文獻卷에는 국포가 대례와 여포인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대례 포가 부의 동쪽 49리에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대례포와 여포는 거리상으로 12리가 차이 나서 두 도구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대례만호가 여포에 있다는 기록만으로 대례포를 여포와 동일시하는 것도 위험한 일상일 듯 싶다. 참고로 청천구는 대례포와 여포를 달리 보았다. 대례포는 여수구행 濟水署准으로 보았고, 여포는 국포와 동일하게 보았다 (鄭清柱, 같은 논문, 16쪽). 이처럼 연구자마다 표구의 위치를 비정하는 경향이 다르다. 이 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

217) 『成宗實錄』 卷 90, 成宗 9년 3월 1일.

218) 『成宗實錄』 卷 101, 成宗 10년 2월 22일.

219) 『成宗實錄』 卷 240, 成宗 21년 10월 30일.

220) 鄭清柱, 같은 논문, 16쪽 참조.

동(館門洞) · 고소동(姑蘇洞) · 중앙동(中央洞) 일대이다. 아마도 성보를 신축하면서 여포에 있던 전라좌수영이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 같다.²²⁰⁾

2. 전라좌수영의 편제와 5관 5포

전라좌수영의 편제는 1485년(성종 16)에 펴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수군은 주진(主鎮), 거진(巨鎮), 제진(諸鎮)으로 나누어졌고, 주진에는 수군절도사(정 3품)와 수군우후(정 4품)가 거진에는 수군첨절제사(종 3품)가 제진에는 만호(종 4품)가 두어졌다.

주진인 전라좌수영 휘하에는 거진인 사도진관을 두었고 그 밑으로는 제진인 회령포 · 달량 · 여도 · 마도 · 녹도 · 발포 · 돌산포 등 7개의 만호를 둔 체제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좌수군의 편제(경국대전)

全羅 左道	主鎮 (節度使)	左水營 (左水使-虞侯, 順天 内禮浦)	여수시
	巨鎮 (食節制使)	蛇渡鎮管 (蛇渡食使, 興陽)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諸鎮 (萬戶)	呂島鎮 (呂島萬戶, 興陽)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鹿島鎮 (鹿島萬戶, 興陽)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鉢浦鎮 (鉢浦萬戶, 興陽)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會寧浦鎮 (會寧浦萬戶, 長興)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보성군 회진면 회진리)
		達梁鎮 (達梁萬戶, 靈巖)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馬島鎮 (馬島萬戶, 康津)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突山浦鎮 (突山萬戶, 順天)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당시 전라좌수영의 관할지역은 해남반도의 남단을 경계로 하여 그 동쪽의 전라도 해안지역 즉, 영암군·강진현·장흥도호부·보성군·낙안군·순천도호부·홍양현·광양현이었다. 결국 경국대전이 간행되는 시기에 전라좌수영은 8관 8포를 관할하고 있었던 것이다.²²¹⁾

하지만 전라좌수영은 1491년(성종 22) 11월 즈음까지는 왜구 방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특진관(特進官) 박안성(朴安性)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전라좌수영의 수군은 50명이었고, 전라우수영의 수군은 1,200명이었다.²²²⁾ 박안성의 건의에 따라 전라우수영의 수군을 나누어 전라좌수영에 이속시키는 조치가 취해져서 전라좌수영군은 강화될 수 있었다.²²³⁾

1522년(중종 17)이 되면 전라좌수영의 편제에 변화가 생긴다. 추자도(楸子島)에 왜구가 끊임없이 출몰하자 조정에서 그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강진현에 가리포진(加里浦鎮)을 설치하고 이를 달량진(達梁鎮)과 합한 후 수군 첨절제사를 두었다.²²⁴⁾ 우수영 관내에 새롭게 편성된 가리포진관에는 사도진관(蛇渡鎮管)의 마도진(馬島鎮)이 이속되었다. 한편, 사도진관의 돌산포진(突山浦鎮)의 만호가 혁파되고 대신 권관이 두어져 돌산포만호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방답진(防踏鎮)이 설치되어 첨절제사가 두어졌다.²²⁵⁾

이처럼 1522년의 개편을 통해 전라좌도의 편제는 크게 변했다. 달량진과 돌산포진이 없어졌으며, 마도진은 새롭게 마련된 가리포진관에 속하게 되었고 방답진은 신설되었다. 정리해보면 1522년 즈음에 전라좌수영은 6관 6포를 관할하게 된 셈이다.²²⁶⁾

세조때부터 제도화되어 국방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진관체제가 을묘왜변(1555, 명종 10)을 전후한 시기에 제승방략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바뀜에 따라 해방체제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의 진관체제는 육상과 해상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육군의 경우에는 군사가 거주하는 바로 그 읍이 곧 그들의 소속진이 되었지만 수군에 있어서는 수군진 가까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현지의 수군부대에 소속되지는 않았다. 즉 진관체제 밑에서는 수군이 연해안의 각 진포에만 소속되었지만 이제는 연해지역 각 읍에까지 수군기지를 설치하여 수사 관할하에 둠으로써 종전의 해방체제를 크게 바꿔놓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제승방략의 분군법(分軍法)이 채택된 이후의 수군제도는, 물론 법제적으로 종전과 다른 뚜렷한 원칙이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 편제와 수군충당의 방법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²²⁷⁾

221) 鄭清柱, 일의 논문, 17~18쪽.

222) 『成宗實錄』, 卷 259, 成宗 22년 11월 29일.

223) 鄭清柱, 일의 논문, 17쪽.

224) 『新增東國圖地總覽』, 卷 37, 康津縣, 開拓

225) 鄭清柱, 위의 논문, 18쪽.

226) 華陰武鎮(華寧府鎮)의 경우에는 기록이 없어서 행방을 알 수는 없으나, 중종 17년의 개편 이후에 전라좌수영의 관할에서 제외된 것 같다. 참고로 조원래는 달량진과 마도진이 우수영 관내로 이관될 때에 화명포진도 우수영 관내로 이속된 것 같다고 보았다. 韓漢宋, 「임진왜란과 全羅道 水營」, 『全羅左水營의 역사와 문화』, 頤天大學校博物館·馨水市, 1993, 28쪽.

227) 趙萬來, 「왜란의 발발과 경과」,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57~58쪽.



228) 文藝錄, 「全羅左水營略記」, 朝鮮大韓建置圖說, 1592, 20쪽, 전라좌수영 관할 5관 6포 가운데 두드러지게 눈에 띠는 것은 충양현 경내에 1관 4포의 수군진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 충양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지리적 위치가 4면에 거의 바다를 끼고 있어 왜寇(倭寇)의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현판으로는 고통이 중요한 군사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趙漢來, 위의 논문, 29쪽).

이러한 변화속에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당시에 전라좌수영의 관할 하에 있었던 군현은 순천부·낙안군·보성군·홍양현·광양현 등 5관이었고, 수군진은 사도·방답·여도·발포·녹도 등 5진포였다.²²⁸⁾ 전라좌수영의 관할인 5관 5포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좌수군의 오관오포



1479년(성종 10)에 내례포를 대신하여 설치된 전라좌수영은 진관체제 하에서 주전으로서 전라좌도의 수군을 총괄하였다. 그 휘하에는 사도진관의 거진이 있었고, 그 밑으로는 회령포·달량·여도·마도·녹도·발포·돌산포 등 7개의 만호가 있었다. 또 영암군·강진현·장흥도호부·보성군·낙안군·순천도호부·홍양현·광양현을 등 8관을 관할하였다. 즉, 경국대전 단계에서는 전라좌수영이 8관 8포를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1522년(중종 17)의 추자도 왜변을 전후로 하여 큰 변화가 생긴다.

첨절제사가 담당하던 거진은 사도진 외에 방답진이 추가되었으나 만호가 맡았던 제진은 회령포·여도·녹도·발포만 남게 된다. 그리하여 1522년 즈음에는 6관 6포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회령포(장흥도호부)까지 전라좌수영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에는 5관 5포를 담당하게 되었다.

3. 임진왜란 당시의 3도수군통제영 여수

송 은 일(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연구원)

임진왜란 당시 여수의 전라좌수영은 3도수군통제사(이하 통제사라고 함)의 본영 역할을 겸하였다.²²⁹⁾ 이는 전라좌도수군절도사(이하 좌수사라고 함)였던 이순신이 통제사라는 직을 겸하게 되면서부터였다.²³⁰⁾

이순신은 1591년(선조 24) 2월 전라좌수영의 수사로 임명을 받고 곧 부임하여 1년여에 걸쳐 임전태세에 온 힘을 기울였다.²³¹⁾ 이렇게 임하고 있던 이순신과 전라좌수영군은 왜군이 1592년 4월 13일 부산포로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²³²⁾ 전열을 가다듬은 뒤 5월 4일 여수 본영으로부터 경상도 해역을 향하여 제1차 출동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이순신과 전라좌수영군은 옥포 합포 적진포해전에서 조선수군이 일본수군을 대파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조선수군은 이어 5월 29일 제2차 출동에서 사천 당포 당항포 유포해전과 7월 8일 제3차 출동에서 한산도 안골포해전, 그리고 제4차 출동한 장림 부산포해전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조선수군의 승리는 전라좌우수군과 경상우수군이 연합전선을 펴 이룩한 결과였지만 이는 이순신의 작전지휘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주력도 전라좌수군이었다.²³³⁾

이와 같이 조선수군이 연이은 승리를 하자 일본수군은 더 이상 바다에 나오지 못하고 경상 동남부 지역에 성을 축조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수시로 주변 마을을 노략질하는 등 소극적인 전술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시기 이순신은 전라좌수영의 본영은 여수에 그대로 두고 군영을 한산도로 옮기겠다는 장계를 올리고(1593년 7월 1일), 7월 15일 진(陣) 즉 전투사령부만을 한산도에 설치하였다.

당시 이순신이 주둔한 전라좌수영은 일본수군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들을 공격하자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이순신은 전략상 진을 구축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며, 그가 주목했던 진의 위치가 바로 한산도였던 것이다.

한산도는 거제의 남쪽 30리 지점에 위치하였으며 산 하나가 바다 굽이를 껴안아 배를 감추기에 용이하였고 밖에서는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곳

229) 文榮集, 「全羅左水營研究」, 《忠州 大韓建設振興會》, 1992, 262쪽~263쪽
230) 金鉉丘, 「朝鮮後期桂利營의 財政運營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12쪽, 「扶餘市史」上, 電子·경남민족공업협동조합, 1999, 180쪽,

231) 「宣祖修正實錄」, 卷27 宣祖 26年 8월 19일, 「李忠武公全傳」, 卷9 附錄 行錄,

232) 鄭清柱, 「全羅左水營의 역사와 문화」, 正文社, 1993, 19쪽

233) 일본군이 부산에 침입한 시기는 임진년 즉 선조 25년(1592년) 4월 14일이지만 이순신이 그 소식을 접한 것은 4월 15일이었다(『東中日記』, 壬辰年 4월 15일).

234) 趙善東,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正文社, 1993, 33~36쪽.



234) 『李忠武公全書』 卷9 附錄 行錄

235) 『宜相修正眞跡』 卷27 重編 26년 8월 13일壬午

236) 『李忠武公全書』 卷3 狀 漢聲狀

237) 이만동, 『임진왜란 韓戰』, 『정이한마디어』, 2006, 136쪽.

238) 『李忠武公全書』 卷3 狀 漢聲狀

이었다. 또한 일본수군이 전라도 내지는 서해안으로 가자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 때문에 한산도는 지형상으로 일본수군을 공략하기가 매우 양호한 곳이었으며, 한편으로 그들이 전라도나 서해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²³⁴⁾ 이순신이 한산도에 진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1593년 8월 1일 전라·경상·충청도 등 3도의 수군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통제사를 두게 되는데, 그 직책에 이순신을 임명하였다. 이순신이 통제사에 임명은 되었지만 본적인 좌수사는 그대로 지닌 채였다.²³⁵⁾ 이순신이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된 데에는 일본수군을 상대로 연이은 승리를 하여 조선수군의 제해권 장악을 가능케 하였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이순신이 좌수사와 통제사를 겸하게 됨으로 그의 주둔지였던 여수의 전라좌수영은 자연 3도수군통제영의 본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통제사 이순신의 주둔지였던 여수가 통제사의 본영 역할을 했던 것처럼 기왕에 전라좌수영의 진이 설치되었던 한산도 역시 통제사의 진으로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이 당시 좌수사 겸 통제사의 본영은 여수가, 그리고 진 즉 임시 전투사령부 역할은 한산도가 맡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한산도에 진을 설치했지만 이순신은 전선의 진조, 군량확보, 수군의 확충 및 재편성 등과 같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여수의 본영으로 복귀한 뒤 그 일을 처리하였다.²³⁶⁾

당시 최전선이었던 경상도 지역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전쟁에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을 마련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특히 농사를 지을 인력이 없어 군사들의 식량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²³⁷⁾ 비록 그 지역에서 일부 군량미를 확보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명나라 군사들에게 공급하기에 바빴다.²³⁸⁾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 군량미를 확보할 수 없었던 조선수군은 굶어 죽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임진왜란 당시 상황을 이순신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수군이 먼 바다로 나와 전을 치고 있는 지 이미 다섯 달이나 되니 군사들의 마음이 헤이해지고 기가 꺾인 데다가 전염병까지 크게 퍼져 진중의 군사들이 태반이나 전염되어 죽는 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군량미까지 떨어져서 굶어 쓰러진 자가 연이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때 병까지 얻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므로, 군사의 수가 나날이 줄어들고 달마다 줄어들

지만 이를 보충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군만 보더라도, 사부와 격군을 합해 원래 6,200여 명이었으나 작년과 금년에 전사한 사람과 또 2, 3월 이후 오늘까지 병으로 죽은 자가 600여 명이나 되는데 이들 사망자는 모두 건강하면서도 활도 잘 쏘고 배도 잘 부리던 지방 병사들과 포작들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군사들은 조석으로 먹는 양식이 불과 2~3흘에 불과하여 굶주리고 피곤함이 극도에 이르러 활을 당기고 노를 젓기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李忠武公全書 卷3 狀啓 陳倭情狀).

위 내용은 임진왜란 당시 최전선이었던 경상도 지역의 실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이순신은 우선적으로 군량확보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위해 그는 여수의 본영으로 돌아와 그 일을 처리하였다. 홍양의 도양목장과 강진의 고이도, 해남의 황원목장 등을 개간·경작하여 군량미에 보충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²³⁹⁾

이와 같이 이순신은 전략상 중대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여수의 본영으로 복귀하여 그 일을 처리하였고, 일이 처리된 이후에는 곧 한산도의 진으로 돌아가 전선에 임하곤 하였던 것이다.²⁴⁰⁾

이렇게 이순신이 본영으로 돌아와 일을 처리했던 경우는 임진왜란 기간 동안 줄곧 있었던 일이었다. 한편으로 이순신은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휘하 장졸이나 가노(家奴)들을 시켜 여수의 본영과 계속적인 연락망을 취하기도 했다. 특히 여수의 본영과 한산도의 진 사이에 정기적으로 탐후선(연락선)을 왕래케²⁴¹⁾ 해 본영의 업무에 철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이 통제영이 이중적으로 운영된 것은 전시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따라서 당시 통제영의 운영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운영의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그해(1597) 이순신은 왜군의 계략과 원군 등의 모함으로 죄인의 몸이 되면서 통제사직에서 파직되었는데 그 자리를 원균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 때 통제영의 운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원균이 좌수사 겸 통제사로 이순신과 동일한 직책을 이어 받았기²⁴²⁾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이순신의 뒤를 이은 원균은 무리하게 왜군을 공격하다가 1597년 7월 16일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하여 통제사 원균을 비롯하여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전라좌수영 군관 정철, 정린, 정언신, 부자 등이 전사하였고, 제해권마저 왜의 수군에게 넘겨주게 되었다.²⁴³⁾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조정은 8월 3일 백의

239) 『李忠武公全書』 卷3 狀啓 請設屯田狀. 이상은 군량미의 예민 들어온 것이지만 그 외 물적·인적자원 확보와 있어서도 이순신이 여수 본영으로 돌아와 그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240) 『李忠武公全書』 卷4 狀啓 選擇糧餉.

241) 이와 관련한 내용은 『朝中日記』의 여러 곳에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무수우 2월 12일, 4월 21일, 5월 4일條을 참조하기 바란.

242) 『豆祖實錄』 卷87 豆祖 30년 4월 19일(기묘) 및 6월 11일(경오)조를 참조.

243) 『豆祖實錄』 卷90 豆祖 30년 7월 22일(우夷).

244) 『宜祖修正實錄』 卷33 世祖 30년 7월庚寅 「李主武企全轍」 卷首 秋直

245) 오중록,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이순신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제언」, 『韓國史學報』 10, 2004, 207쪽을 참조

246) 『宜祖實錄』 卷106 世祖 31년 11월 29일丙午

247) 『越左水營兵』 左水營

248) 『越左水營兵』 左水營

249) 『移耗延于巨濟 長期使李時透自全羅左水營 换入 巨濟 巨濟水使變開立換出全羅左水營』 『島中雜錄』 卷4 半丑 宣祖 34년 3월

250) 오봉근·손영종, 「조선 수군사」, 한국문화사, 1998, 322~342쪽; 김현구, 「조선후기의 통영」, 『統營市史』 上, 統營市史編纂委員會, 1999, 177~182쪽; 변동명, 「韓國中世의 地理社會研究」, 學研文化社, 2002, 198~199쪽.

251) 현 화임연 윤주리 고진 마을은 고돌산진의 악성으로 생각된다.

252) 『鄭清柱』, 「全羅左水營의 역사」, 「全羅左水營의 역사와 문화」, 1993, 20쪽; 還東明, 「조선시대의 突山城과 古突山城」, 『歷史學報』 198, 2008, 20~21쪽.

종군하던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임용하여 수군의 재건을 주문하였다.²⁴⁴⁾ 이 때 이순신은 예전의 직책인 좌수사 겸 통제사직에 다시 임명되었던 것이다.

좌수사 겸 통제사직에 다시 임명된 이순신은 남겨진 12척의 배와 장정들을 모아 군대를 보완하여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에서 130척의 왜의 함대를 맞아 31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다시 목포 앞바다 고하도에 통제영을 설치하고, 전함 진조와 군비증강에 매진했으며, 고금도로 전을 옮긴 후 1598년 7월 19일 절이도 해전에서 왜선 50척을 격파하였다. 이어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은 본국으로 퇴각하려고 집결한 약 500척의 왜 함대를 노량 앞바다에서 대파하였으나 그 와중에 적의 유탄을 맞고서 유명을 달리했다.²⁴⁵⁾

이순신이 전사한 6일 후에 조정에서는 당시 충청병마절도사였던 이시언을 이순신의 후임으로 제4대 통제사에 임명하였다.²⁴⁶⁾ 이 때 이시언은 이순신의 좌수사 겸 통제사라는 직책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이순신의 직책을 이어 받은 이시언은 여수의 본영에 부임하여 통제사의 영사(營舍) 건립에 힘을 기울였다.²⁴⁷⁾

그러던 중 이시언은 여수의 본영이 왜적들이 쳐들어온 길목이었던 부산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를 들어²⁴⁸⁾ 1601년(선조 34) 본영을 거제로 옮겼다.²⁴⁹⁾ 이에 따라 여수는 예전의 전라좌수사의 본영으로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수는 임진왜란기 1593년 8월부터 1601년 어느 시기까지 통제사의 본영으로 그 역할을 다했던 곳이었다.

4. 조선 후기의 전라좌수영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정부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국방력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수군을 재정비하는 문제도 그 중 하나였다. 그리하여 17~18세기에 걸쳐 수군을 다시 배치하고 지휘 통솔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새로운 전선의 건조, 무기체제의 개선, 군사훈련의 강화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²⁵⁰⁾ 이렇게 수군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전라좌수영의 편제에도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우선 1522년(중종 17) 만호진(萬戶鎮)에서 권관진(權管鎮)으로 격하되어 순천도호부의 관할 하에 있었던 돌산포진이 종 9품 별장(別將)이 지휘하는 소모진(召募鎮)으로 개편되면서 전라좌수영의 수군진으로 재편성되었으며 명칭도 고돌산진(古突山鎮)으로 바뀌었다.²⁵¹⁾ 이때가 1611년(광해군 3)이었다.²⁵²⁾

다음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전라좌수영에서 제외되었던 회령포진과 장흥부가 전라좌수영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회령포진과 장흥부가 언제 다시 전라좌수영에 편입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수군이 재정비 되는 과정에서 돌산진이 전라좌수영으로 재편되었듯이 이들 진·관도 같은 시기에 전라좌수영으로 편제되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결과 임진왜란 당시 2첨사 3만호진 즉 흔히 5포(浦)로 약칭되는 5수군진과 흥양·보성·낙안·순천·광양 등 보통 5관(官)으로 약칭되는 5고을을 거느렸던 전라좌수영이 이제 2첨사 4만호진과 6고을(6관6포)을 관할 하에 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1686년(숙종 12)에 가리포·고금도의 양 첨사진과 마도·신지도의 양 만호진이 전라좌수영으로 이속되었다가 4년 후인 1690년(숙종 16)에 다시 전라우수영으로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²⁵³⁾ 이같이 임진왜란 이후 전라좌수영은 수군진의 재편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전 보다는 확대 재편되었던 것이다. 이를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전라 좌수영 수군편제의 변화²⁵⁴⁾

시기	구분·관직		구분·관직		
	주진(主鎮)	수군절도사	첨절제사	만호	별장
성종 16(1485) 『경국대전』	여수	사도	회령포·달량·여도·마도·녹도·발포·돌산포		
중종 17년 (1522)	여수	사도·방답	회령포·여도·녹도·발포		
임진왜란	여수	사도·방답	여도·녹도·발포		
광해군 3년 (1611)	여수	사도·방답	여도·녹도·발포·회령포	고돌산	
숙종 12년 (1686)	여수	사도·방답·가리포·고금도	여도·녹도·발포·회령포·마도·신지도	고돌산	
숙종 16년 (1690)	여수	사도·방답	여도·녹도·발포·회령포		
『만기요람』 순조 8년(1808) 『호좌수영지』 현종 13년 (1847)	여수	사도·방답	여도·녹도·발포·회령포		

253) 鄭清柱, 같은 논문, 20쪽; 邁東明, 「朝鮮時代 烏山島『船營圖』설치와 그 구조」『高麗史學會』 27, 2007, 26쪽.

254) 이 표는 鄭清柱, 「全羅左水營의 역사」, 「全羅左水營의 역사와 문화」, 頤天大學校博物館·藝術市, 1993, 19~21쪽과 「萬機要覽」 그리고 「海左水營誌」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을 위 표와 같이 전라좌수영 관할 하에 있었던 여러 진의 현재 지명을 보면 사도진·고흥군·영남면·금사리·방답진·여수시·돌산읍·군내리·녹도진·고흥군·도양읍·봉암리·발포진·고흥군·도화면·내발리·여도진·고흥근·진암면·여호리·회령포진·창송군·회천면·회진리·미도진·해남군·복평면·남항리·가리포진·원도군·원도읍·군내리·고금도진·원도군·고금면·의동리이다.



이렇게 변화를 겪은 전라좌수영은,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진·관을 포함하여 81척의 함선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전라좌수영의 본영과 관할 진·관별로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후기 전라좌수영 함선 보유현황

함선(艦船) 영(營), 진(鎮), 관(官)	전선 (판옥선)	거북선	병선 (방선)	사후선 (협선)	왜선	계	비고
본영	3	1	5	11		20	
사도	2		2	4		8	
방답	2		2	4		8	
여도	1		1	2		4	
녹도	1		1	2		4	
발포		1	1	2		4	
회령포	1		1	2		4	
고돌산	1		1	2	1	5	
장흥	1		1	2		4	
순천	1		1	2		4	
보성	1		1	2		4	
낙안	1		1	2		4	
광양	1		1	2		4	
홍양	1		1	2		4	
계	17	2	20	41	1	81	

* 위 표는 萬機要覽, 順天府邑誌, 湖左水營誌, 防踏鎮誌, 古突山鎮誌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전라좌수영의 본영과 관할 진·관이 보유한 함대는 위 표와 같은데, 이 함대는 전시나 훈련 상황에서 전라좌수사가 이끈 함선을 주축으로 3사(司) 5초(哨)제로 편제되었다. 이를 보면 우선 좌사파총(左司把總)에는 사도첨절제사가, 그 아래 전초관 장흥부사, 좌초관 발포만호, 중초관 낙안군수, 우초관 사도진의 2전선 별장, 후초관에 녹도만호가 배정되었다.

다음으로 중사파총에는 중군우후(中軍虞候)가, 전초관 본영의 4전선 별장, 좌초관 순천부사, 중초관 방답 2전선 별장, 우초관(겸우척후장) 흥양현감이 배치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사파총에는 방답첨사가 전초관에는 여도만호, 좌초관 회령포 만호, 중초관 광양현감, 우초관 고돌산 별장, 후초관 보성군수가

배치되었다.

이와 같이 편제된 전라좌수영의 함대에는 각각의 함선마다 일정하게 함원들이 배정되었다. 좌수영 본영의 함대에는 군병(軍兵)이 1,057명,²⁵⁵⁾ 관할 진·관은 장졸이 모두 3,615명이 배정되었다.²⁵⁶⁾ 그리고 본영과 관할 진·관에는 입방군(入防軍), 수용군(需用軍), 군수군(軍需軍), 모군(募軍) 등이 배정되었다. 본영의 경우 입방군 12,855명,²⁵⁷⁾ 수용군 800명,²⁵⁸⁾ 군수군 150명²⁵⁹⁾이 관할 진·관에는 입방군이 7,910명, 모군 100명이 배정되었다.²⁶⁰⁾

여기서 입방군은 전라도 내의 고을에 흘어져 살면서 풍고기(風高期)인 9월에서 다음해 2월과 풍화기(風和期)인 3월에서 8월에 달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규정되었다. 예컨대 본영은 4개의 전선에 입방군 3,530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210명은 풍고기와 풍화기에 따라 달마다 근무를 하고 나머지 320명은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²⁶¹⁾

그러나 원칙이 그러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들이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근무하는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였다.²⁶²⁾ 이렇게 해서 들어온 대가는 고립(雇立)이나 급대(給代) 내지는 관아의 기타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⁶³⁾ 그 외 수용군이나 군수군, 모군 등도 입방군과 같은 경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운영되어 오던 전라좌수영은 고종이 즉위한 이후 약간의 변화를 겪었는데, 다른 아닌 본영과 관할 진·관에 새로운 병력을 신설하고 병영을 수축하여 전력을 강화시켰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조선은 이양선이 자주 나타나서 개국을 강요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하고 조선 초기 군령권의 최고기관이었던 삼군부(三軍府)를 부활하였다. 그리고 이양선이 침입하는 해변을 중심으로 포대(砲臺)를 신설 중축하고 포군(砲軍)을 중원 강화하였으며 군자금을 증액하여 신무기의 제조에도 관심을 쏟았다.²⁶⁴⁾

이러한 일련의 정책에 따라 전라좌수영의 본영과 그 관할 지역의 영(營)을 복설하고 관아 등을 개축하였으며 아울러 별포위(別砲衛)와 별무사(別武士) 등을 신설하였다.

이를 보면 1687년(고종 4)에 순천의 진영(鎮營)을 복설한 후 관아를 개축하였고,²⁶⁵⁾ 1870년(고종 7)에 조선정부에서는 전라좌수영에 군자금 10,000냥을 내려 보내 별포위라는 포군을 설치케 하였다. 이러한 수군강화책에 힘입

255) 『湖左水營誌』

256) 『萬機要覽』 軍政 4 内附

257) 입방군은 각 고을마다 배정되었다. 전라좌수영 본영에 『입방군을 내는 고을을 보면 순천 3389명, 광양 755명, 낙안 349명, 보성 883명, 통영 2140명, 장흥 373명, 구례 274명, 순창 718명, 남원 431명, 남평 10명, 농주 722명, 동복 313명, 화순 258명, 운봉 11명, 창평 53명, 옥과 280명, 우주 48명, 꾸성 464명, 임실 32명, 강수 42명, 광주 612명, 익산 10명, 담양 285명, 진안 17명, 나주 193명, 만경 15명, 명광 20명, 무민 16명, 무장 15명, 신도 20명, 충덕 11명, 무민 16명, 장성 20명, 고창 7명, 태안 10명, 전주 11명, 합평 19명, 영남 20명으로 총 12,855명이었다(『湖左水營誌』). 『萬機要覽』에 의하면 전라좌수영 본영의 입방군이 4,145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湖左水營誌』 기록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萬機要覽』 軍政 4 内附).

258) 『萬機要覽』 軍政 4 内附 「增補文獻備考」 卷120 兵考 12 舟師 「湖左水營誌」.

259) 『萬機要覽』 軍政 4 内附 「增補文獻備考」 卷120 兵考 12 舟師 「湖左水營誌」.

260) 『萬機要覽』 軍政 4 内附

261) 『湖左水營誌』

262) 道東明·암의 논문, 『朝鮮時代 奕山集 防敵策의 설치와 그 구조』, 37쪽.



- 263) 遷來廳, 같은 논문, 37쪽, 전라좌수영의 본영이나 관할 친·관의 전선운영체계가 이러한데 전선에는 최소의 민병만이 근무를 했을 것이다.
- 264)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研究室, 「韓國軍事史」(近世朝鮮後期編), 陸軍本部, 1977, 265~284쪽; 文藝出版社, 「全羅左水營研究」, (社) 大韓建設推進會, 1992, 178쪽.
- 265) 「承政院日記」, 高宗 4년 6월 19일.
- 266) 「左水營別地衛新設節目重案分金量業并錄成冊」(是 18987, 高宗 7년 「1870년」), 陆軍士官學校 韓國軍事研究室, 같은 책, 280쪽. 「承政院日記」에 의하면 전라좌수영은 고종 7년 (1870)에 별포위 100명과, 고종 10년(1873)에 46명 중 146명의 병포위를 신설했던 것으로 나타난다(「承政院日記」, 高宗 10년 2월 27일).
- 267) 「承政院日記」, 高宗 8년 11월 18일.
- 268) 蔡清柱, 임의 논문, 20쪽.



제3절 전라좌수영의 대일 관계

손 승 철 (강원대학교 교수)

1. 조선초 왜구의 침탈

왜구침입에 관한 기록은 이미 삼국사기에 나와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고려 말의 왜구침입은 1350년(충정왕 2)부터 시작해 가장 심했던 것은 우왕 때로 그 재위기간(1375~1388) 13년동안 무려 378회에 달하며, 고려 멸망 때 까지 거의 500회 이상 약탈을 자행했다.

이와 같이 극심한 왜구의 침입에 대해 고려는 선군(船軍)을 확충하고 최무선으로 하여금 화약과 화포를 제조하게 하는 등,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때로는 직접적으로 왜구의 소굴을 토벌하기도 하면서, 일본의 세력가들에게 사절을 파견해 왜구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에 사절이 파견된 것은 1366년(공민왕 15) 9월 김용과 11월 김일이 국서와 예물을 가지고 교토(京都)에 가서 족리의전(足利義詮)과 교섭한 것이 처음이다. 이들은 장군으로부터 왜구금지의 약속을 받은 다음 일본사신과 함께 귀국했다.

그러나 당시 왜구금지에 대한 약속은 구두에 의한 것이었고, 예물도 사절의 노고에 답하는 형식일 뿐이었다. 그 후에도 1375년(우왕 원년) 2월에는 판전객사 나홍유 등 5차례나 사신을 보내어 왜구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남북조의 혼란기로 정치적인 통일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족리(足利) 장군이 있는 교토에까지 가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족리(足利) 장군에게는 왜구금지 능력이나 교섭능력이 없었던 시기여서 사절파견의 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왜구의 중심세력인 규슈(九州) 지방의 이마가와(今川)나 스오우(周防·山口) 지방의 오우치(大内) 세력과 직접 교섭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 왜구금압을 위한 성과뿐만 아니라, 11차례에 걸쳐 피로인의 쇄환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왜구금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조선의 건국 후에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왜구금지였다.²⁵¹⁾



(조선초기(1392~1418) 왜구의 침구상황)



251)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횟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년도	횟수	년도	횟수	년도	횟수	년도	횟수
1392	2	1403	8	1419	7	1433	3
1393	10	1404	6	1421	3	1436	1
1394	14	1406	12	1422	4	1437	1
1395	5	1407	6	1423	1	1438	1
1396	13	1408	7	1424	2	1440	1
1397	11	1409	2	1425	2	1442	1
1399	11	1415	1	1426	5	1443	2
1401	4	1417	1	1428	1		
1402	5	1418	1	1430	1		
							총 155회

* 이 표는『조선왕조실록』과 이현종,『조선전기 대일교섭사연구』, 한국연구원, 1964, 20~21쪽의 태조년간의 왜구침략표와 田村洋幸,『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60~69쪽의 蔡謙王·太祖·定宗期의 倭寇表 및 田中健夫『倭寇』, 202쪽 표를 참조해 작성하였음.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전라도지역 왜구침탈의 사례를 들어보자. 1394년 3월 9일, 전라도를 습격한 왜구는 창평현령 신원절이 거느린 군관의 방어로 7명의 전사자를 내고 물러갔다. 퇴각하는 왜구를 전라도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만호 김윤겸·김문발 등이 추격하여 3월 17일에는 왜선 3척, 23일에는 1척, 4월 9일에는 3척을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다.²⁷⁰⁾

1396년 6월 15일, 전라도 진도만호 김보계가 왜구 10여명을 죽였고, 7월 24일, 우도 수군절제사 김영렬이 왜선 2척을 추자도에서 나포했고, 3명을 생포했다.

1403년 12월 7일, 전라도 낙안포에 왜구가 출몰하여 병선 4척을 불 지르고, 군인 36명을 죽이는 등 피해를 입히고, 만호 임원룡을 잡아갔다. 또한 12월 18일에는 전라도 전함 5척을 탈취하여 달아났다.²⁷¹⁾

1404년 4월 4일, 왜선 3척이 전라도 영광군에 침입하자 지군사 정정이 싸워 물리쳤으나, 화살에 맞은 군인이 6~7명이나 되는 등 조선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소규모로 연안을 침입하던 왜구는 7월 1일, 33척의 선단으로 전라도로 향했다. 조선에서는 곧바로 수군도지휘사 김영렬에게 명하여 방어하게 했다. 김영렬은 왜선 1척을 나포하고, 6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리고 이들을 격퇴했다.²⁷²⁾

1405년 1월 18일, 왜선 6척이 전라도 장흥부 주포를 침범하여 병선 1척을 약탈했고, 3월 24일, 상당한 규모의 왜구가 전라도를 침구했다. 이들은 전라도 수군단무사 김문발에게 배 1척이 포획되자, 퇴각하여 인근 섬으로 숨어들었는데, 이들 가운데 추자도에 정박해 있던 14척의 왜선은 3월 30일, 전라도 수군첨절제사 구성미의 공격으로 퇴각했으나, 다른 일부는 4월 18일, 18척으로 야음을 틈타 전라도 안행량에 침구하여 쌀 4천90석, 조운선 14척, 호송병선 1척을 약탈해 갔다.²⁷³⁾

1408년 1월 22일, 전라도 지역에 나타난 왜구는 다음날 조양진(순천 해룡창)으로 진출하여 곡식을 약탈하고, 병선 1척을 불태우고 수군 35명을 죽였다. 2월 3일, 왜선 9척이 암태도로 진출하여 약탈을 하자, 염간 김나진이 3명을 죽이고 포로 2명을 잡았다. 3월 2일, 왜선 11척이 영광의 염소를 약탈하자, 지군사 조유가 2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고 격퇴했다.²⁷⁴⁾

이후 1409년 8월 전라도 선산도에 침구한 왜선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규모는 아니었다. 이후부터 6년간 왜구는 나타나지 않다가, 1415년 5월 2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상도, 전라도 등 주로 남해안의 섬을 집중적으로

270) 『태종실록』3년 3월 무신 병진 임술조 및 4월 무인조

271) 『태종실록』3년 12월 병진 신묘조

272) 『태종실록』4년 7월 경자 8월 정축조

273) 『태종실록』6년 3월 경신 4월 무진조

274) 『태종실록』8년 3월 기유 을묘조

약탈했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1418년 대마도 정벌 때까지 남해안 지역에서만 20여회 정도 나타난다.

그러나 1418년, 그동안 조선의 왜구 대책에 비교적 호의적이던 대마도주 종정무(宗貞武)의 죽음으로 대마도의 사정이 바뀌면서, 또한 대마도에 심한 기근이 들자, 대마도인들은 다시 약탈을 시작했다. 이들은 조선의 해안을 거쳐 중국으로 가거나, 혹은 곧바로 조선에 침탈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1419년 5월이 되면서 왜구는 서해안지역에 자주 출몰했고, 조선 조정을 긴장시켰다. 특히 5월 6일, 비인현 도두읍곶 침입사건과 5월 12일, 해주 연평곶 침입사건은 왜구에 대한 조선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나 이들의 근거지가 대마도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조선조정에서는 마침내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1419년 5월 13일, 조정에서는 태종의 주제로 해주 연평곶 침구사건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대책회의의 주제는 대마도정벌이었다. 대마도정벌에 관한 논의는 크게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져 진행되었다. 강경파인 태종과 좌의정 박은·병조판서 조말생 등은 적극적인 토벌을 주장한 반면, 온건파인 세종과 우의정 이원·예조판서 허조 등은 각 포의 병선이 부족하니 육지에 상륙하는 왜구를 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태종의 주장에 따라 대마도를 정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²⁷⁵⁾

275) 「세종실록」 원년 5월 무오조

2. 대마도정벌과 계해약조

1) 대마도정벌

1419년 5월 14일, 대마도정벌이 결정되자, 당일로 정벌군을 편성하였다. 이종무(李從茂)를 삼군도체찰사로 삼아 정벌군을 총지휘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정벌군의 지휘계통의 편성을 완료했다.

중군 : 삼군도체찰사 - 이종무

 증군절제사 - 우 박, 이숙무(16일에 박성양으로 교체), 황상

좌군 : 좌군도절제사 - 유 습

 좌군절제사 - 박 초, 박 실

우군 : 우군도절제사 – 이지실

우군절제사 – 김을화, 이순몽

대마도 정벌군의 지휘편성과 동시에 경상·전라·충청 3도의 병선 2백척을 6월 8일까지 견내량에 집결하도록 했다. 6월 9일, 마침내 태종은 대마도 정벌의 의도를 선포하였다. 태종은 대마도의 기근을 구하고, 통상을 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구들이 조선해안을 침구한 것을 헐책하였다. 그리고 정벌의 명분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전략) 대마는 본래 조선의 영지였으나, 멀고 사이가 떨어져 있음으로, 왜놈이 거주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흄치는 벼룩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형을 잡아가고 그 집을 불살라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뜻있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 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씹고 그 가죽위에서 자기를 생각함이 여러 해이다.”²⁷⁶⁾

276) 『세종실록』 원년 6월 임오조,

1419년 6월 17일, 삼군도체찰사 이종무는 9절도사를 거느리고 대마도정벌의 장도에 올랐다. 당시 출정에 임한 원정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전함 총 227척 (경기도 10척, 충청도 32척, 전라도 59척, 경상도 126척)

병력 총 17,285명. 군량 65일분

그러나 출발 당일, 원정에 나선 대마도 정벌군은 역풍으로 정상적인 항해에 지장이 생겨 거제도로 돌아와 정박했다가, 6월 20일 다시 출정했다. 이때 대마도에서는 조선의 선발대를 대마도인의 배들이 돌아온 것으로 오인하여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환영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발대의 뒤를 이어 아소만의 두지포에 들이 닥치자 대마도인들은 놀라서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했다.

조선군은 대마도주 도도옹와(都都翁瓦)에게 귀순할 것을 종용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자 공격을 개시하여 적선 129척(사용 가능한 20척만 남기고 소각), 가옥 1,939호를 소각하고, 왜구 104명을 죽이고, 21명을 포로로 잡았고, 중국인 포로도 131명이나 구출하여 후에 송환시켰다.

6월 26일, 조선군은 니로군(尼老郡)으로 진군하여, 좌군절제사 박실의 지휘하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였으나, 대마도인의 기습을 받아 좌군의 장수 박홍신·박무향·김희 등 1백여명의 조선군이 전사했다. 상황이 급변하자 우군도 상륙하여 대마인을 격퇴했으나, 이종무는 전선들을 다시 두지포에 정박시킨 뒤, 장수들을 상륙시켜 수색전을 벌였다.

이때 대마도주 도도옹와는 사자를 보내어 앞으로는 조선의 뜻에 순종하겠으니, 조속히 군을 돌려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는 서계를 보내왔다.²⁷⁷⁾

이에 조선군은 7월이 되면 대마도에 태풍이 몰아칠 것을 대비하여, 7월 3일 포로들을 인솔하고 귀환하였다. 그러나 7월 4일, 왜구가 안흥량에서 약탈을 감행하고 대마도로 돌아간 사건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7월 7일에 대마도 정벌군을 재편성하고 7월 15일에 재정벌을 지시했다. 그러나 7월 12일, 명에 사절로 갔던 김청이 돌아와 금주위에 침범한 왜구가 격파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대마도 재정벌 계획은 취소하고, 종결되었다.

대마도 정벌의 단행으로 이후 왜구의 침구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조선의 대마도 대책도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대마도 재정벌이 중지된 직후인 1419년 7월 17일, 태종은 병조판서 조말생에게 명하여 대마도주에게 대마도가 ‘군신의 예’로써 조선을 섬긴다면 더 이상의 무력웅정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계를 보냈다.



▲ 대마도정벌 상상도

277) 「세종실록」 원년 6월, 원인조

대마도로 이주시키도록 해라. 만약 이에 따른다면 도주에게는 관직을 주고 도민에게는 생활의 안정을 약속할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청별할 것이다.”²⁷⁸⁾

이에 대해 대마도주 도도옹와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생활이 곤란하니 섬사람들을 가라산도(加羅山島 : 거제도) 등 섬에 보내어 주둔하게 하여 주시고,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의 예에 따라 주의 명칭을 주시고 인신(印信)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²⁷⁹⁾

278) 『세종실록』 원년 7월 경 신조

279) 『세종실록』 2년 정월 기 묘조

이 서신은 대마도주가 조선의 요구를 수용하여 경상도의 한 부속도서가 되겠다는 맹세이다. 이에 조선에서는 같은 달 23일에 대마도주 도도옹와에게 ‘종씨도도옹와(宗氏都督熊瓦)’라는 인신을 주었다. 그리고 조선 조정과의 연락은 먼저 경상도관찰사를 통하여 보고한 뒤, 예조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마도를 경상도관찰사의 통제를 받는 경상도의 부속도서로 취급하였다.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은 이러한 사료를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 것이며, 독도를 터무니 없이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논리보다는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료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이다.

2) 계해약조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초기 왜구대책과 외교교섭의 결과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반면에 일본 각지로부터 통교나 조업을 위해 도항해 오는 왜인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직 이를 왜인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왜인이 해안지방을 마음대로 왕래하며 무역을 하거나 고기를 잡기도 하며, 군사상의 비밀을 정탐하는 등 치안상의 많은 폐단을 야기하게 되었다.

통교자의 증가는 조선정부의 치안상의 혼란과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왜구의 재발을 방지하고 통교자를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왜인이 입항할 수 있는 포소의 제한으로 시작했다. 즉 조선에 도항해 온 왜인들은 처

음에는 경상도 지방의 연해안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점차로 지역이 확대되어 전라도 지역은 물론 다른 해안 지역에까지 무질서하게 내왕하게 되자, 조선에서는 1407년, 경상좌도와 우도의 도만호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포(富山浦)와 내이포(乃而浦) 2곳을 왜인들의 도박처로 한정시켜, 출입과 교역 품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급작스런 도박처의 제약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또 도항 왜인이 급증하자 1418년(태종 18)에는 염포(鹽浦)와 가배량(加背梁) 2곳을 늘려 4곳으로 했다가, 대마도정벌에 의해 일시 폐쇄했다.

그 후 대마도의 간청에 의해, 1423년(세종 5) 부산포(釜山浦)와 내이포(乃而浦) 2곳을 다시 허락했고, 1426년 염포를 추가하여, 삼포제도를 확립했다. 이들 포소에는 왜관을 설치하여, 제포 30호·부산포 20호·염포 10호의 항거왜인(恒居倭人)을 거주케 하면서 도항왜인에 대한 접대와 교역을 허가했다.

그러나 포소와 왜관의 설치 및 규제만으로는 도항왜인에 대한 통제가 전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무질서하게 도항하는 왜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점차적으로 서계·도서·문인제도·조어금약·계해약조 등 통교왜인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사선의 정수(定數)와 승선인원, 체류기간, 과해량, 급료, 각종 연회의 장소와 횟수에 이르기까지 접대규정을 상세하게 정비하여 접대비용을 절감하고 왜인들의 횡포와 무질서한 행동을 규제했다.²⁸⁰⁾

나아가 이러한 통제와는 별도로 왜구의 진압이나 피로·표류인 송환에 협력한 자, 그리고 투항왜인이나 조선의 정책에 협력한 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수도서제(受圖書制)나 수직인제(受職人制)를 운영했다.

서계(書契)란 통교 목적을 적은 서신으로 일종의 외교문서이다. 당시 도항자의 목적은 대부분이 교역이었는데, 지방세력가들이 마음대로 사신을 파견해 오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구주탐제나 대마도주의 서신을 휴대하도록 했다. 그래서 모든 도항인은 도항 목적과 용무, 별폭형식의 서계를 휴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지방세력가들이 조선과 통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주방면은 구주탐제, 대마도내는 도주의 서계를 휴대해야만 했다. 또한 여러 섬에 살고 있는 단순 무역자들인 흥리왜인에 대하여는 행장(行狀)을 발급해 주어 부산포와 내이포에 와서 정박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대마도주를 이용하여 대일관계를 체계화하기 시작한 최초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80)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조평용집기)에는 왜인들이 조선에 도항하여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접대규정이 집대성되어 있다.

1419년 대마도정벌 이후, 대마로부터 교역 재개의 요청이 있게 되자,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의 정치적 입장과 지위를 이용하여 대일통교체제의 일원화를 꾀했다. 즉 정벌에 의해 교역이 단절되자, 대마도주는 통교를 허가하는 도서(圖書)를 만들어 주면, 대마를 조선에 귀속시키고 조선의 명에 따르겠다는 요청을 해왔다.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 의해 도항자의 제한을 유도하여 통제 효과를 올렸고, 도주는 도내지배권 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삼았다. 이로써 1420년경부터는 대마도주의 서계가 없이는 도항이 어려워졌다.

〈통교자에게 발급된 각종 도서〉



도서(圖書)란 통교자에게 구리(銅)로 도장을 만들어 주어, 휴대한 서계에 찍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통교자가 조선의 예조에 자기의 실명을 새긴 도장을 새겨줄 것을 요청하여 받은 다음, 조선에 보내는 서계에 찍어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록에는 1416년(태종 16)에 일본농주택수(日本農州太守)가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도서를 청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제로 도서를 하사한 것은 1418년(태종 18) 미작태수(美作太守)가 요청하여 만들어 준 것이 처음이다.

그 후에도 구주탐제 및 휘하의 세력자, 대마의 유력자, 이기(壹岐)의 세력가 등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모두 일본 쪽의 요청에 의해서 수급되고 있으며, 이들을 수도서인(受圖書人)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것은 통제책에도 효과가 있었지만, 통교자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보증받기 위하여, 도서를 받아 자신이 보내는 사자의 서계에 찍어 보내 조선 측에서 신분을 확인받아 통교자로서 대우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역으

로 이 도서제를 통하여 도항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접대를 했다.

다음, 대마도주가 발행하는 문인(文引)이 있다. 이 제도는 1438년(세종 20) 경차관 이예가 대마도주 소오(宗貞盛)와 약조하여 일본으로부터 도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대마도주로 하여금 선박의 대소, 사자, 선부의 숫자를 적은 문인을 휴대하도록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문인제도에 의해 대마도주의 조선과의 통교특권이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1440년(세종 22)부터는 문인제도가 조일양국의 통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대마도주는 문인발행권을 통하여 일본 측의 대조선통교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동시에 문인을 발행할 때도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고, 또 교역물품에 대해서도 과세를 부과하여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도모했다. 이와 같이 문인제도는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도 효과적인 통제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마도로서도 대조선통교권을 장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한편 문인제도와 관련하여 조선의 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왜인에 대한 통제책도 아울러 문제가 되었다. 조어요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30년(세종 12)에 보이는데, 그것이 정식으로 허가된 것은 1441년(세종 23)에 이르러서 전라도 남해의 고도와 초도에서의 고기잡이를 허용한 것이 처음이다. 그 절차를 보면 왜인으로서 고기잡이를 원하는 경우, 먼저 대마도주가 발행하는 문인을 받아 지세포(거제도)에 설치된 조선관아에 그 문인을 맡긴 다음 조선에서 발행하는 고초도 왕래 문인을 교부받은 후, 고기잡이를 한 후 다시 지세포에 돌아와 조선에서 정한 어세(魚稅)를 낸 다음 대마도주의 문인을 받아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조에서는 이때 받은 어세(魚稅)로 경상도 관찰사의 처분에 따라 입국왜사의 접대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나머지는 시중에서 쌀이나 포로 바꾸어 국가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운영상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대마도주로서는 이 제도를 통하여 도내지배를 더욱 강화해나갔던 것이다.

이상 통제책의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의 통제책들은 도항자 통제의 1차적인 권한을 대마도주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그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통제책으로 도항자의 세견선수를 정합으로서 도항회수 및 교역량을 기본적으로 제한하였던 것이다. 세견수의 정약은 1424년(세종 6)에 구주탐제에게 춘추 2회의 견사를 허용한 것이 시초이나, 이것이 통제책으로 확립된 것은 1443년(세종 25) 조선

과 대마도주간에 계해약조(癸亥約條)를 맺음으로써 비롯된다. 그 주된 내용은 대마로부터의 세견선을 매년 50척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대마도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견사를 하여 왔기 때문에 불이익한 것이었지만, 조선 측의 통제책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편으로 사송선에 대한 권한은 도주가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주의 입장에서는 큰 저항 없이 조선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각종 통교규정을 도표화하면 다음표와 같다.

〈각종 통교규정 일람표〉

통체규정	연대	1400	1410	1420	1430	1440	1450
포소제한			2곳		3곳		
수 직		향화웨인				통교웨인	
서 계	(?)						
도 서	(?)						
통신부							
문인(노인)							
고초도조어금악							
세견선(계해약조)				규슈탐제		대마도주	

3. 고초도의 일본인 어로

1) 황금어장, 고초도

왜인들에게 삼포거주와 왜관이 설치되면서, 왜인들이 생활을 돋기 위해 삼포 근해에서의 어업활동이 허가되었다. 그러자 왜인들은 어장의 협소함을 이유로 들어 더 많은 어장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1440년 5월경부터 고초도에서의 조어를 요구했다. 결국 조선에서는 왜인들에게 조어를 금지해도 몰래 잡입하여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1441년 11월, 고초도 내에서의 정식조어를 허가했다. 대신에 반드시 대마도주의 문인을 발급받아 조선의 지세포에 와서, 다시 조선의 허가를 받은 다음 고초도로 출항하고 돌아 올때는 다시 지세

포에 들러 문인을 반납하고, 어획한 어류에 대한 세금을 내고 돌아가는 규정을 만들었다.

고초도의 정확한 위치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학자들은 전라도 여천군 초도나 손죽도 역내의, 거문도, 전라도 여수군 역방도(거문도 북방)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세종실록』의 <고초양도>와 『경국대전』의 <고초도 조어왜선>이라고 한 것을 보면 고도와 초도를 가리키므로 거문도 북방의 초도와 장도라고도 하는데, 현재는 거문도의 서도와 동도 내해 부근이 가장 유력하다.²⁸¹⁾

그렇다면 대마도인들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고초도에서의 조어를 원했을까? 아마도 그들이 좋아하는 어종이었거나, 조선에서 원하는 어종이어서 조어를 희망했을 것이다.

280) 長野子, 「中日 間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2002, 40~72쪽.

282) 이 부분의 기술은 최명하, 『조선전기 남해안의 어장과 어종』『조선전기 해양개혁과 대마도』, 국책자료원, 2007, 81~87쪽의 부분을 요약 기술했다.

2) 고초도의 어종²⁸²⁾

고초도의 어장을 거문도라고 볼 때, 그곳의 어종을 기록한 사료는 조선시대의 것으로 『동국여지승람』 제40권 <순천도호부>편에 특산으로 조기·송어·농어·오징어·문어·병어·낙지·전복·은어·굴·대하·홍합·자하·게·해삼·미역·김 등이 기술되어 있으나, 이 기록으로는 왜인들이 어떤 어종을 선호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1893년 『조선근해 어업시찰보고』라는 자료에는 제주도 및 전라도해의 섬들의 어업사정을 조사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 지역의 해산물은 전복, 도미, 칼치, 청어, 농어, 오징어, 우뭇가사리, 청각채 등으로 고등어, 농어와 같은 것은 불을 피워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는다.(중략) 이 지역은 어업상 제주도에 다음가는 좋은 위치로 추자도와 비교할 수 없다 해도 필시 이것은 서로 비슷한 어장일 것이다. 쿠루시오 난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서 내세운 것처럼 폐지어 오는 고기가 있어 세인들이 크게 떠들어 거문도를 주창하는 것은 결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배를 정박할 때 편하고 음료수도 좋고, 맬감재료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

또한 개항 이후 일본에서 조선에서의 조업과 관련한 사항을 기록한 『일본 어업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해역에는 어종이 많아서 어망에 잡히는 물고기가 많다. 특히 추자도·소안도·진도 사이의 조류로 인해 우뭇가사리·김을 먹는 별레가 많기 때문에 어류가 모여드는 것이 수백 종에 이른다. 그러나 주로 도미·정어리·청어·오징어·전복·물개·상어의 7종이 잡히고, 야마구치·세토나이가이의 양포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상어를 어획하고 다른 어종은 각별의 식료로 이용한다.”²⁸³⁾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일본인이 선호한 어종은 도미·청어·오징어·전복 등이고, 상어도 포함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도미를 가장 좋아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도미로는 참돔·붉돔·황돔·청돔·돌돔·자리돔·흑돔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중 참돔은 맛이 있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생선으로 경조사에 빠지지 않는 어종이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강항어라고 밝힌 어종도 참돔이다.

“강항어(強項魚) 속명 도미어(道尾魚) ”

큰놈은 길이가 3~4자에 달하며 모양은 노어를 닮았다. 몸은 짧막하고 높은 편인데 높이가 길이의 절반쯤 된다. 등이 붉고 꼬리가 넓으며 눈은 크다. 비늘은 면어를 닮았고 매우 단단하다. 머리와 목도 단단하여 무엇을 받으면 거의 다 부서진다. 이빨 또한 매우 강하여 전복이나 소라껍질도 부순다. 낚시에 걸리면 낚시 바늘을 퍼서 부려뜨린다. 살이 단단하며, 맛은 달고 진하다. 충청도와 황해도에서는 음력 4~5월에 그물로 잡는다. 흑산도에서는 이때부터 잡히기 시작하는데, 겨울에 들면 자취를 감춘다.”²⁸⁴⁾

도미는 전복과 마찬가지로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도 참돔의 뼈가 출토되듯이 고대부터 즐겨 먹던 어종이었다. 도미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즐겨 먹는 생선으로, 1647년 일본에서 편찬된 『요리이야기』라는 책에는 고려자(高麗煮)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냄비에 소금을 조금 뿌려서 그대로 도미를 넣고 술과 물을 섞어 도미가 잠길 만큼 뜯는다. 이것을 술기운이 없어질 때까지 삶은 다음 밥물을 뿐고 간을 맞춘다. 여기에 버섯이나 파를 조금 넣어서 먹는 장국이 바로 고려자라는 음식이다.”

283) 국사편찬위원회, 『한일 어업관계』, 천세, 2002, 26~27쪽.

284) 정약전저, 정문기 역, 『자산어보』, 지식사업사, 1977, 28쪽.



국으로 끓여 먹는 조리법이 고려시대부터 즐겨 먹었던 것으로 이것이 일본에 전해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도미 이외에도 다양한 어종이 있기 때문에 한 두 어종에 국한시킬 수는 없겠지만, 거문도 근해가 지금도 황금어장인 것을 생각하면 이 지역에서 왜인들의 조어활동은 당연한 요구였음을 틀림없다. 따라서 고초도 조어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며, 조선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고초도 조어금약(孤草島釣魚禁約)〉을 맺었던 것이다.

4. 이량 장군과 이대원 만호

중앙동 1번지에는 여수시의 내항과 돌산도 사이에 섬의 둘레가 약 600m 밖에 되지 않는 장군도가 있다.

장군도의 남서쪽에는 돌산대교가 있으며 여수 내륙보다는 돌산도와 더 가깝다. 이 해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돌산도를 우회하여야 하며, 이 해로는 순천·여수에서 서남해 쪽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다. 따라서 조선초 왜구들도 남해상을 이동할 때는 욕지도-남해도-돌산으로 이어지는 섬을 따라 바람과 해류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장도와 돌산 사이는 물살이 빨라서 왜구가 침범하면 잡기가 어려웠는데, 이량(李良) 장군이 이를 막기 위하여 바다속에 돌을 쌓아 수중성(水中城)을 만들어 왜적들은 물론 선박의 통행을 통제했다고 하며, 이때부터 장군도 또는 장군성이라 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량 장군의 기사는 1494년(성종 25) 11월에 처음 보이는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외직에서 체임시켜 줄 것을 청하는 기사가 나온다.



▲ 이량장군 방왜축제비(장군도)

“신의 아버지 이종생(李從生)은 나이 거의 70이 되었습니다. 신이 신축년에 평안도 우후로 제배(除拜)되었다가 삽주부사가 되었는데, 어미상을 당하여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제포첨사·영안북도 우후·회령부사 등의 직을 역임한 것이 통계 14년입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시양할 수 없는데, 지금 또 본직에 제배되었습니다. 형세가 때때로 와서 만나 볼 수 없으니 부자 사이의 정이 매우 박절합니다.”²⁸⁵⁾

285) 『성종실록』25년 11월 신해조

이 기사를 보면, 그의 효성이 매우 지극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한때는 삼포 가운데 제포첨사를 역임했던 것 같다. 그 뒤 1497년(연산군 3) 3월, 전라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전라도 순변사 이계동과 함께 전라도 각포를 대상으로 왜구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전라도 순변사 이계동이 급보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본도에 와서 좌도의 수사 이량·병사 원중거와 우도수사 이영산과 더불어 병부(兵簿)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 신과 이량은 본영의 병선 2척, 복작선(鰐作船) 29척과 돌산포 만호 임춘손이 거느린 작은 배 6척과 광양·순천 두 고을의 날랜 군사 184명, 수군 112명, 복작간(鰐作干) 142명을 골라서, 본월 22일 배를 띄워 왜적이 왕래하는 요해 수로에서 3식쯤 되는 돌산도 외면 흑두(黑頭)로 향하여 들어가서 정박하고, 여러 배를 나누어 깊이 들어가 체탐하게 한 후에 원중거·양관·이영산에게 각포를 나누어 맡아 수색 토벌하려 하옵니다.”²⁸⁶⁾

286) 『연산군일기』3년 3월 경오조

이것은 이 지역에 출몰하는 왜구들에 대한 탐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10월 15일에 이르러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이량이 왜적을 잡아 보냈으므로, 의금부로 하여금 가두어 국문하게 하였다. 11월 1일 승정원에서 이들 왜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지금 이량이 생포한 왜적 두 사람을 도로 포구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지난해에 삼포의 왜인이 혹은 금하는 산의 소나무를 함부로 베어가기도하고, 혹은 다투어 어량(魚梁)을 빼앗고 관차(官差)를 구타하고 상처를 입히니, 국가가 업신여김을 받음이 적지 않습니다. ……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이 없어, 근자에는 배 한척이 흥양(興陽), 삼도(三島)를 범하여 고기낚고 나무하는 사람 4명을 죽이고, 또 순천 금오도를 범하므로 이량이

추격하여 배 한척을 잡고 한척은 도망갔는데, 쏘아 죽인자가 8명이요, 생포된 자가 2명입니다. 그 두 사람의 공초에 이르기를, '저희들은 바로 제포에 거주하는 왜인이요, 도망간 사람도 역시 추장 사두(沙豆)의 집사람이다.' 하니, 꾸짖고 벌주어 후일을 징계하도록 하시옵소서. 국가가 변장으로 하여금 적을 잡게 하였다가, 잡아오면 문득 놓아 주는 것은 미련한 것 같습니다. 남방의 방어가 심히 힘소하니, 용서만 해 주어서 적으로 하여금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마음을 더하게 해서는 안되옵니다."²⁸⁷⁾

287) 『연산군일기』, 3년 11월
루술즈.

이 내용을 보면, 이량이 순천 금오도와 홍양 등지에서 왜적을 추격하여 섬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1499년(연산군 5) 3월에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이량이 여도(呂島) 등처에서 왜적이 나타나서 인물을 살상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조정에서는 경차관을 파견하여 진상을 상세하게 조사하게 하고, 경상도 및 전라도 모든 포구의 수비를 철저히 하도록 명령을 하달했다.

이상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량의 장군도 수성축조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량장군의 왜구 토벌에 대한 혁혁한 공로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후 1587년(선조 20) 2월, 왜적선 18척이 홍양에 침범하였는데, 녹도만호(鹿島萬戶) 이대원(李大源)이 손죽도 해상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기록이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승정원에 전교하여, 이대원의 부모는 있는지, 만일 있다면 나이는 얼마인지, 장성한 자식은 몇이고 큰아들의 나이는 얼마인지, 자세히 살펴서 아뢰도록 하였다.

보고를 받은 선조는 이대원이 용감하게 앞장서 왜적의 배에 올라갔고, 나랏일에 죽었으니, 특별한 은혜가 없을 수 없다하고, 쌀 20석을 내려주고, 이대원의 어미에게는 유사를 시켜, 매달 주육(酒肉)을 보내주고 봄 가을에는 쌀을 지급하여 여생을 마치도록 하였다.²⁸⁸⁾

288) 『선조실록』, 20년 4월 계
해즈.

뒤에 병조참판이 추증되고 고향인 양성(陽城: 지금의 평택)에 충신 정문이 세워졌고, 홍양(현 고흥군 녹동) 쌍충사(雙忠祠)에 제향되었다.

제4절 손죽도해전과 임란 이전의 전라좌수군

김 덕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1. 정해왜변 이전의 해방(海防) 실태

정해왜변(丁亥倭變)이란 1587년(선조 20)에 일본 무장 세력이 전라도 흥양(현재 고흥) 손죽도(巽竹島 : 현재 여수시 삼산면)를 침입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 이후 최대의 침략 행위로 단순한 왜변의 수준을 넘어 전면전의 성격을 띠며 호남 지역사회와 조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전개되는 조일 외교와 임진왜란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 전라좌수군은 일본 침략군에게 무력하게 패배했지만 늑도 만호 이대원(李大源 : 1566~1587)이 전투 중 용전하다 순국하여 호남 연해민에게 흡모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남 수군의 전력 증강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 이후 잠잠하던 왜구들의 움직임이 1540년대에 접어들면서 심상치 않더니 1544년에 사량왜변, 1555년에 을묘왜변이 발생했다. 이후부터 일본의 어선과 상선들이 한반도 서남해안에 자주 출몰하여 노략질을 하고 사람을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왕래하며 서남해를 무단 경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선 정부나 관료들은 침입한 왜구들이 곧장 달아나는 것을 보고 늘 있는 행위나 전쟁할 의사가 없는 행위로 간주한 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가령, 1573년(선조 6)에 경상도 하동에 사는 백성 9명이 왜적에게 불잡혀 갔는데도 현감이나 수사 모두 중앙에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²⁸⁹⁾ 당시 왜적은 전라도 낙안 땅 금오도까지 침범하였다.

1576년에 방답 첨사가 출몰한 왜선을 나포하고 왜적의 귀를 베기도 하였지만,²⁹⁰⁾ 일부 왜선은 전라 우수영 관할지까지 진출하여 강진 해상에서 해채인(海採人 : 미역을 따는 사람) 10여 명을 잡아가 마도 첨사와 우수사가 문책을 받았다.²⁹¹⁾

그리고 1586년 6월에 왜대선 1척이 제주도를 침략하여 정의 현감과 접전을 펼치다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전라우수사가 “왜구들이 우리 연안을

289) 「선조실록」 7, 선조 6년 3월 14일.

290) 「선조실록」 10, 선조 9년 3월 19일.

291) 「선조실록」 10, 선조 9년 4월 3일.



엿보다가 빈틈을 타고 와서 침략할 걱정이 없지 않으니 방비하는 모든 일을 날로 새롭게 하여 변고에 대비하도록 특별히 신칙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임금은 비변사에게 전교를 내려 “정의 현감 김대이와 별조방장 어득수는 군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상히 여기는 타성에 젖어 적선을 잡지 못했으니 모두 잡아 가두라.”고 지시했다.²⁹²⁾ 이때 왜선은 전라좌수영 관할지까지 침범하여 다수 양민을 잡아가 좌수사 이경(李璟)이 문초를 받았다.²⁹³⁾

292) 『선조실록』 20, 선조 10년 6월 3일.

293) 『선조실록』 20, 선조 10년 10월 6일.

이처럼 서남해안을 횡횡하는 왜선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적선을 막지 못한 장수를 문책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방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2. 손죽도해전과 전라좌수군 실태

1587년(선조 20) 1월 말경에 일본 규수의 오도(五島)와 평호도(平戶島) 출신인들이 탄 왜선 두어 척이 홍양 녹도진(현재 고홍 녹동) 앞바다를 침범했다. 보통 때 같으면 동남풍이 부는 4월 이후에 왜선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예상을 깨고 일찍 침범했다. 녹도 만호 이대원이 경황이 없어 주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혼자서 출동하여 그들을 쳐서 수급을 베풀었다.

그러자 전라좌수사 심암(沈巖)은 전공을 독차지했다고 이대원을 미워하여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²⁹⁴⁾ 그리고 수일이 지난 2월 1일, 왜선 18척이 전라도 홍양 손죽도를 침범하여 점령했다. 그들은 무장 정도나 침략 목적으로 보아 이전의 왜구와는 다른 성격을 띤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손죽도는 홍양현 남쪽 170리 지점 대양에 있는 섬으로 이전에도 왜구가 침범한 일이 있었다. 1525년(중종 20)에 왜선 4척이 손죽도, 평두도 등지를 침범하자 전라좌수사가 병선 20척을 거느리고 예하 진장과 함께 출동하여 격퇴시켰다.²⁹⁵⁾ “미조항의 앞바다에는 연화도, 욕지도가 있고 밤포의 앞바다에는 대평두도, 소평두도, 손죽도가 있어서 모두 해적이 왕래하는 곳입니다.”²⁹⁶⁾라고 하였듯이, 손죽도가 일본에서 전라좌수영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잦은 외침을 대규모로 받은 것 같다. 더군다나 규슈와 손죽도는 동남풍 바람길에 위치하여 돛을 올리면 쉽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이들 왜인들이 손죽도를 침략하자 전라좌수군이 출동했다. 심암은 후방을 맡으면서 이대원을 척후로 삼았다. 이대원은 손죽도 해상에서 적과 전면전을

294) 『선조수장실록』 21, 선조 20년 2월 1일.

295) 『중종실록』 55, 중종 20년 9월 22일.

296) 『광해군일기』 9, 광해군 즉위년 10월 21일.

펼쳤다. 그런데 적군은 많고 아군은 적은데다, 적군의 전력은 중국으로부터 조선기술을 배워 선박이 견고했고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받아들여 막강했다. 계다가 심암이 관망한 채 지원공격을 하지 않아 이대원은 고립된 군사로 대군과 싸우다 패전하고 전사했다.

왜인들은 손죽도에 이어 선산도를 약탈한 후 납치한 백성들을 배에 태우고 연해를 돌아다니며 강진의 가리포진(현재 완도)까지 넘어갔다. 이들의 공격으로 가리포군은 주둔지를 점령당하여 병선 4척을 빼앗겼고 첨사 이운은 왼쪽 눈에 화살을 맞고 퇴각하고 말았다. 전라 우수사 원호가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가리포진이 함락되고 말았다.²⁹⁷⁾

이러한 사실을 안 조정은 한성 우윤 신립을 우방어사로 삼아 군관 30명을 거느리고 그날로 내려가게 하였다.²⁹⁸⁾ 그리고 변협을 좌방어사로 삼아 밤을 새워 남쪽 지방으로 출정하게 하였다.²⁹⁹⁾ 우참찬 김명원을 전라도 순찰사로 삼아 손죽도를 침범한 적을 치계 했다. 전라감사 한준은 도내의 고을에 전령하여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막게 하였으나, 5~6일이 지나도 해변에 적의 기척이 없어 각각 진을 파하였다. 모두 왜구가 이미 물러난 뒤 뒷북치기였다.

심암은 병력, 무기, 전술, 기세 등 적의 전력을 소상히 보고하지 않았다. 스스로 군율을 어긴 것을 알고 적세가 대단하다고 거짓으로 아뢰고 내지의 군사를 징발하게 하여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했다.³⁰⁰⁾ 당시 아군의 피해는 막대했고 전투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다. 적과 만나 대전하면서 장병을 수백여 명이나 잃었건만 왜적의 머리 하나 참획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대원이 전사했고, 중위장으로 출전한 순천 부사 변기는 퇴각 도중 적의 화살에 맞았다.³⁰¹⁾

임금은 패전과 군율 미준수 책임을 물어 심암을 조사할 것도 없이 “의당 형구에 채워 조정으로 이송한 뒤, 문밖에서 참수하여 여러 진에 조리를 돌려야 된다.”³⁰²⁾고 하여 서울 당고개에서 효수되었다.

이에 앞서 양산룡 등 전라도 유생들도 심암의 죄를 논하고 처형을 주장하자 임금은 참으로 가상하다고 답변했다.³⁰³⁾ 우수사 원호 또한 복병선 5척이 피침하였으나 따라가 잡지 않았다고 하여 국문을 받았다.³⁰⁴⁾ 이 외에 여러 장수들이 힘써 싸우지 않았다거나 늦게 출동했고, 달아나 숨었다는 이유로 문책을 받았다.

전라 감사 한준도 이대원이 패하여 죽을 당시 순천에 도착하여 적의 형세가 왕성하다는 말을 듣고 내지로 급히 돌아가자 노약자들이 길을 막고 붙들

297)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2월 27일.

298)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2월 28일.

299)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2월 29일.

300)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3월 3일.

301)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8월 9일.

302)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3월 28일.

303)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4월 14일.

304)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3월 10일.

305) 「선조실록」 21, 선조 20
년 6월 4일.

면서 호소했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벌벌 떨며 물러가 웅크렸기에 남쪽 백성들에게 욕을 먹었다고 하여 파직당했다.³⁰⁵⁾ 곧이어 한준은 호조 참판과 우참찬을 거쳐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정여립 사건을 최초로 고변하였으니, 전라도와 남다른 인연을 맺은 인물임에 분명하다.

이 때 왜인들은 손죽도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 수백명을 납치하여 끌고 간 후 외국에 팔아넘기기도 하였다. 조정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기 시작했다. 3정승, 비변사 당상, 병조 당상이 집결한 어전회의에서 전라도와 인접한 충청도가 불안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응력이 부족한 감사를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³⁰⁶⁾ 경상도에도 신각을 방어사로 내려 보냈다.³⁰⁷⁾

임금은 적이 비록 물러났으나 이는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후 군기를 수리하고, 봉수나 망대 등의 일을 단속하여 경계 태세를 태만히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³⁰⁸⁾ 물러난 적들이 다시 나타나 언제 전면전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판단한 임금은 병조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병조는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305) 「선조실록」 21, 선조 20
년 2월 27일.

307) 「선조실록」 21, 선조 20
년 2월 30일.

308) 「선조실록」 21, 선조 20
년 3월 3일.

지금의 웨변(倭變)은 우연히 변경을 침범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선(戰船)을 넉넉히 준비하여 대기 침입했습니다. 고풍손(高風孫)이 전한 대로 사을화동(沙乙火同)의 소행이란 것이 이미 빈 말이 아닙니다. 한 번 교전하고서 선박을 불태우고 장수를 죽였으니 곧바로 침범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지체하면서 진격도 후퇴도 않기 때문에 그 실정을 가늠하지 못 할 듯 하지만 어찌 심원(深遠)하여 알기 어려운 계책이야 있겠습니까. 전선을 나누어 정박시켜 의심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측이 한 곳에 병력을 집중토록 한다음 가만히 다른 변경을 치려는 것이 하나요, 원도(遠島)로 물러나 숨었다가 본처에서 원병을 계속 보내는 것을 기다려 일시에 거사하며 멀리 떨어진 변경에 출몰하면서 진보(鎮堡)의 형세를 살펴 허술한 틈을 타 갑자기 공격하려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적과 대응하는 곳은 방어가 그다지 허술하지는 않은데 本道에서 우려할 만한 곳은 가리포, 진도, 제주 등 3읍과 법성창, 군산창입니다. 그러나 본도의 방책에 진작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 반드시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정병은 현재 당상 당하의 무신과 녹명인(錄名人) 및 잡류 공사천(公私賤)으로 활쏘기에 능한 사람을 벌써 선발해서 대오를 나누고 짐을 꾸려 명을 기다리게 하였으며, 궁시(弓矢)와 총통(銃筒)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부족한 것은 철갑과 철환이나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³⁰⁹⁾

309) 「선조실록」 21, 선조 20
년 3월 29일.

적의 침략이 예상되는 전라도의 가리포와 진도 및 제주 등 3읍과 법성창과 군산창 등 2창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고, 무신과 잡류 및 공사천으로 활쏘기에 능한 사람을 선발하고 대오를 편성해서 유사시를 기다리게 하고, 궁시와 총통 및 철갑과 철환 등 무기를 갖추어 놓겠다는 것이 병조의 답변이었다. 전국이 준 전시 상황에 접어들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였다.

을묘왜변 때도 전라도 강진 해남 지역이 유린당했기 때문에, 특히 전라도의 연해지역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에 왜군은 방비가 튼튼한 전라도로 들어오지 않고 근래 외침을 겪지 않은 부산포로 들어왔다. 어떠하든 간에 긴박한 가운데, 사을화동(沙乙火同)이라는 조선인의 유언에 의한 소행이라는 사실이 납치에서 도망친 사람으로부터 보고되었다. 곧 바로 침략자는 물러났지만, 손죽도 사건은 조선의 외교정책 수립과 호남지방의 민심 동향에 미친 여파는 심대했다.³¹⁰⁾

3. 녹도만호 이대원의 순절과 '녹도가'

이대원은 자가 호연, 본관이 함평, 출신지는 경기도 양성(평택)으로 1583년에 18세의 나이로 무과에 합격한 후 선전관으로 있다가 1586년 21세에 녹도 만호가 되었다. 녹도진은 홍양현 남단 수군진으로 전라좌수영 휘하 5관 5포 가운데 하나로 국초부터 설치된 수군진이다.

이대원은 1587년에 녹도 앞바다에 왜선 2척이 나타나자 수하병을 이끌고 배를 정돈하여 홀로 출전하여 격퇴했다(어떤 기록은 20여 척을 침몰시켰다고 하는데, 20여 척이 침범하여 2척을 격파하고 나머지 18척이 손죽도를 침범한 것으로 보임). 남은 적들은 도망가고 녹도진 군사들은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가 하나도 없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대원이 돌아와서 수사 심암에게 전과를 보고하면서 수급을 올렸다. 심암은 겁을 내어 당초 왜적을 물리친 일이 없었으나 이대원의 공을 빼앗으려고 했



▲ 녹도만호 이대원 장군 초상화

310) 전라도 좌수영 출신의 출생(出生)과 生辰(生辰) 등이 손죽도 싸움에서 왜구에게 접혀 南海國에 떨려 갔다가, 중국으로 도망친 후 사온사와 함께 돌아와 1586년(선조 21년) 11월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珍島 출신의 사화동이란 자가 왜구에게 접혀 규수(囚虜)로 있으면서 손죽도 침략을 만도(慢道)를 뛴만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있는 조선인이 수백명에 이르다고 김개동 등은 헤어놓았다. 바로 이 무렵 일본은 사신을 보내어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조선 정부는 처음에 반대하다가, 나중에 협상 조건으로 손죽도 침략을 주도한 王朝島主, 沙火同主, 賦稅 4 5명을 끌어 보내고 또 선후에 모르가 된 배상을 모두 되돌려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마도주가 사화동, 책과 3명, 피로인 116명을 보내니니 마침내 타결되어 1590년(선조 23년)에 황문길·김성일·허성·임행의 통신사가 일본에 가게 되었다.

다. 이대원이 따르지 않자 심암은 부끄러워하고 이대원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관찰사의 장계(狀啓)로 그의 승전이 조정에 보고되어 심암은 파면되고 대신 이대원이 좌수사에 발령되었으나 어명이 도달하기 전에 손죽도에서 죽었다.

수일 후 다시 18척의 왜선이 손죽도를 침입하여 점령하자 이대원은 심암의 명에 의해 피로에 지친 군사 100여명을 이끌고 출병했다. 이때 이대원은 “지금 해도 저물었고 또 군사들도 적어 덮어놓고 출전하는 것은 무모할 따름이니, 군사를 더 많이 모으고 선단을 크게 지어 가지고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다음에 효과 있게 치고 나가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라고 심수사에게 진언했으나, 심수사는 도리어 협박까지 하면서 즉각 출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대원은 “그러면 사또께서 곧 뒤미처 응원군을 거느리고 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출전했다.³¹¹⁾

손죽도 해상에서 조총을 쏘아대는 적과 3일간 전투를 펼쳤으나 심암은 쳐다만 보고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중과부적과 화력 열세 상태에서 모든 군사를 잃어버리고 배조차 남김없이 다 깨지고 말았다.

이대원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칼을 들어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 그리고 속저고리를 벗어서 거기다 손가락의 피로 최후의 절명시 한 장을 써서 집안 하인에게 주며 “이것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장례하라”고 말했다. 절명시는 다음과 같다.

해 저무는 군문에 바다를 건너오니
군사는 적고 형세는 끊겨 이 인생 가련하네.
군주와 어버이께 은혜와 의리 모두 보답하지 못하니
원한이 시름겨운 구름 속에 맷혀 풀리지 않으리라.

적군들이 항복하라고 위협했으나 굴복하지 않자 왜인들은 둑대에 묶어 놓고 사정없이 때렸다. 죽을 때까지 꾸짖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손죽도 물으로 끌려나와 수하 병사들과 함께 살해당하여 22세의 청년 장군은 목숨을 잃었다.

왜인들이 만행을 저지른 곳을 현지인들은 ‘무부장터’라고 하고, 당시 손죽도 사람들이 이대원 시신을 가묘를 써서 매장했다고 한다. 집안 사람들은 유명을 받들어 헐서로 쓴 옷을 가져다가 양성현 대덕산 아래에 장례했다.

311) 이은상, 「고통 생종사 사적」, *민족문화협회*, 1980, 63쪽.

고홍 연해안 사람들은 심암의 태도에 분개하고 이대원의 죽음을 애도하여 가련한 노래를 지어 불렀다.³¹²⁾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어허! 슬픈지고
녹도 만호 이대원은
다만 나라 위해
충신이 되었도다.
배가 바다로 침몰해 갈 제
왜적들은 달려들고
수사는 물러가니
수천 명 진중에서
빈 주먹만 휘둘렀도다.

³¹²⁾ 「국조인물고」, 「악천집」
17. 신도비명, 「전라좌수
사이공신도비명」

송강 정철의 큰아들 정기명(鄭起溟 : 1558~1589)은 녹도가(鹿島歌)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녹도가 전문은 다음과 같다.

만력 정해년 우리 왕 21년 정월 16일에 섬 오랑캐가 도적질하러 나와서 변지를 놀라게 하며, 우리 백성을 약탈하여 배에다 싣고 거리낌 없이 표연히 사라지니 녹도 이장군은 그 말을 듣고 곧 칼을 짚고 일어섰다. 때는 겨울로 날씨가 차고 눈비가 휘몰아쳐 바다 위에 군사의 손가락이 얼어 빠질 지경이었다. 장군은 각궁(角弓)을 올리며 조그마한 배 한 척으로 만장(萬丈)의 파도 속에 백만의 적 병을 뚫고 많은 적 베기를 풀 베듯 하였다. 군문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군사는 하나도 피해가 없이 적의 머리만을 드리며 주장(主將)을 뵈었다. 주장이 장군을 불러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니, 장군은 끓어 앓아 무어라 대답하는데, 주장은 머리를 숙이고 분함을 품고 부끄러워하였다.

전지로부터 전승의 소식이 보고되자, 왕께서는 탄복하며 종3품의 벼슬을 내리시고 장군의 공로를 크게 찬양하였다. 그 뒤 얼마 안되어 적이 다시 크게 몰려오는데 눈 앞에 출몰하는 것만 해도 20척이나 되었다. 날은 저물고 별풀이 적으로 싸우려 하지 않으니 장군의 염려는 나라 일에 있을 뿐이었다. 강제로 적을 추격하게 하며 위엄으로 장군의 마음을 협박하여 죽을 곳으로 몰아 넣었다. 장군은 출발하면서 주장에게 고하되, 힘을 합하여야 될 것이니 공은 모름지기 뒤를 따라 달라고 당부하였다. 장군의 충돌이 우레같이 진동하니, 오랑캐들은 서



로 보고 올며 수심하였다. 전세가 바야흐로 벌어져서 파죽지세로 나아가는데, 적이 사면으로 모여들어 우리 배를 역습하였다. 패한 자, 상한 자 어지럽게 달아나니 애처로워라. 장군이여, 홀로 정주(汀洲)에서 액을 당하게 되었다. 화살은 쏘아 다 되었으니, 맨손 빙 주먹으로 어찌 하리오. 옆으로 치고 앞으로 찔러 피가 비처럼 쏟아지니, 적의 기세가 비록 꺾였으나 갈수록 더욱 많아졌다.

당시 주장은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서도, 마음 편히 방관만 하고 있으니 의(義)에 어떻다 하리. 장군의 기력 이미 다하매 머리를 돌려 종에게 물었다. 종은 말하기를, “주장은 이미 물려갔고 창해에 해는 저물었나이다”하였다. 장군은 할 수 없어 인부를 품고 북쪽을 바라보며 세 번 길게 한숨을 지었다. 잠깐 사이에 몸이 이미 적중에 포위되니, 일이 극히 참혹함을 소상하게 알기 어려워라. 정충(精忠)을 지금까지 밝히지 못하였는데, 원악(元惡)은 오래도록 살며 형장(刑章)을 어겼으나 우리 왕 구중 궁궐에 계시어 밝으시고 또 성스러우신데 아래에 어느 누가 있어 관량(關梁)처럼 막았을까.

아!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는 변정(邊庭)의 사녀(士女)들 만구(萬口)가 다 같은데, 장군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는 경성 남쪽의 아내와 자녀들이었다. 장군이여! 장군이여! 장군이여! 지금은 어디 계시나. 원컨대 크나큰 고래가 되어 바다 깊이 잠겨 있다가 오랑캐놈들이 만일이라도 우리 강토에 가까이 오면 수염을 거슬러 세우고 어금니를 벌려 삼켜 죽이소서.³¹³⁾

313) 『승강원집』 2. 소학, 부
화곡유고, 「녹도기」

은봉 안방준(安邦俊)은 15살이던 이때에 이 소식을 듣고 [이대원전]을 지었다. 그의 「연보」에 따르면, “당시 왜적이 들어와 노략질을 하자, 녹도 만호 이대원이 힘껏 싸우다 죽으니 선생이 절의를 가상히 여겨 전기를 지어 기록하였다. 조정이 이대원의 절의를 자세히 몰랐는데 선생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않게 되었다. 선생은 어린 나이에 이미 절의를 숭상하여 권장함으로써 세상에 일컬어졌다.”³¹⁴⁾고 하여, 안방준은 이대원의 절의를 높이 사 [이대원전]을 지었으나 현재 원문은 남아 있지 않다.

손죽도는 화살용 전죽(箭竹)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지만, 온 나라 사람들은 이대원이 죽자 슬퍼하면서 손죽도를 손대도(損大島)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하여 순천부사를 역임하여 손죽도 사건을 익히 알고 있을 이수광(李光)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만력 정해년에 왜군이 천라도를 침범하였을 때에, 녹도 만호 이대원이 외로운

군사를 가지고 손죽도에서 항거하여 싸우다가 구원이 끊어지며 패전하여 죽으니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였다. 손죽도를 세상에서는 손대도(損大島)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에 죽(竹)을 대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편으로 대는 대원(大元)의 대(大)와 같은 음이다. 손대도는 곧 '대원을 잃은 섬'이라는 말과 통한다.³¹⁵⁾

315) 『자행유설』 2, 자리부도,

죽(竹)을 우리말로 대로 부르기 때문에 이대원 순국 이후 조선 사람들은 손죽도를 손대도라고 불렀고, 결국 손대도는 이대원을 잃게 한 섬이라는 말이었다. 이대원의 대 자와 음이 서로 같아서, 이대원을 손상시킨다는 말이 은연중 포함되어 있다고 이수광은 민간의 떠도는 말을 채록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호남 지역민들의 이대원 애도 물결은 어떤 결과를 냈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안방준의 기록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 [임진기사(壬辰記事)]에 다음의 기록이 나온다.

정해년 봄 3월에 일본 적병을 실은 배 16척이 영남의 바깥 바다로부터 곧바로 흥양의 손죽도에 이르렀으나, 각 진과 여러 고을의 수군들은 서로 마주 보는 곳에 진을 치고는 두려워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오직 녹도 만호인 이대원만이 나아가 싸우다 왜적에게 포위되었다. 힘을 다해서 싸웠으나 전세가 곤궁하게 되자, 깃발을 들어 원군을 불렀지만 여러 장수들이 아무도 가서 구해주지 않았다. 이대원이 드디어 죽임을 당하고 배가 물에 빠져 녹도의 수졸(水卒) 손대남(孫大男)만이 겨우 살아났다. 그날 밤 왜적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습과 그림자조차 없어서 알 수가 없었다. 이에 조정과 재야에서 크게 놀라 곧바로 방어사와 좌우 조방장을 출정시켰다. 대개 풍신수길은 임금을 죽여 왕위를 빼앗고, 그 위세를 타서 우리나라의 길을 험하여 명나라를 침범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사화동을 길잡이로 삼아 약간의 배를 보내어 우리나라 병력의 강약을 시험했던 것이다.³¹⁶⁾

316) 『은평전서』 6, 기사 「임진기사」

안방준은 손죽도 사건을 풍신수길이 정권을 잡은 후 조선 침략을 감행하기 위한 예비전으로 성격 규정을 하였다. 그의 논지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짙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의 예비전인 손죽도 사건에서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그나마 이대원 장수만이 전력대전하다 장렬하게 순국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대원의 죽음은 호남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이대원의 신도비명을 쓴 남구만의 언급을 주목해보자. “임진왜란에 호남 지방이 유독 완전하여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었으니, 이는 공이 먼저 왜적에게 몸을 맡겨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려하고 분발시킨 효험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부대로 왜란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던 전라 좌수군의 전력은 이대원의 장렬한 죽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남구만의 생각이었다.



▲ 이대원장군 사당(삼산면 손죽도)

제5절 임진왜란과 여수

1. 전라좌수군의 활약

변동명 (전남대학교 교수)

1) 개전초기의 활동

조선 침략에 나선 왜병의 대규모 선단(船團)이 부산 앞 바다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592년 4월 13일(陰) 석양 무렵이었다. 이튿날인 14일, 조선군과 왜의 침략군 사이에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왜군의 상륙에 이은 공격으로 벌어진 부산진성(釜山鎮城)에서의 치열한 공방전이 그것이었다. 7년 동안의 참혹한 전쟁,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이었다.

이순신의 전라좌수영에서 왜군의 침공 사실을 처음 안 것은 4월 15일 밤이었다. 왜군의 대선단이 부산에 출현한 이를 뒤에 비로소 그 소식을 전해들은 것이었다. 이어서 16일 밤에는 부산진성이 함락되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숨 돌릴 틈조차 없는, 비상한 사태의 급박한 전개였다.

여수와 전라좌수영은, 이순신도 강조하였듯이 경상도와 한 바다로 잇닿은 고장이었다. 왜적이 침범하는 길목의 요충에 해당하였다. 경상도 해역(海域)에서의 급박한 비상사태 전개에, 이순신과 전라좌수영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을 강구하고자 머리를 싸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곧장 비상령을 발동하였다. 예하의 수군진과 고을에 왜군의 침입을 알리며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는 한편, 출전 등 만약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였다. 이른바 5관(官) · 5포(浦)라 통칭되던 전라좌수영 관내의 10개 읍진(邑鎮)을 확고히 장악한 가운데, 충격 속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출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불패의 상승 수군으로 명성을 떨치던 전라좌수영 함대가 이로써 그 위용을 드러낼 태세를 갖춘 셈이었다. 경상우수사 원균은 휘하의 군사력을 결집하는 데 실패하여, 독자적인 전투함대를 구성하지 못한 채 전라좌수영의 원군만을 학수고대하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임진왜란을 맞아 활약한 전라좌수군의 모습을 그 초기로 한정하여 살피겠다. 구체적으로는 1592년 5월 초순에서 같은 해 9월 초순까지, 다시 말해 제1차 출전에서 제4차 출전에 이르는 동안 펼쳐졌던 전라좌수영 함대의 활약상과 그리하여 거둔 전과를 주된 서술 대상으로 삼는다.

전라좌수군의 첫 출전이 결행된 것은 1592년 5월 4일(양력 6월 13일) 새벽이었다. 관할 지역을 벗어나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5월 3일 늦게 이순신이 출정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데 따른 일이었다. 전라좌수영 관내의 10개 읍진에서 전투준비를 갖춰 동원된 수군이, 본영인 여수 앞바다로 소집을 마친 것은 4월 29일이었다. 그리하여 전투함대를 편성한 다음 왜군을 찾아 4월 30일에 곤장 경상도 바닷길로 향하려던 것이 본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500여척으로 알려진 왜군에 비해, 전라좌수영 함대는 너무 외롭고 약해 보였다. 전라좌수군의 함선은, 이순신의 표현에 따르면 30척 미만으로 실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함선은 24척의 판옥선(板屋船)이 고작이었다. 게다가 낯선 경상도 해역에서의 전투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던 원균의 경상우수군은 거의 궤멸상태였다.

29일에 연락을 받거나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애초 두 지역 수군의 연합함대에서 선봉을 맡기로 약속한 경상우수영은 이미 적에게 함락 당하였으며, 또한 물길에 어두운 전라좌수군을 안내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경상우수영 관내 남해도(南海島)의 4개 읍진은 적이 닥치기도 전에 모두 도망가 스스로 무너져 텅 빙 실정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억기(李億祺)의 전라우수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좀 더 군세를 키운 뒤 출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4월 30일 출발하였다는 전라우수군에서는 이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난감했을 이순신의 심정이 짐작되거니와, 그러던 차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녹도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의 강력한 주장이 있자 마침내 첫 출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부산 앞바다에 왜군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이후 20일이 채 지나지 않았으며, 조정의 출전명령을 4월 27일 전달받고 받고 미처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첫 출전한 전라좌수영 함대는 전선(戰船) 즉 판옥선 24척, 협선(挾船) 15척, 포작선(鮑作船) 46척 등 모두 85척이었다. 그러나 협선은 승선 인원 5명 이하의 소형 부속선이었으며, 포작선은 어선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전투에 나설 수 있는 함정은 24척의 전선이 전부였다. 거기에 경상우수사 원균의 전선 4

척과 협선 2척을 합해봐야, 전선 28척에 협선 17척이 고작이었다. 매우 취약한 전력이었고, 더욱이 왜군과의 전투 경험도 없었다. 이순신의 전라좌수군이 첫 출전에서 자못 신중한 행보를 보인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5월 4일 새벽에 출항한 전라좌수군은, 소비포(所非浦)를 지나 사흘째 되던 날 당포(唐浦)에서 원군 일행을 만난 후 송미포(松未浦)를 거쳐, 나흘째인 7일 왜군과 첫 번째 전투에 들어갔다.

임진왜란 최초의 해전이었거니와, 거제도 옥포만(玉浦灣)에서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의 휘하로 알려진 30여척의 왜군 함대와 맞붙어 대선 13척, 중선 6척, 소선 2척 등 모두 26척을 분멸(焚滅)하였다. 이른바 옥포해전으로서, 처음으로 맛본 해상 승첩이었다.

이어 웅천(熊川, 현 창원시)의 합포(合浦)에서 대선 4척과 소선 1척을, 그리고 그 이튿날(8일) 적진포(赤珍浦)에서 대선 9척과 중선 2척 등 11척을 불태워 쳐부쉈다. 적진포의 13척 중 나머지 2척은 원군의 경상우수군이 격파했을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리하여 제1차 출전 중의 세 차례 전투에서 모두 42척을 쳐부순 전라좌수군이 본영인 여수로 귀환한 것은 6일째인 5월 9일이었다.

제1차 출전에서 이순신의 전라좌수영 함대는 우세한 전력을 앞세워, 노략질에 열중하던 왜군 함대를 각개 격파하였다. 보유 화력이나 전함의 숫자 및 성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소규모로 분산된 왜 수군을 곳곳에서 곧장 쳐부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해전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효과에 더하여, 수군 장졸들의 용기와 북돋워 왜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나아가 육지에서의 잇따른 패전을 딛고 전열을 재정비하여 왜적을 물리치고자 떨쳐 일어서도록, 의지를 고양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여수 본영으로 귀환한 이순신의 전라좌수군은 휴식으로 재충전을 꾀하는 동시에, 전함이나 무기를 수리하고 소진된 장비를



▲ 거북선 모형(돌산을 우두리)



보충하는 등 제2차 출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투력을 증강하려는 노력에도 가일층 박차를 가하였다.

우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 건조를 마치고 시험 운행과 포 사격 연습 등 현장 적응훈련에 들어갔던 거북선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아울러 전라우수사 이억기에게 연락하여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하는 데 합류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전란의 참화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다가온 전투에 대비하는 분주한 나날이었다.

그러던 5월 27일 경상우수사 원균에게서 급보가 날아들었다. 적선 10여척이 벌써 사천·곤양 지역에까지 밀려들었기 때문에, 경상우수영이 노량(露梁)으로 이동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1차 출전 이후 20일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원균의 관할인 거제도에서 노량에 이르는 경상우도 해역이 전투 한번 치르지 않은 채 왜군의 손에 넘어간 셈이었다. 이제 왜군이 전라좌수영으로 육박해오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전라좌수영 함대와 여수 앞바다에서 회동하기로 약속한 6월 3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이억기에게 곧장 뒤따라오라는 공문을 남긴 채, 5월 29일 새벽 이순신은 23척의 전선을 이끌고 또 다시 모험적인 단독 출전의 길에 올랐다. 전라좌수영 함대의 제2차 출전이었다.

전라좌수군은 첫날 하동(河東)의 선창에 피해 있던 원균의 전선 3척과 노량 해상에서 만나 모두 26척으로 꾸려진, 조출하지만 형식상이나마 연합함대를 결성하였다. 원균에게 현지 상황을 묻던 중 때마침 사천(泗川) 쪽으로 향하던 왜선 한 척을 발견하여 추격 끝에 태워 부순 다음, 사천 선창으로 적선을 향해 돌진하였다. 2차 출전의 첫 전투인 사천해전이었다.

이 싸움에서 전라좌수군은 최초로 거북선까지 동원하는 본격적인 전투 끝에 적선 12척을 모두 처부수는 전과를 올렸다. 격렬한 전투였던 만큼 전라좌수군에서도 처음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순신 자신이 왼쪽 어깨를 적탄에 관통 당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그밖에도 군관 나대용(羅大用)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장졸이 부상을 당하였다.

사천전투 후 모자랑포(毛自郎浦)에서 하룻밤을 보낸 전라좌수영 함대는, 6월 1일 고성 사량(蛇梁)에서 다시 밤을 지내고 다음날(2일) 아침 당포로 이동하여 2차 전투를 시작하였다. 먼저 거북선이 돌격하여 적장의 기함(旗艦)을 들이치는 것을 신호로 대선 9척과 중·소선 12척 등 총 21척을 모두 부쉈다. 이후 함대는 적을 뒤쫓아 진주 창신도와 고둔포(古屯浦)에서 두 밤을 보냈다.

그러던 6월 4일 이순신의 표현대로 ‘기뻐 날뛸’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25척의 전선과 함께 이억기의 전라우수군이 합류해왔던 것이다. 이제 조선 수군의 중추인 전라좌·우도와 경상우도의 연합함대는, 51척의 전선을 거느림으로써 그 이름에 걸맞은 위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배가된 전력으로 사기충천한 연합함대는, 작전회의와 함께 착량(鑿梁)에서 밤을 보낸 다음날(5일), 당항포(唐項浦)에 숨어든 왜군을 찾아내 공격하였다. 우선 적의 대선 9척, 중선 4척, 소선 13척 중 25척을 분멸했으며, 상륙해 도망간 적을 유인하고자 남겼던 나머지 1척을 이튿날(6일) 아침에 마저 포획하여 깨뜨림으로써, 지휘부를 포함해 당항포의 왜 수군을 모조리 섬멸하였다.

이 날 고성 맛을간장(乙干場)에서 밤을 지낸 함대는 7일 율포(栗浦)에서 다시 왜 대선 5척과 중선 2척을 만나 격침시켰다. 이후 며칠간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왜군의 종적을 찾지 못한 연합함대는, 6월 10일 미조항 앞바다에서 후일을 기약한 채 해산하여 각자 본영으로 귀향하였다. 전라좌수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함대는 2차 출전의 11일 동안 왜 군선 67척을 분멸하고 왜 수군 수백 급을 베는 전과를 거두었다.

20여 일에 걸친 재정비 후 7월 4일 전라좌·우수군은 여수 앞바다에서 다시 회동하였다. 그리하여 합동훈련과 작전숙의를 마친 다음 7월 5일 역사적인 제3차 출전의 길에 올랐다. 여수를 출항하여 노량에서 원균과 합세한 연합함대는 대략 59척의 전선으로 경상 서부해역을 더듬으며 조심스레 동쪽으로 나아갔다.

이들이 견내량(見乃梁)에서 대소 73척의 군선으로 구성된 와기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의 왜 함대와 마주한 것은 이를 후인 8일이었다.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은 좁은 수로에 몰려 있던 왜 수군을, 이순신은 한바다로 유인해 싸우고자 하였다. 그가 한산도 앞바다에서 펼쳤다는 유명한 학익진(鶴翼陣)의 구상이었다.

한산도해전에서의 포위 섬멸 작전으로 왜 수군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지휘관인 와기자카는 14척과 함께 겨우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대선 35척 및 중선 17척과 소선 7척 등 59척이 격침당하고 3,000 여 명으로 추정되는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후(10일) 연합함대는 다시 안골포(安骨浦)에서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와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의 전함 42척 중 20여척을 분멸하였다. 유인술에도 불구하고 왜 수군이 좁고 얕은 포구에 틀어박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

지 않자, 전선을 몇 척씩 번갈아 투입하며 화포 등으로 연속 공격을 시도한 결과였다.

그리고는 다음날(11일) 왜의 함선을 수색하며 가덕도(加德島)에서 물운대(沒雲臺)까지 함대를 늘어세워 위세를 과시한 뒤, 천성보(天城堡)에 오래 머물 것처럼 적을 기만하고서 야간에 회항을 시작하였다. 12일 오전 10시쯤 한산도에 도착한 연합함대는 경상우수사에게 한산도로 상륙해 도망친 왜 패잔 병을 처리하도록 일임하고 해산하였다. 전라좌수군이 본영인 여수로 돌아온 것은 7월 13일이었다.

제3차 출전의 8일 동안 이순신이 이끄는 연합함대는 왜 수군의 정예라던 와기자카와 구키·가토의 함대를 연달아 격파하며 80척 가량의 적선을 격침시켰다. 한산대첩의 결과 조선 수군은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왜군의 수륙병 진책(水陸竝進策)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평양과 함경도에까지 진출했던 왜군의 발을 묶어 둠으로써, 혀송세월하던 그들이 마침내 조명연합군에게 패퇴당하는 운명에 처하도록 강요하였다.

각기 본영으로 돌아가 전력을 정비하는 데 몰두하던 전라좌·우도의 수군은, 8월 1일 다시 여수 앞바다에 모여들었다. 동원된 전선만 74척이었다. 앞서 제3차 출전 당시의 추정 전선 52척에 비해 40% 이상 늘어났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래 꾸준히 전력 증강을 도모한 고심의 성과물이었다. 20여 일에 걸쳐 합동훈련으로 전력의 극대화를 꾀하던 이들 연합함대의 주력은, 8월 24일 제4차 출전에 나섰다. 본국으로 도망치려는 듯 보이는 왜군의 뒤로를 막아 섬멸하기 위함이었다.

관음포(觀音浦)와 모자랑포를 지나 이튿날(25일) 사량(蛇梁)에서 원균과 합세한 연합함대는, 당포와 옹천의 원포(院浦)를 거쳐 28일 가덕도를 근거로 왜 선 수색을 거듭하면서 김해와 양산 방면으로 전진하였다. 이어 가덕도의 천성보에서 밤을 보낸 다음날(29일) 장림포(長林浦)에서 출전 6일만에 처음으로 왜 대선 4척과 소선 2척을 만나 쳐부수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는 이튿날(9월 1일) 새벽 배를 띠워 부산포를 향하던 도중, 화준구미(花樽仇未)에서 왜 대선 5척, 다대포에서 왜 대선 8척, 서평포(西平浦)에서 왜 대선 9척, 절영도(絕影島)에서 왜 대선 2척을 각각 만나 모두 분멸(焚滅)하였다. 연합함대가 마침내 470여척이 정박 중이던 부산포 공격에 돌입한 것은 그날 저물어가던 무렵이었다.

9월 1일의 부산포해전은 4~5배가 넘는 적세에 맞서 왜 수군의 본거지를

타격하는 예전에 없던 대공세였다. 장사진(長蛇陣)으로 포구를 향해 줄지어 돌진해 들어가 적 진영을 실새없이 공격하는 격렬한 전투였다. 결과적으로 적선 100여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으나 용장 녹도만호 정운(鄭運)이 전사하는 등 조선 수군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8일에 걸쳐 모두 130여척을 격파하며 최대의 전과를 올린 연합함대가 해산하였는데, 전라좌수군이 본영에 귀환한 것은 9월 2일이었다.

1592년 한 해 동안 전라좌수군은 연합함대를 결성해서 모두 4차례 출전하여 10회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따라서 왜 수군은 해전을 포기한 채 바닷가 고지대에 성을 쌓고 주둔하면서 육군의 지원 아래 조선 수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전라좌수군을 주축으로 구성된 연합함대의 이러한 전과는 임진왜란의 전체 국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육상에서 고전하던 조선이 해상에서 그것을 설득했다는 차원을 넘어, 조선 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하여 왜군의 수륙 병진전략을 분쇄하고 해상보급로를 위협함으로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다를 건너와 전쟁을 직접 지휘할 기회를 박탈하여 왜군의 전쟁 수행능력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조선에서 왜군을 몰아내어 16세기 말 왜의 도전으로 야기된 동아시아 대전을 승리로 종결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 왜교성 전투와 노량해전

(1) 왜교성 전투(倭橋城戰鬪)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발발한 직후인 2월 26일 파직되어 28일간 옥에 갇힌 이순신 대신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이 7월 16일 칠천량에서 패하며 전사하자 1597년 7월에 조정은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했다. 이에 이순신은 전선을 복구하고, 군량미를 모으는 등 다시 전열을 새롭게 정비했다. 그에 힘입어 조선 수군은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하고 전라도 해안을 다시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계다가 도독 진린이 이끄는 명나라 수군이 참전함으로써 일본군은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당하고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에 있는 울산(蔚山) · 사천(泗川) · 순천(順天)의 왜성에 집결해 있었다. 그러던 중 전쟁을 일으킨 도요



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8월에 갑자기 죽게 되어 왜군은 철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앞서 조·명 연합군은 육상의 3로군과 남해의 수로군을 동시에 병진하게 하여 일본군을 공격한다는 '4로 병진작전(四路並進作戰)'을 세웠다. 육상의 3로군 중 동로군(東路軍)은 울산 왜성에 주둔한 가토 키요마사 군(軍)을, 중로군(中路軍)은 사천 왜성의 시마즈 요시히로 군(軍)을, 서로군(西路軍)은 순천 왜교성의 고니시 유키나가 군(軍)을 각각 공격목표로 했다.

그에 따라 명나라의 군문(軍門) 형개(邢玠)는, 마귀(麻貴)로 하여금 울산을 주관하게 하고, 동일원(董一元)과 유정(劉廷)에게는 각각 사천과 순천을 주관 토록 했다. 또 수군 도독 진린(陳璘)은 이순신과 함께 수로군(水路軍)을 편성하여 유정의 서로군과 함께 순천의 왜교성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렇게 편성을 마치고 조명 연합군은 동시에 남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로군이 맡은 울산 왜성의 왜군 저항이 완강하여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또 중로군이 담당한 사천 왜성도 동일원(董一元)이 조급하게 작전을 진행하여 패퇴함으로써 4로 병진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서로군의 제독 유정은 대군을 거느리고 한성을 출발하여 수원을 경유, 전주로 내려온 다음, 순천 왜교성의 적을 치기로 하였다. 그는 도원수 권율과 전라병사 이병악 등이 이끄는 1만여 명의 조선군을 포함, 3만 6천 명의 병력으로 순천 왜교성(현재의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소재) 공격을 준비했다.

진린의 명나라 수군과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도 1598년 7월에 고금도에서 합세하여 조·명 연합 함대를 편성하고, 흥양의 절이도 해전(折爾島海戰)에서 왜선 50척을 격파하고 승리했다. 이후 9월 하순에 유정이 이끄는 서로군과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가의 뇌물에 매수된 유정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이순신과 진린의 수군만이 단독으로 왜교성을 공격했다. 이것이 왜교성 전투이다. 조·명 연합수군은 장도를 근거지로 삼아 육상의 왜군을 공격했다. 간조 시에는 왜교성에 접근이 어려워 만조 시에만 공격할 수 있다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명 연합수군은 이 전투에서 왜선 11척을 나포하고 30척의 전선을 격침시켰다.

그러나 조·명 연합군의 피해도 커서 명나라 전선 30여 척이 격침당하고, 명나라 수군 800여 명이 전사했으며, 왜군에게 포위된 명군을 구하러 가던 흥양 현감 황세득과 군관 이청일, 그리고 그 휘하의 조선군 130명도 전사했다.

(2) 노량 해전

6차례에 걸친 왜교성 전투에서 큰 전과를 세운 조·명 연합 수군은 일단 고금도로 귀환했다. 그러나 귀환 후에도 고니시 유키나가 군(軍)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이에 고니시는 퇴로를 확보하고자 사천 왜성에 주둔 중이던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고니시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은 시마즈는 고성에 주둔 중이던 다치바나 군(軍), 남해의 소오 군(軍) 등과 함께 고니시 군(軍)을 구출하고자 11월 18일, 수군 6만여 명과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노량으로 향했다. 시마즈의 함대가 노량을 통과할 것을 예측한 이순신은 명나라의 진린으로 하여금 광양만의 죽도 뒤편에 대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조선 수군은 남해도의 관음포(觀音浦)에 매복시켰다.

이튿날인 11월 19일 새벽, 시마즈 등이 이끄는 일본 함선 500여 척이 노량에 진입하자 매복해 있던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공격으로 적선 50여 척을 격파했다. 또 왜교성을 나온 고니시 군과 죽도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진린의 명나라 수군 사이에도 전투가 벌어졌다.

전투가 벌어진 지 4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8시경, 이미 200여 척 이상이 깨지고, 150여 척이 파손된 왜군은 나머지 백수십 척만을 이끌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주하는 왜군 함대를 추격하던 이순신은 관음포에서 왜군의 유탄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으며, 가리포첨사 이영남, 낙안군수 방덕룡, 홍양현감 고득장과 명나라 수군 부총병 등 자룡이 추격 도중 왜군의 총탄에 맞아서 전사하였다.

이순신의 전사 후에도 계속된 전투로 수십여 척의 왜선을 더 격파하여 그들 나라로 돌아간 왜선은 겨우 50여 척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왜교성에서 봉쇄당하고 있던 고니시의 군사들은 노량해전의 혼란을 틈타 여수 수로(水路)를 따라 남해도 서남쪽을 돌아 시마즈의 왜군과 함께 부산에 집결, 퇴각하였다.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7년간의 전쟁도 끝이 났다.

그리고 보면, 전라좌수영의 수군은 임진왜란의 첫 승리와 마지막 승리를 기록한 셈이다. 전쟁이 처음 일어난 1592년 5월에 경상도 해안에 출전하여 왜 수군을 맞아 옥포해전에서 첫 승전을 기록한 군대도 전라좌수영의 수군이었고,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왜군에게 크게 이긴 군대도 전라좌수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 수군이었기 때문이다.

2. 전라좌수영 거북선

장학근 (이순신연구소 소장)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발탁되어 부임한 것은 1591년 2월 28일이다. 일본군의 침략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좌수사로 부임하게 된 이순신은 전라좌수영 소속 군선을 동원해 실전과 같은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이순신은 판옥선(板屋船)만으로 해전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전술적 판단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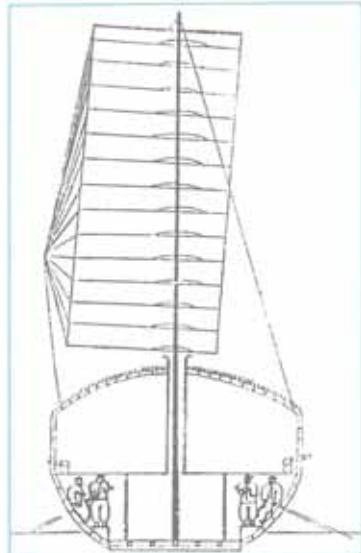
판옥선이란 배의 본체 위에 판자로 집을 지어 올렸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종 때 처음 만들어진 판옥선은 명나라 군선과 일본 군선에서 장점을 취하여 만든 군선이다. 판옥선은 선체가 견고하면서 높

고, 선폭이 넓어서 병력과 화포를 많이 적재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를 굽어보며 화포를 발사하여 사정거리가 멀고 명중률이 높아 동아시아 최정예 군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³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판옥선만으로 해전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속도가 느리고 대포를 쏘는 상갑판이 개방되어 적의 총탄에 화포수가 사상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도처에서 자행되는 왜구의 약탈행위를 오랜 기간 주목해 왔다. 왜구들의 선박은 작아 속도가 빨랐다. 그들은 연해에서 민가를 약탈하다 순찰하는 조선 군선이 가까이 다가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유히 약탈한 물건을 배에 실은 후, 노를 저어 조선 순찰선으로 다가갔다. 왜구들은 칼과 도끼를 들고 빠르게 몸을 놀려 조선 군선으로 돌입하면 조선의 수군들은 놀라 떨며 왜구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기 십상이었다.

간혹 조선군이 항거하면 백병전으로 우리 수군을 압도했다. 왜구가 타고



▲ 언더우드의 거북선 복원 단면도

317) 「충종실록」, 중종 10년 5월 庚午, 「민옥선은 선체가 높아 적이 기어오르기 어렵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굽어보며 화포를 쏘아 적을 제지할 수 있다.」

온 약탈선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선폭을 좁게 하고 그 위에 판자로 누각을 세우고 판자문을 달았다. 왜구들은 조선 군선을 만나면 판자문을 조선 군선에 걸쳐 그것을 사다리 삼아 재빨리 조선군선으로 건너 왔다.

왜구의 백병전과 왜구선의 기동성과 판자문의 역할은 일본과의 해전을 할 때 조선 수군이 극복해야 할 요소였다. 또한 조선 수군은 전투 경험이 없는 농어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전투도 하기 전에 왜놈들이 장검과 도끼를 들고 우리 배로 뛰어들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우리 수군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군선을 만드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라 생각했다.³¹⁸⁾ 그는 승조원이 안전하고, 군선의 속도가 일본군선보다 빠르며 화력이 좋은 신형군선을 고안하는데 골몰했다. 「이충무공전서」에는 이순신이 새로운 군선, 거북선을 창안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순신이 전라좌수사가 되자, 일본이 쳐들어 올 것을 예측하고 지혜를 써서 큰 배를 만들고 배 위를 판자로 덮고 판자 위에 십자형 좁은 길을 내어 사람이 겨우 다닐만하게 하고, 그 밖에는 모두 칼 송곳을 꽂았다.”³¹⁹⁾

일본군이 침략해 올 것을 예측한 이순신이 “큰 배를 만들어 덮개를 한 후, 덮개 좌우에 각각 6개의 대포구멍을 이용하여 대포를 쏘고, 덮개에 칼 송곳을 꽂아 일본군이 뛰어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은 거북선이 만들어 지게 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 것이다.

이순신은 일본 군선의 크기와 전술을 고려하여 거북선을 창안해 냈다. 그는 거북선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판옥선보다 선체를 작게 만들고 노젓기에 불편하지 않는 한도까지 배현측면을 낮추어 그곳으로 돌입하는 왜적과 누각에서 뛰어내리는 왜적에 대비하는 선형체제를 갖추었다. 그 방법은 거북선 덮개에 빈틈없이 송곳칼을 꽂은 후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초나 거적으로 위장한 것이다.

거북선은 1592년 2월 9일 선체가 완성되었다.³²⁰⁾ 이순신은 거북선 건조가 완료되자 그것을 바다에 띄워 함포사격 시험을 하기 시작했다.³²¹⁾ 거듭된 타당성 시험을 마친 거북선이 실전에 투입된 것은 1592년 5월 29일 당포해전이다. 이순신은 승전보고서에서 거북선의 선형과 활약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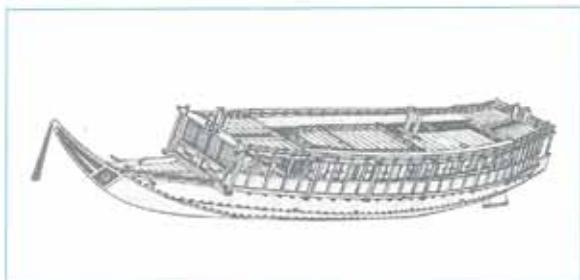
318) 『이충무공 전서』권3 장계 「韓隊上倭事狀」

319) 『이충무공 전서』권2 도설

320) 『이충무공 전서』상, 「난중일기」, 1592년 2월 8일, ‘이 날 거북선에 철돛배 29필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는 선체가 원로되어 뒷에 범만 달면 운행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321) 위와 같은 책, 1592년 2월 27일, 동년 4월 12일

“거북선 앞에는 용
머리를 붙여달아 그
입에서 대포를 쏘게
하고, 등에는 송곳칼
을 꽂았습니다. 또 안
에서는 박을 볼 수 있
지만 밖에서는 안을



▲ 왜구의 악탈선

볼 수 없게 만들어 비록 적선 수백 척이라도 쉽게 돌입하여 대포를 쏠 수 있습니
다. 이번 출전에는 돌격장이 거북선을 타고 나왔습니다. 먼저 거북선을 적선이
있는 곳으로 돌진시켜 천·지·현·황 여러 종류의 대포를 발사하자, 산 위, 언
덕 아래, 배 등지에서 왜놈들이 철환을 비 오듯이 쏘아댔습니다. (중략) 먼저 거
북선을 누각선(일본장수가 탄 지휘선) 아래로 곧바로 다가가 용의 입으로 현자
철환을 치쏘게 하고, 천자, 지자 포와 대장군전을 발사하여 누각선을 침몰시키
자, 거북선을 뒤따르던 판옥선에서도 철환과 화살을 번갈아 쏘았습니다.”³²²⁾

322) 『이충무공 전서』 권3 장
계, 「南陳上陸事狀」.

위 기록의 전반부는 당포항내 전투 기록이며, 후반부는 외양(外洋)의 전투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이순신은 내항이나 외항을 구분하지 않고 거북선을
돌격선(突擊船)으로 운용하여 해전 승리를 이룩했다. 해전에서 승리한 이순
신은 거북선의 전술능력을 다음과 같이 격찬했다.

323) 위와 같은
“거북선이 먼저 돌진하고 판옥선이 뒤따라 공격하게 함으로써, 적은 사기가
꺾여 물에 빠져 죽기 바쁘니 이것이 해전의 쉬운 점입니다.”³²³⁾

이순신은 일본 선단의 서진(西進)을 차단하기 위해 예상되는 해역에 군선
을 배치했다. 그리고 적 선단이 근접하기를 기다렸다. 되도록 우리 화포의 사
정거리까지 적을 유인했다. 적이 판옥선에 접근하여 백병전을 벌이기 직전
거북선을 적 선단 안으로 돌진시켜 적의 지휘통신을 무력화시켰다.

우리 선단 선두에서 적 선단으로 돌입해 들어가는 돌격선(突擊船)은 적의
집중공격에도 생존력이 보장되어야 했다. 그러한 위험에서 생존능력을 갖춘
군선이 또한 거북선이다. 거북선이 적 지휘선을 무력화시키면 그 다음 화력
이 우세한 판옥선이 적 선단으로 접근하면서 대포를 발사하여 적을 무력화시
키는 것이 이순신의 복안이었다. 이순신은 1592년 한 해 동안 4차 출전하여

10회의 해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군선의 전투능력은 외형보다 내부구조에 있다. 그것은 아무리 훈련된 병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내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북선의 내부구조는 승조원의 전투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아쉽게도 거북선에 관한 수많은 연구 성과는 거북선 찬미에 중점을 두었을 뿐, 해전승리를 이룩한 거북선의 내부 구조를 논리적으로 밝힌 연구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거북선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학설은 본체와 상장으로 나뉘는 2층 구조설이다.³²⁴⁾ 거북선의 2층 구조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거북선의 외형도면과 외형을 설명한 설명문이다.³²⁵⁾ 학계의 학설대로 거북선이 2층 구조였다면 임진왜란 동안 많은 해전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북선은 돌격선임으로 적진을 종횡으로 출입하여 적의 전열을 무너트리는 것이 주 임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화포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거북선은 군선임으로 운영요원만 필요로 하는 일반선박과 달리 노군, 사수, 포수 등 운영요원과 전투요원을 함께 승선시켜야 한다. 해전이 진행될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각자 고유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만일 거북선이 기존의 학설대로 2층 구조라고 한다면 주갑판 한 장소에서 노를 젓고, 활과 포를 쏘는 전투 3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2층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2층 구조에서 포를 쏘기 위해서는 젓고 있던 노를 뽑아낸 후, 노창을 닫고, 동차에 실린 총통을 방패 쪽으로 옮겨 고각과 거리를 조준한 다음 포를 움직이지 않도록 매어 고정시킨 후, 심지에 불을 붙여 탄환을 발사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 시간은, 적선이 우리 군선으로 접근하여 조총이나 활로 공격한 후, 도끼로 선체를 부수고 선내로 돌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2층 구조의 거북선으로서는 전투 3행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즉 동일한 갑판 상에서는 노를 저으며 포를 쏠 수 없고, 포를 쏘면서 노와 활을 사용할 방법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의 활약상과 배치되는 것이

324) 김재근, 「임진왜란 중 조·중·일 군선의 특성」,『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1993, 237~244쪽.

325) 「이충무공 전서」, 권수 도설 구선

며, 임진왜란 때 2층 구조의 거북선을 출전시켰다면 승리가 아니라 패전만 거듭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거북선을 민족의 위대한 유산으로 찬양했으면서도 정작 거북선의 활약상을 뒷받침해줄 내부 구조를 간과함으로써, 거북선이 군선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구조 마저 밝혀내지 못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실전에서 전투 3행위를 순조롭게 행함으로써 “거북선 제도는 승첩에 더욱 긴요하다”³²⁶⁾는 평가를 받았다.

326) 「선조실록」선조 28년

10월 丙寅

『증보문현비고』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록이 있다. 1740년(영조 16) 전운상(田雲祥)이 해골선을 새로 만든 후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온 전선은 모두 3층입니다”라고 왕에게 보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선이란 전투를 목적으로 사용된 군선의 총칭이다. 거북선도 전투를 목적으로 제작된 군선(전선)의 일종임으로 3층 구조였음이 분명하다. 판옥선과 거북선의 구조가 다른 점은 판옥선의 옥상이 개방되었다면 거북선의 옥상은 덮개로 덮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판옥선의 3층, 즉 옥상에 배치되었던 포군과 신호수가 적의 조총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돌입해 온 일본군에 의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순신은 거북선의 옥상을 판자로 덮고, 그 위에 송곳칼을 꽂아 적의 돌입을 저지하고, 조총으로부터 우리 승조원의 안전을 도모했다.

이와 같이 거북선은 판옥선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순신이 창안한 거북선은 승조원의 전술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층 구조를 하고 있었다.

(1) 본체 : 군량 · 무기 · 항해기구 창고와 침실

전시상황에서 수군은 선상생활을 원칙으로 한다. 출항 전 수군은 선상생활에 필요한 군량과 식수, 각종 항해 장비, 전투에 필요한 화포, 활과 화살, 탄환과 화약 등을 선내 창고에 싣는다.

또 대부분의 군졸(노군과 포수)은 선 내 침실이 정해져 있어 전투와 항해를 제외한 시간에는 침실에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수군의 선내 침실과 창고는 본체 선체를 격실로 막아 사용한 곳이다.

(2) 주갑판 : 노군과 사수

신방 혹은 패란 내에 설치된 갑판은 노군과 사수의 활동장소이다. 선내 중앙부에 위치한 갑판의 외부는 방패 역할을 하는 여장으로 둘러져 있어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 평시에는 선장과 군관들의 침실, 선내 식당으로 사용되다가 전투 시에는 노군과 사수가 전투하는 곳이다. 노군과 사수들은 방패위에 설치된 궁창으로 적의 기동을 관찰하면서 노를 짓고, 활을 쏘는 곳이다.

(3) 상갑판과 개판 : 포수와 신호수

조선의 군선이 3층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은 갑판 위에 상갑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거북선의 상갑판은 개판으로 덮여있다. 상갑판은 각종 총통(대포)을 쏘기 위해 포수가 위치하는 곳이다. 거북선 덮개 좌우에는 각각 대포를 쏘기 위한 대포구멍 6개가 있다.

거북선의 대포가 3층인 상갑판에 위치했다는 것은 판옥선의 장점, 즉 높은 곳에서 아래로 화포를 발사하여 사정거리를 멀게 하고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이순신의 지혜였으며, 좁은 공간에 전투인원을 적절히 분산하여 전투효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기도 했다. 동시에 포 요원의 안전을 위해 상갑판 위에 덮개를 써웠다.

문제는 대포를 쓸 때 화염과 소음이 발생한다. 또한 발사된 탄환과 장군전의 명중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덮개를 완전히 밀폐하지 않았다. 즉 범주를 늘리고 세우는 통로를 개방해 놓음으로써 대포 발사 때 분출되는 화염과 소음을 배출하는 굴뚝의 역할을 하게 했으며, 선단기동 시 각종 신호를 받고 보내는 신호수가 이곳을 이용하게 했다. 그리고 개판 좌우에 각각 창문 2개식을 설치해 대포의 조준과 명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거북선이 창제되었을 때만해도 거북선은 동북아시아의 최신예 군선이었다. 불과 3척밖에 되지 않은 거북선의 활약은³²⁷⁾ 전라좌수영 소속 수군의 해전승리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거북선을 밤낮으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³²⁸⁾

이런 여론과 달리 거북선 건조에 책임을 맡았던 나대용은 거북선을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았다. 나대용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27) 최명희, 「구본과『군사』, 3, 3~19쪽」.

328) 『선조실록』선조 28년 10월 丙寅.



“거북선이 전투에 사용하기는 좋지만 사수와 격군(노군)의 수가 판옥선의 125명과 비슷하고, 활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각 영(수영)에 1척만 배치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신이 항상 격군의 수를 줄일 방도를 생각하다가 1599년에 군선건조를 담당할 때 판옥선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닌 다른 모형의 배를 만들었는데, 칼과 창을 빼빼이 꽂았음으로 이름을 창선이라 하였습니다. 격군 42명을 태우고 바다로 나가 노를 젓게 했더니 빠르기가 나는 듯 하였고 활쏘기 편리함도 판옥선보다 나았습니다.”³²⁹⁾

329) 「선조실록」선조 30년 12월 戊午.

거북선을 많이 만들어 실전에 배치하자는 여론과 달리, 군선 건조 실무책임자인 나대용이 거북선의 추가 건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거북선과 다른 모양의 군선인 창선(槍船)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거북선 선체의 대형화이다. 임진왜란 때 해양방위를 담당한 조선 수군의 선종은 판옥선, 거북선, 사후선(협선) 3종이었다. 그것은 전쟁국면의 다양성에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투력 평가에서 지상전과 달리 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조선의 군선이 일본 군선에 비해 선체가 견고하고 장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³³⁰⁾

330) 「선조실록」선조 33년 1월 甲戌.

전란 후 수군통제사에 취임한 이운룡이 임진, 정유, 무술년 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모두 ‘조선의 군선이 판옥선처럼 대형군선이었기 때문이다’³³¹⁾라고 한 발언은 거북선의 선체가 판옥선과 같은 크기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북선의 격군수가 판옥선과 같은 125명에 이르렀다는 나대용의 지적이나, 영조 때 영남 군세사 박문수가 “임란 때 거북선의 총혈(銃穴 : 대포 쏘는 구멍)이 좌우 6개였는데, 지금은 8개로 종전에 비해 선체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은 모두 거북선이 건조 때마다 조금씩 커져 더 이상 돌격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둘째, 거북선의 전술적 단점이다. 나대용은 거북선이 전투할 때 활쏘기가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적선 파괴용으로 사용한 무기는 총통이었다.

총통은 적선을 격침할 정도로 위력적 파괴력을 갖고 있었지만 포 자체의 둔중한 무게와 낮은 명중률로 인해 화전(火箭 : 불화살)이 주로 사용되었다. 충무공의 장계에 의하면 일본군선의 소침(燒沈 : 불화살로 적선을 태워 격침

시킴)은 대부분 화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돌격장이 타고나온 거북선이 일본 누각선(충각선) 밑으로 돌진하여 대포(총통)를 치쏘아 격침시키고, 여러 판옥선이 화전으로 일본 군선의 비단 장막과 둑을 쏘아 맞하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 누각선이 침몰했다.”³³²⁾

332) 『이충무공전서』권2, 장계 「당포마왜병장」

위 기록은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첫 출전한 거북선의 실전상황을 보고한 내용이다. 특이한 내용은 거북선이 주로 대포를 사용한 반면, 우수한 화력을 보유한 판옥선은 화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나대용의 고백처럼 거북선은 화전(불화살) 사용이 불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당시 일본군선은 목선이었으며 각양각색의 휘장을 두르고 있어 대포보다 화전이 적선을 격침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생사를 가름 하는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거북선이 화전이라는 장기를 사용치 않고, 차장기(次長技)인 대포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거북선의 구조가 활쏘기에 불편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군선의 대형화 추세는 여론과 더불어 총통이 단발에서 연발체제로 전환되는 불랑기(佛狼機)가 해전무기로 도입되면서 나대용의 돌격선 지지론을 압도하였다. 그것이 바로 거북선이 제작될 때마다 선체가 조금씩 커져 영, 정조 때는 이미 판옥선과 동일해졌다.

그 결과 거북선이 판옥선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조선 수군에는 돌격선 임무를 수행할 다른 선형의 군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창선이라는 새로운 선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거북선은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승전전략에서 탄생된 군선이다. 거북선은 1592년 제2차 출전 때부터 참전하여 돌격선의 임무를 수행했다. 적진으로 돌진하여 적의 전열을 혼란시키고 적 지휘선을 먼저 격침시킴으로써 적의 지휘 통신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이순신은 해전에 승리하여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전쟁국면을 호전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마침내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승리할 수 있게 하였다.



▲ 사충사 유허비(여천동)



▲ 오충사(옹천동 종촌마을)

333) 「湖海節義錄」, 卷3에 李忠武同殉爭堵公, 144명의 積勇을 수록하고 있는데, 출신 을별(邑別)을 보면 충양 33인, 순천(여수) 18인, 나주 14인, 장흥 11인, 화성 11인, 무안 10인, 보성 7인, 영광 7인으로 되어 있어 충양과 순천(여수) 지역에 거장 많은 인물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4) 「李忠武公全書」, 卷3 「分送義理守費害狀」, 趙漢來, 「壬辰倭亂과 韓國地方의 異端抗爭」, 아세아 문화사, 2001, 276~296쪽 참조.

335) 전라좌수군은 1592년 5월 4일 여수 본영으로부터 출발하여 육로 해전에서 일본수군을 대파하는 전 과를 펼친 후 5월 9일 여수 본영으로 돌아와 군비를 재정비한 뒤 5월 29일 2차 출진을 하여 6월 10일까지 사천·당포·당량포·울호의 배전에서 연이은 승리를 하였다.

3. 의병 활동과 충절

1) 응천지역 정씨 일가의 의병 활동

송 은 일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연구원)

임진왜란 초기해전에서 이순신 휘하의 전라좌수군은 일본 수군을 물리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수군의 제해권 장악을 가능케 하였다. 전라좌수군이 이러한 전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조건과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전라좌수영을 중심으로 일어난 해상의병의 활약에 힘입은 바 컸었다.

이는 이순신 휘하에 참전하였던 수군지도층 인사들의 대부분이 이 지역 출신의 해상의병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³³³⁾ 당시 해상의병들은 육상의 관군과 협력하여 주요지역을 지키기도 하고, 혹은 군량을 조달하기도 하거나, 혹은 직접 해전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³³⁴⁾

이들 중에 특히 현 여수시 응천동 송현마을(옛 고읍천)에 집성촌을 이룬 창원정씨 일가의 의병활동은 주목받아야 마땅한데, 정철(丁哲)과 린(麟) 형제 그리고 린의 아들 언신(彦愼) 및 정철의 종제 춘(春), 조카 대수(大水)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행적과 임진왜란 시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철은 1585년(선조 18)에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을 지낸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우들과 조카 그리고 가동(家童)들을 이끌고 이순신의 휘하로 들어갔다.

그는 전라좌수군의 2차 출전시 당항포전투에서 우위장(右衛將)의 임무를 부여받고 정운·송희립 등과 함께 큰 전공을 올렸다.³³⁵⁾ 이순신은 이러한 정철의 전공을 곧 조정에 알렸으며,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인정하여 초계군수(草溪郡守)에 임명하였다.

1593년(선조 26) 이순신은 정철을 별장(別將)으로 삼았는데, 이 때 순천부사 김언공(金彦恭)과 함께 제석당산성(帝釋堂山城) 전투에서 거듭 전공을 세웠다.³³⁶⁾ 이후 1595년(선조 28) 이순신 막하(幕下)의 전후장(殿後將)이 되어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과 대치하다가 그들의 공격을 받아 전사를 하였다.³³⁸⁾

정철은 전사 후 그 공을 인정받아 선무원종훈일등(宣武原從勳一等)에 책록(冊錄)되었으며,³³⁸⁾ 이후 1862년(철종 13)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었고, 1866년(고종 3)에 다시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³³⁹⁾

정린은 1588년(선조 21)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部將)으로 출사(出仕)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활동을 시작하여 당항포전투와 진주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그 공으로 영장(營將)에 임명되었다.

1595년(선조 28) 부산포 앞바다에서 적과 대치하다 형 정철이 전사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적중에 뛰어들어 온힘을 다해 싸우다 그 후유증으로 순의(殉義)하고 말았다. 정린은 순의 후 그 공을 인정받아 선무원종훈일등에 책록되었으며, 이후 다시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³⁴⁰⁾

정춘은 1588년(선조 21)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휘하로 들어가 유격장이 되어 당항포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워 성주판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이순신의 조방장이 되었으며, 1594년(선조 27)에 옥포 앞바다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전사 후 그의 공이 인정되어 선무원종훈일등에 책록되었으며,³⁴¹⁾ 이후 1862년(철종 13)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었고, 1866년(고종 3)에 다시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³⁴²⁾

정대수는 1588년(선조 21)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部將)으로 출사하였다. 임진왜란 초 이순신의 휘하에서 조방장(助防將)의 임무를 맡았으며, 당항포전투에서 그의 계책으로 전라좌수군이 큰 전과를 올렸다. 1593년(선조 26)에는 순초장(巡哨將)이 되어 명량 앞바다에서 전투 중에 큰 부상을 당했으나 그의 공로로 아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 노량해전에서 전투 중에 포탄을 맞아 부상을 입고 현 여수시 웅천동의 본가로 돌아와 치료를 받던 중 순의하고 말았다. 정대수는 순의 후 그 공로가 인정되어 선무원종훈일등에 책록되었으며³⁴³⁾ 이후 다시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³⁴⁴⁾

정언신은 1572년(선조 5)에 정린의 장자로 태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 정린을 도와 의병을 일으켰으며, 이후 이순신의 휘하에 들어갔다. 1595년(선조 28) 부산포 앞바다에서 적과 대치하다 큰아버지 정철이 전사한 후 그의 아버지 정린마저 순의(殉義)하자 적중에 뛰어들어 적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정언신은 전사 후 선무원종훈일등에 책록되었으며, 이후 다시 병조

338) 「五步祠誌」의 「萬陽公事蹟」이나 「昌原丁氏 文獻公道錄」에 의하면 정철이 순천부사·金泰恭 함께 萍釋堂山城에서 전공을 세웠다는 시기는 선조 28년(1593)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김언공이 천리도 조방장으로 명주에서 왜적을 토벌한 이후 호남을 신 400인을 거느리고 진주 제석당산성으로 거쳐 주둔했던 시기는 선조 30년(1597) 즉 정유재란 0) 발발한 해였다.『諸朝節義錄』 卷3 忠武李公舜臣同兩道公事實 金泰恭。그러므로 정철이 김언공과 함께 제석당산성에서 전공을 세웠다는 시기는 선조 30년(1597)경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萬陽水市·社廟志』 어수자역 사회연구소,『李忠武公과 어수 王忠烈』, 2006, 43쪽。

339) 「五步祠誌」의 「萬陽公事蹟」이나 「昌原丁氏 文獻公道錄」에 의하면 정철이 전시한 시기는 선조 28년(1593)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萬陽中日記」의 의하면 1596년 5월 27일 정철이 서울로부터 정계회관을 가지고 전으로 갔다고 하며 이어 1597년 4월 24일 이순신이 백마증군하면서 순천부에 도착하기 이전 남원에서 정철 등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忠武王公全集』 卷6 亂世日記 2, 5월 27일; 卷8 亂中日記 4, 4월 24일. 이러한 기록을 통해 봄 때 정철은 이 시기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철이 전시한 시기는 아마 1597년의 명량해전이 아니면 1596년의 노량해전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정철과 같은 시기에 순의하였던 정철의 아우 정린과 정린의 아들 언신의 순의 시기도 정철의 전사 시기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萬陽水市·社廟志』 43쪽.



- 國史人 여수지역사회연구
소 같은 책 44쪽)
- 338) 「宣武原從功臣錄卷」(宣
祖 38년 刊) 李 古4651-
13; 丁相忠 編, 「高麗
公事蹟」, 「五忠祠記」,
1977; 「通志節義錄」 卷3
忠孝李公齊臣同列諸公
事實 丁哲, 「昌原丁氏
文簡公追謚」, 1974.
- 339) 「通政大夫行草庚都守贈
資憲大夫兵曹判書訓練
院事忠肅丁公神道碑銘
并書」(1959년 9월, 瑞興
金重大 撰)
- 340) 丁相忠 編, 「忠肅公祠記」,
임의 죽 「昌原丁氏 文簡
公追謚」, 1974 「五忠祠記」,
「忠肅公祠記」이나 「昌原丁
氏 文簡公追謚」의 當年조
에 1826년 그가 부친후에
서 순의한 후 그 글로를
인증받아 선무원증임등에
책록되었던 것으로 기록
되어 있으나 「宣武原從功
臣錄卷」에 1826년 정연은
2등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수 있는데 「昌原丁氏
文簡公事蹟」, 「忠肅
公事蹟」, 「昌原
丁氏 文簡公追謚」, 1974.
에는 정연은 2등에 등재되어
있음은 확인할수 있다. 「昌原丁氏
文簡公事蹟」, 「忠肅
公事蹟」, 「昌原
丁氏 文簡公追謚」, 1974.
에는 정연은 2등에 등재되어
있음은 확인할수 있다.
- 341) 「宣武原從功臣錄卷」(宣
祖 38년 刊) 李 古4651-
~13; 丁相忠 編, 「忠肅
公事蹟」, 임의 죽 「昌原
丁氏 文簡公追謚」, 1974.
- 342) 「通政大夫行草判官贈資憲
大夫兵曹判書訓練院事忠
肅丁公神道碑銘并書」(1971
년 瑞興) 丁相忠 編
- 343) 「宣武原從功臣錄卷」(宣
祖 38년 刊) 李 古4651-
13; 丁相忠 編, 「忠肅
公事蹟」, 임의 죽 「昌原
丁氏 文簡公追謚」, 1974.
- 344) 「昌原丁氏 文簡公追謚」,
1974.

참판으로 추증되었다.³⁴⁵⁾

이와 같이 정철·정린·정춘·정대수·정언신 등 창원 정씨 일가는 이순신 휘하에 자원 출전하여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많은 의병활동이 있었지만 일가 대부분의 인물들이 자원 출전하여 전공을 세웠던 것은 물론이고 모두 전사·순의하였던 예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가히 이들의 충절이 이순신의 그것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정철 일가는 이순신 일가 친족들과 각별한 인연을 지니고 있다. 다른 아닌 임진왜란 당시 정철 일가의 집성촌이었던 현 여수시 웅천동 송현마을에서 이순신의 어머니인 초계 변씨(草溪卞氏)와 일가 친족들이 피란생활을 했던 것이 그것이다.

이순신의 부인 상주 방씨(尚州方氏)는 충청도 아산과 웅천동 송현마을을 오가며 이곳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고 하며, 아들 회(蕃) 율(蔚) 면(勉) 3형제와 조카 완(莞), 봉(峯), 분(芬), 해(亥) 등도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이때 이들의 피란생활을 도와주었던 인물들이 바로 정철과 그의 일가들이었다.³⁴⁶⁾

이를 보면 정철과 그의 일가들이 이순신과 특별한 사이였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며, 이순신이 전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일가의 피란생활이 보장되었던 토대 위에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수시 웅천동에는 정철 등을 충절을 기리기 위한 사우(祠宇)인 오충사(五忠祠)가 건립되어 있다. 이 오충사의 연원은 1826년(순조 26)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성균관 유생과 순천향교(여수) 유림들이³⁴⁷⁾ 정철 등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사우건립 여론이 형성되면서 건립에 대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1847년(현종 13)에 이 지역 사람의 주도로 마침내 정철·정린·정춘·정대수 등의 4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사충사(가곡원)가 건립되었다.³⁴⁸⁾ 그러나 1868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이 사우는 20여년 만에 철폐되고 말았다.

한편 1856년(철종 7) 정대수의 8세손인 정재선(丁載璿)이 조상들의 사적이 문힐까 우려하여 당시 우의정이었던 조두순(趙斗淳)에게 부탁하여 「정씨사충전(丁氏四忠傳)」을 찬술케 하였다. 1861년(철종 12)에는 정재선 자신이 직접 「정씨사충실기(丁氏四忠實記)」를 편찬하였으며,³⁴⁹⁾ 사충사가 철폐된 이후 1869년(고종 6) 후손들에 의해 사충사 유허비(四忠祠遺墟碑)가 세워지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하여 1927년에는 정철 등의 후손들과 이순신의 후손

들이 합의하에 현 여수시 웅천동에 오충사를 건립하고 이순신을 주향으로 정씨 일가의 사충을 좌·우에 배향하였다. 1976년에 한차례 중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듬해 『오충사지(五忠祠誌)』가 편찬되었다.³⁵⁰⁾

창원황씨 문중의 의병활동

창원 황씨 문중에도 이 총무공과 함께 전공을 세우고 순국한 황득중(黃得中)과 황상중(黃祥中) 장군이 있었다. 1556년(명종 11) 소라면 장전에서 태어난 황득중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장군의 막하 조방장이 되어 옥포해전, 당항포해전, 한산도해전, 부산포해전, 명량해전 등에서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1598년 7월 19일 절이도(현재 거금도)해전에서 왜선 50척을 격파하는 승첩을 거두는데 공을 세웠지만 왜적의 화전에 맞아 순국하였다. 이순신 통제사는 몹시 슬퍼하며 황득중 장군 시신을 수습하게 하여 좌수영 구봉산 남쪽에 장례를 치르고 직접 제문을 지었다.

황상중은 1570년(선조 3)에 태어나 1588년(선조 21)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좌수영 군관으로 참전해 옥포, 당항포, 한산도, 부산포 해전에서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칠천량해전에서 패한 후 이순신 장군 휘하로 들어가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나, 1598년 퇴각하는 일본군 부대를 섬멸시키고자 왜교성 신성포구 선착장 교량을 끊기 위해 야음에 기습공격을 감행하다 왜적의 총탄에 맞아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다.

2) 의승수군(義僧水軍)의 활동

양 은 용(원광대학교 교수)

(1) 임진왜란의 발발과 의승수군 조직

전라좌수영 산하에서는 의병 가운데도 승려의병인 의승군, 그것도 의승수군이 조직되어 관군의 지휘를 받으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의승수군이 창설된 것은 임진년인 1592년 8,9월이다. 전라좌수사인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은 경상도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이 도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요해처에 방수군(防守軍)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의

345) 『宣武原從功臣錄卷』에는 정언신의 동재 사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濟南府志』에 의하면 정언신이 아버지 헌과 함께 군관을 세워 나란히 선무·원종훈에 헌록되었다. 『濟南府志』, 卷3, 忠武李公算在同作贈公事實 金源恭丁君는 기록이 보이고 있고 『昌寧丁氏 文獻公源則』에서도 선무원종공신 일등에 책록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 기록을 보대로 본문을 서술하였다.

346) 蕭水市·社團法人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일의 책, 5쪽 및 19쪽. 이순신의 어머니와 일가 친척들이 정씨 일가의 징성촌이었던 현 여수시 웅천동 송현마을에서 피란생활을 했던 상황들은 그의 장계와 『脈中日記』의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347) 당시 여수는 순천부 소속이었으므로 순천향교 유령이란 여수의 유령을 포함한 것이다.

348) 정씨 일가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사충사를 건립하였는데, 이 때 민진왜란 당시 그 공이 참절 등 의 四忠에 뛰어지지 않았던 정린의 妻子 정언신이 여기에 모혈되자 입었다는 것이 궁금하다.

349) 蕭水市·社團法人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밀의 책, 19쪽, 주 3) 참조.

350) 이성은 蕭水市·社團法人,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같은 책, 19~20쪽을 참조하였음.

병을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관내의 각 고을에 요청한 결과 승속(僧俗) 간에 많은 호응이 있었고, 이들이 유림장의군인 의병과 승려장의군인 의승수 군으로 조직된 것이다. 그 정황이 이순신의 「의승(義僧)」을 갈라 보내 요해처를 파수하게 하는 장계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료1〉 “영남에 진 치고 있는 적들이 본도를 침범코자하여 수륙으로 옛보고 있으니 신은 비록 해전을 담당하였으나 육전 방비에도 마음을 늦출 수 없습니다. … 작년 8,9월 사이에 근처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어 여러 절에 숨어 있는 승려들과 병적에 들지 않고 노는 자를 모두 적발하여 석주·도탄·두치 등지에 나누어 파수보도록 신칙하였더니, 승려들이 소문을 듣고 즐거이 모여 들어 한 달 이내에 4백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도 용맹과 지략을 가진 자들로 순천 사는 중 삼해(三惠)는 표호별도장, 흥양(고흥) 사는 중 의능(義能)은 유격별도장, 광양 사는 중 성휘(性輝)는 우돌격장, 광주 사는 중 산해(信海)는 좌돌격장, 곡성 사는 중 지원(智元)은 양병용격장으로 장하고, 또 구례 사는 진사 방쳐인, 광양 사는 한량 강희열, 순천 사는 보인 성옹지 등이 강개하고 의기로 분발하여 시끌 사람들을 모아 각각 의병을 일으켰으므로 방처인을 도탄으로, 강희열과 중 성휘 등을 두치로, 산해는 석주로, 지원은 운봉 팔양재로 가서 요해처를 파수케 하여 관군과 함께 합력하여 사변에 대비할 것을 전령했고, 성옹지에게는 전적으로 순천성 수비하는 책임을 맡기고, 중 삼해는 순천에, 중 의능은 본영에 각각 머물며 방비하고 있다가 적 형세의 경증을 보아서 육전이 중대하거든 육전으로 가고 해전이 중대하거든 해전으로 가라는 뜻을 약속하였사오나, 물길을 차단하고 도망하는 적의 큰 부대를 섬멸하자면 병력이 외롭고 약해서는 안될 것이라. 소속 해군력을 넉넉히 정돈해야 하겠기로 의병장 성옹지, 승장 삼해·의능 등에게는 전선을 나누어 주어 수선하여 갈라 타고 바다로 나가도록 모두 명령하였습니다.”³⁵¹⁾

351) 『忠武公全書』 권3, 分述
義僧屯守要略狀

이에 의하면 이순신의 지휘력은 도내에 충분히 미치고 있었고, 그의 창의규합에 호응하여 「승려들이 소문을 듣고 즐거이 모여 들어 한 달 이내에 4백명」에 이르렀다. 이를 전라좌수영이 수행하는 전투임무를 고려하여 의승 수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관군인 이순신의 지휘를 받아 편성한 다음 평시에는 요새지 수방임무, 그리고 전시에는 육해양전(陸海兩戰)의 전투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편성된 전라좌수영의 의승 수군은 청허휴정(淸虛休靜, 西山大師, 1520~1604)을 정점으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의승군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즉 범국가적 조직은 4월 13일 일본군의 침범에 의해 왜란이 일어난 후 어가를 의주로 옮긴 후인 6월 22일, 의승장 기허영규(騎虛靈圭, ?~1592)의 전승 소식을 들은 선조가 묘향산에 있던 청허휴정에게 창의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진 전국조직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독립적인 형태였다.

우선 〈사료 1〉에 의해 임진왜란 당시에 조직된 전라좌수영 의승 수군의 최초의 형태를 도시해 보면 〈표1〉과 같다. 이들은 의병이기 때문에 군사활동이 어려운 겨울철을 지내고 이듬해에 다시 결성하고 있는데, 이에 주진사(駐鎮寺) 즉 승군이 수행승단의 체계를 간직한 채로 머물던 사찰을 표시해 보면,³⁵²⁾ 그 활동영역이 전라좌수영의 관할구역인 순천부·보성군·낙안현·홍양현·광양현을 넘어 전라좌도의 전역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경상우도로부터 넘어오는 일본군을 방어하기 위해 경상·전라의 요해지에 그 병력을 배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1〉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 조직

승 장	출신지	직 함	임 무	재 鎮 寺	비 고
三 惠	순 천	豹虎別諸將	順天守防	송광사	수륙양전
義 能	흥 양	遊擊別諸將	本營守防	흥국사	수륙양전
性 輝	광 양	右突擊將	頑恥守防	옥룡사?	광양 두치
信 海	광 주	左突擊將	右柱守防	화엄사	구례 석주관
智 元	곡 성	揚兵勇擊將	雲峰守防	실상사?	남원 팔량치

승군의 지휘자에게 주어진 직함에 유의해 보면, 도장(都將)과 격장(擊將)이라는 칭호의 차이가 보인다. 도장은 최고지휘관인 승군대장(僧軍大將)으로 나중의 조정사직(朝廷賜職)은 [팔도도총섭 겸 승대장(八道都總攝兼僧大將)]이며, 별장은 막하의 지대장인 승장으로 조정사직은 [도승통 겸 승대장(都僧統兼僧大將)]이다.

이렇게 보면 좌수영 관내의 의승수군 편제상에는 승군대장이 둘이 되지만, 서열이 높은 삼혜승장이 순천에 위치한데 대하여, 아래인 의승승장이 본영에 위치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의승이 좌수영의 직할이라면 삼혜는 순천에 위치한 야전부대와 함께 기타의 각 지역대를 통어했음을 뜻한다. 삼혜승장의 관할지역은 운봉(남원)-석주(구례)-두치(광양)를 연결하고 있고, 유림의병을 그 중간의 요새지인 도탄(구

352) 여수 留芻山開國寺에 의승군 관련 기록과 유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순천 舊演山社漢寺에 위치한 승장 慶雲의 부도가 구례 智眞山華嚴寺와 남원 智眞山實相寺에도 남아 있고, 승군들이 칭간현 진주 紿南山北廣寺의 범종에 광주 無秀山塔心院 승려들의 기록이 나타나는 등 유물·자료를 통해 당시의 정황을 엿볼 수 있다(양은용, 「임진왜란과 奧님의 불교의승군」,『한국종교』 19,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4, 1월; 양은용, 「임진왜란 이후 불교의승군의 동향—진주 승당사의 개창비 및 신종 碑記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 4,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03, 127쪽).



례) 등에 파견함으로써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광역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순신의 표현에 따르면 육로를 내주면서 해전에 승리할 수 없다는 뜻을 승군들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좌수영 관내 출신들인 의승수군은 통일된 체계 아래 관리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행동면에서나 전선의 노꾼으로 적격이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정과 조류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귀의를 받고 있는 것은 전황이나 적 정동태를 파악하는 등 작전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승군의 임무는 접적(接敵) 전후에는 수성(守城) 경계가 중심이지만, 전투가 벌어지면 주로 죽음을 잊고 아군의 선봉에 선 돌격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표1>의 승장직함에도 나타나는 바이지만 이순신의 직접적인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사료2〉 [전년(1592) 순천의 승장 삼혜, 홍양의 승장 의능 등이 연해안 각 고을에서 우수한 수군승을 많이 모집하였는데, 자원에 의하여 해군에 소속시켜 모두 전선을 타고 적을 무찌르도록 하였던 바, 겨울철이 닥쳐와서 군량대기가 어려우므로 모두(소속사원에) 돌려보냈다가, 제 각지 봄이 오는 대로 제 기한에 오도록 하였습니다.] (1594.1)³⁵³⁾

353) 『충무공전서』권3, 朝選
備將領兵狀

〈사료3〉 [노꾼을 스스로 모집해온 의병장 순천 교생 성옹지와 의승 수인·의능 등이 이러한 난리 때에 자기 몸 편안히 할 것은 생각도 않고, 정의의 기개를 발휘하여 군병들을 모집하여 각각 300여명씩을 거느리고 나라의 수치를 씻으려 하니 참으로 가상한 일입니다. 해상에 전을 치고 2년 동안에 자기 스스로 군량을 준비하여 이곳저곳 나누어 공급하며 간신히 양식을 이어대는 그 고생스런 정황은 관군보다 곱절이나 더하온데 아직도 수고로움을 꺼리지 아니하고 더욱 더 부지런할 따름입니다. 일찍이 적을 토벌하였을 적에도 현저한 공로가 많았으며, 나라를 위한 분개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니 참으로 가상할 일입니다. 위에 성옹지와 승장 수인·의능 등은 조정에서 특별히 표창하여 뒤 사람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4.3.10)³⁵⁴⁾

354) 『충무공전서』권3, 詩賞
義兵頌狀

이를 통해 보면 두 승장이 승군 300명씩을 인솔하고 전투했으므로 의승수군이 많았을 때는 600명이었다. 운봉·석주 등 이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을 승군까지를 합하면 격전이 벌어질 때의 좌수영 산하 승군총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삼혜 등은 전선을 분급 받아 이순신의 명에 의해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임진왜란의 해전에서 의승수군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음을 뜻한다.

의승수군은 표현 그대로 자원병이며 군량을 자체 조달하였다. 전투임무는 충무공에게 하달받지만 승군들의 지휘는 승장이 함으로써 자체내에 엄격한 체계와 질서가 존재했다. 그 때문에 승장들은 다만 군사적인 지휘력 뿐만 아니라 수행력을 겸비한 고승대적이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승군들이 관군의 배를 넘어서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충무공의 효율적인 작전과 승장을 축으로 한 승군자체의 충실한 기강이 아울러졌기 때문으로 보아서 틀림없을 것이다. 호국(護國)을 최승호법(最勝護法)으로 볼 때 죽음은 의로운 것이며, 그와 같이 죽음을 초월한 수행승들의 돌격대 역할이 이순신 전사의 신화를 창출해 내는 커다란 요인이었음을 그가 써올린 장계가 확인해 주고 있다.

실제로 〈사료 3〉은 1594년 3월 10일에 승장 수인·의능 등에게 포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장계작성의 5일전에 있었던 당항포 해전(1594년 3월 3일)에서 왜장 와키자카(脇坂安治)군을 대파한 해전에 대한 공로로 파악된다.

전공이 컸다는 것은 의승 수군의 역할은 우선 전선의 노꾼이므로, 격장(擊將)인 의승장의 지휘를 받아 적선의 궤멸에 앞장서서 승전을 이끌었음을 뜻 한다.

이순신의 이러한 수군활동은 왜군에게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와키자카(脇坂安治)와 도도(藤堂高虎) 등에게 해전을 피하여 거제도 등의 섬들에 성을 쌓아 거기에서 조선수군에게 포격을 가할 것, 부산포에서 경상도 남안에 걸친 지대의 보급로를 유지할 것, 히데요시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선수군에게 싸움을 걸어서는 안될 것, 상대가 쫓아와도 깊게 쫓아서는 안될 것, 수군들의 휴양 등, 수군의 전략변경을 명령하지 않을 수 없었다.」³⁵⁵⁾는 전공의 효과를 가져왔다.

(2) 승장 자운삼혜와 옥형의능

전라좌수영 의승 수군의 조직은 어떻게 이끌어져 왔는가? 임진왜란 당시에 있어서 중심적인 축을 이룬 승장에 삼혜와 의능이 있다.

먼저 자운삼혜(慈雲三惠)는 최초의 조직 때에 도승장에 임명되었던 인물로



▲ 흥국사 의승수군유물전시관

355) 北島薰次, 「秀吉の朝鮮侵略」, 山川出版社, 2002, 45~46쪽.

356) 〈사료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승장으로 임명된 인물이 「상혜」인데, 〈사료 4〉에서는 이순신의 부장으로 진주 함성에 공을 세운 인물을 「자운」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자운승장」이라는 직첩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영축산총국사의 『韓堂集上稿文』(1633)에는 「基實羅正」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당시 인물로 보아서 무방할 것이다. (임은율, 「전라좌수영의 의승수군에 관한 연구」, 『全南文化財』, 3, 전라남도, 1990, 196쪽 참조)



▲ 충민사 (덕충동)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순천출신이며, 법명이 삼혜, 법호 혹은 당호가 윤눌(潤訥) 또는 원정(圓正)이며, 조정에서 내린 직첩이 자운대장이다.³⁵⁶⁾

주목되는 것은 그를 통한 당시 승군들의 존재 형태인데, 송광사에 그의 승려 4형제들에

〈사료4〉 「천은사 정대하스님이 쓴 『승문족보』의 서에 말하기를 “화엄대선 겸 선교판 윤눌은 임진왜구 때에 통제사 이순신의 부장이었다. 진주성 함락에 공훈을 세워 나라에서 자운대장의 직첩을 내리고, 좌수영 충무사에 모셔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다.”

윤눌의 친제인 대가희옥에게 나라에서 ‘팔도도승통 겸 남한도총섭’ 직을 정한 첨을 내렸으나, 대가가 이를 완강히 거절하여 만방으로 방면을 구한즉 관청의 대사가 산문에 이르러 상경을 독촉할 제, 대가와 벽암(각성)은 곧 부휴(선수)의 제자인데 대가가 기뻐하지 않으므로 부휴노스님이 대신 벽암을 보내도록 하였다. 대가의 친제에 둘이 있으니, 하나는 비능이며, 둘은 급암이다. 비능 또한 좋은 인연으로 담양의 금성승장이 되어 9년간 종사했다. 급암도 또한 입암승장으로 죽었다.³⁵⁷⁾

이렇게 보면 자운승장의 4형제가 모두 승장으로 활동한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그가 송광사에 주석한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의 제자이며, 아우인 희옥을 대신하여 발탁된 인물이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이었다. 희옥에게 도승통 직첩이 미리 내려진 것은 그의 의승 수군으로서 역할이 조정에 잘 알려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운삼혜는 임진왜란 후까지 살아 있었다. 이순신과의 각별한 관계 속에 전몰지인 노량에서 수륙재를 대설하고, 여수 충민사에서 성전을 베푸는 등 천도를 위해 진력하였다.

356) 한국학문원연구소 편, 『香溪山松溪寺史稿』, 이세아문화사, 1977, 563쪽.

〈사료5〉 [(이순신 사후) 호남의 사승으로 공을 위하여 설재(設齋, 수륙재)를 아니하는 곳이 없었다. 자운이라는 사람이 공의 진중에 따르며 항상 승대장이 되어 승군을 거느려서 자주 공을 세웠는데, 공이 죽은 후, 쌀 6백석을 가지고 노량(전몰지)에서 수륙재(水陸齋)를 크게 열고 또 충민사에 성전(盛奠)을 베풀었다.]³⁵⁸⁾



▲ 석천사 (덕종동)

358) 『忠武公全集』권9, 行錄.

여기에서는 홍국사의 선당불사에 참여하는 그의 행적이 보이는데, 이러한 그의 사후 조정에서는 「부종수교 전불심인 판선교사 우세승통 팔도도총섭 겸 대선사 기인보국 자운등계존자(扶宗樹敎傳佛心印判禪敎事祐世僧統八道都總攝兼大禪師起仁輔國慈雲登階尊者)」³⁵⁹⁾라는 긴 이름의 예조첩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석천사의 영정에는 「보국현응당대선사(輔國玄應堂大禪師)」³⁶⁰⁾로 나타난다. 그의 업적을 조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운삼혜와 짹을 이룬 승장에 옥형의능(玉炯義能)이 있다. 고흥 출신인 그는 법명이 의능, 법호는 기암(奇巖), 조정의 직첩이 옥형, 그리고 석천사의 영정에는 「기암당옥대사(奇巖堂玉大師)」로 나타난다. 그는 의승수군 조직 당시 승대장이 된 이래 주진사인 홍국사에 주석하며 좌수영의 이순신을 측근에서 보좌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사료 2〉 〈사료 3〉 등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역시 자운삼혜처럼 난후까지 생존해 있었다.

임진왜란을 겪은 당대 인물인 이수광(李暉光, 1563~1658)은 『지봉유설』(1614)에서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료6〉 [승평승 옥형이란 사람은 일찍이 통제사 이순신을 따라 노꾼으로 공이 있었다. 통제사가 죽자 충민사에 살면서 수십년간 스스로 제사를 갖추어 올렸는데 지금 80여세이다. 또한 해상에 경보가 있을 때면 통제사가 반드시 미리

359) 『求禮士』

360) 『二隱遺稿記』眞王 저
『홍국사』, 홍국사, 1989,
246쪽)

361) 「芝峰類說」 권 18. 外道郎
羅門

꿈에 보이는 것이 틀리지 않는다.] 361)

이렇게 옥형의 능은 이순신과 생사를 같이 하며 혼으로 통한 모습이 보이는 데, 지금의 석천사(石泉寺)는 옥형이 이순신을 받들기 위하여 충민사에 있다가 수행자로서 불편함 때문에 옆에 지은 절이다.

승장들은 승군이 있으므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수륙재를 지내는 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승군들을 중심으로 호남의 전 사찰승려가 이순신을 공경하며 따르고 있음이 드러난다.

362) 真玉 저, 알의 책 108쪽

오늘날 흥국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경판(經板) 가운데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1의 판목과 함께 이의 인본(印本) 300권이 전하고 있다.³⁶²⁾ 같은 경전 가운데 특히 권1만을 그렇게 많이 인출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은 강독(講讀)이 아니라 의식용임을 뜻한다.

후술할 바와
같이, 국법에
의해 조직된
의승수군의 수
가 그와 같으
므로 이들이
참여하는 의식
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 원
류에 임진왜란
당시 전몰한



▲ 묘법연화경

이순신을 추모하기 위한 수륙재가 있으므로, 이의 흐름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의승수군 조직의 상설화와 주진사 흥국사

이러한 의승수군은 임진왜란을 통한 전공에 힘입어 난 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그 상설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임진왜란을 통해 쌓은 공적 등이 조야와 좌수영 내외에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설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의승수군의 야전지역이었던 순천 송광사 등의 의승수군 조직은 임진왜란 이후에 해체되었지만, 좌수영 주변에 위치하여 주진사 역할을 해낸 홍국사에는 상설조직화되어 국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홍국사의 관련 문건인데, 홍국사에서는 1988년을 전후해 실시된 대대적인 중수불사를 통해 해체된 각 전당의 상량문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선당구상량문(禪堂舊上樑文)」(1633), 「선당상량문(禪堂上樑文)」(1773), 「선당수집상량기(禪堂修輯上樑記)」(1780), 「심검당증건상량문(尋劍堂重建上樑文)」(1812) 등이 그것이다.³⁶³⁾

그런데 이들 중 1773년의 문건에 「의승 300명 운운」이라 하여 상설화된 의승수군 조직이 엿보이는데, 1780년·1812년의 문건에는 승군조직의 형태와 함께 3백명의 명부가 붙어 있다. 이와 같은 명부는 사내에 전하는 여러 문건에도 일률적으로 나타난다.³⁶⁴⁾ 상설화된 승군조직이 300명 단위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말한다.

1729년 문건에는 팔도도총섭등계대선사가선대부겸도감덕린(八道都摠攝登階大禪師嘉善大夫兼都監德隣)·팔도도총섭겸승대장가선대부자현등계대사월원(八道都摠攝兼僧大將嘉善大夫慈憲登階大師月圓)·도승통겸승대장가선대부일국명현보각등계찬민(都僧統兼僧大將嘉善大夫一國名現普覺登階贊敏)의 승군지도자의 이름이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종2품 가선대부 품계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덕린은 승대장을 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전에 역임했던 인물이며, 현역 승대장은 월원과 찬민의 두 사람인 셈이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조직될 때 삼혜와 의능 두 승려에게 도대장(都大將)을 시켰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의승수군 사령관 격인 승대장에게는 팔도도총섭의 직첩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이는 남·북한산성을 방수(防守)하던 의승군과 같은 위



▲ 상량문

363) 양은용, 「천라좌수영의 의승수군에 관한 연구」(185萬) 참조.

364) 그 예가 「靈鷲山佛跡寺
圓覺大樓(壇 上樑文)」
(補正7, 1729), 「漢江水
營守城 設事鑄碑(射碑
44, 1773), 「靈鷲山佛國
寺寂默堂重(上樑文)」(嘉
慶8, 1803), 「靈鷲山佛國
寺寂默堂重(上樑文)」(同治11, 1872) 등이
다(真王 저, 『임의 책
237쪽).



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전라좌수영의 통제를 받는 이들 의승수군의 조직을 보면, 1812년 문건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에는 「의승군 도합 300인」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290명의 이름만 나타난다.

<표 2> 흥국사 의승수군 조직(1812)

방별	東上室	滿月	先堂	中房	西上	僧堂	天河	道海堂	地藏殿	浮屠殿	文殊
인원	22	30(속인1)	13	23 (堂號1)	11	10	9 (속인2)	12 (속인1)	24	25	12
방별	普光殿	青雲堂	養道庵	靈仙庵	內院庵	引月庵	淨水庵	兜率庵	持殿秩		합계
인원	20 (당호1)	18	7	10 (당호1)	10 (당호1) (속인2)	5	14 (당호1)	4	11		290 (당호5) (속인6)

그러면 이들 의승수군 조직은 언제 해체되었는가? 오늘날 흥국사에는 1893년 전라좌수사 이봉호(李鳳鎬)가 내린 완문(完文)이 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완문은 관청의 승인문서이다. 이 문서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7> 영구히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가 영읍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로 인해 승군이 절반이나 흩어지고 승군의 기강이 혼란하여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없으니 이들을 안착시키고 군사의 기강을 정비하는 일이 중대하고 시급하다. … 승려는 출가하였으므로 세속을 끊고 부모를 여의고 왔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영·부·진·목을 막론하고 족장제도는 촌수의 멀고 가까움을 계산하지 말고 받지 말라. … 승려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을지라도 성을 지키고 첨을 가진 의승인즉 남한산성의 의승과 같이 대우를 하여주고 비열한 언사를 사용하지 말라.³⁶⁵⁾

365) 「完文興國寺」 真王 기
암의 책, 235~236쪽.

이 완문의 서언에서는 혼란한 사회상과 함께 승군조직의 운영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인허조문 4개조에 있어서는 2개 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단속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1893년 당대까지 의승 수군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이듬해인 1894년 갑오개혁의 정치제도 개혁과 더불어 승군제도가 폐지되었다. 1759년의 흥국사 승도가 의승 수군을 포함하여 643명에 이르렀는데, 1914년에는 35명으로 줄어들었다.³⁶⁶⁾

이와 같이 보면, 전라좌수영 산하의 의승 수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창의하여 이순신의 해전에 참여하며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난후 상설군으로 체제가 정비되었다. 그 조직은 300명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전라좌수영의 관할을 받고 있는데, 그 승대장은 조정으로부터 팔도도총섭 승대장의 직첩을 받음으로써 남·북한산성의 의승군과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의승 수군 조직은 흥국사를 주진사로 하여 1894년 갑오개혁까지 300년간 존속하며 수성(守城)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조직은 어디까지나 의승군이라는 조직 초기의 성격과 함께 수행승단의 체계를 견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366) 「興國寺事蹟參考文」, 韓
王 詞, 仁宗 朝, 218쪽
참조.

3) 이순신 어머니 사시던 곳, 송현마을

김 은 영 (순천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웅천동 송현마을이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난중일기』 갑오(1594년) 1월 11일의 기록에서이다.

이곳은 이충무공의 어머니 초계 변씨 부인과 그의 가족들이 기거한 곳으로 당시의 지명은 고음천(古音川)으로 나온다. 웅천(熊川)의 옛 이름은 곰내, 고음내, 고음천 등으로 불리었다.

그 가운데 송현(松峴)마을은 웅남(熊南)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일명 솔고개라고도 하였다.³⁶⁷⁾ 현재에도 송현마을은 고음천, 고음내, 곰챙이, 솔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송현마을은 현 웅천동의 한 구역으로서 웅서(熊西), 웅동(熊東) 등과 함께 창원 정씨 일문(一門)이 집성촌을 이룬 마을이었다. 당시 창원 정씨 정

367) 「한국의 지명총집」 15,
한글학회, 1983, 50쪽
참조.

계생(丁戒生)의 손자 철(哲), 린(麟), 춘(春)과 그들의 종질인 대수(大水) 등은 임진년부터 전라좌수영에서 해상 의병의 활동을 펼친 인물들이다.

이충무공의 어머니 초계 변씨부인이 고향인 충청도 아산에서 여수 응천 송현마을로 옮겨와 살게 된 것은 1593년의 일이다. 이순신은 1591년 2월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여 전라좌수영 본영에 근무하였다.

다음 해에 임진왜란(1592~1598)이 일어나 충청도 지방이 전란에 휩싸이자, 이충무공은 1593년(선조 26)부터 충청도 아산에서 살고 있던 어머니 초계 변씨부인과 아내 방씨부인 등 가족들을 전라좌수영 내의 정씨 집안의 종손이자 휘하 장군이었던 정대수의 집에 약 5년간 모시게 되었다.

그렇다면 초계 변씨부인이 송현 마을로 옮겨와 생활하게 되는 정확한 시기는 언제일까?³⁶⁸⁾『난중일기』 계사(1593)년의 기록 중 다음 내용들을 통해서 그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³⁶⁸⁾ 1592년부터 5년간 송현 마을에서 자냈다고 한다 (『문화재도록』, 여수시, 2001, 63쪽).

A) 3월 초4일. 맑음. (중략) 아산에 문안 갔던 나장이 돌아와,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했다. 매우 다행스럽다.

B) 5월 18일. 맑음. (중략) 종 목년이 해포(충남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에서 왔다. 이편에 들으니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였다. 바로 담장을 써서 미역 다섯 다발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C) 6월 초1일. 아침에 탐색선이 들어왔다. 어머니(天只) 편지도 왔는데 평안하시다니 매우 다행스럽다. (중략) 충청수사 정걸이 왔다. 나대용, 김인문, 방용원과 조카 봉도 왔는데 어머님이 평안하시다고 한다. 매우 다행스러웠다.

D) 6월 초6일. (중략) 본영에서 탐색을 다니는 자가 왔는데 어머님이 평안하시다고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5월 18일까지는 이충무공의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아산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부터는 지명이 보이지 않고 탐색선과 본영과의 연락을 통해서 어머니의 소식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순신은 좌수영의 본영이 있는 여수가 아닌 한산도에 주둔해 있었



▲ 전라좌수영 관하의 수군진 5포와 고읍천

다. 그러므로 C항에 보이는 탐색선은 본영과의 사이를 왕래하는 배라고 할 수 있으며, 어머니 변씨부인은 6월 1일 이전부터는 좌수영관내에 기거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충무공의 어머니 변씨부인과 가족들은 1593년 5월 18일 이후부터 6월 1일 이전의 어느 시기에 고향인 충청도 아산에서 여수 고읍천으로 들어온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던 해 4월 고향인 아산으로 돌아가기 전 까지 이곳에 머물며 사실상 그 생애를 마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왜 좌수영 관내에서도 송현마을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일까? 1589년 12월 이순신은 정읍현감으로 부임해 가게 되자 당시 관리로서 직계 자손이 아닌 식구들을 많이 거느리는 것은 남솔(溢率)이라 하여 파면시키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와 조카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였다.³⁶⁹⁾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순신 일가의 좌수영 관내로의 이주는 당연한

369)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행록(行錄)」 이분(李芬) 전提.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593년 4, 5월에 이르러 전쟁의 양상이 장기전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이순신은 이미 연세가 팔순에 가까운 노모(老母)를 보다 가까운 곳에 두고 봉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라좌수사의 직을 역임하고 있던 이순신은 좌수영과 가까운 곳에 가족들의 거처를 마련하여 보살피려고 하였다.

당시 고음천은 창원 정씨의 세거지로서 이 일가의 정철, 정춘, 정대수 등은 의병을 일으켜 임진왜란 초기부터 이순신 휘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중 정철은 임진년 당항포해전에서 이순신의 우위장(右衛將)으로 활동³⁷⁰⁾하는 등 이순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오충사지」에 실린 다음의 내용은 이순신과 창원 정씨 일가인 정철과의 관계를 짐작하게 해 주는 대목이다.

충무공께서 사람을 시켜 청은공(정철)에게 요청하여 가사(家事)를 부탁하자,
공이 방 한 칸을 비워줘 그곳에 모셨다. 그로 인해 절친한 친구 사이에 친척처럼
내외를 트고 지내는 정의(通家之誼)를 마련하였다.³⁷¹⁾

정철은 임진왜란 초기부터 이순신과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고음천에 이순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더욱 각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이순신은 객지에서의 생활인데다 당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 모시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정씨 일가의 보호 아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음천에 거처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고음천은 지리적·전략적으로 매우 안전한 곳이었다. 고음천을 중심으로 주위의 해안지역을 살펴보면, 전라좌수영 관할하의 5개진(鎮)이 포진해 있었다.

동쪽으로 좌수영과 방답진, 서쪽 바다 건너 흥양지역에 여도진·사도진·발포진·녹도진 등이 있으니 그 사이에 있는 고음천은 지리적·전략적으로 매우 안전한 곳이면서도 좌수영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순신 일가는 좌수영 인근에 있는 고음천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다.³⁷²⁾

이순신은 한산도에 있으면서도 항상 어머니에 대한 안부를 끊임없이 살폈다. 어떤 때는 직접 찾아가 뵙기도 하였다. 이충무공의 어머니가 이곳에 머물러 계시던 무렵의 「난중일기」의 기사를 보면 모자간의 애틋한 정을 느낄 수 있다.

370) 「오충사지」, 「청문공사
적」.

371) 「오충사지」, 「청문공사
적」.

372) 신윤호, 「임진왜란 중 이
순신밀가의 동태와 이순
신의 효과」, 「이순신연구
논총」 제8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07,
108쪽.

하지만 이순신은 원군의 참소로 한성으로 호송되어 1597년 3월 4일 감옥살이를 시작하였고, 그해 4월 1일 권율의 휘하에서 백의종군 할 것을 명 받고 풀려나게 되었다. 출옥 후 아들·조카들과 여러 군관들을 만나 바로 고향 아산으로 향했고 어머니 초계변씨 부인은 이순신을 만나기 위해 여수 고음천에서 뱃길로 아산으로 가던 중 4월 11일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이충무공의 자당 기거지는 전란 중에서도 어머님께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드렸던 곳으로 이충무공의 효심이 깃든 충효의 장소로 이해된다. 충무공의 어머니와 아내 방씨 등 가족들이 살았던 곳은 현재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 안내문이 있는 곳과 정평호시택 장독대를 포함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정평호씨 가옥 우측으로 돌로 된 이충무공자당기거지비와 이충무공 모부인 초계변씨 유적비(1973)가 있고, 좌측으로 이충무공 사모비(1990)가 있다.



▲ 자당 기거지 내에 세워진 초계변씨 유적비(웅천동 송현)



4. 전라좌수영 관내지역 군사 및 지원시설의 역할

송 은 일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연구원)

1) 방답진의 역할

방답진은 돌산읍 군내리 일대에 위치했던 조선의 수군진(水軍鎮)이었다. 빙 둘러선 나지막한 구릉을 이용하여 읍치(邑治)를 품에 안은 듯 서 있는 석축의 성지가 바로 그곳이다. 앞 쪽으로는 우뚝히 패인 만(灣)이, 그리고 다시 그 전면에는 송도(松島)가 가로막듯이 들어 앉아 천연의 좋은 항구를 이룬다.

이 방답진은 외해(外海)에서 여수만, 광양만과 순천만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자 남해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곳에 위치하였다. 남해의 연안 항로를 제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으로서,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을 구성하던 주요한 수군진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³⁷³⁾

현 돌산읍 군내리에 방답진이 설치된 시기는 조선 중종대에 이르러서였다.³⁷⁴⁾ 이곳에 수군진이 설치되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왜구가 자주 출몰하는 해로 중 하나에 속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으며, 한편으로 이곳에 국둔전이 있어 많은 곡식을 수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방답진은 설진(設鎮) 때부터 종 3품의 첨절제사(이하 첨사라고 함)가 주둔하는 거진(巨鎮)이었다.

이는 방답진이 해양방어 기능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³⁷⁵⁾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치되었던 방답진은 전라좌수영 수군진 내에서 그 역할과 활동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라좌수영의 편제를 보면, 1인의 수군절도사를 필두로 2인의 첨절제사와 4인의 만호가 배치되었는데, 그 중 현 고흥군에 위치한 사도진과 현 돌산읍 방답진에 각각 1인씩의 첨절제사(첨사)가 배치되었다.

이러한 편제 속에서 방답진은 형식상 사도진관에 속하기는 했지만 전라좌수영 내에서의 실제 위상은 사도진과 대등하거나 혹은 앞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답진은 첨사가 주둔하는 다른 진(鎮)처럼 예하 수군진을 거느리지는 못하였다. 이는 방답진이 전라좌수영의 직할진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373) 邊東明, 「朝鮮時代 花山島 防護驛의 설치와 그 구조」, 『朝鮮史學報』, 27, 2007, 11쪽.

374)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방답진은 중종 18년(1523)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在府東一百七十里 今上縣 花山島 中宗十八年 以新舊路要害 設鎮 置守使一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0 亂天都護所 屬45 防護驛 天柱上, 그린대 방답진의 설치시기와 관관하여 중종 17년(1522)에 병답진설의 축성이 추진되었다고 하는 기록과 『中宗實錄』 卷44 중종 17년 5월 7일 王子印근 가리모진과 미조힐진 등이 중종 17년에 設驛과 축성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또 다른 기록을 토대로 방답진도 이 시기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는 간해가 있어 참고된다(邊東明, 같은 논문, 12쪽~23쪽).

375) 邊東明, 같은 논문, 12쪽~23쪽.

같은 위상을 지닌 방답진은 전라좌수영 관하의 일선 수군기지로서 평상시에는 봄·가을철에 정기적인 소집점검 및 훈련에 임했고,³⁷⁶⁾ 해상을 요망(瞭望)하거나 돌산도의 봉수대를 관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³⁷⁷⁾ 나아가 최일선의 해상방어기지로서 단속적으로 출몰하는 왜적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³⁷⁸⁾

특히 방답진은 임진왜란 같은 국난을 당해서는 그 활약이 대단했는데, 당시 전라좌수영 관할 하에 있었던 여러 수군진 가운데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것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경상도 해역으로의 출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장수 중 하나가 방답첨사였으며, 출전하기 이전부터 방답진 탐선의 활약이 유난히 활발했는가 하면,³⁷⁹⁾ 전라좌수군의 최초 출전을 전하는 이순신(李舜臣)의 군령도 방답진 첨절제사(이하 방답첨사라고 함)인 이순신(李純信)을 통해 처음 전달되었다.³⁸⁰⁾

또한 출전에 이르러서는 방답첨사가 항상 가장 중요한 중위장(中衛將) 내지는 전부장(前部將)을 맡아 왜장을 사살하거나 적의 함선을 파괴하는 등 그 활약이 출중하였으며,³⁸¹⁾ 이순신은 그를 특별 포상하도록 조정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 건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순신과 방답진 첨사 등이 더불어 죽기를 기약하며 모든 일을 함께 논의하는 전우였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⁸²⁾ 이는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의 여러 수군진 중에서도 방답진을 그 만큼 각별하고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임진왜란 당시 방답진은 좌수영 본진 외에 유일하게 거북선을 거느렸던 수군진이었다. 당시 돌격선으로 활약했던³⁸³⁾ 거북선 3척 중 1척이 방답진 소속의 거북선이었던 것인데, 이를 보아도 방답진의 위상과 활약이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방답진은 평시에는 물론이고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당해서도 그 활약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라좌수영 소속의 주요한 수군진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방답진은 임진왜란이 끝난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전라좌수영을 구성하는 수군첨사진으로서 그 위상과 중요성은 예전과 같이 이어졌으나, 1895년 갑오개혁으로 군제가 개편되면서 폐진(廢鎮)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376) 「全羅左水營營錄」 1책
道光 30년 9월 4일 未
政院開 1萬 1.3萬 1.5
15097~v, 1851~1892
년 刊.

377) 「濟南鎮志」 「防禦備略」
及事例并錄成冊」 (卷
12) 188~v 1895년 10월.

378) 이상은 遷東明 일의 논문, 31쪽을 참조하였다.

379) 「李忠武公全書」 卷5 直
中日記 王昌年 5월 19일
~3일.

380) 「李忠武公全集」 卷5 直
中日記 王昌年 5월 3일.

381) 「李忠武公全書」 卷2 賦
詩 趙援蠻夷道狀·王浦
破倭兵狀·諸湖督僕兵狀
·見乃梁破倭兵狀·釜山
破倭兵狀.

382) 「李忠武公全書」 卷2 賦
詩 鄭運追記李大源略狀 1)
상은 遷東明 일의 논문
32쪽을 참조하였다.

383) 김주식, 「임진왜란 시기
해전승리를 통해 본 거북
선의 구조」 『海洋文化研
究』, 15호, 158쪽.

2) 돌산 둔전의 역할

384) 李忠武公全書, 卷3 畜
耕 講設屯田狀

385) 李載謙, 「朝鮮初期屯田考」, 『歷史學報』 29, 1965, 82~83쪽; 李景植, 「朝鮮初期屯田의 設置와 經營」, 『朝鮮史學報』 21·22, 1979, 87~91쪽; 宋永燮, 「王朝從舊耕
國家의 屯田 設置와 經營」, 『한국사학보』 7, 1999, 129쪽; 宋亮燮, 「朝鮮後期 軍·衙門·屯田의 經營形態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140쪽.

386) 宋亮燮, 「朝鮮後期 軍·
衙門·屯田의 經營形態
研究」, 15쪽.

387) 『太宗實錄』 卷18 太宗 9
년 12월 庚戌

388) 『世宗實錄』 卷32 世宗
8년 5월 丙辰

389) 『世祖實錄』 卷35 世宗
9년 2월 壬申

390) 李載謙, 「朝鮮初期屯
田考」, 『歷史學報』 29,
1965, 104~105쪽.

391) 李景植, 「朝鮮初期屯田
의 設置와 經營」, 『朝鮮
史研究』 21·22, 1979,
91~92쪽.

392) 이상은 李景植, 같은 논
문, 104~110쪽을 참조
하였다.

돌산도에는 조선시대 국가에서 경영하는 일명 국둔전이 존재했다.³⁸⁴⁾ 둔전은 예로부터 국방상의 요충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로 하여금 황무지(荒蕪地)·진전(陣田) 등을 개간 경작케 하여 군수(軍需)에 충당하는 이른바 차전차경(且戰且耕)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지를 말한다.³⁸⁵⁾ 그러나 조선왕조에 이르러서는 둔전이 그 쓰임새가 넓어져 군수 보용의 목적 이외에도 중앙의 각 관청이나 지방의 영(營)·진(鎮)·읍(邑) 등에서 군수 또는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³⁸⁶⁾ 돌산의 둔전도 조선왕조의 이러한 둔전 정책에 따라 설치되었던 것이다.

조선정부는 건국 초 둔전의 폐해가 심해지자 모든 둔전을 혁파했다. 그러나 이후 군사와 지방관아의 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보용하기 위해 태종대에 다시 복설(復設)하였다.³⁸⁷⁾ 이후 다시 둔전의 폐해가 일어나자 세종 8년에 또 다시 모든 둔전을 폐지하였다.³⁸⁸⁾

이렇게 둔전을 폐지함으로써 주·현·군·진의 재정을 국고에서 충당해야만 했으며, 이러한 결과 자연 국고가 비게 되었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듬해에 관둔전만을 재설(再設)하게 되었다.³⁸⁹⁾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1460년(세조 6) 경국대전의 경진(庚辰) 호전(戶典) 반포를 계기로 국둔전을 다시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⁹⁰⁾ 이 때 경국대전에 둔전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았는데, 이 규정은 예전보다 훨씬 확대 강화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이 시기 수많은 둔전이 증설·확대 되었다.³⁹¹⁾

그러나 이러한 둔전정책에도 불구하고 둔전의 경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국둔전은 국가체계를 이용하여 둔전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있었다. 즉 군인·노비 등의 부역노동(賦役勞動)으로 경영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일반농민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력의 동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군인의 경우 노역이 본래 과중한 위에 방어가 허술해져 곤란하였고, 노비나 농민의 경우 자기 농업경영에 타격이 컸다. 때문에 둔전에 동원된 경작인들은 반발과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³⁹²⁾

이러한 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던 조선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둔전 경

작인들에게 병작반수제라는 안을 제시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둔전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사적인 모리행위, 관에서 둔전의 수확량을 이용한 고리대 착취³⁹³⁾ 등의 성행으로 경작인들이 둔전을 떠나는 일이 잦아졌고 이로 인해 둔전이 폐기된 경우가 많아졌다.

관둔전 역시 국둔전의 상황과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세조 때에 둔전정책의 변화로 일시 충족했던 군자와 관아재정이 성종 중기부터는 또 다시 부족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⁹⁴⁾ 조선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또 다시 새로운 둔전의 개간 및 확장을 꾀하였던 것인데,³⁹⁵⁾ 이러한 가운데 돌산에 둔전이 설치되기에 이른다.

조선정부가 돌산에 둔전을 설치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441년(성종 12)부터였다. 당시 우부승지였던 성준(成俊)이 돌산에 토지를 개간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그 단초가 되었다.³⁹⁶⁾

돌산이 둔전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육지와 가깝고 또한 왜의 해적행위로부터 방어가 용이한 천험의 요새지라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얼마간 이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488년(성종 19) 왕이 직접 돌산을 개간하면 군수에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교를 내리면서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때 성종의 전교를 들은 대신들은 돌산도에 둔전을 설치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성종은 이를 일축하고 이곳을 개간하여 둔전으로 경작할 것을 권장하였다.³⁹⁷⁾

성종은 이에 더하여 동년 8월 25일에 전라도 경차관 김제신(金悌臣)에게 돌산도를 농지로 만드는 일을 심의하여 보고할 것을 명하였고,³⁹⁸⁾ 또한 동년 12월 17일에는 전(前) 전라도 절도사를 지낸 자와 재상 및 육조 당상관을 불러 들여 돌산도를 개간하여 둔전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의논케 하였다.³⁹⁹⁾ 이를 보면 돌산에 둔전이 설치되기까지는 몇몇 대신들의 의견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성종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치된 돌산 국둔전은 그 땅이 비옥하여 생산량이 적을 때는 7~800석이었고 많을 때는 1,000여석이 넘었다고 한다.⁴⁰⁰⁾ 그러나 돌산 국둔전은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둔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둔전 경작인들의 이탈이 가장 커 것으로 보인다.

393) 朴時亨, 「朝鮮土地制度史」 中, 신사원, 1994, 168쪽.

394) 李載惠, 『임의 논문』 117쪽.

395) 丰基惠, 『같은 논문』 117쪽.

396) 『成宗實錄』 卷134 成宗 12년 10월 3일 甲辰 이 때 성종은 성둔의 세민을 놓고 매전에도 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을 내린다. 이를 보면 돌산도 둔전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던 듯하다.

397) 『成宗實錄』 卷217 成宗 19년 6월 2일 甲午 및 8월 18일 己酉.

398) 『成宗實錄』 卷 19년 8월 25일 丙午.

399) 『成宗實錄』 卷223 成宗 19년 12월 17일 丙午.

400) 『中宗實錄』 卷88 中宗 33년 9월 30일 丙子.

이렇게 둔전에서 경작인들이 이탈하게 된 원인은 관청의 탐학 내지는 관리들의 사적인 모리행위 절수 문제 등으로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둔전은 자연 황폐화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임진왜란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실태에 놓여 있었던 돌산 국둔전이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에 의해서였다.

전쟁 중에 군량미를 비롯한 군수조달은 전쟁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군량미 등은 원칙적으로 조선정부에서 대주어야 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 같다. 당시 조선정부에서 군량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임진왜란이 발생되자 대규모의 유민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생산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둘째, 초기전투에서 수세에 몰려있던 조선은 명(明)에 원군을 요청하였고 명은 대규모의 원군을 3차례에 걸쳐 파견하였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기까지 연인원 약 20만 명 가량의 병력이 조선에 주둔하였다. 당시 명군은 자국병사의 군량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자 군량을 조선정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상당량의 군량을 조선정부가 공급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하여 조선군 자체의 군량도 조달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조선의 관군과 의병의 수자는 관군 137,500명, 의병 3,900명으로 약 15만 명 정도였다.⁴⁰¹⁾ 이와 같은 대규모 병력의 군량조달은 정부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으며, 때문에 장졸들이 스스로 군량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자진 납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⁴⁰²⁾

이같이 열악한 조선정부의 재정 상태를 익히 알고 있었던 이순신은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던 것인데, 그가 이를 위해 주목했던 것이 바로 둔전의 개발이었다. 이순신은 홍양·강진·순천 등지에 비어 있는 목장을 개간하여 둔전을 설치한 후 군량미에 보탰던 것 같으며,⁴⁰³⁾ 한편으로 예전에 국둔전이 설치되었으나 황폐화되어 있었던 돌산둔전을 다시 개간할 것을 건의하여 허락을 얻어냈던 것이다.⁴⁰⁴⁾

이순신이 둔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려는 목적이 단순히 군량미 확보 차원만은 아니었다. 그의 장계(狀啓)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으로 인해 떠돌아다니는 피난민들을 안거(安居) 시키기 위한 목적도 커었다.⁴⁰⁵⁾ 이러한 이

401) 송양설, 옆의 논문, 「조
朝鮮直隸 畫家의 中田
設置의 經驗」, 135쪽.

402) 당시 6개월 동안 소요
군량미는 30만 석을 상
회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군량미 보관량은
6만에 석에 불과하여
50여일을 버티기 힘들
정도였다(송양설, 같은
논문, 135쪽).

403) 『李忠武公全集』 卷4 狀
啓, 『丙戌年開墾牧官狀』.

404) 『李忠武公全集』 卷3 狀
啓, 『調設屯田狀』.

405) 임진왜란 시 이순신은
황폐화 되어 있었던 둔

유 때문에 돌산 국둔전이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돌산 국둔전에서는 얼마만큼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전에 돌산 국둔전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는 1,000석이 넘는 식량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하니⁴⁰⁶⁾ 당시에도 이 정도의 수확량은 나왔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 돌산 국둔전은 상당히 많은 군량미 지원을 했던 둔전이라 할 수 있겠다.

임진왜란 중에 유민의 폭발적 발생은 평화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민의 대량 발생은 국가의 기반인 농민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국가체제의 위협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적으로 변하여 끊임없이 체제에 저항하였다.⁴⁰⁷⁾

이순신에 의해 다시 개간된 돌산 국둔전은 이러한 유이민을 편안하게 정착시키고 동시에 군량미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이루어냈던 곳인데, 전라좌수영의 계속된 승첩 역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임진왜란 당시 돌산 국둔전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이순신에 의해 이러한 정책건의가 이루어진 이후 공교롭게도 조선조정에서는 둔전경영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더하여 둔전 개발을 실행에 옮기는 일을 가속화 하였다.⁴⁰⁸⁾

임진왜란 당시 대량의 군량미 지원은 물론이고 유이민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던 돌산 국둔전은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이곳은 여타 둔전과 마찬가지로 예전과 같이 국가의 재정충당 및 군수를 보조하는 목적의 관례대로 지속되다가 20세기 초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국유지 분쟁에 휘말렸던 것은 아닌가 싶다.⁴⁰⁹⁾

3) 여수 목장의 역할

여수의 목장은 임진왜란 당시 큰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보면 당시 이 곳 목장에서 목양되었던 대부분의 말들은 전투나 아니면 전쟁 물자를 수송하는 군마로 지원하였다.⁴¹⁰⁾ 또한 이곳 목장에 종사했던 감목관과 관원에서 목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원들이 전투에 적극 참여했다.

이는 이곳 감목관 조정(趙丁)이 스스로 배를 준비하여 가솔과 목장의 목자들을 이끌고 해전에 출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일이나,⁴¹¹⁾ 감목관 김탁

산 국둔전을 개간하였고
건의를 하았는데 그 목
적이 두 가지 있었다. 첫
째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는
200여년이나 되는 양남
의 비난인들이 전라좌수
영 관할지역으로 들어오
자 이를을 구제하고 안
주시키기 위해서였다. 李忠武公全集, 卷3 狀略,
濟州道民入倭安堵山農耕附錄
88.

406) 『中宗實錄』, 卷54: 中宗
20년 5월 4일(壬戌);
『中宗實錄』, 卷88: 中宗
33년 9월 30일(庚午).

407) 송방식, 임의 논문, 「壬
辰倭亂期 國家의 田畠
稅賦와 稲糧」, 149쪽.

408) 여기서 둔전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순신의 둔전정
체 건의 이후 만길드감
이나 훈련드감의 주도하
에 둔전개발이 계속적으
로 이루어졌던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송방식,
임의 논문, 「壬辰倭亂期
國家의 田畠 稅賦와 稲糧」,
141쪽.

409) 宋亮燮, 「朝鮮後期 軍·
衙門 屯田의 稲糧形態
研究」, 高麗大學敎 大學
院 博士學位論文, 2001,
237쪽.

410) 물론 전적으로 군마로만
지원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일부는 전란을 통
해 밀을 절도 당하는 경
우도 있었을 것이며, 적
에게 맞을 빼앗겼던 경
우도 있었을 것이다.

411) 『李忠武公全書』 卷2 狀
態 「釜山礮臺兵狀」(1592.
의)

412) 『李忠武公全書』 卷8 「直
中日記」(1597. 9. 18. 乙
巳)

413) 南部承, 『朝鮮時代의 馬
政研究』, 『韓國學研究』,
1, 1976, 1~10쪽.

414) 이 글에서는 현재 성정
구역상 여수 지역에 존
재했던 목장을 위주로 그
후이와 운영 및 실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조선시대에 여수
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행정구역이 순천부 소속
이었다. 따라서 당시 현
여수 지역에 들어선 많은
목장은 순천부가 관할하
는 목장이었다. 그리고
당시 순천부에서는 현
여수지역 외에도 고흥이
나 낙안지역의 목장까지
도 관할할 때도 있었다.

415) 송문일, 『국학목장의 설
치와 운영』, 『2009년 상
반기 전남대학교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학술대
회 발표자료집』, 2009.
11~12쪽.

416) 『新舊東國圖地圖說贊』, 韓
天廟圖林 山川, 『牧場地
圖』(국립중인도서관소장)
등 참고.



▲ 곡화목장 고치도

(金卓)이 당시 이순신 전선(戰船)에서 총탄에 맞아 전사했던 예에서 알 수 있 는 것이다.⁴¹¹⁾ 이를 보면 여수의 목장은 임진왜란 당시 인적·물적 지원을 적 극 지원했던 곳이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선시대 현 여수 지역에는 20여 곳이 넘는 목장(牧場)이 설치 운영되었다. 말은 교통·군사·농업·경작·외교상의 교역품·식용 그리고 말가죽·말꼬리·말갈기 등의 일용품으로 이용됨으로써 그 수요가 크게 확대 되었다.⁴¹²⁾ 따라서 조선정부에서는 말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여러 곳에 목장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여수 지역에 목장이 들어서게 된 것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⁴¹³⁾

조선이 건국된 이후 여수에 처음으로 목장이 들어선 곳은 백야곶(白也串) 목장이었다. 이 목장의 설치시기는 대략 1434년(세종 16) 이전으로 지방의 마 정조직이 갖추어진 1407년(태종 7) 이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다.⁴¹⁴⁾

백야곶목장의 설치를 필두로 1454년(단종 2) 이전까지 제리도와 송도목장 등이 설치되었고 『동국여지승람』이 찬술되었던 1481년(성종 12) 이전까지는 돌산도와 묘도목장이 증설되어 이 시기까지 현 여수지역에는 5곳의 목장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목장지도』가 편찬된 1663년(현종 4) 이전까지 백야도·이리도·대화도·소화도·사질도·검모도(금오도)·낭도·성두곶·수태도·개도·소리도·대두리도·소두리도·다리도·자모도·안도·비질견도 등 17곳의 목장이 추가 증설되어 당시 이 곳 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목장이 존재했다.⁴¹⁵⁾

여수 지역이 이렇게 많은 목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국가정책 때문이었지만 한편으로 이곳의 지형지세의 특징과 함께 겨울에 도 그다지 춥지 않고 물과 풀이 풍부하여 목양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까지 여수지역의 목장이 계속적으로 증설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송도·이리도·수태도목장과 같이 중도에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목장이 폐지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임진왜란 시기에 피해를 입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이후 여수 지역의 목장은 『동국문현비고』가 찬술된 1770년(영조 46) 이전 어느 시기에 소리도·대두리도·소두리도·다리도·자모도·안도·비질견도 등 7곳이 인근 홍양현으로 이송되어 곧 폐지되었던 것 같으며, 대화도·소

화도·사질도 등 3곳이 폐지되어 이 시기까지 9곳의 목장만이 남게 되었다.⁴¹⁷⁾

한편 1795년(정조 19) 즈음에 백야곶목장의 명칭이 곡화목장으로 변경되었다. 곡화라는 명호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곡은 이 목장의 지형지세의 특성을 이르는 것이며, 화는 화양의 뜻이 담겨져 있다.

화양이란 말은 『서경(書經)』 주서(周書) 무성편(武成編)

에서 등장하는데, 이를 보면 주나라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정벌하고 문왕(文王)의 옛 도읍지인 풍(豐)에 돌아와서 무(武)를 정리하고 문(文)을 닦은 후 말은 “화양지양(華陽之陽)”에 돌려보내고, 소는 “도림지야(桃林之野)”에 방목하도록 하여 다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고사이다.⁴¹⁸⁾ 이 고사에는 전쟁을 종식하고 태평의 시대를 지향하겠다는 염원이 담겨져 있다.

마찬가지로 곡화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즉 백야곶목장이 이시기 갑자기 곡화목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화양이라는 고사에 주목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참람했던 임진왜란 등의 여러 환란을 환기하면서 전쟁이 없는 태평의 시대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곡화라는 명호를 부르게 되었던 것인데, 여기에는 이곳 백성들의 염원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⁴¹⁹⁾

백야곶목장이 곡화목장으로 변경된 이후 여수의 목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1871년(고종 8) 성두곶·개도·화(수)태도·제리도 등의 목장이 인근 흥양현으로 이속되어 5곳의 목장만이 남게 되었다.⁴²⁰⁾ 이후 이곳의 목장은 동학농민전쟁 때 현 화양면 소재지 일대에 존재했던 감목관아의 절반 이상이 소실되는⁴²¹⁾ 등 시련을 겪다가 1895년(고종 32) 본장인 곡화(백야곶)목장이 폐장되면서 그 외의 목장도 폐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곡화목장 감목관비(화양고등학교 정문 앞)

417) 『效法地圖』(국립중앙도서관소장); 『增補文獻考』 丘集 坎場烽 등 참고.

418) 『書經』 周書 武成編

419) 송은일, 『말의 논문』, 「곡화목장의 설치와 운영」, 19~20쪽 참조.

420) 송은일, 「조선시대 順陽縣의 목장」, 『順陽文化研究』 2, 2009, 127쪽.

421) 『開南邑北』, 「順天牧場事例」, 12181, 1895년 제9.

422) 조선시대 여수 지역의 목장이 20여 곳이 넘었지만 목장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일부만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전하는 정보에 편향하여 목장의 규모를 밝혀두고자 한다. 한편 당시 감목관서 부근의 관자촌(현 화양면 화동리 일대)에는 700여 호 만민의 민호가 존재했다(『湖南邑誌』, 『順天牧場事例叢書』, 『12181, 1895년 集』).

423) 최한선, 「여수 곡화목장 성의 고고학적 고찰」, 「2009년 상반기 전남대학교 이운신박물관학연 구스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9, 46쪽.

424) 이에 대한 정보는 고종 8년(1871)에 대한 것이다(『順天邑誌』, 重 12175, 1871년 撃). 고종 32년(1895)의 기록에 의하면 백야도목장에 마신당 1채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동안 마신당 외의 경장은 소설되었거나 아니면 친자리 속으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25) 『順天邑誌』(重 12175, 1871年)

426) 여수에 존재했던 목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新舊東南夷島圖說』, 『順天都城府山川』, 『牧場地圖』(국립중앙도서관소장), 『兩地圖書』, 『順天府邑誌』(重 17434, 1792~1800년 撃), 『順天邑誌』(重 12175, 1871년 撃), 『順南邑誌』, 『順天牧場事例叢書』(重 12181, 1895년 集)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치폐의 과정을 거친 여수의 목장 규모에 대해 알아보면,⁴²²⁾ 우선 본장인 곡화(백야곶)목장의 둘레는 대략 110여리 정도이고 넓이는 동서 20리, 남북 30리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곡화목장의 마필 수는 많게는 1,000여 마리가 넘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곡화목장 내에는 많은 감목관청이 존재했다. 그 현황을 보면 외동현 1채, 환곡·조세창고 등 4채, 마구 2채, 누각 1채, 마신당 3채, 각색청 5채, 가가(假家) 3채 등과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을 아울러 총 38 곳의 공청(公廳)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곡화목장에는 목장성이 존재했는데 그 유구는 현재 소호동 소제마을부터 소라면 관기마을까지 약 3km에 걸쳐서 거의 일직선상으로 남아있다.⁴²³⁾

다음은 곡화목장의 속장(屬場)의 규모에 대해 알아보면, 돌산목장의 둘레는 130리 내지는 135리 정도였으며 넓이는 동서 20리 남북 40리 정도였다. 마필수는 많게는 536필, 적게는 55필 정도였다. 공청으로 청사 1채 환곡·조세창고 3채, 마구 1채, 마신당 1채 등이 있었다.

묘도목장의 둘레는 규모가 커울 때에는 60리, 적었을 때에는 20리 정도였다. 공청으로 좌기청, 원세고, 환상고 등 3채가 있었다. 백야도목장의 둘레는 20~25리, 넓이는 동서 2리, 남북 5리였다. 말은 32필 정도가 있었다. 공청으로 마신당 1채, 말의 눈비를 피할 수 있었던 가설 건축물 일명 가가 2채, 저수지 2곳이 있었다.⁴²⁴⁾

이리도목장의 둘레는 37리 정도였으며 그 외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겸모(금오)도목장의 둘레는 10리, 넓이는 동서 20리, 남북 37리였으며, 그 외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낭도목장은 둘레가 20리 넓이는 동서 7리, 남북 4리 정도였으며, 공청으로 마신당이 1채, 가가 2채, 저수지 2곳이 있었으며 마필수는 8~9필이 존재했다.⁴²⁵⁾

성두곶목장은 넓이가 동서 45리, 남북 10리 정도였으며, 그 외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수태도목장은 둘레가 80리 정도였으며, 그 외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개도목장은 둘레가 25리였으며, 그 외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마필수는 151필이었다. 제리도 목장은 넓이가 동서 3리 남북 2리였으며, 그 외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상 살펴본 목장 이외의 것은 기록이 전하지 않아 그 규모를 알 수가 없다.⁴²⁶⁾

여수에 존재했던 목장에는 여러 목장조직이 있었다. 이제 목장조직의 인원 배정과 직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여수의 목장을 관할하여 말의 번식·개량·관리·조달 등의 일을 책임 감독하는 자는 감목관이었다. 조선시대 각 지방의 감목관은 시대상황에 따라 전임내지는 겸임감목관을 번갈아 가면서 임명했는데 여수에 존재했던 목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여수 목장의 감목관이 겸임일 때에는 수군진의 만호나 순천부사가 그 직책을 맡았다.⁴²⁷⁾

다음으로 여수 목장의 하부 조직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목양에 직접 종사하는 직책으로 군두(群頭)·군부(群副)·목자(牧子) 등이 있었다.

군두는 지방목장에서 마필목양(馬匹牧養)에 직접 종사하는 관직이다. 조선 전기의 군두는 각 목장에서 자마(雄馬) 100필을 단위로 한 '군(群)' 책임자로, 그 직책을 다하기 위하여 그 밑에 군부 2명과 목자 4명을 두었다. 그리고 군두는 1년에 자식(孳息) 80필을 얻으면 상등으로, 60필 이상 얻으면 중등으로, 60필 미만일 때는 하등으로 근무성적이 평가되어, 2년 6개월 내에 상을 3회 받으면 승진되고, 중을 3회 받으면 좌천 또는 파면되고, 하를 받으면 논죄하되, 사자(死者)·실자(失者)·손상불용(損傷不用)케 한 자는 율문(律文)에 따라 처벌토록 하였다.

특히 군두에 대한 처벌은 1440년(세종 22)에 더욱 가중되어, 마(馬) 1두(頭)에 손실을 주었을 때는 태(笞) 30에 처하되, 매 3두(頭) 손실에 1등을 가하여 장(杖) 100과 도(徒) 3년의 형을 받게 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군두는 각 목장에 있어서 자마 100필과 용마(雄馬) 15필을 단위로 한 '군'의 책임자로서, 그 밑에 군부 2명, 목자 4명(후에는 7명)을 배치하여 이를 지휘토록 하였다. 군두가 매년 85필 이상을 번식케 하면 품계를 승급시켰다. 그러나 직책상의 책임도 가중되어 우마 1필을 유실하면 태 50에 처하고, 매 1필 증가할 때마다 형 1등을 추가하되 장 100에서 그치도록 하였다.⁴²⁸⁾

군부는 군두 밑에서 각 목장의 마필 50필을 목양하는 관직으로서, 그 밑에 목자 2명을 거느렸다. 군부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은 군두와 마찬가지로 1425년(세종 7)에 확립된 것이었다. 따라서 군부의 성적도 상·중·하로 평가되어 3개월마다 진퇴가 결정되었다. 즉, 상을 3회 이상 얻으면 군두로 승진되고, 중이면 좌천 또는 파면되었으며, 하를 받으면 논죄당하였다. 국초에는 군부도 군두와 같이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천호(千戶)·백호(百戶)나 경관직(京官職)에 서용될 수 있었다.⁴²⁹⁾

목자는 국영목장에 소속되어 천역(職役)인 말·소의 생산을 담당하였다.

427) 현 화양고등학교 첨문
입구에는 국화목장에 임명
되었던 감목관을 기리기
위한 비석군이 있는데,
임비 3기와 아울러 고인
를 상식 2곳에 디신 명
의 감목관 선정비가 세
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당시 국화목장에 전임감
목관이 부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8) 이성 群頭와 관련해서는
南夢珠,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1996, 228쪽을 참조하
였음.

429) 이성 群頭와 관련해서는
南夢珠, 같은 책,
226~227쪽을 참조하였
음.

430) 『中宗實錄』, 卷19 中宗 8년 12월(庚申).

431) 『明宗實錄』, 卷24 明宗 13년 5월(庚戌); 『續大典』, 卷2 戶典 諸田.

432) 『續大典』, 卷2 戶典 賦賦.

433) 『世宗實錄』, 卷67 世宗 17년 3월(壬午); 『續國大典』, 卷4 兵典 動役.

434) 『世宗實錄』, 卷67 世宗 17년 3월(壬午).

435) 『太宗實錄』, 卷29 太宗 15년 7월(庚申).

436) 『世宗實錄』, 卷40 世宗 10년 4월(己未).

437) 『文宗實錄』, 卷5 文宗 원년 7월(乙丑); 『續國大典』, 卷4 兵典 站衛; 『中宗實錄』, 卷13 中宗 6년 4월(庚辰).

438) 『世宗實錄』, 卷40 世宗 10년 4월(己未); 『世祖實錄』, 卷26 世祖 7년 11월(甲寅).

439) 『世宗實錄』, 卷27 世宗 7년 2월(戊申); 『中宗實錄』, 卷88 中宗 33년 9월(更子). 이상 목자와 관련된 것은 『南鄙人』, 『암의 책』, 『韓國馬政史』, 224~225쪽을 참조하였음.

440) 『世宗實錄』, 卷30 世宗 7년 11월(庚申).

441) 『續國大典』, 卷4 兵典 動役.

442) 이상 목자와 관련된 것은 『南鄙人』, 『암의 책』, 『韓國馬政史』, 224~225쪽을 참조하였음.

따라서 그 신분은 양인이었으나 역이 천하여 사회적으로 신양역천(身良役錢) 이란 특수 계층으로 불리었다. 목자는 16세에 60세까지 말·소 생산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어,⁴³⁰⁾ 국가는 그 대가로서 그들에게 목자위전(牧者位田) 2결과⁴³¹⁾ 복호(復戶)의 혜택을 주었으며⁴³²⁾ 또한 근무성적에 따라 쌀·포목으로 포상하거나,⁴³³⁾ 군두·군부·백호·천호 및 경관직으로까지 영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⁴³⁴⁾

그러나 이는 법제상의 규정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그 몇 배나 되는 고역이 있으며 종신토록 그 직을 면할 수 없었다. 또한 세습직으로서 자손에게까지 세습되었으며⁴³⁵⁾ 거주이전⁴³⁶⁾과 타직으로의 전직이 허용되지 않았고,⁴³⁷⁾ 사료와 토산물을 바칠 뿐만 아니라 목마군(牧馬軍)으로도 복무를 해야만 했던 것이다.⁴³⁸⁾

그리하여 그들은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는데, 특히 상부 관료들이 매년 2, 3차례의 순찰을 빙자하여 수탈을 일삼는 바람에 그들은 가산을 탕진하기까지 하였다.⁴³⁹⁾

목자의 직책은 처음 10필의 우마를 사육하면 되었다. 그러나 1425년(세종 7)에는 25필로 증가되었는데, 매년 그것을 길러 새끼말 20필 이상을 생산하면 상등, 15필 이상이면 중등, 5필 미만이면 하등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30개 월 단위로 그 성적을 매겨서 상을 3회 이상 받으면 승진되고, 중을 3회 받으면 좌천 또는 파면되었으며, 하를 받으면 처벌을 받았다.⁴⁴⁰⁾

이 직책은 『경국대전』에서 더욱 강화되어 목자 4명이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로서 매년 새끼말 85필 이상을 생산토록 하였다.⁴⁴¹⁾ 이러한 직무규정은 『대전후속록』·『속대전』 및 『대전통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선 후기까지 적용되었던 같다.

이밖에 목자가 직책상의 과실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는 예외 없이 태 50형에서 장 100의 형에 이르는 체형과 아울러 잃어버린 우마 수대로 배상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런 과중한 직책과 가혹한 부담으로 목자들의 이역(離役) 현상이 초래되었던 것이다.⁴⁴²⁾

이상 군두·군부·목장의 직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수에 존재했던 목장에 이들은 과연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와 관련된 기록이 많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 특히 군두에 관련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 더욱 그려하다. 다행히 군부와 목자에 대해 약간의 기록이 전하고 있어 그 대강만이라도 살펴볼 수가 있겠다.

이 기록에 의하면 여수의 목장에 (간양)군부⁴⁴³⁾는 총 10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자료에는 (간양)군부의 인원수가 각 목장별로는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곡화목장이 3명, 돌산목장이 3명, 낭도목장이 1명, 백야도목장이 1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총 인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시기마다 (간양)군부의 인원이 변동되었거나 아니면 찬자의 착오로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수에 존재했던 목장 내에 목자의 총인원수를 보면 적계는 600여명에서 많게는 1,000여명 정도가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자료에는 목자수가 각 목장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곡화목장의 목자수가 적었을 때에는 13명이었고 많았을 때에 271~446명이었으며, 돌산목장은 적었을 때에 12명이었고 많았을 때가 255~363명이었다. 그리고 백야도목장은 47명, 낭도목장 31명, 개도목장 84명의 목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각 목장에 근무했던 목자의 수가 시기마다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목장은 기록이 없어 그 인원수를 확인할 길이 없다.⁴⁴⁴⁾

여수의 목장에는 이상 살펴본 조직 이외에 감관(監官) · 포수(砲手) · 인리(人吏) · 목리(牧吏) · 통인(通引) · 급창(及唱) · 방자(房子) · 지인(知印) · 사령(使令) · 전부(津夫) 등이 있었으며, 한편 군관(軍官) · 봉진마외양군(封進馬養軍) · 납번목(納番牧) · 목모군(牧募軍) · 이마(理馬) 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⁴⁵⁾

감관은 감목관 아래에서 목장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목장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고 행정적인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리와 목리는 감목관아에서 행정적인 실무를 맡아보던 직책 같은데, 인리는 감목관청과 관원들의 업무를, 목리는 목장과 목양에 직접 종사하는 군부나 목자들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것은 아닌가 한다.

통인 · 급창 · 방자 · 지인 · 사령 전부 등도 감목관 밑에서 행정잡무나 아니면 감목관의 말을 다른 관아에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이속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관은 목장 내 왜구나 수적의 침입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둔전경작 등의 감독을 목적으로 배치된 인원으로 생각된다. 봉진마외양군은 목자와 같이 목장에서 말 · 소의 생산을 담당했던 것 같다. 특히 이들은 일반 목자와는 달리

443) 여수 목장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이곳에는 군부라는 직책은 없고 간 양군부라는 직책이 존재 했는데 「湘南邑誌」, 『續天牧場事例成冊』, 重 12181, 1895년 韓 이마 이 직책이 군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44) 이상 여수의 목장에서 근무했던 군부와 목자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新增東國圖地圖說」, 『順天郡道邑山川』, 『牧場地圖』, 『國民中陽도사관소장』, 『東坡昇平誌』(重 1559), 1729년 韓, 『輿地圖書』, 『順天府邑誌』(重 1743), 1792~1800년 韓, 『續天邑誌』(重 12175, 1871년 韓), 『湘南邑誌』, 『順天牧場事例成冊』(重 12181, 1895년 韓)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45) 「東坡圖說」, 『順天 牧場條』에는 목리 25명, 지인 10명, 사령 17명 등이, 「續天牧場事例成冊」에서는 인리 20명, 통인 7명, 급창 10명, 방자 1명, 사령 20명 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446) 맑은 용도에 따라 車馬
驥馬, 馬, 車馬, 鹿馬,
種馬 등으로 구분한다.

447) 朝地圖書, 關天 牧場

448) 이상은 총운일, 임의 논
문, 「조선시대 開墾群의
목장」, 143~144쪽을 참
조하였다.

449) 南都本, 임의 책, 400
쪽.

목자들이 기른 말 중에 진상할 말이 선별되면 그 용도에 따라⁴⁴⁶⁾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등의 직책을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의 목장은 매년 8월에 봉진마를 택하여 관리한 후 다음해 2월 이내에 진상하였는데,⁴⁴⁷⁾ 봉진마와 양군의 직책이 주로 이러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납번목은 목자의 직책과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이 전문적인 목자라기보다는 목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목모군은 납번목과 유사한 직책이었을 것이나 유사시 목장을 수비하는 일까지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⁴⁸⁾

마지막으로 이마는 말의 건강을 책임지는 직책이었으며, 목장에 부임하면 한 곳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1년이었다.⁴⁴⁹⁾ 이상 여수에 존재했던 목장조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목장의 자금운영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여수에 존재했던 목장의 자금운영은 크게 수세와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수세로는 둔답(屯畠), 태전(太田), 화전(花田), 모전(牟田) 등이 있었으며, 지출로는 조환상(租還上), 아록미(衙祿米), 태환상(太還上), 모환상(牟還上) 등이 있었다. 그리고 세를 상납할 때마다 상부의 관리들에게 선물을 지급하였다.

이 외에 각색의 급료를 비롯하여, 관청 유지비, 관리들의 출장비, 말의 사료비 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비용을 계산해 보면 수세에 비해 지출비용이 월등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목자들이나 아니면 목장 내 주거하는 일반백성들에게 할당하여 거두어 들였을 것이다. 동학농민전쟁이 전개되면서 곡화목장 내에 있었던 감목관청의 대부분이 소진된 이유가 여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에서 조선시대 여수에 존재했던 목장은 평상시에는 조선정부의 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했으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이를 극복하는 데 적극 앞장섰던 목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5. 최초의 이순신 사액 사우(賜額祠宇), 충민사

충민사는 마래산 남서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으로 종고산이 우뚝 서있고 좌측으로는 여수 해안이 내려다 보이는데, 그곳은 임진왜란 직전 이순신이 휘하 장졸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예전에는 해운대(海雲臺)라고 하였다.⁴⁵⁰⁾

450) 해운대는 현재 마리타운

충민사 건립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에서 종군하였던 구교(舊教) 박대복(朴大福)이 이순신의 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현 충민사 자리에 2칸 정도의 사당을 짓고 제향을 모셨던 것이 그 단초가 되었다.⁴⁵¹⁾

이후 충민사 건립은 1601년(선조 34) 정월에 선조는 군사시찰차 남방으로 내려가던 이항복(李恒福)에게 이순신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사당 건립을 명하면서 본격화 되었던 것이다.

충민사 건립에는 이시언 통제사의 감독 하에 충청수군절도사 오옹태(吳應台), 전라우도수군절도사 김옹추(金應秋), 목포만호 전희광(田希光), 금갑만호 송희립(宋希立), 발포만호 소계남(蘇季男), 가리포첨사 변홍달(卞弘達) 등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에서 종군했던 수많은 장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결과 충민사는 공사가 시작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충민사가 완공되자 이항복은 사당에 액자(額字) 내려줄 것을 조정에 건의하였는데, 이를 당시 우부승지였던 김상용(金尙容)이 다시 선조에게 계청(啓請)하였고 마침내 충민사라는 액자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⁴⁵²⁾ 이 때 충민사에는 조정으로부터 전답 등 여러 하사품이 내려졌었는데, 그 기준이 평안도 을지문덕과 경상도 김유신, 함경도 윤관을 모신 사당과 같았다고 한다.⁴⁵³⁾

이후 충민사는 1709년(숙종 35)에 당시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였던 이순신의 5대손(代孫) 이봉상(李鳳祥)에 의해 재실(齋室)이 신축되었고, 1732년(영조 8)에도 당시 수군절도사였던 이순신의 후손 이명상(李命祥)에 의해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었다.⁴⁵⁴⁾ 이렇게 몇 차례 증축과 수리를 거친 충민사는 조선후기 서원철폐령에 의해 1870년(고종 7)에 충민단만 남겨두고 모두 철거되었다.⁴⁵⁵⁾

그러나 충민사는 얼마 지나지 않은 1873년(고종 10)에 이 지역 유림들의 진정으로 다시 건물을 건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1919년 일제에 의해 다시 강제 철거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충민사는 그 명맥만이 유지되다가 1947년에 이곳 지방유림과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다시 복원되었다.⁴⁵⁶⁾ 이어 1971년부터 충민사에 대한 정화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1975년에 드디어 정화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⁴⁵⁷⁾ 충민사에는 이순신을 주벽으로 하고 양쪽에 임진왜란 당시(1576년 7월 16일) 칠천량 해전에서 전사한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와 보성군수 안홍국(安弘國)을 배향하였다.

현 충민사 유적현황을 보면, 입구에 홍살문이 설치되어 있고 외삼문인 승

에서부터 여수역으로 이어지는 해안가로 주정의며, 조선후기 어느 시기까지 이곳에 해운정이 존재했다고 한다. 그리고 현 아래터널 주변은 일제강점기 경어선(淸江 ~여수) 철도공사로 이곳이 배립되기 전까지는 삽벽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곳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淸水郡邑誌』古蹟 海雲臺, 海雲亭津 10830; 고종 연간 1863~1907; 10. 이마 그 글자가 해운정이 아니면 해운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451) 『李忠武公全書』卷13 附錄 3 忠愍祠

452) 『淸水郡邑誌』忠愍祠堂 10830; 고종연간 1863~1907; 10. 조선 조창으로부터 충민사라는 액자를 받은 시기가 선조 37년(1604)이라는 간해기 있으나(金鏡有, 『淸水蘿川發展史』, 樹書出版社, 1998, 776쪽),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또한 이 같은 내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필자의 능력으로 찾을 수가 없어 그 시기를 확신하기가 어렵다. 다만 『忠忠武公全書』忠愍祠記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액자를 받은 시기가 액자를 신청한 선조 34년(1601)이 아닌가 싶다. 이 기록을 보면 선조 34년(1601) 충민사 건립이 완공되자 이항복이 사당에 액자를 내려줄 것을 조정에 건의하였다 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액자를 받은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액자를 신청한 그 해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453) 『李忠武公全書』 卷11 附錄 3 忠義門

454) 『李忠武公全書』 卷11 附錄 3 忠義門碑記

455) 『漢水郡邑誌』 藝文 忠義 錄 1083년, 고종연간 1863~1907년, 卷1

456) 金鵄有, 일의 책, 776쪽

457) 어수시·조선대학교 박물관, 『어수시의 문화유적』, 디자인아트, 2000, 364쪽

458) 사단법인 어수지역사회 연구소 편집, 『어수의 향기 아름다움이 여기에』, 미래기획, 2007, 477쪽

459) 어수시·조선대학교 박물관, 일의 책, 364쪽
사단법인 어수지역사회 연구소 편집, 같은 책, 477~478쪽

460) 『李忠武公全書』 卷11 附錄 3 忠義門重修記 藝文 忠義門碑記

461) 金鵄有, 일의 책, 775쪽

462) 조원래, 『백성의 눈으로 본 역사』, 도서출판 큰기획, 2000, 105~107쪽

보문(崇慕門)은 정면 1칸에 좌우에 퇴(退)를 두었으며 측면은 2칸이다. 기단은 다듬돌로 쌓은 위에 원형초석을 두었고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기둥은 등근기둥이고 그 위 기둥머리에 도리를 연결할 수 있는 주두가 있다. 공포(貢包)는 포작(包作)으로 간략하게 하였고 평방(平枋) 위에 소로와 도리를 얹었다. 내삼문인 충의문(忠義門)은 정면 1칸에 좌우에 퇴를 두고 있다.⁴⁵⁸⁾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기단은 3단의 장대석으로 짜여졌으며 3군데의 계단을 통해 오르게 되었다. 주초(柱礎)는 원형이고 그 위로 민흘림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위로는 공포(貢包) 없이 보아지와 쇠서, 창방(昌枋)이 결구되었다.

장여(長檻)와 도리사이에 화반(花盤)을 끼워놓아 지붕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지상에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였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활주(滑柱)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부연(附椽)이 있다. 창호(窓戶)의 중앙어간(中央御間)은 사분각이며 양쪽의 각 1칸은 삼분각으로 모두 띠살문 형태이다.⁴⁵⁹⁾

이 같은 충민사는 문화재로서 현재 그것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가치 외에도 이순신 관련 다른 사우(祠宇)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는 다음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첫째, 충민사는 임진왜란 관계 최초의 사액사우(賜額祠宇)였다는 것이다. 충민사는, 1606년(선조 39)에 건립되어 1663년(현종 4)에 사액을 받았던 통영의 충렬사⁴⁶⁰⁾와 1704년(숙종 30) 건립되어 1707년(숙종 33)에 사액을 받은 현충사와 비견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사액을 받은 시기를 봤을 때 충민사가 두 사우보다 무려 각각 60여년과 100여년 이상이 앞서고 있다.⁴⁶¹⁾

둘째, 충민사는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 역할을 했던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에 세웠고, 이 작업에 참여한 인물들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에서 해전에 참전했던 현지의 수군 장졸들이었다는 것이다. 현충사가 임진왜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순신의 고향땅에, 그것도 도내 유림들의 발의에 의해 세워진 사우라는 것과는 비교된다.⁴⁶²⁾

셋째, 임진왜란 당시 불교 승려였던 자운(慈雲)과 옥형(玉洞)이라는 인물이 이순신이 전사하자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충민사에서 제를 올렸다는 것이다. 자운과 옥형은 이순신 휘하에서 의승수군의 승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자운은 이순신이 전사한 뒤 쌀 6백석을 가지고 노량에서 전몰용사를 위한 수륙재를 모셨는가 하면 충민사에서 이순신을 위해 성대한 제를 올리기도 했

다.⁴⁶³⁾

옥형은 이순신이 전사하자 충민사 곁에 작은 정자를 짓고(현 석천사) 충민사를 지키면서 날마다 소제하고 스스로 제물을 차려 매양 제사를 지냈었는데, 여수 인근 바다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옥형의 꿈에 이순신이 나타나 경계할 것을 알려주었으며 이것이 현실과 틀림이 없었다. 이를 통해 옥형은 이순신의 충절이 죽어서도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감복하여 죽는 날까지 그를 숭배했다고 한다.⁴⁶⁴⁾

이같이 불교의 승려들이 종교의 벽을 뛰어 넘어 유교의 사우에서 제를 지냈다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는 예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충민사는 역사적으로 여타 사우와는 비교될 수 없는 내·외형적 가치를 두루 갖춘 독특한 사우라고 할 수 있겠다.

463) 金相鉉, 「義僧將 惡霊·玉祠 二禪寺考」, 『전라좌수영과 임진왜란 義僧水軍의 활동』(全羅左水營再臨明·學術大會), 1996, 48쪽.

464) 『留平誌』事實,



▲ 정화사의 전경



제6절 하멜과 여수

신동규 (동아대학교 교수)

1. 하멜 일행의 조선 표착

인터넷과 같은 문명의 이기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래도 네덜란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헨드릭 하멜 (Hendrick Hamel), 『하멜보고서』(『하멜 표류기』), 풍차, 꽃, 히딩크 등일 것이다.

이외에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멜과 동료들의 조선체제 경험을 기록한 『하멜표류기』는 파란 눈의 이국인이, 그것도

36명이 제주도에 표착하여 서울과 여수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의 조선 땅에 장기간 머물렀다 간 역사의 흥미로움 속에서 기억되고 있다.

특히, 1653년에 표착했다가 1666년 하멜을 포함한 8명의 선원이 여수에서 탈출해 일본으로 도망갔다는 사실로부터 하멜과 여수의 관계, 나아가 여수와 네덜란드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그 유서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하멜 일행의 조선 표착에 관한 경위와 조선체제의 경험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동인도연합회사의 자료와 조선·일본 측의 기록이 최근에 소개되면서 일부 행적이 규명되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하멜보고서』이다.⁴⁶⁵⁾

이 자료는 『하멜표류기』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이것을 쓰게 된 이유가 하

465) 『하멜보고서』의 원본은 네덜란드 국립기본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미 마크로립증본이 일본 동경대학 시료면판소에 소장되어 있다. 동경대학 소장: 마아크로본 : Dangregister gehouden bij de gesalveerde personen van 't verongelukte jacht de Sperwer, van 't gespoede en bun wedenvaren in 't rijk van Core, sedert den 18. Aug. 1653 tot 14. Sept. 1666. KOL. ARCHIEFF No.1156. 참고로 원본은 2003년 8월부터 11월까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린 『하멜제주도표착 350주년 기념 특별전』에 하멜의 필사본 원본을 전시하기도 하였다.



▲ 『하멜보고서』의 원 책자 사진

멜 일행에게는 조선에서 장기간 체재하고 있던 기간 중에 동인도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료를 청구하기 위한 입증 보고서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흥미본위의 「표류기」가 아닌 「하멜보고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네덜란드 VOC선박

이 「하멜보고서」는 하멜 등 36명이 조선의 제주에 표착하고 나서부터 하멜을 포함한 8명이 1666년 일본으로 탈출해 나가사카(長崎)의 네덜란드 상관에 도착해, 그곳에서 나가사카를 출발할 때까지의 기록이다.

집필자는 당시 제주에 난파했던 스페르베르(Sperwer)호의 서기를 담당하고 있던 하멜로서 13여 년간 조선에서의 체재경험과 조선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17세기 조선의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기술하고 있어 그 사료적 가치는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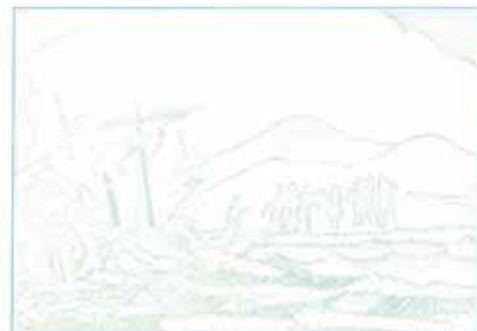
하지만, 하멜 일행의 조선 표착이 유명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면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실이 있다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다. 1653년에 표착하여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 체류 중에 사망하였고, 결국 귀국한 사람들은 전부 15명이지만, 이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들은 단순한 서양 표류민의 이야기로만 인식할 수 없는 역사성이 존재하고 있다.

즉, 이들의 조선 표착은 한국사라는 일국사적(一國史的)인 관점을 벗어나 일본과 네덜란드의 역사, 나아가서는 조선을 포함한 이들 3국의 국제관계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멜일행은 어떻게 조선에 표착해 왔을까. 당시 네덜란드는 1602년에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 동인도연합회사(VOC : Vereenighde Oost-Indische Compagnie)를 세웠고, 1609년에는 일본의 히라토(平戸)에 무역상관을 설립해 일본무역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653년 하멜일행은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 스페르베르호(Sperwer)를 타고 항해하던 중 제주도에 표착한 것이다. 제주 목사 이익태(李益泰)가 저술한 「지영록(知瀛錄)」의 [서양국표인기(西洋國漂人記)]에는 당시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사년 7월 24일 서양국 만인 헌들암선 등 64명이 한 배에 동승하여 대정현 지방 차귀진하(遮歸鎮下) 대야수(大也水) 연변에서 부서졌다. 의사자가 26명, 병사자 2명, 생존자가 36명이고, 옷을 입은 것이 검정, 흰색, 빨강의 세 가지 색깔



▲ 제주도에 난파한 스페르베르호의 모습

이 서로 섞여 있었다. 머리를 모아 서로 맞대고, 웅크려있거나 서기도 하였다. 글로 써서 물으니, 십자(=X자) 셋에 나머지는 여섯을 세고, 거듭해서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다. 또, 십자 둘에 나머지 여섯을 세고, 거듭해서 눈을 감고 쓰러지는 모습을 만들어 냈다. 생김새가 괴이하고 의상이 다르게 만들어졌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린 것은 생존자의 수를 뜻하며, 눈을 감고 쓰러진 것은 사망자의 수이다. 그 생사자의 수를 조사해 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한왜역(漢倭譯)과 유구국(琉球國)에 표류했다 돌아온 자 모두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사정을 물어 볼 길이 없었다. 남만 서양 등의 사람들이라는 의심이 들어 이것을 계문한 즉, 남만의 표래인(漂來人) 박연을 내려 보냈다.⁴⁶⁶⁾

466) 李秀泰著, 『기록本』, 세주문화원, 1997.

467) 본명은 민 앤스 웰테브레 (Jan Janse Welltevred)이다. 그는 조선표착 후,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朴應·朴廷·朴廷·朴仁·胡忠惠·胡忠惠」 등으로 불렸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명확히 하고 있다. 李秀泰, 『하멜漂流記(一潮錄, 1954), 32쪽, 신동규, 『근세 동아시아 속의 日·朝·滿국체계화사』(경인문화사, 2007), 11쪽.

위의 계사년 7월 24일은 양력으로 1653년 8월 16일이며, 『하멜보고서』의 난파 일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헌들암선'이라고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데, 바로 항해사 헨드릭 양세(Hendrick Janse)를 말하며, 제주도의 '차귀진하(遮歸鎮下) 대야수(大也水) 연변(沿邊)', 즉 지금의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의 남쪽 해안에 표착하고 있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과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결국에는 1627년 조선에 표착해 와 한성의 훈련도감에서 귀순한 중국인과 투항한 왜인들로 구성된 외인부대의 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얀 앤스 웰테브레(조선명 : 박연)⁴⁶⁷⁾가 파견되어 통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효종실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당시 제주목사 이원진의 보고에 의해 조정에도 알려지게 되었고,⁴⁶⁸⁾ 이후 당시까지의 생존자 36명은 제주에 기근이 들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구제조치의 일환⁴⁶⁹⁾으로 한성으로의 송환이 결정되고 있었다.

468) 『孝宗實錄』, 卷宗 4년 8월 무진조.

469) 신동규, 앞의 책, 145쪽.

2. 하멜 일행의 탈출 사건과 전라도 유배

하멜 일행은 1654년 4월 26일을 전후해서 4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제주를 출발하여 해남, 영암, 나주, 정읍, 전주, 공주를 거쳐 5월 12일을 전후해 한성에 도착하였다.

그 직후 비변사의 관리 등이 하멜 일행의 처우 문제에 대해 박연과 논의를 했는데, 박연은 하멜 일행 각자를 한 곳에 체재시킬 것이 아니라, 보증인에게 인도해 서로 가까운 곳의 민가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⁴⁷⁰⁾

결국 일행은 훈련도감에 배속이 결정되어 한성에서 체재하게 되었으며, 박연의 지휘 아래 기예를 습득토록 하였고, 또한 포수에 상응하는 봉급도 받게 되었다.⁴⁷¹⁾ 이렇게 서양 외국인을 훈련도감에 배속시킨 것은 조선의 이국인 등용책이었으며, 또한 당시 효종의 복벌정책 시기에 군사력 강화의 일환�이기도 하였다.⁴⁷²⁾

『하멜보고서』에 의하면, 청국의 사신이 서울에 올 때마다 자신들은 서울 근처에 있는 남한산성에 감금되기도 하고 외출이 금지되기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정도로 청국의 압박 하에 있던 조선에게 하멜일행은 늘 문제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35명(제주에서 한성으로 이송 중 영암에서 1명 사망)이나 되는 서양의 이방인이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 청국에 누설된다면, 청국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복벌정책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때문에 청국에는 네덜란드인의 조선 체재 사실을 극비로 하였던 것이다.

하멜일행의 서울 체재 중에 청국사신은 4번 입경하였다. 1654년에 입경했을 때에는 남한산성에 격리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1655년 3월의 청국사신 입경 때에는 염려하고 있었던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외출은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엄명이 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일에 하멜 일행 중 두 명이 청나라 사신의 귀국행렬에 뛰어들어 고국(네델란드)으로 송환을 요청하는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하멜보고서』에 의하면, 결국 소동을 일으킨 2명은 불잡혀 투옥된 후에 사망하고, 조선은 청나라 사신에게 뇌물공세를 펼침으로서 이 사건을 무마했다. 그 후의 기록에 이 사건에 대한 청측의 조사요청이나 관련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뇌물공세는 성공한 것으로 추측된다.

470) 『漢遇司譯錄』, 孝宗5년 5월 13일조

471) 신동규

472) 신동규, 「훈련도감의 신식무기 개발과 서양 이국인 등용정책」, 『한토서울』6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3.; 신동규, 「オランダ人漂流兵と朝鮮の西洋式兵器の開発」, 『文苑』60-1, 200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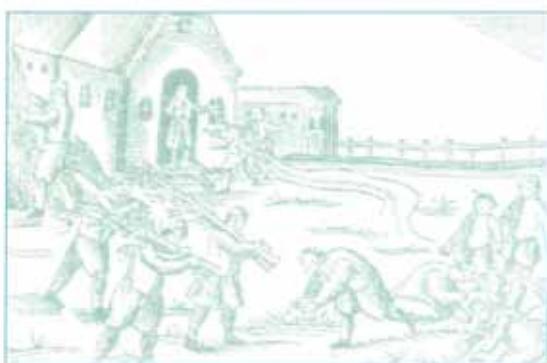


473) 『孝宗實錄』, 효종6년 4월 기묘조.

조선측의 기록을 보면 사건을 일으킨 헨드릭 양세(Hendrick Janse, 南北山)는 식음을 전폐해 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⁴⁷³⁾ 동료 헨드릭 양세보스(Hendrick Janse Bos, 南二安)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하멜 동료 두 명의 탈출 사건의 여파는 동료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심문을 받고 난 후, 도주의 불가능을 깨우쳐주기 위해 한 사람 당 50대의 곤장형에 처해지게 되나 왕명에 의해 취소되었다.

그 후 하멜일행에 대한 경계는 더욱 엄격해지고, 사건 이후의 두 번에 걸친 청국 사신의 입경시에는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탈출 사건과 같은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형에 관한 논의를 하기에 이른다.



▲ 하멜 일행이 관청의 물을 짚고 있는 모습

474) フィリップ・フランツ・シーボルト著/尾崎賢治譯, 『日本50』, 雄松堂書店, 1978, 42~43쪽.

하지만, 효종의 동생이었던 인평대군의 의견으로 전라도 유배가 결정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처리는 매듭지어졌다. 이전라도 유배에 대해 유명한 시볼트는 “성가신 객(客)을 온당하고 원만하게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있었다.”⁴⁷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청국과의 외교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하멜 등 8명이 일본으로 탈출하자 소속 지방관리가 처벌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1656년 2월 초순경(『하멜보고서』 3월 초순경) 하멜일행은 서울을 떠나 전라도로 향하게 되는데, 한강 부근에서 박연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제주도에 표착하여 서울까지 압송되었을 때의 길을 통과해 목적지였던 전라병영에 도착했다.

조선에 표착했을 때는 36명이었으나, 서울에 압송될 때, 영암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또 서울에서 탈출 사건의 주범 두 명이 옥사하여 병영에 도착한 것은 33명이었다. 전라병영(강진군)에서의 생활하게 된 그들에게 서울에서와 같은 군사훈련은 없었다.

단지, 전라병사에 의한 명령으로 한 달에 두 번 관청의 풀을 깎고 청소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였다. 그러나 1659년부터 1663년에 걸친 대가뭄으로 인해 33명 중 1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살아남게 된다.

또한 1662년에 전라감사 이봉연이 기근으로 인해 하멜일행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보고를 조정에 올려,⁴⁷⁵⁾ 조정은 전라좌수영과 전라도의 큰 마을에 분산시킬 것을 명해, 1663년에 결국 여수에 12명, 남원에 5명, 순천에 5명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3. 하멜 일행의 여수 생활

하멜은 동료 11명과 함께 전라좌수영이 있던 여수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들에 대한 대우는 지휘관(전라좌수사)의 변동에 의해 악화·개선을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하멜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에게 보름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의 외출도 허가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유행동은 가능했다. 「하멜보고서」에는 여수에서의 생활이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하멜일행의 여수에서의 행적을 살펴보겠다.

하멜일행이 여수에 도착한 것은 1663년 2월 초순이 지나가는 무렵이었고, 그들은 곧바로 전라좌수사에게 인계되었으며, 집과 약간의 식량이 배급되었다. 하멜은 당시의 수사를 선량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는 일행이 여수에 도착한 지 이를 후에 새로운 발령지로 전출되었다.

전임 좌수사가 떠나고 3일 후에 그 후임이 부임했는데, 일행에게는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었다. 하멜일행은 매일 여름철에는 뼈약볕 아래서, 겨울에는 눈비를 맞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기 자세로 서 있어야 했고, 전라좌수영에서 활쏘기 연습을 할 경우에는 화살을 줍거나 각종 노역에 시달렸으며, 겨울에는 마땅한 옷이 없었고, 식량도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다.

「하멜보고서」에는 이때의 좌수사가 재임한 6개월간 백성들에 대해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함부로 살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훗날 조정에 소환되어 90대의 곤장형과 함께 유배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664년에 좌수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좌수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전 좌수사와는 달리 일행에게 부여된 모든 노역을 풀어주었고, 더욱이 1달에 2번씩만 점호를 하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475) 『備邊司牒錄』, 開宗3년 正月 20일條. 이 기록에는 네덜란드인이 23명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하멜보고서」에 의하면 상황에 의해 분산을 명령받았던 1월 하순 「하멜보고서」, 2월 말에 22명이 생존해 있었다. 즉, 전라감사가 조정에 하멜일행에 대한 조치를 올은 직후, 한 명이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하멜은 이 선량한 좌수사의 부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에게서 풀려나고 대신 이렇게 선량한 사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신임 좌수사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했으며 우정을 보여 주었고, 가끔 우리를 불러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위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때부터 하멜 일행은 탈주를 계획하여 탈출에 필요한 배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양인이라고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여수에서 하멜일행이 배를 구입하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배의 구입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멜일행이 여수에서 체재한 기간은 약 3년 6개월 정도인데, 특히 여수 체재기간 중에는 당시 조선인의 생활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664년 연말 무렵에 나타난 혜성이 불길한 징조라고 하여 조정에서도 큰 동요가 일어났으며, 국왕이 모든 항구와 병선의 정비, 모든 요새에 대한 군량과 탄약 공급을 명하여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보이고 있다. 이는 청이 침입해 올 당시에도 혜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멜은 기록하고 있다.

1665년에도 하멜일행의 생활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탈출을 위한 배의 구입에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도 남해안 지역의 섬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간혹 남원과 순천에 살고 있는 동료들의 소식도 들었지만, 역시 여수의 하멜일행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행정관이 어떤 사람이 부임하는가에 따라 고통과 편안함의 반복적인 일상이었다고 한다.

이때의 심정을 하멜은 “우린 이교도의 국가에 잡혀 있는 불쌍한 포로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 주고 죽지 않게 먹여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이 모든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수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 1666년에는 재미있는 기록도 보이는데, 그것은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1666년에는 여수 좌수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해 갔는데, 이때 하멜은 “올해 초에 우리에게 다정했던 친구를 다시 잃게 되었다.”고 아쉬워하고 있었다.

이때 새로운 좌수사가 부임해 왔는데, 그는 이전의 악덕한 관리와 마찬가지로 하멜 일행에게 온갖 잡일과 노역을 시켰다. 일행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좌수사는 늘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멜 일행에게 다행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여수에서의 수군 훈련 중에 포수의 부주의로 탄약상자에 불이 붙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좌수사는 이 돌발 사고를 은닉하여 감쪽같이 숨겨두고 싶어 했으나, 항상 왕의 측근자로서 동시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암암리에 지방사정을 탐지하고 돌아다니는 자, 즉 암행어사에게 발각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현종실록』 현종 7년 4월 정묘조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 얼마나 하멜이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가도 느낄 수 있다.

전라 좌수사 이민발이 앞바다에서 수군을 조련하다 전선에 불이 나서 세 사람이 죽었는데, 이민발이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 민유중이 이 소식을 듣고 치계하여 그를 치죄할 것을 청하니, 상이, 죽은 자를 돌보아 주고 이민발을 잡아다 죄를 정하라고 명하였다.

결국 『하멜보고서』에 의하면 좌수사 이민발은 90대의 태형과 함께 종신 유배되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7월에는 새로운 좌수사가 부임하여 왔으나, 마찬가지의 부역과 잡일로 그들은 고통을 면치 못하였다.

다행히도 그들은 그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으게 되었다. 그것도 당시 자금으로 둑단배를 정가의 두 세배로 값을 치를 수 있는 액수였다. 물론 배를 구입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하였지만, 하멜은 이때의 생각을 “매일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질시하는 자들의 억압 밑에서, 이역만리 하늘 아래서 시름과 설움에 젖어 노예 신세로 계속 살아가느니보다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멜 일행은 조선에서 강제와 속박 속에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탈출하다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이때에 그들의 탈출을 도와줄 새로운 조력자로서 조선인 한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는 매일 같이 하멜 일행의 집에 들려 곧잘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얻어먹고 가는 이웃이자 친한 조선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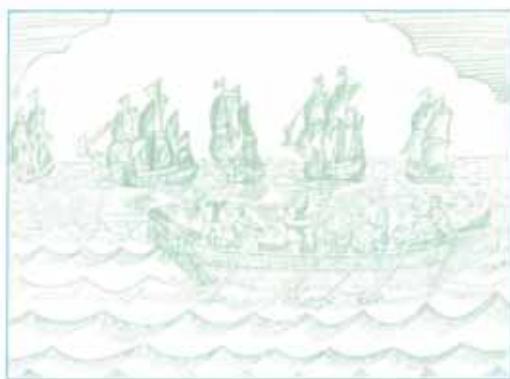
물론 이 조선인이 하멜 일행의 탈출 의도를 알았다면 도와주지 않았겠지만, 톡톡히 사례하겠다는 약속에 배를 구입해 준 것이다. 마침내 부근의 어부에게 한 척을 구입할 수 있어 그 조선인 친구에게 대금을 치르고 배를 인도 받았다.

하지만, 그 배를 판 사람이 하멜 일행이 배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제3자를 통해 불법으로 거래한 것이니 물리겠다고 하였으며, 또 만약에 하멜 일행이 배를 타고 도망갈 생각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자기는 죽은 목숨과 같다며

강하게 거부하였다.

일행은 그의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탈출을 위해 안심하라고 달래면서 원래 배 값을 더 얻어주고 구입하여 결국 2배의 배 값을 치루고 배를 구입하였다. 드디어 탈출에 다른 무엇보다 가장 필수적이었던 배를 구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탈출의 기본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4. 예수 탈출과 귀국



▲ 하멜일행이 예수의 전라좌수영 알바디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탈출하는 모습

배를 구입하자 그들은 즉시 탈출에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탈출에 가장 적합한 시기도 새로운 절기, 즉 음력 9월 8일 백로(白露)가 시작되는 다음 달로 잡아두기도 하였다. 한편, 때마침 찾아 온 순천의 마테우스 에이복 켄 (M a t h e u s Ibocken)과 코넬리스 디록스존(Cornelis Dircksz)이 예수를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탈출계획을 설명했다.

또 순천에 있는 항해술에 뛰어난 양 피테르세(Jan Pieterse)까지도 불러들이기로 하고 순천까지 갔으나, 그가 남원에 나들이를 가고 없어 다시 남원까지 가서 피테르세를 데려왔다. 이들이 걸었던 거리는 사흘 동안 네덜란드 마일로 무려 왕복 50마일(마일=네덜란드 마일, 1마일은 5,555.6=약 5.6Km),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거리로 약 280Km를 걸었던 것이다. 이 정도의 고통을 감수할 정도로 하멜 일행에게는 탈출을 위한 항해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탈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9월 4일 저녁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그날 밤을 함께 즐겁게 보내는 한편, 쌀과 물, 냄비, 그 밖에 항해에 필요한 물건들을 성벽을 넘어서 배까지 날랐다. 달이 지기를 기다렸다가 썰물이 들어오기 전에 탈출을 감행했다. 끝이어 부근의 섬에서 물을 구한 후 듯

을 올려 만을 빠져 나갔다.

그 다음 날, 즉 9월 5일 동틀 무렵, 바람이 멎어서 돛을 내리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돛을 올리면 그들이 추적할 때 발견될까 우려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에는 계속되는 서풍으로 전신이 마비될 듯하였으나, 이때는 조선 영역의 제일 끝 부분으로 다시 불잡히리라는 공포감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9월 6일 오전, 일본 열도에 속하는 섬 하나가 그들의 눈에 띄었고 이것은 바로 일본의 큐슈지역에 있는 히라도(平戸) 근처였다. 이곳에는 이전에 네덜란드 상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나, 1666년 당시에는 나가사키(長崎)의 데지마(出島)라는 인공섬에 네덜란드 상관이 있었다. 이날 저녁은 우선 섬이 보이는 곳에까지 도착해 섬의 서해안에서 정박했다.

9월 7일 풍향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일행은 여러 섬들이 줄지어 늘어 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 열도를 따라 항해를 계속했다. 8일에는 역시 어제 저녁과 같은 지점이었다. 조수의 영향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열도를 벗어나려고 바다 쪽으로 돌진하였으나, 강풍으로 인해 어떤 만(灣)에 들어가 닻을 내렸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밥을 짜어 먹을 수 밖에 없었다. 배를 타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간혹 보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멜 일행에게 별 신경을 쓰고 있는 기색은 안보였다. 저녁 무렵에 만의 여섯 명의 무사를 태운 배 하나가 맞은 편 해안에 한 사람을 내려주는 것이 보였다.

하멜 일행은 이를 보고 다시 바다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들에게 불잡히고 말았다. 이때 일행은 그들이 말로만 듣던 일본인과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 일본인에게 준비해간 네덜란드의 깃발을 꺼내 보이며, '란드 나가사키'라고 외쳤다.

하멜 일행이 만에 도착한 사건으로 해안일대는 어수선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멜은 옆구리에 칼을 한 두 개 쯤 차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이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은 사무라이(侍, 무사)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 백성이나, 상민들은 칼을 옆구리에 찰 수가 없었으며, 사무라이만이 칼을 두 개 찰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무라이의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멜일행이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 「하멜보고서」에는 고토(五島)

476) 신동규, 앞의 책, 273
278쪽.

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일행은 고토의 어느 만(灣)에서 고토번의 배에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표착지(=상륙지)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 명확하게 밝혀졌다.⁴⁷⁶⁾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분류기사대강(分類紀事大綱)」 33권의 [아란타인 조선강표착지 일건(阿蘭陀人朝鮮江漂着之一件)]에는 “네덜란드인은 조선국에 12~13년 이전에 표착하여 그곳에 불잡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고토(五嶋=五島)에 도망쳐 왔다.”(阿蘭陀人朝鮮國江十二三年以前ニ漂着仕候を召捕置候、其内八人上五嶋へ缺落仕參候)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이로써 일행이 고토 열도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가미고토(上五島)’에 표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이보다 더 정확한 사료가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저자 미상의 「일기(日記)」(自寛永十年五月至寶永午年十二月, 長崎縣立圖書館 소장)라는 사료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13년 이전에 고려(조선)의 앞 바다에 네덜란드 선박 한 척이 파선하였는데, 그 중에 네덜란드인 7명이 고려(조선)로부터 고토 영내의 [나마(=なま)]라고 말하는 마을에 도망해왔다. 관문 6년(1666년) 8월 16일에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여 즉시 테지마(出島)로 들어보냈다.⁴⁷⁷⁾

위의 내용으로 하멜 등 8명의 탈주자들은 가미고토 영내의 ‘나마’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관문(寛文) 6년조(1666)에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13년 전이라는 것은 1653년으로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한 해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인 7명이 고토에 도망해왔다고 하나, 실제로 고토에 도망해 온 하멜 일행은 8명이므로 착오가 있으나, 실은 이것을 기록한 자가 1668년 조선에 남아있던 잔류 네덜란드인이 일본에 온 숫자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즉, 하멜 일행이 1668년 일본으로 탈출하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선에 아직도 생존해 있는 네덜란드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선에 그들의 송환을 요청함에 따라 1668년 송환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네덜란드인 7명이 일본으로 송환되었던 것이다.

한편, ‘나마’라는 곳은 어디일까. 현재의 가미고토(上五島)에는 나마(奈摩=

477) 원문: 十三年以前ニ高麗
之前ニ而阿蘭陀者 破損
仕候内 阿蘭陀七人高麗
より五嶋之内なまと申村
ニ逃參 寛文六年午ノ八
月十六日ニ長崎江候 則
出島領入被成候事

なま)라는 지역이 있으며, 「日記」라는 사료에 보이는 나마(なま)라는 마을은 나마(奈摩)와 같은 지역인 것이다. 일본의 지명대사전인『각천일본 지명대사전』42권(角川書店, 1987)에 의하면, 나마(奈摩)라는 지명은 원래 나마(那摩)라고 기록되고 있었으나,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부터 나마(奈摩), 에도시대(江戸時代)에는 나마촌(奈摩村)으로 불리고 있었다고 하며, 근세 초기에는 아오가타(青方) 마을의 일부였다. 1661년부터는 하타모토(旗本) 급의 대명(大名)이었던 고토(五島)씨의 지행지로 후쿠에(富江)령이 된 곳이다.

이러한 사실은 코토(五島)의 고지도로부터도 명확해진다. 특히 [고토의 옛 지도(五島之古圖)]는 고토(五島) 관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마(ナマ)라고 나마촌(奈摩村)이 표기되어 있으며, 당시의 민가수가 “四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五島之古圖(長崎縣立圖書館所藏). *원 분에는 칼라로 지역에 따라 색이 나뉘어져 있다. 지도의 중앙 부근에 위치한 만의 끝부분에 [ナマ](=奈摩)라는 지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튼 이들은 고토에 표착한 이후 나가사키로 호송되었으며, 나가사키 봉행의 조사를 거친 후 1666년에 귀국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귀국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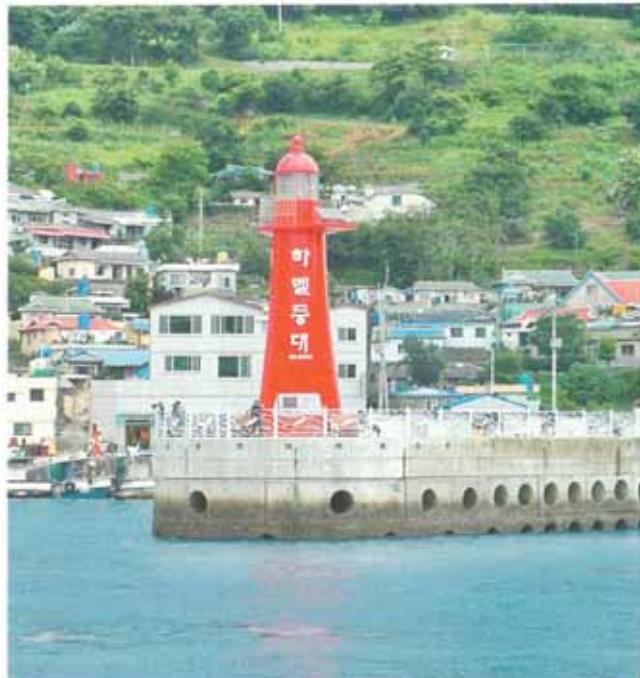
이 기간에 핸드릭 하멜은 조선에서 가지고 왔던 자료들과 더불어 유명한『하멜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동료들이 귀국하면서 이 보고서가 그들의 13여년간의 급료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VOC)의 ‘17인위원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1668년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되어 조선을 세계에 알리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한편, 네덜란드는 동아시아로 진출할 당시부터 일본만이 아닌, 조선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관계를 병행하며 이를 지역과의 관계 개척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점은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

들이 가장 등한시하고 있었던 점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네덜란드 동인도연합 회사의 동아시아 진출을 충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만이 아닌, 조선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시야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하멜보고서」가 출판된 이후 네덜란드는 조선과의 직교역을 준비하기도 했으며, 또한 조선을 중개 무역지로 상정하여 동아시아 무역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⁷⁸⁾

478) 신동규, 「VOC의 동북아 시야 진출에 보이는 조선무역 단절과 일본무역 유지정책」, 「한일관계사 연구」 제22호, 한일관계 시학회, 2005) 참조.



▲ 하멜 등대(총화동 해양공원)

제7절 거문도사건

김 세 민 (하남시 박물관장)

1.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 배경

거문도는 원래 전라도 흥양현(현재 고흥군)에 속했던 섬으로, 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삼도(三島)라고도 불리었는데, 제일 큰 섬이 서도(현재의 서도리와 덕촌리)이고, 맛은 편이 동도(현재의 동도리)이며, 그 두 섬 사이 하단부를 가로질러 고도(현재의 거문리)가 있다. 당시의 기록에도 거문도는 3개 섬의 중앙이 넓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수심이 80척에서 120척에 달해 군함 10여 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섬⁴⁷⁹⁾이었다고 한다. 3개 섬 한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직 고도의 우측과 동도의 남측에 열려있는 해로 밖에 없으며, 일단 한쪽에 진입하여 정박하면 밖에서는 안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요새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거문도의 위치가 대한해협과 대마해협의 관문을 차지하고 있어 한일 양국의 해상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구로서도 요충지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영국은 일찍부터 이 섬에 주목하였고, 1845년(헌종 11) 영국 군함 사마랑(Samarang)호가 남해 일대를 탐사하면서 거문도에 들른 바가 있었다. 이때 이들은 거문도를 해밀튼항(Port Hamilton)이라고 명명하였고, 이후 유럽에서는 거문도보다 해밀튼항으로 더 알려졌다.

또 1878년 거문도를 방문하였던 영국 실비아(Sylvia)호의 존(John) 선장은 항구로서 함정들의 접근도 쉽고 수심도 적당하며 방위를 위한 지형도 완벽해 전략적으로 지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거문도라고 하면서 거문

479) 鄭真, 「大韓李年史」上,
국시편한위원회, 1971,
55쪽



▲ 사마랑호



480) 김재승, 「거문도사건에
서 주둔영국군의 실상」
『한신이총총박시화갑기
념사학논총』, 1997,
238~239쪽.

도를 영국이 차지할 것을 주장하였다.⁴⁸⁰⁾

1875년 주일 영국공사였던 파크스(Harry Parkes)도 거문도 점령을 본국 정부에 제의하며 그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을 바다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거문도는 석탄, 식수의 보급기지로서 영국이 러시아, 중국, 일본 그 밖의 어떠한 해양국가와 대결하게 될 때, 그 군사적 중요성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분명하다.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전쟁 상황에 말려들게 되고, 중국과 일본이 중립을 지키게 되는 경우 영국은 홍콩 북쪽에서는 석탄 보급을 받을 곳도, 또 북동풍이나 폭풍을 피해 대피할 곳도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영국은 이 중요한 요충지인 헤밀튼항을 점령해야 하며, 또 다른 나라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선제해야 한다.”⁴⁸¹⁾

481) 민찬호, 「거문도사건과
조선의 충립파론」, 『김
원사학』 제17, 18합집
2002, 242쪽.

파크스 역시 일찍부터 거문도의 중요성을 정부에 설명하고 다른 나라가 점거하기 전에 영국이 선점하여 동양진출의 거점으로 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영국 외무성의 더비(Dirby) 장관은 자기 영토가 아닌 곳을 군사적으로 점령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이들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거문도에 대한 중요성은 러시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즉 러시아의 푸탸친(Putiatin) 제독이 1857년 거문도를 2번째 방문했을 때⁴⁸²⁾ 주민 대표로부터 거문도를 석탄기지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던 사실은 이 섬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기지이던 블라디보스톡 이남에 마땅한 중간 보급기지가 없던 그들로서는 비록 조선정부와 합의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후 실제로 거문도가 러시아의 석탄기지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거문도사건이 야기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 후 미국도 일본을 개항시킨 후 미국 군함과 상선이 거문도 해역을 지나 일본과 중국의 개항장을 드나들면서 자연히 항로의 중간 위치에 있는 거문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66년 8월 대동강에서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아시아함대 사령관 벨(H.H. Bell) 제독은 슈펠트(Robert S. Shufeldt) 중령에게 조선으

로 가서 제너럴셔먼호 실종사건을 탐색하고 아울러 거문도에 기항, 이 섬의 군사상 유리한 점과 장래성을 철저히 조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슈펠트는 1866년 12월 거문도에 도착하여 5일간 정밀탐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거문도는 해군함정을 정박시키기에 적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파고는 11 퍼트 정도로 조류가 급하지 않은 곳이다. 3개의 섬으로 싸여있는 정박지는 마치 육지에 싸여있는 내항과도 같고,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는 해안선 내의 수심도 적당하다. 이러한 자연적 구조는 천혜의 항구조건을 가지고 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적의 침공을 자연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며 3~4개의 섬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 섬과 섬 간의 경비역할도 훌륭히 할 수 있는 곳이다. 또 산 정상의 능선을 따라 남북으로 나누어져 남쪽 해안지대는 여름철이면 늘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거의 막혀 있어 겨울철에도 북서풍이나 북동풍의 찬바람을 막아주고 있어 혹한을 느낄 수 없는 지형이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보아 해군기지로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군장병들의 휴양지로도 적격이다.”⁴⁸³⁾

그러나 거문도는 해군기지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식수와 부식류 공급이 문제이므로 식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하고, 채소류는 중국인 원예사를 초빙하여 재배하며, 가축은 캘리포니아나 일본에서 들여와 사육한다면 이러한 애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슈펠트는 거문도에 관한 분석을 내놓았다.⁴⁸⁴⁾

거문도의 중요성은 중국 북양대신 이홍장의 서신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후 조선에 보내온 서신에서 이홍장은 ‘이 섬은 동해의 요충지로서 중국 위해(威海)의 지부(之屬), 일본의 대마도, 귀국의 부산과 다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⁴⁸⁵⁾라고 하며 거문도를 영국에 할양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문도는 조선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은 섬에 불과했지만, 동아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는 서양 각국에게는 전략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483) 김원모, 「근대한미관계」, 철학과 현실사, 1992, 228~230쪽.

484) 위와 같음.

485) 『고종실록』, 권22, 고종 22년 3월 20일.

2. 영국의 거문도 점령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청은 1882년 임오군란에 이어 다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개화파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씨정권을 복원시킴으로써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청의 종주권 강화에 반발한 조선은 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때마침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과의 충돌로 새로운 출구를 찾고 있던 러시아가 조선의 입장과 일치되었다. 즉, 한류 양국은 러시아가 영홍만을 조차하는 대가로 조선에 군사교관을 파견하여 군사훈련을 담당하게 한다는 소위 한·러밀약⁴⁸⁶⁾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밀약으로 러시아는 숙원이었던 부동항 획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조선 진출은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었던 영국으로 하여금 조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구실을 주었다. 1894년 7월 조선과 러시아 간에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빌렌도르프의 주선으로 조선이 러시아와 밀착하게 되자 영국은 불안감을 더해갔다.

이때 마침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자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극동항구 블라디보스톡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거문도가 가장 적절한 중간기지라고 판단하였다.⁴⁸⁷⁾ 영국내각은 1885년 2월 26일 거문도 선점권 확보를 의결하고, 2월 29일



▲ 페가수스호

중국 주둔 사령관 도우웰(William Dowell) 해군중장에게 거문도를 점령한 후 이를 본국정부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⁴⁸⁸⁾

지시를 받은 도우웰은 다음날 아가멤논(The Agamemnon), 페가수스(The Pegasus), 파이어브랜드(The Firebrand)호 등 군함 3척을 거문도 점령을 위해 출동시켰다.⁴⁸⁹⁾

영국의 거문도 점령 소문은 이미 널리 유포되었던 것 같다. 즉 2월 23일 주 영청국공사 증기택(曾紀澤)은 매카트니(George Macartney)를 영국 외무성에 보내 영국의 거문도 점령 소문에 대한 진상을 문의하게 하였다.⁴⁹⁰⁾ 또한

486) 田保輔著,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下, 조선총독부증 주권, 1926, 제20집, 한·러간에는 두 나라의 밀약기도가 있었다. 제1차 헨리갈마온·김선장면 후 이노우에 가모루(井上謙)가 한성조와 교섭하 조선에 올 때 주일 러시아공사관 서기관 A. Speyer 가 동행하여 교통이 소란한 바 있으매 1884년 12월 17일, 그후 서심무 순 램과 함께 캐나다 월렌도르프는 Speyer와 밀약을 한 바 있었고, 제2차는 대원군이 회의(1885년 8월 25일)한 뒤, 러시아공사 Wether 와 궁중 사이에 밀약이 기도된 바 있었다.

487)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원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역을 확장하고 식민지를 확대하기 위한 영국의 정책(식민정책)이었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강병석, 「일어버린 혁명—길신정변 연구」, 『한국학』, 2006, 157~171쪽).

488) 김재승, 앞의 논문 241쪽.

489) 전유한, 「임해의 영국보 대—거문도 사건」, 『한국현대사』 2, 신구문화사, 27쪽.

490) 이윤희, 「영국의 거문도 점령」, 『한영수교100년사』, 한국서연구협의회, 1984, 79쪽.

일본에서는 2월 28일 이미 거문도가 점령되어 영국 국기가 거문도항에 게양되었고, 영국함대는 러시아군함을 추적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⁴⁹¹⁾ 이홍장도 영함의 거문도 점령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홍장은 당시 천진조약 체결을 위해 일본 전권위원으로 천진에 와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로부터 2월 26일 이 사실을 들었고, 또 천진주재 영국 영사로부터도 수일 내에 영국 수사체독(함대 사령관)이 군함 수척을 이끌고 거문도로 향한다는 밀담을 들었다고 한다.

한편 거문도를 점령한 영국은 3월 2일 주영 청국 공사 증기택에게 문의에 대한 회답 겸 거문도 점령사실에 대해 통보하면서 사정이 급박하여 청국에 사전 양해를 얻지 못하고 점령하게 된 사실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청국의 위신을 손상케 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청국의 이해에 저촉되지 않는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⁴⁹²⁾

그 다음날에는 청일 양국 정부에 거문도 점령 사실을 통고하도록 양국 주재 영국공사에게 훈령하였다. 그리고 주청 영국대리공사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밀각서의 형식으로 거문도 점령 후 일주일이 지난 3월 10일 점령 통고를 발송하였으나 조선 통리아문에 접수된 것은 4월 6일이었다.

“황제가 임명한 대영국의 서리편의행사대신(署理便宜行事大臣)으로서 조선과 교섭하는 일을 맡은 1등 참찬(一等參贊) 구치(歐致, 오코너)는 대조선 교섭통상사무아문(交涉通商事務衙門)의 독판대신(督辦大臣)에게 각서를 보냅니다. 본 대신은 지금 본국에서 온 공문을 받았는바 거기에는 ‘뜻밖의 일에 대응 방비하기 위하여 본국의 수사관에게 대조선국 남쪽의 작은 섬인 영어(英語)로 합미둔(哈米屯, 해밀頓)이라고 하는 섬을 얼마 동안 차지하고 대조선국 정부에 비밀리에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제기한 사유를 서로 공문으로 알려야 하겠기에 통지하는 바이니 잘 알 것입니다.

1885년 4월 24일.”⁴⁹³⁾

491) 서울대 독일학연구소 역, 『한국근대사에 대한 자료-오스트리아 경기리제국 외교 보고서』, 1885~1913, 신원문화사, 1997, 35쪽.

492) 김강식,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위요한 외교교섭 시발』, 『한중정치의 전통과 전개』, 대영사, 1984, 167쪽.

493) 『고종실록』, 원22·고종 22년 3월 10일.

3. 조선의 외교적 대응

거문도에 대해 서구열강은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선정부에서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섬의 위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1882년 천진에서 슈펠트 제독과 이홍장 사이에 조미조약이 협상되고 있을 때 천진(天津) 해관도(海關道) 주복(周馥)이 김윤식에게 영국이 거문도에 관심이 있는 듯하다고 말하면서 이 섬에 대해 물었다. 김윤식은 이 섬이 어디에 있는 섬인지 몰라 숙소에 돌아가 지도를 펴 보았으나 그 섬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강화도 부근의 주문도(注文島)를 영국인들이 잘못 거문도라고 불렀을 것으로 판단한 뒤 이것을 주복에게 알렸다고 한다.⁴⁹⁴⁾

결국 조선은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난 뒤에야 거문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문도를 점령당한 조선은 즉각 대응방안을 찾지는 못하였다. 이때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귀국의 제주도(濟州島)에서 동북쪽으로 100여 리 떨어진 곳에 거마도(巨磨島)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문도(巨文島)입니다. 바다 가운데 외로이 솟아있으며 서양 이름으로는 합미둔(哈米屯, 해밀톤)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섬은 조선의 영토에 속한 것으로서 영국 사신이 귀국과 토의하여 수군(水軍)을 주둔시킬 장소로很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빌려서 군함을 정박하였다가 예정된 날짜에 나간다면 혹시 참작해서 융통해줄 수도 있겠지만 만일 오랫동안 빌려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면서 사거나 조차지(租借地)로 만들려고 한다면 단연코 경솔히 허락할 수 없습니다.

구라파(歐羅巴) 사람들이 남양(南洋)을 점차 먹어들여 갈 때에도 처음에는 다 비싼 값으로 땅을 빌렸다가 뒤에 그만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거마도(巨磨島)는 들훈대 황폐한 섬이라 하니 귀국에서 혹시 그다지 아깝지 않은 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홍콩 지구 같은 것도 영국 사람들이 차지하기 전에는 남방 종족 몇 집이 거기에 초가집을 짓고 산 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로 건설되어 중요한 진영(鎮營)으로 되었고 남양(南洋)의 관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일 귀국이 영국에 빌려준다면 반드시 일본 사람들의 추궁을 받을 것이며, 러시아도 곧 징벌하기 위한 군사를 출동시키지는 않더라도 역시 부근의 다른 섬을 꼭 차지하려고 할 것이니 귀국이 무슨 말로 반대하겠습니까.……”

이제 정 제독(丁提督)에게 군함을 주어서 이 섬에 보내어 정형을 조사하게 하는 동시에 귀 정부와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자 하니 잘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⁴⁹⁵⁾

494) 『朝鮮史』, 국사편찬위원회, 1968, 143쪽.

495) 『고종실록』, 권22, 고종 22년 3월 20일.

이에 조선정부도 우선 거문도 현지의 실정을 탐사하기 위해 정부 유사당상 엄세영과 외무협판 뮐렌도르프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북양수사제독 정여창과 함께 거문도로 향하게 하였다.

거문도에 도착한 뮐렌도르프는 주둔 중이던 영국군함 선장 맥클레어(J.P. Maclear)와 대담을 가졌으나, 그는 수군제독의 명을 따라 일을 수행할 뿐이므로 나가사키(長崎)에 있는 수군제독과 상의할 것을 권고하였다.⁴⁹⁶⁾

이에 엄세영과 뮐렌도르프는 다시 일본 나가사키로 옮겨 그곳에서 영국의 동양함대사령장관 도우웰 중장에게 문서로 점거의 이유를 험문하였으나 그 역시 본국정부의 명령 아래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경솔히 대답할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확실한 것은 본국에 연락하여 정부의 회답이 오는 대로 다시 통지하겠다고 하였다.⁴⁹⁷⁾

한편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은 북경주재 영국 임시 대리공사 오코너(Nicolas Roderick Oconnor)에게 편지를 보내어 거문도(巨文島) 점유는 양국의 우호와 국제법(萬國公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얼마 전에 귀 사신이 보낸 비밀공문을 받아보았는데 우리나라의 해밀頓(哈米菴)섬을 빌려서 잠시 거주하려고 한다고 하겠기에 이 섬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방이므로 귀국의 요구를 허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각국에서 요구한다 해도 절대로 승인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귀국은 우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므로 속히 전번의 의견을 철회한다면 좋겠습니다.”⁴⁹⁸⁾

496) 「고종실록」, 권22, 고종 22년 4월 3일

497) 「고종실록」, 권22, 고종 22년 4월 6일

498) 「고종실록」, 권22, 고종 22년 4월 7일

같은 날 한성주재 영국 총영사 애스튼(William G. Aston)에게 보낸 조회에서 우리의 영토인 거문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점거한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함과 아울러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니 즉시 철수할 것을 종용하였다.

“요즘 국내에서 도는 소문을 듣고 귀국이 거문도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 영토에 속하므로 다른 나라에서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만국공법(萬國公法)에도 원래 이런 법이 없으므로 놀랍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무어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일전에 관리를 이 섬에 파견하여 실정을 알아보



게 하였는데 아직 돌아오기도 전에 귀 영사가 보낸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북경 공사관에서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적어 보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비로소 천번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과 같이 우애와 친목을 귀중히 여기고 공법(公法)에 밝은 나라가 이런 뜻밖의 행동을 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대에 너무도 어긋나서 놀랍고 이상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국이 만약 우의를 중하게 여겨서 결단성 있게 생각을 돌려 이 섬에서 빨리 떠난다면 어찌 우리나라에만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만국이 다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를 도의상 묵묵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또한 동맹한 각 나라에 성명하여 그 공정한 여론을 들을 것입니다. 이 일은 자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먼저 보내어 모든 사실을 밝히니 귀 영사는 즉시로 회답을 보내주기 바라마지 않습니다.”⁴⁹⁹⁾

499) 「고종실록」 고종 22년
3월 7일.

이와 동시에 조선정부는 독판 김윤식의 명의로 한성주재 청국 상무총관, 미국, 일본국 대리공사, 독일 총영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화를 보냈다.

“어제 북경에 있는 영국 공사관으로부터 각서가 왔는데 거기에는 이미 자기 나라 해군장관이 해밀턴에 임시로 가 있으면서 지킬 것에 대하여 비준하였다는 등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뜻밖의 사실로서 실로 공법(公法)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니 본 대신은 개탄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귀 공사는 영국의 행위를 어떻게 봅니까. 비록 작은 섬이기는 하지만 관계되는 점이 중대하므로 경솔히 남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맹관계에 있는 각국들에서는 반드시 공평한 논의가 있을 것이니 아무쪼록 우리나라를 위해 마음과 힘을 다하고 공의에 의거하여 국권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관청에서 영국 공사관에 편지를 보내어 도의에 근거하여 변론하고 다시 편지를 써서 영국정부와 북경 영사관에 보내기로 하였으며 이미 영국 영사에게는 전보를 쳐서 속히 전달케 하였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결단성 있게 생각을 돌린다면 그들이 우의에 충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까. 귀 공사와 각국 공사들은 명백한 조언을 주어서 스스로 가져야 할 권리를 보전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⁵⁰⁰⁾

500) 「고종실록」 고종 22년
3월 7일.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실로 국제공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임을 강조하고 협소한 작은 섬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관계되는 바가 극히 중대하므로 각국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론(公論)이 있을 것임을 언명한 다음, 조선을 공의(公議)에 의해 국권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다소의 원조 지도를 요청한 후, 만약 영국이 철수하지 않을 때는 조선은 자위책으로써 적법하다고 믿는

행동을 취해도 부득이 하다는 결심을 부기하였다.⁵⁰¹⁾

이 조회에 대하여 청 상무총판 진수당(陳樹棠)은 빌렌도르프, 정여창 등의 복명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국 사신들은 영국의 행동을 불법이라고는 하면서도, 각기 해당 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한영 양국이 원만히 타결하기를 바란다는 답장이 있었다.⁵⁰²⁾

6월 19일 애스톤 총영사는 김윤식 독판에게 거문도를 장기간 점거할 의사는 없고, 다만 저탄장(貯炭場)을 얻는 데 그칠 것이며 결코 태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김윤식은 조영수호통상조약 제8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개항장 외에 저탄(貯炭)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만약 타국들 간에 사단이 있을 때는 조선은 국외중립(局外中立)의 지위를 지켜야 하고 자국 영토를 타국에 대여하여 그곳에 점주시기는 것은 바로 국제공법의 위반이라는 것을 청국을 비롯한 각국 사신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조영수호통상조약 제1조의 규정을 들어 거중조정(居中調停)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⁵⁰³⁾



▲ 영국군 악사(거문도)

501) 김경창,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위하여 외교교섭 시발」, 『한·중 정치의 전통과 전개』, 삼촌주한 수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84, 176~177쪽; 「동양외교사」, 침문당, 1987, 358쪽.

502) 국사편찬위원회, 『고종 사대시』, 고종 22년 4월 7일

503) 김경창, 「동양외교사」, 침문당, 1987, 350쪽.

4. 거문도 철수

이와 같이 조선의 거문도 철수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문도 점령의 불씨가 되었던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8월 2일 영·러간에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위기가 극복되었다. 따라서 영국이 긴급하게 거문도점령을 결정했던 명분이나 동기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⁵⁰⁴⁾

한편 8월 초순 해군성은 해밀턴 부제독에게 평시나 전시에 거문도가 중요

504) 이용석, 「영국의 거문도 점거」, 『한영수교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103쪽.

한 항구 내지 급탄소(給炭所)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거액의 경비를 들여 요새화하지 않는 한 거문도는 군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내려졌다.⁵⁰⁵⁾

505) 원유한,『남해의 영국포대-거문도 사건』,『한국현대사』2, 신구문화사, 69~70쪽.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종결로 영국의 거문도 점령 명분이 사라진 시점에서 거문도가 군사적으로 부적당하다는 결론까지 내려지자 영국 조야에서는 거문도를 포기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철수교섭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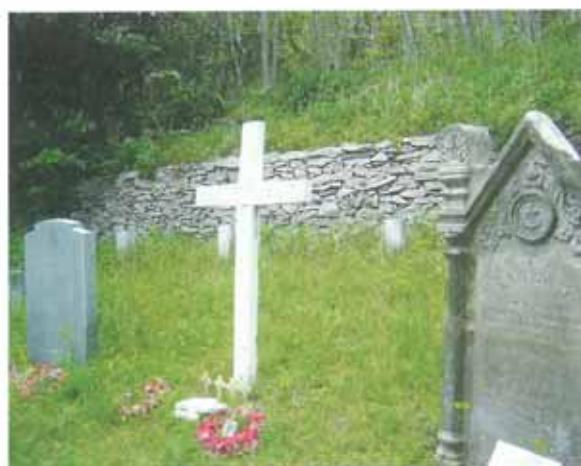
주영 청국공사 증기택은 1886년 2월 6일 영국 외무성에 서신을 보내 '북경 주재 러시아공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귀국 군대를 거문도로부터 철수시키도록 요구해 왔고, 만약 귀국이 거문도를 계속 점령하고 있으면 러시아도 역시 조선영토의 일부분을 점령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 귀국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영국외상 로즈베리(A.P. Rosebery)는 1886년 3월 다른 나라들이 거문도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장만 해주면 거문도에서 철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1886년 8월 28일과 9월 2일에 열린 회담으로 청의 이홍장과 주청 러시아 공사 라디젠크리는 영국군이 거문도에서 철수한다면 러시아는 조선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3개조의 조회장(照會章)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청나라는 10월 5일 영국 공사관에 러시아 측의 보증을 전달하고 영국의 거문도에서의 철수를 촉구했다. 주청 영국공사 왈셤(Walsham)은 11월 24일 청국정부에, 12월 23일 조선정부에 철수를 통고했다.

조선정부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경략사 이원희(李元會)를 파견하여 영국의 거문도 철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고, 경략사가 영국의 철수를 확인하고 보고하

506) 『고종실록』, 고종 24년 4월 17일.



▲ 영국군 묘지(거문도)

자 영국의 퇴거를 위해 중개역할을 해왔던 청국정부에 감사의 표시를 하였고,⁵⁰⁶⁾ 그 후 경략사 이원희의 견의에 따라 거문도의 유자리(柚子里)에 진을 설치하고 이민희(李民熙)를 거문도 첨사로 임명하여 거문도를 지키게 하였다.

이로써 1885년 4월 15일부터 1887년 2월 27일까지 약 1년 10개월 간에 걸쳐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였던 거문도점령은 일단락되었다. 조선정부는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국제법과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강화도조약 당시만 해도 국제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조선은 거문도사건을 통해 국제법 체제에 보다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⁵⁰⁷⁾

뿐만 아니라 조선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제국주의 열강의 복잡한 대결구도에 본격적으로 놓이게 되었다. 거문도사건은 19세기 후반 세계적 차원에서 대결하던 영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충돌함으로써 전통적 동북아 국제질서의 와해를 심화시키고, 조선은 본격적인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되었다.⁵⁰⁸⁾

507) 김세민, 「한국 근대사와
한국공법」, 경인문화사,
2002, 53~68쪽.

508) 김호태, 「거문도사건과
한·러 대외사건」, 한국
외교사연구, 나님출판,
1996, 287쪽.

5. 삼도(거문도) · 초도 사람들의 울릉도 개척사

1) 1882년 울릉도 거주자 총 219명 중 삼도 · 초도인 115명 거주

여수 삼산면(홍양현)의 삼도 · 초도 사람들이 언제부터 울릉도에 배질을 하 고 가서 개척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기록은 1882년(고종 19)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검찰사일기(鬱陵島檢察日記) 제본초(啓本草)에서이다.

(상략) …… 出做幕 下浦邊 全羅道興陽三島居 李敬化(전문 卞敬化) 率格卒十三名 結幕採蘆 仍乘船南駛 海嶽之奇形怪狀 無非絕勝 到長研之浦 興海(전문 興陽)草島居 金乃彥 率格卒十二名 結幕造船 日暮止宿 …… (후략)

(상략) …… 웨막(倭幕)을 나서서 바닷가에 내려오니 전라도 홍양 삼도(全羅道 興陽 三島)에 사는 이경화(李敬化(전문 卞敬化))가 格卒 13명을 데리고 막을 치고 미역을 따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달리니 해안 절벽의 기괴한 형상이 비교할 수 없는 絶景이었습니다. 長研之浦(沙洞, 長研支 浦口)에 도착하니 興海(전문 興陽) 草島의 주민 金乃彥이 格卒 12명을 데리고 막을 치고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여기에서 유숙하였습니다. …… (후략)

울릉도검찰사일기에 따르면 검찰사 이규원이 조정의 명을 받아 울릉도 현

지 검찰을 한 1882년에 만난 사람은 조선인 141명, 일본인 78명이었다. 이중 조선인 141명 가운데 전라도 사람은 115명(강원 14명, 경상도 11명, 경기도 1명으로 집계)으로 울릉도 거주조선인의 82%를 차지했다.

전라도 사람 가운데 홍양현 삼도(고도, 동도, 서도) 사람은 김재근 외 23명이 학포에서 배를 건조하고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었으며, 이경화 외 13명이 도동에 막을 치고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었다. 또 낙안군 사람으로 이경철 외 20명이 천부에서 막을 짓고 배를 건조하고 있었다.

나머지 56명은 모두가 홍양현 초도 사람들로 김근서 외 19명이 천부에서 막을 짓고 배를 건조했고, 김내연 외 12명이 사동에서 막을 치고 배를 건조하고 있었으며, 김내윤 외 22명도 통구미에서 막을 치고 배를 건조하고 있었다.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사람들은 약초를 캐거나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반면 전라도 사람들은 배(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살펴 볼 때 울릉도 개척은 전라도 사람, 그 중에서도 홍양현 삼도·초도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삼도·초도 사람들은 해류와 바람을 이용해 울릉도를 오고갔는데, 편도 뱃길이 바람과 해류를 제대로 탈 때면 10일쯤 걸렸고 바람이 없을 때나 역풍을 만나면 둑을 내리고 노를 젓어 항해를 하였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소요되기도 했다.

삼도·초도 사람들이 울릉도 배질에 이용한 풍선은 15톤 내외의 목선이었고, 대부분 울릉도 선소에서 건조시킨 것들이었다. 울릉도에 입도하면 보통 두 계절 또는 서너 계절 동안 체류했는데, 울릉도에는 아름드리 원시림이 들어차 있어 이를 목재는 집짓는 목재로, 또는 풍선이나 어선을 만드는 선박용 목재로 고가에 거래되었다. 그중 향나무는 제사를 지내거나 추석이나 설날 차례를 지낼 때, 그리고 절에서 불공시 염주나 목탁의 재료로 최고 인기가 있었다.

울릉도를 갈 때면 미역, 다시마, 해삼, 전복 등 해산물을 말려서 가고 올 때는 나무를 베어오면 큰 돈벌이가 됐기 때문에 삼도·초도 사람들에게는 울릉도가 보물섬이고 희망의 땅이기도 하였다.

2) 울릉도 개척사

울릉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 체류지이어서 안보상 그 가치가 높

았기 때문에 러시아, 일본, 서구 유럽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섬이다. 그러나 1417년(태종 17) 조선 초기에 지방제도를 정비시키면서 모든 고을에 현령관을 파견하는 대신 고을의 통폐합을 추진해 강력한 중앙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당시 고려 중엽부터 시작된 왜구들의 침입이 조선조 초기에도 해안지방이나 섬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국 초에 꾸준히 추진된 북방 접경지역 평정과 개척에 따른 이주정책으로 섬 지방에는 일명 공도정책(空島政策)이라는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서해안과 남해안 뿐 아니라 동해의 울릉도·독도까지 실시하게 되었다.(태종실록 7권)

전국 연해안에 실시된 해금정책이 1417년 울릉도와 독도에까지 적용되면서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북방 개척지로 이주하게 했다. 그렇지만 해금정책이 중앙정부의 인위적 통제정책이어서 지속적인 감시와 순찰이 필요하게 되어 실효성이 떨어졌고, 조정의 해금정책 시행 중에도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주민들의 왕래가 계속됐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울릉도의 해산물 등 토산물의 파악을 위한 순찰활동 중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꾸준히 육지로 송환시켜 나왔다.

그러나 1881년(고종 18) 울릉도와 독도에 7인의 일본인들이 잠입해 와서 산림을 토벌해 가는 침탈행위 사실이 적발되면서, 해금정책을 추진한 지 465년만인 1882년에 국토방위 차원에서 해금정책을 폐지시키고, 1883년(고종 20) 4월 울릉도에 정부 모집의 첫 이주민이 입도하게 되었다.

이주민은 16가구 54명으로 강원도와 경상도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전라도 주민들은 없었다. 홍양현 삼도와 초도 사람들이 해금정책이 시행된 이후 언제부터 대부분이었고이며 조선사업 홍양산물 채취 사업을 계속해 왔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울릉군지(2007년 발간)와 독도박물관지(이 6쪽) 및 이규원의 계본초(啓本草)에 ‘울릉도를 개척한 사람들’로 단편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882년 이규원 검찰사가 고종황제의 특명을 받아 울릉도 거주민 실태를 조사했을 때 보고서인 울릉도검찰사일기(鬱陵島檢察日記) 계본초(啓本草)에 “삼도·초도 사람들이 울릉도 개척령 이전에 울릉도 독도를 오가며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울릉도까지 자칫 일본과 영유권 분쟁에 휘말릴뻔 했다.”는 기록을 보면 울릉도 개척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수 있다.

3) 울릉도를 오가며 배질을 하며 불렀던 '술비노래'

400여년 전부터 삼도·초도 사람들이 불러온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제1호 거문도 뱃노래와 함께 술비노래는 150여년 전후해서 울릉도를 오가며 배질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라 하겠다. 거문도 뱃노래가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려 나갈 때나 만선으로 들어올 때 부른 노래라면, 술비노래는 먼 바다로 배질해 나갈 때나 울릉도를 오가며 부른 뱃노래라 하겠다.

삼도·초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오가며 부른 술비노래는 다음과 같다.

울릉도 개척사

| 술 비 소 리



간다간다 나는 간다, 에이야아 술비야.(후렴 : 에이야 술비야) 울릉도로 나는 간다(후렴), 고향산천 잘 있거라(후렴), 부모형제 잘 계시오(후렴), 인제가면 언제 오나(후렴), 오도록만 기다리소(후렴) ……

울릉도를 가서 보면(후렴), 좋은 나무 탑진 미역(후렴), 구석구석에 가득찼네(후렴), 올고간다 울릉도야(후렴), 어기영차 배질이야(후렴), 알고 간다 아릿역아(후렴), 이물에 이사공아(후렴), 고물에 고사공아(후렴), 허리띠 밑에 하장이야(후렴), 뜻을 달고 닻 감아라(후렴), 어기영차 배질이야(후렴), 술렁술렁 배질이야(후렴), 진태중이 떠나간다(후렴), 술렁술렁 배질이야(후렴), 이돈 벌어 뭐할 거나(후렴), 늙은 부모 봉양하고(후렴), 어린자식 길러내서(후렴), 먹고 쓰고 남은 돈은(후렴), 부귀영화로 살아보세(후렴)

제8절 동학농민전쟁과 여수

조 윤 선 (청주대학교 교수)

1. 19세기 중엽 농민항쟁

19세기 조선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던 때였다. 정치적으로는 개혁을 주도하던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세도정권이 시작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지주·전호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갈등, 국가에 대한 조세 부담의 증가, 중간층 관료들의 착취 등으로 인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다수의 서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사학(邪學)으로 치부되었던 서학(西學), 동학(東學) 등의 새로운 사상들은 고달픈 삶을 살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상과 이념에 대해 눈뜨게 해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민중들의 움직임과 반응은 19세기 내내 항쟁, 민중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으로 드러났다. 1811년, 홍경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평안도 농민항쟁을 시작으로 1862년 삼남지역에서 봉기의 성격을 보이며 확대되었던 농민항쟁, 이필제난, 그리고 이러한 농민항쟁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내포한 동학농민전쟁에 이르기까지 19세기는 그야말로 농민항쟁의 시대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 세기 동안 진행되었던 농민항쟁의 원인은 500년 조선왕조가 내포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 그 모순점들이 더욱 격화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세도정권이라는 비정상적 정치적 상황과 국가 재정의 고갈,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17, 18세기에 이루어진 생산력 발전과 이로 인한 백성들의 양극화 현상은 19세기 조선사회가 민란, 항쟁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저항의 움직임은 몰락 지식인 홍경래에 의해 이끌어졌던 1811년 평안도 농민항쟁이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청무역으로 인한 상공업의 발달, 광산개발 등으로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성장했으나 재정부족에 시달리던 중앙정부는 이 지역의 재원을 충당해가기 시작했고



509) 권내현, 「총경래 일조에 도전한 광민 지식인」, 「내일을 여는 역사」, 21, 2005; 오수경, 「총경래의 난, 목넓은 시각과 수많은 논생거리」, 「역사비평」, 2008, 여론회통권 63호, 2008.

510) 『崇政院日記』, 2662책, 철종 13, 6월 3일, 「公州懷德旗寧遠山斧處 各有民擾 而俱非守令之過矣 一此緣於由來弊 緒久成民情毫惡 離猶而發也」

511) 조문선, 「私の地主制의 출현에서 살펴본 壬戌農民蜂起」, 『史義』, 37·38호, 1990.

게다가 고질적인 조선정부의 지역차별로 인해 대규모적 반정부 항쟁이 발생한 것이다.⁵⁰⁹⁾ 평안도 민중들의 봉기 원인이었던 세도정권의 부패는 삼정(三政)의 운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처럼 19세기 조선 사회의 기본 생산 담당자 층인 소농(小農)은 개별적인 사적 지주와 봉건 국가로부터 이중의 수탈을 당하던 존재였고 이러한 이중의 압박이 한꺼번에 분출된 사건이 1862년, 임술년의 농민항쟁이었다.

임술년 농민항쟁은 기존의 고질적인 폐단이 쌓여 일어난 것이고 백성들의 억울한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다.⁵¹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관리들에 대한 원한 못지않게 대민(大民), 즉 사대부, 양반, 토호들의 침탈이 견디기 어려웠고 따라서 난리가 일어났을 때 원수를 갚는다면서 반호(班戶)와 이서가들의 집이나 신주(神主)를 불태우는 형태로 그 분을 풀었던 것이다.

농민들은 공주, 함평, 황주, 금산, 남해, 금구, 인동, 제주 등지에서 구폐(捲弊) 절목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⁵¹¹⁾ 내용은 대부분 삼정의 폐막과 이서충의 작폐, 사대부의 매표(理標) 광점(廣占)의 금단, 재결(災結)의 균등 분배, 군포 균등 분배 등의 시정 요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제기된 농민들의 요구는 그대로 30년 뒤에 동학농민전쟁을 통해 재현되었다.

2. 동학농민전쟁과 여수

19세기 농민항쟁은 1894년, 갑오년에 발생한 농민전쟁으로 그 정점을 치닫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의 저항은 비교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동학농민전쟁은 동학사상과 동학 조직 속에서 반봉건, 반외세의 민중항쟁으로 발전해갔다.

동학은 1860년, 최제우가 유(儒)·불(佛)·선(仙) 사상과 서학(西學), 민간 사상의 주요 내용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통해 신분, 남녀, 노소, 지위의 차별이 없는 인내천(人乃天) 사상, 시천주(侍天主) 사상 등을 설파하고 있다. 2대 교주 최시형, 3대 교주 손병희가 이끈 동학은 당시 신분제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경제적 불평등의



▲ 최제우 초상화

희생자였던 일반 소민들, 노비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동학에 입교한 교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재화를 나누어 쓰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고, 민간신앙이 가지는 주술적인 면은 교도들을 쉽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상적으로 정통적인 유교와는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동학을 정부에서는 서학과 같이 취급하였고 최제우는 1864년, 혹세무민(惑世謠民)의 죄목으로 처형당했다. 그러나 동학은 더욱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고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伸冤)하려는 노력은 농민전쟁과 연결되었다.

이필제(李弼濟)는 1869년 진천(鎮川) 작변(作變), 1870년 진주(晋州) 작변, 1871년 영해(寧海) 작변, 같은 해 조령(鳥嶺)에서의 거사 모의 등을 통해 동학도들과의 연결 속에서 표면적으로 최제우의 신원을 표방하면서 조정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였다.⁵¹²⁾

이필제 난은 이전까지의 고립분산적이며 산발적인 농민난에서 조직성을 가진 동학농민항쟁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⁵¹³⁾ 군·현을 넘어선 민란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동학의 조직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필제 난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최제우의 신원 문제는 동학교도들에게는 계속 주어진 과제이자 의무가 되었다. 동학교도들은 1892년 전라도 삼례에서 집회를 가지고 교조 최제우의 신원을 요구했고, 1893년 2월에는 궁궐 앞에서 교조의 신원을 위한 복합상소를 올렸으며 3월에는 보은에서 다시 집회를 가졌다.

그런데 2차로 모인 보은 집회에서는 최제우의 신원 문제와는 별개로 전라도 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남접이 주도하며 척왜양(斥倭洋)의 가치가 표방되었다. 충청도 보은에 모인 동학교도들의 총인원 12,400명 중 51%인 6,270명이 전라도 출신이며, 그 중 적극적으로 정치적 주장을 내세운 것은 호남의 동학 농민들이었다.⁵¹⁴⁾

그 후 1894년 1월, 고부군수 조병갑의 물세 징수 등 부당한 탐학이 도화선이 되어⁵¹⁵⁾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은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을 동원하여 고부를 점령하고 백산(白山)에서 봉기하였다. 이 때 전라도 33개 고을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집결했는데 전남은 장성, 담양, 무안, 영광, 장흥 등 17개 고을이 참여 했다.⁵¹⁶⁾ 황토현에서 관군에 승리를 거둔 후 승승장구 진격하여 장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전주로 진격하여 전라도 전역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청군의 출동과 일본군 파병이라는 정부의 강수와 농번기 등 동학군

512) 연갑수, 「이필제 연구」, 『동학학보』 6, 2003.

513) 김의현, 「辛未年(1871) 李弼濟亂致-東學파의 計劃性을 中心으로」, 「朝鮮動代의 民衆運動」下, 풍빛, 1981.

514) 이하 전남 지역의 동학군 활동상에 대해서는 이상식, 「동학농민학파과 전주, 전남」, 『전남사학』 10, 1996)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515) 동학농민전쟁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었으나 특히 호남지방의 경우, 산물이 풍부하고 농토가 기름자라 탄광오리들의 수발미 기록 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조병갑은 자신 이버지의 비석 간판 비단을 불법으로 징수했고 만석 보를 축조하여 농민들로 부터 수세(水稅)를 침탈 했다.

516) 오치열, 「동학사」, 문선각, 1973.



517) 집강소에는 현 명의 집
감과 몇 명의 서기(書記)
가 사무를 보았고 전주
에 총본부민 대도소(大都
所)를 두어 전봉준이 총
지휘를 맡았다.

내부의 사정이 맞물려 5월 8일, 전주에서 화약을 맷고 전라도 전역 53개 군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전까지 농민항쟁에서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의 폐정개혁안을 내걸고 농민군 주도의 통치가 이루어졌다.⁵¹⁷⁾

팀관오리의 숙청, 횡포한 부민의 처벌, 불량한 유생과 양반의 처벌, 노비 문서의 소각, 천인에 대한 대우 개선, 과부의 재가 허용, 인재 등용과 문벌 타파, 소작의 평분 분작(平均分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정개혁안은 19세기 이래 계속되었던 농민항쟁의 주된 이슈였다.

집강소 시기는 봉건시대의 폐정을 개혁하고 백성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양반, 토호, 부민들을 포섭하지 못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등 이들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이들이 결국 농민군 진압에 앞장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집강소 시기는 정부군에게 반격의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었고 일본군은 결국 조선에 상륙하여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본격적으로 조선의 침략 계획을 실현시켰다.

이에 농민혁명군은 다시 삼례에서 집결하여 척왜(斥倭)를 외치며 봉기하였다. 전봉준의 지시로 광주, 영광, 장흥, 해남, 무안, 장성, 나주, 함평, 순천, 보성, 담양 등지에서 전투준비를 갖추었고 교단적 색채가 짙었던 북접 역시 합류하여 대략 10만여 명이 공주로 진격했다.

전봉준의 북진 부대와는 달리 광주, 나주, 담양, 무안 등지에서 농민군들은 후방을 담당했고 특히 김인배는 순천을 점령한 후 영호대접주가 되어 순천,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 동남 지역과 경상도 일부까지 그 세력을 넓혔다.⁵¹⁸⁾

즉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주력부대가 북으로 진격하는 동안 손화중, 최경선은 남부를 담당했고 그 중 남원은 김개남(金開南), 순천·여수는 김인배(金仁培), 홍양은 유복만(劉福萬), 영광은 서우순·송문수·오태숙, 담양은 국문보·남응삼, 무안은 배규인, 그리고 함평은 이화진·장옥삼·장경삼·장공삼 형제들이 활약하면서 농민군의 전세를 확대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수의 경우, 수사(水使) 김철규(金澈奎)가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을 지킴으로써 여타 전라도 지역에서 농민군들이 승세를 올린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애초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던 당시 전라좌수사 이봉호(李鳳鎬)는 그 예하 부하들이 농민전쟁에 다수 동조하는 등 동학교도들에 대한 대응이 온건하였으나 후임으로 발령된 김철규는 동학교도에 대해 강경책으

518) 최현식, 「김모동학혁명
사」, 금강출판사, 1980.

로 일관했다.

1894년 7월 3일 임명을 받고 부임한 김철규는 부임하자마자 군교(軍校)들과 농민군 방어대책을 숙의했다. 김철규는 부임할 때 농민군대장 전봉준의 협조를 받아 무사히 여수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김철규는 부임하자마자 농민군을 토벌할 구상을 하였고 좌수영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여 농민군을 토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김철규는 좌수영에 비축된 곡식이 없어서 군량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동학도를 토벌하기 위해 인근 고을에서 1,000석을 마련해 달라는 장계를 올렸다. 이에 조정에서는 좌수영이 호남의 요충지로서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광양(光陽)의 둔전 곡식을 보내 군수(軍需)를 보충하도록 했다.⁵¹⁹⁾

이같은 좌수영의 움직임은 자연 인근 지역의 농민군 뿐만 아니라 주력부대가 진주방면으로 출전한 순천 영호대도소(嶺湖大都所)에 매우 위협적이었다. 이에 순천영호대도소를 중심으로 한 농민군은 좌수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9월 박군하(朴君河), 윤경삼(尹京三, 쌍봉 선소마을 거주) 등이 순천 농민군과 함께 좌수영으로 쳐들어와 남문(현 여수시 중앙동 로터리)에 이르러 대포를 쏘아댔다. 김철규의 명을 받은 좌수영군은 동학군 34명을 잡아다 목을 벤 다음 바다에 던졌다.

그 후 농민군이 전라좌수영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은 11월 10일이었다. 농민군 4만 여명은 덕양역에 이르러 좌수영의 정찰병을 물리치고 종고산으로 올라가 응거한 채 좌수영성 안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성의 수비가 풀리지 않자 3일간 머물다가 일단 후퇴했다.

좌수영의 군대는 11월 20일 덕양역에 진을 치고 농민군을 기습했다. 드디어 접전, 그러나 좌수영 군대는 여수에서 급히 달려온 나머지 지쳐있었고 날씨도 몹시 춥고 어두워 제대로 싸울 수 없었다. 이에 농민군은 힘을 얻어 흩어지는 관군을 좌수영까지 추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좌수영군대는 거의 궤멸되다시피 하였다.

좌수영에 도착한 농민군은 여세를 몰아 좌수영을 할텁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좌수영을 포위한 농민군과 성안에 고립된 관군사이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농민군은 1,000명이었고 좌수영 군대는 300명 정도였다.

농민군 부대는 정예병을 뽑아 서문밖에 주둔시키고 나머지는 종고산에 올라 좌수영을 협공하였다. 종고산에 진을 친 농민군은 성을 내려다보고 총을

519) 「국역승첨원일기」(한국 고전번역원), 고종 31년 갑오(1894, 개국 503) 10월 28일



520) 김철규가 동학군에 맞서 좌수영을 지킨 상황은 「金水健義傳」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차료기 관군 김철규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동학도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김철규의 벙어전에 대해서 기록한 「金水健義傳」의 전문식(鄭文植)의 문집인 「신안옹집(仙人叢集)」 역시 동학도들을 모두 사경의 부랑배들이고 지방의 불평민자들을 모아 동학의 이름을 입은 난동자들이라고 보았다(「金水健義傳」, 김계유, 민도문화사, 1988).

쏴 탄환이 마치 우박과 같이 쏟아졌다. 그 과정에서 성 안팎의 민가 3백여 호가 불에 탔으며 성안에 있던 군민들은 총, 죽창, 돌 등을 무기로 농민군과 대처했다. 520)

상황은 농민군에 의해 포위된 좌수영이 점점 불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좌수사 김철규는 11월 25일 여수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일본 쓰쿠바(筑波)함대에 비밀 서찰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쓰쿠바 군함은 11월 28일 전투부대를 좌수영으로 파견하여 좌수사 김철규를 도와 농민군을 추격, 덕양리에서 농민군을 격퇴하였다. 이 때 농민군은 사망 2명, 포로 1명이었고 대포도 2문을 빼앗기는 손실을 입었다. 이리하여 여수, 순천 농민군은 큰 전력 손실을 입었고 반대로 좌수영군대는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11월 말 이후 전세는 역전되었다. 공세적인 농민군의 기세는 꺾여 이젠 수세적인 위치로 변하였고 점점 쓰기는 상황이 되었다.

좌수사 김철규는 인근 지역에 숨어 있던 농민군을 일일이 수색해 체포하였다. 그런 다음 목을 잘라 좌수영 남문에 걸어 놓고 무서움을 갖도록 하였다. 당시 구시장(현 여수시 중앙동 로타리 앞)에는 흘어진 농민의 시체가 즐비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고 연등천 냇물은 피바다를 이루었다고 하니 그 참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여수에서 농민군을 물리친 것은 당시 수사 김철규의 역할이 커기 때문으로 '호남을 수성한 감사'로서 공덕비, 불망사적비(不忘事蹟碑) 등이 세워지고, 여수읍지 명환(名宦)조에 기록되었다. 521)

한편 좌수영 공격에 패하고 순천으로 후퇴한 영호대도소 농민군은 위기를 맞고 있었다. 상황이 정부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자 농민군을 배반하는 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12월 6일 새벽 4시, 한때 농민군 편에 가담했던 순천 성내의 관리들과 영호대도소를 공격하여 무수한 농민군을 체포해 처형했다. 그때 상황은 매우 참혹했다.

승주 쌍암면 출신의 영호대도소 도집강 정우형과 성찰(省察) 권병택은 총 살되었고, 서면 접주 김영구와 별량면 접주 남정일은 칼로 목이 잘리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94명은 맞아 죽었다. 몽둥이로 맞아 죽은 사람이 94명이나 되었으니 당시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가히 알 수 있다. 게다가 순천으로 이동한 좌수영 군대는 보복이나 하듯이 농민군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농민군과 내통한 혐의가 조금만 있어도 체포 연행하여 처형하였다.

521) 『金水記』, 卷10795; 『金水健義傳』, 卷10803

갑오년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 여수와 순천은 그야말로 피바다를 이루었고, 마을마다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같은 비참한 결과를 내고 여수, 순천에서의 동학농민전쟁은 막을 내렸다.

여수 관군들은 후에 일본군과 함께 순천, 광양, 보성, 장흥 등지에서 동학군 진압에 큰 역할을 하였다.⁵²²⁾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수에서 이루어진 관군의 방어는 전라도에서 동학군의 기세를 꺾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었다.

조선 왕조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이 누적되고 이로 말미암은 갈등이 19세기 여러 농민항쟁을 거쳐 동학농민전쟁이라는 반봉건 운동으로 이어졌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기록되게 되었다.

공주 우금치와 전북 금구(金溝) 원평(院坪)에서 관군에 대패한 후, 전봉준과 여러 동학지도자들은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결국 반봉건, 척양척왜의 가치를 내건 동학농민군의 개혁운동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 고작해야 죽창(竹槍)이나 탄환을 막는다는 부적 정도가 방어수단이었던 농민군들은 일본의 신식 무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남지역은 동학농민군의 반정부, 척왜양의 힘겨운 싸움이 최후까지 지속된 곳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곳보다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입었다. 3, 40만의 인명이 살상되고 재산 약탈, 부녀자 능욕 등의 침탈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

그러나 전쟁 과정에서 동학군들은 농민들만이 아니라 지방 양반, 부민, 유림들까지 척왜라는 목표 아래 함께 아우르고,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 냈으며 전투의 과정에서 끝까지 일본군과 대항했던 그 정신은 한말 의병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1929년의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계승되어⁵²³⁾ 민족의 독립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522) 안근, 설 지역인 통산의 강우에 있어서도 잠봉(參奉) 황종래(黃鍾來) 등이 동학군에 기감했으나 전라도수영에서 파견된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523) 이성식,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 발전-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사학》17, 2001.



제9절 항일의병운동

홍영기 (순천대학교 교수)

1. 전라남도 항일 의병의 전개 양상

한말의 의병전쟁은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났다. 항일의병이 처음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사건은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1895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자행된 을미사변(乙未事變)과 단발령(斷髮令), 그리고 이듬해 2월에 일어난 아관파천(俄館播遷) 등을 들 수 있다.

이후에도 일본의 국권침탈이 계속 이어지자 1904~1905년을 전후하여 다시 의병이 봉기하였다. 1907년 7~8월에는 일제가 자행한 고종(高宗)의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 등으로 인해 전국 방방곡곡이 의병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리하여 한말 의병은 1915년 무렵까지 활동함으로써 약 20년 동안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투쟁한 것이다.

1907년 후반 이후 약 2년간 전국 어느 곳이나 의병전쟁의 무대가 아닌 곳이 없었다. 특히 이 무렵 의병항쟁의 중심지는 바로 전라도였다. 전라도는 1908년 교전횟수와 교전의병수에서 각각 25%와 24.7%, 1909년에는 각각 47.2%와 60%를 차지한 것이다(〈표 1〉 참조). 이 지역은 동학농민전쟁이나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서 비롯된 반일의식의 확산과 전투역량이 보존됨으로써 이 시기 의병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1〉 각도별 교전횟수와 교전의병수(1908년 후반~1909년 전반)

구 분 도 별	교 전 횟 수 (%)		교 전 의 병 수 (%)	
	1908년	1909년	1908년	1909년
경기도	87(4.0)	165(9.5)	1,453(1.8)	3,453(9.0)
충청남도	217(11.0)	138(7.9)	7,666(9.2)	1,003(2.5)
충청북도	113(5.7)	66(3.8)	6,815(8.0)	832(2.2)
전라남도	274(13.9)	547(31.5)	10,544(12.7)	17,579(45.6)

전라북도	219(11.1)	273(15.8)	9,960(12.0)	5,576(14.5)
경상남도	153(7.7)	61(3.6)	3,328(4.0)	934(2.4)
경상북도	158(7.9)	161(9.3)	5,702(6.9)	3,667(9.5)
강원도	273(13.8)	124(7.2)	18,599(22.5)	2,468(6.4)
황해도	232(11.7)	111(6.4)	7,998(9.7)	2,148(5.5)
평안남도	108(5.5)	61(3.6)	1,391(1.7)	540(1.4)
평안북도	41(2.1)	17(0.5)	2,590(3.1)	123(0.3)
함경남도	99(5.0)	14(0.9)	6,438(7.8)	270(0.7)
함경북도	11(0.6)	-	283(0.3)	-
합 계	1,985	1,738	82,767	38,593

*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1, 1965, 295~296쪽.

이처럼 1908~1909년 사이에 전라도 의병은 일본 군경과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 까닭에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은, “대체로 각도의 의병을 말한다면 전라도가 가장 많은데, 아직까지 그 상세한 것을 모르니 후일에 기대하려 한다.”⁵²⁴⁾라고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전쟁에 참여하였거나 희생된 규모조차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1907년 이후 약 5년 동안 일본군경과 교전한 의병이 14만 여 명이었으며,⁵²⁵⁾ 190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희생된 의병이 14,566명이나 되었다.⁵²⁶⁾ 이로써 의병에 가담한 대강의 규모와 심각한 피해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말 의병항쟁은 ‘독립운동의 도화선’⁵²⁷⁾으로 인식되었다.

그리면 먼저 전남지역의 의병항쟁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호남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인물은 노사학파의 종장(宗匠)으로 알려진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었다.

그는 1895년 겨울에 호남의 유림들과 창의를 모색하였는데, 주로 장성의 양반과 유생들을 중심으로 의논하였다. 장성은 전남 내에서 유생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었다.⁵²⁸⁾ 이 지역은 또한 노사학파의 본고장이기도 하였으며, 노사의 손자인 기우만의 학문적 영향이 크게 미치는 곳이었다. 따라서 장성의 의병봉기는 기우만을 중심으로 한 노사 기정진의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한편, 나주에서도 기우만의 통문이 도착하자, 의병봉기를 본격화하였다.

524) 박은식, 『한국독립운동
시발사(韓國獨立運動之
血史)』, 上海 : 1920.
『박은식전서』, 서울 : 단국
대 출판부, 1975, 472
쪽.

525) 『조선독도토벌지』, 『독
립운동사자료집』, 3,
1971, 「부 표 3」,
827~829쪽 참조.

526) 『르도에 관한 편책』, 국
가기록원 : 소장, 경무
88~19, 1908, 1211호.

527) 박은식, 『위의 책』, 473쪽.

528) 『전남목도사(全南幕都
史)』, 이밀룡 역, 『비록
한말전남의병진투사』,
전남일보인서관, 1977,
20쪽.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키려는 유생들 역시 장성과 마찬가지로 근왕을 목적으로 한 의병임을 분명히 하였다. 요컨대, 1896년 봄 전라도에서 일어난 의병은 근왕의병을 지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에도 전라도에서는 의병봉기의 움직임이 있었다. 대체로 전기의병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다시 창의를 모색하였다. 예컨대, 기삼연(奇參衍)과 기우만, 고광순 등이 그들이다.

또한 1896년의 의병봉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창의에 나섰다. 최익현(崔益鉉) · 백낙구(白樂九) · 양한규(梁漢奎) · 양회일(梁會一) 등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면암 최익현(1833~1907)은 호남의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에 의병을 주도한 의병장들은 대체로 유생이면서도 성리학 지배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명분론을 극복하면서 반침략적 보국론(保國論)을 내세웠다. 다만, 보국론은 애국계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실업을 장려하여 민력에 충실을 기해야만 보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⁵²⁹⁾ 다시 말해 즉각적인 무력투쟁을 통해서만 보국할 수 있다는 의병세력과는 방법론에서 달랐을 뿐 국권을 수호하려는 목표는 같았던 것이다. 요컨대, 중기의병의 봉기는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고 국권을 수호하려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1908~1909년에 이르러 전라도는 의병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당시 전라도의 의병항쟁은 김동신 · 고광순 · 기삼연 · 김준 · 김율 · 이석용 · 문태서 · 전해산 · 심남일 · 안규홍 의병장 등이 이끌었다.

당시 의병장 중에는 지식이 풍부한 유생도 있으며, 중인에 속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머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이 존재되어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을 중시하였다. 예컨대, 의병들은 세금의 징수, 가짜 의병의 침탈 방지, 부호들의 토색 방지, 미곡의 일본 유출 방지 등과 같은 안민적 의병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의병장 안규홍이 주도하던 '안담살이 의병'은 그러한

529) 『황성신문(京城新聞)』, 1907년 5월 6일자와 10일자 논설 「보국론(保國論)」, 참조



▲ 대구감옥에 갇혀있는 전라도 의병장 16인(『여수함일의병사』(2006))

면에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⁵³⁰⁾

이와 같이 의병은 일제의 침탈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의병과 주민 사이의 유대가 한층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남지역에서 활동한 박용식(朴鏞植) 의병장은 주민과의 관계를 “의병과 주민은 머리와 꼬리처럼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어려울 때는 서로 돋고 서로 의지하는 바가 마치 부자형제의 허물없음과 같다.”고 표방할 정도였다.

한편, 전라도 남해안 일대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은 도서(島嶼) 지역을 의병의 일시적 피난처 혹은 의병의 근거지로 이용하였다. 일제가 “근래의 의병은 여러 섬에 집중하는 경향”이라거나, 도서지역을 ‘의병의 소굴’로 인식한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 도서지역을 의병의 근거지로 이용한 의병장으로는 심남일과 안규홍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연안을 끼고 활동하였으므로 손쉽게 도서지역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여수지역 의병활동의 전개

여수에 항일의병의 발길이 본격화된 것은 1906년 중반 무렵으로 보인다.⁵³¹⁾ 1906년 6월, 최익현은 전 낙안군수 임병찬(林炳璉)과 함께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수백 명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태인의병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포된 통문이 「황성신문(皇城新聞)」 1906년 4월 5일자에 실려 있다.

병가승패는 강약이둔(強弱利鈍)에 있지 않고, 오직 지략과 용맹을 갖춘 장군이 충의의 군대를 통솔하고 일심동력(一心同力)한즉 가히 대사를 도모하나니 (중략) 군을 의제(衣制) 기계 규례(規例) 등 여러 조항은 나중에 통문을 내겠노라. 그리고 모임 장소와 일자는 계속 알릴 터이니 모두 예비해서 통문을 기다리되 게으르거나 촐랑대지 말고 후회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천만 다행이겠노라. 발통인(發通人)은 전남 흥도(興島)에 거주하는 장제세(張濟世)·조안국(趙安國)·장옹천(張應天) 등 (중략) 이 통문은 시도(市都)에 도착하는 즉시 향청(鄉廳)에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현대문으로 수정).

위의 인용문은 전북관찰사 한진창(韓鎮昌)이 내부(内部)에 보고한 것을 『황

530) 염재언, 「노월현유고(蘆月軒遺稿), 「忿弟在輔行錄」 참조.

531) 한말 여수지역 의병상황을 본격적으로 다룬 글은 총영기, 「1900년대 일제의 침탈과 여수의병의 활동」(『여수방일운동사』, 여수시, 2006)이 거의 유일하다. 이 글은 그것을 「여수시사」 편집방침에 맞추어 다소 수정하여 계재한기에 따로 각주를 달지 않았음을 밝힌다.

532) 임병찬의 「의병합동일기」, 한국인문과학원, 1986, 45~46쪽에도 같은 내용이 손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신문』에서 게재한 것이다.⁵³²⁾ 의병에 가담할 것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언제 어디로 집결해야 할 것인가를 통문으로 계속 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음력 3월 1일 밤 김제읍 근처의 상점 벽에 게시되어 있었다. 각 군의 향장(鄉長)과 수서기(首書記) 및 주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향청(鄉廳)을 중심으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유생들이 주도한 의진임에도 불구하고 군율·의제·기계·규례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예를 들면 당시 태인의병의 지도부는 군율의 경우 군사 비밀을 누설한 자, 겁을 먹고 후퇴하는 자, 부녀를 겁간하는 자 등은 참수(斬首)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복장은 모일 때 패랭이(平涼子)와 넓은 소매의 두루마기를 착용하되, 전투복 상의는 황색, 전대(戰帶)는 청색, 수건은 흥색으로 염색해서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무기는 창이나 칼·활 등을 각자 지참할 것과 배낭 1개, 군량은 각자 2되와 취사도구를 갖추라고 하였다. 심지어 상호간의 군호(軍號)를 정하여 비밀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였다.⁵³³⁾ 이처럼 의병 가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이는 임병찬 등이 동학농민전쟁 당시에 농민군을 방어하는 조직을 운용한 경험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통문을 통해 군율을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점과 옷의 형태와 색상, 무기자단(武器自擔)의 원칙 그리고 귀천(貴賤)보다는 지략과 용기에 의해 선발한다는 점 등을 천명하였다.⁵³⁴⁾ 이들이 표방한대로 실행되었는가의 여부를 떠나 양반 유생 중심의 의병부대가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최익현, 임병찬 등의 의병봉기는 전남 동부지역을 비롯한 전라도 전 지역의 의병기운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의병항쟁을 고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⁵³⁵⁾

당시 기우만을 중심으로 재봉기가 추진되고 있었다. 기우만 등은 통문을 목판으로 인쇄하여 각군에 유포하였다.⁵³⁶⁾ 이와 관련된 정보가 일제의 경찰기관과 전라남도 관찰부에 계속 보고되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태인의병의 지도부는 양자간의 의견을 조

533) 위의 책, 「창의일기」, 205쪽.

534) 『한성신문』 1906년 4월 5일자 「全報義通」과 임병찬, 위의 책, 45~40쪽.

535) 총영기, 「호남의병일백년」(35), 「무릉일보」 1995년 6월 21일자.

536)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29일자 「藝文刊集」.



▲ 의병장 기우만(기정진의 손자)

정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다.

그리하여 1906년 음력 2월 전북 태인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5월 말에는 전남 담양의 용추사(龍湫寺)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병을 일으키자는 것에는 모두 동의함으로써 최익현의 이름으로 격문을 지어 각 군에 발송하였으며, 동맹록도 작성하였다. 용추사 모임에서 지은 격문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종실·세신·관찰사·수령 및 선비·농부·공장·상공·서리·승려까지도 일
제히 분기하여 마음과 힘을 합쳐 원수 오랑캐를 무찔러 그 종자를 없애고 그 소굴
을 불지르며, 역적의 도당을 섬멸하여 그 머리를 베고 그 사지를 찢어서 위태로움
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의 명맥을 튼튼히 하고 (중략) 위 격문을 삼가 순천·낙안·
홍양·여수·돌산·광양·장흥·보성·강진·해남·완도에 통고한다.⁵³⁷⁾

모든 계층이 단결하여 항일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주로 순천·여수를 비롯한 전남의 동부지역과 서남부의 연해 도서지역에 격문을 발송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로써 보면 태인 의병이 일어난 1906년 봄을 전후하여 여수와 돌산을 포함한 전남 동부지역에 태인 의병에 관한 통문이 유포되었다고 믿어진다. 앞에서 소개한 인용문에 전남 홍도(興島)에 거주하는 장제세·조안국·장응천 등이 이때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이러한 통문을 받은 여수와 돌산 등지의 우국지사들, 지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잘 알 수 없다.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민 중에 얼마나 태인 의병에 가담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은 1905년까지는 의병항쟁의 소용돌이에서 다소 비켜나 있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점차 전남 동부지역의 우국지사들이 타 지역의 의병 투쟁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활동이 널리 확산되지는 못하였지만, 지역민의 항일 의식을 고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믿어진다.

더욱이 1907년 후반부터 일어난 후기 의병의 진원지는 단연 전라도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에서 수많은 의병장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이 대소의 의병부대를 이끌고서 조국의 산야를 누비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남 동부지역으로도 자연스럽게 의병의 불길이 확산되었다.

537) 최재학, 「면암선생·창의 전말」, 『독립운동사자료집』, 1970, 67쪽.

특히, 순천을 중심으로 한 의병활동이 거세어졌다. 그것은, 의병의 활동에 유리한 깊은 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순천의 조계산을 비롯하여 광양의 백운산, 구례의 지리산 등 높고 깊은 산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의병활동의 입지적 조건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⁵³⁸⁾

538) 흥명기, 「대한제국기 의병향성」, 『순천시사-정치·사회편』, 큰기획, 1997, 584쪽.

1907~1908년을 전후하여 광양의 백운산에는 황병학 의병부대, 순천의 조계산에는 보성 출신의 안규홍, 순천 출신의 강진원·조규하 의병부대, 구례의 지리산에는 고광순·김동신 의병부대가 유격전을 펼치며 일본군경을 괴롭혔다. 특히, 안규홍은 꼬마머슴(깔담사리) 출신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평민의병장이었다. 하지만 여수를 기반으로 활동한 의병부대는 거의 존재를 찾기 어렵다.

그러던 중 1908년 초 여수에서도 의병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글이 그러한 내용을 보여준다.

여수군은 지형상 순천반도로서 시국에 관하여는 당부내중(當部內中) 가장 평온한 곳이었는데 2월 13일 여수군 읍내 동문 외에 의병대장이라 서명한 격문이 첨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해 왔다. 그 후 경계를 더하고 있는데 작금에는 이상이 없다.⁵³⁹⁾

539) 『한국독립운동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80, 253~254쪽.

1908년 2월 13일, 드디어 여수에도 의병장의 격문이 읍내에 붙여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무풍지대나 다름없던 여수에 풍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격문이 붙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다. 10월에 들어서야 비로소 순천과 가까운 장도(獐島)의 일본인 집에 의병 40명이 습격하여 무기 등을 징발해갔다. 여수에서 발생한 반일투쟁의 내용을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여수에서의 항일의병활동(『폭도에 관한 편책』에 의거)

의병부대명(규모)	교전 날짜	교전 장소/대상	전과와 피해	비고
미상(40)	1908.10.27	돌산군 장도/일본인	엽총 등 무기 노획	
미상(24)	1908.12.16	돌산군 옥정면		출현
미상(?)	1908.12.27	돌산군/돌산순사주재소	순사주재소 공격	
미상(15)	1909.1.12	여수군 삼일면/주민	금품 강징	
미상(10)	1909.1.13	여수군 쌍봉면		출현
미상(20)	1909.1.14	여수군 덕안면/주민	금품 강요	
미상(20)	1909.1.15	여수군 덕안면/주민	금품 및 영수원 탐문	

미상(10)	1909.2.8	여수군 울촌면	순천영수원 세금강징	출현
장아무개(17)	1909.2.9	돌산군 금산면/주민	군수강징	
미상(20)	1909.2.27	· /고흥 동장	고흥 동장 납치	출현
미상(14)	1909.3.25	여수군 울촌면/재무서원	세금 강징	
장아무개(35)	1909.4.5	돌산군 초도/주민	무기 등 군수 강징	
· (37)	1909.4.7	돌산군 손죽도/일본어선	일본어부 살해	
미상(20)	1909.4.12	여수군	순천 군수 강요	출현
미상(30)	1909.4.14	여수군 손죽도	(일본인 구축 주장)	출현
미상(20)	1909.5.18	돌산군 고금도/재무서원	일본인 재무서원	
이학사(2)	1909.5.23	돌산읍 주재소	돌산군내 정찰	
미상(15)	1909.5.27	여수-순천간/체송인	일인 우편체송인 살해	
미상(7)	1909.7.4	여수군 구산면/주민	군수 강요	
미상(8)	1909.7.14~15	여수군 화양면/주민	군수 강요	
미상(40)	1909.7.15	돌산군 백일도		출현
미상(70)	1909.7.20	돌산군 적적도/일본어부	조업 일본어부 공격	
장아무개(300)	1909.7.24	돌산군 거금도	의병 3명 전사	출현
안규홍(40)	1909.8.12~13	돌산군 봉래면/순사대	의병 1명 체포	
미상(?)	1909.8.21	돌산군 태인도/수비대	의병 9명 전사	
미상(10)	1909.8.22	여수군 화양면/일본어부	일본 어부 2명 중상	
미상	1909.8.29	여수군 울촌면/순사대	의병 1명 전사	
미상(13)	1909.8.30	여수군 삼일면		출현
미상(수십)	1909.9.3	여수군 삼일면/수비대	의병 10명 사상	
강승우(4)	1909.9.17	여수군 울촌면/주민	군수강요 및 납치살해	
강승우(10)	1909.9.20	여수군 울촌면/정찰대	작전으로 잠복중 체포	
김경윤(38)	1909.9.18	여수군 화양면/수비대	의병 20여 명 사상	
강승우(30)	1909.9.28	여수군 울촌면/수비대	의병 10여 명 사상	
김경윤(수십)	1909.9.26	여수군 화양면/수비대	김경윤 등 체포, 자수	
김아무개	1909.9월하순	여수군/수비대	고흥출신 김모 전사	
미상(20)	1909.10.8	여수/수비대	의병 9명 전사	
미상(100)	1909.10.21	여수군 원포/수비대	의병 28명 전사	
조아무개(13)	1909.10.31	여수군 울촌면/수비대		
미상(15)	1909.11.17	여수군 달천/순사대	의병 1 전사, 2체포	
조병현(15)	1909.11.17	여수군 죽곡/수비대	의병 5 전사, 1 체포	
미상(16)	1909.12.2	여수군 임안면		출현
미상(5)	1909.12.9	여수군 거금도/경비대	의병 5명 체포	
미상(30)	1909.12.25	돌산군 읍내/주재소	순사주재소 공격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여수에서 활동한 의병들은 대체로 적계는 10명에서 많게는 40명 등 수십 명을 단위로 대일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소규모 부대를 운용한 이유는 유격투쟁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경의 활동을 분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반일활동이 주로 이루어진 지역은 예전의 돌산군의 여러 섬과 여수 인근의 해안, 그리고 순천과 가까운 울촌면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주된 공격 대상으로는 일본 군경, 순사주재소, 재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어부들이 많았다. 그들이 일본 침략의 첨병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 이민을 온 일본 어부들은 이들이 활동하는 도서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한국인 어부들과 어장의 침탈, 근대적인 어선과 어구의 사용에 의한 높은 어획량 등으로 인해 마찰이 잦았기 때문이다.

1908년 11월 어업법(漁業法)이 시행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연해 도서지역 어민들은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어업법의 시행으로 일본인들의 어업권 장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⁵⁴⁰⁾

예컨대, 1909년 4월 현재 경상·전라 연안에 일본인들이 청원한 어업권만 하더라도 약 1만 건이나 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일본인들의 어업권 침탈의 실상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⁵⁴¹⁾ 결국 생존권을 위협받는 연해 도서지역 어민들은 일본 어부의 이주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의병들은 본래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거나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조선에 이주한 일본어민이나 농민들을 공격하는 활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한 사례의 하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09. 4) 7일 오전 8시경

돌산군 손죽도의 연안에서
약 40명의 폭도는 동소에
정박하고 있던 일본 어선을
습격, 향천현인(香川縣人)
화전태랑(和田太郎)을 참살
하고 동인의 소지금 150원



▲ 손죽도 일바다

540)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2일자 「어업법 시행에 대하여」

541) 흥영기, 「구한말 천리남 도서지방 의병에 대한 일고찰」, 『동아연구』 21, 24쪽.

을 약탈하였으며, 어구 어망을 바다 속에 버렸다.⁵⁴²⁾

^{542) 「한국독립운동사」 14, 1985, 178쪽.}

의병들이 남해안에 진출한 일본 어민을 처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의병이 일본 어민의 조선 진출을 적극 저지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어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 어민들은 조선인 소유의 어장을 불법적으로 약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처사에 조선의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영광의 어민들은 결사대를 조직할 정도였다. 따라서 의병들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본에서 이주한 일본 어민들을 자주 공격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여수에서 활동하는 의병들은 연해·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활동 목표와 방향을 전달하며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단체는 3척의 배로 행동하는데 1척의 승조(乘組) 인원 15~6인 또는 20여 명을 승조하고서 흥양·돌산·해남·완도군 여러 섬의 해안을 몰래 항해하고 일본인을 동해 바깥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안될 차제로 결코 동포인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통과를 일본인에게 알림을 금한다.⁵⁴³⁾

^{543) 원미, 책 414쪽.}

이들은 여러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주로 남해의 여러 섬을 근거지 삼아 활동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일본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표 2>에 보이듯이, 의병들은 재무서원이나 우편체송인을 공격하였는데, 그들이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당시 의병들은 납세 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병들은 세금을 거두는 재무서원이나 우편체송인들을 공격하였으며, 납부한 세금을 징발하여 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1909. 3) 25일 오후 9시 폭도 1백여 명이 여수군 율촌면 평촌리에서 여수재무서 주사 양명희 외 4명이 숙박한 집을 습격하여 주사 양 및 공전영수원 김문수를 살해하고 세금 2백 원, 백목면 15필을 약탈하고, 지방위원 김봉은 외 3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어디론가 가버렸다.⁵⁴⁴⁾

^{544) 「한국독립운동사」 13, 1984, 741쪽.}

의병들이 여수 유품면에서 재무서원, 공전영수원 등을 처단했다는 것이다.



의병들이 세금을 거두는 자들을 응징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거둔 세금을 징발하여 의병활동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세무관리나 우편체송인을 자주 공격하였다. 면장이나 이장 등도 징세업무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의병들의 표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전남지역에서는 일본의 계획대로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으며, 의병에게 세금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들은 주민들로부터 군수품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세금을 빼앗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의병활동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들로부터 군수품을 징발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1908년 후반부터 약 1년 동안 여수지역은 약 43회의 의병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독자적인 의병조직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전라도에서 가장 늦은 시기까지 항일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들은 일본 군경과 맞닥뜨려 교전할 경우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의병의 열악한 무기체계와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병의 피해는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특히, 1909년 9월부터 전라남도에서 실시된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 (1909. 9~10) 기간에 의병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을 섬멸하기 위해 일본 군경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수 출신이거나 여수에서 활동한 의병장과 일반 의병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단편적이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한 형편이다.

아래 <표 3>에 제시된 의병장들의 활동은 일본측 기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5명 정도가 파악되는데, 그중 돌산을 포함한 여수 출신은 5명이다.

나머지 의병들은 고흥·보성·순천 등 대부분 전남 동부지역 출신들이 많다. 이들은 1909년 9~10월에 실시된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을 전후한 시기까지 활동하였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일제에 끝까지 저항하였던 것이다.

〈표 3〉 여수에서 활동한 의병의 주요 구성원

이름(연령)	출신지(직업)	소 속	활동 시기	비 고
장아무개	장흥?	의병장	1909	장인복으로 추정?
안규홍(30)	전남 보성(머슴)	의병장	1908~1909	체포
강승우	전남 순천?	의병장	1909	조규하의 副將 강진원과 동일인?
김경윤(35)	전남 고흥	의병장	1909	약 100명, 체포
조병현		의병장	1909	'호남의장' 표방
김성택(33)	전남 돌산군 초도(주막업)	황준성	1909	징역 3년
김원석(30)	전남 여수군 덕안	강승우	1909	이장 처단
박덕삼(46)	전남 화순	이석용	1909	이장 피살
박우섭(30)	전남 여수군 율촌	강승우	1909	이장 처단
박춘도		강승우	1909	강승우 부장
신태휴(22)	전남 구례군 간전	강승우	1909	이장 처단
양영만(35)	전북 남원	이석용	1909	돌산군 정찰, 피살
이병현(31)	전남 돌산군 초도(뱃사공)	황준성	1909	징역 2년
이선웅(25)	전남 고흥	안규홍	1909	피살
정기채(30)	전남 여수군 율촌	?	1909	세무관리 처단, 피살

위의 의병장 가운데 전남 동부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벌인 의병장으로는 안규홍을 꼽을 수 있다.⁵⁴⁵⁾ 일제는 그를 “가장 용감하고 가장 출몰이 기민하다”고 평할 정도였다. 안규홍은 곧잘 담살이라 불렸는데, 그것은 꿀베는 꼬마머슴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가 10여 세를 전후하여 약 20년간 머슴으로 지내오다가 의병에 투신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9일자 「머슴군의병」에 이렇게 실려 있다.

545) 흥양기, 『대한제국기·호남의병 연구』, 제2부·제3장 제4절 참조.

수십 년 동안 머슴을 살았던 한 젊은이가 근처에 있는 머슴 백여 명을 모아 연설하기를 “우리가 남의 집의 고용이나 국민되기는 일반인데, 나라 일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농가에서 구차하게 살겠는가” 하며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동료 머슴들을 의병에 동참시킨 것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가난한 농민들이 의병을 일으킨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장 아무개 의병장의 활동이다. 그는 여수를 비롯한 연해 도서 지방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활동했던 인물이다. 전북 부안 출신이라 자칭했다고 하나, 주민들은 그를 장홍 출신으로 추정하였다.⁵⁴⁶⁾ 그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연해 도서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 중에서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장인복이다. 장인복(혹은 장인초)은 심남일 및 안규홍 의병부대에서 선봉장으로 활동하다가 독립하였다.⁵⁴⁷⁾ 그는 대체로 장홍·고홍·여수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09년 9월에 체포되었다. 그는 전남 능주 출신으로, 의병에 투신하기 전에는 목수였다.

강승우(혹은 강진원)는 조계산을 비롯한 순천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조규하 의병부대의 부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독립한 의병장이다. 그는 강승지로 불린 것 같은데, 191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체포되지 않아 행적이 다소 애매한 편이다.⁵⁴⁸⁾

그는 일제측 기록에 자주 나오는데, 순천 출신의 강진원 의병장과 동일인 일 가능성성이 높다고 생각된다.⁵⁴⁹⁾ 그는 1909년 8월에 일제의 폭압적인 군사 작전을 피해 남해의 연내도(蓮內島)로 들어갔다가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그는 고향인 쌍암의 오성산 동굴에 은신하였다고 한다. 10여 년 동안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잠복해 있던 그는 1921년 8월 하순에 발각, 체포되었다. 그는 당시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옥중에서 스스로 혀를 물고 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요컨대, 강승우 의병부대는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병현 의병장은 거의 알려진 사실이 없으며, 김경운 의병장은 고홍 출신으로 추정되는데 연해 도서지방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⁵⁰⁾ 그가 체포됨으로써 그의 부하 약 50명이 자수할 정도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의 행적 역시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 아쉬울 때이다.

한편, 전북 진안 출신 의병장 이학사, 즉 이석용은 부하들로 하여금 순천·여수·돌산 등지를 정찰시킨 사실이 주목된다.

(1909. 5.) 23일 오후 1시 관내 돌산주재소 순사 관창웅(關昌雄)은 소재 순회증 남문 밖에서 거동이 괴이한 2인의 한인이 통과함을 인지하고 때마침 들어온 읍

546) 「한국독립운동사」13(국사편찬위원회, 1984), 378쪽.

547) 흥영기, 「대한제국기·호남의병 연구」, 552쪽.

548) 「한국독립운동사」15(국사편찬위원회, 1985), 826쪽.

549) 「순천시사-정치·사회편」, 569쪽, 강진원 의병장의 활동에 대해서는 흥영기, 「김진원 의병장의 생애와 활동」(『남도문화연구』 12, 2006)을 참고할 것.

550) 「한국독립운동사」15, 765~767쪽.

민 임순관을 양인에게 미행시켜 그 행동의 내정을 명하였던 바 약 1시간을 경과하여 동인의 내보에 의하면 한 사람은 남문 안에서 빗 4~5개의 팔려고 하고 있으나 다른 한 사람은 읍내외와 주재소 및 감시초병 숙사의 후편을 배회하여 그 전원이 부재임을 알고 후편 돌담장을 올라가서 친히 그 내외를 정찰(중략) 그는 순사의 내함을 인지하자 병사 후편 산중으로 도주하였으나 추적 약 5정여에 추급하여 이를 체포하였다. 동시에 그 등류로 인정되는 빗장사도 인치 엄중 취조한 바 양명은 적과 이학사(이석용 : 필자주)의 부하로 (중략) 순천·홍양·여수·돌산의 각군에 있어서의 일인수 및 그 행동을 내정할 명을 떠고 5월 2일 그 향촌을 출발 이미 순천·여수 양군의 정찰을 마치고 본월 22일 돌산읍에 와서 정찰중 체포된 것이라고 한다.⁵⁵¹⁾

551) 「한국독립운동사」 15, 439~440쪽.

전북에서 1907~1908년 사이에 활동한 이석용 의병장이 부하로 하여금 1909년 5월에 남해안 일대를 정찰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석용 의병장은 1910년 일제가 강점한 이후에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비밀결사를 조직했다가 발각되어 체포, 순국한 인물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이석용 의병장은 전남 동부와 그 인근 연해 지역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 후 이곳을 기반삼아 다시 거병할 의도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찰활동을 수행 중이던 의병 2명이 체포됨으로써 그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의병 가운데 김성택과 이병현은 모두 초도(草島) 출신으로서 완도·해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배수 출신 의병장 황준성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황준성은 전북 전안출신의 유생으로 최익현·임병찬이 주도한 태인의병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완도로 유배된 인물이었다.⁵⁵²⁾

552) 『충무기』, 『구한말 전라남도 도서지방 의병에 대한 일고찰』, 『동아연구』 21, 1990, 25쪽.

그는 10년 유배형에 선고되어 1908년 2월 완도에 정배되었는데, 그곳에서 학동들을 가르쳤다. 1908년 말~1909년 초를 전후하여 의병출신 유배수들은 어업법(漁業法)의 시행으로 동요하는 어민들에 의해 의병장으로 추대되거나, 스스로 섬주민들을 불러 모아 의병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당시 의병출신 유배수들은 대부분 완도와 진도 등지에 정배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주로 완도와 진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⁵⁵³⁾ 그런데 완도에서 의병장에 추대된 황준성 의병부대에 김성택과 이병현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아마도 황준성 의병부대가 초도에 왔을 때 가담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다.

553)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74, 796쪽.



한편, 정기채·김원석·박우섭 등은 여수 출신인데, 이들에 대한 행적 역시 잘 알 수 없다. 정기채는 율촌면에서 여수재무서 세무관리의 척단을 주도한 의병이었고, 강승우 의병부대에서 활동하던 김원석과 박우섭은 이장을 척단한 의병이었다. 이로써 이들이 납세거부투쟁과 의병부대의 군수품 조달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의병의 경우에도 그들의 행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여수에서 활동했던 의병장과 의병의 연령은 대부분 20~30대의 청장년층으로서 왕성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전라도 의병의 반일투쟁이 고조되자, 일본측은 아래와 같이 평하였다.

쪽도(의병: 필자주)들의 행동은 극히 교묘하여 대낮에는 양민을 가장하고 공연히 군청 소재지를 배회하면서 관서의 동정을 정찰하고, 만약 좋은 기회를 잡으면 곧 자객적 행동을 감행, 총기·탄약·재화를 약탈하고 혹은 허를 틈타 저격 기습하는 등 그 은현출몰(隱現出沒)을 미리 헤아릴 수 없었다.⁵⁵⁴⁾

554) 「조선목도로벌지」, 「독립운동사자료집」 3, 771쪽.

의병의 재빠르고 과감한 기습 공격에 일본측은 거의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 전남 동부지역의 의병들도 일본군경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천·고흥·여수·돌산 등에 밀정을 파견하였다. 예를 들면, 앞에서 보았듯이 이석용 의병부대의 양영만과 박덕삼은 돌산읍내의 주재소·감시초병의 숙소와 일인의 숫자와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빗장수로 가장하여 침투한 적도 있었다.⁵⁵⁵⁾

555) 「한국독립운동사」 14, 439쪽.

전남 동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들은 위장술에도 능하여 주간에는 흰옷, 야간에는 검은 색이나 다갈색(茶褐色) 옷을 입음으로써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⁵⁵⁶⁾

556) 「한국독립운동사」 16, 151쪽.

3. 일제의 의병탄압과 항일의병의 대응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의병의 활동이 거세질수록 일제의 의병탄압도 더욱 강력해졌다. 일제는 강온책을 병행하였는데, 한편으로는 귀순을 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와 경찰병력을 증강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전남 지역의 의병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즉, 의병장 기삼연·김준·김률 등이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일반 의병 수백 명이 전사하거나 붙잡혔다.⁵⁵⁷⁾

그리고 일제는 1907년 12월에 ‘귀순 및 면죄에 관한 조칙’을 발효시켜 의병의 귀순을 적극 권유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도마다 선유위원회를 파견하였으며, 수비대와 현병대 및 도·군 등의 기관에서도 귀순자를 받아들였다.

일제는 매달 기관별로 귀순자의 숫자를 파악하였는데, 1908년 10월까지 총 8,728명의 의병이 귀순하였다. 경찰서에 귀순한 5,129명 가운데 전라남도의 관내 경찰서에는 고작 65명이 귀순하였을 뿐이다.⁵⁵⁸⁾

다시 말해 전라남도는 의병의 규모와 활동에 비해 귀순에 응하는 의병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자 일제는 강경책을 구사하기 위해 현병대와 순사대를 대폭 증강하였으며, 전담 토벌대를 편성하여 투쟁력이 강한 의병부대를 끝까지 추적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⁵⁵⁹⁾ 이에 따라 일본은 강력한 반일 투쟁을 전개하는 전남 동부지역 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 마련에 부심하였다.⁵⁶⁰⁾

거문도의 경우에는 일본인 스스로 자위대를 조직하여 의병의 공격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황성신문』 1909년 4월 16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주목된다.

[거문자위] 지난 11일 광제호(光濟號)가 거문도에 왔는데 동도 일본인은 군용 보병총 10정 및 탄환을 빌려서 재류하는 일본인 자위대를 조직하고 동도 보호의 방법을 완비하였다더라.

거문도에 사는 일본인들이 자위대를 조직하여 무장하고서 의병에 대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일제는 대규모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이 그것으로, 일제는 조선에 파견된 보병 2개 연대를 비롯한 육해군 조직을 총동원하여 전남지역 의병을 진압하려는 것이었다.

1909년 9월 현재 전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의병의 규모에 대하여 일제는 경찰서 관할별로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557) 「폭도사면집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 3, 560쪽.

558) 『한국독립운동사』, 12, 698~703쪽.

559) 『전남폭도사』, 107쪽.

560)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2일자 「의병진압 협의」

〈표 4〉 1909년 9월 전남지역 의병의 교전횟수와 피해현황

경찰서	교전횟수	의병규모	의병의 피해상황			
			전 사	부 상	피 체	피탈총기
광주	16	230	3	-	3	21
나주	3	133	1	-	4	-
목포	3	41	-	-	8	-
순천	18	559	26	10	12	15
장흥	1	40	59	2	160	101
제주	3	10	-	-	4	-
계	44	1,013	89	12	191	137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85. 560~561쪽

1,000여 명의 전남지역 의병 가운데 절반 정도가 순천경찰서 관내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4〉는 추정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의 경향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 가운데 순천경찰서 관내의 의병들이 후기의병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는 여수를 비롯한 연해 도서지역의 의병활동이 포함되었음을 물론이다.

일본은 연해 도서지역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비선을 배치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8일자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다.

〈경비선 배치〉 경비선 10척은 내부 경무국에 속하고 6척은 탁지 관세국에 속했는데, 경무국 소속 10척 내에 5척은 목포에 매고, 5척은 여수군에 매여 해남과 추자도로 출포까지 관할하고, 여수군 해안으로 해남과 추자도까지 관할하기로 작정

여수와 목포에 각 5척의 경비선을 소속시켜 관할구역을 확정하고 있다. 이후 내부 소속의 경비선단은 연해 도서지역의 의병 진압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으며, 탁지부 소속 경비선단은 어선 보호를 명목으로 밀어선을 단속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⁵⁶¹⁾

한편, 진압작전 중에 일본의 잔인한 만행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이에 대하여 황현은, “일병들이 길을 나누어 호남의병을 수색하였다. 그

561) 『한국독립운동사』 1, 870-874쪽 및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8일자 「경비선소용」, 11월 21일자 「전남의병」, 12월 4일자 「경비선소식」, 『신한민보』 1909년 9월 22일자 「의병로병선」, 『황성신문』 1910년 2월 27일자 「해적체포」 등을 참조.

들은 그물치듯 사방을 포위하였으며, 촌락마다 살살이 수색하고 집집마다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즉시 죽였다. (중략) 이때 사망자수는 무려 수천 명이었다.”고 기록하였다.

진압작전이 끝났을 때 다수의 의병장을 비롯하여 약 500명이 전사하였고, 약 2,000명이 붙잡혔다. 일제는 이 기간에 체포된 의병 가운데 약 600명을 동원하여 해남-하동간 도로의 확장공사에 강제로 투입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현재의 국도 2호선은 이른바 ‘폭도도로’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 전남지역의 의병을 철저하게 유린한 후 1910년 8월에 강제로 점령하였다.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하는 데에 전남지역의 의병활동이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청난 타격을 받았음에도 전남지역 의병들은 독립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즉, 중기의병을 주도하였던 임병찬은 독립의군부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 1912년부터 추진되었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밀결사였다. 여기에는 의병 출신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다.

1914년 독립의군부 조직이 탄로나자, 임병찬은 1914년 거문도로 유배되었다. 거문도에서의 유배생활은 [거문도일기]에 잘 정리되어 있다. 요컨대, 여수를 비롯한 연해·도서지역 의병항쟁은 호남의병의 대미를 장식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활동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연해·도서지역의 의병은 어업법 시행 등과 관련하여 190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1908년 11월에 시행된 어업법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을 일본인들이 장악해 가자, 연해·도서지역 주민들은 도처에서 생계의 수단을 빼앗겼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섬 주민들은 반일감정을 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이전까지 이 지역은 의병과 관련하여 내륙의병의 일시적 근거지나 잠복 장소 그리고 유배수들의 정배지(定配地)로서 가능했을 뿐 독자적인 창의 움직임은 없었다.



▲ 돈한 임병찬 순국비 (거문도)

둘째, 연해·도서지역 주민들의 반일감정은 의병관련 유배수들의 지도에 의해 의병봉기로 표면화되었다. 이들이 의병에 투신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어업법의 시행과 같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서 찾아진다. 완도와 진도 등지에는 유배수 가운데 내란죄, 즉 의병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유배 온 자들이 많았다. 그중 황준성은 섬 주민들을 의병에 가담시켜 도서지역에서 전개된 의병활동을 주도하였다.

셋째, 연해·도서지역 의병들은 일본의 군경과 재류일본인들을 축출하는 활동, 다시 말해서 반일투쟁을 중심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로 인하여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도서 지역에 침투한 일본 어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즉, 이 지역 의병들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저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의병활동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세거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도서지역은 [의병의 소굴]로 간주되었다.

넷째, 연해·도서지역 의병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은 의병의 활동 정도에 따라 변화되었다. 1908년 말을 전후한 시기에는 제어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군경의 증원이나 소규모의 토벌대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본측은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웠다. 대규모의 일본군경을 동원하여 일시에 진압하려는 계획으로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이 그것이다. 게다가 도서지역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많은 경비선을 동원하였다. 결국 이 지역 의 병부대를 주도한 대표적인 의병장 황준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의병들이 피살되거나 혹은 자수, 체포되고 말았다.

다섯째, 일본측은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종료한 직후 주목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나는, 도서지역에 잠복한 의병을 색출하고 내륙과 도서를 효과적으로 경비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안 도서에 경비선을 집중 투입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병의 재발 방지와 내륙과 도서지역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의병 재발시에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해남-하동 간 도로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치로써 일본측에 의해 [유수한 산업지]로 평가되어온 전라남도 지방은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의병전쟁은 1894년에 봉기하여 1915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약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의병들은 불굴의 의지와 투쟁역량을 강화하여 일제의 침략에 맞섰던 것이다. 따라서 의병항쟁은 반침략적 구국운동으로서 민족해방 운동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다하였다.

참고문헌

- 『通政大夫星州判官贈資憲大夫兵曹判書訓練院事忠毅丁公神道碑銘 幷書』
 (1971년 重陽節 丁相夷 撰).
- 『通政大夫行草溪郡守贈資憲大夫兵曹判書訓練院事忠節丁公神道碑銘 幷書』(1959년 9월 瑞興 金奎太 撰).
- 『강남악부』,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92.
- 『강진원 의병장 약전』, 햇불사, 1981.
- 『고려사』
- 『구한국관보』, 『담산실기』,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 『亂中日記』
- 『萬機要覽』
- 『牧場地圖』(국립중앙도서관소장)
- 『防踏鎮誌』
- 『비변사등록』
- 『삼국사기』
- 『書經』
- 『宣武原從功臣錄券』
- 『송강집』
- 『順天府邑誌』(奎 17434, 1792~1800년 撰)
- 『순천시사』,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 『順天邑誌』(奎 12175, 1871년 撢)
- 『승정원일기』
- 『承政院日記』
- 『新增東國輿地勝覽』
- 『약천집』
- 『여수문화』 제2집, 여수시문화원, 1987.
- 『여주시 문화재도록』, 여주시, 2001.
- 『여주시의 문화유적』, 여주시 · 조선대학교박물관, 2000.
-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전남대학교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08.
- 『輿地圖書』
- 『여천군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국사연구소,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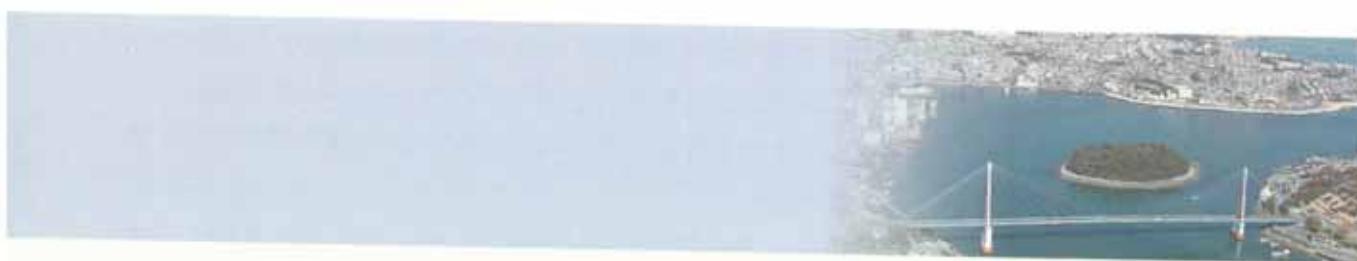
- 『연안차씨대동보』
『五忠祠誌』
『오충사지』(1977)
『雲樵遺稿』
『울촌면지』, 울촌면지편찬위원회, 1998.
『은봉전서』
『李忠武公全書』
『일성록』
『全羅左水營啓錄』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순천대학교박물관·여수시, 1993.
『朝鮮王朝實錄』
『조선환여승람』
『增補文獻備考』
『지봉유설』
『昌原丁氏 文簡公派譜』
『한국의 지명총람』, 15, 한글학회, 1983.
『海州吳氏翰林公派世譜』
『湖南邑誌』『順天牧場事例成冊』(奎 12181, 1895년 撰)
『湖南節義錄』
『湖南鎮誌』
『湖左水營誌』
『古突山鎮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 8~19, 1965, 1979~1990.
김계유, 『여수여천발전사』, 반도문화사, 1988.
김남편, 『의사 황병학』, 전광산업사, 1983.
김덕진, 『이대원과 정운, 그리고 쌍충사』, 해양문화연구 2집, 2009.
김성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사상 고찰』, 『이순신연구』창간호, 순천
향대 이순신연구소, 2003.
김정호, 『지방연혁연구 - 전남을 중심으로 -』, 1988.
김진봉 외, 『지방행정구역변천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 『호서문화연구』1, 1981.
金鉉丘, 『朝鮮後期 統制營의 財政運營에 관한 研究 - 統營穀을 中心으로 -』,

-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 김현구, 「조선후기의 통영」 統營市史 上, 統營市史編纂委員會, 1999.
- 南都泳, 「朝鮮時代의 馬政研究」, 『韓國學研究』 1, 1976.
- 文榮龜, 全羅左水營研究, (社) 大韓建設振興會, 1992.
- 박 환, 「나철의 인물과 활동」, 『동아연구』 17, 1989.
- 朴時亨, 「朝鮮土地制度史」 中, 신서원, 1994.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上海 : 유신사, 1920(『박은식전서』 상, 단국대 출판부, 1975)
- 변동명, 「韓國中世의 地域社會研究」, 學研文化社, 2002.
- 邊東明, 「朝鮮時代 突山島 防諳鎮의 설치와 그 구조」, 『韓國史學報』, 27, 2007.
- 邊東明, 「조선시대의 突山鎮과 古突山鎮」, 『歷史學報』, 198, 2008.
-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의 유형과 주이」, 『경북사학』, 17 · 18, 1995.
- 송양섭, 「壬辰倭亂期 國家의 屯田 設置와 經營」, 『한국사학보』 7, 1999.
- 宋亮燮, 「朝鮮後期 軍 · 衙門 屯田의 經營形態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 송은일, 「곡화목장의 설치와 운영」, 『2009년 상반기 전남대학교 이순신해 양문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9.
- 송은일, 「조선시대 興陽縣의 목장」, 『海洋文化研究』, 2, 2009.
- 신동규, 「VOC의 동북아시아 진출에 보이는 조선무역 단절과 일본무역 유지정책」, 『한일관계사연구』, 제22호, 한일관계사학회, 2005.
- 신동규, 「オランダ人漂流民と朝鮮の西洋式兵器の開発」, 『史苑』, 61-1, 2000.
- 신동규, 「훈련도감의 신식무기 개발과 서양 이국인 등용정책」, 『향토서울』, 6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3.
- 신동규, 「근세 동아시아 속의 日 · 朝 · 蘭 국제관계사」, 경인문화사, 2007.
- 신윤호, 「임진왜란 중 이순신일가의 동태와 이순신의 효의」, 『이순신연구 논총』 제8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07.
- 여수 · 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여수 · 여천향토지」, 1982.
- 麗水市 · 社團法人 여수지역사회연구소, 「李忠武公과 여수 五忠祠」, 2006.
- 여수항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麗水抗日運動史」, 선인, 2006.
- 오봉근 · 손영종,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1998.
- 오종록,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이순신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제언」, 『韓國史學報』, 16, 2004.

-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研究室,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 李景植, 「朝鮮初期屯田의 設置와 經營」, 『韓國史學報』 21·22, 1979.
-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6.
- 李丙燾, 『하멜漂流記』, 一潮閣, 1954.
- 이은상, 「고흥 쌍충사 사적」, 민족문화협회, 1980.
- 이은상, 「완역 이충무공전서』 상·하, 성문각, 1989
- 李益泰著,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 이일룡 역, 「전남폭도사」, 전남일보인서관, 1977.
- 李載樞, 「朝鮮初期屯田考」『歷史學報』, 29, 1965.
- 임병찬, 「의병항쟁일기」, 한국인문과학원, 1986.
- 鄭清柱, 「全羅左水營의 역사와 문화」, 正文社, 1993
- 趙浚來,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正文社, 1993.
- 趙浚來, 「壬辰倭亂과 湖南地方의 義兵抗爭」, 아세아문화사, 2001.
- 左水營別砲衛新設節目軍案分畝量案并錄成冊 (高宗 7년 '1870년' 刊).
- 차행천, 「역사유적을 통한 중학교 지방사교육 -여수지역의 예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최봉수, 「고려-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의 등급제와 승강제를 통한 중앙 통제」, 『한국공공관리학보』, 20, 2006.
- 최봉수, 「朝鮮時代 地方行政區域의 整備에 관한 研究 - 州·府·郡·縣을 中心으로」, 『정책과학연구』, 5, 1993.
- 최인선, 「여수 곡화목장성의 고고학적 고찰」『2009년 상반기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9.
-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 홍영기, 「강진원 의병장의 생애와 활동」, 『남도문화연구』 12, 2006.
- 홍영기, 「구한말 전라남도 도서지방 의병에 대한 일고찰」, 『東亞研究』 21, 1990.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독립기념관, 2009.
- 황현, 「매천야록」, 국사편찬위원회, 1955.
- フィリップ·フランツ・シーボルト著/尾崎賢治譯, 「日本(5)」, 雄松堂書店, 1978.

제 5 장

일제강점기



제1절 일제의 식민통치와 식민도시로서의 여수

최 재 성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1. 일본인 이주와 일본인 마을의 형성

1) 여수지역의 일본인 이주

식민(植民)이란 원래 식민 본국이 자국민[民]을 영주(永住)케 할 목적으로 식민지로 이주시킨다[植]는 의미이다. 일제 강점말기 조선 내 일본인 거주자는 1942년 말에 75만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조선에서 일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왜관을 제외하고, 조

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에서 조계지가 설정된 이후였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인의 조선 거주는 조계지와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일본의 경제 침투와 함께 전국으로 확산되어 통감부가 설치되었던 1906년 말에는 8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여수에 일본인이 이주한 것은 러·일전쟁기간 무렵인데, 1905년 거문도(당시 행정구역으로는 돌산군 삼산면)에 20여 명의 일본인이 이주했다. 이들 일본인은 어업을 영위하던 자들로 1년 내내 상주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식량을 휴대하고 와서 어업을 마치면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가가와(香川)현과 야마구치(山口)현 사람들이었다. 그 후 1906년 6월 우편전신소 설치와 함께 오야마(小山光正)가 직원으로 부임하면서 첫 상주자가 되었다.

여수 내륙에서는 일본인 상인들이 와서 지세를 답사하고 돌아 간 적이 있었으나 1906년 12월 여수우편취급소 소장 오가와(小川孝造)가 주재한 것이 일본인 상주의 효시였다. 이후 1907년 봄 고이즈미(小泉), 니시무라(西村), 이마카와(今川) 등 3명이 잡화점을 개업하고, 일본인 순사 2명이 주재하면서 일본인이 점차 늘어났다.

일제 강점기 여수 거주 일본인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906년부터 1942년치까지의 통계자료를 통해서이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여수군은 1906년 말에 남자만 4명이었다가 1907년에는 없어졌고, 같은 시기 돌산군에서는 1명에서 7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당시 여수군은 여수반도의 내륙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공리, 상인 등이 초기 이주인을 이루었고, 돌산군은 거문도, 안도, 나로도 등 섬지역이라 어업자가 주로 이주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여수 지역에 일본인이 상주하기 시작한 1906년 말에 조선 전체의 일본인은 8만 1천 754명이었다.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 거주하는 일본인 다수 거주 지역은 부산(1만 5천 702명), 인천(1만 2천 937명), 한성(1만 1천 724명) 등 60곳이었다.

당시 일본인 다수 거주 지역은 개항장 부근 일본인 거류지와 항·포구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수는 일본인이 관심을 기울인 지역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러다가 1908년 무렵부터 여수의 일본인수는 크게 늘기 시작했다.

1909년에 여수군 129명과 돌산군 147명으로 각각 100명을 돌파하였고, 1912년에 각각 546명과 316명, 모두 862명이 되었다가 1914년 1천 109명으로 늘었다. 1914년은 종전 여수군과 돌산군이 여수군으로 통합되었던 해로, 돌산군의 봉래면과 금산면이 고흥군으로 이속되어 이 2개 면에 거주하던 일

본인(예를 들면 나로도 거주 일본인)은 이 해부터는 고흥군 인구로 계산되어 이 해 여수군 거주 일본인 인구수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후 1910년대 내내 매년 크게 증가하던 여수군의 일본인 인구는 1919년 2천 582명을 정점으로 이듬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 이유는 2천 40명에서 1천 553명으로 거의 5백 명 가까이 감소한 여수면 인구수 변동에 기인한다.

이 시기 여수면 인구가 격감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같은 기간 조선 전체 일본인 인구는 34만 6천 6백여 명에서 1천 2백여 명 정도 증가한 34만 7천 8백여 명이었던 것을 보면, 전국적인 추세는 아니었다.

여수가 속한 전남, 그리고 경기도와 경남의 몇 군데 지역을 살펴보면, 전남 도내에서는 목포부, 순천군 순천면, 제주도(島) 제주면 등의 인구가 증가한 반면, 광주군 광주면, 나주군 영산포 지역의 인구는 감소했다. 경기도와 경상 남도 주요 지역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인천부, 부산부, 마산부 등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경성부, 창원군 진해면, 통영군 통영면 등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전북에서는 군산부의 인구가 1천 150명 감소했다.

이후에도 여수군의 일본인 인구는 여수면 인구의 증감에 비례하여 늘고 줄었다. 그러다가 통계 수치가 남아 있는 최후 연도인 1942년에 여수군의 일본인 인구는, 1910년의 470명(당시 여수군 283명, 돌산군 187명)에서 9.1배 증가한 4천 262명이었다. 이는 조선 전체 거주 일본인수의 0.57%를 차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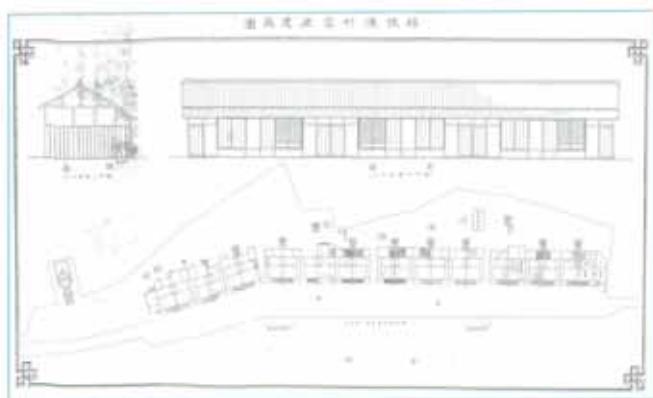
1942년 조선 전체 일본인 인구는 75만 2천 823명으로 1910년 17만 천 543명에 비해 4.39배 늘었는데, 여수군의 일본인은 그 보다 2배 이상 큰 비율로 증가한 것이었다.

2) 일본인 집단 거주지

여수에 거주한 일본인은 여수군내 각지에 분산되어 거주했으나 집단 이주촌을 형성한 곳도 있었는데,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일본인 마을을 이루었다.

일본인 이주어촌 형성은, 1912년 9월 부산을 근거로 하던 아이치(愛知)현 우다세(打瀬) 망업자 히라노(平野佐市), 안도(安藤牧之助), 히로세(廣瀬花藏), 히라노(平野虎治), 도리이(鳥居金藏), 와타나베(渡邊與三郎)의 여섯 가족 26명이 6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여수로 이주한 것이 효시였다.

당시 여수항에 거주하던 일본인은 100호가 되지 않은 정도였는데, 주로 관



▲ 종포 이주마을 설계도

433평을 매수하고 1917년 10월 건축에 착수하여 1918년 5월에 준공식을 거행하고 24호를 수용했다. 그리하여 이들 이외 종포에 거주하고 있던 아이치현 어업자의 지역을 합하여 아이치현 이주어촌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들은 이후 수산업으로 부를 형성하여 1927년 당시 1만원 이상의 자산가가 5호에 달했고, 1,000원 이상도 21호였으며, 500원 이상은 10호였다.

히로시마 출신 다사카(田坂延次)도 1915년에 이주 어촌 설치 필요를 느껴 1916년 히로시마 현 당국에 교섭하였다. 그 결과 동정에 14호, 봉산리에 8호 등 히로시마(廣島)현 이주어촌도 형성되었다.

3) 이주 일본인을 위한 편의시설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단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였는데, 거문도 거주 일본인들도 1909년 12월 20일 거문도일본인회를 설립했다. 당시 회원은 27호, 85명이었다. 조선 거주 일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맨 먼저 그들 자녀의 교육기관을 들 수 있다.

1909년 통감부에서는 학교조합령을 발표하여 거류민단이 조직되지 않은 지역의 일본인 아동 교육을 위해 학교조합을 설치토록 했다. 그에 따라 여수군 거주 일본인들은 1910년 9월 학교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했고, 1911년 3월 16일 인가되어 7월 15일 여수공립심상소학교를 개교했다. 여수학교조합의 1910년 세입세출액은 1,765원이었고, 조합원 1호당 평균 부과액은 8.4원이었는데, 이는 전남 10개 학교조합 평균 9.4원에 비해 1원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거문도에서는 오야마(小山正光)와 기무라(木村忠太郎)가 주도하여 1914년 11월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설립기부금을 모금했는데, 53명이 700원을 모아

리, 잡화상 경영자였고, 수산업 종사자는 3호에 불과했으나 이들의 이주로 수산업 인구가 부쩍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1915년 8월 여수 거주 아이치현 어업종사자 33명이 여수에 어업근거지를 건설할 것을 아이치현의 지사와 수산조합연합회장에 청원했다.

이에 수산조합연합회는 1916년 아이치현비를 보조받아 여수면 동정 종포의 토지

사립 덕진학교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1915년 1월 10일 교장이 부임하고, 1월 18일 거문도공립 심상소학교 개교식이 열렸다. 남면 안도에서는 1917년 4월 요시토미(吉富雪太郎) 등이 토지와 가옥을 구입하여 사립 안도의숙을 설치하고, 1918년 학교조합 설립을 신청하여 1919년 2월 학교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이어 3월에는 학교 설치를 인가받아 안도공립심상소학교를 설립했다.

여수 거주 일본인들을 위한 다른 편의시설로는 전기가 있다. 여수전기주식회사는 1919년 10월 30일 창립되어 1921년 5월 1일부터 개업했다. 자본금 10만원이었고, 중역은 취체역사장에 오츠카(大塚治三郎), 취체역에 후쿠나가(福永政治郎), 다카세(高潮平治郎), 츠지모리(辻森榮三), 감사역에는 다카세(高潮政太郎), 다나카(田中善之助) 등이었는데, 1922년 발전 용량은 가스력 34킬로와트였다.

또 다른 편의시설로는 수도시설이 있었는데, 이는 위생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이 중시하던 시설이었다. 여수에는 1930년 4월에 급수가 개시되었다. 수도의 설계방식은 자연 유하식이었고, 수도관 길이는 9,420미터였으며, 급수호 수는 389호였다. 당시 여수면의 일본인이 603호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개설 초기에는 모든 일본인 가정에 공급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1942년에 이르면 수도관 길이는 15,593미터, 급수 호수는 1,751호로 늘었다. 당시 여수읍의 일본인 가구수는 755호였고, 여수군 전체 일본인 가구는 953호였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구는 여수읍내 일본인 가구 전체를 초과하여 일부 상류층 조선인 가정에도 수돗물이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여수 공립 심상소학교

2. 시민통치를 위한 각종 행정기구 설치

1) 지방제도 개편과 행정기구 설치

1910년 8월 일제 강점 당시에 여수에는 두 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다. 내륙 지방의 여수군과 도서지역의 돌산군이 그것이다. 이후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관보 호외로 부군 통폐합이 발표되었다. 그에 따라 여수군과 돌산군

이 여수군으로 통합되었다.

새로 여수군의 행정구역이 된 곳은 종전의 여수군 일원과 돌산군의 두남면·남면·화개면·옥정면·삼산면, 그리고 태인면 내의 묘도였다. 그리고 종래 돌산군의 봉래면과 금산면은 고흥군에, 묘도를 제외한 태인면은 광양군에 이속되었다.

이 조치는 1914년 3월 1일 시행되었다. 이어 4월 1일자로 면의 명칭과 구역이 정해졌다. 이때 정해진 면의 명칭과 구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여수군 관내 10개 면의 명칭과 구역(1914년 4월 시행)

명칭	구역
여수면	縣內面 일원, 雙鳳面 五萬里 毛沙里 中川里 龍水里
소라면	龜山面 長田里 新基里 大洞里 堂村里 凤頭里 細洞 白水里 豊谷里 德谷里 內基里 星方里 桶川里 黑山里 佳山里, 德安面(長城里 項湖里 蘇堤里를 제함) 일원
율촌면	栗村面 일원, 龜山面(長田里 新基里 大洞里 堂村里 凤頭里 細洞 白水里 豊谷里 德谷里 內基里 星方里 桶川里 黑山里 佳山里를 제함) 일원
삼일면	三日面(三洞 五山里 大坪里 蟹旨里를 제함) 일원, 雙鳳面 自內里 順風里 寺近里 石亭里
쌍봉면	雙鳳面(五萬里 毛沙里 中川里 龍水里 自內里 順風里 寺近里 石亭里를 제함) 일원, 三日面 三洞 五山里 大坪里 蟹旨里, 德安面 長城里 項湖里 蘇堤里
화양면	華陽面 일원
두남면	斗南面 일원
남면	南面 일원
화정면	華蓋面 일원, 玉井面 일원
삼산면	三山面 일원

출전: 조선총독부 전라남도령 제2호(1914년 3월 2일)

위 표를 보면, 도서지역은 화개면과 옥정면이 화정면으로 통합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거 돌산군 각 면의 명칭과 구역이 그대로 여수군 내 각 면의 명칭과 구역으로 정해진 반면, 내륙지역은 구산면과 덕안면이 통합되어 소라면이

신설된 것 외에도 면 구역이 대폭 조정되었다.

이후 1923년 2월 15일 총독부령으로 여수군 여수면이 다른 16개 면과 함께 지정면으로 지정되었다. 이 조치는 같은 해 3월에 여수항이 지정항으로 지정된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수군이 지정면이 될 당시에는 24개의 지정면이 있었다. 또 1931년 4월 지정면의 명칭을 읍으로 변경하는 읍제가 시행되었을 때 40개의 다른 지정면과 함께 여수군, 여수면도 여수읍으로 승격되었다.

지정면과 읍이 보통면에 비해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면장(읍장)이 군수와 동급인 주임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1922년 8월 지방관관제가 개정될 때 면장 50인에 한해 주임관 대우로 한다고 하여 1923년 2월 일본인 면장 15명, 조선인 면장 31명을 주임관 대우로 했고, 이후 1931년 4월부터는 주임관 대우를 받을 읍면장의 수를 65명으로 증원했다.

2) 자문기구

자문기구의 설치는 일제 강점과 함께 시작되었다. 먼저 중앙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두고 조선인 유력자들을 찬의와 부찬의에 임명하여 조선총독의 자문을 하도록 했다. 또 도(道)에는 3명, 부·군·도(島)에는 2명의 도·부·군·도 참사를 두고 도지사·부윤·군수·도사(島司)의 자문에 응하게 했다. 이 시기 1911년부터 1920년까지 여수군수의 자문 역할을 했던 여수군 참사 가운데 김한승이 있다.

1919년 3월에 일어난 3·1운동에 놀란 일제는 식민통치의 기조를 부득이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문화정치'는 친일 조선인을 우대하고, 반일 조선인을 탄압하는 민족분열정책이었다. 한편으로는 친일 조선인을 양성하는 정책이기도 했다.

1920년 7월 지방제도 개편과 함께 조선총독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훈련을 선전하면서 도평의회(道評議會), 부협의회(府協議會)와 면협의회(面協議會) 등을 확충했다. 그러나 이는 실권 없는 자문기관일 뿐이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아닌, 실권이 없는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것도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부와 24개 지정면의 협의회, 부 학교평의회에서만 선거제를 시행하고, 나머지에는 임명제를 실시하면서도 일제는 조선인에게 자치제의 실시를 선전하였던 것이다.

여수항일운동

소라면장직선제 요구

1923년 2월 24일 동아일보 1면에는 여수 소라면 면장 민선 운동을 톱기사로 다루었다.

당시 소라면장이 횡령 사건으로 퇴직하자 그 후 임면장을 민선(民選)직선제로 하게 해 달라고 면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강력히 청원하였다.

하지만 2월 22일 밤에 관선면장이 부임한데 대하여 면민들은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장(區長)과 면협의원 16명이 동맹 사직하여 당국의 복직 권유를 물리친 사건이다.

도평의회원의 2/3는 부·면협의회원들이 선거로 후보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 1/3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또 12개 부의 부협의회원과 지정면(1920년 당시 24개면, 이후 17개면 추가 지정)의 면협의회원을 선거로 선출(임기는 각각 3년)하고, 그 외 보통면 면협의회원은 군수 또는 도사가 임명(임기는 3년)했다.

도지사, 부윤, 군수가 임명하는 도평의원, 면협의원, 군 학교평의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과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하는 조선인뿐이었다.

또한 선거제를 실시하는 부와 지정면의 협의회에서도 선거권자를 부세·면부과금 납부자로 한정하여 일정한 규모의 재산을 가진 선거권자들이 선출하는 의원직에는 그들과 같은 유산계급인 일본인, 조선인 지주·자산가·부농 등이 자리를 채웠다. 이러한 명목상의 '자치제'는 친일파 양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하였다.

1920년 12월과 1924년 4월, 1927년 4월에 여수지역에서는 김한승이 도평의회원에 임명되었고, 1930년에는 명창순이 도평의회원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 일본인으로는 츠카사(政吉信)와 오츠카(大塚治三郎)가 도평의회원에 임명되었다. 또 여수면이 지정면이 된 후 처음 실시된 면협의회원 선거인 1923년 11월 20일에 최석주, 김한승, 김창현, 이완순, 정영교, 이백윤, 김치윤, 유목렬이 당선되었다.

일제는 1930년 지방제도를 변경했다. 면제(面制)를 읍면제(邑面制)로 고쳐 1931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때 종래의 지정면의 명칭이 읍으로 변경되었고, 도·부·읍의 자문기관은 의결기관이 되었으며 의원의 임기는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어났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1931년 5월 21일 읍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여수읍에서는 이우현, 유국준, 정재익, 노천봉, 김경택 등이 당선되었고, 이후 4년 후인 1935년 5월 21일에는 이우현, 노천봉, 유국준, 김경택, 츠카사(政吉信), 가타오카(片岡勉) 등이 당선되었다. 다시 4년 후인 1939년 5월 21일에는 김영준, 이우현, 이홍조, 노천봉, 김경택, 가타오카(片岡勉) 등이 당선되었다. 대체로 같은 사람이 연달아 당선되는 양상이었다.

193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도제(道制)에 따라 1933년 5월 10일 도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 여수에서 당선된 사람은 김경택과 츠카사(政吉信) 등이었고, 4년 후인 1937년 5월 10일 실시된 도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우현과

조천섭 등이 당선되었고 츄카사(政吉信)는 도회의원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여수지역에서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참의에 임명된 자는 김한승이 유일했다. 그는 1932년 6월 2일부터 1935년 6월 1일까지 만 3년간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

3) 경찰기구

경찰기구는 일제가 조선을 식민통치하는 데 물리적 힘을 뒷받침하는 무력기구로 일제로서는 이 기구 설치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다.

여수에 일제 경찰기구가 설치된 것은 1906년 12월 15일 광주경찰서 장흥분서 여수분파소 및 광주(경무)고문지부 장흥분견소 여수분파소가 병치되고, 경무고문 보조원(통감부 순사) 2명과 순검 4명이 배치된 것이 효시이다. 이후 1907년 5월 25일 순천경무분서(경무고문분견소) 설치와 함께 그 관할로 변경되었다.

1908년 7월 순천분견소와 분서를 합병하여 순천경찰서로 고칠 때 여수분파소도 여수순사주재소로 개칭되었다. 1910년 7월 경무기관 통일에 따라 순천경찰서와 여수순사주재소를 철폐하고 순천에 현병대를, 여수에 경찰서를 설치했는데, 이때 원래 순천경찰서장 이하 서원 전부를 여수경찰서에 배속시켰다.

1910년 7월 이전에는 여수군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했다가 이때부터 여수·돌산 2군을 관할하고, 고금도·태안도·돌산·나로도·세동 등 5개 주재소가 개설되었다. 1914년에는 소라·두남·거문도·화양 4주재소가 설치되었다.

소라주재소는 1914년 설치 당시에 소라·율촌 2개 면을 관할했다. 이후 1920년 10월 1일 율촌면 조화리에 율촌주재소가 개설되었다. 두남주재소는 1914년에 두남면·남면, 그리고 화정면 일부를 관할로 하다가 1920년 6월 돌산주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거문도주재소는 삼산면 일원을 관할로 하여 1914년 설치되었다. 화양주재



▲ 여수경찰서

소는 1914년 화양면과 화정면 일부를 관할로 했다. 1920년 10월 1일 화정면 백야리에 화정주재소가 개설되어 화양주재소와 돌산주재소가 나누어 관할하던 것을 화정주재소가 관할하게 되었다.

남면 지역에 주재소가 설치된 것은 1917년 11월 1일 안도주재소가 개설되면서부터였다. 과거 두남주재소 관할의 남면을 떼어내 안도주재소 관할로 했다. 또 1919년 9월 1일 삼일면 중홍리에 중홍주재소가 개설되어 종래 여수 경찰서 본서에서 관할하던 쌍봉·삼일 2면을 관할로 했고, 1920년 6월 삼일 주재소로 명칭 변경되었다.

1922년 3월 1일 쌍봉면 학용리에 쌍봉주재소가 개설됨으로써 1면 1주재소가 완료되었다. 1920년대 내내 조선총독부가 내건 정책 가운데 하나가 '3면 1교'였음에 비춰볼 때 '1면 1주재소'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달성된 것이며 일제가 경찰기구 설치에 기울인 노력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일제의 조선 지배는 군대와 더불어 경찰의 무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식민지 착취제도의 시행과 착취기관의 설치

제국이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3대 요소를 말할 때 대개 토지제도, 철도, 금융기구를 꼽는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과 강점 직후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도 이 시설들의 설치였다.

1)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제도의 개편

일제가 조선의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 것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식민권력에 의한 토지약탈과 지세 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부터 1918년 11월까지 실시되었다.

토지소유권 조사, 토지가격 조사, 지형·지모 조사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 이 사업은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일본자본의 자유로운 진출을 보장하고, 지세부과의 기준을 재정리하여 식민지배의 재원을 염출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수에서도 1916년 10월 2일자로 사정 공시가 이루어졌다. 공시기간은

1916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불복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다. 대상지역은 삼일면 묘도 등, 두남면 돌산도 등, 남면 금오도·안도 등, 화정면 월호도 등, 삼산면 거문도 등 도서지역이었다.

9년간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조선인 소유 토지 50만 8천여 정보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 이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사업을 계기로 토지의 상품화가 급격히 이루어졌고, 이는 식민지 지주제의 재편성으로 연결되었다. 1918년 기준으로 3.1%의 지주가 전체 경작지의 50.4%를 소유하는 극심한 집적과 집중을 초래하였다.

이 성격은 총독부 관리였던 규마(久間健一)의 “조선에서의 토지소유제 확립은 과거에 토지의 현실적 보유자였고 또 경작자였던 농민을 희생시키고, 당시의 수조권자(收租權者)를 바로 토지소유권자로 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서 소수의 수조권자와 부민(富民)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다수의 농민은 토지에서 이탈되었다.”는 언급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그 결과 조선의 자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이 몰락하고, 소작농과 농업 노동자 및 이농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1910년대에 해외로 이주한 조선인은 40만 명에 달하게 되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일본으로 건너가 하층 노동자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은 토지를 집적, 집중하여 쉽게 대지주로 성장했다. 여수지역의 대표적인 지주는 다카세(高潮)농장이었는데, 1930년대 다카세농장 소유 경지는 1천 정보(3백만 평)였고, 소작인은 3천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2) 철도의 부설

여수에 철도가 부설되어 개통된 것은 1930년 12월 25일이었다. 1930년 12월 20일 여수와 광주간 철도가 남조선철도주식회사의 사설철도로 개통되었다.

이 철도의 건설이 구체화된 것은 1926년 10월에 무라타(村田義穂), 스가와라(菅原通敬) 등이 철도국에 설립허가 신청을 제출하면서부터였다.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1929년 2월 기공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30년 12월에 개통을 보게 된 것이었다. 여수에서 광주까지 거리는 150.5킬로미터였고, 건설비는 935만 여원이었다.

이 철도는 당초 사설철도로 부설, 개통되어 광려선 또는 광주선(주수선)으로 불렸으나 1936년 3월 1일 국유철도로 이관되었고, 광주-송정리간 철도와 합해져 송려선으로 바꿔 불리게 되었다.

1936년 12월 16일에는 전북 이리와 연결되는 전라선이 개통되었다. 전라선은 이리에서 여수항까지 198.8킬로미터이고, 정거장은 35개였다. 그리고 순천-송정리간은 경전 서부선으로 개칭되었다.

전라선이 개통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리-전주간 광궤 개축공사가 1929년 9월 준공되었고, 이어 1936년 12월 16일까지 전주-순천간 133.2킬로미터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이의 완공과 함께 송려선에 접속하여 이리-여수간을 전라선으로 개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철도의 개통 이전에 육로 연결은 도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전주-순천선(32리)을 폭 3칸, 예산 384,000원의 계획으로 1912년 3월 8일 기공하여 1913년 9월 준공했다. 준공 이후 거리는 계획보다 다소 늘어 33.3리(일본의 1리는 조선의 10리)였고, 비용은 약간 감소한 351,254원이 소요되었다. 이후 순천-여수 간 8리 거리의 도로도 폭 3칸, 공사비 36,000원을 들여 1915년 1월 준공되었다.

여수 광주간 철도 개통과 동시에 여수와 시모노세키(下關) 간 직항선 취항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가와사키(川崎)기선주식회사에서는 '관려연락선'을 계획하여 1930년 12월 20일에 개통시켰다. 여수항에서는 경복환(慶福丸 2,480톤)이 매일 오후 4시 반에, 시모노세키에서는 창복환(昌福丸 2,600톤)이 매일 오후 5시 반에 출항했다.

3) 식민지 금융기구의 설치

일제 강점기에 여수지역의 식민지 금융기관은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의 여수지점과 네 개의 금융조합이었다. 식민지 금융기관이 여수지역에 설치된 것은 1910년대 여수지방금융조합 설립과 광주농공은행 여수지점 개설로부터 비롯되었다.

농공은행과 지방금융조합 설립은, 1904년 8월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 철도 개통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대한제국 재정고문으로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 메가타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郎)가 부임하여 이른바 '目賀田개혁'을 강요한 것에 그 연원이 있다. 이른바 '目賀田개혁'은 재정정리·화폐정리사업, 식민지적 금융기관 설립을 골자로 했고, 그 목적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일본의 그것에 맞게 뜯어고치는 것이었다.

메가타가 추진한 재정정리·화폐정리사업의 결과 조선의 전통적인 금융기구가 붕괴되어 금융경색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징수된 세금과 교환된 구화폐가 제일은행(第一銀行)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자금 공급의 경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외회(外劃)의 폐지로 인한 지방금융의 경색은 금납화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과 지방생산물이 중앙으로 유입되는 것을 곤란하게 했다.

이와 같은 금융경색현상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전통적인 금융기구를 대신할 식민지적 금융기관이 설립되었다. 1905년 9월 한성공동창고회사를 시작으로 한성어음조합, 농공은행(1906년)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농공은행의 설립으로 농공은행 본·지점이 설립된 일부 도시 지역은 금융경색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농촌지역에까지는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공은행의 역할을 농촌에서 담당할 보조기구로서 지방금융조합(1907년)이 설립되었다.

여수에는 지방금융조합이 먼저 설립되었다. 여수지방금융조합은 강점 직후인 1910년 9월 10일 설립 인가되어 1911년 1월 4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당시 조합원은 405명이었고, 조합장은 여수의 유력자 김한승이었다. 1918년 금융조합령 개정과 함께 '지방' 이란 단어가 빠진 여수금융조합으로 개칭되었다가 1920년 도시금융조합으로서 여수금융조합이 설립되면서 여천금융조합으로 개칭되었다. 1934년 기준으로 여수읍, 화양면, 삼산면, 삼일면과 쌍봉면의 일부를 조합구역으로 했고, 조합원은 약 3천명이었다.

업무구역을 돌산면, 남면, 화정면으로 한 돌산금융조합은 1926년 12월 27일 설립 허가를 받아 1927년 2월 10일 업무를 개시했다. 조합원은 1935년 기준 1천 650여명이었으며, 출자금은 1만 9천 200여원이었다. 또 1934년 11월 여천금융조합 세동지소가 독립하여 신설된 소라금융조합이 있었다. 1935년 기준 조합원은 1천 360명이었고, 출자금은 1만 3천 7백원이었으며, 조합구역은 소라면, 율촌면, 쌍봉면과 삼일면의 일부였다.

이들 3개는 모두 '촌락금융조합'에 해당되는 것이고, 도시지역인 여수읍을 조합구역으로 하는 '도시금융조합'으로 여수금융조합이 있었다. 1920년 4월

10일 인가를 받았는데, 1935년 당시 조합원 6백여 명, 출자금 5만 2천 4백여 원이었다.

광주농공은행 여수지점은 1912년 9월 1일 개설되었다. 이후 1918년 10월 1일 조선식산은행 여수지점으로 개편되었다. 또 조선은행 여수지점이 1935년 7월 3일 지점 설치에 관해 총독의 명령을 받고 8월 1일 개업했다.

설립 초부터 1910년대 말까지 농공은행의 활동은 주로 상업금융에 치중했다. 그리하여 농공은행으로부터 자금 유통을 받은 일본인 상인들이 미곡 등 농산물 유통을 장악하여 조선미의 일본 이출을 주도하며 대상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조선식산은행은 농업금융의 비중이 상업금융의 비중을 능가했다. 이는 일제의 산미증식계획 추진에 따라 조선식산은행의 유통자금이 토지개량조합과 수리조합을 거쳐 대지주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식산은행의 자금 유통은 광공업 부문과 각종 통제기구에 집중되었다. 이는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공업의 발달과 통제경제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식량과 공업원료의 수탈

식민지는 식민 본국에 대해 식량과 공업 원료의 생산지, 식민 본국에서 생산된 공업 제품의 소비지, 그리고 식민 본국에서 남아도는 자본의 투자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일제에 대한 조선의 처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여수지역의 식량과 공업원료 생산지로서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미곡

먼저 식량(미곡)과 공업원료에 소요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탈이다. 일제는 자국 내에서 이루지고 있는 급속한 공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임금 정책을 실시했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활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곡물가격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 자국 내에서 자급하지 못하는 식량은 식민지에서 도입하여 충당해야 했다. 그러한 필

요에서 1920년부터 1934년에 걸쳐 조선에서 산미증식사업이 전개되었다.

이는 관개시설의 개선, 밭을 논으로 하는 지목(地目) 변경, 개간과 간척에 의한 논 면적의 확대, 쌀의 품종 개량과 비료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쌀의 증산을 기도한 것이었다.

여수군에서도 1922년 수도(水稻)우량품종 종자갱신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각 면에 채종답(35정보)을 설치하고, 매년 1,166정보를 갱신하며 재배법의 개선, 시비의 증가, 건조 조제의 개선에 노력하여 1927년도에 4,664정보의 갱신을 종료했다. 이는 여수군에 있는 논에 재배할 벼 품종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서 말한 우량품종은 조신력(早熟力), 중숙신력(中熟神力), 곡량도(穀良都), 다마금(多摩錦), 웅정(雄町) 등이었는데, 그중 웅정이 80%였다. 이는 웅정이 여수지역 토질에 맞는 품종이었음을 의미한다.

또 논 면적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상당한 실적을 거뒀다. 1911년 말 경지면적을 보면, 여수군에는 논 2,582정보, 밭 3,626.6정보가 있었다. 같은 시기 돌산군에는 논 906.7정보, 밭 2,551.4정보가 있었다.

이후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여수군의 경지면적은 논 4,900정보, 밭 6,700정보가 되었다. 밭이 6,179정보에서 약 500정보 늘어난 데 비해, 논은 약 3,490정보에서 1,400정보가 늘어난 것이었다. 늘어난 경지 가운데 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이는 논 면적 증대에 그만큼 힘을 쏟았다는 것이다.

산미증식사업에 따라 쌀의 생산량은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본 본토로의 이출은 그것을 크게 웃돌았다.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에 걸쳐 여수지역 쌀이 일본으로 이출된 양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표2〉 1920년대말~1930년대초 여수지역 쌀 이출량 추이

(단위: 석)

년 도	현 미	백 미	계
1928	26,825	1,953	28,778
1929	42,724	1,291	44,015
1930	60,855	1,307	62,162
1931	66,055	8,866	74,921

출전: 片岡議編, 〈麗水發展史〉, 『南鐵沿線史』, 片岡商店, 1933, 53쪽.

조선에서 생산된 쌀이 일본으로 이출되기 위해 반드시 곡물검사 과정을 거쳐야 했고, 여수지역에서는 여수곡물검사소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 1915년 '미곡검사규칙'에 근거하여 10월 도령(道令)으로 '검사규칙'이 발포되면서 여수곡물검사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22년 7월 미곡검사규칙의 개정으로 백미검사업무가 추가되었다.

여수곡물검사소에서 1926년 검사한 현미 74,106가마 중 70,270가마가 외지로 반출되었는데, 오사카(大阪)에 41,730가마, 도쿄에 23,015가마, 부산에 5,050가마, 기타 지역에 475가마였다. 또한 백미는 검사한 2,799가마 중 1,640가마가 반출되었는데, 1,190가마가 오사카로 이출되었다. 여수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주로 일본 오사카 지역으로 이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수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정미소와 농업창고였다. 1910년대 이후 일본인 자본으로 설립된 정미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먼저 1913년 10월에 27,000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암마노(山野) 정미소는 정미 공장과 정미소가 모두 건평 80평 규모였고, 생산량은 40,000석이었다. 이어 1915년 2월에 자본금 3,000원으로 가와치(河内) 정미소는 건평 21평의 소규모로 생산량은 3,000석이었다.

이후 1919년 10월에 여수면 동정 해안통에 혼다(本田) 정미소가 세워졌는데, 이는 앞의 두 개의 정미소보다 규모가 훨씬 커서 1년 생산량이 약 10만석에 달했고, 대부분은 일본 오사카나 도쿄 등지에 이출되었다.

또 미곡 이출을 위한 시설로서 농업창고가 있다. 이는 1931년 12월 1일 설립된 것으로 1931년 3월 전라남도 농회에서 경영하는 농업창고 가운데 3번째 사업(1차 목포, 2차 영산포)으로 건립되었다.

장소는 여수역 구내였으며 토지 면적 1,500평이었는데, 1931년 7월에 기공하고 11월말에 준공하여 12월 1일 업무를 개시했다. 장기 저장창고로서 보관능력은 32,000가마였고, 부속사업으로 일반농가 기탁의 벼를 현미로 조제하기 위한 조제능력 1일 현미 200가마의 벼 도정 기계가 설치되었다.

쌀 생산량 증가를 훨씬 웃도는 이출량으로 인해 조선인의 쌀 소비량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1930년 봄에는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농가가 48.3%에 달할 정도였다. 이에 조선총독부가 세울 수 있는 조선의 식량대책으로는 만주로부터 조를 들여오는 일이 유일했다. 이 시기 여수군에 수입된 조(栗)의 양은 매년 평균 5,600석(58,320원) 정도였다.

2) 면화

다음은 공업 원료의 수탈에 대해 살펴보자. 여수지역은 섬유공업의 원료가 되는 면화 생산지로 이름을 날렸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4월 권업모범장 육지면 채종포를 설치했는데, 당시 여수군 관내 52명의 경작자가 10정보의 토지에서 재배한 것이 면화 재배의 기원이었다. 1913년에는 면작조합이 조직되었고, 1917년과 1919년에는 각각 '육지면 중수 5년계획', '육지면 제2기 확장계획'이 세워져 면화 재배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하여 1926년 4,512.8정보의 경작지에서 11,086호의 경작자가 연 425만여 근을 생산하여 그 중 일본으로 이출하는 수량이 절반을 웃도는 224만여 근(714,000여 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실적은 경작면작에서는 여수군의 전체 밭 면적 6,760.6정보 가운데 67%에 해당되고, 경작 농가호수에서는 전체 농가호수 12,716호 중 87%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쌍봉면과 삼일면에서는 100%,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에서는 99%의 농가가 면화 재배에 종사했다.

이 시기 여수군의 대지주였던 다카세농장 소유 토지 1천 정보도 면화 경작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27년에는 면화 생산이 500만 근에 달했고, 그 중 300만 근이 이출되었으며, 면화를 통해 이루어진 수입을 1호당 평균했을 때 150원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면화의 여수'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3) 수산물

남해안에 위치한 지리적 이유로 여수에서 어획된 수산물 가운데 다수가 일본으로 이출되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수 근해에 일본인이 출어한 것은 1902년이었다. 이때 여수 근해에서 주로 잡힌 어종은 새우와 칠성장어 등이



▲ 여수군 면작조합원증

었다. 1910년대 들어 여수에는 통조림 가공 공장이 들어서고, 수산물 매매회사가 설립되었다.

1925년 여수의 수산업 개황을 보면, 수산업자는 조선인 5,287호, 일본인 773호로 여수군 전체 호수의 40%에 달했다. 또 수산업을 통한 수입은 약 326만원으로 여수군 전체 생산액의 35%에 달하는 규모였다. 여수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수는 모두 약 3,600여 척이었다.

쌀 이출을 위해 미곡검사소가 있었던 것처럼 수산물이 이출되는 과정에 거쳐야 할 곳이 여수수산제품검사소였다. 이는 1918년 '수산제품검사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수이출 수산제품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식용 건제품, 식용 통조림, 수산 비료 및 해조 등이 검사 대상이었다. 설치 당시에는 검사 수산제품 가격이 84,000여 원이었으나 1933년에는 약 40만원으로 증대했다. 이렇게 이출된 수산물 역시 농산물과 같이 일본 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거나 공업 원료로 사용되었다.

5. 전쟁 수행을 위한 총동원

1) 사상통제와 황국신민화

일제는 1931년 9월 중국 동북지방을 침략('만주사변')하여 '15년 전쟁'을 개막했다. 일제의 침략전쟁에 호응하여 '국방의회'라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조선인에게 '국방의식'을 보급하여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지하도록 선전·선동 활동을 벌이고, 아울러 일제의 침략전쟁을 물적으로 지원하도록 현금·현납운동을 전개했다.

여수에서도 1933년 9월 18일 '만주사변 2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수읍 서정 영관에서 츠카사(政吉信)의 사회로 여수국방의회 발회식이 거행되었다.

앞서 1931년 9월에는 일본 문화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쇼토쿠(聖德) 태자를 봉안하여 '건국의 대정신을 발휘' 채 한다는 명목으로 쇼토쿠 태자당이 여수에 만들어졌다.

아마카와(山川一三)를 지부장으로, 노구치(野口三郎)·사나기(眞木辰次)·곤도(近藤彬夫)·츠카사(政吉信)·오츠카(大塙治三郎)·김한승을 고문으로,

가타오카(片岡議) · 우에하라(上原永次郎) · 김관평 · 미카도(三角昇) · 다나카(田中利宏) 등을 상담역으로 하여 추진기구를 조직한 이들은 여수읍 서정 정토종(淨土宗) 보은사 경내에 태자봉안전을 건축하고, 1931년 9월 22일 태자봉안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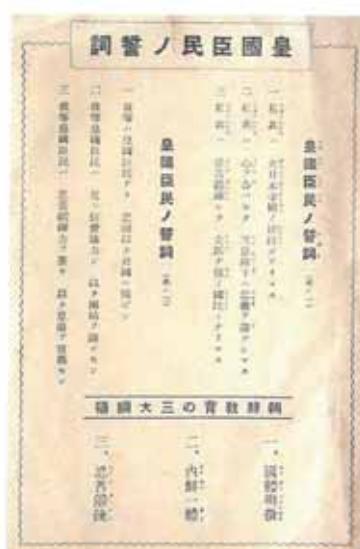
전시동원체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와 인력동원을 위한 전시총동원체제 구축을 위해 1938년 5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 적용하였다. 또한 전쟁발발 1주년이 되는 7월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중심이 되어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조직하였다.

이 연맹의 총재는 육군대신을 역임한 가와시마(川島義之)였고, 하부조직으로 각 도, 부군, 읍면, 동리 등 지방연맹과 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 등 직장연맹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산하에는 10호 단위의 애국반이 있었는데, 연맹 창설 6개월만인 1939년 1월까지 전국에 35만의 애국반이 조직되었으며 그 반원은 465만 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이후인 1937년 10월 4일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했다. 이는 미나미(南次郎) 총독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성인용과 아동용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전국에 배포하여 항상 휴대하게 했고, 각급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그리고 모든 행사 때마다 큰소리로 제창도록 했으며, 심지어는 결혼식 때도 주례자와 신랑, 신부, 하객이 기립하여 이를 암송도록 했다.

교육방면에서는 1938년 3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내선일체화' 방침에 의해 조선인의 의식, 언어, 역사를 말살하여 '황국신민'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어 4월에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1941년 4월에는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고치는 등 황국신민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주의적 교육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1930년대 중반부터는 조선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는 학교가 폐교되기도 하였고, 1940년에는 조선인의 성을 없애는 '창씨개명'을 강제 시행하였다. 여수도 예외가 아니었다.



▲ 황국신민서사

여수에는 이미 1910년대에 금비라(金比羅)신사가 고소대에 세워졌다. 고소대는 원래 전라좌수영성의 부속 시설로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 관련 유적들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금비라신사는 1918년 6월 18일에 본전이 건축되었고, 1922년 10월 배전(拜殿)이 건축되었다. 이 신사가 세워질 당시에는 여수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종교시설이었으나 전쟁시기에는 조선인의 정신마저도 동원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2) 인력과 물자 동원

일제는 1937년 9월부터 매월 1일을 애국일(1939년 8월부터는 흥아봉공일)로 지정하여 조선인들에게 정신운동, 소비절약, 국채옹모 등 전시협력운동을 강요하였다. 이어 1940년 10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명칭이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변경되었고, 총재도 조선총독이 직접 맡았다. 이러한 전시총동원체제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물자의 공출이 행해졌고, 인력 동원도 실시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모집, 관알선, 징용, 근로동원, 정신대, 징병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인이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다. 1937년 중국침략 전에는 '모집'의 이름으로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일본의 토목공사장·광산에서 이용하였는데, 이 노동력은 식민지지주제 발달과 함께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이 대다수였다.

중일전쟁 개시 이후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노동력 수급정책이 시행되면서 계획적인 노동력 동원이 시작되었다. 법령으로는 기업 주체 '모집' 이었으나 실상은 관주도의 계획적 동원으로 각 기업의 신청에 따라 총독부는 각 도와 군에 인원을 할당하여, 면에서는 경찰의 협력을 얻어 노동자를 행정적으로 강제 동원하였고, 심야와 새벽에 남자가 있는 가정집을 급습하거나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트럭에 실어 가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동원된 노동자들은 조선과 일본 내 탄광·광산·토목공사장·군수공장 등에서 노동했다. 그들 대부분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노동현장에 투입되어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수는 자료에 따라 113만 명에서 150여만 명에 이른다. 1910년경 약 1,000명

에 달하였던 재일 조선인은 1940년 119만 명이 되었고, 1945년에는 200만 명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전쟁말기에 재일 조선인이 급증한 것은 조선인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결과이다. 전황이 어려워지자 일제는 ‘근로동원’의 이름으로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동원하여 군사시설 공사에 투입하였다.

당시 여수에서도 강제 인력동원으로 군사시설 공사가 행해졌다. 일제는 여수읍 신월리에 있던 해군시설부에 비행장을 건설했는데, 이 비행장 건설에 전남 동부지역에서 근로보국대원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2개월씩 교대로 일을 했다고 하며, 그중에는 학생들도 끼어 있었다. 당시 학생들은 교사의 인솔로 비행기 기름에 쓰기 위한 송진 채취에 동원되기도 했다.

또 거문도에서도 1944년과 1945년에 걸쳐 하루 20여 명씩이 동원되어 공사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일본군과 면사무소의 유기적인 협조에 따른 마을별 인원 할당 시스템으로 동원된 것이었다. 특히 동도리의 시설물 공사에는 황해도, 경남 통영, 경북 철곡 등지에서 광부로 일했던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1944년 8월 23일에는 ‘여자정신대근로령’을 공포하여 12세에서 40세까지의 조선여성’을 강제로 동원했다. 이들은 일본과 조선 내의 군수공장에 집단 수용되어 군수품 생산에 동원되었는데, 조선인 여자정신대의 상당수는 중국과 남양 지방의 전투지구에 보내져 ‘일본군 사기 진작을 위한’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다.

성노에 징발은 이미 1938년 초 전쟁확대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이 때 일제는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지역에 ‘군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으로부터 ‘위



▲ 여수 - 시모노세키 여객선

안부' (성노예)를 강제동원하였다. 그 방법은 철저히 폭력에 의한 강제동원이었고, 그 수는 적계는 8만, 많게는 20만으로 추정된다.

전시 총동원체제기의 강제동원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은 전투병이 될 청년들이었다. 일제는 처음에 조선인 청년에게 무기를 들게 하는 것을 염려하여 전투병 동원은 꺼렸으나 전황이 다급해지자 마침내 조선인 청년들을 병력으로 동원하였다.

병력동원은 1938년 2월 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을 통해 지원병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지원한 사람은 18,000여 명이며, 이들은 농촌의 피폐로 살길을 찾아 지원한 소작농민들의 아들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태평양전쟁 이후인 1943년에는 '해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었고, 학도지원병제도가 시행되어 4,500여 명의 전문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이 전쟁터로 끌려갔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인 1944년에 일제는 마침내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1936년 미나미(南次郎) 총독 부임 이후 실시된 '황민화정책'은 궁극적으로 이 징병제 실시를 목표한 것이었다. 징병제의 실시로 1923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전원 징집되어 패전 때까지 약 20만 명의 조선 청년이 징집되었다.

일제 강점 말기 여수는 강제 동원된 인력이 집결되는 곳이었다. 전라선 열차에 태워져 여수역에 보내진 조선인들은 여수역 근처의 숙박시설에서 머물다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보내졌다. 그때 여수에서는 여수-시모노세키, 여수-하카타 항로의 연락선이 운행되고 있었다. 당시 인력과 물자 동원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통계자료로서 다음 표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 표는 1937년부터 1940년까지 4년간 여수항역을 거쳐 간 사람수와 화물량에 대한 것이다.

〈표3〉 1930년대말 여수항역 승하차 인원수와 발착 화물량

년도	승차인원	하차인원	발송화물(톤)	도착화물(톤)
1937	1,722	1,672	30,244	51,851
1938	1,913	2,180	32,414	58,573
1939	2,881	4,311	42,107	52,219
1940	5,062	7,902	68,982	96,944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해당연도판)

먼저 승객에 대한 통계를 보면, 승차와 하차 모두 매년 증가 추세인 것은 같지만, 전라선의 종착역인 여수항역에서 승차하여 내륙으로 간 인원에 비해 여수항역에서 하차한 사람의 수가 갈수록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차 승객 가운데는 여수지역 거주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수역까지 기차를 타고 왔다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 간 사람들도 많았으므로 강제 동원된 사람들의 수도 이 통계에 들어있으리라 생각된다.

화물 역시 마찬가지로 여수항역에 도착한 화물이 더 많았는데, 이것도 일본으로 이출되는 물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된다. 전라선 철도 연선에 있는 지역에서 공출제도를 통해 수집된 동원 물자는 가까운 기차역에 집결되고, 철도 화물로써 전라선의 종착역인 여수항역에 실려와 여수와 시모노세키 간 연락선에 실려 일본으로 보내졌다.





562) 필자의 다음 책의 내용
을 수장, 보편현대김인
이, 「일제시대의 여수지
역사」, 여수시문화원,
2006), 여수수산학교
투쟁, 신사참배 반대운
동 등은 별도의 힘목에
서 서술한다.

제2절 여수의 항일민족운동 562)

김 인 덕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합병된 조선은 일제의 압제와 착취 아래에서 일본제국주의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민족 해방투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에 조선의 민중은 일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봉건세력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족해방운동에 나섰다.

이러한 식민지 시대 조선의 민족운동은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반제 반봉건투쟁의 성격을 보다 극명하게 천명하며 발전해 갔다.

1. 3·1운동과 여수

1919년 3·1 운동은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제로 식민지가 된 이후 거국적, 거족적으로 전개된 반일 민족운동이었다. 여수에서도 3·1운동에 대한 소식은 청년, 학생들이 전했는데, 3·1운동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곳에서는 특기할 만한 시위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서울에서 시위투쟁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인 4월 1일 쌍봉, 소라, 울촌 등지에서 산발적인 소규모의 만세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투쟁의 열기가 여수 전역에 확산되어 도서지방인 돌산, 화정, 삼산, 남면 등지에서 학생, 농민, 어민들이 소규모의 시위투쟁을 일으켰다.⁵⁶³⁾

이러한 3·1 운동 시기 여수지역에서 시위투쟁을 조직적으로 준비했던 인물로는 유봉목(俞鳳穆)과 이선우(李善雨)를 들 수 있다.

유봉목은 경성에서 3·1운동에 참가하고 1919년 9월에 귀향하여 청년회를 중심으로 시위투쟁을 준비하여 이선우를 통해 여수수산학교 학생들과 선이 닿아 여수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위친계」를 조직하였으며, 또한 여수보통학교 및 수산학교 학생들도 시위역량으로 조직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중에 배반자의 밀고로 태극기 제작 과정

563) 이병현,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1969, 913
쪽.

에서 시위계획이 발각되어 결국 실패하였다.⁵⁶⁴⁾

시위계획이 발각되어 실패하게 되자 유봉목은 여수군수 앞으로 “여수청년회 조직에 반대하여 이를 해산시켰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로 너는 대한독립에 반대했으니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끈질기게 투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이렇게 여수에서는 3·1운동 시기에 시기적으로 비록 늦게 시위투쟁이 일어났으나 투쟁이 조직적이고 가열차게 준비·전개되어 일본경찰에게 47명이나 검거되었다. 이후 여수지역에서도 다수의 청년회가 조직되고 노동자, 농민들의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564) 「독립운동자료집」 제5집(3·1운동재민기획) 제2권, 1972), 1542~1544쪽.

2. 1920년대 민족운동

1920년대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은 조선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에 강하게 규정받는데, 여수지역의 지역단위 대중운동도 조선인 농민, 노동자, 어민⁵⁶⁵⁾과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1) 노동자·농민운동

(1) 여수노농공제회

565) 식민지 조선의 경우 순수한 어민은 거의 없었고 대다수가 빙농빈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항구면 여수지역에서는 주술하였다지만 실제 지역 단위 투쟁이 청년운동, 소작인운동, 노동조합운동과 같이 보편적인 대중투성이 주를 이루었다.

조선노농공제회가 조직되어 노농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때 여수에서도 1923년 여수노농공제회가 삼일면에서 조직되었다. 김병순(金秉淳)을 회장으로 주종근(朱宗根 : 부회장), 배관호(裴管濠 : 총무), 민영보(閔泳輔 : 평의부장), 김형두(金炯斗 : 간사부장), 김봉근(金奉根 : 저축부장), 김보여(金寶汝 : 근업부장), 서래음(徐來飮 : 표창부장), 주치규(朱治奎 : 서기부장), 김한승(金漢昇 : 회계부장)이 역원(役員)을 맡았다.⁵⁶⁶⁾

여수노농공제회는 조직 후 지주에 대한 요구 일반과 소작인의 행동수칙에 대하여 결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소작료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지세와 공과금의 지주부담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920년대 초반 조선의 노동운동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566) 『동아일보』, 1923. 2. 1.

이 여수지역의 노농공제회는 민족해방운동의 전국적인 발전에 따라 결성되었는데, 이후 여수지역 대중운동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구성원의 다수



가 여기에 가담하고 있었다.

여수노농공제회가 지주에 대한 요구를 결의하는 데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수지역에서도 소작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소라면소작인회와 삼일면 소작인회는 첫째, 소작료는 실 수확고의 40% 이내로 할 것, 둘째, 지세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할 것, 셋째, 소작권을 함부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결의하고,<sup>567) 「동아일보」, 1923. 1. 16.
1923. 1. 20.</sup> 면을 구 단위로 나누고 1개구에 평의원, 간사, 서기 각 1인씩을 배치하는 조직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소라면 소작인회 총회에서는 정수태(鄭水泰)가 대지주투쟁을 역설하여 800여 소작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회장에 추대되었다.

아울러 울촌, 쌍봉, 화양, 소라, 삼일면 소작인조합은 대회를 열어 여수지역의 소작인을 조직화하여 여수소작인연합회를 조직하였다. 대회 자리에서 소작인들은, (1) 공과금을 지주가 부담할 것, (2) 소작료는 토지에 따라 차등을 둘 것, (3) 소작권 이동 시에는 소작인회와 지주가 협의할 것을 결의하였다.^{568) 「조선일보」, 1923. 2. 7.}

이러한 소작인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항하여 여수지주회는, (1) 소작료는 반분한다, (2) 공과금은 다이쇼(大正) 11년(1922년)까지 소작인이 부담하고, 다이쇼 12년(1923년)부터는 지주가 부담한다, (3) 밭의 소작료는 3등급으로 나눈다고 결의하였다.

이렇듯 지역단위 소작인조합의 활성화는 노농운동 발전의 토양이 되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토대가 되는데, 이후 여수지역 소작인조합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노농운동단체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조직화될 때 여기에 참가하였다.

1924년 3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광주에서 결성된 전라노농연맹회에 여수지역에서는 밭기단체와 대표자로 여수소작인연합회(김병순), 여수소라면 소작인회(정영규), 여수울촌면소작인회(김호배), 여수화양면소작인회(김익수), 여수삼산면노농회(김병순), 여수쌍봉면소작인회(서상규)가 참가하였다.

그리고 셋째 날 소작운동에 대한 당국의 태도에 대하여 여수소작인연합회의 김병순은, “우리 여수에는 지주 소위 조선의 유산계급의 착취와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소작인의 6개의 단체가 단결하여 전라노농연맹회 개회의 통지를 받고 기뻐하였으며, …… 금일 면(面)이 단결하여 면(面)의 도적을 체포하고, 군(郡)이 단결하여 군(郡)의 도적을 체포하고, 도(道)가 단결하여 도(道)의 도적을 체포한다. 그리고 전선(全鮮)이 단결하여 전도(全道)의 도적을 체포하며

힘써 투쟁하면 전부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선진적인 소작인운동의 경험을 강연하였다.⁵⁶⁹⁾ 김병순의 이러한 강연은 지역단위 소작인운동의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내용으로 소작인회의 단일한 조직화를 역설하였다.

또한 남선노농동맹에는 김병순과 박병두(朴炳斗)가 함께 여수소작인연합회를 대표하여 49명의 전형위원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이 남선노농동맹 창립에는 여수지역에서 여수율촌면소작인회, 여수삼일면노농회, 여수쌍봉면소작인회가 궤석인 형태로 가담하였다.

아울러 지방단위 노농운동 조직화의 성과 위에 결성된 조선노농총동맹에는 남선노농동맹회 계열로 율촌소작인회의 이기례(李基禮)가 참석하였다. 이후 율촌소작인회는 소작동맹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총회를 열어 조선노농총동맹의 회원자격 규정에 따라 회비 송부를 결의하면서, 조선노농총동맹위원인 이영민의 ‘농민아 단결하라’는 강의도 청취하였다.⁵⁷⁰⁾

569) 「勞農運動の概況」(조선총독부경부국, 1924), 91~92쪽.

570) 「동아일보」, 1924. 7. 3

(2) 여수노동친목회

이와 같은 소작인 운동의 발전과 함께 여수지역에서도 노동운동이 발전하여 조직화되는데, 그 최초의 성과가 여수노동친목회⁵⁷¹⁾였다. 여기에는 여수노농공제회와 후술할 여수청년회에서 지역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주로 구성원으로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조직 구성원의 중복은 지역단위 운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수노동친목회의 창립대회는 1924년 4월 5일 7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열려, 임시의장인 유계준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후 규칙통과, 임원선거,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남선노농동맹위원인 김병순의 인사와 박병두의 축사 조영균(曹永均), 최석주(崔錫柱), 김종익(金鐘益), 이상오(李相五)의 강연이 있었다.⁵⁷²⁾

이렇게 창립된 여수노동친목회는 1924년 4월 14일 임원회에서 1924년 4월 17일 개회 예정인 전조선노농총동맹 창립 총회에 출석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여수 노동친목회는 공식적으로 조선노농총동맹 창립총회에 참가하지 않고, 전술했듯이 율촌소작인회의 이기례만이 출석하였다.

571) 회장에는 유계준(俞桂俊) 부회장에는 최석주(崔錫柱)가, 역원으로는 김운재(金運澤) : 총무부, 김우현(金祐顯) : 사무부, 정문식(鄭文植) : 교육부, 장상렬(張相烈) : 재무부, 이충수(李宗洙) : 사교부, 연진모(延振模) : 조사부, 김 선천위원(金善天委員) : 조사부, 김병순(金秉淳) : 조사부, 김 선천위원(金善天委員) : 조사부, 김정수(金正秀) : 조사부, 김 선천위원(金善天委員) : 조총회(趙鍾熙) : 조사부, 김 선천위원(金善天委員) : 조사부, 김경원(金敬元) : 광의원, 이영준(李英俊) : 광의원, 김상임(金相任) : 광의원, 외 19인이 선임되었다(『조선일보』, 1924. 4. 11; 『동아일보』, 1924. 4. 9).

572) 『조선일보』, 1924. 4. 12

그런데 이 노동자 조직은 여수지역의 운동세력이 집결하여 결성되었으나 실제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요구를 조직화하고 지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1920년대 대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이 시기 여수지역의 노동운동

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농민, 노동자들의 조직은 지역의 대중단체로 지역운동의 발전에 우선적인 과업을 두고 있었으나 대중을 조직하거나 선도적으로 쟁의를 견인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당시 운동 발전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선공산당의 세포였던 정순제(鄭淳悌)는 이러한 여수의 운동상태를 평가하여, “여수지역에 다수의 노동대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단체가 없으므로 조선인 신문의 지국이 1개소도 없다.”, “여수의 전도가 막연하다.”, “몇 개의 단체가 존재하나 특기할만한 전적은 아직 거의 없다.”⁵⁷³⁾고 하였다.

573) 「시대일보」, 1926. 7. 6

1920년대 초반기까지 여수지역에는 노농운동단체와 후술할 청년운동 조직들이 존재했으나 반제반봉건의 형태로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노농총동맹의 창립에 참가하기도 했던 여수지역의 노농운동세력은 경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중앙에서의 운동의 발전과 전술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즉 1926년 12월 조선공산당의 지도 아래 아래 작성된 신정책-조선노동총동맹의 산하단체를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으로 분리하고 정치투쟁을 강조-에 따라 전국 각지의 노농운동단체는 분산적인 노동자·농민단체를 지역별 연맹으로 조직화하였다.

아울러 조선노농총동맹은 1927년 8월 9일 중앙상무위원회를 열어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의 규약 초안을 승인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혼합적인 조직형태를 계급별 전국 조직으로 재편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여수지역의 노농운동 세력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지역단위에서 조직을 재편, 강화시키지 못하였다.

(3) 여수노동조합

여수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이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여수노동조합 창립대회가 있은 1929년 3월 19일 후인 것 같다. 순수노동자 562명이 가입하여 창립된 여수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여수에 주



▲ 남조선철도주식회사 토지 매입(동정 일대)

재하는 노동자의 통일 및 지방미풍 보존”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회장에 박상래(朴相來), 이사에 김보평(金寶樞)이 선임되었다.⁵⁷⁴⁾

아울러 여수노동조합의 지부 설립을 추진하여 본부와 같은 취지 아래 미평에 160여명의 조합원으로 제1지부를 창립하였다.⁵⁷⁵⁾ 이렇게 노동자의 통일을 내걸고 여수노동조합이 출범한 것은 당시 여수지역 노동운동세력이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에 부분적이나마 부응한 것이었다. 이후 여수노동조합은 평의원회를 열어 조직의 강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수노동조합은 여수지역의 자유노동자와 공장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들의 투쟁으로 견인하였는데 축항공사에 동원되었던 일용노동자의 파업투쟁과 미야다(宮田)간석공사장 노동자 파업투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파업투쟁을 주도한 여수노동조합은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에도 적극적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조선철도주식회사의 노동자로 여수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여 부상자 구호와 권리옹호에 나선 것이 그것이다.⁵⁷⁶⁾ 이후 여수노동조합은 1932년에 가면 가입회원 2,800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⁵⁷⁷⁾

(4) 여수농민회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여수지역 농민운동에서 주목할만한 사건으로 여수농민회가 주도한 남조선철도주식회사의 기만적인 토지 저가매입에 반대한 투쟁을 들 수 있다.

1936년 조선총독부가 사철을 사들여 국영화하기 이전까지 조선의 철도는 남조선철도주식회사가 부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1928년 여수에 철도선을 부설하기로 결정하고 후보지로 여수지역에서는 동정(東町) 일대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되자 여수 군수는 시가지 건설안을 회사 측에 비밀리에 제출하면서 외형상으로는 철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남조선철도주식회사와 부지선정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여수지역에서는 기존에 토지매입이 평당 3원 50전에서 60전 사이에서 진행되었는데, 당시 여수면 당국과 조선인 지주로 구성된 주선위원회는 회사 측과의 면담에서 1원 50전으로 남조선철도주식회사에 매수를 책임지겠다고 해버린다.

아울러 이들 주선위원회는 3만평을 남조선철도주식회사에 무상으로 기부

⁵⁷⁴⁾ 아울러 평의원에는 김현상(金漢星), 유한수(劉漢秀), 정재익(鄭在益), 이신면(李善明), 김재선(金在成), 김봉완(金奉完), 박우연(朴又淵), 유봉복(朱鳳福), 김희운(金熙運), 김장평(金長平) 등을 선출하였다(『동아일보』, 1929. 3. 23).

⁵⁷⁵⁾ 지부장에 이백언(李白允), 이사에 김연두(金鍾斗), 도감독에 박춘희(朴春熙), 평의원에 어성목(吳成模) 등 10인을 선출하였다(『조선일보』, 1929. 5. 1).

⁵⁷⁶⁾ 『동아일보』, 1929. 7. 2.

⁵⁷⁷⁾ 『朝鮮における工場及勞動組合』(고등법원검사국 사법부, 『조선사상운동조사자료』(1), 1932. 11), p.42.

하고 290,304평에 대해 405,000원으로 협정을 맺으며, 일인당 현금 100원 씩을 보수로 받아 챙겼다. 사육을 채운 주선위원들은 여수에 돌아와 군 직원과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동정 일대의 개인별 토지가격을 산출하고 일반 지주에게 4종과 2종 우편물을 통해 토지매입에 따르도록 강제하였다.

당시 남조선철도주식회사와 여수군 그리고 주선위원회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남조선철도주식회사는 철도 부설은 뒤로 미루고 토지매입을 통해 지가 상승 시의 차액을 얻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었고, 여수군은 시가지 조성을 위해 토지의 저가매입에 혈안이 되었으며, 주선위원들은 여수 발전이라 는 이름 아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였다.

이들 삼자는 결국 이해가 맞아 기만적인 토지의 저가매입을 강행했던 것이다. 대체로 당시 조선의 중품 이상의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은행, 조합, 일본인 농장이 소유하였으며 여수에서도 일반지주와 자·소작농들이 평당 1 원 50전을 쳐주고 받은 돈으로는 토지와 가옥을 도저히 구입할 수 없었다.⁵⁷⁸⁾

578) 「조선일보」, 1929. 2. 26~29.

결국 남조선철도주식회사와 여수군 당국의 저의를 간파한 여수농민회는 여수군과 남조선철도주식회사의 방해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나섰다. 여수농민회는 동정 솔밭거리와 덕충동 충민사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친 농민 대회에서 남조선철도주식회사의 속셈을 폭로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혈값에 땅을 팔지 말도록 권유하였다.⁵⁷⁹⁾

579) 「조선일보」, 1930. 4. 21.

한편 남조선철도주식회사는 감언이설로 농민들을 속여 다량의 토지를 매입한다. 이 과정에서 남조선철도주식회사는 만일 가격이 오를 때는 오른 가격에 따라 차액을 지불하기로 기만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580) 「조선일보」, 1929. 7. 22.

그러나 남조선철도주식회사는 토지에 대한 가격을 증액(논 : 1원 50,60전, 밭 : 1원)하여 매수한 일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계약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이후에는 훨씬 고가인 6, 7원으로까지 매입하였다.⁵⁸⁰⁾ 결국 이렇게 되자 피해를 보는 쪽은 조선인 소지주나 자·소작농뿐이었다. 따라서 여수농민회는 조내환(曹乃煥), 최석주, 정봉효를 경성으로 파견하여 총독부 경무국과 철도 당국자들과 면담해 하여 진상을 설명하고 항의하였다.⁵⁸¹⁾

581) 「조선일보」, 1930. 4. 21.

3년 이상 진행된 여수농민회의 투쟁은 끝내 여수군 당국과 남조선철도주식회사의 속셈을 폭로하고 그들의 야심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 투쟁에서 여수지역의 농민은 일제 총독부 권력의 속성과 조선인 대지주의 계급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여수지역 노동자, 농민의 조직과 투쟁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1920년대 여수지역의 노농운동은 조직과 활동에서 양자를 명확히 구분 짓을 수 없다. 특히 여수의 노농운동은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앙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한 요인으로 당시 민족운동이 중앙 중심으로 전개되어 단위 지역 내의 문제가 중앙에서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2) 청년·학생운동

조선에서의 청년·학생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데 1922, 1923년경부터는 민족개량주의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모든 사회운동이 청년·학생운동을 기저로 전개되었다.

(1) 여수(지방)청년회



▲ '맞돌회' 회장 김백평

여수지역의 청년·학생운동에서 경성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학생운동의 발전과 함께 다수의 조직이 생겨났는데 1920년대 이곳의 주요 청년운동 단체로는 여수청년회, 여수정구단, 여수기독청년회, 남면청년회, 여수장군단, 맞돌회, 코스모스회, 미왕청년회, 백야리청년금주회, 맛치단, 화이면청년회, 돌산청년회, 여수독서회, 여수향기독장려청년회, 쌍봉청년회 등이 있었다.⁵⁸²⁾

이 가운데 여수(지방)청년회는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다수의 구성원을 포용하여 여수지역 청년운동의 구심이 되었는데, 1920년 7월 24일 여수향교 내 명륜당에서 일제의 탄압을 뚫고 창립되었다.⁵⁸³⁾

이 단체는 덕성합양, 지성계발, 체육발달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구성원으로는 최석주(회장), 정태훈(부회장), 서정두(총무), 박상래(평의부장), 연진현(외교부장), 정재하(인육부장), 김혁철(지육부장), 정태*(체육부장), 우명범(위생부장), 박병기(재무부장), 김한성(최고이사부장), 장재영(육성부장) 등이 참가하였다.⁵⁸⁴⁾ 이렇게 출범한 여수청년회는 수 차례에 걸친 총회를 통해 주

582) 조찬석, 「1920년대 전라남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논문집』(20), 1087, 14쪽.

583) 『동아일보』, 1920. 8. 1.

584) 『동아일보』, 1920. 8. 1.

요 사항을 토의하고, 결의하였는데 주로 여수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의 개선과

585) 「동아일보」, 1922. 9. 11.

반일의식 고취에 사업의 역점을 두었다.⁵⁸⁵⁾

여수청년회는 이상과 같은 사업을 노동야학 개설과 강연회를 통해 진행하였는데, 강연회는 '현금에 금전이 귀중한 이유', '근검과 나태', '인생과 활동', '학생생활과 사회생활', '각성', '조혼의 폐, 상제의 폐', 그리고 위생, 근검, 각성, 쳐세, 의료 등 주로 계몽적인 내용들로 채워졌다.

노동야학은 가장 중요한 청소년 교육의 장인데, 여수의 노동야학은 여수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일찌감치 조직되어 오랫동안 지역민 교육에 기여하였다. 여수청년회 노동야학과 함께 여수지역의 주요한 노동야학으로는 거문도노동야학, 죽포노동야학, 장천노동야학 그리고 청소년회야학 등이 있었다.

한편 3·1운동 시기 경성의 여수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은 재경 여수유학생회를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3·1운동에 참가하여 다수가 퇴학이나 자퇴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퇴학이나 자퇴를 당해 귀향한 학생들은 여수지역의 청년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들은 맞돌회라는 계몽단체를 1921년 5월경 김백평(金柏樞)을 회장으로 하여 결성하였다.

이 단체도 여수지방청년회와 비슷하게 민중계몽을 위해 대중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야학을 통해 한글을 가르치면서 반일사상을 고취하였다.

특히 맞돌회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발소와 쌀가게를 경영하여 조직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낮은 수준의 대중운동 단체로 한 개인에 의해 주도되었던 맞돌회는 김백평이 일경의 탄압에 굴복하여 도미하면서 여수청년회로 흡수, 통합되었다.

그런가 하면 맞돌회를 흡수한 여수청년회는 1922년 9월 3일 제5회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한다. 총회에서는 회칙을 개정하여 위원제로 간부진을 새롭게 선임하고,⁵⁸⁶⁾ 회관 수립(1930년말 준공)의 건과 노동야학 급설의 건을 가결하였다. 아울러 조직의 명칭을 여수지방청년회에서 여수청년회로 개칭하였다.⁵⁸⁷⁾ 특히 제5회 정기총회 이후 청소년의 교양과 반일의식 고취를 위해 설치 운영되었던 노동야학은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면서 다수의 노동자를 교육시키게 되었다.⁵⁸⁸⁾

이렇게 여수청년회는 여수지역 청년운동의 구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여수청년회는 대중교양이 사업의 중심이어서 계몽적 민족운동의 단계에 머물고 말았다. 즉 조직을 이끌던 지역의 청년, 인텔리가 자신들의 한계와 지역의 고립분산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586) 위원 : 김관우(金寬宇), 우영별(禹永範), 장기선(張基善), 연진룡(延振龍), 장재후(張再厚), 의사 : 박상태(朴相泰), 김한성, 장명길(張明吉), 최석주, 김정수(金定秀), 「동아일보」, 1922. 9. 11.

587) 「동아일보」, 1922. 9. 11.

588) 「조선일보」, 1928. 5. 3.

한편 전남지방에서는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청년회연합회가 1924년 3월 2일 결성되어 전남의 청년운동을 조직화해 나갔는데, 1926년에 가서는 전남청년연맹으로 개칭하면서 조직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여수지역의 청년운동 조직은 앞서 서술한 소작인 조합들과 달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방 운동세력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하였다. 이후 지역단위청년운동연맹이 동맹으로 강화되는 1927년을 전후한 시점의 청년운동발전의 일반적 흐름에도 여수의 청년단체는 행보를 함께 하지 못하였다.

(2) 근우회 여수지부

신간회가 결성되고 난 이후 각 지역에서는 지회들이 결성되는데, 여수의 인근 순천, 광양의 경우 신간회준비회는 지역의 청년, 농민, 노동운동세력을 결집하여 지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여수에서는 지회설립 내용을 현재까지 신문자료 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한편 근우회 여수지회는 신간회 지회와 달리 1929년 6월 11일 결성되었다.⁵⁸⁹⁾ 근우회 지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경성본부에서 파견된 심은숙(沈恩淑)이 여수에 오자 이것을 기회로 여수여자청년회 회원들은 여수에 지회를 결성하였다.

근우회 지회 설립 이전에 여수에는 여수여자청년회가 활동하였는데, 여수여자청년회는 1929년 6월 근우지회 설립 때 사회를 보았던 김덕숙을 중심으로 여수청년회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여수지역 여성청년조직이었다.

이밖에도 여수에는 「시대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지국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고, 이들 지국의 구성원들은 여수지역 운동세력과 함께 지역운동의 발전에 동참하였다.⁵⁹⁰⁾ 이러한 여수지역에는 동시에 소년운동을 전개하던 청소년회도 결성되어 있었다.⁵⁹¹⁾

지금까지 여수지역의 청년운동을 여수청년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20년대 초반 여수지역의 청년회는 강연회, 야학, 그리고 체육 및 생활개선 캠페인 등을 주로 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여수의 청년운동은 광주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운동의 발전에 행보를 같이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신간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전국 규모의 운동과 결합되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여수청년회는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에 가서는 이창수, 주원석, 김용환, 여운종 등과 같은 마르크스-레닌

589) 「동아일보」, 1929. 6. 15.

590) 「시대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여수지국 기자들은 1924년 6월 12일 여수기자단을 조직하여, 이 지역 출신인 김장수(金正洙)·동아일보여수지국 기자, 여수청년회 의사, 노동전국대회 서기를 역임한 간사로 선임하였다. 아울러 강령과 결의사항을 전명하였는데 강령은 '우리는 언론계의 관위를 보존하며 기자의 태도를 천명하여 성호활동적으로 우리의 진용을 할일 하여 사회개발을 도모하기로 한다'고 하였으며 결의 사항은 '첫째, 여수공립보통학교장인 고아시 가즈노스케(小聲一之助)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철저히 공격할 것, 둘째로 시대의 진보에 따라 남녀 연정민선운동에 대하여 철저히 원조할 것' 등이었다. (『동아일보』, 1924. 6. 16.) 이후 1929년 5월 20일에는 김홍식(金鴻植)을 위원장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당시 여수지역의 중요한 사회문제였던 남조선철도회사의 만행에 대하여 규탄하고 전남기자대회 소집에 참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동아일보』, 1929. 5. 23.) 그러나 여수기자단은 1931년 5월 22일 규약을 수정하여 전복을 도모하는 친일적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591) 「조선일보」, 1930.8.10



주의적 민족해방운동세력에게 합법투쟁의 장으로 활용된다.

(3) 여수지역 학생운동



▲ 수산학교 동맹휴학에 관한 신문기사

전술했듯이 1920년대 초 여수지역은 청년 운동이 경성과 도쿄(東京)에서 유학했던 학생들이 중심되어 전개되었는데, 1920년대 중반 까지는 지역단위의 학생운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 특히 1929년 광주 학생운동 이후에는 여수수산학교의 학생들과 광주, 서울 등지에서 공부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청년·학생운동을 이끌어간다.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조선 사회운동의 한 획을 그은 광주학생운동은 반일감정에서 출발하여 반일반봉건 학생투쟁으로 지역적 차원을 넘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여

기에 여수지역 출신으로 여도현(呂道鉉), 곽찬신(郭贊信), 노병주(盧秉株), 박종문(朴鐘文), 류지선(柳志善) 등이 적극 가담하였다. 특히 여도현은 '성진회(醒進會)'에 관계했던 인물로 여수지역의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민족해방 운동을 주도한다.

여수지역의 학생투쟁으로 반일반봉건 민족해방투쟁의 성격을 띠고 전개된 대표적인 사건이 1930년 11월 11일의 여수수산학교 동맹휴학이다. 여수는 인근에 많은 도서를 거느린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수산업의 중심지로 이곳의 수산학교는 조선총독부의 수산교육 진흥책에 따라 조선 최초의 공립수산학교로 1917년에 개교하였다.

이 학교의 동맹휴학은 단순한 원인에서 출발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여수지역에서도 청년 학생들은 군내 여러 곳에 벽보를 붙여 반일의식을 고취하며 지역민들로 하여금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여수수산학교의 일본인 교사가 수업시간에 술을 먹고 들어와 조선인 학생들을 구타하고 민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다.

이것을 기화로 독서회를 통해 반일 투쟁조직으로 조직화되어 있던 수산학

교 학생들은 전교생을 선동하여 마침내 반일 동맹휴학 투쟁을 일으켰다. 이 때 수산학교 학생들은, “1) 민족차별을 철폐하라, 2) 한국인에게는 한국사를 가르쳐라, 3) 모국어 사용을 막지 말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투쟁하였다. 이렇게 여도현의 지도 아래 마르크스주의 독서회를 통해 과학적 민족해방운동론을 학습한 윤경현(尹景鉉), 이용기(李容起) 등은 학생대중의 정서에 맞게 전술적으로 낮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제기하고 투쟁을 선도하였다.

당시 여수수산학교에는 1차 여수독서회 조직 이후, 이 조직의 지도를 받고 있던 3개조의 학습, 연구 모임이 각 학급을 지도하고 있었고, 이러한 조직기반이 일시에 전교생을 동맹휴학 투쟁으로 견인하였다.

여수수산학교 동맹휴학 투쟁은 14명이 실형⁵⁹²⁾을 선고받은 것으로 일단락 된다. 이 투쟁을 통해 여수지역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해방운동 조직이 부분적으로 가시화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1930년대에 가서는 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까지 1920년대 여수지역의 청년, 학생운동을 살펴보았다. 여수지역의 이러한 운동은 전술한 노농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반일투쟁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3. 1930년대 민족운동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으로부터 1928년 「12월테제」로 해산을 명령받는다. 이후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은 일시적으로 중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겪게 되는데, 「12월테제」를 접수한 조선의 공산주의 세력은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서울·상해파), ‘조선공산당재조직중앙간부’(ML파), ‘조선공산당조직준비위원회’(화요파) 등을 조직하고 분산되어 있는 국내 동지들을 결속하여 당을 재건하는데 전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파벌중심의 당재건운동이 1930년대 초 전남지방에서도 전개되는데 광주, 목포, 영암 등지를 중심으로 지역 전위조직 건설운동이 있었다.⁵⁹³⁾ 특히,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는 지도적 활동가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전 조선을 경의, 경부, 호남, 중부, 함경으로 나누어 그 밑에 각선 간부회를 설치하는데, 호남선 책임인 오성세의 명을 받은 서재익(徐在益)이 중심이 되어 1931년 2월 ‘공산청년전남재조직준비위원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조직은 활동을 개시하기 전인 4월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검거로 파괴되고 만다.

592) 주요 인물과 그 행적은 다음과 같다. 윤경현: 이용기 2년, 오늘보, 정학(正學)·빈안별(貞安別), 조병호(趙炳浩) 1년 반, 계제석(郭在石), 김봉학(金奉七), 진자미(秦者美), 김찬호, 정포의, 박창래(朴昌來), 김재곤(金載坤); 1년 「동아일보」, 1931.8.30) 여수수산학교에서는 일제가 보다 가혹한 탄압을 기하는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2년 11월 조선어 사용의 허가와 민족차별이 심한 일본인 선생의 해직을 내걸고 반일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김계율, 「여수·여천방진사」, 번역, 1988, 303쪽).

593) 김봉숙, 「1930년대 전반기 전남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연구」, *이대대학원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32~33쪽.

이밖에도 전남지방에는 ‘전남노농협의회’, ‘전남사회운동협의회’,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 ‘목포공산주의자동맹’, ‘전위동맹’ 등이 당재건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중에서 조직의 규모와 지속성, 인적 구성에 있어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과 ‘전남노농협의회’가 주목할 만하다. ‘전남노농협의회’는 1931년 12월 조직되는데, 이 조직은 ‘조선공산당재건설동맹’이 해체된 뒤 활동가 간의 연락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의 지도에 의해 결성되었다.

1932년 ‘전남노농협의회’가 검거된 이후 전남지방에는 이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활동이 분산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첫째 김부득(金富得)이 중심된 재조직 시도⁵⁹⁴⁾와 ‘전남노농협의회’ 순천 책임자인 정시환(鄭時煥)의 지도하에 광양지역 활동가들의 재건 시도가 그것이었다.⁵⁹⁵⁾ 이 ‘전남노농협의회’에는 여수지역 출신으로 정시환의 권유로 정영한(鄭永翰) 등이 참가하였다.

594) 「조선일보」, 1932. 2. 18.

595) 「조선일보」, 1932. 12. 19.

1) 여수지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해방운동

(1) 여수독서회

여수지역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민족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전술한 여수수산학교 동맹휴학 투쟁 이후이다. 이 지역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지역의 청년, 학생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한 곳이었다. 따라서 1925년 조선공산당 창건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수지역에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족해방운동이 유입된 것은 광주와 서울에서 들어온 활동가들을 통해서였다. 성진회의 구성원으로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여도현과 ‘조선공산당재건설 준비위원회’의 이동휘, 김영만의 지도를 받은 모스크바 공산대학 출신인 김영균(金永均)은 여수지역에 들어와 독서회를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여수지역에서는 선진적인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된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해방운동 조직이 성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1, 2차 여수독서회이다. (표1) 참조

1, 2차 여수독서회를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민족해방운동의 토양이 본격적으로 배양된 여수는 여도현(呂道鉉), 김용환(金龍煥), 여운종

(呂運鏞)의 검거와 2차 여수독서회의 지도자 김영균이 동지의 대부분이 검거된 경성의 운동정세를 듣고 여수에서의 활동을 중지하고 상경하여 조직이 잠시 부재하게 된다.

이렇게 되자 2차 여수독서회에서 활동했던 장평완, 김인식, 오우홍 등은 '여수사회과학연구회'와 '여수청년전위동맹'을 새롭게 조직하였다. 이러한 조직들은 기존의 독서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강령과 목적 아래 투쟁하였다.

이렇게 1930년대 여수의 주요한 민족해방운동조직으로는 여수수산학교 동맹휴학투쟁을 지도했던 '여수독서회'와 '여수사회과학연구회', '여수청년 전위동맹', 그리고 '여수적색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여수적색노동조합 건설 준비회',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 등이 있었다. 이들 조직의 강령 및 운동 방침, 그리고 구성원과 활동을 도표화 하면 〈표1〉과 같다.

〈표 1〉 1930년대 여수지역 주요 민족해방운동 조직

조직명칭	강령 및 운동방침	구성원	주요활동
1차 여수독서회 (1929.8.상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회 실현을 목적 • 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는 전투적 마르크스주의의 합당 보급을 도모한다. ② 우리는 건전한 전위투사가 될 것을 도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도현(지도자), 김용환(총무), 여운중(회계), 김양식(서적보관), 박병립(지도보조) • 박채영 가입(1929. 8.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0. 1월까지 20여회 회합
2차 여수독서회 (19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균, 박채영, 강동주, 최준문, 장평완 • 오우홍(1930. 2. 중순), 김인식(1930. 3. 중순)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0. 6 김영균에게서 박채영으로 지도인계 • 1930. 5 김영균, 이강렬, 김학동 등과 서울에서 독서회 조직(여수와 동일목적) • 신간회 조직준비회를 여수군 삼산면에서 조직 : 이기순(책임)(1930.7) 이기동외 10명
여수사회과학연구회 (1930.8.상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조직과 동일강령,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희봉(지도자), 장평완(회계), 오우홍, 김인식, 이상도, 김용운, 김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독서회를 김영균이 박채영에게 지도를 인계한데 불만을 갖고 장평완의 주도로 출범
여수청년전위동맹 (19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조직과 동일강령,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평완(책임 겸 회계) 오우홍, 최준문, 강동주, 김양식, 김용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희봉이 위의 조직을 무성의하게 지도하여 새롭게 조직
여수적색노동조합 (1932.7.상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회 실현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충조(책임자), 김용환(교통운수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창수, 장평완 간의 감정 대립으로 표면상 결사를

조직명칭	강령 및 운동방침	구성원	주요활동
여수적색노동조합 (1932.7.상순)	<p>『운동방침』</p> <p>① 각자 직접 노동자가 되어 책임부문에 들어가 동지를 확득할 것</p> <p>② 프로핀테른 「9월테제」를 지지할 것</p> <p>③ 각 부문에 있어 하부공작은 해당부문 책임자에게 위임할 것</p> <p>④ 구성원은 책임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p> <p>⑤ 회합은 필요에 따라 월2회 책임자를 소집할 것</p> <p>⑥ 경비는 각자 부담할 것</p>	박채영(해산노동부), 여운중(점원노동부), 주원석(정미노동부), 장평원(철공노동부), 이창수(토목건축부), 오우홍(부인노동부)	해체하고, 이후 각자 지하운동으로 몰입하기로 결의(1932. 10)
여수적색노동조합 건설준비회 (19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회 실현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순철(책임자, 교통부), 조병섭(항만노동부), 문석(고무공장노동부) 1932년 8월 하순 개편 : 하순철(책임자, 고무공장노동부), 문석(고무공장노동부), 조병섭(고무공장노동부), 이창희(정미공장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석훈을 제주도에서 소환하여 항만노조책임으로 여향운수회사에 취업시켜 활동하게 함.
조선공산당 재건 전남동맹 (19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체변혁 및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영한(서기국검노동부책임), 선동기(농민부겸출판부책임)(1차 조직) 1933. 7월 개편 : 선동기(서기국검농민부책임), 정영한(노동부책임), 김태순(출판부책임), 정충조(반제부검재정부책임) (2차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충조가 기초한 「우리동맹」의 임무와 강령초안, 채택 「적기」, 「발간광양」, 영암, 나주, 부산에 배포 부산, 서울, 대구 등지에서 활동

참고문헌 : 「여수사회과학연구회,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 여수청년전위동맹, 독서회조직 사건」, 『사상휘보』(8),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7.9; 「조선공산당 재건전남동맹 강령」, 『사상월보』(4-2),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4.5; 신주백,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연구』(I) 새길, 1989, 297~303쪽, 『동아일보』 1934. 1, 31, 1936. 5, 5 참조.

(2) 적색노동조합(건설)운동

1931년 이후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은 적색노동조합, 농민조합을 순차적으로 건설한 연후에 그 성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단위의 공산주의자 그룹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바뀐다. 즉, 기존의 당재건위원회를 해체하고 적색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의 강화에 의지하는 새로운 조직 노선이 점차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하였다.⁵⁹⁶⁾

한편 기간산업의 확충과 함께 여수지역은 신흥공장지대로 부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의 객관적 토대가 마련되는데 1930년대 여수지역의 주요한 공장으로는 천일고무공장을 비롯하여 여수전기, 전남제빙, 거문도제빙 등 의 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광주, 목포와 함께 전남지방의 주요한 공장지대로 떠오른 여수는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가 조선 내에 미치면서 물가가 폭등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여수지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연구, 학습하며 지역운동에 복무하던 여수독서회와 그 이후 전위적 민족해방운동 조직의 구성원은 정충조(鄭忠朝), 그리고 2차 조선공산당사건으로 복역을 마친 이창수(李昌洙) 등과 회합을 갖고 기존에 여수지역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부진했던 이유로 전위동지들의 열의 부족과 조직 방식의 오류 때문이라고 평가한다.⁵⁹⁷⁾

그리고 「12월태제」와 「9월태제」에 의거하여 노동자 대중을 기초로 하는 산업별 체계에 의해 적색 노동조합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지역 노동조합 건설의 길로 나아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1932년 7월 “노동자, 농민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훈련하여 공산주의운동의 진전을 도모하는 것”을 당면의 임무로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가 조직되었다. 아울러 이 조직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되어, 노동자 대중을 획득하고 이를 적색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여 이들을 혁명적으로 지도해서 지역단위의 노동운동을 장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조직은 1932년 10월 중심구성원인 이창수와 장평완 간의 감정대립이 문제가 되어 만 3개월 만에 표면상 해체되었다.

한편 지역에 운동의 기반을 갖고 조직된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와 달리 이창수의 지도 아래 여수에 들어온 다른 지역 출신의 활동가들은 ‘여수적색노동조합건설준비회’를 결성한다. 이 조직도 전술한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와 동일한 목적으로 공장 속에서의 노동대중을 획득하고 이것에 기초한

596) 한경식, 「조선공산당 제
간운동」, 『한국사총집』
(10) 원림사, 1992 참조.

597) 「여수사회과학연구회,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
회, 여수청년전력동맹,
독서회 등 조직사건」(시
성회보)(8) 고등법원감
사국사실부, 1937.9.1
와 「여수조직사건」으로
인정한다.) 165쪽, 이하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
회」에 관한 내용은 특별
한 주가 없는 한 이 글을
참조.

적색노동조합의 건설을 도모하였다.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가 해체된 여수의 민족운동은 이 조직의 책임을 맡았던 정충조 등에 의해 주도되는데, 그는 여수지역의 대표적인 공장인 천일고무공장의 여공을 대상으로 "천일고무공장은 전 조선에서 가장 노동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는 12월부터 임금인하를 단행하려고 한다. 이것은 공장주가 여러분의 피와 땀을 착취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여공 여러분은 일치단결하여 임금인하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동맹파업을 선동하였다.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족해방운동의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던 정충조 등은 '여수적색노동조합건설준비회'의 구성원을 흡수하고 단일한 체계를 갖추고 산업별로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 새로운 결사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갖고 출범한 것이 아니라 연락체계만 갖고 운영되었던 것 같다.

이후 이들은 적색노동조합의 건설방식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내부를 혁명화시키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적색노동조합을 분리 조직하고 있던 당시 적색노동조합의 일반적인 조직방식이나 여수지역의 이전 적색노동조합의 건설을 준비하던 때의 조직경로와는 달랐다.⁵⁹⁸⁾

이렇게 적색노동조합의 조직방식에 대하여 확정한 정충조, 김석훈, 조병섭 등은 우선 노동자 대중의 교양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김석훈을 여행운수회사에 그리고 조병섭을 혼다(本田)정미소에 파견하여, 「잉여가치란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하는 리프렛과 각종 이론서를 통해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특히 히노(日野)정미소에서는 박종태(朴宗泰)를 중심으로 40여명의 노동자들이 기존의 40전의 임금을 6, 70전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맹파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⁵⁹⁹⁾

공식적인 결사체를 갖고 있지 않던 이들 여수지역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족해방운동세력은 이밖에도 정충조가 중심이 되어 문석을 광양군 옥룡광산의 오르그로 파견하였으며, 이후 문석은 박준오, 김희곤, 김기문, 김갑곤을 지도, 교양하여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다.

그런가 하면 1920년부터 존속한 여수청년회는 이 시기 여수지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해방운동 세력에게 주요한 합법 투쟁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1933년 2월 여수지역 마르크스-레닌주의 운동 세력은 '여수청년회관조

598) 「여수조직사건」, 100쪽,
임금식, 「조선공산당 제
간문집」, 「한국사강좌」
110(한길사, 1962), 참
조.

599) 「동아일보」, 1933. 2.
23.

합준비회'의 조직원이었던 주원석, 김용환, 여운종으로 하여금 청년회 기금으로 「인터내셔널」, 「프롤레타리아문화」등의 각종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비치했다. 또한 청년회 기금을 기존의 여수지역 노동조합을 혁명화시키는 데 필요한 운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여수청년회관은 이들 세력의 비밀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다.

한편 이들은 정충조가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의 기관지를 인쇄할 목적으로 소라고등보통학교의 등사판을 절취한 것이 단서가 되어 검거된다.

여수지역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해방운동의 적색노동조합건설투쟁은 「12월테제」와 「9월테제」에 입각하여 공장노동자 속에서 그들을 혁명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하여 분투하였다. 그러나 여수지역에서의 적색노동조합(건설)운동은 노동조합건설의 준비단계에서 끝나고 만다.

한편 정충조는 1932년 11월 정영한, 이기택과 만나 통일적인 당 중앙의 결성을 위해 우선 전위분자를 지방별, 도별로 조직하고 전위분자는 각기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획득해야 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본다. 그리고 1933년 5월 초순 정충조, 정영한, 선동기(宣東基)는 조선에서의 혁명운동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적 독립운동을 포함하는 반제동맹의 조직이 급무라고 하고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을 조직하였다.⁶⁰⁰⁾

600) 「여수조직시간」 1928

2)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의 조직과 활동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1933년 5월 조직되었다. 이 시기에 전북지역에서는 이기택(李起澤), 정희면(鄭禧冕)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후계조직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기택, 정희면은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동경연락부원으로서 이 조직의 재건을 위해 1933년 3월 '조선공산주의운동통일동맹'을 결성하고, 전남, 전북, 경남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전북에는 '전북혁명전위동맹'이 전남에는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경남에는 '남해공산주의자전위동맹'이 조직되었다.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이 '조선공산주의운동통일동맹'의 지역단위 전위조직으로 출범한다.

(1) 정치 노선

정영한, 선동기, 정충조, 김태순(金兌淳) 등이 중심이 되었던 '조선공산당 재건전남동맹'은 어떤 정치노선 아래에서 활동하였을까. 정충조가 작성하고 중앙위원회 명의로 발간된 「우리동맹의 임무와 강령초안」은 먼저 당시 조선 사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에 완전히 종속된 식민지적 상품시장, 원료산지로서만 중요한 경제적 의의가 부여되어 있을 뿐이고 근대적 공업의 발전은 대단히 미약 하며, 농업관계의 봉건적 체제는 변화되지 않은 채 토지의 대부분은 일본제국주의와 소수의 토착지주의 소유가 되어 있다.⁶⁰¹⁾

601) 신주백, 「1930년대 민족화방운동론연구」(1), 〈제2장〉, 1989, 297쪽.

고하고, 또 "토지를 박탈당한 방대한 농민층은 봉건적, 제국주의적 기아지 대에서 신음하고 또 농업의 파괴적 위기와 강도적 조세제도는 소경영의 농민 대중을 제국주의의 상업적, 고리대적 착취의 대상으로 전화시키고 있다.", "토지를 박탈당하고 초근목피도 채취할 자유가 없는 영세한 농민은 고랑을 버리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도시와 농촌에는 방대한 인민대중이 실업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당시 조선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식민지성과 열악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규정과 함께 공장과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경제투쟁이 조선에서 대중의 혁명적 양양의 유일한 형태임과 동시에 쌀과 토지와 자유를 위한 사회주의적, 민족적 정치투쟁의 중요한 모멘트라면서, "당면한 조선혁명은 반제국주의 농업혁명"으로 "이것은 절박한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 선진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물질적, 정신적 원조에 의해 급속하게 사회혁명으로 전화될 수 있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다."고 당시 국제혁명운동사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던 2단계 혁명론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혁명의 동력으로 프롤레타리아 전위와 모든 반제세력 즉 농민, 소상인, 수공업자를 결집할 것과 혁명적 민족주의자의 반제동맹으로의 견인을 강조하였다.

(2) 조직 노선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창립선언에서 밝혔듯이 조선공산당을 재건

하기 위한 한 개의 지방 조직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천명하며, 당시 공산주의자의 당면 임무는 전선 통일이나 객관적, 주체적 정세와 구체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국적 조직체의 확립을 목표로 우선 지방조직체의 통일, 확립을 주장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방조직의 통일,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각 지방조직체의 이와 같은 정치적, 조직적 역량의 충분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전선의 통일을 촉진시킨다.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하여 전선통일은 비로소 명실공이 철화(鐵火)의 시련을 받은 완전한 볼셰비키당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선 13도 전부에 지방단체가 확립, 강화될 때 통일적 당이 결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적 당 결성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몇 개의 대경영에 우리 조직의 뿌리가 확실할 때 출연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조직적 발전 그 자체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이는, 완전히 각각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지방과 지방 사이에 조직은 엄연히 독립되어 있으나, 투사의 교환, 기관지, 뉴스 등의 교환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호간의 투쟁을 직접, 간접으로 복돌아 전진시키고, 이것은 또 지방적 조직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파적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⁶⁰²⁾

602) 신주백, 『위의 책』, 302~303쪽.

이렇게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조선공산주의운동통일동맹’의 지도를 상정하면서 분산되어 있는 조직의 독자성 유지와 상호연대를 통해 지역조직체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실제로 다른 전남지방의 전위조직과 연계를 갖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노동자, 농민부의 조작방식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우선 농민부는 도를 1지방으로 하고, 군에는 1지부를, 면에는 1지구를, 리에는 반을 설치할 것으로 하였다. 노동부는 도를 1지방으로 하고, 군을 1지구, 공장에 반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체계 하에 노동자의 기본조사 및 노동자, 농민조합 내에서의 플랙션의 지도를 주요 임무로 하였다.⁶⁰³⁾ 이러한 조직방식으로 조직, 지도된 경우는 선동기가 서학종(徐學鐘), 이상암(李相岩) 등과 함께 ‘구례농민지도부’를 조직한 사례를 들 수 있다.⁶⁰⁴⁾

603) 『李相岩 外30人の批判記録』, 678쪽.

604) 차수길, 「1930년대 조선의 농민조합운동연구」, 고대·대학원·사학과 박사, 1990, 348쪽.



(3) 전술 방침

지역 전위조직 우선 건설을 주장한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당시를 혁명의 준비기로 상정하고 『인프레콜』 1932년 4월호에 실린 「일본공산당신테제」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일반적 행동강령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혁명적 조직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치조직적 임무로, "1) 당재건 투쟁의 강화, 2)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의 산업별 확립, 모든 계량주의 조합 내의 혁명적 반대파의 결성, 3) 반제국주의 공동전선의 조직형태에 따른 반제동 맹의 창설, 혁명적 민족주의자를 이 조직으로 적극적으로 견인"을 피력하였다.

605) 정총조가 책임을 맡았다.

특히,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반제부 605)를 설치하고 반제운동에 주력하는데 반제동맹의 창설을 조직적 임무로 제기하면서, 한편으로 민족주의자의 혁명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어 광범위한 반제통일전 선전술을 채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함께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전술했던 일반적, 전략적인 강령에 대중을 접근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 및 강령을 내걸었다. 요구 및 강령의 주요한 내용은 노동자, 농민 대중의 일상적 요구에서부터 출발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내걸었으며, 아울러 민족적, 계급적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또한 제국주의 금융재벌의 조선사업의 독점과 총독부 권력의 착취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일본침략군의 즉각 철퇴와 소비에트동맹, 중국혁명 응호 등을 내걸었다. 이러한 내용은 행동강령이 거의 「일본공산당신테제」의 것과 동일한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일본공산당신테제」의 구체적인 요구 및 강령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식민지조선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조선의 자주적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농회, 산업조합, 미곡통제법, 면화, 누에, 공동판매 제도, 주세령, 삼림령 등의 제약법의 철폐" 그리고 "일본과의 노동조건 차별 대우의 반대"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등 제국주의 금융재벌의 조선 산업 강제 반대"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체적, 부분적 요구조건은 「일본공산당신테제」 내용, 그리고 조선공산주의자 그룹이 일반적으로 제기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당시 국제혁명운동에서는 보편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렇게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의 정치노선과 조직론, 그리고 전술을

살펴보았다.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의 이러한 전략, 전술은 「12월테제」와 「9월테제」 그리고 「일본공산당신테제」에 기초한 것 같다. 특히 일반 행동강령과 구체적인 요구 조건의 경우는 「일본공산당신테제」의 것을 상당한 부분 그대로 채용하였다. 「일본공산당신테제」 중의 '일본의 정세와 일본공산당의 임무에 관한 테제'는 코민테른집행위원회 서구부로의 공식적인 일본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전략, 전술의 지도지침으로 코민테른의 좌편향에 따른 잘못된 전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4) 활동

이상과 같은 전략, 전술에 따라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여수, 순천과 광양, 구례 등지에서 주로 활동을 전개⁶⁰⁶⁾하였는데, 정충조는 단독으로 마산, 부산, 대구, 서울까지 왕래하면서 조직사업을 전개하였다.

먼저 여수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른바 1932년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가 조직된 이래로 여수의 각 노동부문에는 거의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할 만큼 노동쟁의가 빈발하였다.⁶⁰⁷⁾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적색 노동조합 건설운동을 지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933년 8월 18일 여수운수 노조원들의 동맹파업을 지도하였다. 이 동맹파업의 원인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탄원서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었다.

606) 이하의 내용에 특별한 주가 없으면 전술한 「여수조직시간」 참조.

607) 「동아일보」, 1934. 1. 31.

그러나 이것은 외형상의 이유이고, 이미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 시절부터 여수지역의 노동운동은 상당히 혁명화 되어 있었고, 이 조직의 활동이 파업 투쟁으로 늦게나마 성과를 본 것이었다. 이 투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족 해방운동 조직에 의해 주도된 여수지역 최초의 혁명적 성향을 띤 노동자 파업이었다. 이밖에도 여수지역에서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여수수산학교 내에 반제동맹 조직을 두었고, 아울러 천일고무공장에도 조직원을 파견하여 노동자 파업투쟁을 선동하였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적색농민조합창립준비위원회'를 외곽에서 지도하던 김두경과 정충조는 1933년 8월 21일 만나 상호 지원세를 보고하고 조직이론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조직의 확장을 기관지 배포망의 확대로 추진한 '조선공산당재건 전남동맹'은 기관지 배포망으로 광양, 영암, 나주, 부산 등지에 각각 김완근, 이창희, 김석훈, 조병섭 등을 파견하였다. 특히 광양에서는 전술했듯이 '전남 노농협의회'의 재건을 도모하던 김완근, 김지태 등을 포섭하였으며 아울러



구례에서는 '구례농민지도부'를 조직하였다.

또한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수로를 통해 연락을 취하면서 마산, 부산 등지에서도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정충조는 부산에서 '영남노동조합 건설준비위원회' 기관지 창간호로 「노동자」를 정주영(鄭鑄永)과 함께 발간하여 부산 마루타이(丸太) 고무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에 이것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정주영이 검거된 이후에는 박보홍(朴寶洪), 이춘근(李春根), 성상호(成相鎬)와 함께 '부산적색노동조합건설준비회'의 조직을 협의하였다.⁶⁰⁸⁾

이렇게 여수지역을 비롯한 전남 지방과 부산, 마산 그리고 서울 등지에서 동지 획득과 공산주의를 선전하던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은 교양사업을 생산현장에서 수행하던 정충조가 1935년 4월 대구 청암사(淸庵寺)에서 검거되자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다.⁶⁰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대중 속에서 조직의 확대와 강화에 노력한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이지만 조직과정을 총괄해 보면 실제로 지역운동의 기반을 확대했다기보다는 운동경험을 가진 조직원을 재조직한 경향이 짙다. 아울러 쟁의를 직접 지도한 사례는 소수였으며 또한 조직 결성을 준비하는 수준에서 성과를 거두는 정도였다.

특히 합법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지 못하여 반제부를 설치하고 조직화를 도모하나 실제로는 여수수산학교 학생을 반제전선으로 견인한 정도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1931~36년 시기 당재건운동을 하던 세력들에



▲ 일제의 해군비행장이 있던 신월리(신월동)

608) 이와 함께 정충조는 영등포에서 1933년 11월 기관역주 회사의 간축 노동자를 의식적으로 교양하여 영등포 토목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도모하였다. 또한 1934년 2월 신길방(慎甲範)을 만나 자신은 낭한을 맡고 신길방으로 복한자방을 맡게 하여 각자 둘째들을 규합해 전조선공산주의자대회를 개최하여 전위당 조직준비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1931년 여수지역의 대표적인 일본의 대지주인 다키네농장의 경의를 지도하였다.

609) 이후 김수평, 허순희, 박경일 등은 조직을 결성하지 않고 자유노동자와 공정노동자를 선동하여 동명파업을 일으켰다. (『동아일보』, 1935. 12. 18.)

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한계이다.

한편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여수지역의 청년, 학생들은 다수가 징용, 징병으로 끌려갔다. 또한 전국이 전시체제 하에서 황폐화될 때 여수의 종고산도 별목으로 인하여 민동산이 되었으며, 신월리의 군용비행장 건설에 다수의 노동자와 농민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 여수지역에서는 반전, 반일운동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 시기까지 선도적으로 투쟁을 주도하던 지도역량들이 투옥되거나 타지로 옮겨가 지역운동을 주도할 인자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여수지역의 운동은 형식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의 보편성을 획득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지역단위의 특수성에 의거해 조직을 발전시키고 올바르게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한편 여수지역의 1920년대 대중운동의 경험과 1930년대의 전위운동의 경험은 이후 해방공간에서 '여순항쟁'으로 분출되었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施政年報』
『統監府統計年報』
『韓國施政年報』
강만길,『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비, 2006.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여수사회과학연구회,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 여수청년전위동맹, 독서회조직 사건』,『사상汇报』(8), 1937.9.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朝鮮における工場及勞動組合』,『조선사상운동 조사자료』(1), 1932. 11.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조선공산당 재건전남동맹 강령』,『사상월보』(4-2), 1934.5.
국사편찬위원회 편,『한국사』
金鶴有 編,『麗水·麗川發展史』, 반도, 1988.
김인덕,『일제시대의 여수지역사』여수시문화원, 2006.
김점숙,『1930년대 전반기 전남지방 조선공산당재건운동 연구』, 이대대학원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독립운동자료집』(제5집)(3·1운동재판기록), 1972.
돌산읍지편찬위원회,『돌산읍지-역사편』, 2000.
신주백,『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연구』(1) 새길, 1989.
阿部薰,『朝鮮金融組合大觀』, 民衆時論社, 1935.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여수·여천향토지』, 1982.
여천시문화원,『여천시지-역사편』, 1998.
이병현,『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1959.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거문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주민 강제동원에 관한 조사』, 2006.
임경석,『조선공산당 재건운동』,『한국사강좌』(10) 한길사, 1992.

- 정병욱, 「한국근대금융연구」, 역사비평사, 2004.
-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 「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 1918.10.
- 조선총독부경부국, 「勞農運動の概況」, 1924.
- 조찬석, 「1920년대 전라남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논문집」(20), 1987.
- 지수걸, 「1930년대 조선의 농민조합운동연구」, 고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 1990.
- 최재성,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와 금융조합」, 경인문화사, 2006.
- 片岡議編, 「南鐵沿線史」, 片岡商店, 1933.
- 片岡議編, 「麗水發展史」, 片岡商店, 1928.
- 한길사 편, 「한국사」, 한길사, 1994.

제 6 장

현 대 사 회



제1절 광복과 여수

정희선 (청암대학 교수)

1. 광복과 여수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1) 8·15 광복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이 마침내 왔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승인받은 제국주의 일본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1907년 정미7조약을 순종 황제의

동의없이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말살하고 연호를 융희(隆熙)로 고쳤으며,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조약을 발표하여 식민지 조선으로 만들어 일제 식민 지배를 시작한 지 35년만의 일이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이후 대외 침략적 제국주의 속성에 따라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동북지방도 식민지로 만들고, 이어 중일전쟁으로 중국과 전면전을 벌였다. 또 1941년 12월에는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미국에 선전포고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남양군도와 동남아시아까지 그 세력을 뻗쳤다.

반격에 나선 연합군은 1944년 7월 미국이 싸이판 섬을 점령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이어 미군이 일본의 오키나와에 상륙하고, 8월 7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공격을 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케 만들었다. 소련도 전쟁 막바지인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며 참전했다. 이후 6일 만인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것이다.

광복은 중국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너무 일찍' 찾아온 것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은 미군, 영국군과 대일 연합작전을 벌였다. 그리고 광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때에 미군과 도움을 받아 국내 진공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계획대로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한반도 상륙작전에 참전하여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담당했더라면, 한국도 프랑스 드골정부처럼 전승국의 지위를 얻었을 것이고, 분단을 겪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예상보다 너무 일찍 항복하는 바람에 광복군의 국내 상륙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한국이 승전국의 지위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미·소 양국 군대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38선을 경계선으로 남북에 진주함으로써 분단의 서막이 올랐다.

이후 남북 양쪽에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져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 북한의 공격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 3년간 동족 상잔의 참상을 겪다가 휴전선을 그어 전쟁을 중지하면서 결국 60년 넘게 민족 분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수에서는 8월 15일 밤에 청년들이 학옥여관(鶴屋旅館)에 모여 광복청년동맹을 결성했다. 이들은 문성휘(文聖輝), 주선본(朱善本), 조근명(曹根名), 정기만(鄭其滿), 이형곤(李亨坤), 황상기(黃相基), 정효근(鄭孝根), 김수옥(金守玉), 김근두(金謹斗), 권영수(權永守), 김생일(金生日), 서종현(徐鍾鉉) 등 33명으로

산하에 광미대(光美隊)를 조직하고, 치안 유지 활동에 들어갔다.

그들은 광복 이틀째 날에 종고산에 올라가 여수 신사를 불태웠고, 이후 건국준비위원회 산하의 치안대 6분대가 신월리 주둔 일본군과 충돌이 벌어졌다 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신월리로 쳐들어가서 치안대와 합력하여 일본군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여수에서는 광복 당일 이루어진 이 모임의 결성이 광복 이후 일어난 최초의 사건인 셈이다.

2) 여수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광복 전에 건국동맹을 만들어 광복 이후를 대비해 왔던 여운형은 광복을 맞아 곧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약칭 건준)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중도 좌파의 여운형이, 부위원장에는 중도우파의 안재홍이 추대되었다.

광복 이튿날인 8월 16일 건준 위원장 여운형은 휘문학교 운동장에서 대중 연설을 통해 광복의 감격을 토로했다. 같은 날 부위원장 안재홍은 세 차례의 방송연설로 광복과 자주적 건국 준비 소식을 알렸다. 또 이날 여운형의 요구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던 항일 인사들을 석방했다.

건준은 지부 조직 활동도 활발히 벌여 8월 말까지 약 2주 만에 전국에 145 개의 지부가 만들어졌다. 당시 건준의 강령은 다음과 같았다.

1.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또 건준 산하의 치안대는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했다. 그들은 각종 시설, 기계, 기구 등을 일본인이 가져가는 것을 막고, 그것을 보존하여 관리하는 일에도 힘썼다. 이 때 바로 여수에서도 8월 20일 여수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여수 건준의 간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위원장 정재완(鄭在完), 부위원장 이우현(李于憲), 총무부장 김성택(金性澤), 재정부장 김정평(金正坪), 문화부장 김문평(金文坪), 관리부장 김경택(金景澤), 민생부장 연창희(延昌熙), 노동부장 이창수(李昌洙), 치안부장 김수평

(金守桺) 등이었다. 정재완은 독립운동 경력이 있다고 하고, 이우현은 일제시기 정미소 운영과 도회 의원 경력이 있으며, 김경택도 일제시기 읍회 의원과 기업체 임원을 지냈다. 노동부장 이창수는 좌익계 독립운동가라 하며, 치안부장 김수평은 좌익계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여수 건준은 좌익과 우익이 망라된 조직으로 경찰 및 지방관리와 큰 마찰 없이 활동했다.

그밖에 안종호(安鍾鎬), 김우성(金宇聲), 김관평(金寬坪), 조종옹(趙鍾應), 정태식(丁台湜), 여도현(呂道鉉), 오두영(吳斗映), 이용기(李容起), 김종균(金鍾均), 곽채용(郭採鎬), 강재주(姜載周), 강선희(姜善熙), 김한희(金漢熙), 문재호(文在浩), 남병일(南炳日), 정경수(丁敬秀), 김득평(金得坪), 김정식(金定植), 장기(張起), 이기조(李基祚), 박홍근(朴洪根) 등이 참여했다.

여수건준 사무소는 진남관에 마련되었는데, 여수 건준 주도로 8월 25일 광복 경축 시민대회가 서국민학교 교정에서 치루어지고, 이어서 시가행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일본인 경찰서장 조마동일(早馬東一)과 소전태일(小畠太一)이 참석했는데, 조마(早馬)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은 인류평화를 파괴하는 범죄였고, 합병 당시 조선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병탄한 것은 우호선린의 인도정신에 어긋난 침략행위였다.”는 연설을 하고, 시가행진을 할 때에는 선두에 서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또 시가행진을 벌이는 시위군중이 당시의 병사구 사령관부(兵事區司令官部, 지금 여수중학교 자리) 앞을 지날 때 사령부 간부들이 문 앞에 도열하여 축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날의 행사로 그동안 일본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던 여수지역민들은 광복의 기쁨을 만끽했다.

건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관내 치안 확보였다. 일제 경찰이 있기는 했으나 이미 패망한 처지라 힘을 쓰지 못하고 대신 건준 치안부장 김수평이 이끄는 치안대가 그 역할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의 치안대와 마찬가지로 각종 시설, 기계, 기구 등을 일본인이 가져가는 것을 막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다.

치안대의 역할 때문이었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관, 악질 관리들,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로 동포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례도 발생했지만, 여수에서는 비교적 평온하였다. 단지 광복 당시 일본인 군수 기타자카(北崎志賀都)가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문한다고 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매를 맞은 것이 있을 뿐이었다.

다음은 광복을 맞아 일본, 만주, 중국, 시베리아, 남양군도 등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동포와 징용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귀국하는 사람들을 맞아 편의를 제공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때 건준에서는 김관평과 백해천(白海天) 등이 구항 부두에 귀환동포 임시접수소를 마련하고 이들을 맞아들여 수정동 연탄 공장 부지 일대와 자산공원 밑, 그리고 이충무공비각 아래 해월루 등에 수용했다. 그리고 신월리 일본군부대에서 식량과 모포 등을 가져와 이들을 구호했다. 수정동의 귀환동포 거주지는 이후 귀환정(町)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2. 미군정의 실시

1) 미군의 진주와 미군정의 실시

9월 8일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 24군단이 인천에 상륙하고, 이튿날인 9월 9일 서울에 입성했다. 같은 날 중앙청에는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또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일제의 조선 통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순간이었다.

그에 앞서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 제1호를 공포했다. 이는 미군이 북위 38도선 이남에서 군정을 하겠다는 선포였다. 9월 11일 하지중장은 미군정 시정방침을 발표하고 아놀드 소장을 군정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과 조선노동당의 박현영은 건준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조선인민공화국(약칭 인공)의 수립을 선포했다. 건준에 참여하지 않았던 송진우 등이 중경 임시정부를 봉대(奉戴)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곧 진주한 미군은 인공을 부인하였다.

“정부, 공공단체 및 전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 등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는 위 포고문 제2조에 따라 일제의 통치기구를 온존시키고 일본인과 조선인 관리를 그대로 일하게 했다. 특히 친일 경찰의 등용과 승진은 광복된 감격을 만끽하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미군정이 임명한 초대 전남지사는 최영욱(崔泳旭)이었다. 또 여수는 전라동부 6군을 관할하는 순천지구 군정관 소속이 되었는데, 순천군정관은 여수군수, 경찰서장, 읍장에 한국인을 임명할 생각으로 9월 하순 이우현, 김우평

등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군청 직원들은 새로운 군수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다.

일괄사표를 받은 새 군수는 사표를 전원 되돌려 주었다. 그 뒤 곧 바로 군수, 읍장, 서장이 모두 해임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일제시기부터 여수에서 우화안과(又華眼科) 병원을 운영하며 친일 행각으로 악명 높았던 원장 김상룡(金相龍) 가족이 순천 군정관에게 모략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조선인이면서 우리말도 쓰지 않고 일본인 행세를 하였으며, 아들과 딸들은 일본인 학교에 보냈으며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에서 기부금 모금을 위해 찾아가면 “조선인의 교육 따위는 나는 모른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하며, 모략사건 이후 그는 주위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에 끝내 여수를 떠나 부산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군수, 읍장, 서장의 해임 이후 미군 대위 라인번이 여수 군수가 되고 읍장과 서장에도 미군이 부임하였다가 약 한 달 뒤인 10월 하순에 다시 조선인들이 군수, 읍장, 서장에 다시 임명되었다.

이때 여수 군수에 임명된 정재완은 먼저 각 면장 임명에 착수했다. 새로 임명된 면장들은 쌍봉면 이해권(李海權), 삼일면 김정기(金正沂), 소라면 정영표(鄭永杓), 울촌면 지재영(池在永), 화양면 박주순(朴柱淳), 돌산면 김지순(金誌淳), 남면 오정규(吳正奎), 화정면 임동표(林東杓), 삼산면 원정상(元正常)이었다.

정재완 군수는 또 군청 조직을 개편하여 수산과를 신설했다. 종전에는 수산을 관장하는 조직은 ‘과’ 밑의 ‘제’로 산업과 수산계가 담당했는데, 이때 수산과로 분리 독립시켰다.

2) 일본인의 귀국

광복되던 당시 여수에 거주하던 일본인 인구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계 수치가 남아 있는 최후 연도인 1942년에 4,262명이었던 것으로 봐서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광복을 맞은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사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여수 지역에 살던 일본인들은 대체로 큰 변고없이 무사히 귀향길에 올랐다.

그들은 단체를 만들어 귀국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우선 민간인들부터 차례로 돌려보내고 관공리와 군 병력은 맨 나중에 귀국한다는 것이었다. 그 계획에 따라 일본인들은 9월 20일경부터 귀국길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처음



에는 소형 발동선을 이용해 2~3가구씩 떠나다가 나중에는 종포에 있는 우다 세 배를 이용해 5~6가구씩 귀국길에 올라 그 해 11월 중순경에는 여수에 살던 민간인들은 거의 돌아갔고 연말 경에는 미군정의 조선 거주 일본인들 철수계획에 따라 군인들도 전원 돌아갔다.

이 때 여수에서 다카세농장(高瀬農場)을 경영하던 오츠카(大塚治三郎)는 9월 29일 여수를 떠나면서 그의 소회를 한시로 읊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전해진다.

3. 5 · 10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단독 정부 수립의 길

8.15 광복을 맞고, 남북 양쪽에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었던 1945년은 12월 28일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시작과 함께 저물었다. 이 반탁운동은 좌우대결을 격화시켰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소공동위원회(약칭 미소공위)가 1946년 초부터 열렸으나 1947년 말 결국 최종 결렬되고, 남과 북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길을 밟게 되었다. 미소공위를 통한 한국 정부 수립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게 되자 소련의 반대 속에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이 강한 유엔에 이 문제를 이관했다.

11월 14일 유엔총회는 미국의 재안대로 남북총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을 결정하고, 이를 감시할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에 따라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가 남한에 들어왔지만, 소련과 북한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결국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 26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은 4·3항쟁을 일으켰다. 또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선거를 막기 위해 남북협상을 제의하고, 4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단독선거 반대와 외국 군대 철수를 결정했다.

이후 5월 10일에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협상파가 불참한 가운데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재적 200석 가운데 4·3항쟁이 진행되고 있던 제주도의 2석을 제외한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 국회의원들은 7월 17일 제헌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했다. 그 결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북에서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채택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했다. 김일성은 다음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이로써 남북 양쪽에 각각 다른 체제의 정부가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여수의 5·10총선거

여수에서도 5·10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거구를 갑, 을 2개구로 나누어서 실시되었다. 갑구는 여수읍, 쌍봉, 소라, 삼일의 각 면 관내이고, 을구는 율촌, 화양, 돌산, 남, 화정, 삼산의 각 면 관내였다.

갑구와 을구 모두 3명씩 입후보를 하였는데 갑구에서는 김문평(金文平), 연창희(延昌熙), 여도현(呂道鉉)이었고, 을구에서는 황병규(黃炳珪), 김철주(金哲柱), 차활인(車活仁)이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정견발표회를 「여수여천향토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날 정견 발표회는 여수읍에 있는 여수극장(榮座)에서 있었는데 장내는 입추의 여지가 없는 초만원이었다.

먼저 등장한 후보자는 연창희(延昌熙)였다. 그는 무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한독당 계열에 가까운 사람이었었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한 무리의 반대쪽 야유꾼 가운데서 큰소리로 “아이구 그놈 공袈 먹고 살 많이 썼다.”고 외치자 장내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그리고 이들 야유꾼들은 야비한 수작으로 연설을 들으려 온 청중이 상을 찌푸리게 하는 인신공격을 해대며 연설자의 기를 꺾으려 극성을 부렸다. 여도현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김문평과 차활인이 등단했을 때만은 야유보다는 박수가 많았다. 그 야유꾼들의 성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고 청중들에게 주는 불쾌감이란 말할 수 없었다.

다섯 번째로 등단한 후보자는 김철주였다. 본디 김철주는 기독교인인데다가 옹변을 했던 사람으로 청산유수의 말재간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는 한민당 보다는 오히려 한독당에 가까워고 소속은 대동청년단으로 되어 있었다.

그 연설 내용은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듯한 것이었지만 말솜씨에 도취됐던지



극성을 부리면 야유꾼들을 비롯하여 청중들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런데 한참 연설이 계속되고 있던 도중이었다. 단상에 앉아 있던 황진석(그때 건국청년회: 한독계열에 가까운 지방청년단체)이 불쑥 나와서 연설자를 옆으로 비껴서게 하고 스스로 '마이크'를 잡고는 흥분된 어조로 "방금 이 선생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놈은 '스탈린'의 손자 놈 아니면 한민당의 뚱닭아 주는 놈이다."라고 외친 것이다. 참으로 순식간의 일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날 정견 발표회는 수라장이 되어 버리고 임석했던 사찰계장(박명주)의 의견대로 도중에 중단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오직 황병규(黃炳圭) 한 사람만은 정견 발표를 안하고 넘어 갔었다.

결국 이때 치러진 선거에서 갑구에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 김문평이 13,932표를 득표하고, 을구에서는 무소속의 황병규가 11,818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특히 돌산 출신 황병규는 을구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돌산 면에서 몰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 5·10총선거가 별일 없이 조용히 치러진 것은 아니었다. 선거를 앞두고 종고산, 구봉산, 마래산, 계산, 예암산, 척산, 우두리 뒷산 등에서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봉화불이 매일 밤 타올랐다.

또 '선거에 출마한 자나 그 가족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될 것이며 투표를 하는 자도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민족반역자로 몰릴 것'이라는 벽보가 나붙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선거 불참 호소문이 우송되는가 하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군·읍·면 직원들에게도 선거사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신변이 위험할 것이라는 협박장이 집에 배달되었다.

돌산면 죽포 투표소에서는 투표 도중 좌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경비경찰관 3명을 기둥에 묶어놓고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불태웠다. 이 사건으로 며칠 뒤 죽포에서는 재투표가 실시되었다.

크게는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정치적 흐름, 작게는 죽포 투표함 소각사건은 곧 이어 일어난 여순사건의 원인과 배경이 되었다.

제2절 여순사건

김 득 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 여순사건의 발발

대한민국 수립 초기에 발생한 여순사건은 군인 봉기에 지방 좌익이 참여하여 전남 동부지역 6개 군에 걸친 봉기였고, 이승만 반공체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여순사건은 군 내부에서 최초로 발생하였고, 여기에 지방 좌익 세력이 가담함으로써 신생 이승만 정부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 봉기는 이승만정부와 미군이 대응하지 못할 만큼 치밀하게 계획된 봉기는 아니었다. 여수에서 일어난 봉기는 14연대 남로당 세포원들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봉기였고, 남로당 중앙은 물론이고 전라남도 도당이나 여수·순천지역의 지역당까지도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14연대의 봉기는 빠르게 번져 나가, 하루 만에 여수와 순천이 봉기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더욱 더 놀라운 사태는 봉기를 주도한 14연대 남로당 세포인 하사관 세력이 소수에 불과했고, 봉기를 일으킨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할지도 뚜렷이 정해진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좌익세력과 민중들이 대거 동참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14연대 봉기세력이 동족을 죽이려가는 제주도 파병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친일파와 경찰을 타도하자는 호소가 민중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분단정권과 경찰에 대한 불만은 14연대 일반 사병과 지역민들이 봉기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봉기는 며칠만에 광양, 구례, 보성(별교) 등 전남 동부지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봉기를 일으킨 14연대는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수원 11연대, 마산 15연대와 같은 날짜에 창설되었다. 신월리는 일제 말기에 일본 해군의 항공기지가 있던 곳이었다.

광주 4연대에서 차출된 1개 대대의 부대원들 중에는 김지희, 홍순석 등 좌



610) 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 동베개, 382쪽

611) United States Army Forces, Korea Counter Intelligence Corps Seoul District Offices APO 235, Korea Constabulary, Conflict Between Korea Police and Summary of Information, 7 Jan, 1947[노영기, 「여순사건과 군-육군을 중심으로」 「여순사건 제52주년 기념 학술회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 2000, 29쪽에서 재인용]

의계 장교들과 지창수(池昌洙) 등의 하사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비사관학교 3기생인 김지희와 홍순석은 군기대(軍紀隊)의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의 성향의 인물들만을 따로 뽑아 14연대로 보낸 것은 아니었다.⁶¹⁰⁾ 기간 병사들은 광주에 주둔한 4연대로부터 차출되었는데, 이 병력에는 여수봉기를 주도한 인물들이 많이 속해 있었다.

경찰은 국방경비대가 좌익의 근거지가 되고 있으며 반공 사상이 투철하지 못한 집단이라고 여겼다. 국방경비대도 경찰을 친일집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경충돌이 자주 벌어졌다. 국방경비대 제1연대 연대장 배로스(Russel D. Barros) 중령이 경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일주일에 한번꼴로 발생한다⁶¹¹⁾ 고 말한 바와 같이 경비대와 경찰 사이의 충돌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제4연대에서는 경찰과의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순천, 구례, 영암에서 일어난 군경충돌은 반민중적인 경찰에 대한 사병들의 비판 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양시켰고, 언젠가는 한번 경찰을 응징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병사들은 경찰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일정하게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스스로의 결속력을 다져갔던 것이다.

14연대 남로당 세포원들이 봉기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제주도 파병 명령이었다. 세포원들은 단독선거를 거부하고 일어난 제주도 인민들의 봉기를 진압하려 제주도로 파병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제주도(島)가 전라남도로부터 분리, 도(道)로 승격되어 별도의 행정구역이 되었지만, 많은 수의 장병들은 제주도를 전남지역과 같은 지역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다른 주요한 이유는 숙군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10월초에 체포된 연대장 오동기는 김구를 따르는 한독당 계열의 우익인물이었고 반공주의자여서 남로당 세포와는 이념적으로 공유되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오동기 체포 이후 숙군 바람은 14연대 남로당 세포들에게도 미쳤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는 제주도 출병을 위한 준비로 하루 종일 분주했다. 개인장비를 제외한 출동부대의 보급품, 탄약 등의 선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제주도로 떠나갈 제1대대원들은 6시까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군장을 꾸려 출발을 하기 위해 내무반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여수에 잔류하는 제2대대는 출동부대의 뒷처리와 함께 가지고 갈 도시락을 준비했다.

봉기세력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장교들은 7시 경에 장교식당에서 출동부대의 환송을 겸한 회식을 마친 뒤, 연대장 이하 부연대장과 참모들은 부두의

승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여수항으로 다시 나가 있는 상태였다.⁶¹²⁾ 부대 내에는 3개 대대장과 연대참모, 1·2·3·7중대장과 근무 중대장이 있었다.⁶¹³⁾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은 지창수를 중심으로 하는 하사관 그룹이었다. 주로 사병들로 조직되어 있었던 14연대 당 세포는 도당이 관리하고 있었다. 14연대 당부의 유일한 장교 당원이었던 홍순석 중위는 순천으로 파견 나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하사관인 지창수 상사가 봉기 과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한편 중앙당에서 관리하고 있던 장교인 김지희는 14연대의 봉기 결행을 전혀 알지 못했고, 지창수 그룹도 김지희가 남로당원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⁶¹⁴⁾

지창수는 먼저 예광탄 3발을 신호로 반란을 시작하기로 하고, 예광탄이 오르면 즉시 병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하기로 했다.⁶¹⁵⁾ 14연대의 무기고에는 제주도 진압을 위해 지급 받은 미군의 신식무기인 M-1소총과 60mm박격포, 탄약 폭탄이 보관되어 있었다.⁶¹⁶⁾ 또 무기고에는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일제 99식 소총 등 3천여 정의 무기가 정렬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무기들은 장병들과 여순 시민들을 무장시키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7시 50분 비상나팔 소리가 울리자 연병장에는 출동부대와 잔류 부대원 2,700여명의 장병들이 집결했다.⁶¹⁷⁾ 여수 출항시간은 저녁 10시였고, 주둔지인 신월리를 떠나 함정이 정박하고 있는 여수 신항까지는 도보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1시간이나 빠른 것이었다.

하지만 출동부대 사병들은 출발 예정시간이 앞당겨졌다고 생각하고 의심 없이 서둘러 군장을 꾸려 연병장에 집합했다. 탄약고는 지창수의 계획에 따라 좌익계 하사관들이 점령했고, 실탄은 군인들에게 지급되었다.

봉기군이 여수를 점령한 뒤, 여수인민위원회는 10월 24일자로 『여수인민보』를 발간했다.⁶¹⁸⁾ 이 신문에는 '제주토벌출동거부병사위원회'가 작성한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있다. 이 글은 14연대 군인들이 봉기한 이유를 그들 스스로가 가장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문현이다. 따라서 이 성명서⁶¹⁹⁾를 통해 우리는 봉기세력의 생각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의 아들들이다. 우리의 목적은 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612) 국방부: 전시편전위원회, 「한국전쟁사: 해방과 간주」, 1967, 452쪽; 사사히 하루다끼, 「한국전비사·간군과 시련」, 상권, 병학사, 1977, 299쪽

613) 유관총, 「여수 제14연대 반란사건」, 『현대공론』, 2월호, 1989, 432쪽

614) 이재, 1994, [미순병관], 청산, 김개유는 청교그룹과 하사관 그룹간에 봉기의 역할분담이 있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창수는 김지희가 남로당 계열의 인물이라는 것조차 믿지 못했다. 김지희는 병되어 거주하고 있었다(김개유, 1991, [1948년 여순봉기]『역사비평』15호를 참조).

615) 예광탄을 쏘기로 한 시각은 19:00시였다고 한다(유관총, 『임의 글』, 430쪽).

61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4, 1. 사사끼는 제주도 진압작전을 위해 14연대에 미국 무기가 특별히 지급했다고 말하고 있다(사사끼 하루다끼, 『임의 책』, 298쪽). 하지만 미국 무기가 14연대에게 처음 제공된 것은 아니다. 대구는 4월에 지급되었고, 마산 15연대에도 M1 소총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M1 소총배급은 군의 장비개선의 일환으로 취재될 것으로 보인다(김석학·임종명, 1975, 『한국 30년』제2권, 『여순반란』, 전남일보사, 265쪽).

617) 『한국전쟁사』에는 비상나팔이 울린 시각이 2000시라고 나와 있다(한국전쟁사, 452쪽). 미군은 봉기가 일어난 시각을 19일 21시부터 다음날 2시 사이로 파악하고 있다(HQ, USAFIK, G-2 Periodic Report (한일)

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
소(주한미군 정보원지)6,
531쪽)

618) [여수인민보]는 구영이
승순 봄린 선하지에 2면
으로 발행되었던 대박천식,
1948. [7월 간의 여
수] (새한민보) 11월 하순
호)

619) 이 성명서는 John
Muccio, Review of
and Observation on
the Yosu Rebellion,
1948. 11. 4. RG-310,
◎ File, No. 506892에
전문이 영역되어 실려
있다. 본문의 내용은 이
문헌에 나와 있는 영문
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
한 것이다. 고명환, [여
순집집], 전국문화단체총
동맹, 1949, [번린과 민족
의 각오], 운전문화사,
107쪽에도 이 성명서가
실려 있으나 일부분이다.

그럼에도 미국에 굴종하는 이승만 괴뢰, 김성수, 이범석과 도당들은 미 제국
주의에 빌붙기 위해 우리 조국을 팔아먹으려 하고 드디어는 조국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인 분단정권을 만들었다.

그들은 미국인을 위해 우리 조국을 분단시키고 남조선을 식민지화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 노예처럼 우리 인민과 조국을 미국에게 팔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
로 한일협정보다 더 수치스러운 소위 한미협정을 맺었다.

친애하는 동포들이여! 만약 당신이 진정 조선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반동분자
들이 저지른 이런 행동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있겠는가? 모든 조선인은 일어나
이런 행동에 대해 싸워야 한다. 제주도 인민은 4월에 이런 행위에 대해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과 붙어 있는 이승만, 이범석 같은 인민의 적들은 우리를
제주도로 보내어, 조국독립을 위해 싸우고 또한 미국인과 모든 애국 인민들을
죽이려는 사악한 집단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애국적 인민과 싸우
도록 우리에게 강요했다.

모든 애국 동포들이여!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파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
우는 인민의 진정한 인민의 군대가 되려고 봉기했다.

친애하는 동포여! 우리는 조선 인민의 복리와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한다. 애국자들이여! 진실과 정의를 얻기 위한 애국적 봉기에 동참하라. 그
리고 우리 인민과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

다음이 우리의 두 가지 강령이다.

1. 동족상잔 결사반대

2. 미군 즉시 철퇴

위대한 인민군의 영웅적 투쟁에 최고의 영광을!

분단정권을 거부하고 독립된 통일조국을 위해 투쟁에 나선 제주도민을 죽
이려 가는 파병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봉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연대 대부분
의 병사들은 “대한민국 국방군은 침공하는 외국 군대에 싸우는 것이 본래
의 사명이지, 동족 농민과 청년 · 부녀자들에게 총을 쏘고, 죽이기 위해 국방
군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⁶²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출병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간주했다.

여수봉기 뒤에 탈출한 박승훈 연대장조차 기자회견에서 14연대 병사들 대
부분은 제주도 출병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⁶²¹⁾ 또한 제주도를 전남과

620) 林英樹, [内側から見た
朝鮮戦争], 民族問題研
究會 編, 1967, [朝鮮戰
爭史], コリア評論社, 15
쪽

621) [자 제14연대장, 기자단
과 회견], (경향신문),
1948. 10. 29

같은 지역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서도 제주도 파병을 거부하는 주요한 정서 중의 하나였다. 성명서에는 쌀 수집이나 토지개혁 같은 사회경제적 요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반면, 강력한 반미·반제국주의 의식을 표출하면서 동족 상잔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병사위원회의 성명서만으로 볼 때, 14연대 군인들의 봉기는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염두에 두 것이라기 보다는 당면한 제주도파병을 반대하는 것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연대 군인들이 여수경찰서에 도착한 시각은 20일 새벽 1시 경이었다. 여순사건이 나기 일주일 전인 10월 13일 새벽에 14연대는 두 개의 부대로 나뉘어 '여수시가전 예행연습'을 실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총소리에 놀라 잠자리에서 깨어나 군인들이 시가전 연습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⁶²²⁾

여수경찰서는 14연대 현병대로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통고를 받고 서원들에게 비상소집을 발령했다.⁶²³⁾ 봉기군은 10월 20일 새벽 1시부터 종고산 꼭대기로부터 시내 쪽을 향해서 총을 쏘고 내려왔다. 새벽 1시 20분 경 여수읍내로 진입하기 시작한 봉기군은 교동(喬洞)에서 경찰, 군기대 현병 그리고 부두에 파견 나와 있던 14연대 군인들로 이루어진 총 70여 명의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소수의 군기대 병력으로는 봉기군의 병력과 화력을 막아낼 수 없었고,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방어선은 금세 무너졌다.⁶²⁴⁾

봉기군은 새벽 3시 경 여수경찰서를 점령했다.⁶²⁵⁾ 경찰서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훨훨 타올랐다. 비상소집으로 대치 중이던 100여 명의 경찰은 도망치거나 전투 과정에서 죽었고, 여수경찰서를 점령한 봉기군은 50여 명의 죄수들을 석방했다. 곧이어 봉기군은 새벽 5시경에 시내 중요기관을 점령하고 인공기를 내걸었다.

봉기가 시작된 후 몇 시간만에 경찰서를 접수한 14연대는 여수 경찰을 무력화시킨 다음, 곧바로 순천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봉기군은 일단 여수와 순천을 장악한 다음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인 광주와 호남지역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대하여 서울로 진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만약 정세가 불리하게 되고 힘이 미약할 경우에는 지리산 산악지대로 들어가 유격투쟁을 전개할 계획이었다.⁶²⁶⁾

10월 20일 오전에 여수를 장악한 14연대는 병력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김지회가 지휘하는 2개 대대병력은 순천으로 북진하기로 했다. 지창수가 지

622) 김낙원, 1962, 〈여수항포사〉, 여수문화원, 66쪽; 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47쪽; 육성국(당시 14연대 군인), 1999, mbc '이제는 알릴 수 있다' 제작팀, 앞의 글; 이중근, 1997, 〈14연대 사건과 나〉(여수문화제 12집 14연대반란 50년 기념집), 여수문화원, 160쪽

623) 유관총, 앞의 글, 420쪽

624) 현 병 사 판 친 위 편 회, 1952(4285), 〈현국현병사 : 창설~발전편〉, 현병사 봉부, 14쪽

625) 〈여순반란사건-관련 보고〉, 〈대한민국 국회의사 기록〉, 제 89호 (1948.10.27), 649~651쪽

626) 청종균, 1982,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일어난 여수군민운동〉, 『역사과학』11호, 25쪽

627) 정홍수, 1990, [내가 겪은 여순사건], 전남동부지역사학연구소, 1990, [지역과 전망] 1집, 90쪽, 여수에 진류한 병력은 약 500명 정도였다(김광일, 19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차를 놓아 들고 구국 투쟁에 충원기한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근로자] 제2호, 32쪽).

628) 14연대가 여수역을 떠난 시각에 대해서는 기록이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한 증언자는 여수에서 조금 앞어진 미령역을 기차 지정 위에서 군인들이 밤새로 6~7시간 사이에 통과했다고 말한다(정홍수, 암贻, 89쪽; [호남신문] 10월 29일에는 4시 30분 열차로 되어 있다). 한 증언은 열차 7대에 1500명이 나눠 타고 순천을 간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미군이 접수한 다른 보고는 열차 5대에 800~1,200명이 협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유장남 인터뷰]).

629) 청증군, 1982, 일의 글, 28쪽, 주력은 서울행 211열차를 타고 순천으로 향했다고 적고 있다.

630) [유장남 인터뷰], RG 338 Entry 11071 Box 2, Youse Rebellion

631) 미국 보고서는 순천에 처음으로 들어온 14연대 병력을 약 3~400명 정도로 기록하고 있다(HQ: USAFIR, G-2 Periodic Report[한미대학교 이시 아문화연구소, (주)한미군 정보일자리], 53쪽)

632) 병기군의 주요한 지도자로 활약한 홍순석중위

휘하는 1개 대대는 여수에 남기로 했다. 이로써 여수 시내 도심지와 근교 농촌 지역 치안은 14연대의 잔류병력과 현지 주민에 의해 유지되었다.⁶²⁷⁾

봉기한 14연대 군인들의 숫자는 약 1,200여명 정도였는데, 이들은 순천으로 가는 8시 22분 발통근 열차 5량에 나눠 타고 여수를 출발했다.⁶²⁸⁾ 나머지 군인들은 자동차를 타거나 걸어서 순천을 향하여 진격했다. 자동차와 도보로 행군한 부대는 도중에서 경찰지서를 습격했다.⁶²⁹⁾ 열차는 군인들로 빽빽이 들어찼고 지붕 위에도 올라탔다. 군인들은 경찰을 타도하고 봉기를 일으켰다는 생각에 상당히 고양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만약 여수에 남아 있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총을 쏘고, 어떤 사람들은 공포로 침묵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병사들은 노래를 불렀다. 가는 도중에는 흥분한 분위기 때문에 총기 오발로 군인이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⁶³⁰⁾ 군인들은 중간지점인 율촌에서 잠시 정차하여 동태를 정찰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기차를 타고 계속 순천으로 향했다.

14연대 주력은 9시 30분 경 순천역에 도착했다. 역에 있던 순천 경찰은 이미 도망간 다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저항도 받지 않았다.⁶³¹⁾ 여수에서 온 14연대 병력이 순천역에 도착하자, 순천에 파견 나와 있던 홍순석이 지휘하는 2개 중대가 즉시 봉기군에 합류했다.⁶³²⁾ 순천 주둔 병사들이 합류하여 기세가 높아진 봉기군은 순천 철도사무소에 인민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순천을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다.⁶³³⁾

봉기군은 10시 30분 경 세 방면에서 순천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순천 광양 삼거리에 배치되었던 경찰 병력은 일순간에 분쇄되어 100여 명이 전사했다.

여수를 점령한지 몇 시간만에 순천까지 장악한 14연대 봉기군은 밤사이에 세 그룹으로 군대를 재편했다. 홍순석은 그를 보조하는 두 명의 민간인 지도자와 함께 이 작업을 했다. 3개 편대 중 첫 번째 부대는 벌교방면(서쪽), 두 번째 부대는 학구방면(북쪽 방향), 세 번째 부대는 광양방면(동쪽)으로 진출했다.⁶³⁴⁾

2. 군인반란에서 대중봉기로의 전환

14연대는 여수를 점령한 뒤 제일 먼저 인민위원회를 읍사무소에 설치했다. 아침부터 여수의 도심지인 중앙동 근처에는 '제주도출동거부병사위원회' 성

명서', '여수 인민에게 고함', '여수인민위원회 성명서' 등과 인민대회를 알리는 벽보가 붙었고, "미군철수"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도 나붙었다.

오후 3시에 여수 중앙동 로타리에서는 인민대회가 열렸다. 인민대회는 여수 시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되었다.⁶³⁵⁾ 대회에는 이용기(李容起), 이창수(李昌洙), 박창래(朴昌來), 주원석(朱元錫), 유목윤(俞穆允), 김상열(金相烈), 김현수(金炫洙), 강대훈(姜大勳), 박채영(朴采永), 문성휘(文聖輝), 김귀영(金貴永) 등 여수 좌의계의 이름 있는 거두들이 모두 나왔다.⁶³⁶⁾

그 동안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애청, 민주여성동맹(여맹),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 교원노동조합협의회(교협), 민주학생동맹(민학) 등은 단체별로 모여 인민대회에 참여했다.⁶³⁷⁾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인민대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남로당 여수지구 위원장 이용기의 개식사에 이어, 유목윤의 격려사가 있었다.

세 번째로 등단한 인물은 지창수였다. 그는 단상에서 자신을 인민해방군 사령관으로 소개하며, 14연대가 "제주도 파병을 거부하고 우리 인민의 적인 경찰을 쳐부수고 여수 인민을 해방시켰다"고 연설했다. 그는 "남한 내의 모든 국방군들도 인민군과 합류하기 위해 전국에서 일제히 일어났다."며 "혁명에는 사정(私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런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혁명과업 완수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하면서, 여수는 14연대 인민해방군이 조국 통일의 첫 북을 올린 영광스런 땅으로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말로 연설을 끝마쳤다.⁶³⁸⁾ 지창수의 연설이 끝나자 우뢰 같은 박수가 계속되었다.

이어 박기암이 여수 인민을 대표해서 14연대 인민해방군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채택했다. 인민위원회 의장단에는 이용기, 유목윤, 박채영, 문성휘, 김귀영 등 5명이 뽑혔고, 의장에는 이용기, 보안서장에는 유목윤이 선출되었다. 인민위원회의 부서 구성은 의장단에 일임되었다. 인민위원회 의장단 선출이 끝나자 혁명과업 6개항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혁명과업 6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늘부터 인민위원회는 여수지구 행정기관을 접수한다.
2. 우리는 유일하며 통일된 민족적 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3. 우리는 조국을 미 제국주의에 통채로 팔아먹으려 하는 이승만 분단정권

25세은 강릉 출신으로 일제시기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광주 4연대에 입을 때는 보급 강교연고, 촉구부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1947년 7월 4연대 1대대로 활동하는데, 1대대는 47년 12월 순천으로 왔다. 1948년 7월에 1대대는 14연대로 합류했다. 통순석은 이때 K중대 중대장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1948년 10월 순천으로 파견되어 파견대장을 맡았던(유정남 인터뷰), RG 338 Entry 11071 Box 2, Yosu Rebellion)

633) [민족·비극의 정점], (호남신문), 1948, 10, 29

634) [유정남 인터뷰], RG 338 Entry 11071 Box 2, Yosu Rebellion

635) 김계유, 1991, [1948년 여순봉기], (역사바람) 15호, 258쪽, 당시조선일보(1948.11.21.) 등에는 당시에 모인 사람이 약 4만 명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이는 상당히 과장된 숫자이다. 당시 여수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였고, 중앙동 로타리는 4만 명이 운집하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다.

636) 김계유, 일의 글, 258쪽

637) 이태, 1994, [실태소설 여순봉기](상), 청산, 209쪽

638) 지창수의 연설에 대해서는 김계유, 일의 글, 259쪽을 참조.

의 분쇄를 맹세한다

4.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한 민주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5. 미 제국주의를 위해 한국을 식민화 하려는 현존하는 비민주적인 법령을 철폐한다.
6. 모든 친일 민족 반역자와 악질 경찰관 등을 철저히 처단한다.⁶³⁹⁾

639) From John J.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Review of and
Observation on the
Yosu Rebellion(1948
11. 4), RG 319, ID File
No. 506892(여수반란
의 회고와 관찰),
Enclosure p. 2~3

(40)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아무 곳에나 가, '이거 내 거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군인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곽상국,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팀, 일의 글)

640) 창원군, 일의 글, 27쪽
김종일, 19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처를 놓아 두고 구국투쟁에 종결기한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근로자) 제2호, 32쪽

14연대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해방군으로서 환영을 받았다. 군인이 여수 시내로 나가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시민들은 일어나서 환영했다.⁶⁴⁰⁾ 여수를 봉기군이 점령하자 남조선노동당 여수군위원회, 여수군 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전평 여수지방평의회, 여수농민위원회, 민주애국청년동맹 여수군위원회, 여맹 여수위원회, 철도종업원 여수평의회, 협동노조여수위원회, 학통 여수위원회 등이 공개적으로 활동했다. 당시 남로당 여수 지구당 위원장은 유목윤이 맡고 있었다.⁶⁴¹⁾

여수 인민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이용기 위원장이 밝힌 6개 조항의 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6개 조항을 중심으로 여순사건 당시의 인민위원회 활동을 살펴보자 한다.

6개 조항의 첫번째로 여수 인민위원회는 반동단체의 악질적 간부들을 색출하여 보안서의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형, 징역, 취체, 석방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동적인 우익 인물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은 인민위원회가 제일 먼저 실시한 과업이기도 했고, 가장 비중을 두어 시행한 일이기도 했다. 봉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반동분자 색출의 제1차적 대상은 경찰이었다.

두 번째로 여수 인민위원회는 "친일파·모리 간상배들이 인민의 고혈을 뺏아 모은 은행예금을 동결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며 "적산가옥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가 관권을 이용하여 억지로 빼앗은 집들을 재조사해서 정당한 연고권자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 같은 인민위원회의 정책은 반동 우익인물들의 경제적 기초를 박탈하는 것과 동시에 인민위원회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여수 인민위원회가 내건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조항은 민중의 경제적인 생활과 관련된 문제였다. 특히 "식량영단의 문을 열어 굶주리는 우리 인민대중에게 쌀을 배급해 줄 것"이라는 인민위원회의 혁명과업은 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3. 군·경의 진압작전

봉기 소식을 들은 서울의 미 군사고문단 수뇌부는 10월 20일 오전에 관계자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 때는 이미 여수경찰서가 불타고 경찰이 숨졌다라는 보고를 입수한 뒤였기 때문에 사건이 사소한 군경충돌의 수준이 아니라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였다.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William H. S. Roberts)가 소집한 이 회의에는 미군측에서 국방경비대 고문 하우스만(James H. Hausman), G-2 소속의 존 리드(John P. Reed), 전 5여단 고문인 트레드웰(J. H. W. Treadwell) 대위, 현 5여단 고문 프레이(Robert F. Frey) 대위가 참석했고, 국방경비대측에서는 채병덕 참모총장, 정일권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백선엽 국방경비대 정보국장, 고정훈 국방경비대 정보장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수 진압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일단 광주에 반란군토벌전 투사령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⁶⁴²⁾

구체적인 진압작전은 10월 20일 오후, 서울에서 군 지휘부가 광주에 도착한 후에 수립되기 시작했다.⁶⁴³⁾ 육군총사령부는 10월 21일 반란군토벌전투 사령부를 광주 제5여단 사령부에 설치하고 총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는 한편 진압작전에는 서울과 대북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병력 그리고 제주도 항쟁을 진압하는 데 투여된 병력을 제외한 모든 병력을 동원하기로 결정되었다.⁶⁴⁴⁾(〈표2-1〉을 참고).

이에 따라 대전(제2연대) 전주(제3연대), 광주(제4연대), 부산(제5연대), 대구(제6연대), 군산(제12연대), 마산(제15연대)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가운데 총 11개 대대가 진압에 투입되었다. 이들 병력 중 제2, 6, 12, 15연대는 원용덕이 지휘하는 제2여단으로 소속되었고, 제3, 4연대는 김백일이 지휘하는 제5여단에 소속되었다. 부산의 5연대는 해안경비대와 함께 여수 앞 바다에서 해상작전을 전개했다. 학구 전투는 진압군과 봉기군이 맞붙은 첫 번째 전투였을 뿐만 아니라, 어제의 동료였던 봉기군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였다.

학구전투 승리 이후의 진압작전은 순천 탈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순천

642) G-3 Section, II N Corps, op.cit., p.3. 김 하우스만 · 정일희, 1955, (한국 대통령을 응원한 미군대원), 한국문 원 171~172쪽. 백선업, 「심복 차리신」, 고려원, 1992, 164쪽. HO,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Special Orders, 23 August, 1948~3 January, 1949; 7 May, 1949, Arno P. Mowitz Jr., Papers, 미국 군사 연구소 (USAMHI), United State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소장

643) 존 R. 매틀, 1989, (침략 인가 해방전쟁연기), 과학과 사상사, 208쪽

64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일의 책, 459~460쪽. 육군본부, 1954, (중비로 병사), 15~16쪽. 매틀, 일의 책, 209쪽

을 탈환하는 것은 전체적인 정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였다. 만약 순천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다면 여수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셈이었다.

10월 21일 미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의 송호성 사령관을 만나 봉기군을 맹공격 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 했다.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순천과 여수를 조속 탈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란세력으로부터 이곳을 해방시키는 것은 선전상 중대한 가치를 갖는 도덕적·정치적 승리가 될 것이다.”⁶⁴⁵⁾ 미군 지휘부는 봉기군이 빨치산 세력으로 전환되는 것보다 여수와 순천이 아직도 봉기군 수중에 장악되었다는 점을 더욱 우려했고, 이에 따라 조속한 여순 탈환을 요구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를 해치려는 사람은 결국 이 나라에는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 하여 강경한 탄압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⁶⁴⁶⁾

10월 22일, 제3, 4, 12연대의 병력은 박격포 사격을 해대며 순천 공격을 재개했다. 이날 전투는 순천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인 매곡동 근처에서 치열하게 벌어졌고,⁶⁴⁷⁾ 중화기의 무차별 사격으로 시내에는 주검들이 싸여 갔다.⁶⁴⁸⁾ 날이 어두워지자 진압군은 공격을 멈추었다. 12연대를 주력으로 하는 진압군은 저항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한 L-4 연락기의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10월 23일 오전에 순천 작전을 평쳤다.

순천 진압작전을 주도했던 김백일은 반군 외에도 무기를 소지한 치안대, 학생, 민애청원들이 대항했기 때문에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가가호호를 수색 했다.⁶⁴⁹⁾

순천이 점령되자 송호성 준장은 각 여단장과 지휘관을 순천에 모아, 여수 탈환작전과 각 방면으로 분산한 봉기군 추격작전을 논의했다.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 송호성 준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처음으로 진압 작전의 선두에 나섰다.⁶⁵⁰⁾ 공격부대는 송석하 부연대장이 지휘하는 3연대 1 개 대대와 장갑차부대였고, 제5연대 병력을 비롯한 해안경비대 함정들은 여전히 여수만을 포위하고 있었다.⁶⁵¹⁾

송호성은 봉기군을 설득하려고 확성기를 통해 봉기군 청년장병들에게 호소했으나 대화가 쉽지 않았다. 송호성이 여수 초입인 미평면 오림리(일명 원구부, 잉구부)에 이르자, 이 일대에 매복하고 있던 봉기군은 기습을 감행했다. 이 공격으로 송호성은 고막이 찢어지고, 종군기자로 참가했던 AP통신의 크린튼이 전사했다.⁶⁵²⁾ 송호성은 봉기군의 반격에 놀라 긴급히 후퇴했다.

645) 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 Press, p.264.

646) 《국제신문》, 1948. 10. 23.

647) 정종근, 『일의 글』, 28쪽.

648) 윤기남, 『네가 겪은 여순사건』, 순천시사편찬위, 1997, 814쪽.

649) 《동광신문》, 1948. 10. 27. 정부가 강행한 『한국전쟁사』에는 순천에서는 처형했던 아들이 ‘오장 이 죽센사상으로 감염되었기 때문에 충부리 앞에 쓰러지면서 한민공화국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이 소란전에서 대부분 송진했다고 적고 있다(국립부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제4권 및 『전군』, 464쪽).

650) 김낙원, 1962, 『여수평도사』, 여수문화원, 69쪽.

651) 장창국, 1984, 『목사출입』, 충암일보사, 171쪽;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일의 책』, 466~469쪽; 매일, 『일의 책』, 211쪽.

652) 장창국, 『일의 책』, 171쪽.

상륙작전도 육지와 똑같이 실패했다. 24일 오전 8시경, 여수 동쪽 해안에서는 일부 함정이 여수 신항에 상륙하려다 철수했고, 3척은 봉기군이 사격하는 소총탄을 무릅쓰고 구항을 통과하여 신월리 앞 바다에 한 시간쯤 멈추었다가 다시 회항했다.

육지와 해안을 통한 여수 2차 공격도 실패로 돌아가자 군의 진압능력이 의심스럽게 되었다. 이승만은 “반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수를 탈환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창피냐.”면서 진압군을 질책했다.⁶⁵³⁾ 여수가 탈환되지 못하자 이승만정권의 위기 대처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미군은 수립된 지 2개월밖에 안된 이승만정부가 과연 이 봉기를 진압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

여수탈환이 이승만정권의 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됨에 따라 여수탈환 작전은 지리산 방면으로 퇴각하는 봉기군 추격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로 등장했다.

병력을 집중하여 여수를 공략하려는 작전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여수에 있던 봉기군은 섬진강을 거쳐 지리산으로 잠입했다. 10월 24일에 진압군을 비록 격퇴하기는 했지만 여수를 향해 국방경비대의 병력이 총동원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바다는 해안경비대 함정이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탈출은 불가능했다. 이날 밤 남아 있던 지창수 지휘하의 14연대 군인들은 본격적인 진압을 예감하고 백운산과 벌교방면으로 이동했다.⁶⁵⁴⁾ 해안에 비해 육상 루트는 어느 정도 열려 있었다. 진압군의 허점을 이용해 여수를 탈출한 봉기군과 이미 지리산으로 들어간 부대들은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계릴라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제 여수에는 인민위원회가 지휘하는 300명 미만의 시민부대가 남아 있을 뿐이었고, 그 결과 여수 시가지 전투는 ‘반란진압작전’으로부터 ‘봉기시민소탕전’으로 변화했다.⁶⁵⁵⁾

10월 25일 육해 양면을 통한 제3차 진압작전이 재개되었다. 육지의 김백일 부대와 협조하라는 미 고문관의 지시를 무시한 김종원은 상륙작전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⁶⁵⁶⁾

10월 26일 정오가 지나서 진압부대는 여수에 대한 제4차 최종 공세를 폈다. 장갑차, LST의 박격포사격의 지원을 받은 12연대 2개 대대, 순천에 있던 4연대 일부 병력, 3연대 1개 대대와 2연대의 일부 병력, LST에 승선 중이던 5연대 1개 대대, 장갑차부대, 경찰지원부대가 여수로 진격했고, L-4항공기

653) 박선업, 암의 책, 185쪽.

65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광주전남현대사, 실천문화사, 1991, 153쪽; 김개유, [1948년 여수봉기], [역사비평] 거울호, 1991, 277쪽; 이들은 지리산에서 합류하여 계립라전을 전개하게 된다.

655) [세계일보], 1948. 10. 31. 여수에 남아 있는 시민군의 수를 1,000명으로 기록한 문헌도 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일의 책, 469쪽; 여수여전형토지, 1975.〈여수여전형토지〉, 313쪽; 여름, 일의 책, 214~215쪽.

656) Alan R. Millett·김광수 역, 2000, 「러우스만 대위와 한국군 창설(1945~1950)」, 『군사』, 40호, 2000, 261쪽.

등과 해안경비대 경비정이 여수반도를 포위한 채 공중과 해상에서 진압작전을 도왔다.

657) 김계윤, *임의 글*, 282쪽.

주공인 12연대는 시가지 공격에서 동쪽을 담당하여 마래산으로부터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내로 들어갔다.⁶⁵⁷⁾ 3연대는 종고산 쪽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했다. 한편 2여단 군수참모 합병선 소령이 지휘하는 2연대 제1대대는 예비대로서 해안선을 따라 신항쪽에서 시내로 들어왔다. 합병선의 예비부대는 상륙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부두로 향했으나 부두 부근에서 저항 세력과 충돌했다.

658)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순천시사], 772쪽

이미 14연대 병력이 퇴각한 뒤였기 때문에 여수 초입인 미평은 쉽게 통과했고, 오후 3시 경에는 구봉산, 종고산, 장군산 등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3시경 외곽고지를 점령한 진압군은 곧이어 시가지에 대한 박격포 사격을 고지와 바다에서 전개했다.⁶⁵⁸⁾ 박격포 사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각 연대는 시내로 돌입하여 민가를 가가호호 수색했다.

659) 장항국, *임의 책*, 172쪽

광양에 있던 4연대 제2대대도 시내 수색작업에 참가했다. 4연대 병력을 이끄는 박기병 소령은 여수지구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진압사령부는 여수 군청에 설치되었다.⁶⁵⁹⁾

장갑차를 타고 시내로 돌진한 12연대와 작전에 참가한 각 대대는 담당구역을 할당하여 시민들을 진남관이나 서국민학교 운동장 등에 모이게 했다. 진압군은 밤이 되자 소탕전을 중지하고 본부를 서국민학교에 둔 다음 산발적인 저항세력의 공격에 대비하여 경계에 들어갔는데, 이 때 여수 좌익 지도자들은 미평 쪽으로 후퇴했다.

10월 27일 새벽부터 여수에 대한 초토화 소탕작전이 시작되었다. 진압군은 장갑차 12대를 앞세우고 여수로 진입했다. 여수공격에는 12연대, 3연대, 2연대, 5연대(해안경비대)가 참가했다. 송석하 소령이 지휘하는 3연대 1개 대대는 종고산 방면에서, 백인엽 소령이 지휘하는 12연대와 장갑부대는 신월리에 있는 14연대 주둔지에서 소탕전에 나섰다.

남아 있던 저항세력들은 진압군에 밀려 후퇴했고, 여수 시내는 3시 30분 경 점령되었으며, 저녁 6시 소탕전은 완료되었다. 다른 부대가 여수를 거의 점령했을 때 도착한 박기병의 4연대는 이 다른 부대와 함께 봉기 혐의자 색출을 시작했다.

4. '협력자' 색출과 민간인 학살

순천과 여수를 점령한 진압군은 제일 먼저 전 시민을 국민학교와 같은 넓은 공공장소에 모이도록 명령했다.

10월 26일 여수에서 진압군은 시민들에게 확성기로 국민학교에 모이라고 방송했다. 시민들은 나오지 않으면 봉기군으로 간주된다는 말을 듣고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고, 실제로 국군이 젊은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 모이라는 장소에 나왔다.⁶⁶⁰⁾

무장 군인들은 총을 들고 길거리에서 이탈자를 감시했다. 줄에서 이탈하면 봉기군으로 간주되었다. 진압군은 서국민학교에 본부를 설치하고 동정 공설 운동장, 진남관, 종산국민학교(현 중앙초등학교), 동국민학교, 서국민학교 등 다섯 군데에 시민들을 모두 모았다.⁶⁶¹⁾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끌려왔던 사람들은 곧 '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 그제서야 여기 끌려온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생존 경찰관을 선두로 우익친영 요인들과 진압군 병사로 이루어진 5~6명의 심사요원들이 시민들을 줄줄이 앉혀놓고 사람들의 얼굴을 쑥 훑고 다니다가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사 뒤에 파놓은 구덩이 앞으로 끌려가 불문곡직하고 즉결처분(총살)되어 버렸다. 그 자리에는 일체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무언(無言)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람을 잘못 봤더라도 한번 찍혀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임사호천(臨死呼天)이라고 사람이란 누구나 죽게 되면 하늘을 부른다고 했다. 그때 여수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정문에서는 간혹 소탕작전에서 잡혀오는 것으로 보이는 파리한 몰골의 옛된 젊은이들이 2~3명씩, 혹은 4~5명씩 묶여와 교사 뒤로 끌려가면 어김없이 탕 탕하는 기분 나쁜 총소리가 뒤따라 사람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⁶⁶²⁾

끌려온 시민들은 학교운동장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학교 정문에는 담을 높이 쌓아올려 중기관총을 높이 걸어놓고 병사들이 시내 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 웅크리고 앉아 있는 운동장 주위에는 무장군인들이 뻥 둘러서서 삼엄한 경계를 뻤다.

여수여자중학교 운동장에는 멀치를 뿐 놓은 것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660)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1991, 154쪽.

661) 김계유, 앞의 글, 283쪽;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4쪽;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4, 대담자 김득중, 여수 중심가에 위치한 진남관은 당시에 학교로 사용되고 있었다. 진남관, 중앙국민학교, 동정 공설운동장 등은 여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다. 동국민학교는 여수 중심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서국민학교는 서교 동지역을 아우르는 여수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다섯 군데에 시민들을 모인다는 것은 인구 밀집지역인 중심가를 포함하여 여수 대부분의 지역을 망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수 가장 남북인 국동의 경우에는 국동 동사무소 공터에 주민들을 모두 모았다.

662) 김계유, 앞의 글, 283~284쪽, 다른 글에서는 색출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되어있다. 즉 조그만 통로를 마련해 놓고 그 가운데로 수용한 시민들을 지나가게 하고, 출입의 경우에는 무익첨년단체 청년, 경찰 가족들이 서서 자신들이 목격한 좌익부역자들을 손가락으로 지적하거나,反过来, 군경에게 말해주면 그들을 따로 가려냈다고 한다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7쪽).



663) 리영희, 1988, 「역장~나의 청년시대」, 창작과비평사, 122쪽.



▲ 진압군에 의해 불집혀온 시민들 (여수서국민학교 운동장)

많은 시체가 운동장을 덮고 있었다.⁶⁶³⁾ 운동장 울타리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체도 확인하지 못한 채 면발치에서 통곡만 했다.

진압군은 먼저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사건 가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학교 건물 뒤편 등에 마련된 즉결처분장에서 개머리판, 참나무 몽둥이, 체인으로 죽이거나 곤바로 총살했다. '백두산 호랑이'로 악명 높던 김종원은 여러 차례 시도한 상륙작전이 실패한 것에 분풀이를 하듯, 중앙국민학교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며 혐의자들을 즉결 참수했다.⁶⁶⁴⁾

김종원 부대는 10월 28일 여수 시내를 순찰·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5연대의 나머지 다른 부대는 돌산도에 있는 봉기군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를 목격한 대로우는 그의 보고서에서 여수에서 진압군의 주요한 목표는 '약탈' (sacking)과 '강간' (raping)이었으며, "의심할 것도 없이 이 과정은 가장 난폭한 꿈이 이루어지듯이 진행"되었다고 적었다.⁶⁶⁵⁾

여수에서 진압군은 다섯 군데에서 2~3일에 걸쳐 혐의자 색출을 진행했다. 혐의가 없는 사람들은 풀어 주었지만,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중앙국민학교로 다시 모았다. 중앙국민학교에 모인 사람들은 재심사를 받거나 계엄군, 경찰에 넘겨져 심문과 재판을 받았다. 재심사와 추후에 체포된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심사는 12월초까지 계속 진행되었다.⁶⁶⁶⁾

협력자를 지목하는 일은 반란에서 살아남은 그 지역의 경찰, 우익인사, 우익단체 청년들이 맡았다. 외부로부터 작전에 참가한 경찰관들은 지역 사정에 어두워 많은 수가 봉기세력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살아남은 경찰관들도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피로하고 과도한 긴장으로 흥분된 한 상태였다. 충혈된 눈으로 사나워진 경찰들은 순천에서 총살된 채 썩고 있는 동료들을 보고 나서는 감정이 더욱 복받쳤다. 이들이 가리킨 단 한 번의 손가락질이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를 갈랐다.

그러나 운동장에 모인 그 많은 혐의자 중 누가 과연 봉기군에 협조했는가

664) 국방부전시편찬위원회, *임의 책*, 471쪽; 김낙원, [여수향토사], 여수문화원, 1962, 71쪽.

665) 대로우 대위, [여수반란 상록 국면] 8쪽.

666)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4, 대당자 김득중, 진남관에 집합했던 사람들은 중 혐의자는 광주 군법회의로 바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를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없었다. 살아남은 경찰은 사건 당시에는 숨어 있었거나, 탈출했거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한 경우였으므로 민간인 협조자를 일일이 구별해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물론 붙잡혔던 경찰 중에는 자신을 제포한 죄악인들을 정도는 알 수 있었겠지만 주요 죄악인들은 14연대와 함께 이미 탈출한 뒤였다.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이루어진 색출 때문에 시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협력 혐의가 없는 시민이라도 운수가 나쁘면 착각이나 개인 감정에 의해서 죽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다.

협력자 색출의 후유증은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계속해서 여수 시민들을 괴롭혔다.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이나 자세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색출작업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심사의 기준이 된 것은 교전중인 자,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손바닥에 총을 훤흔적이 있는 자, 흰색 지까다비(地下足袋, 일할 때 신는 일본식 운동화)를 신은 자, 미군용 군용팬티를 입은 자, 머리를 짧게 깎은 자였다.

주민들 가운데 흰 고무신을 신고 있는 사람도 봉기군으로 간주되었다. 흰 고무신은 지방좌의세력에게 처형당한 우익인사 김영준이 운영하는 천일고무 공장에서 제조한 것이었는데, 봉기 기간에 인민위원회가 이를 배급했기 때문이었다.

또 국방경비대가 입고 있던 군용 표시가 있는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혐의대상이었다. 진압된 뒤 걸옷은 버릴 수 있지만 속옷은 갈아입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였다.

이 기준들은 원래 14연대 봉기군을 색출하기 위한 기준이었지만, 진압군은 이런 외모의 사람들 모두를 봉기군 협력자로 간주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했다.

군경은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투서도 받았다. 이 때문에 개인 감정 등에 따라 생사람을 잡는 혜위투서가 난무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수없이 희생당했다. 협력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무고한 노인이 모진 전기고문을 당하기도 했다.⁶⁶⁷⁾

더욱이 협력자 색출이 정치적이나 사업상의 경제적 관계 등 개인적인 감정이 개재되어 이루어지면서 민심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민족청년단 지도자와 심한 언쟁을 한 적이 있는 한 사람은 협력자로 지목되어 경찰에 의해 오동도

667)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의
원회, 암의 책, 140 ~
140쪽



668)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위의 책, 158쪽.

669)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위의 책, 148~149쪽. 그는 노총위원장의 보증으로 물려날 수 있었다.

670)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위의 책, 186쪽.

671) 충한표, 1948. [전남반란 사건의 전모] [신전지] 11월호, 163쪽.

672) 김낙원, 앞의 책, 74쪽.

673) 《동급신문》, 1948. 11. 5. 대동청년단·전남도단부는 여순사건으로 약 7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674) 《독립신문》, 1948. 11. 9.

로 끌려갔다.⁶⁶⁸⁾

우익인사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만은 아니었다. 순천의 유명한 우익인사 한 사람은 톱밥 속에 숨어 문혀 지내다가 국군이 들어온 뒤 이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봉기군 치하에서 '마차조합장'으로 협력했다고 경찰서로 끌려가 곡괭이 자루로 맞았다. 그를 죄조한 사람들은 목포에서 온 경찰관이었다.⁶⁶⁹⁾

이렇게 외모나 다른 사람의 고발, 개인적 감정에 의한 중상모략, 강요된 자백 등의 기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당시 인민위원회에 출입했던 사람이나 밥을 얻어먹으려 좌익을 따라다닌 사람 등 14연대 봉기 군인이나 좌익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모두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호박잎 하나라도 반란군에 준 사람'은 모두 혐의자로 몰렸다.⁶⁷⁰⁾ 결국 진압군의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국군이 올 때까지 집 안에 완전히 숨어 있어야만 했다.⁶⁷¹⁾

봉기군이 여수를 일주일 동안이나 점령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시민과 학생에 대한 조사는 신중하고 면밀해야만 했다.⁶⁷²⁾ 하지만 '빨갱이'로 의심받는 시민과 학생들에겐 관용이란 없었다. 분위기에 휩쓸려 부화뇌동한 학생이거나 군인들에게 밥 한끼 해주거나, 봉기군을 숨겨주거나 아니면 봉기군이 남기고 간 소지품이나 혼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봉기군에 협조한 사람으로 찍혀 억울하게 죽어갔다. 진압군과 그 후 진주한 경찰대는 여수 시민 대다수가 '빨갱이'로 봉기에 참가한 것이라고 속단하면서 '최대의 증오와 적대심'으로 시민을 상대했던 것이다.

혐의자 색출과정에서는 우의 청년단체원들이 적극 나섰다. 청년단원들은 이미 봉기군이 순천에 진입할 때 봉기군에 맞서 저항한바 있었고, 여수와 순천에서 많은 희생자⁶⁷³⁾를 냈기 때문에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진압군이 순천과 여수에 진입할 때, 따라 들어온 청년단원들은 혐의자들을 색출하고 취조⁶⁷⁴⁾하는 등 경찰과 군 옆에서 거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다.

반란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씌우는 것은 쉬웠으나 혐의자로 몰린 사람이 그렇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건 방어였다. 여수와 순천에 14연대가 들어왔을 때, 경찰관과 우익요인들을 제외하고는 봉기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압군과 경찰의 과도한 협력자 색출 앞에서 전 시민은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진압군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온 사람들도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10월

24일 여수 앞 바다에 정박 중인 전차양륙정(LST)에는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죄수, 어부들이 여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러 왔다. 하지만 군인들은 이들을 죽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구타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미 군사고문단원 대로우 대위는 그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아니 그보다 심한 대우는 작전 중 계속되었고 매일 목격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군인들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폭력 때문에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다른 주의와의 차이를 몰랐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더 이상 이 같은 비인간적인 사안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⁶⁷⁵⁾

우익 인사나 봉기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온 사람들조차 취조 당하고 구타당했다는 사실은 협의자들이 봉기군에 협력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전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초토화 진압 작전은 사실 진압작전 초기부터 어느 정도 예고되었다.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발표된 정부의 성명서는 철저한 보복이 실시될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 성명서는 진압군이 계엄령 하에서 봉기군을 숨겨 주는 사람도 ‘사형’에 처할 것이며 반란에 협조하는 어떤 행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분명히 공표했다.

상부 권력으로부터 나온 이와 같은 엄격한 죄의 규정은 사실상 살인 허가나 다름이 없었다. 명령과 복종의 가치가 어느 것보다 중요시되는 군대 조직에서 상부의 지시나 명령 없는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일본도로 협의자의 목을 베는 끔찍한 처형이 수많은 장소에서 공공연히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봉기 협력자와 공산주의자는 죽여도 좋다는 상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인을 법도 없이 맘대로 살해하는 행위는 부끄러운 비인간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명령에 복종하는 애국적 군인들의 권위와 위엄을 한껏 뽐내는 일로 간주되었다. 또한 민간인 학살은 김종원, 백인엽 등 몇몇 군인들의 일탈된 행위가 아니었다. 김종원이 아무리 야만적으로 시민들을 구타하고 살해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상부의 권위에 의해 인정되고 묵인되었기 때문이다.

여수 현지의 진압작전을 주도한 것은 만주군 출신들이었다. 백선엽, 김백일, 박기병, 백인엽 등 진압작전의 일등 공신들은 만주국에서 익힌 임진격살(臨陣擊殺)을 잊지 않았다. 임진격살이란 군과 경찰의 재량으로 적대하는 세력을 즉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⁶⁷⁶⁾ 임진격살권은 만주국이 봉괴될 때까지도 지속되었는데, 만주군 출신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임진격살이라는

675) Captain Howard W. Darro, *The Yosu Rebellion, Amphibious Phase, RG 338 Entry 11071 Box 2, Yosu Rebellion*.

676) 山室信一, [キメラー滿洲の背景], 1993, 東京, 中央公論社, p.295; 滿洲國史編纂刊行會編, [滿洲國史概論], 1970, 東京, 滿蒙問題研究會, p.329(한용구, 2002, [대한민국에 미친 만주국의 유산], 6쪽에서 재인용 <http://www.historyfund.com/>)

677) 김계유, 일의 글, 280쪽, 벌상 날씨가 분명하지 않은 한 거리는 종산국민학교를 안과, 교실에 몇몇 범을 사람들을 친여 명이 서리가 내리는 밤에 끝만에 걸어앉아 자기의 앞에 가로놓인 운명의 풍백에 불안한 밤을 새고 있으며, 오동도에는 학생이 약 2백 명, 일반인이 약 6백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보도했다(조선일보, 1948. 11. 2). 다른 신문은 오동도에 수용된 인원이 1,063 명이라고 보도했다(경향신문, 1948. 11. 2).

678) 김계유, 「내가 겪은 '여수 사건」」, 『월간 역사』 1999년 1월호, 175쪽. 김계유는 여수의 경우 14년대 봉기군이 들어온 때에는 각급 기관장이나 무의친영의 유력 민사를 빼곤 민간인들의 피해가 거의 없었으며, 주로 저해한 것은 현상을 사고 있던 경찰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679) 한 기자는 순천·여수에 들어가기 전에는 봉기군이 범파, 강도질, 강간, 사체 파괴, 살해를 자행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막상 현지에서는 부녀자나 노인의 시체를 거의 볼 수 없었고, 시체에 손을 대는 횡포도 별로 보지 못했다고 했다(설국원, 1048, 「민관 국토를 보고 와서, 반란자구」, 단사기(신문지) 11월호, 183쪽).

680) 김계유, 「여수봉기」, 『역사비평』겨울호, 1991, 289쪽. 1998년 10월 12일 여수시 호명동 이산 계곡에서는 주검 5구가 발견됐다. 다섯 명의 두 개골에는 종단 흔적으로 보이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손목시계도 발견되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수사건 당시

즉결 처분을 실시했던 것이다. 즉결처분에 필요한 증거는 혐의로 충분했다.

국민학교 등에 수용되었던 여수시민들 중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를 밤을 꼬박 운동장에서 새운 뒤인 28일에 풀려났지만, 군경은 40세 미만의 사람들은 반란가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젊은 남자들 600여 명을 따로 가려냈다. 혐의자는 오동도에 재수감 되거나 종산국민학교(현 중앙초등학교)로 끌려갔다. 677)

진압군의 협력자 색출과정은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동안이나 계속 되었고, 이로 인해 시내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4연대가 여수를 장악했던 때에는 인민위원회가 이른바 '반동분자'로 간주된 경찰관, 우익인사, 우익 청년단체원들을 지목하여 처벌했다. 이에 따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일반 시민들은 큰 우려를 하지 않았다. 678) 하지만 진압군은 전 시민을 혐의자로 의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679)

시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이었다. 무자비한 몽둥이 고문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실새없이 흘러나왔다. 참수, 즉결총살 등으로 여수 시내 중심부의 시청과 경찰서 주변에는 시체가 아무렇게나 턱걸고 있었고 경찰서 뒤편에는 시체가 대강 정렬돼 있거나 혹은 난잡하게 포개져 있어 그 처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 만성리로 가는 터널 뒤편에는 집단 총살된 사람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680) 이같이 가담자 색출작업은 '같은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이었다. 여수는 공포와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협력자 색출과정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계엄령이 내려져 있던 상황이라도 군이나 경찰이 수많은 인명의 생사를 자의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전투과정에서 사상자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전투가 아닌 협력자 색출과정은 법의 기준에 입각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수와 순천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리조차 무시되었다. 진압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진압군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자신의 학살 행위를 정당한 방어로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군인이나 이후에 쓰여진 기록물들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된 이유를 봉기군과 민간인 참가자들의 잔인한 행동에서 찾고 있다. 681) 당시 순천탈환전에 참가했던 어떤 작전참모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상사의 명령으로 순천탈환전에 참가했을 때에도 솔직히 말하면 반군에게 아무런 증오감도 느끼지 않았다. 병사들도 모두 나와 꼭 같은 심정이었다. 더구나 14연대의 병사들은 내가 직접 가르친 부하들이요 전우였으므로 나는 그들을 살해 할 의사는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순천시에 돌입하여 시가 대로상에 동지들 의 시체가 늘비하게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병사들이나 나 자신이나 별안간에 불길 같은 증오감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순천을 완전 점령한 지금에도 나는 '점령'이라는 말을 결코 쓰려고 하지 않는다. 동족간에 자국 내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데 점령이 무슨 점령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피눈물 나는 싸움이었다.⁶⁸²⁾

이 군인은 같은 민족 내부에서 벌어진 참혹한 싸움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애타는 심정을 피력했지만 한편에서 솟아오르는 '증오감'을 숨기지 않았다.⁶⁸³⁾

봉기가 진행되면서 지방의 좌익이 우익인사를 잔혹하게 죽인 경우가 있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옮겨지면서 과장된 경우도 많았다. 더욱이 이런 사실들은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번져나갔다.

한 기자는 '믿을 만한' 관리에게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지만 현지에서 실제로 조사해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⁶⁸⁴⁾ 하지만 당시 대다수의 언론들은 좌익 봉기세력에 의한 인민재판과 학살을 계속 강조하고 증폭해서 보도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반복 생산된 말과 글은 어느새 사실이 되었다.

봉기군의 살상 행위는 군인들에게 증오감을 불러 일으켰고, 애국 우익세력을 대변하는 진압군이 봉기에 협력한 민간인을 응징하는 것은 당연한 인과응보의 수순이 되었다.

진압군이 민간인을 대량학살한 것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좌익세력과 봉기군은 살육을 일삼는 가해자로, 진압군은 봉기군을 응징하고 살해된 인물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세력으로 이미지가 고정되었다.

5. 이승만정부의 대응

이승만정부는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건 수습에 나서기보다는 이 사건을 즉각 김구세력을 탄압하는

이 지역에는 70~100구의 주검이 집단매장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한겨레신문』, 1998. 10. 13.; 1998년 10월 12일 mpc 9시 뉴스데스크). 다음 해에도 발굴이 이루어졌다. 1999년 9월 14일~16일 까지 3일 동안 평계동 아산(장개공)에서 실시된 유골 발굴에서 3구의 유골과 따른 흥미 발견 되 었 다.
<http://www.yosucc.or.kr/>)

681) 「민군들과 폭도들의 만행」이 문자 그대로 천인이 공느낄 징국을 초래했기 때문에 진압군의 감정 또한 격화되었다는 기술도 이와 같은 역사이다(『전시면한위원회(한국전쟁사-해방과 진군) 제1권』, 1967. 464쪽).

682) [정비식 · 여 · 손낙수 (21)] 『조선일보』, 1948. 11. 21.

683) 박선열, 『설록·지리산』, 고려원, 1992, 180쪽도 참고.

684) 예를 들면 순천에서는 한 여순경이 웃을 떴던 채 서장과 같이 조리를 든 다음 농복을 당하고 춤살당한다고 하는데, 기자는 그 여순경을 찾아 웃는 얼굴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 『반란지구 답사기』(민주일보), 1948. 11. 12.

데 이용하려 했고 군대를 지휘하는 정부의 책임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태도는 정부 각료의 사실 은폐와 거짓말 그리고 여순 시민에 대한 강경한 진압작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번석 국무총리는 여순사건의 주모자가 '극우와 극좌세력의 연합'이라고 발표하자, 김구는 이를 즉각 부정하였다. 김구가 여순사건 관련을 분명하게 부인하고 일반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자, 권력에서 소외된 극우정책과 공산주의자들이 합동으로 반란사건을 일으켰다는 정부의 발표는 민간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으로 그 범위가 점차 변화하게 된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변화는 여수에 대한 초기 진압작전이 실패하면서 여순 사건에 대한 불안감이 체제 위기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취해졌다. 반체제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위기를 돌파하려는 이승만 정부의책략은 여순사건의 주체를 소련과 북한을 포함하는 좌의 반체제 세력으로 설정하게 했다.

1945년 말 모스크바 삼국회상회의 안을 둘러싸고 좌우대립이 나타났을 때부터 좌익은 친소주의자, 반민족주의자, 매국노라는 극우세력의 공세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 파급되었지만, 여순사건 뒤 좌익에 대한 정권의 공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공산주의자를 '비인간'으로 보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문인조사반(文人調査班)은 시민들의 공포와 무력감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반면에 봉기군이 별인 비인간적 악행과 죄상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할애하여 표현했다.

박종화는 반란자들이 "동족의 피를 보고 이리떼처럼 날치고 눈깔을 빼고 해골을 부수고 죽은 자의 시체 위에 총탄을 80여 방이나 놓은 잔인무도한 식인귀적 야만의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고 고발했다.

고영환은 순천지구 전투사령부 작전참모의 말을 인용하여, 반군의 잔혹상을 생생히 표현했다. 이 작전참모는 처음 순천읍에 들어 올 때는 반란도당에 대하여 그다지 큰 적개심을 품지 않았지만, 순천읍에 들어와서 무수히 쌓여 있는 시체들을 보고서는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순천에서 그가 본 것은 '한 시체에 50, 60개 내지 80, 90개의 탄흔'이었고, '총살한 뒤에 눈알을 빼며 혹은 사지를 자르며 혹은 배를 가르고 오장을 헤쳐버린 것' 등이었다.⁶⁸⁵⁾ 이러한 생생한 표현들은 작전참모가 적개심을 일으켰던 것처럼 독자들이 봉기군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적인 문구였다.

685) 고영환, [여순잡감], 전 국문화단체총동맹, [반 련과 민족의 각오], 문 전문화사, 1949.

문인들은 '잔인무도한 귀축(鬼畜)들', '천인공노할 귀축의 소행들' (이현구), '잔인' '괴악무쌍(怪惡無雙)' (고영환), '악의 승리' '인간성 상실' '저주의 보상' (김광섭)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봉기군의 만행을 표현했다. 봉기군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잔인한 짐승으로 여겨졌고, '절대 악' 이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될 수 없었다. 이승만의 표현처럼 반란자들은 '한 하늘 아래 두고는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였다.⁶⁸⁶⁾

봉기군의 잔혹한 행위를 묘사하는 데서 소설가와 시인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시인 김영랑은 [절망]이라는 시에서 봉기군들이 "악의 주독(酒毒)에 가득 취한 채 양민을 산 채로 살을 깍기여 죽었나이다. 산채로 눈을 뽑혀 죽었나이다. 칼로가 아니라 탄환으로 쏘아서 사지를 갈갈히 끊어 불태웠나이다."라고 적었다.⁶⁸⁷⁾

여기서 더 나아가 몇몇 문인은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으로 접근하면서 종교적인 언어로 봉기군의 만행을 표현했다. 김영랑은 인민재판에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을 새벽에 여수경찰서에서 처형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새벽의 처형장]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는 이 시에서 봉기군을 '마(魔)의 숨결'이라고 표현했으며, 박종화도 '마의 반군 800명'이라고 표현했다.

종교적 언어는 봉기군을 악마의 군대로 등치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각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 같은 종교적 언어의 사용은 수사 차원을 넘어, 반공국민 형성에 필수적인 극명한 이분법 논리를 강화해 주었다. 즉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악의 구분이 가능하며, 한쪽이 선하다면 한쪽은 악하다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파괴되어야 한다는 발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발표했던 성명서를 살펴보면, 정부의 반공산주의적 담화나 전략이 반드시 파멸시켜야 할 적을 상정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맹목적인 선악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은 문인들의 감정적이며 다분히 종교적인 언어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좌의세력의 활동이 완전히 불법화되고, 이북에 공산정권이 세워진 상태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완전히 적대적인 세력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정권은 좌익을 비인간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공동체의 울타리에서 추방하려고 하였다. 정부는 공보처, 내무부 등의 국가 기구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반공 공세에 나섰지만 반공체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정책이나

686) 이승만, [방위방책 취지], 전국문화단체총동맹, 일의 책, 7쪽

687) 김영랑, [절망], 전국문화단체총동맹, (반란과 민족의 각오), 문진문화사, 1949, 31~32쪽

선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외부적 강제만이 아니라 내심으로부터 우리나라 나오는 적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별과 배제가 필요했고, 신문 등의 여론기관은 구별과 배제의 담론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제공했다.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언론은 자체 권력이 설정한 의제를 충실히 따라갔다. 정부의 성명서 발표는 신문을 통해서 국민에게 검증 없이 바로 전달될 수 있었다.

이런 언론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강요에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공주의를 전 사회에 파급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이기도 했다.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제일의 신조로 삼고 있지만, 사례에서 나타나듯 당시 언론의 보도는 이러한 원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언론이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좌익의 학살 양상을 상세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동안 독자들은 언론이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한정된 정보와 의제에만 간하게 되었다.

여순사건 때, 일간 신문들은 봉기군의 잔악한 행위와 폭력성, 극렬한 저항 그리고 진압군의 영웅적 군사 작전을 기사, 사설, 사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반공주의 내용의 신문 보도는 남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봉기군에 적개심을 갖고 반공주의에 결속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반공국가 형성이라



▲ 여순사건에 대해 보도한 신문기사

는 프로젝트에서 신문의 역할은 필수적이었다. 신문은 여순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여론을 조직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반공산주의적 이념 공간을 제공하였다.

문인들과 종교인은 소설가적 상상력과 과장 그리고 감성적인 언어로 좌익의 만행을 고발했고, 이는 신문 지상에 보도되어 좌익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론적으로 공산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그럴듯한 반공 이데올로그들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인과 종교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이미지를 그려내 국민에게 제공하였다.

만약 신문이나 문인들의 활동이 없었더라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반공주의 교육은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웠다. 지금처럼 다양한 통신수단이 발전하지 않은 당시에 신문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고, 문인이나 종교인들은 신문 기고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인텔리들이었다. 언론과 인텔리들의 반공적 입장은 여순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세우고 공산주의자들을 반민족적인 세력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승만정권이 반공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쳤던 이유는 혜계모니를 추구하는데 반공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이승만정권이 감당해야 했던 분단정권이라는 약점은 공산주의자를 공동체 내부에서 추방해버리고 그들에게 공격자, 적대자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것을 통해 약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정권이 반공 공세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정부는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에 대한 의제 설정과 그 내용을 독점하면서 주도권을쥘 수 있었고, 인민은 반공주의 교육을 받아야 할 국민으로 위치가 지워졌다.

이런 맥락에서 이승만정권이 주도한 반공 공세의 수신자는 이북 정권이나 소련이 아니었다. 정부는 소련을 국제 적화노선에 따라 한반도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의 화신으로 묘사했고 북한을 소련의 괴뢰정권으로 비난했으나, 사실 반공 공세의 수신자는 남한 민중이었다.

이승만의 반공 공세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이었다. 여순사건 전후에 이승만 정권의 반공 공세는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공세적인 모양을 띠고 있었고, 강경한 수사가 동원되었지만, 그것은 공산주의 확산과 봉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공포’의 다른 표현이었다. 단독정권으로 수립된 신생 이승만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좌익으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내고 내적 평정을 이루는 일이었다. 이승만정권은 반공 공세와 국가보안법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면서 내적 평정을 추진해 갔다.

내적 평정 과정을 통해 이승만정권은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를 확보하려했지만 사회구성원의 생명권 같은 가장 중요한 안보는 제외되어 있었다. 사회구성원에 대한 안보를 국가안보에 종속시킨 결과, 사회 구성원의 생명권을 빼앗는 학살 행위는 나라를 구하는 애국 행위로 둔갑하였다. 또한 공산주의자를 비인간화시켜 내적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림으로써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했다.

제3절 한국전쟁과 여수

노 영 기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인민군이 38도선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침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 인민군의 남진으로 인해 국군은 낙동강 전선으로까지 후퇴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곧바로 결정된 미국의 참전과 유엔결의안에 따른 유엔군의 결성 및 투입, 그리고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한반도 전체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뒤이어 9월 중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은 일방적으로 밀렸던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다.

9월 28일 수도 서울 탈환에 이어 10월 1일 국군의 38도선 돌파와 북진이 진행되었다. 거듭된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은 북진을 계속해 마침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10월 하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참전으로 인해 유엔군이 패퇴를 거듭하였고, 결국 1951년 1월 4일 다시 수도 서울을 포기한 채 후퇴하였다. 1951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군의 대대적인 반격작전으로 3월 15일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3월 하순경부터 전선은 고착되었다.

이때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전쟁은 승리도 패배도 없는 전투가 계속되었으며,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쌓여만 갔다. 결국 1951년 7월 8일 예비회담으로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밀고 당기는 지리한 회담이 계속되었다.

한국전쟁의 결과, 전쟁당사자인 남북한 뿐 아니라 참전국들까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비단 전방의 전선에서 총을 들고 싸웠던 군인들 뿐 아니라 후방에서 힘겹게 전쟁을 겪어야 했던 민간인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전선이 거의 양극단으로 치닫는 '톱질전쟁'이 되었던 까닭에 남북한 정부에 의한 극단적인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군경에 의한 '예비검속'과 '국민보도연맹원' 들에 대한 학살이 저질러졌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 인민군들은 퇴각을 결정하며 많은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였다. 또 후방에서는 빨치산 진압을 빙자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죄도 없이 법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 같은 불행한 일은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여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1.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

1950년 6월 25일 04:00시에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혼란 그 자체였다. 대외적으로는 “점심은 해주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자”라며 ‘북진통일’을 호언장담했던 이승만 대통령부터 피난 짐을 꾸리기에 바빴고, 정부의 관공리를 중 누구도 정확하게 전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에서 대전으로, 다시 대전에서 부산으로 도망치기에 바쁠 뿐이었다. 직접 전투를 치러야 할 군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다. 전투다운 전투 한번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전선은 무너져 갔다.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락될 지경이었다.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 이하 정부 각료들은 피난가기에 바쁜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자신들만 도망치기에 바빴다는 것이었다.

국군이 총반격으로 38도선을 돌파했으며 통일이 멀지 않았으니 시민들은 정부를 믿고 동요하지 말라는 등 실제 전투상황과는 정반대의 정보에 근거한 거짓 선전을 일삼았다.

정부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북한 인민군을 맞이해야 했다. 그리하여 서울 시민들은 한강을 건넜던 ‘도강(渡江)파’ 와 서울에 남아 있던 ‘잔류(殘留)파’로 나뉘어져 훗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야만 했다. 또 정부의 거짓 선전을 믿고 임시국회라도 열어볼 요량으로 서울에 남아 있었던 일부 국회의원들도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 인민군이 후퇴할 때 북한의 이른 바 ‘모시기 공작’에 의해 ‘납북인사’가 되어야 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서울에 잔류했던 사람들은 모두 ‘부역자’로 몰려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 받아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가지 않은 채 ‘부역자’로 몰려 총살당하기도 했다.

전황이 나빠지자 피난가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비밀리에 내무부와 국방



부를 통해 군경에 명령을 내려 좌익인사들에 대한 '예비검속'과 '즉결처분'을 지시하였으며, 동시에 전국의 형무소에 있는 좌익 수감자들에 대한 처형을 명령하였다.



▲ 피난민 폭격 사건이 발생한 안도의 이아포해안

그 결과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국민보도연맹과 좌의 조직에 속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의 학살이 저질러졌다. 몇몇 형무소 등지에서도 수형자들에 대한 학살이 발생하였고, 그중 수백명이 처형된 대전 산내면 학살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같은 한국전쟁 초기 발생한 예비검속과 민간인 학살의 광풍은 여수를 비껴가지 않았다. 과거 여순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가입하거나 식량 배급권 등 생활의 문제로 가입했던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이 발생하였다.

한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여수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소집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리하여 지역별로 모인 국민보도연맹원들은 각 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사살당했다. 울촌면, 삼산면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지서와 신사터 등지에서 학살당하였다. 화양면과 화정면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은 경찰의 집결명령을 받은 뒤 배를 타고 여수로 오던 중 가막만 한복관의 가막섬 부근에서 수장됐다. 초도와 인근 도서에서 집결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장도의 흰여에서 총살된 후 수장(水葬)되었다. 남면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은 대유와 소유 등지에서 불잡혀 여수에 압송된 후 애기섬에서 수장되었다.

영암경찰이 퇴각하던 중 붙잡힌 7명은 안도와 연도 사이의 신개이도로 끌려가 수장되었다. 이들 중에는 해엄쳐서 극적으로 살아난 해녀 출신도 있었다고 한다. 울촌, 소라, 삼일, 쌍봉과 여수 내륙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여수경찰서 무덕관에 집결된 후 경남 남해 남단의 애기섬으로 끌려가 수장되었다. 희생자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120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필연적으로 전투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50년 8월 3일 여수

남면의 안도 이야포 해안에는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던 피난민을 실은 화물선이 정박하고 있었다.

당시 안도는 아직 인민군들이 들어오지 않아 인근의 경찰이 피신했던 비전 투지역이었다. 심지어 피난민들이 해안가에서 수영할 정도로 평화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미군 폭격기가 피난민들을 신고 왔던 선박에 기총소사를 해서 400여 명 중 140~150여명이 사망하였다. 또 기총소사 후 한 시간 가량 지난 뒤 마을 주민들이 폭격의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접근하자 다시 미군기가 나타나 사람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였다. 사건 발생 5~6일후 군복 차림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사망한 시신들을 배에 태워 불태웠고 불타지 않는 남은 시신들은 안도리 야산에 묻었다.

8월 7일 남면 황간도와 금오도 사이의 두룩여 바다에 인근의 돌산도, 횡간도, 화태도, 금오도, 개도, 제리도 등지의 섬에서 백여 척의 낚시배들이 조기 잡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기가 잘 잡히지 않자 정오 무렵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때 북서쪽 돌산도 부근에서 나타난 미군 비행기가 조기잡이배를 향해 기총소사를 하였다. 이 비행기는 인근의 여자만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향해서도 기총 소사를 하여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2. 피난민의 남하와 북한 인민군의 진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사람들이 전란을 피해 남으로 향하였다. 38도선 이북으로부터 내려오던 월남민 뿐 아니라 서울 등 외지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남쪽을 향해 피난길을 재촉하였다. 자연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여수에도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

전쟁이 발발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울 등지에서 내려오는 피난민이 하루 200~300명 정도나 되었다. 처음 이들이 여수로 몰려들었을 때 여수시 청에서는 피난민들을 백천여관(白川旅館), 신성여관(新成旅館), 돌산여관(突山旅館), 환금여관(丸金旅館) 등지에 분산수용하고 1인 1식으로 백미 5홉씩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난민들의 구호사업에는 당시 여수시청 사회계 직원들(金鶴有, 俞吉鉉, 張翰植, 孫時鉉, 林鶴憲, 부녀 촉탁 俞鳳娥 등)이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시일이 경과하고 피난민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한편으로 전남도청은 이미 철수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져들었다.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이미 철수해버린 상태였다. 여수시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여수시청 간부진은 김정식 시장에게 부산으로의 피난을 권유하였다.

7월 15일 경부터 하루 1,000여명의 피난민이 여수로 내려왔다. 이후 7월 17일 일반 피난민 대신 군인들이 여수로 내려왔다. 그나마 무일푼의 피난민들에 비해 군인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소지한 채 후퇴하고 있었다. 전세가 악화되자 7월 20일경부터 군인들의 행렬도 뜰해지다가 7월 22일경부터 아예 내려오지 않았다.

전황이 악화되자 여수시장 이하 간부진들은 시민들을 집합시켜 놓고 북한의 인민군이 여수에 접근해 와도 율촌(栗村)의 목에서 막아낼 수 있으니 동요하지 말라고 했다.

여수 시민들을 안심시킨 관공리들은 7월 22일 밤 여수항(신항과 구항 모두)에 크고 작은 선박을 징발하여 경남 욕지도와 부산 방면으로 피난 갔다.

피난에 앞서 김정식 시장은 그동안 피난민들을 수용해준 여관들에 쌀 80여 가마를 나눠주려 했으나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이 때 사전에 관공리의 피난 정보를 들은 여수의 유자들도 관공리와 함께 피신하였다. 그로 인해 대다수의 여수 시민들은 피난을 가지 못하였고, 7월 25일 북한 인민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여수에 무혈 입성하게 되었다.

북한 인민군이 진주하게 되자 여순사건 이후로 자리산 등으로 입산하거나 자취를 감췄던 좌익세력들이 다시 여수로 들어와 여수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로부터 북한 인민군이 퇴각하는 9월 26일까지 여수는 인민위원회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여수인민위원회는 각 동 별로 하부조직을 만드는가 하면 종고산, 택산, 구봉산, 벽오동 등에 참호를 파는 등 의 노역에 시민들을 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동도에서 참호를 파던 사람들이 유엔군 비행기의 기총소사로



▲ 서시장의 상가 (1958년)

수명이 사상을 당하였다.

인민위원회에서는 이른바 ‘현물세(現物稅)’를 실시하여 가을걷이가 끝난 농작물들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였다. 그런데 세금 부과대상은 벼이삭을 비롯해 콩, 팥, 깨, 녹두, 고추 등 거의 모든 농작물이었다. 그리고 부과방식은 모두 농작물의 생산량이 일일이 세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벼이삭의 개수를 세는 것 뿐 아니라 과수원의 과일나무 숫자까지 셀 정도였다. 한편 시민들은 시간이 흐르자 점차 생활에 복귀하여 서정(西町)시장터에는 가두음식점이 성황을 이루는 등 전쟁의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인민위원회는 육지와 해안의 교통을 금지시켰으나 인민위원회가 화학비료를 제공하고 민간인들은 곡물을 받는 물물교환제가 시행되었다. 이 때문에 주로 야간에 물물교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선박출입이 빈번해졌다.

한편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유엔군의 전투기는 신구항의 창고지대를 포격해 여순사건 이후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만들었던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으며, 또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폭격이 이루어져 여순사건 이후 복구되고 있었던 많은 시설물들도 파괴되었다. 다만, 유엔군의 폭격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서정시장터에는 미치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3. 인천상륙작전 이후의 여수와 국민방위군 사건

북한 인민군이 퇴각하자 군경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으며 여수에 입성해 행정기관을 복구하였으며 치안유지회(治安維持會)를 발족시켰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끊겼던 철도가 1950년 10월 16일부로 복구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38도선 이북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월남하였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분산 정착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부는 국방부, 내무부 등과 협의해 전국 각지에 피난장소를 정하였는데, 전남은 목포·여수·해남·진도·완도·강진·고흥·광주 등으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1월 중순경 여수에도 7,500여명의 월남민들이 내려왔다. 당시 여수시장 김정식은 이들에 대해 긴급대책으로 각동에 분산 수용케 하였다.

월남민들도 자체적으로 피난민 연락처를 설치하고 피난민구제사업과 생활

대책을 도모하였다. 피난민 연락처에서는 월남민들에게 피난민증을 발부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보사부에 직접 교섭 식량을 수송 보급케 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이들 가운데 어린 소년으로 구두닦이와 껌팔이 등으로 생활을 해오던 김기수는 1954년 권투계에 등장해 활약해오다 1966년 미들급 세계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함으로써 한국 최초로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또 당시 여수에 정착했던 월남민들은 체육 분야에 힘을 쏟아 축구단을 조직하는가 하면, 정구와 배구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있어 여수 체육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이후 유엔군은 38도선을 돌파해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점령하는 등 북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전쟁 개입에 뒤이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참가로 인해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창 북진해가던 유엔군은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악화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일시 서울로 돌아왔던 정부는 다시 수도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옮겨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60만 참전으로 인해 부족해진 병력을 보충하고 장래 전쟁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은 1950년 12월 15일,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살 이상 40살 이하의 장정은 제2국민병에 편입하고 제2국민병 중 학생이 아닌 자는 지원에 의해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킨다는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다음날 국회는 이견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12월 21일에 첫 부대로 1만여명이 서울의 창덕궁에 소집되었다.

이로부터 시작된 '국민방위군'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수십만의 장정을 동원하면서도 예산계획을 상정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결국 도착자 '부산 구포'라는 명령만 하달되고 양곡권만 주어진 채 엄동설한의 추위를 견뎌낼 동복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국민방위군들은 걸인처럼 마을을 다니며 식량을 구걸 다니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국민방위군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죽음의 행렬이 되어버렸다.

대부분이 농촌 출신인 탓에 국민방위군 대원들은 핫바지를 입고 괴나리봇짐을 들고 이동했기에 세상 사람들은 '봇따리 부대'라고 불렸다. 이들은 한겨울에 하루 종일 걷다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가며 잠을 청하였고, 부산으로

가는 도중에 죽거나 병든 몸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부산에는 그들을 받아들일 부서도 없었고 결국 풍찬노숙 하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이들에게는 쌀 한말과 농구화 한 켤레가 지급된 채 해산명령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국민방위군은 여수 지역에서도 징집되었다. 여수 출신 장정들은 동교와 서교, 중앙교 그리고 진남관 등지에 모여 국민방위군 교육대 장교들의 인솔 아래 부산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수 출신 국민방위군들은 하동을 가던 중 해산명령을 받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여론이 비등해지자 결국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이하 간부 5명은 사형되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주일대표부 대사로 발령나게 되었다.

한국전쟁기에 여수에서는 배가 풍랑을 만나 승객들이 전부 죽거나 행방불명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즉 1951년 1월 11일 오후 1시경 여천군 화정면 백야도 부근에서 목포-여수간 정기여객선인 남경호(37톤급, 천진기선)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정원 60~70명 정도의 여객선에 승객 250명과 화물을 태운 채 운항하던 중 풍파를 만나 침몰한 인재였다. 또 이 배에는 추곡 매상 대금을 수령하러 광주에 출장을 다녀오던 여수금융 조합 상무 등이 타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 전쟁포로 문제로 휴전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원용덕 현병사령관에게 명령하여 반공포로를 석방하였고, 석방된 반공포로들 중 일부는 보총대에 입대해 군인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각 지방에 분산 정착하였다. 여수 지역에서는 이들로 구성된 대한반공청년회 여수·여천지부가 1956년 10월 1일 창립되었다. 회원수는 100여명에 달하였고 계기청(전 여천냉동 대표)이 회장을 지냈다.

한편 한국전쟁으로 인한 여수의 피해는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인명피해 73명

건물소실 1,200동

건물파괴 300동

금액으로 확산한 건물피해 65억 5천만원

재산피해 98억 5천만원

농산물 피해 830만원



4. 한국전쟁기의 선거

1949년 7월 5일 공포되었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 선거가 1952년 4월 25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재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치러진 것으로 대표적인 관권 부정선거로 꼽힌다. 선거가 치러진 전국 각지에서 관권 그중에서도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들이 많았으며, 여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여수시장으로 출마한 사람은 자유당의 장기와 무소속의 김정식이었다.

그런데 당시 여수경찰서장 이정남의 지휘 아래 경찰관들이 시장선출을 위한 시의원들의 모임장소에 수류탄을 차고 와서 여당 후보인 장기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자유당 후보를 도왔다. 또 5월 10일 치러진 도의원 선거에도 개입해 화양면의 서병석의 등록을 방해하기 위해 구속까지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선거에서 도의원은 여수시에서 김봉채, 여천군에서 박재규와 서일선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는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하였는데, 여수에서는 자유당 소속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당선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정식(무), 정주양(자유당, 부시장 전출), 하동호(자유당), 박형규(무소속), 문균(자유당), 강대현(자유당), 강정수(자유당), 최대순(자유당), 정수경(자유당), 박두만(무소속), 김금동(자유당), 김두옥(무소속), 장기(자유당, 시장 전출), 이기조(무소속), 심인구(자유당), 주정태(무소속), 임영도(자유당), 남병일(자유당), 임선봉(자유당), 박학래(자유당), 윤규봉(무소속), 서금암(자유당)

1952년 8월 5일 처음으로 치러진 제2대 대통령 선거에는 총 8명이 출마하였다. 현직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이시영, 조봉암, 신흥우 등이 입후보하였다. 또 부통령 후보에는 전진한(대한노총), 정기원(자유당합동파), 함태영(무소속), 이갑성(자유당 합동파), 백성옥(자유당), 임영신(자유당 합동파) 등이 입후보하였다. 그런데, 이 선거에는 경찰과 관권이 심각하게 개입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여수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났다.

제2대 국회의원이었던 정재완은 야당 소속 정·부통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소라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가락국수를 한 그릇 사먹고 갔다. 그 뒤 야당 국회의원에게 가락국수를 팔았던 사람은 경찰에 끌려

가 치도곤을 당했다고 한다.

이렇든 경찰의 심각한 선거 개입 속에 치러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태영 후보가 정·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여수는 전남 전체에서 이시영 표가 가장 많이 나온 선거구였다. 유권자들이 비록 이승만을 선출했으나 야당에 대한 지지도 동시에 표출했던 것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끝이 난 한국전쟁은 민족사의 비극이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원수처럼 싸우고 죽이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수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여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으며 전쟁의 여파로 물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제4절 경제개발과 여수의 공업화

윤 상 원 (경원대학교 연구교수)

1. 여수국가산업단지 설립의 배경

1) 산업단지란?

여수시 중흥동, 평여동, 월하동, 적량동, 월래동, 낙포동 등 옛 여천군 삼일면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울산석유화학단지와 더불어 국내



▲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산업을 선도하는 중요 산업단지이다.

1967년 2월 호남정유 여수공장 건설공사로부터 시작되어 40여년을 지내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역사는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경제발전의 토대였을 뿐 아니라 수출주도의 경제발전을 추구한 대한민국 성장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역사는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를 넘어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분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사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업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광역적이며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고 구획을 확정하며,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전에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

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입주기업이 공업생산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는 형태의 집단공업용지'라는 의미를 지닌 산업단지(공업단지)는 산업혁명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근대적 도시개발 방식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그때까지 내려온 가내수공업체제에서 동력을 이용한 근대 공업체제로 전환한 공업생산체제를 의미했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단순히 공업생산체제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농업과 수공업 위주의 경제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변화하는 산업 일반의 재편과 그에 수반하여 사회전체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의 두드러진 예가 공업생산성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한 지역에 밀집시켜 개발하는 공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재편이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공업단지도 역시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1896년 영국에서 총면적 1,200에이커(약 147만평)에 이르는 '트래포드 파크 에스테이트(Trafford Park Estate)'라는 세계 최초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 단지의 개발은 당시 영국 최대공업지역의 하나였던 맨체스터 지역을 북해와 연결한 '맨체스터 운하'의 개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운하의 개통으로 '트래포드 파크 에스테이트'는 세계 최고 최대의 임해형 중공업단지로 1950년대 미국에서 대규모 공업단지가 개발될 때까지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국에 이어 산업혁명이 시작된 서유럽 각국과 미국도 공업단지 조성에 착수하게 된다. 미국은 1905년 개발된 시카고의 중앙공업단지(Central Manufacturing District)를 시작으로 공업단지 개발이 활발해졌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공업단지 개발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구미 선진국들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개발도상국들은 식민지경제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국가 공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1960년대부터 공업단지의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이 시기에 공업단지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2)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산업단지의 조성

1950년대 한국은 제대로 된 경제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유지되어 나가던 후진국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식민지시기 일제에 의해 이식된 왜곡된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였다.

즉 일제는 식민모국인 일본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한반도 남부에는 농업을 주로 하는 봉건적 경제관계를 존속시키고 한반도 북부에는 군수를 위한 중화학공업을 유치하는 분할적 성장정책을 취했다. 그런데 광복 이후 남과 북이 분단되고 이어 한국전쟁이 일어나 전 국토가 유린됨으로써 한반도 남쪽에는 자립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조금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0년대 남한의 경제를 받쳐주었던 것은 미국의 원조였다. 그러나 잉여농산물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미국의 원조로는 남한에 자립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다.

미국의 원조경제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적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제2공화국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공화국의 정치적 혼란과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그 실행은 좌절되었다.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1962년 1월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을 토대로 하여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경제계획의 초점을 '정부 자체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부문'에 중점을 두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활동을 기대하며 이것에 필요한 유도 정책'을 취하는 방향을 택한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과는 달리 군사정권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도' 아래 공업 위주의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경공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편 군사정권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공업단지를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64년 6월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을 제정하고 서울 구로동에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1단지를 조성하였다.

1964년 12월에 착공하여 1966년 2월에 완공된 총면적 14만평의 이 단지는 우리나라 공업단지 제1호였다. 이후 제2단지, 제3단지가 계속해서 조성되었으며, 인천의 부평과 주안에도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서울 구로동의 수출산업공업단지는 이후 우리나라 각 지방에 공업단지를 개발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정부의 지원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방도시에 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7~69년에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대구, 춘천 등 도청 소재지급 도시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1970년부터는 이리, 원주, 목포 등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공업단지 개발이 확대되었다. 1960년대 조성된 공업단지는 〈표 1〉과 같다.

〈표 1〉 1960~1970년대 초 조성된 공업단지

(단위 : 천m²)

도시명	산업단지명	규모	조성기간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동)	1,980	1965~1973
서울	영등포기계공업단지(구로동)	155	1970~1971
인천	인천기계공업단지	350	1969~1971
	인천지방공업단지	1,136	1970~1973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효성동, 가좌동)	1,746	1965~1974
	인천목재공업단지	1,585	1969~1972
성남	성남공업단지 1, 2단지	1,665	1968~1974
부산	사상공업단지	9,379	1968~1975
대구	대구 제3공업단지	1,360	1967~1968
광주	광주공업단지(광천)	1,440	1966~1969
대전	대전공업단지(1단지)	479	1969~1973
청주	청주공업단지(1단지)	740	1969~1973
춘천	춘천공업단지	476	1969~1973
목포	목포공업단지	460	1970~1972
원주	원주공업단지	355	1970~1973
이리	이리공업단지	1,426	1973~1974
구미	구미공업단지 (일반, 전자단지)	10,420	1969~1973
울산	울산석유화학단지	3,422	1968~1972
포항	포항종합제철단지	4,271	1968~1973

출전 : 유영희, 『한국의 공업단지』, 국토개발연구원, 1998

3) 1970년대 임해공업단지 개발

1965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내륙공업단지는 1970년대 초반에는 서울을 비롯한 도청소재지와 지방도시까지 12개 내륙도시에 조성되었다. 이로써 도시 중소기업들은 입지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어 정부는 1973년 12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임해공업단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즉, 경상북도 포항을 시작으로 울산, 온산, 옥포, 죽도, 창원, 여천에 이르는 동남해안 일대와 동해안의 북평, 서해안의 아산만 일원이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임해중화학공업단지 개발이 일제히 추진되었다.

〈표 2〉 1974~1984년간의 임해지역 공업단지 지정현황

(단위 :㎢)

산업단지명(최초 명칭)	지정년도	총면적	공업지역 면적
포항 종합철강공업기지	1975. 6	30.64	18.51
울산 미포공업기지	1975. 6	45.95	37.88
온산 석유정제 및 비철금속공업기지	1974. 4	25.49	15.54
옥포 조선공업기지	1974. 4	3.99	3.21
죽도 조선공업기지	1974. 4	3.05	1.85
안정 조선공업기지	1974. 4	5.18	3.48
창원 종합기계공업기지	1974. 4	43.35	17.45
여천 종합화학공업기지	1974. 4	18.92	15.14
북평 시멘트산업기지	1975. 12	16.53	10.58
아산 철강산업기지	1979. 12	991.74	165.29
광양 철강산업기지	1982. 4	95.34	12.45
진해 조선산업기지	1982. 12	1.16	0.68
반월특수단지	1977. 4	57.85	8.17
군산지방공단	1978. 6	5.13	4.79
계		1,344.32	315.02

출전 : 유영희, 『한국의 공업단지』, 국토개발연구원, 1998

그런데 이러한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이를 수행할 자본과 기술이 태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중화학공업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온 역량을 중화학공업 육성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1973년 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에 실무작업을 맡을 상설기구로 '중화학공업기획단'을 설치하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기획단 단장을 맡도록 하였다.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의 경제수석비서관이 단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중화학공업 육성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채택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기획단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추진의 실질적 역할을 맡았다.

'중화학공업기획단'은 1973년 6월 중화학공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에는 중화학공업의 개발·육성 방향, 전략기지화 계획, 인력개발과 기술혁신, 소요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주도 업종별로 전문공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었다. 기획단은 주도 업종을 철강, 정유 및 석유화학, 비철금속, 조선, 종합기계 등 5개 부문으로 결정하고 각 부문별로 전문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공업을 특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철강공업은 포항, 정유 및 석유화학공업은 울산과 여천, 비철금속공업은 온산, 조선공업은 울산 미포와 거제도 옥포, 종합기계공업은 창원이 전문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 곧 지정된 각 지역을 새로운 산업도시로 개발하는 작업이 착수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임해공업단지 개발은 첫째 특별기구 설치 등 국가가 주도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한 점, 둘째 그 규모가 내륙공업단지와는 비교가 안되는 대규모라는 점, 셋째 철강, 정유 및 석유화학, 비철금속, 조선, 종합기계 등 특정업종 중심의 전문공업단지라는 점, 넷째 신산업도시 개념을 적용한 점 등에 그 특징이 있다.

2.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의 조성과 발전

1) 호남정유 여수공장과 석유화학공업단지 지정



▲ 호남정유주식회사 원공단 전경

1974년 4월 여천이 정유 및 석유화학 전문공업단지로 지정되었을 때, 여천에는 이미 호남정유공장이 설립되어 있었다.

1963년 제1차 경제계획 5개년계획에

서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여천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 4월 경제기획원 장관은 울산에 이어 여천

군 삼일면에 제2정유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곧 정부는 제2정유공장 건설의 실수요자를 공모하였는데 락희화학공업사와 미국 칼텍스사의 합작으로 설립된 호남정유주식회사가 선정되었다.

호남정유는 1967년 2월 기공식을 거행하고 여수공장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1969년 3월 전용부두의 설치, 1일 2만 5천톤의 공업용수 확보, 산업도로 건설 등을 마치고 6월에는 1일 6만 배럴의 정제시설 능력을 갖춘 호남정유주식회사 여수공장을 준공하였다. 여수공장은 1970년 10월에는 1일 10만 배럴, 1972년에는 1일 16만 배럴(2010년 현재 65만 배럴)의 정제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확장되었다. '중화학공업기획단'이 정유 및 석유화학 전문공업단지로 여천을 지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기획단이 중화학공업단지 선정에서 전제로 삼은 입지조건은 모두 4가지였다. 첫째, 확보 가능한 용지규모가 1,200만평 이상일 것, 둘째, 20만톤 이상 유조선과 2만톤급 화물선의 접안이 가능한 항만의 개발이 가능할 것, 셋째, 200만m³/일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넷째, 176만KW 이상의 전력 확보가 가능한 지역일 것 등이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획단은 실사단을 여천지역에 파견했다.

실사단의 답사 결과 여천지역은 종합화학기지로서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우수한 지역으로 인정되었다. 실사단이 지적한 종합화학기지로서 여천지역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 항만조건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내륙 깊숙이 만이 형성되어 있어 방파제가 필요없으며 20만톤급의 대형 유조선이 만 입구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둘째, 광활한 면적으로 약 2,000만평의 공업용지를 비교적 용이하게 조성 할 수 있다.

셋째, 광양만 지역의 면적은 금후 10~20년 후까지도 화학공장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지역이어서 미래에 이용 가능한 용지가 충분하다.

넷째, 이 지역은 항만조건과 용지면에서 초대형 철강기지로서는 부적합하다. 기지에 제철소를 건설하기에는 수로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 이용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이 지역은 대규모 종합화학공업기지로 하는 것 이 적합하다.

다섯째, 이 지역은 용지, 나프타 공급원, 전력 등의 확보가 용이하고 수출 전용부두계획이 가능하며 비용면에서 우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중화학공업기획단'은 1974년 여천지역을 정유 및 석유화학 전문공업단지로 지정하였다.

2)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

1974년 4월 1일 건설부는 전남 여천군 삼일면과 쌍봉면 일대를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92호)하게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천공업기지 지정 내용〉

- 위치 및 범위 : 전남 여천군 삼일면 월하리, 화치리, 평여리, 중흥리, 척량리, 월내리, 낙포리, 대곡리, 쌍봉면 죽림리, 관기리, 안산리, 선원리, 학용리, 시전리, 봉계리, 여수시 신월동 일부 지역
- 구역면적 : 5,722천평(육지 5,590천평, 해면 132천평)
- 개발기본방향 : 1) 제7비료공장, 메탄올 및 석유화학 계열단지 등의 화학공업용지를 호남정유, 호남화력 등 기존 공장지대와 연결하여 표고 50m 이하 해안지대에 조성. 2) 삼일면과 쌍봉면 경계의 고지대를 차단 녹지대(개발제한구역과 농경지)로 하여 그 이남지구의 평탄부(쌍봉면)에 주거지역 조성
- 공업용지 조성계획 : 계 4,580천평(기존 666천평, 조성계획 1,904천평, 유보 2,010천평)
- 조성방법 : 종합적인 공장배치계획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가 단계별로 조성
- 항만시설 : 계획해상화물량 1,786만톤/년을 처리하기 위해 방어도 전면에 접안시설 축조(6만톤급 3선좌, 2만톤급 2선좌)
- 철도계획 : 기존 철도의 이설 및 연장과 석유화학제품의 내륙수송체계 정비
- 공업용수 : 15만톤/일 공급시설 건설
- 주거지역 조성 : 조성면적 1,142천평, 계획인구 5만명

위 지정내용을 따라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의 조성이 본격화되었다. 가장 먼저 개발된 단지는 제7비료단지였다. 광양만 입구에 해당하는 삼일면 낙포리에 위치한 제7비료단지는 1973년 11월에 착공하여 1975년 8월에 준공하였다. 제7비료단지의 완공으로 우리나라에는 연간 260만톤의 비료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여천공업단지의 핵심이 되는 석유화학단지는 삼일면 중홍리, 평여리, 화치리 일원의 농경지, 구릉지와 해면을 매립하여 조성되었는데 1974년 7월에 착공하여 1979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이곳에는 호남에틸렌을 비롯하여 호남석유, 한양화학, 한국다우케미칼 등 대규모 석유화학공장들이 건설되어 가동되었다. 석유화학 연관단지는 석유화학단지와 인접한 화치리, 쌍봉리, 주삼리 일원에 14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역시 1979년 12월에 완공되었다. 석유화학 연관단지는 석유화학공업의 유기적인 개발 육성을 위해 나프타분해센터에서 생산 공급되는 기초 유분의 종합적 이용은 물론 계열제품 상호간의 생산체계 일원화를 통해 계열공장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었다.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에 따라 공업용수의 대량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용수공급은 섬진강을 수원으로 공급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공사는 1974년 5월에 착공하여 1977년 1월에는 섬진강물을 제7비료단지까지 공급하게 되었다. 나아가 1978년 5월에는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에 2,800톤의 저수능력을 가진 수어댐을 쌓아 광양군 다암면 도사리 취수장에서 섬진강 물을 취수하여 산넘어 수어댐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다시 여천공단까지 60km 구간에 1,650mm의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공업단지로 보내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항만시설의 확충도 필수적인 사업이었다. 여천 산업단지의 부두는 단지 동쪽 끝의 낙포리와 중앙의 중홍리 두 곳에 개발되었는데 낙포리의 부두를 삼일항, 중홍리의 부두를 중홍석유화학부두라고 부른다.

삼일항은 제7비료공장과 석유화학 계열공장의 해상화물 수송을 위해 1974년 5월에 착공하여 1976년 11월에 완공되었다. 총사업비 45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5만톤급 1선좌, 2만톤급 3선좌, 3,000톤급 1선좌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갖춘 삼일항은 연간 342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었다.

중홍부두는 3,000톤급 3선좌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부두로 1977년 12월에 착공하여 1979년 5월에 완공하였는데, 연간 74만 6,000톤의 화물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만



▲ 낙포부두

평 규모의 쌍봉주거단지와 10만평 규모의 화치주거단지도 조성되었다.

이렇게 하여 1979년 10월 여수석유화학공업단지가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3)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의 발전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의 조성은 위에서 언급한 석유화학단지, 제7비료단지, 석유화학 연관단지의 조성에 그치지 않았다.

제7비료단지 항만 건설시 축조한 호안 후면의 준설토 투기장을 매립하고 주변의 육지를 개발하여 낙포리 일원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13만 평 규모의 삼일항 배후단지가 1974년 4월에 착공하여 1986년 5월에 준공되었다. 삼일항 배후단지에는 호남정유를 비롯한 9개 업체가 입주하였다.

석유화학단지에 인접한 화치단지는 석유화학 연관공장 건설을 위해 1977년 12월에 착공하여 1981년에 완공하였다. 월하단지는 화치리와 쌍봉면 주삼리에 조성된 총면적 4만평의 소규모 단지로 석유화학단지에 필요한 서비스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1979년 10월에 착공되어 1988년 11월에 준공되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와서도 여러 개의 단지가 추가로 조성되었다. 평여단지, 월하2단지, 용성단지, 중방단지, 두암단지 등이 그것으로 1987~1990년간에 착공되어 1990년대 중반에 완공되었다. 1992년에는 245만평에 달하는 확장단지가 2004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착공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조성된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의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현황

(단위 : 천㎡, 백만원)

단지명	조성면적	투입사업비	사업시행기간
제7비료단지	1,097	1,975	1973.11~1975. 8
석유화학단지	4,203	12,917	1974. 7~1983. 5
석유화학연관단지	445	941	1974. 7~1979.12
삼일항 배후단지	434	2,871	1974. 4~1986. 5
화치단지	324	1,880	1977.12~1981.10
산업도로 및 관로부지	217	1,997	1978.10~1983. 2
월하단지	133	2,178	1979.10~1988.11
쌍봉주거단지	792	1,421	1974.12~1981.11

석유화학추가단지	33	581	1987. 7~1988.11
평여단지	548	18,748	1987.12~1993.12
월하2단지	459	23,484	1988. 2~1993.12
용성단지	1,537	106,201	1988.12~1994.12
중방단지	347	60,422	1989.11~1993.12
두암단지	454	29,218	1990. 4~1993.12
확장단지	8,083	556,941	1992. 3~2004.12
계	19,326	821,775	

출전 :『한국수자원공사 25년사』, 한국수자원공사, 1994

3.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의 변화

1) 환경문제의 대두 –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화장일로를 걸어오던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는 1990년대 중반 큰 위기에 빠졌다. 199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수질과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인근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서 조차 오염이 확인되면서 공업단지 주변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물론 중화학공업단지라는 특성상 환경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한 논란의 대상으로 각종 환경분쟁이 있어왔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주로 농림수산물 피해가 중심이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생활환경의 악화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호소가 자주 발생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주민 집단이주 대책이 김영삼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으로 등장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환경영향 평가 결과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에게도 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산업단지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다. 환경영향 평가 발표 이후 지역주민들은 마을 및 동 단위의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격렬한 집단시위를 벌였다. 여수환경운동본부에서는 여천공단 환경특별대책지역 지정과 이주촉구 10만인 서명대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환경감시단을 발족시켰다.

결국 1996년 환경부는 여천공단을 환경영책기본법상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이주대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곧 국립환경연구원은 '대기, 수질, 생태계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단지와 큰 차이가 없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애초 정부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주민이주대책을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예산을 국가가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다른 산업단지에 유사한 선례를 남겨 국가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정부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장관은 주민이주대책이 불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환경부의 발표는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위와 궐기대회를 벌여 나갔다. 이제 이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변해가고 있었다.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일반국민들의 높아져가는 환경의식에 직면한 정부는 KIST가 이주를 제안한 대상마을 중 이주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마을에 대해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하기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었다.

여천산단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가운데 1998~99년 사이에 공단에서 크고 작은 환경사고가 거듭 발생했다. 제일모직 SM폐수 유출사고, LG화학 공장세척수 유출사고, 남해화학 석고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한화석유화학 가성소다 유출사고 등 우려할만한 사고가 계속 되면서 정부는 1999년 마침내 주민이주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하였다.

2) 지역주민의 이주

주민이주가 국가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여수시와 주민들은,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원인 제공자인 기업들을 상대로 산업단지 주변마을의 이주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당초 KIST가 제안한 이주규모는 10개동 4,071가구, 15,268명으로 총 6,865억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대상을 여수시 월하, 평여, 중흥, 적량, 두암, 삼동 6개 마을 1,791가구 5,900명으로 축소하고 총 3,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주는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이주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당초 이주에 소요되는 총 예산 중 절반가량인 1,76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여수시가 1,294억원 그리고 업체가 36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업체 분담금 360억 원 중 70%를 매출액 30%를 부지면적 기준에 맞춰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분담금을 둘러싸고 난항이 거듭됐다. 일부회사가 분담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이주대상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다. 여기에 2003년 5월 감사원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입주업체 분담금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이주사업은 다시 한 번 벽에 부딪쳤다.

이주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발생한 대형사고였다. 2003년 10월 호남석유화학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자 정부는 결국 입주업체 분담금을 120억원으로 축소조정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들의 이주는 2007년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4.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현재와 미래

1)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현황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는 1998년 삼려통합에 따라 2001년 4월 여수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6년 여수상공회의소가 파악한 여수산업단지의 일반현황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에는 2006년 현재 총 22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그 중 가동중인 업체는 171개사, 건설중인 업체는 19개사, 준비중인 업체는 32개사이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97개, 기계 24개, 비금속 10개, 전기전자 1개, 비제조업 14개 업체가 각각 입주해 있다. 여기에는 1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으며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업종의 생산능력을 보면 비료는 연간 202만톤을 생산하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량의 44%를 점유한다. 정유는 1일 65만 배럴을 정제하여 국내경제 능력의 25%를, 석유화학은 에틸렌을 기준으로 연간 289만톤을 생산하여 국내 총생산량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비용은 연

간 5조원 규모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비용인 50조원의 10% 수준이어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4〉 여수산단 주요 입주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명
석유화학	LG칼텍스 정유, 호유에너지, 대림산업, LG화학, 남해화학, 한화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제일모직 한국화인케미칼, 금호쉘화학, 금호 몬산토, 한국다우케미칼, 호성석유화학, LG석유화학 등
기타	여수화력, 호남화력, 금강, 벽산, 남해산업 등

출전 : 정희성 · 이창훈 · 김명미, 「환경갈등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5

1990년대 중반까지 섬진강에서 끌어오던 공업용수는 현재는 순천시 주암댐에서 공급받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연간 용수사용량은 1억톤 정도에 달하고, 폐수 방류량도 연간 2,500만톤의 막대한 양이다. 이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루 10.5만톤(연간 3,800만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폐수종말처리장 2곳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전력은 여수화력과 호남화력 두 군데에서 1,060,000KW를 공급받고 있다. 항만시설은 국유부두 6개소와 사유부두 6개소, 합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6개 선좌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수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라는 특성상 연간 6조원에 가까운 세수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연간 400억원 안팎의 지방세를 산업단지로부터 거둬들여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또한 공구, 비품, 식료품 등 공장물품에 대한 구입 비중이 늘면서, 다소 기복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연간 9천억 원에 가까운 물품 구입이 여수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산업단지 내 주요 입주업체들의 평균 가동율은 90%를 웃돌고 있으며, 수출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업체들의 공장 신설과 증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의 하청업체 수도 1980년대에 100여개 안팎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

에 들어서는 500개가 넘어서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역경제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면서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들의 사회환원사업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사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기업들은 학교운영비라든가 문화행사,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환원사업과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총 43억원에 불과하던 복지증진기금이 2003년도에는 220억원, 2006년도에는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그 액수가 점점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지원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와 지역주민이 단지 경제적 관계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계도 맺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

2)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과제와 미래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시기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석유화학공업단지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잇점과 함께 피해도 주고 있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석유화학공업과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의 밀집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낳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환경오염 피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2003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화학물질배출량의 81.1%인 29,700톤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여수산단은 그중 12%인 3,656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울산 미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여수산단의 폐수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광양만의 해양수질은 3등급으로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에 사용될 수 없으며 관광 및 휴양지로서도 부적합하다.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행한 2002년 전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수지역의 암사망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12%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전국적으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지역 중 하나로 환경오염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삼일면 주민들의 이주를 초래한 환경오염 피해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서 환경·안전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각종 지표를 보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최초 입주 이후 2004년까지 총 214건의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하여 3,2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7건, 1980년대 33건이던 환경·안전사고가 1990년대 들어 122건으로 급증하더니, 2002~2004년에는 5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의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대형사고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환경·안전사고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현황

구 분	건수	인 명 피 해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대피 및 오염	계	동산	부동산
합계	214	3,209	101	171	2,937	11,232	4,011	7,221
70년대	7	9	9	-	-	14	14	
80년대	33	559	31	2	526	95	77	18
90년대	122	310	32	117	161	9,075	3,444	5,631
2002~2004	52	2,331	26	52	2,250	2,048	475	1,572

출전 :『여수산단 사고사례집』, 여수시, 2005

이는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업체들의 관로나 시설 등이 노후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환경·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의 교체와 더불어 기업의 안전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은 이윤을 감소시키는 안전시설 투자에는 인색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사고때마다 지적되는 '형식적 안전진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땜질식 보수 및 복구'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제2, 제3의 사고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안전사고의 발생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업단지의 사고와 환경오염, 재해 발생으로 인



한 인명 손실은 산업단지가 환경공해와 질병만을 유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화약고라는 오명을 씌워준다. 이러한 오명은 산업단지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아가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1995년 LG정유 씨프린스호 원유 유출사고에서 보듯이 산업단지의 대형 환경사고는 산업단지를 넘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업체들 뿐 아니라 정부와 여수시, 그리고 여수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업주는 환경안전 관련 시설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여수시는 대형 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민 이주대책, 주민 대피훈련 등 국가와 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기업의 환경안전시스템을 항상적으로 감시하고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 운용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제5절 삼려통합

김 병 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1. 삼려(三麗)의 역사적 배경

삼려 지역은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그 역사 속에서 온갖 애환을 함께 해 왔다.

삼려 지역은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 속에서 일찍이 6,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흔적을 37여 곳에 남기고 있으며, 유물에서 일본과 중국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국제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삼려 지역은 청동기시대를 통하여 다른 지역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것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 고인돌과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삼려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의 군집 수와 개수를 살펴보면, 돌산읍 22군(群) 181기, 소라면은 11군 98기, 울촌면은 16군 264기, 화양면은 25군 233기, 구 여수지역에 남아 있는 고인돌은 17군 90기, 구 여천지역은 33군 230기, 도서지역의 고인돌 현황은 6군 37기 등 총 130군 1,133기의 고인돌이 조사 보고되었다. 특히 울촌면 산수리 왕바위재에 있는 고인돌은 길이가 865cm, 너비가 580cm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출토유물 가운데 금은옥이나 구슬, 은장신구 등과 비파형 동검(요녕식 동검)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어 유달리 많은 수의 고인돌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을 축조할 수 있었던 경제적,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

4세기 후반 백제가 진출함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에 위치한 여러 소국도 백제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 백제는 538년 수도를 사비성으로 옮기고 전국을 중앙과 동서남북으로 구분하여 5방을 두었다. 방에는 방성(方城)을 설치하고 여러 크고 작은 성을 군 혹은 현으로 통제하여 지배하였다.

남방에 속하였던 순천·여수·광양지방에는 삽평군(畝平郡)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삽평군에는 원촌(猿村), 마로(馬老), 돌산(突山) 등 3현을 속현으로 두고 있었다. 원촌현은 여수반도 일원이며, 돌산현은 돌산도를 비롯한 인근의

섬을 그 영역으로 하였다. 이때부터 여수지방에 처음으로 원촌과 돌산이라는 이름의 군현이 설치된다.

백제가 멸망한 후 통일신라시대의 전남지방은 무주가 관할하였다. 주, 군, 현의 명칭은 종래대로 사용하다가 757년에 중국식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순천 여수 지방의 삽평군(畝平郡)이 승평군(昇平郡)으로 바뀌고 그 속현이었던 원촌현(猿村縣), 마로현(馬老縣), 돌산현(突山縣)은 각각 해읍현(海邑縣), 희양현(希陽縣), 여산현(廬山縣)으로 변경되었다.

고려시대의 여수는 해읍현이 여수현(麗水縣)으로 개칭되고 돌산과 그 인근 섬을 관할하던 여산현이 백제시기의 돌산현이란 이름을 되찾았다. 이때부터 여수라는 이름이 사용된다.

조선이 개국되면서 여수현이 폐지되었는데, 현령 오흔인(吳欣仁)이 태조 이성계의 건국 반포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후 여수지역에는 현이 설치되지 못하고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해상방어를 위한 수군진(水軍鎮)이 설치된다.

이때 설치된 수군진이 진례만호진과 돌산만호진으로, 진례만호진(進禮萬戶鎮)은 여천시 삼일동 신덕포로 추정하고 돌산만호진은 여천군 화양면 용주리이다.

진례만호진은 세종 때 전라 감사의 건의로 내례포로 옮겼으며 돌산만호는 돌산읍 군내리에 방답첨사진이 설진된 중종 18년에 혁파되고 광해군 때 고돌산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성종 9년 3월 내례포에 왜구가 침입하여 군기 및 화약을 약탈하여간 사건을 계기로 1479년(성종10) 전라도 순찰사 이극배(李克培)의 계청(啓請)으로 내례포에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전라좌수영)을 신설하였다.

그 후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1887년(고종24) 거문진이 설치되어, 1895년(고종32) 전라좌수영, 방답첨사진과 함께 거문진이 폐영될 때까지 500년간 남해를 지키는 수군기지로서의 구실을 다하였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일본과 청나라의 세력을 끌어 들여 청일 전쟁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일본에 의해 청의 세력을 제도의 개혁을 통해 몰아내기 위해 조선의 근대화란 명목하에 갑오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1895년 5월 26일 조정은 칙령(勅令 第 98號)을 반포하여 조선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로 개편하여 종래의 부, 목, 군, 현 등을 일괄해서 군으로 통칭하였다.

이때 이곳은 남원부 순천군 여수면(南原府 順天郡 呂水面 : 쌍봉, 돌산, 화정, 남면 포함), 삼일포면, 소라포면(화양면 포함), 율촌면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어서 동년 9월 5일, 여수현 돌산현은 1등군인 순천군에 통합되게 되었다(勅令 第164號). 한편 1895년 7월 15일에 시행한 제2차 제도개혁에 따라 각 군영의 폐합을 구실로 육군을 감축시키고 수군(水軍)을 완전히 폐지함에 따라서 이 고장의 전라좌수영과 방답진, 고돌산진이 함께 폐영되었으나 이 고장은 옛 그대로 순천부의 관할 구역에 속했는데 그 다음 해인 1896년(고종 33) 2월 3일(건양원년) 칙령 13호 「전주, 나주 남원부 연해제도에 군을 설치하는 건」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돌산도(突山島) 완도(莞島) 지도(智島) 등 도서지방에 군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흥양·낙안·순천·광양 등에 속한 각 섬(52島)을 모아 3,530호(인구 16,785)로써 새로이 돌산군을 설치하니 이는 순천군과 같이 남원부(南原府)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돌산군의 치소(治所)는 방답진의 본부 자리로 지금의 돌산읍 군내리이다. 도서지역의 설군(設郡) 배경은 도서 주민의 고통과 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착취당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도군총쇄록(智島郡叢銷錄)에 밝혀져 있다. 돌산군의 설군 다음 해인 1897년(고종 34) 5월 16일에 여수군이 설군되었는데, 이는 여수현이 폐현된지 501년만의 일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국권 강탈을 당한 동시에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 및 「面에 관한 규정」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진 후 3개년 여동안은 제도적인 큰 변화가 없었다. 이 고장은 한말 그대로 전라남도 여수군 7개면과 돌산군 8개면으로 계속 내려왔다.

그러다가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하여 면과 리동의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되었는데 대체로 오늘날의 각 계층별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가 이때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

한말에 소위 기간(基幹) 행정구역이었던 부군의 경우, 그 규모가 다양하여 면적상의 차이가 최대 503평방리로부터 최소 3평방리까지에 이르렀고, 호구 또한 제일 많은 곳은 28,000호인데 비하여 제일 적은 곳은 1,800호에 불과한 상태이었다. 뿐만 아니라 면에서도 그 면적·인구·재력 등에서 격차가 극심하였고, 규모가 너무 작아 기관이 설치된 단위 행정구역으로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했던 곳도 있었다.

그리하여 일제가 그들의 효율적인 식민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었는데, 그 기준을 부에 대해서는 부제(府制)의 시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이를 줄이고, 군과 면에 대해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이를 합병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리하여 정리된 행정구역은 도와 부·군은 그해 3월 1일부터, 그리고 면과 리동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전국 지방행정구역 수는 13도, 12부, 220군, 2,518면, 28,181리로 되었는데, 이를 합병 당시와 비교하여 보면 군은 317군 중에서 97개군, 면은 4,322면 중에서 1,804면이 줄어든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돌산군(突山郡)을 비롯하여 동복·능주·남평·창평·지도·정의·대정 등의 각군이 폐군되어 전라남도는 1부, 22군, 273면, 2,996리동으로 조정되었다.

돌산군이 폐지됨에 따라 관할 8개면 중 두남(斗南)·삼산(三山)·금오(金鰲)·화개(華蓋)·옥정(玉井) 등 5개면이 여수군으로 합병되었고, 봉래(蓬來)·금산(錦山) 등 2개면은 고흥군으로, 태인면(太仁面: 金湖島·太仁島·松獐島)은 광양군으로 각각 편입되었다.

여수군으로 합병된 5개면 중 화개면(개도·상화도·하화도·자봉도·제리도·월도)과 옥정면(백야도·적금도·여자도·낭도·조발도·둔병도)을 합하여 화정면으로 하고, 두남면을 돌산면으로, 금오면을 남면으로 개칭하였다. 여수군에서는 구산면의 17리가 율촌면에 합병되었고, 돌산군에서 편입된 4개면과 합하여 여수·율촌·소라·삼일·쌍봉·화양·돌산·남·화정·삼산 등 10개면(97리)이 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일제의 대륙(滿洲) 침략이 본격화되자 한반도를 군수(軍需) 병참기지화하고 일본 본토와 대륙간의 물량 수송의 필요에 의해서 1923년 부산의 보조항으로 여수항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일본 본토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부산-시모노세키(下關) 간의 주항로의 보조항으로 여수-시모노세키 간의 신항로가 개설되고, 여수-광주 간의 철도가 1930년 12월 25일 개통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여수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기관의 개설로 여수항은 식민(植民)·산업·군사상 더 한층 높이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1930년 12월 1일 총독부 제정 제12호로 읍면제(邑面制)·면제(面制) 중 개정을 공포하였고, 다음 해인 1931년 4월 1일에 시행함에 따라 전국 41개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었다.

이때 읍으로 승격된 곳은 전국 14개 부(府) 이외에서 주로 일본인이 많고,

재력이 풍부하며, 1,500호 이상의 호구를 가진 비교적 도시적인 곳으로써 주로 상공업지이면서 공공적 시설을 많이 요하는 곳이었으므로 여수도 이에 해당했던 것이다. 이때 전라남도에는 1(府, 목포), 21군, 1도(島, 제주)이었는데, 읍으로 승격된 곳은 광주·여수·제주 등 3개 읍에 불과하였다.

정부수립 다음해인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의하여 여수는 수원·순천·포항·김천 등과 함께 부(府)로 승격되었다. 여수군 여수읍이 여수부(麗水府)로 승격됨에 따라 여수군의 명칭을 여천군(麗川郡)으로 개칭하고 나머지 쌍봉·삼일·화양·소라·율촌·돌산·화정·남·삼산등 9개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여수읍이 여수부(麗水府)로 승격된 2일 후인 1949년 8월 15일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부를 시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개칭하는 등 변혁이 있었는데, 이때 여수부가 여수시(麗水市)로 개칭되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의 전국 지방행정구역은 1특별시·9도·19시·134군·1,448면으로 되어 있었다.

행정구역은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과 치소(治所)와의 생활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 왔으나, 교통·통신의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조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오고 있었다.

돌산면 경호리의 경우 여수와의 거리는 수로로 불과 10여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나 돌산면사무소와는 60분이상이 소요되므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정구역 관할로 주민 불편 상황을 덜어주기 위해 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 관할 경계 조정을 공포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돌산면에 속했던 경호리(대경도, 소경도, 장도, 가장도, 치도) 389가구 2,456명이 여수시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때 광양군 골약면에 속해있던 송장리(송도, 장도) 144가구 864명은 여천군 율촌면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1963년 10월 15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제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어 제3공화국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부에서는 읍·면사무소를 효과적으로 분장함으로써 원거리 주민의 행정편익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와 거리가 면 곳에 읍·면출장소를 설치한다는 여천군 조례 제64호가 1964년 7월 28일 공포되었다.

우두출장소 관할 구역은 1개 법정리, 6개 행정리(상동, 하동, 백초, 진목, 세구지, 진두)로 되었으며 관할구역 내 가구 수는 980호, 인구는 4,725명이



었다. 출장소 관장 사무는 호적, 주민등록 관리, 각종 제증명 관리 등이며 초대 출장소장으로 지방행정주사보가 임명되었으며, 당시 직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정규직 3명과 일용직 1명이 발령되었다.

우두출장소 청사는 당초 돌산-여수 사이 나룻배 도선장을 2층으로 건립하여 아래층은 도선장사무소, 2층은 우두출장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9년 12월 18일 우두리 695-1번지로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3월 1일 여천군 조례 제1170호로 돌산읍 죽포출장소 설치 조례가 공포되었다. 죽포출장소 관할구역은 5개 법정리(죽포리, 서덕리, 울림리, 둔전리, 평사리) 19개 행정리로 되었으며 설치 당시 관할구역내의 가구 수는 1,663가구에 인구는 7,858명이었다.

출장소의 관장업무는 호적, 주민등록 관리, 각종 제증명 관리였으며, 초대 출장소장으로 지방행정주사가 임명되었다. 출장소 직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정규직 6명으로서 여천군 10개 읍·면출장소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출장소였다.

출장소 청사는 당초 죽포리 구 리사무소를 개수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89년 5월 8일 죽포리 758-11번지로 신축이전 하였다. 그 후 1997년 6월 27일 군조례 제1564호로 평사리가 우두출장소로 관할 조정되어 죽포출장소는 4개 법정리 18개 행정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에 인구 20,000명 이상이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당시 여천군 관내 돌산면은 3,998호에 인구가 23,405명이고, 삼일면은 4,022호에 인구가 22,292명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1980년 10월 21일 대통령령 제10050호로 전국적으로 20,000명이 넘는 면을 읍으로 승격시켜 공고하고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이로써 1914년부터 불려오던 돌산면의 행정명칭은 66년만에 면에서 읍이 되고, 여천군은 2읍(삼일읍, 돌산읍), 7면(쌍봉면,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여천공단 건설과 배후도시 조성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경남 창원과 함께 여천에도 출장소를 개설하였다. 1976년 8월 30일자 전라남도 조례 제796호로 전라남도 여천지구 출장소가 발족하게 되었다. 도 출장소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권은 없지만 여천군수에게서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시·군과 같은 행정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기구이며 도 직할 행정기관으로서 발족 당시는 삼일지소와 쌍봉지소를 두고 삼일

면 전역과 쌍봉면 해산리, 주암, 삼동, 월양, 봉계부락만을 관할하였으나 1978년 1월 1일부터 쌍봉면 전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주요 업무는 공단용지 매수와 보상, 주민이주대책, 공업용수공급, 도시계획 수립, 녹지환경 조성 등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사관 소장 밑에 부소장 1명과 1실 1담당관, 10과 4사업소로 조직되었다. 이때 사무소는 삼일면 평여리 공단 전망대 아래 임시청사를 사용하다가 1980년 4월 1일 쌍봉면 학용리 현 여천시 청사로 옮겨왔다. 그 후 1980년 12월 1일 삼일면과 돌산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6년 1월 1일 전라남도 여천지구 출장소 행정관할 구역이 법률 제 3798호로써 여천시(麗川市)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여천군은 1읍 6면(돌산읍·소라면·율촌면·화양면·화정면·삼산면·남면)으로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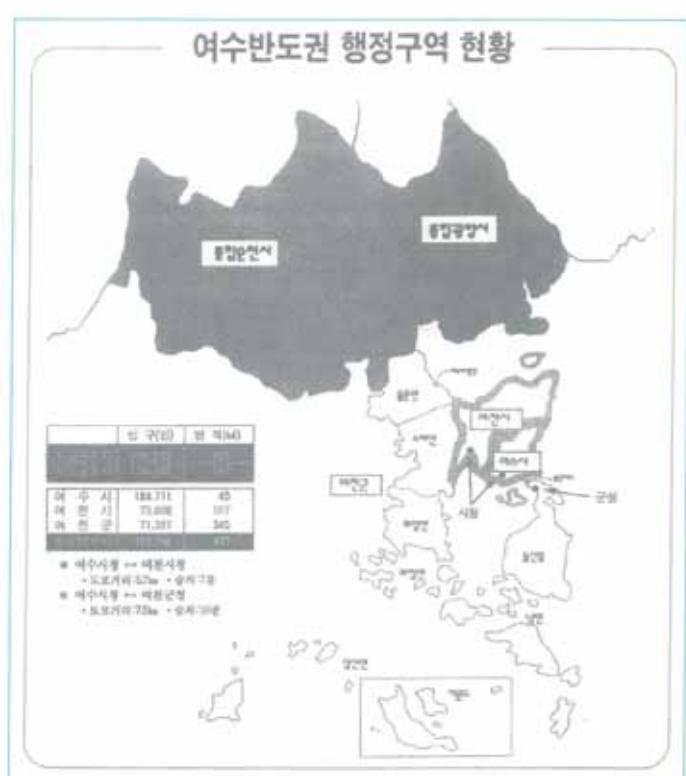
2. 삼려 통합의 필요성

1) 지역 분리의 한계 극복

삼려 지역은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고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갈라 놓음으로서 여수·여천시는 시의 규모가 작아 성장 발전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여천군은 군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재정 상태가 빈약하여 자주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즉 지역이 삼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균형 발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주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간 대립으로



▲ 삼려통합 이전의 여수반도권의 행정구역 현황

도시 계획,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과 같은 광역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무엇보다 UR협상 타결 이후 어려워진 농어촌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었다.

세계 각국이 다투어 도·농이 병존하는 행정 구역 제도를 발전시켜 가는 사례에서도 시·군통합의 필요성을 잘 입증해 주고 있었다.

2) 삼려 지역의 동질성 회복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던 삼려 지역민들은 인위적인 행정 구역 개편으로 나누어져 살았다. 한 뿌리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짐으로써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자손만대가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갈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무엇보다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3) 행정의 효율성 제고

3개 시·군으로 분리되어 비효율적이었던 기구, 직제를 통합, 개편함으로써 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 행정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간 이기주의에 의한 도시 계획,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광역 도로 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으로 도시 교통 문제의 일원화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

4) 발전의 상승 효과 창출

도시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된 여수시와 대단위 석유 화학 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여천시 그리고 풍부한 관광자원과 비교적 넉넉한 개발 가능 지역을 갖고 있는 여천군이 통합하면 상호 보완적 기능으로 국내외에 경쟁력있는 도시로 육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상업, 수산, 관광, 금융, 교육 등의 기능과 여천시의 공업, 주거, 휴식, 관광 등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21세기 지방화·정보화·국제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5) 행정·재정 합리적 투자 운영

여수·여천시를 합해도 인구 27만에 불과한 중소 도시이자 거리상으로도 10여 분 거리에 있는 양 시가 각각 공설 운동장, 실내체육관, 문예회관 등을 경쟁적으로 건설코자 투자하는 것은 재정 낭비와 투자 이후 시 관리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통합 후 1개 자치 단체별로 연 1백 75억여 원의 비용 감축이 예상되어 총 3백 50여 억원을 새로운 시설의 개발 투자비로 전환이 가능함으로서 균형적인 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시군 통합시 인건비, 경상비, 중복 투자 사업비 및 유관 기관 단체 통합에 따른 절감액 또한 1개 자치 단체별 연 1백 75억여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도 수백억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되었다.(94. 4. 2 내무부 분석 자료)

6) 광양만권 개발 이익 흡수

율촌산단의 조성으로 발생할 개발 이익이 인근의 통합 순천·광양지역으로 흡수될 가능성에 대한 3려 지역 주민들이 크게 우려해 왔으며 장차 여수항, 삼일항, 율촌항, 광양컨테이너 부두, 광양제철항이 연결되고 도로, 철도, 통신, 항만과 산업 시설이 완비되면 3려 지역이 광양만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3. 통합 노의의 배경

여수지역 행정구역 통합논의는 여수상공회의소가 1983년 1월 여수시와 당시 여천지구 출장소의 통합 당위성에 대한 용역을 하여 책자와 유인물을 제작 중앙요로에 보내 홍보하면서 통합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수시 쪽의 일반적 처사에 격분한 여천지구 출장소 관내 유지들이 일어서서 통합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대 이유는 여천출장소 관내 주민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타협 없이 여수시 상공회의소가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 데에서 온 반감이요 자존심의 대결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여수와 여천지구 출장소의 통합이 무산되고 말았다.

두 번째는 1994년 정부에서 95년의 완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앞두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문화와 생활권이 같은 시·군 도농통합을 준비했다. 1994년 2월 14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에서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전에 인구 10만 명 미만의 33개 소도시를 인근 군과 통합하는『도농통합』의 시군통합을 논의했다. 도농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했다.

인구 10만 명 미만은 소도시와 군의 도농통합 논의는 인구 15만명 미만의 동일 생활권의 시군통합으로 확대됐으며, 생활구역을 중심한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군통합도 정부측에 의해 제시됐다. 도농통합 즉 시군통합의 기준은 지역적 동질성, 동일생활 구역, 지형적 생활권, 통합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시에도『읍, 면』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고, 도농통합의 길이 열리게 되어 94년과 9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36개 곳의 시군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1994년에 전국의 49개 시(시)와 43개 군(군)을 대상으로 제1단계 도농통합을 3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가구 당 1표씩 우편조사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여수지역은 당초 내무부에 여천시와 여천군의 통합안이 준비되고 있었다. 여수시가 인구 10만 명이 넘어 17만 명이 됐기 때문에 10만명 이하의 도시와 군의 도농 통합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여천시와 여천군 통합안이 전해지자 여수시가 반대하고 나섰고, 여수시가 포함된 통합안을 조정했는데 그것이 여수시, 여천군 도서지역과 여천시, 여천군 육지지역의 통합안이었다. 이 통합안은 여수지역의 3개 행정구역을 2개로 조정하자는 것으로 여수반도 대통합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한걸음 후퇴한 통합안이었다.

여수지역의 삼례시군을 분리통합하자는 2원화 안이 확정되자 여수시의 사회단체와 김충조의원을 중심한 정치인들 특히여수시의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고, 정부 즉, 내무부는『삼례 통합안』을 제2안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묻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제1차 삼례시군 분리통합은 1994년 3월 24일까지 실시하고 제2차 삼례 통합안은 1994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1) 제1차 주민의견조사결과 분리통합안 무산

1994년 3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37일간에 걸쳐 '1가구 당 1표'의 우편

조사를 실시했다. 제1차 분리 통합안은 '여천시+여천군 육지지역'과 '여수시+여천군 도서지역'의 통합안에 대해 찬반의견조사서를 가구주에게 우편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된 것이다.

제1차 삼려시군 분리 통합안은 여천시·군 찬성, 여수시 반대로 무산됐다.

- 여수시 : 찬성 7.3% 반대 92.7%
- 여천시 : 찬성 87.4% 반대 11.8%
- 여천군 : 찬성 63.2% 반대 36.8%

2) 제2차 주민의견조사결과 삼려 통합안 무산

분리통합안 즉 여천군의 도서는 여수시로, 육지부(율촌, 소라, 화양)는 여천시로 통합한다는 제1안이 부결되자 여수반도의 도농 통합안 중 제2안인 삼려시군 통합안은 1994년 4월 30일부터 5월 10까지 11일 동안에 걸쳐 가구주 우편투표로 실시됐다.

제2안인 삼려 통합안은 여수시가 찬성한 반면 여천시와 여천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 여수시 : 찬성 97.8% 반대 3.4%
- 여천시 : 찬성 31.3% 반대 67.8%
- 여천군 : 찬성 34.0% 반대 66.0%

3) 제3차 삼려 시군 통합안 직접투표에서 무산

정부에서 1994년도 시군 도농통합이 무산된 시군을 대상으로 또 다시 시군 통합을 시도했다. 그 이유는 1995년 6월 27일 민선자치 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시군 통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고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자치기능을 갖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주도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고장 삼려 통합은 3개 시군이 서로 보완적인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되면 상승적인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해안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전남 남동부 거점도시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해가는



▲ 1995년 3월 21일 주민의견조사 여수시 집계 모습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삼려 통합의 필요성으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이번 주민의 의견조사방법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4년과 같은 '가구당 1표'의 우편투표 조사방법은 지양하고 국민투표나 지방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각 면에 의견기표소(조사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의견을 기표하도록 하였으며 의견조사 기표일을 1995년 3월 21

일로 정해 실시했다.

개표 결과 여수시 찬성 97.3%, 여천시 찬성 41.5%, 여천군 찬성 62.2%로 여천시 주민들의 반대로 여수반도 3차 삼려 통합은 무산되고 말았다.

4) 97년 제4차 주민발의 삼려 통합안 직접투표에서 성취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삼려 통합에 관한 주민의견 조사를 3차례 걸쳐 실시한 바 있으나, 통합이 무산되었다. 그로 인해 인근 통합시 순천과 광양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지역 현안 사업의 자연과 충복 그리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시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199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년 앞두고 삼려가 통합하지 못하면 영원히 통합하기 힘들어진다는 압박감마저 주민들이 갖게 되었다.

1997년에 들어서자 삼려 통합의 바람으로 일변했다. 무엇보다 언론매체의 활동도 컸지만 각급 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했으며 정당 특히 새정치국민회의 여수여천지구당 위원장들과 당직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7년 9월 5일 삼려 시장, 군수(여수시장, 여천시장, 여천군수)가 삼려 통합 찬·반 의견조사 실시에 합의하고 통합 전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실행 할 것을 합의하였다.

(1) 삼려통합을 위한 6개 이행사항

- ①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

- ② 통합시의회 의원정수는 현 여수시의회, 의원정수와 현 여천시·군의회 의원정수가 동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 ③ 여수·여천상공회의소는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 ④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도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 ⑤ 도서 및 농촌지역의 예산은 현 수준보다 더 증액하여 배정하기로 하고, 여천군에 투자되는 자체사업비 규모는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을 제외한 총 가용재원의 30% 이상 투자하기로 한다.
- ⑥ 기타 지역현안은 현 여천시·여천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주민의견조사 후 지역과 주민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 3려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생활권과 문화권이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어 가까운 이웃처럼 오손 도손 삶을 영위하여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 3려 시장·군수는 주민의견조사 후 통합여부를 떠나 그동안 지역과 주민 또는 시민단체 간에 발생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여 이전과 같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3려 지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혐오시설 등 여천군 지역 미설치에 관한 합의서

삼례 시·군 통합시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 여천군 지역에 설치될 것이라는 일부 여천군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삼례 시장·군수는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합의사항

- ① 일부 여천군민이 우려하는 혐오시설의 설치문제에 있어 여천군의 분뇨를 1일 여수시 8톤, 여천시 2톤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증가 등으로 처리량의 증가시에 대비하여 여천군에 지원된 국비보조금 36억 원으로 여천시 분뇨처리장을 확장하여 사용키로 협의하였으며,
- ② 공설묘지공원도 여천군 소라면 봉두리에 삼례시·군이 26억을 들여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 ③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경우도 여천시의 경우 15년 간, 여수시의 경우 24년간 사용키로 되어 있어 통합이 되어도 향후 20년간은 여천군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천군 일부에서 3례 통합이 되면 여수 쪽에서 일방적으로 각종 생활쓰레기 및 혐오시설을 여천군에 설치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며 일방적으로 혐오시설을 여천군에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한편 삼례 시장·군수는 삼례 통합 실무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삼례 통합 주민 의견조사 실시 건의서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의견조사 일정을 1997년 9월 9일로 확정하여 삼례 통합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삼례 통합 주민의견조사가 1997년 9월 9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7시까지 기표,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저녁 7시부터 삼례 시군 자치단체별로 부재자 기표함부터 개표를 시작하여 2시간 후인 저녁 12시경 개표가 완료되었다.

삼례 통합 찬성을 묻는 조사인 수는 여수시가 12만4천7백38명(인구 188,452명), 여천시가 5만1백46명(인구 80,156명), 여천군이 4만7천1백88명(인구 62,357명)이었다. 삼례 시군민들은 20세 이상 남녀가 여수시와 여천군에 설치된 기표소 69개소와 여천시에 설치된 31개 기표소에서 자유롭게 기표가 진행되었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는 여수시가 93.5% 찬성에 반대 4.3% 무효 2.2%, 여천시는 83.5% 찬성에 반대 16.5%, 여천군이 찬성 70.2%, 반대 29.8%로 통합찬성이 절대적으로 우세로 나타났다. 1차부터 4차까지 주민의견조사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주민의견 제1단계 조사표 개표결과

(94. 4. 29)

구 分	대 상 가구수	교 부 가구수	회 송 가구수	유 효 가 구 수			무 효
				계	찬 성	반 대	
군 계	18,454	18,335	17,305	16,998	10,749(63.2)	6,249(36.8)	307(1.8)
소 계	7,365	7,271	6,697	6,529	742(11.4)	5,787(88.6)	168(2.5)
돌산읍	4,267	4,191	3,685	3,589	500(13.9)	3,089(86.1)	96(2.7)
남 면	1,979	1,979	1,914	1,891	134(7.1)	1,757(92.9)	23(1.2)
삼산면	1,123	1,101	1,098	1,049	108(10.3)	941(89.7)	49(4.7)
소 계	11,085	11,064	10,608	10,469	10,007(95.6)	462(4.4)	139(1.3)
소라면	2,979	2,979	2,939	2,865	2,630(91.8)	235(8.2)	74(2.5)
율촌면	3,322	3,322	3,121	3,092	3,065(99.1)	27(0.9)	29(0.9)

화양면	3,193	3,186	3,112	3,097	2,942(95.0)	155(5.0)	15(0.5)
화정면	1,591	1,577	1,436	1,415	1,370(96.8)	45(3.2)	21(1.5)
여수시	49,973	49,679	39,282	38,597	2,831(7.3)	35,766(92.7)	685(1.7)
여천시	20,353	20,021	16,516	16,386	14,442(88.1)	1,944(11.9)	130(0.8)

〈표2〉 주민의견 제2단계 조사표 개표결과

(94. 5. 10)

구 분	대 상 가구수	교 부 가구수	회 송 가구수	유효가구수			무 효
				계	찬 성	반 대	
군 계	18,472	18,210 (98.5)	16,513	16,237	5,514 (34.0)	10,723 (66.0)	276 (1.7)
소 계	7,380 (40.0)	7,237	6,328	6,238	4,676 (75.0)	1,562 (25.0)	90
돌산읍	4,270	4,166	3,304	3,255	2,902 (89.2)	353 (10.8)	49
남 면	1,985	1,985	1,903	1,885	1,038 (55.1)	847 (44.9)	18
삼산면	1,125	1,086	1,121	1,098	736 (67.0)	362 (33.0)	23
소 계	11,092 (60.0)	10,964	10,185	9,999	838 (8.4)	9,161 (91.6)	186
소라면	1,975	2,964	2,738	2,696	363 (13.5)	2,333 (86.5)	42
율촌면	3,325	3,279	3,118	3,086	64 (2.1)	3,022 (97.9)	32
화양면	3,196	3,186	2,982	2,885	149 (5.2)	2,736 (94.8)	97
화정면	1,596	1,535	1,347	1,332	262 (19.7)	1,070 (80.3)	15
여수시	49,993	48,754 (97.5)	33,442 (66.9)	32,959	32,117 (97.6)	782 (2.4)	483 (1.4)
여천시	20,380	19,389 (95.1)	12,241 (63.1)	12,112	3,733 (30.8)	8,379 (69.2)	129 (1.0)

〈표3〉 주민의견조사 집계상황

읍면	명부 등재자수	의견 표기수	유효가구수			무효조사수 (%)	기권수 (%)
			계(%)	찬성(%)	반대(%)		
계	18,351	14,758 (80.4)	14,122 (95.7)	8,777 (62.2)	5,345 (37.8)	636 (4.3)	3,593 (19.6)
돌산	4,296	3,616 (84.2)	3,510 (97.1)	3,063 (87.3)	447 (12.7)	106 (2.9)	680 (15.8)
소라	2,953	2,222 (75.2)	2,115 (95.2)	1,154 (54.6)	961 (45.4)	107 (4.8)	731 (24.8)
울촌	3,323	2,279 (68.6)	2,132 (93.5)	729 (34.2)	1,403 (65.8)	148 (6.5)	1,044 (31.4)
화양	3,169	2,536 (80.0)	2,399 (94.6)	1,147 (47.8)	562 (32.9)	65 (3.7)	173 (8.9)
남	1,944	1,771 (91.1)	1,706 (96.3)	1,144 (67.1)	562 (32.9)	65 (3.7)	173 (8.9)
화정	1,566	1,350 (86.2)	1,309 (97.0)	787 (60.1)	522 (39.9)	41 (3.0)	216 (13.8)
삼산	1,100	984 (89.5)	951 (96.6)	753 (79.2)	198 (20.8)	33 (3.4)	116 (10.5)
여천	20,884	11,015 (52.7)	10,511 (95.5)	4,573 (43.5)	5,938 (56.5)	483 (4.5)	9,869 (47.3)
여수	50,844	33,684 (66.2)	32,939 (97.8)	32,605 (98.0)	874 (2.0)	745 (2.0)	17,160 (33.8)

〈표4〉 주민의견조사 집계상황

(97. 9. 9)

읍면	명부 등재자수	의견 표기수	유효가구수			무효조사수 (%)	기권수 (%)
			계(%)	찬성(%)	반대(%)		
계	46,600	21,397 (45.9)	20,721 (70.2)	14,547 (29.8)	6,174 (3.2)	676 (54.1)	25,203
돌산	11,533	5,966 (51.7)	5,839 (90.5)	5,283 (9.5)	556 (2.1)	127 (48.3)	5,567
소라	7,708	3,280 (42.6)	3,177 (61.8)	1,964 (38.2)	1,213 (3.1)	103 (57.4)	4,428

율 촌	8,647	3,465 (40.1)	3,363	1,287 (38.3)	2,076 (61.7)	102 (2.9)	5,182 (60.6)
화 양	8,357	3,107 (37.2)	2,956	1,953 (66.1)	1,003 (33.9)	151 (4.9)	5,250 (62.8)
남	4,667	2,241 (48.0)	2,174	1,661 (76.4)	513 (23.6)	67 (3.0)	2,426 (52.0)
화 정	3,499	1,889 (56.9)	1,833	1,364 (74.4)	469 (25.6)	56 (3.0)	1,610 (46.0)
삼 산	2,189	202 (79.5)	1,212	951 (78.5)	261 (21.5)	35 (2.8)	942 (43.0)
부재자	254	202 (79.5)	167	84 (50.3)	83 (49.7)	35 (17.3)	52 (20.5)
여 수	124,738 (1,385)	64,291 (51.54)	62,907	60,123 (95.58)	2,778 (4.42)	1,390	60,447
여 천	50,146 (121)	14,709 (29.3)	14,382	12,006 (83.5)	2,376 (16.5)	327	35,437

5) 삼려 통합에 따른 입법 조치

1997년 9월 9일 3려 통합에 따른 찬반 주민의견 조사 결과 중 응답자 100,397명 중 찬성 86,676(86.3%), 반대 11,328(11.2%)로써 통합안에 찬성이 확정되어 1997년 12월 17일 법률 제5457



▲ 삼려 통합 주민의견조사 개표 현황

호로 「전라남도 여수시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어 같은 날 대통령이 이 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 제5457호

전라남도여수시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시 및 여천군을 통합하여 전라남도 여수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함으로서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 여수시의 설치 등)

- ① 전라남도의 여수시 여천시 및 여천군을 각각 폐지한다.
- ② 전라남도에 여수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 할 구 역
여수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여천시 일원 및 여천군 일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와 군(이하 “폐지 시·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이하 “신설 시”라 한다)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폐지 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신설 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폐지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신설 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전에 폐지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 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폐지 시·군의 조례·규칙은 신설 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신설 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조(신설 시 시장 등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지(廢置)·분합(分合)에 따른 신설 시 시장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1998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신설 시 시장의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폐지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신설 시의 시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폐지 시·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신설 시의 해당 지역이 당해 구역 또는 관할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 시 및 그 시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전라남도 여수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권이 동일한 전라남도 여수시·여천시 및 여천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서 여수시를 설치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통합 이후 기구와 정원은 다음과 같다.

■ 기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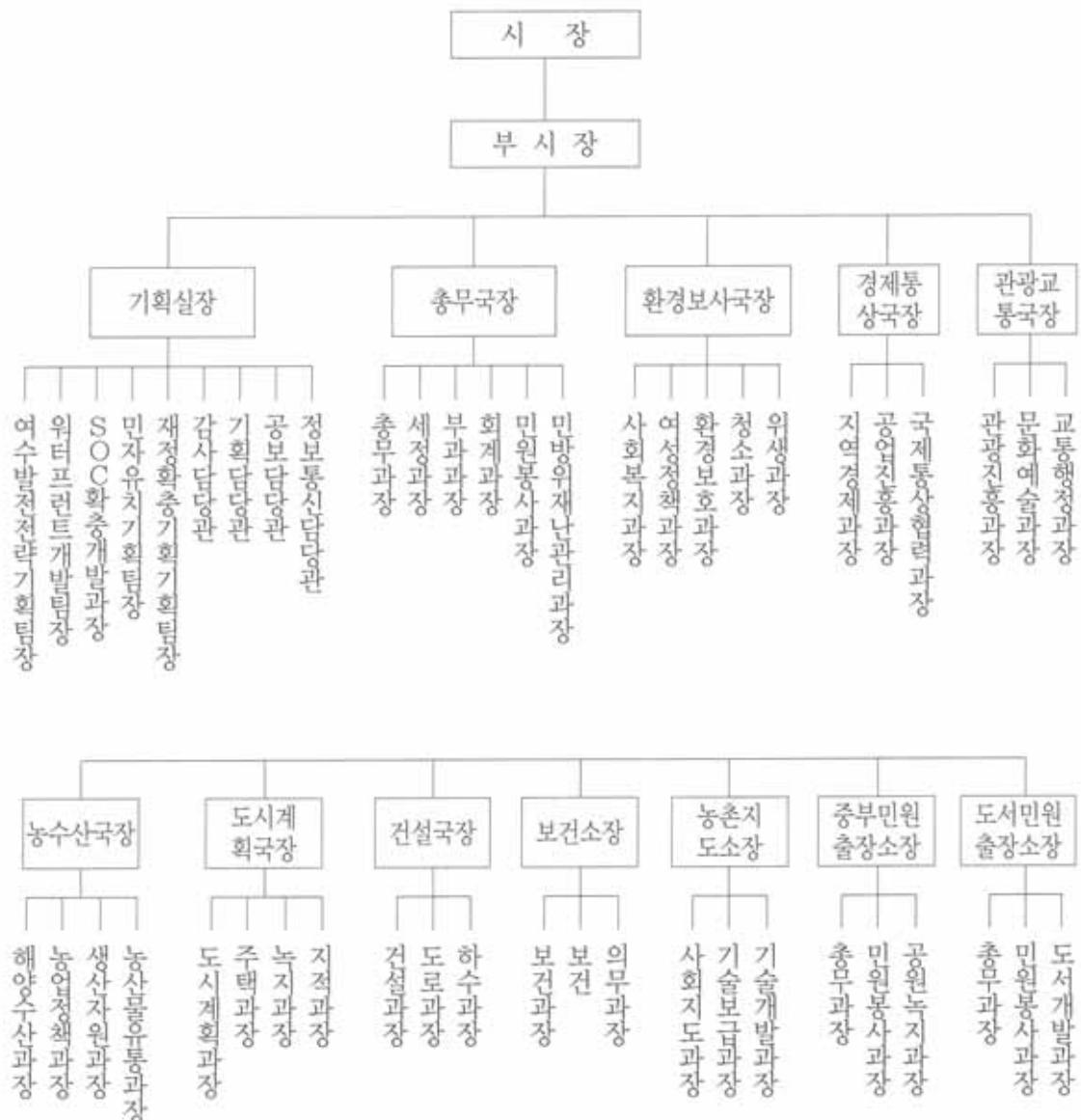
본 청			의회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실국	과	계					
8	32과 5팀	110	1국 3계	2개소 5과15계	2개소 6과 24계	14개소 9과 50계	28개소 1읍, 6면, 2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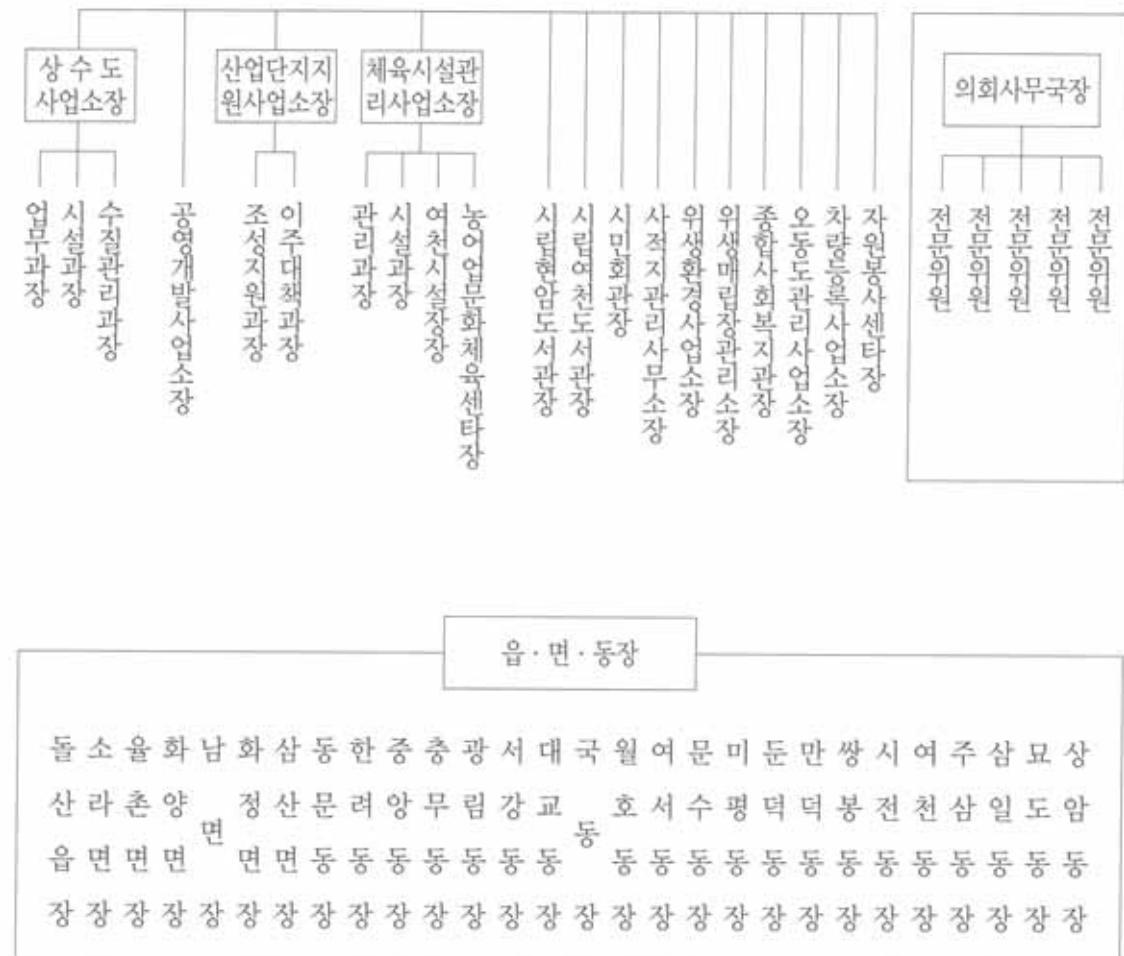
■ 정 원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1,942명	658명	27명	200명	148명	344명	565명

또 통합 여수시의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표5〉 통합여수시 기구표





제6절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여수의 미래

정희선 (청암대학 교수)

1. 세계박람회(EXPO) 개관

세계박람회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한자문화권 나라에서 주로 부르는 표현으로 서양에서는 'EXPO(엑스포)'로 통칭된다. 중국 일본에서는 '세계박람회'나 '만국박람회'로 부르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만바꾸(萬博)' 즉 '만박'이라 약칭하고 있다.

이 EXPO는 'Exposition'의 앞부분을 따온 단어로 여기에는 '상품을 매매·교환하거나 문화정보를 교환하는 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EXPO는 세계를 상대로 한 산업·무역박람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박람회는 과거에 인류가 축적한 인류사회의 지식과 기술을 함께 나누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가는 경제·문화분야의 종합 올림픽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최국과 참가국의 경제·문화적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 인류에게 어떤 내일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와 함께 지구와 인류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자리라 하겠다.

박람회는 유럽의 강국이던 영국 프랑스가 그들의 식민지인 전 세계에 서 특산물을 들여오고 또 국내 생산품을 식민지나 이웃 나라들에게 내다팔기 위한 행사로 시작한 것이었다.

최초로 박람회가 개최된 것은 1851년 영국에서였다. 일명 '수정궁(Crystal Palace) 박람회'라 불렸던 이 박람회는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약 74,000m²의 전시장에 전 세계에서 보내온 119,0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141일 동안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모으는 대성공을 거뒀다.

그 후 박람회는 에펠탑, 측음기, 냉장고, 전화기, 무선전신 등 신기술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였고, 세계 각국은 자국의 권위와 업적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우후죽순처럼 개최된 박람회로 인하여 그 권위가 상실되자,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과당경쟁과 참가국과 개최국간의 이해관계 해소를 위해 1928년에 「국제박람회조약」을 제정하고 1931년에 「국제박람회사무국(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s, BIE)」를 설립하여 현재 회원국 수는 156개국에 이른다.

세계박람회를 주관하는 BIE는 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고, 개최 및 참가에 따른 각종 기준을 설정하여 박람회의 질적인 면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BIE가 관리하는 박람회는 종합박람회(Universal Exhibition)와 전문박람회(Specialized Exhibition) 2개 부문이다. 이는 전시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종합박람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었거나 성취될 명제를 조명하고, 전문박람회는 단일한 분야나 주제를 가지고 제품이나 기술을 전시함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미래의 방향설정과 계몽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BIE는 1988년에 박람회를 그 성격과 기간, 주최국의 의무사항, 개최 규모, 개최횟수 등에 따라 등록박람회(Registered Exhibition)와 인정박람회(Renognized Exhibition)로 나누었는데, 이 2개의 박람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1〉 BIE 등록 및 인정 박람회 비교

구 분	등록세계박람회 (Registered EXPO)	인정세계박람회 (Renognized EXPO)
주제	광범위한 테마 또는 전문적 테마 중 선택 가능	명확한 주제
기간	6주~6개월	3주~3개월
빈도	5년에 1회	등록EXPO 사이 1회
비용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개최국이 국가관을 건설하고
부담	자국관 건설(합의 가능)	참가국에게 무료 임대
면적	제한 없음	25ha 미만

우리나라는 1893년 시카고EXPO에 최초로 참가하였으며, 1993년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대전세계박람회(EXPO참가 100주년)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인정박람회로 개발도상국 최초의 박람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1987년 BIE에 가입하였고 1999년에는 집행위원회에 선출되었다.

박람회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올림픽·월드컵과는 달리, 국가가 주관하

는 국가행사로서 경제·문화·예술·과학기술분야를 망라하는 대규모 행사인데, 이제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마케팅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올림픽·월드컵·세계박람회 마케팅 여건 비교

구 분	'88 올림픽	'02 월드컵	'12 세계박람회
개최기간	16일	1개월	3개월
관 람 객	290만명	350만명	800만명
생산유발효과	4조7천억원	11조5천억원	12조2천억원
고용유발효과	340천명	350천명	79천명

2. 여수와 세계박람회

1) 2010 세계박람회의 도전과 쟈절

(1) 신해양시대의 새로운 도전

1996년 5월, 세계박람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전라남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민선 제1기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전라남도지사는 도정시책의 방안으로 전라남도의 EXPO 유치를 기획하였다. 1996년 9월 도지사는 중앙정부에 “해양을 주제로 2010년에 EXPO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듬해인 1997년 5월 31일 광양에서 열린 ‘제2회 바다의 날’에서 대통령은 “2010해양엑스포를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이에 전라남도는 1997년 9월 「2010 해양엑스포 개최 기본구상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전라남도의 각 시·군별로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었다. 완도는 해양실크로드를 열었던 장보고의 활동 거점임과 2010년이 장보고 탄신 1,200주년임을 내세웠고, 목포와 신안은 전국 제일의 해양면적과 수백 개의 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서남권의 발전 패

요성을 내세워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여수시는 여천군과 여천시 등 3개 시군으로 구성된 여수권 광역행정협의회에서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여수반도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항공·철도·해운 등 다양한 접근로를 가지고 있으며, 남해안의 중심이어서 동서화합을 이룰 지역적인 강점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1998년 4월 1일, 3려로 나뉘어 있었던 여수반도가 전국 최초로 통합 여수시로 탄생하면서 2010해양엑스포 유치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통합 여수시의 '2010해양엑스포 여수시 유치위원회'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유치건의서를 발송하고 주민공청회와 엑스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10만 명의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여수 등 전국의 24개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 9월 12일에 1차로 12개 지역으로 후보지를 좁힌 후, 다시 2차평가를 통해 여수 소라면, 목포 대방동, 완도 화홍리 일원 등 3곳으로 후보지를 좁혔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3월 4일 「2010 해양엑스포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 2010세계박람회 후보지 (소라면 달천)

바탕으로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여수시 소라면 달천 지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여수는 한려해상국립공원·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2개의 국립공원과 가막만의 청정해역, 사도·낭도 공룡화석지 등 천혜의 바다자원

과 유구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또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인근의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 부두 등 산업시설도 자리 잡고 있어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할 세계박람회의 목적과도 일치하고 있어 다른 어떤 경쟁도 시보다 박람회를 성공시킬 잠재성이 있는 도시로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개최 후보지로 확정된 소라면 달천 지구가 엑스포 부지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결국 BIE 의장단을 초청해 후보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여자만의 갯벌 매립은 심각한 환경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후보지로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서는 여수시 신항 지구로 후보지를 변경하게 되었다.

(2) 2010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

1999년 5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0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결정되었다. 이후부터는 '2010 세계해양엑스포'라는 박람회 명칭이 '2010 세계박람회'로 공식 변경되었다.

1999년 11월 26일 201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유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또 2000년 중앙유치위원회의 사무국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서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18개 부처가 힘을 모은 '정부지원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10 세계박람회의 유치경쟁은 어느 박람회보다 치열하였다. 개최국을 놓고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폴란드,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6개국이 뛰어들었다.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중국의 유치 참여는 우리나라와 함께 치열한 각축전을 예상하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2002년 5월 아르헨티나가 국가 경제위기로 유치신청을 철회해 최종 5개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115회 255개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유치사절단이 방문할 나라에는 꼭 통상사절단과 문화사절단 등을 함께 파견하였다. 사절단장도 가급적 현직 각료와 CEO로 구성했으며, 66개국에는 대통령 친서를 휴대한 특사를 파견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3) BIE 현지실사

2001년 5월 2일 대한민국은 BIE에 국무총리 명의로 「201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제는 '바다와 육지의 만남' 이었다. BIE에서는 모든 유치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후보지에 실사단을 파견하여 후보지별 개최여건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한다.

2002년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실사단은 오이겐 메겔레(BIE 규정위원장, 독일) 단장을 비롯한 7명이었다. 이들은 당시 김대중대통령을 예방하여 유치의지를 확인받았으며, 여수와 남해안을 돌아보면서 우리 측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3월 26일 실사단은 개최후보지 여수를 방문하였다. 여수 시민 6만여 명은 거리로 나와 BIE 실사단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메겔레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수 시민의 뜨거운 유치 의지에 감동받았다.”고 밝히며, “한국의 준비 상황이 긍정적이며, 제주도·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6월 BIE에서 회원국에 통보한 실사결과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개최 계획은 실현 가능하고, BIE 규정에 합치한다.”고 평가하였다.

(4) 모나코에서의 패배와 교훈

박람회 개최지 결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모나코의 그리말디 포럼에서 열린 제132차 BIE 총회에서 이루어졌다. 개최국 선정은 회원국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투표시마다 가장 적은 득표를 얻은 나라가 한 나라씩 탈락하는 방식이었다.

1차 투표에서는, 2표밖에 얻지 못한 폴란드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때 중국은 36표를, 대한민국은 28표를 얻어 한국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이후 4차까지 이어진 중국과의 결선투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우리는 총 34표를 얻어 중국과 20표 차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만 것이었다. 3차 투표에서 러시아를 지지했던 회원국들이 결선투표에서 중국에 표를 몰아준 결과였다.

〈표3〉 201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결과

차수 \ 국가	한국	중국	러시아	멕시코	폴란드	기권
1차	28	36	12	6	2	4 (무효 1)
2차	34 (+6)	38 (+2)	10 (-2)	5 (-1)		1
3차	32 (-2)	44 (+6)	12 (+2)			
4차	34 (+2)	54 (+10)				

2010 EXPO 유치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여수가 경쟁도시인 상하이에 비해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뒤떨어진 도시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급의 정보능력을 갖고 있었다. KOTRA와 종합상사의 정보망이 그것이다. 외교공관이 없는 나라에도 KOTRA 요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종합상사의 정보망도 세계 정상급이다. 하지만 이 두 정보 네트워크를 다룰 수 있는 산업자원부가 박람회 유치를 직접 지원하지 못한 것도 실패의 한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BIE 사무국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간과 역시 실패의 한 요인이었으며, 특히 국내 상황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정국으로 치달아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가장 중요한 4개월을 허송세월한 것이 빠아픈 상처로 남게 되었다.

모든 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는 것이며 실패가 죄절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여수는 박람회 유치에 실패하였으나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공조 기반을 조성하였다다는 것이다. 다소 부족한 면은 있었을지언정 범정부 추진체계 구성과 함께 종합상황실 설치, 실무회의 구성 등 정부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국가사업으로 세계적인 강국들과 경쟁하여 외교력을 크게 높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여수 역시 많은 것을 얻었다. 박람회 유치 경쟁을 치르면서 주민 스스로 삼려통합을 이루어 통합 여수시를 탄생시켰고, 국제적으로 무명의 도시에 가까웠던 도시를 세계적인 도시인 상하이와 4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쟁을 치름으로써 잠재력과 경쟁력이 많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도시 여수' 이미지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유치활동으로 결집된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바탕으로 여수가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서 21세기 해양관광중심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겠다.

2) 2012 세계박람회 유치 및 해양강국으로의 도약

(1) 시민의 힘으로 다시 박람회를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6일 후인 2002년 12월 9일 당시 박태영 전라남도지

사와 김충석 여수시장은 세계박람회 재추진 등 5개항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따른 전남 동부권 현안사업'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여수시는 당초 2015년 등록박람회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3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개최되면 BIE 사무국과 회원국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므로 유치 실패의 가능성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012년 인정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던 것이다.

이에 발맞춰 여수의 시민들도 12월 14일 '2012년 세계박람회 범시민추진 위원회'(범추위)를 구성하였다. 범추위는 8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급 관계기관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단체였다. 이후 경남의 시민단체 40여 개가 합류하여 120여 개의 단체가 모이게 되었으며 이는 여수박람회를 영호남 화합의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2년 12월 15일, DJ 국민정부 국무회의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건의한 5개 항 외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국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03년 1월 28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박광태 광주시장이 "2012년 광(光)엑스포를 광주에서 개최하고자 하니 대통령 당선자가 도와 달라." 했다. 박태영 전남지사는 "2012여수엑스포를 국민정부에서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넘겼으니 대통령 당선자가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광주는 2012년에 광엑스포를 하겠다.' 하고, '전남도는 2012년에 여수엑스포를 하겠다.'고 하면 한꺼번에 두가지를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서로 상의해서 한가지만 올리되, 조율이 안되면 둘다 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했다.

2004년 1월 15일 박태영지사와 박광태시장이 "광주광역시가 2012년 여수엑스포를 전폭 지지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준비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못내 아쉬움이었다.

2003년 2월 12일 범추위는 여수시 의회 의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1월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약속된 '2010 세계박람회'의 실패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촉구하였



▲ 2012여수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 기념 행사



▲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수장동)

으며, 2월 15일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2012 인정박람회 유치를 다시 건의하였고, 다음날인 2월 16일에는 전라남도에서 '2012년 인정박람회 여수 유치'를 공식발표하였다.

또 3월 12일에는 세계박람회 용역보고회 및 공청회에서 얻어진 성과물을 토대로 전라남도의원 36명과 전남·경남·제주의 31개 시장·군수들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도 3월 25일 제54회 임시회를 열고 「2012년 인정박람회 여수 유치 국가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건의문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사항을 차기정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에 대해 전남권과 경남서부권 주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월 26일 청와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전라남도는 제1차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빠른 시간 내에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연말까지는 국가계획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4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주무부처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라남도 역시 여수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기 전인 11월에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유치위원회에는 광주·전남·전북·부산·경남·제주 등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 등을 망라한 583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여수에 힘을 실어주었다. 12월 14일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한 정부와 국회는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여수는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가기 위하여 2005년 4월 29일 여수시민회관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동안 활동하던 범주위는 해산되었지만 한 차원 격상된 민간 차원의 유치활동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자발적인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었는데 최종 26억원의 후원금이 모여 시민들의 박람회 유치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유치위원회는 2006년 11월 3일 '여수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2)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여수세계박람회는 2005년 3월 26일 공식 명칭이 결정되었다. 한글로는 '2010여수세계박람회', 영문으로는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였다. 단문 약칭도 확정하였는데 'EXPO 2012 YEOSU KOREA' 이다. 또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도 설치되었다.

그리고 2005년 9월 16일에는 BIE 실사보고서 작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 용역은 LG 애드, 현대엔지니어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맡았다.

중앙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유치위원장의 선임 문제가 대두되었다. 적임자로 물망에 오른 인사들은 모두 재계의 인사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 고사하였다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을 설득하여 성사되었다.

2006년 5월 22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유치신청서를 프랑스 파리 BIE 본부에 제출하였다. 이 유치신청서에는 여수엑스포의 주제와 개최기간, 개최장소 등이 명시되었으며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가 서명하였다. 주제는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양을 통한 인류의 공동문제 해결을 가치로 삼았다.

한국에 이어 6월 28일 두 번째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도시는 모로코의 탕헤르였다. 그리고 7월 18일 마지막으로 폴란드의 브로츠와프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인정박람회는 3개국의 각축장이 되었다.

그 중 모로코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SOC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국제적인 인지도 역시 높은 편이어서 박람회 인프라가 잘 되어있다고 하겠다. 또 11개 국가의 아랍연맹 회원국, 13개국의 아프리카 연합이 모로코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모로코가 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아랍과 아프리카권의 최초의 세계박람회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유리한 입장이었다. 모로코가 박람회 주제를 '보다 더 화합된 세계를 위한 문화의 만남과 세계의 통로(Route of world, cultures connecting, For a more united world)'로 선정한 것도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브로츠와프는 독일과 국경선인 오데르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12개의 섬과 130여 개의 다리를 통하여 철도와 도로, 그리고 공항 등 SOC가 잘 갖추어진 산업도시이다. 또 23개의 교육기관에서 13만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교육도시이기도 하다. 폴란드는 중앙정부의 개최의지가 확고하며 EU 회원국으로서 지위를 활용하였으며, 여기에 경쟁국 중 가장 많은 63개국의 해외 상주공관을 보유한 외교망을 무기로 '세계 경제에서의 여가문화(The Culture of Leisure in World Economies)'를 주제로 우리나라를 위협하였다.

〈표4〉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경쟁 3국의 현황 비교

나 라	대한민국	모로코	폴란드
인구	4,842만(2005)	3,169만(2004)	3,870(2004)
1인당 GNP	15,830달러	1,730달러	7,110달러
개최도시	여수(Yeosu)	탕헤르(Tanger)	<u>브로츠와프</u> (Wroclaw)
도시인구	32만명	47만명	70만명
개최기간	2012. 5. 12~8. 12	2012. 6. 16~9. 16	2012. 6. 24~9. 24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자연환경 • 해양을 통한 인류의 공동문제 해결 •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행사 개최 능력 • 세계 11위 경제력 및 IT강국 • 세계적 글로벌 기업 및 해외네트워크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권 및 아프리카 지역 최초 개최 • 이슬람, 아프리카권의 강한 유대감 • 국왕의 강력한 유치 의지 • 세계적 휴양지로서 국제적 인지도 • 프랑스, 스페인 등과 정치 및 경제적 특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회원국으로서 지위 활용 •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개최의지 • 2010 유치활동 경험 보유 • 경쟁국 중 해외상주공관 최다 보유(63국)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국제인지도 및 도시 인프라 미흡 • 2005년부터 아시아권의 세계박람회 자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력의 약세 • 세계박람회 개최 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국제인지도 • 불안정한 정국으로 체제 불안

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며칠 뒤인 2006년 5월 30일 마침내 중앙유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유치위원회는 세계박람회 유치에 필요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고, BIE 회원국을 상대로 유치 교섭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BIE 사무국은 일 년에 두 번씩 총회를 개최한다. 개최지 투표는 2007년 11월 142차 총회에서 실시되므로 139차 총회부터 141차 총회까지 3차례의 총회는 유치활동을 벌이는 데 가장 좋은 기회였다.

2006년 6월 30일 개최된 제139차 BIE 총회는 우리나라가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후 처음 참가한 회의였다. 여기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확고한 유치의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연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유치의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BIE 주요 인사들을 초대해 상호 이해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12월 18일부터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40차 총회에서는 98개국의 회원국이 참석하였는데 유치 신청을 한 각 국의 대표들이 본격적인 유치경쟁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주력하였다.

2007년 6월 18일에 개막된 제141차 총회는 개최지 결정 전 마지막 총회이었기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은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정명훈 씨의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회에 파리 주재 BIE 회원국 대사 및 대표 100여 명을 초청하였으며, 홍보 부스를 마련 홍보물과 기념품을 선물하고 휴대폰을 통해 여수 현지 동영상과 로봇애완견 전시 등을 중계하여 최첨단 IT강국임을 알렸다.

총회 첫날, BIE 집행위원회의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국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BIE 집행위원회는 대한민국, 모로코, 폴란드 등 3개국의 개최 계획에 대한 실사 결과 3개국 모두 BIE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수하고 있어 모두 엑스포 유치가 실현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해 개별적인 사항을 설명하였다.

대한민국은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토대로 한 준비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며, 가치 있는 인류 유산을 남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모로코는 이슬람·아프리카권 최초의 박람회 개최라는 정치·사회적 의미와 함께 “개최지의 지리적 위치와 국제도시로서 겪었던 역사가 주제의 타당성을 뒷받침 한다.”고 평가하였고, 폴란드는 “박람회 개최 시 유럽국가 간의 연계 강화”라고 평가하였다.

(3) 감동의 물결 속에서 – BIE 실사

한편 2007년 1월 14일 BIE 사무국은 인정박람회 실사 일정을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은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이고, 모로코의 탕헤르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였다. 우리나라를 실사할 실사단은 단장 카르멘 실뱅 BIE 집행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여수시가 실사 준비를 했다. 박람회 홍보관을 다시 지어서 실사에 대비하였다. 또 도로 정비, 도로변 청소, 광고물 정비, 조경수 가꾸기 등 시가지 환경정비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였고 이어 시민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다음으로는 대대적인 시민 환영행사를 계획하였다. 그래서 연중 치러지는 모든 축제행사를 이 기간에 일제히 실시하기로 추진하였다. 우선 매년 5월초에 치러지던 진남제와 거북선축제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거북선 대축제'란 이름을 사용하여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계범선축제 역시 같은 기간에 신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해양도시 여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공시찰 시 해상에서 어선 퍼레이드, 요트, 윈드서핑, 수상 쇼, 스쿠버다이빙 시연, 제트스키 시범 등을 화려하게 선보이기로 하였다.

4월 9일, 마침내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7명의 실사단은 500여 명의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만찬에 실시단을 초청하여 영상편지와 공연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실사가 실시되었다. 중앙유치위원회는 박람회의 명칭과 주제, 개막과 폐막의 의미, 국제 및 지역적 개최 이유, 정부의 지원 및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성, 운영과 재정적 책임 및 참가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중앙유치위원회 사무총장, 국제협력본부장, 해양수산부 차관, 국정홍보처장 등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실사단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축소라는 재앙에 대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담은 '여수선언'을 준비하고, 1,0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 개도국들이 재앙에 대항할 수 있는 '여수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여 실사단으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11일에는 관람객 수와 숙박대책 등에 대해 발표를 듣고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박람회를 통하여 어떤 나라든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 쉬며 사는 인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실사단은 서울일정을 모두 마치고 전용기 편으로 곧바로 여수로 향했다.

여수시는 전 시민이 축제의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었다. 실사단의 이동경로인 여수공항에서부터 시청, 박람회장 후보지인 오동도 앞까지 20여km의 도로는 아름답게 단장한 불꽃으로 꽃탑과 계단식 화단이 물결을 이루었다. 또 ‘실사단을 환영합니다!’ 등 실사단을 환영하는 문구와 7명의 실사단원 캐리커처가 그려진 200여개의 현수막이 장관을 이루었다.

2012명의 한복 환영단을 비롯한 BIE 회원국의 국기를 양손에 든 대부분의 여수 시민들은 실사단이 지나가는 거리마다 인산인해를 이뤄 도로를 가득 메웠다. 실뱅 단장은 “내 생애 최고의 환대이자 감동”이라 표현하며 눈물을 적셨다.

오현섭 여수시장이 주최한 환영리셉션은 여수엑스포의 주제와 상통하게 함상만찬으로 기획되어 충무공 이순신함에서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 노무현 대통령이 깜짝이벤트로 참석하였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 아닌 외빈을 하루에 2번 접견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사로 대한민국 정부의 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5만여 명이 모인 환영행사는 실사단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열망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환영회 내내 시민들은 실사단을 향해 환호하였고, 145만 명의 서명부를 실사단에 전달하고 수만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행사는 절정에 이르렀다. 환영회가 끝나고 실사단은 오가호로 남해 힐튼호텔로 이동하여 여정을 풀었다.

4월 11일 오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박람회 개최지 부지 및 교통여건, 박람회장 조성, 사후활용 등에 대해 발표하고, 박준영 도지사 주최 오찬을 한 후 헬기로 주변 여건을 둘러보았다. 여수반도를 항공에서 살펴본 실사단은 아름다운 해안경관 등 잘 갖춰진 인프라 여건에 만족하였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실사후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실사준비가 완벽했음을 치하하였고, 일정을 마친 실뱅 단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 여수가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개최준비도 완벽하다.”고 평가하였다.

(4) 브라보! 2012여수세계박람회!

실사단이 다녀간 후에도 유치위원회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대통령은 ASEM 회의와 APEC 정상회담 등 총 28회에 걸쳐 23개국 정상과 양자교섭을 하고, 고위급 유치사절단 파견시에는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여 여수박람회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국회 특위 차원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여수박람회 유치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중앙유치위원장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밤낮없이 외국에 나가 엑스포 유치를 진두지휘하였고, 명예위원장인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은 그룹차원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파리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10여국 고위급 인사 150명을 직접 면담하여 여수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 GS칼텍스 그룹, 삼성전자 등 다른 그룹들 역시 여수 유치를 위하여 힘을 더하였다.

2007년 11월 27일 새벽 1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2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인 폴란드와 한국 그리고 모로코가 30분씩 예정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예상대로 한국과 모로코의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BIE 140 회원국의 투표가 진행되었다.

1차투표 결과 여수 68표, 탕헤르 59표, 브로츠와프 13표였다. 폴란드가 탈락하고 곧바로 2차투표가 이어졌다. 71표 이상을 획득하면 개최지가 확정되는 것이었지만 1차투표 결과가 예상보다 저조하여서 낙관할 수 없었다.

2차투표 결과 한국은 77표를 얻어 여수 개최가 확정되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도 승리의 함성과 함께 태극기가 밤새 휘날렸다.

3) 2012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노력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2008년 1월 11일에 설립된 박람회종합기본계획은 2012년 5월 12일부터 8

월 12일까지 열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라는 주제아래 지속가능한 해양환경(기후환경, 해양생물), 현명한 해양의 이용(해양산업기술, 도시), 바다와 인간의 창조적인 만남(예술, 문명)을 부제로 선정하였다.

100여개 참가국과 관람객 800만명(외국인 55만명 포함)을 목표로 여수신항 일대 174만m²(박람회장 25만m²)의 대지 위에 총사업비 2조 1,000억원(시설비 1조 7,921억원, 운영비 3,079억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 12.2조, 부가 가치 5.7조, 고용창출 79,000명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3대 비전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전으로는 해양환경의 새로운 비전과 신 해양경제 모델 제시 및 해양문화 창달로 이를 위하여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비하여 해양을 통해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 대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 공존과 협력을 도모하며, 바다를 착취의 대상이 아닌 관리·보존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고 여수시를 해양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 해양경제 선도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전으로는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양에너지 활용기술, 차세대 바이오기술, 연안관리·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등 창조적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해양레포츠, 해양관광업, 차세대 해양교통·조선업, 해양에너지 등 신 해양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발전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지향하는 것이다.

셋째 비전으로는 남해안 선벨트 구상 등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수시 장기발전 구상과 부합하도록 준비함으로써 행사 이후 지역재생 및 지역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수 및 인근 남해 다도해를 세계 수준의 해양문화 관광레저벨트로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목표로 사람과 바다·연안이 함께 하는 박람회, 감동과 참여의 박람회,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체험의 박람회, 국제적 협력과 평화의 박람회, 사후활용에 성공하는 박람회로 설정하였다. 또 탄소배출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test-bed로 활용하는 친환경(Green)박람회, 엑스포디지털 가로(Expo Gallery)를 구현하는 유비쿼터스



▲ 2012세계박람회 개최 부지

(Ubiquitous)박람회, 최신의 디자인으로 주제 구현을 할 디자인(Design)박람회, 문화행사를 주요행사로 다룬 문화(Culture)박람회를 성공개최의 준비전략으로 삼았다.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상황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계획단계, 분야별 세부계획을 세우는 준비단계, 박람회장을 조성하는 현장전개단계, 그리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현장운영단계의 4단계로 되어 있다.

박람회 유치 이후 그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박람회종합기본계획 수립(2008. 1), 박람회 특별법 제정(2008. 3), 조직위원회 설립(2008. 4), 박람회 종합기본계획 BIE 인정(2008. 12) 등이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2008사라고사박람회와 비교 시 BIE로부터의 인정 승인이 약 1년 정도 조기 진행된 것이며, 특히 조직위원회의 경우 대전박람회보다 4개월 늦게 설립하였으나 BIE로부터는 11개월이나 빨리 승인을 받은 것이다. BIE 및 회원국들은 박람회 기본계획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인정승인(BIE 제144차총회, 2008. 12)하고,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준비상황에 대해 높이 평가(BIE 제145차 총회, 2009. 6)하였던 것이다.

또 박람회장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완료(2009. 8)하고 탄소중립형 박람회 단지 조성 종합계획(2009. 9)을 마련하여 2009년 11월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다. 아울러 전시관 건립은 주로 현상공모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관(2009. 8), 주제관(2009. 10), 한국관(2009. 12) 등의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010년 10월 29일 국제관을 마지막으로 모든 전시관을 착공하여 2011년 말까지 건설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숙박시설인 엑스포타운과 아쿠아리움 등 민자사업은 2012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해양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람객에게 참여와 감동의 장을 제공할 전시·문화 영역의 경우 전문적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총감독단을 선임하고(총감독 2명, 부문별 감독 6명, 2010. 6) 각 부문별 프로그램을 확정하였으며 퍼레이드, 해외초청공연 등의 발주를 실시하였다.

해양의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여수선언·여수프로젝트의 추진도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범지구적 협력을 촉구하는 「여수선언」의 초안이 마련되었으며(2010. 12), 개발도상국의 해양 및 환

경관련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여수프로젝트」 시범사업 역시 총 100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2010년 1차년도에는 연구개발·교육훈련 등 지원과제(7개국/12개 과제) 선정 및 과제수행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 선정(2010. 9)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박람회 관련 시설은 다음과 같은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박람회장 내의 시멘트 사일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일로 재활용 지명 현상 공모 결과 세상에서 가장 큰 악기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파도소리(The Sound Wave)」는 사일로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여수 앞바다의 거대한 파도(Wave)의 이미지를 조형화 하였고, 여수의 바람을 담아 바다의 소리(Sound)로 들려주는 파이프오르간과 결합된 독창적인 작품으로 박람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파도 소리」는 사일로 내부의 시멘트 대신 여수의 바닷물을 담아 이를 담수 처리하여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미래의 물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장에 태양광 에너지 공급을 위해 2MW 규모 발전소 건설한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오케스트라, 피아노 분수 조성 무공해 전력 생산, 친환경 이벤트,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에너지 파크가 국내 처음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인근에 조성된다. 이 에너지파크는 여수시 덕충동에 80,539㎡ 규모로 조성되며, 연간 263만KWh의 태양광 발전소와 태양빛을 활용하여 무공해 에너지를 활용한 댄스플로어, 에너지트리, 대형스크린 등이 설치되어 학생 및 단체관람객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함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파크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약 7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온실가스를 연간 1,600톤 감축하고, 270ha의 산림을 가꾸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와 함께 은은한 빛 축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밤을 밝히게 될 것이다. LED Light Art 계획에 의하면 다양한 친환경 조명예술 연출로 박람회장이 한여름 방 빛으로 인해 용궁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박람회장 LED Light Art는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에 따라 「바다와 인간과 빛의 창조적 만남(People Meet in Deep Blue)」을 타이틀로 바다 속 심해로의 초대, 화려한 플랑크톤에 의한 환상적인 빛 축제로 구성되었다. 박람회장은 해가 지고 나면 깊은 바다 속의 은은한 모습이 연출되어 이후 남해안의 중심을 알리는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표5〉 박람회 전시관의 종류와 기능

종 류	성 격 (기 능)
주 최 국 전 시 관 부 제 관	① 주제관 (BPA관)
	② 한국관
	③ 기후환경관
	④ 해양산업기술관
	⑤ 해양문명도시관
	⑥ 해양생물관
	해양예술관
참 가 자 전 시 관	⑦ 지자체관
	⑧~⑪ 국가관
	⑫ 국제기구 / NGO관
	⑬ 기업관1 (임대)
	⑭ 기업관2 (독립)

철도, 도로 등 기간 교통망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KTX(2011년 말), 전주~광양(2012) · 광양~목포(2012) 고속도로, 전라선 복선 전철화(의산~여수, 2011) 등의 철도 · 도로망이 개선되면 수도권은 3시간대, 부산~여수는 2시간대, 목포~여수는 1시간 30분대로 단축될 예정인데 이를 위한 14개 사업 556.4km에 총 9조 5천억원의 예산 중 지금까지 총 5조 7897여원을 투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서는 호텔 3,783실, 콘도 3,566실 등 고급숙박시설을 확충 지원하고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며 조립형 숙박시설, 캠핑카, 휴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 테마형 숙박시설을 확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기업 참여 제고와 박람회장 사후 활용

100여 개 참가국 및 국제기구, 국 · 내외 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 지구적 축제로 승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중점 유치 대상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의 전개로 2010년 11월 현재 72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터키, 스페인 등), 3개 국제기구(OECD, IPCC, PEMSEA)이 공식 참가를 확정지었다.

이는 박람회 개최 19개월전의 수치로 볼 때 1993대전박람회 12개국(최종 108개국), 2008사라고사박람회 61개국(최종 106개국)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박람회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관람객의 유치 제고와 함께 조직위원회의 자체 수입 확보 및 소요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조감도

사업 재정 절감 등을 위해 기업의 박람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기업 CEO 면담, 총리주재 CEO 초청간담회 등을 통해 (주)포스코, 삼성, 현대, GS 등 주요 기업들이 독립기업관의 참가를 결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의 공동기업관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 소요 현물 후원, 개도국 참가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람회 이후 전시관은 사후활용을 감안, '임시/영구시설'로 구분하여 건설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영구시설로는 주제관, 한국관, 국제관 일부, 아쿠아리움 등이다.

아울러 남도문화·다도해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박람회 이후에도 수변광장·해상무대 등에서 상설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6〉 박람회 참가국 신청 현황(72개국)

대 륙	국가 수	국 가 명
유럽	15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미주	12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拉斯,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시아	21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마살군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인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아프리카	17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아, 브루Kirina파소,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이집트,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튜니지
중동	7	사우디아라비아, UAE, 예멘,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카타르
계	72	

(4)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남은 문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건설로 신항이 폐쇄됨에 따라 대체 부두의 건설 문

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여수세계박람회 종합계획상 여수 신항이 관광·레저항만으로 운영됨에 따라 박람회 이후 여수는 항구의 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역민,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힘입어 여수 신항의 무역항 기능유지와 항만 역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대체 항만인 여수 신항 2 단계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총 3,4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100년 무역항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 박람회장 진입시 병목구간 해소, 돌발교통 상황 대처 등을 위해 시내도로 구간에 대한 확장 및 개선 필요성이 전문기관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재원부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1차 권역(1시간 거리) 내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이 상당량 부족하지만 명쾌한 대책없이 부족분은 남해안 일대 주요 도시의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1972년 스ток홀름, 1982년 나이로비, 1992년 리우, 2002년 남아공 선언에 이어 다가오는 2012년에 여수박람회가 약속한 「여수선언」이 교토의 정서보다 활센 유의미한 국제환경협약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유치 확정된 「제4차 세계해양·기상학 총회(JCOMM 총회)」와 함께, 지구환경정상회의나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2012년 여수박람회와 연계해 여수에서 개최한다면 박람회 성공과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국가관(다도해의 유혹)



주제관(하나의 바다)



참고문헌

- 『古突山鎮誌』
『고려사』
『구한국관보』
『국조인물고』
『亂中日記』
『亂中雜錄』
『勞農運動の概況』(조선총독부경부국, 1924)
『담산실기』
『대한매일신보』
『독립운동자료집』(제5집 : 3·1운동재판기록),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동아일보』
『萬機要覽』
『牧場地圖』(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민주신보』
『防踏鎮誌』
『비변사등록』
『삼국사기』
『書經』
『宣武原從功臣錄券』
『송강집』
『順天府邑誌』
『順天府邑誌』(奎 17434, 1792~1800년 撰)
『順天邑誌』(奎 12175, 1871년 撰)
『승정원일기』
『시대일보』
『신증동국여지승람』
『약천집』
『麗水郡邑誌』
『輿地圖書』
『연안차씨대동보』

- 『五忠祠誌』
 『雲樵遺稿』
 『은봉전서』
 『李忠武公全書』
 『일성록』
 『全羅左水營啓錄』
 『조선왕조실록』
 『조선일보』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조선환여승람』
 『증보문현비고』
 『자봉유설』
 『昌原丁氏 文簡公派譜』
 『統監府統計年報』
 『한국산업단지총람 2007』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센터, 2007.
 『韓國施政年報』
 『海州吳氏翰林公派世譜』
 『湖南邑誌』, 『順天牧場事例成冊』(奎 12181, 1895년 撰)
 『湖南節義錄』
 『湖南鎮誌』
 『湖左水營誌』
 『황성신문』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비, 2006

『거문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주민 강제동원에 관한 조사』, 일제강점하강
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 8~19, 1965, 1979~1990.

金鶴有, 『麗水麗川 發展史』, 圖書出版 半島, 1988.

김광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남 편, 『의사 황병학』, 전광산업사, 1983.

- 김덕진, 「이대원과 정운, 그리고 쌍총사」, 『해양문화연구』 2집, 2009.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0.
- 金相鉉, 「義僧將 慈雲·玉洞 二禪師考」『전라좌수영과 임진왜란 義僧水軍의 활동』(全羅左水營 再照明 學術大會), 1996.
- 김성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사상 고찰」, 『이순신연구』 창간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03.
- 김인덕, 「일제시대의 여수지역사」, 여수시문화원, 2006.
- 김점숙, 「1930년대 전반기 전남지방 조선공산당재건운동 연구」, 이대대학원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정호, 「지방연혁연구 -전남을 중심으로-」, 1988.
- 김진봉 외, 「지방행정구역변천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 『호서문화연구』 1, 1981.
- 金鉉丘, 「朝鮮後期 統制營의 財政運營에 관한 研究-統營穀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 김현구, 「조선후기의 통영」『統營市史』上, 統營市史編纂委員會, 1999.
- 南都泳, 「朝鮮時代의 馬政研究」, 『韓國學研究』 1, 1976.
-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터, 「전국공업단지현황」, 1995.
- 돌산읍지편찬위원회, 「돌산읍지」, 동아기획, 2000.
- 디지털여수문화대전 <http://yeosu.grandculture.net>
- 文榮龜, 「全羅左水營研究」, 『(社) 大韓建設振興會』, 1992.
- 박환, 「나철의 인물과 활동」, 『동아연구』 17, 1989.
- 박수철, 「세계박람회와 지역문화」(2), 심미안, 2008
- 朴時亨, 「朝鮮土地制度史」中, 신서원, 1994.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역사」, 上海: 유신사, 1920(『박은식전서』 상, 단국대 출판부, 1975)
-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邊東明, 「朝鮮時代 突山島 防踏鎮의 설치와 그 구조」, 『韓國史學報』 27, 2007.
- 邊東明, 「조선시대의 突山鎮과 古突山鎮」, 『歷史學報』, 198, 2008.
- 변동명, 「韓國中世의 地域社會研究」, 『學研文化社』, 2002.
- 여수지역회연구소 편집, 「여수의 향기 아름다움이 여기에」, 이례기획, 2007.

- 산업자원부,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국가·지방·농공단지」, 2007.
- 삼려통합사편찬위원회, 「삼려통합사」, 여수신문사출판부, 2004.
- 삼산면지편찬위원회, 「삼산면지」, 동아기획, 1998.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1999.
- 서중석,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2007.
-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의 유형과 추이」, 「경북사학」 17·18, 1995.
- 송양섭, 「壬辰倭亂期 國家의 屯田 設置와 經營」, 「한국사학보」 7, 1999.
- 宋亮燮, 「朝鮮後期 軍·衙門 屯田의 經營形態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 송은일, 「곡화목장의 설치와 운영」, 「2009년 상반기 전남대학교 이순신해 양문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9.
- 송은일, 「조선시대 興陽縣의 목장」, 「海洋文化研究」 2, 2009.
-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강남악부」, 1992.
- 순천대학교박물관·여수시,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1993.
-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사」, 1997.
- 신동규, 「VOC의 동북아시아 진출에 보이는 조선무역 단절과 일본무역 유 지정책」, 「한일관계사연구」 제22호, 한일관계사학회, 2005.
- 신동규, 「オランダ人漂流民と朝鮮の西洋式兵器の開発」, 「史苑」 61-1, 2000.
- 신동규, 「훈련도감의 신식무기 개발과 서양 이국인 등용정책」, 「향토서울」 6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3.
- 신동규, 「근세 동아시아 속의 日·朝·蘭 국제관계사」, 경인문화사, 2007.
- 신윤호, 「임진왜란 중 이순신일가의 동태와 이순신의 효의」, 「이순신연구 논총」 제8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07.
- 신주백,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연구」(1) 새길, 1989.
- 阿部薫, 「朝鮮金融組合大觀」, 民衆時論社, 1935
- 「울산·여수산단 특별대책지역 대기오염(SO₂)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환경부, 2004.
-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여수·여천향토지」, 1982.
- 「여수사회과학연구회,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 여수청년전위동맹, 독서 회조직 사건」, 「사상휘보」(8),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7.9
- 여수상공회의소, 「2006~2007 여수상공현황」, 2006.
- 여수상공회의소, 「광역광양만권 연구백서」, 2006.



- 여수상공회의소,『세계박람회와 여수도시발전』, 1999.
- 여수시,『여수 중장기종합발전계획』, 2001.
- 여수시,『여수산단 사고사례집』, 2005.
- 여수시,『여수시 문화재도록』, 2001.
- 여수시,『통계연보』, 2007.
- 여수시,『통계연보』, 2008.
- 麗水市·社團法人 여수지역사회연구소,『李忠武公과 여수 五忠祠』, 2006.
- 여수시·조선대학교 박물관,『여수시의 문화유적』, 디자인아트, 2000.
- 여수항일운동사편찬위원회 편,『麗水抗日運動史』, 선인, 2006.
- 여천시문화원,『여천시지-역사편』, 1998.
- 여천시문화원,『여천시지-지리·역사·정치·산업』, 1998.
- 오봉근·손영종,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1998.
- 오종록,『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이순신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제언』,『韓國史學報』16, 2004.
- 온창일,『한민족전쟁사』,『집문당』, 2001.
- 유광호 외,『한국 유신시대의 경제정책』, 정신문화연구원, 2003.
- 유광호 외,『한국 제1·2공화국의 경제정책』, 정신문화연구원, 1999.
- 유광호 외,『한국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 정신문화연구원, 1999.
- 유영휘,『한국의 공업단지』, 국토개발연구원, 1998.
-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研究室,『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 율촌면지편찬위원회,『율촌면지』, 1998.
- 이 철,『여수세계박람회포럼 2012』, 심미안, 2008.
- 李景植,『朝鮮初期屯田의 設置와 經營』,『韓國史學報』21·22, 1979.
- 이민웅,『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6.
- 李丙燾,『하멜漂流記』, 一潮閣, 1954.
- 이병현,『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1959.
- 이은상,『고흥 쌍총사 사적』,『민족문화협회』, 1980.
- 이은상,『완역 이충무공전서』上·下, 성문각, 1989.
- 李益泰著,『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 이일룡 역,『전남폭도사』, 전남일보인서관, 1977.
- 이장희,『임진왜란사연구쟁』,『아세아문화사』, 2007.

- 李載禡, 「朝鮮初期屯田考」, 『歷史學報』29, 1965.
- 임경석,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한국사강좌』(10) 한길사, 1992.
- 임병찬, 「의병항쟁일기」, 한국인문과학원, 1986.
- 長節子, 「中世 國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2002, 40 72쪽.
- 전남대학교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2008.
- 정병욱, 「한국근대금융연구」, 역사비평사, 2004
- 정약전저, 정문기 역, 「자산어보」, 지식사업사, 1977, 28쪽.
- 鄭清柱, 「全羅左水營의 역사와 문화」, 正文社, 1993
- 정희성 · 이창훈 · 김명미, 「환경갈등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5.
- 「조선공산당 재건전남동맹 강령」, 『사상월보』(4-2),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4.5
- 조선대학교국사연구소, 「여천군의 문화유적」, 1988.
-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 「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 1918.10
- 『朝鮮における工場及労動組合』(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 「조선사상운동조사자료」(1), 1932.
- 趙浚來,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正文社, 1993.
- 조원래,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 조원래, 「백성의 눈으로 본 역사」, 도서출판 큰기획, 2000.
- 조찬석, 「1920년대 전라남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논문집』(20), 1987.
- 左水營別砲衛新設節目軍案分畝量案并錄成冊, 高宗 7년(1870년).
- 지수걸, 「1930년대 조선의 농민조합운동연구」, 고려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 1990.
- 차행천, 「역사유적을 통한 중학교 지방사교육 –여수지역의 예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최봉수, 「고려-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의 등급제와 승강제를 통한 중앙 통제」, 『한국공공관리학보』20, 2006.
- 최봉수, 「朝鮮時代 地方行政區域의 整備에 관한 研究 – 州·府·郡·縣을 中心으로」, 『정책과학연구』5, 1993.
- 최인선, 「여수 곡화목장성의 고고학적 고찰」, 「2009년 상반기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9.
- 최재성,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와 금융조합」, 경인문화사, 2006



- 片岡議 編, 「南鐵沿線史」, 片岡商店, 1933
- 片岡議 編, 「麗水發展史」, 片岡商店, 1928
- 「通政大夫星州判官贈資憲大夫兵曹判書訓練院事忠毅丁公神道碑銘 幷書」,
(1971년 重陽節 丁相夷 撰).
- 「通政大夫行草溪郡守贈資憲大夫兵曹判書訓練院事忠節丁公神道碑銘 幷
書」, (1959년 9월, 瑞興 金奎太 撰).
- 한국공단연구소, 「한국공단총람」, 2003.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5년사」, 1994.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
인학살 실태보고서」, 한울, 2005
- 한글학회, 「한국의 지명총람」15, 1983.
- 한길사 편, 「한국사」, , 1994
-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 : 일제하 조선경제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2005.
-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 홍영기, 「강진원 의병장의 생애와 활동」, 「남도문화연구」12, 2006.
- 홍영기, 「구한말 전라남도 도서지방 의병에 대한 일고찰」, 「東亞研究」21,
1990.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독립기념관, 2009.
- 황기형, 박광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방안연구」, 한국해양발
전연구원, 2009.
-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광복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1989.
- 황현, 「매천야록」, 국사편찬위원회, 1955.